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Ⅱ)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청과 용역계약(2004. 3. 24)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 순 일

##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체계는 UN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1978년에 성안되었고, 1979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다. 사회지표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국민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해 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화한 것이 사회지표체계이다. 1978년 성안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 1차 개편에 이어 1995년에 2차 개편한 바 있으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행 지표체계를 새로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본 연구원은 통계청의 용역의뢰에 따라 현재의 지표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각 부문별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원내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내에 사회지표 체계개편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였다. 또한, 사계의 권위자 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의 기본방향 설정, 13개 부문간 지표내용의 조정, 중간 및 최종 연구결과의 검토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제1권과 제2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사회지표체계를 총괄하고 이 분야에 관심있는 정부, 학계,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제1장에는 사회지표의 정의, 역사, 국제적 동향 등을, 제2장에서는 사회지표의 개편방향을, 제3장에서

는 사회지표체계의 개편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사회지표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용어해설 및 산식을 그리고 제6장에는 종합지수를, 제7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제언을 수록하였다. 제2권에는 각 부문별 지표체계 개편의 내용 및 여성부문의 참고지표 그리고 시산표를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사회지표체계가 실제 사회지표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변화상을 잘 반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은 그동안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통계청의 선주대 국장, 권오솔과장, 전신애과장, 우사임사무관, 나윤정사무관 그리고 김응하, 서경숙 선생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행과정에서 본 연구의 각 단계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권태환 서울대 교수, 김태현 교원대학교 교수,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이승욱 서울대 교수, 조남훈 건강증진사업평가단 단장 등 자문위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본원의 정경희 연구위원과 최병호 연구위원께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 목 차

제1장 인 구 .....	29
제1절 서론 .....	29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32
제3절 신 지표체계 .....	46
제4절 결론 .....	51
제2장 가구와 가족 .....	56
제1절 서론 .....	56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58
제3절 신 지표체계 .....	67
제4절 결론 .....	76
제3장 소득과 소비 .....	78
제1절 서론 .....	78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79
제3절 신 지표체계 .....	85
제4절 결론 .....	91
제4장 노 동 .....	95
제1절 서론 .....	95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96
제3절 신 지표체계 .....	99
제4절 결론 .....	119
제5장 교육 .....	125
제1절 서론 .....	125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26

제3절 신 지표체계 .....	132
제4절 결론 .....	139
제6장 보건 .....	142
제1절 서론 .....	142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45
제3절 신 지표체계 .....	166
제4절 결론 .....	175
제7-1장 주거와 교통: 주거 .....	179
제1절 서론 .....	179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81
제3절 신 지표체계 .....	188
제4절 결론 .....	199
제7-2장 주거와 교통: 교통 .....	201
제1절 서론 .....	201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202
제3절 신 지표체계 .....	209
제4절 결론 .....	216
제8장 정보와 통신 .....	217
제1절 서론 .....	217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 설정 .....	218
제3절 신 지표체계 .....	227
제4절 결론 .....	236
제9장 환경 .....	238
제1절 서론 .....	238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 설정 .....	240
제3절 신 지표체계 .....	279
제4절 결론 .....	291

제10장 복 지 .....	297
제1절 서론 .....	297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299
제3절 신 지표체계 .....	316
제4절 결론 .....	328
제11장 문화와 여가 .....	331
제1절 서론 .....	331
제2절 기존지표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 방향설정 .....	333
제3절 신 지표체계 .....	344
제4절 결론 .....	359
제12장 안전 .....	360
제1절 서론 .....	360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361
제3절 신 지표체계 .....	392
제4절 결론 .....	409
제13장 정부와 사회참여 .....	412
제1절 서론 .....	412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413
제3절 신 지표체계 .....	415
제4절 결론 .....	420
□ 여성 .....	422
제1절 서론 .....	422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423
제3절 신 지표체계 .....	430
제4절 결론 .....	440
부록(시산표) .....	441

## 표 목 차

〈표 2-1- 1〉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SSDG)」 (인구부분)의 지표체계와 지표항목, 1975 ……	33
〈표 2-1- 2〉 미국의 사회지표 체계(인구 및 가족 부분) ……	35
〈표 2-1- 3〉 영국의 사회지표(인구부분), 1988 ……	36
〈표 2-1- 4〉 영국의 사회지표(인구부분), 2004 ……	38
〈표 2-1- 5〉 일본의 사회생활 통계지표(인구부분), 2004 ……	40
〈표 2-1- 6〉 기존체계와 신체계(인구부분)의 구성비교 ……	44
〈표 2-1- 7〉 기존체계와 신체계의 구성비교 ……	47
〈표 2-1- 8〉 신체계에서 첨가 또는 조정된 지표들 ……	50
〈표 2-1- 9〉 신 사회지표 인구부분 체계표(안) ……	53
〈표 2-2- 1〉 1995년 개편당시 제안된 가족부문 지표체계 ……	59
〈표 2-2- 2〉 1995년 개편이후 확정된 가족부문 지표 체계 ……	64
〈표 2-2- 3〉 가족부문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의 새로운 개편안 ……	69
〈표 2-2- 4〉 기존 개별지표의 새 지표체계에서의 위치 ……	72
〈표 2-2- 5〉 가구와 가족 부문 지표체계 개편안 ……	74
〈표 2-3- 1〉 미국의 사회지표체계(소득과 생산성) ……	80
〈표 2-3- 2〉 일본의 사회지표(경제적 안정) ……	82
〈표 2-3- 3〉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소득분포, 소비, 재산형성 영역) ……	84
〈표 2-3- 4〉 OECD의 사회적 관심영역(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	84
〈표 2-3- 5〉 소득과 소비 부문 지표체계 비교 ……	86
〈표 2-3- 6〉 소득과 소비 부문 신 사회지표체계 ……	89
〈표 2-4- 1〉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	101
〈표 2-4- 2〉 취업자의 구성 ……	102
〈표 2-4- 3〉 근로조건 ……	105
〈표 2-4- 4〉 노동이동 ……	108

〈표 2-4- 5〉	훈련 및 기술자격 .....	109
〈표 2-4- 6〉	고용보험 .....	110
〈표 2-4- 7〉	산업안전 .....	111
〈표 2-4- 8〉	노동생산성 .....	111
〈표 2-4- 9〉	노사관계 .....	112
〈표 2-4-10〉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	112
〈표 2-4-11〉	1995년 개편안을 기준으로 한 비교 .....	117
〈표 2-4-12〉	신지표체계의 구성 .....	118
〈표 2-5- 1〉	1980년, 1990년, 2000년의 교육부문 개별지표 항목 비교 .....	130
〈표 2-5- 2〉	1995년과 2004년의 교육부문 지표체계 비교 .....	133
〈표 2-5- 3〉	신 지표(교육부문)에서 삭제된 기존의 개별지표들 .....	134
〈표 2-5- 4〉	신 지표(교육부문)에서 첨가 또는 조정된 개별지표들 .....	136
〈표 2-5- 5〉	신 사회지표체계(교육부문) .....	137
〈표 2-6- 1〉	UN의 보건지표체계와 지표항목 .....	146
〈표 2-6- 2〉	2002년 OECD의 보건통계 요구항목 .....	148
〈표 2-6- 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보건지표체계 .....	149
〈표 2-6- 4〉	미국의 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	151
〈표 2-6- 5〉	미국의 국민건강증진의 사업내용 및 보건지표 .....	152
〈표 2-6- 6〉	영국의 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	154
〈표 2-6- 7〉	호주의 보건지표체계 .....	155
〈표 2-6- 8〉	일본의 보건지표체계(일본 사회생활통계지표내의 건강 및 의료부문) .....	157
〈표 2-6- 9〉	1987년 사회지표체계(보건부문) .....	160
〈표 2-6-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보건지표체계(1995) .....	161
〈표 2-6-11〉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 보건부문 .....	163
〈표 2-6-12〉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결과의 보건지표체계 .....	164
〈표 2-6-1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건지표체계 .....	167
〈표 2-6-14〉	본 연구에서 삭제된 개별지표와 신규 개별지표 .....	174
〈표 2-6-15〉	신·구 지표체계의 비교 .....	175

〈표 2-7- 1〉 10개의 선정지표와 기타 주요지표 .....	187
〈표 2-7- 2〉 기존체계와 새로운 체계의 구성 비교 .....	189
〈표 2-7- 3〉 새로운 지표체계(주거부문)에서 제외된 개별지표 .....	191
〈표 2-7- 4〉 새로운 체계(주거부문)에서 조정된 개별지표 .....	192
〈표 2-7- 5〉 새로운 체계(주거부문)에서 추가된 개별지표 .....	196
〈표 2-7- 6〉 새로운 지표체계(주거부문) .....	197
〈표 2-7- 7〉 1995년 사회지표체계 중 교통부문 .....	203
〈표 2-7- 8〉 국가주요교통통계의 교통주요지표 .....	207
〈표 2-7- 9〉 기존지표체계와 신지표체계의 관심영역 비교 .....	210
〈표 2-7-10〉 교통부문 신지표체계 .....	215
〈표 2-8- 1〉 Communication Outlook 2003 목차 .....	219
〈표 2-8- 2〉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 2003 목차 .....	220
〈표 2-8- 3〉 The Networked Readiness Index 구성 .....	221
〈표 2-8- 4〉 EIU e-Readiness index 구성 .....	222
〈표 2-8- 5〉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	223
〈표 2-8- 6〉 정보화백서 통계 구성 .....	224
〈표 2-8- 7〉 정보화실태조사 목차 .....	226
〈표 2-8- 8〉 정보와 통신 지표 (2003년) .....	230
〈표 2-8- 9〉 정보와 통신 신지표체계(안) .....	235
〈표 2-9- 1〉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2001년) .....	243
〈표 2-9- 2〉 OE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 .....	246
〈표 2-9- 3〉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1) .....	248
〈표 2-9- 4〉 아·태 지역에서 제시된 관련 이슈 .....	251
〈표 2-9- 5〉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1) .....	253
〈표 2-9- 6〉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	256
〈표 2-9- 7〉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	258
〈표 2-9- 8〉 가나·나와와의 지방의제 21에서 채택한 지표 .....	263
〈표 2- 9-9〉 중국의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	266

〈표 2- 9-10〉	대만의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 .....	270
〈표 2- 9-11〉	환경부분 승인통계 현황(2004년 9월1일 현재) .....	273
〈표 2- 9-12〉	OECD 환경통계 작성 현황(2002년 기준) .....	275
〈표 2- 9-13〉	국내 주요 환경통계자료 .....	275
〈표 2- 9-14〉	OECD통계 부문별 작성수준 .....	276
〈표 2- 9-16〉	지표 통계를 분리한 한국의 사회지표(환경부문) .....	281
〈표 2- 9-17〉	환경압력 영역 새로운 지표체계 .....	284
〈표 2- 9-18〉	환경상태 영역 새로운 지표체계 .....	286
〈표 2- 9-19〉	환경관리 영역 새로운 지표체계 .....	287
〈표 2- 9-20〉	새로운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 .....	289
〈표 2-10- 1〉	1978년 최초의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사회보장 .....	302
〈표 2-10- 2〉	1987년 사회지표체계 중 복지관련 지표 .....	303
〈표 2-10- 3〉	1994년 사회지표체계 중 복지관련 지표 .....	304
〈표 2-10- 4〉	1995년 사회지표체계(복지부문) .....	305
〈표 2-10- 5〉	사회복지관련 지표 .....	309
〈표 2-10- 6〉	국제기구의 사회지표체계 .....	311
〈표 2-10- 7〉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체계(복지·사회보장) .....	314
〈표 2-10- 8〉	1995년 지표에서 삭제된 지표 및 추가된 지표 .....	325
〈표 2-10- 9〉	신·구 지표체계의 비교 .....	325
〈표 2-10-10〉	신 사회지표체계(복지부문) .....	326
〈표 2-11- 1〉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구성원리(UNESCO, 1986) .....	334
〈표 2-11- 2〉	호주의 문화·여가 분류체계(호주통계청, 2001) .....	336
〈표 2-11- 3〉	일본통계연감의 문화부문(일본통계국, 2004) .....	338
〈표 2-11- 4〉	2003 문화와 여가부문 지표 .....	340
〈표 2-11- 5〉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문화관광부, 2000) .....	343
〈표 2-11- 6〉	문화·여가부문 관심영역 및 세부관심영역 .....	346
〈표 2-11- 7〉	2003 문화와 여가부문 지표의 변경내역 .....	349
〈표 2-11- 8〉	2004 신지표체계 .....	358

〈표 2-12- 1〉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안전관련 지표 .....	363
〈표 2-12- 2〉 국제연합의 사회통계체계(공공질서와 안전, 범죄와 범죄피해) .....	364
〈표 2-12- 3〉 범죄통계체계화를 위한 틀 .....	366
〈표 2-12- 4〉 범죄자료 집계 의 예시 .....	367
〈표 2-12- 5〉 범죄피해인구비율의 국제비교(1999) .....	369
〈표 2-12- 6〉 OECD 사회적 관심체계: 개인안전과 범집행(1976) .....	370
〈표 2-12- 7〉 OECD 안전관련 지표(1982) .....	371
〈표 2-12- 8〉 OECD 사회지표체계 중 ‘사회통합’ 관련지표(2002) .....	373
〈표 2-12- 9〉 미국의 ‘공공안전’사회지표(1980) .....	375
〈표 2-12-10〉 ‘변화하는 미국’ 범죄관련 지표(1998) .....	377
〈표 2-12-11〉 영국의 ‘사회추세’중 범죄와 정의부문 지표(2004) .....	378
〈표 2-12-12〉 독일의 ‘공공안전과 범죄’ 부문 지표(2004) .....	381
〈표 2-12-13〉 캐나다의 ‘개인안전지수’ 중 안전관련지표(2003) .....	383
〈표 2-12-14〉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 중 안전관련 지표 .....	384
〈표 2-12-15〉 안전부문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의 변화 .....	386
〈표 2-12-16〉 안전부문 지표체계(1995) .....	389
〈표 2-12-17〉 안전관련부문의 ‘관심영역’의 비교 .....	394
〈표 2-12-18〉 기존체계와 신체계의 관심영역 구성비교 .....	398
〈표 2-12-19〉 검토한 지표의 관심영역별 배분 .....	400
〈표 2-12-20〉 기존 안전부문체계(1995)에서 삭제된 개별지표 .....	401
〈표 2-12-21〉 신 체계(안전부문)에서 조정된 기존지표 .....	402
〈표 2-12-22〉 안전부문 신규지표 .....	403
〈표 2-12-23〉 신지표체계(2005)의 구성 .....	406
〈표 2-13- 1〉 명칭변경 비교 .....	416
〈표 2-13- 2〉 사회참여부문 기존체계와 신 체계의 구성비교 .....	416
〈표 2-13- 3〉 정부부문 신체계의 구성 .....	417
〈표 2-13- 4〉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사회참여부문)에서 조정 또는 첨가된 개별지표들 ..	418
〈표 2-13- 5〉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정부부문)에서 조정 또는 첨가된 개별지표들 ..	419



〈표 2-13- 6〉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사회참여부문) .....	419
〈표 2-13- 7〉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정부부문) .....	420
〈표 2-14- 1〉 The World's Women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장별 구성 .....	424
〈표 2-14- 2〉 주요 젠더통계간행물의 특징 .....	426
〈표 2-14- 3〉 국내의 여성사회지표체계 .....	429
〈표 2-14- 4〉 여성관련 사회지표 제안체계 .....	434
〈표 2-14- 5〉 기존 지표 중 삭제제안 지표 .....	440

#### 〈시산표〉

〈표 3-1- 1〉 총 인 구 .....	443
〈표 3-1- 2〉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	443
〈표 3-1- 3〉 국적별 외국인 인구 .....	444
〈표 3-1- 4〉 장래추계인구 .....	444
〈표 3-1- 5〉 성·연령별 인구 .....	445
〈표 3-1- 6〉 중위연령 .....	446
〈표 3-1- 7〉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	447
〈표 3-1- 8〉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	448
〈표 3-1- 9〉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449
〈표 3-1-10〉 혼인상태별 인구 .....	450
〈표 3-1-11〉 기혼인구(30~49세)의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 .....	451
〈표 3-1-12〉 지역별 인구 구성비 .....	452
〈표 3-1-13〉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	453
〈표 3-1-14〉 도시인구 및 성장요인 .....	454
〈표 3-1-15〉 출생아수 및 출생시성비 .....	455
〈표 3-1-16〉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및 순재생산율 .....	456
〈표 3-1-17〉 코호트별 연령별출산율 및 누적출산율 .....	457
〈표 3-1-18〉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	458
〈표 3-1-19〉 연령별 인공임신중절을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459
〈표 3-1-20〉 이상자녀수 및 자녀수에 대한 선호 .....	460

〈표 3-1-21〉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 .....	461
〈표 3-1-22〉 교육정도 및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비 .....	462
〈표 3-1-23〉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및 사망률 .....	463
〈표 3-1-24〉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	464
〈표 3-1-25〉 지역별 전출·전입인구 및 순인구이동률 .....	465
〈표 3-1-26〉 지난 1년간 이주 원인별 구성비 .....	466
〈표 3-1-27〉 지역별 국제인구이동 .....	467
〈표 3-1-28〉 해외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	468
〈표 3-1-29〉 이민에 대한 태도 및 선호하는 이민지역 .....	469
〈표 3-1-30〉 지역별 주간인구 .....	470
〈표 3-2- 1〉 가구의 종류 분포 .....	471
〈표 3-2- 2〉 인구의 거주 가구종류별 분포 .....	471
〈표 3-2- 3〉 일반가구의 성구성 및 연령분포 .....	472
〈표 3-2- 4〉 가족의 세대구성 .....	473
〈표 3-2- 5〉 가족의 종류별 분포 .....	473
〈표 3-2- 6〉 새로운 가족의 추세 .....	474
〈표 3-2- 7〉 평균초혼, 이혼 및 재혼연령 .....	474
〈표 3-2- 8〉 조혼인율, 조이혼율 및 재혼자비율 .....	475
〈표 3-2- 9〉 특별가족추세 .....	475
〈표 3-2-10〉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 분포 .....	476
〈표 3-2-11〉 연령집단별 노인의 가구생활 .....	476
〈표 3-2-12〉 주 노인생계지원 형태 .....	477
〈표 3-2-13〉 부차 생계지원 형태 .....	477
〈표 3-2-14〉 노인들의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 .....	478
〈표 3-2-15〉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	478
〈표 3-2-16〉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 .....	479
〈표 3-2-17〉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479
〈표 3-2-18〉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	480
〈표 3-2-19〉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 .....	480
〈표 3-2-20〉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481

〈표 3-2-21〉	독신에 대한 태도 .....	481
〈표 3-2-22〉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	482
〈표 3-2-23〉	이혼에 대한 태도 .....	482
〈표 3-2-24〉	재혼에 대한 태도 .....	483
〈표 3-2-25〉	미혼모에 대한 태도 .....	483
〈표 3-2-26〉	입양에 대한 태도 .....	484
〈표 3-2-27〉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	484
〈표 3-3- 1〉	GNI, GDP 및 1인당 GNI .....	485
〈표 3-3- 2〉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개인처분가능 .....	486
〈표 3-3- 3〉	월소득 계층별 가구분포 .....	487
〈표 3-3- 4〉	농가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	488
〈표 3-3- 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원천별 구성 .....	489
〈표 3-3- 6〉	지역내 총생산 및 생산구조 .....	490
〈표 3-3- 7〉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재화형태별 소비지출 (당해년 가격) .....	491
〈표 3-3- 8〉	정부최종소비지출 및 재화형태별 소비지출 (당해년 가격) .....	492
〈표 3-3- 9〉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	493
〈표 3-3-10〉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성향 및 흑자율 .....	494
〈표 3-3-11〉	총저축률 및 총투자율 .....	494
〈표 3-3-12〉	저축, 부채 보유 실태(2000) .....	495
〈표 3-3-13〉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노동소득 분배율, 조세부담률 .....	496
〈표 3-3-14〉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	497
〈표 3-3-15〉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	498
〈표 3-3-16〉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 및 수출입물가지수 .....	499
〈표 3-3-17〉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	500
〈표 3-4- 1〉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	501
〈표 3-4- 2〉	실업률 .....	502
〈표 3-4- 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	503
〈표 3-4- 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504
〈표 3-4- 5〉	직업별 취업자구성비 .....	505
〈표 3-4- 6〉	55세 이상 취업자비율 .....	508

〈표 3-4-7〉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	510
〈표 3-4-8〉 외국인 고용현황경 .....	511
〈표 3-4-9〉 장애인 고용현황 .....	513
〈표 3-4-10〉 산업별 주당근로시간 .....	514
〈표 3-4-11〉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	515
〈표 3-4-12〉 산업별 평균근속기간 .....	516
〈표 3-4-13〉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	517
〈표 3-4-14〉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	519
〈표 3-4-15〉 산업별 입직률 .....	521
〈표 3-4-16〉 산업별 이직률 .....	522
〈표 3-4-17〉 직업훈련자수 .....	523
〈표 3-4-18〉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	524
〈표 3-4-19〉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	525
〈표 3-4-20〉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	526
〈표 3-4-21〉 건강진단 수검률 및 직업별 근로자 비율 .....	527
〈표 3-4-22〉 산업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및 재해사망률경 .....	528
〈표 3-4-23〉 노동생산성지수 .....	529
〈표 3-4-24〉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	530
〈표 3-4-25〉 직업선택요인 .....	531
〈표 3-4-26〉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532
〈표 3-4-27〉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	536
〈표 3-4-28〉 여성취업장애요인 .....	538
〈표 3-5-1〉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	540
〈표 3-5-2〉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541
〈표 3-5-3〉 자녀교육의 목적 .....	542
〈표 3-5-4〉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	543
〈표 3-5-5〉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	544
〈표 3-5-6〉 취학을 .....	545
〈표 3-5-7〉 진학을 .....	546
〈표 3-5-8〉 중도 탈락률 .....	547

〈표 3-5- 9〉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	548
〈표 3-5-10〉	인구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	549
〈표 3-5-11〉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	550
〈표 3-5-12〉	교육기회 미충족 및 이유 .....	551
〈표 3-5-13〉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2000, 복수응답) .....	552
〈표 3-5-14〉	학생현황 .....	553
〈표 3-5-15〉	전공분야별 대학생수 .....	554
〈표 3-5-16〉	교원현황 .....	555
〈표 3-5-17〉	각급 학교 교원 세부현황 .....	556
〈표 3-5-18〉	교원의 이·직률 .....	557
〈표 3-5-19〉	사무직원당 교원수 .....	558
〈표 3-5-20〉	학급당 학생수 .....	559
〈표 3-5-21〉	학생 1인당 건물·교지·체육장 면적 .....	560
〈표 3-5-22〉	학생 1인당 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 .....	561
〈표 3-5-23〉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563
〈표 3-5-24〉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 .....	564
〈표 3-5-25〉	급식실시 학교 및 학생비율 .....	565
〈표 3-5-26〉	GDP 대비 공교육비 .....	566
〈표 3-5-27〉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	567
〈표 3-5-28〉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비고등교육기관) .....	568
〈표 3-5-28〉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고등교육기관) .....	569
〈표 3-5-29〉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	570
〈표 3-5-30〉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571
〈표 3-5-31〉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572
〈표 3-5-32〉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573
〈표 3-5-33〉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574
〈표 3-5-34〉	학업성취수준 .....	575
〈표 3-5-35〉	학교 교육의 효과 .....	576
〈표 3-5-36〉	졸업생 취업률 .....	577
〈표 3-5-37〉	계열별 학위 취득자 .....	578

〈표 3-5-38〉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579
〈표 3-5-39〉 비행 학생 비율 .....	580
〈표 3-5-40〉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 .....	581
〈표 3-5-41〉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582
〈표 3-5-42〉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	583
〈표 3-5-43〉 교사의 직업 만족도 .....	584
〈표 3-6- 1〉 기대여명 및 건강기대여명 .....	585
〈표 3-6- 2〉 학생의 평균신장, 체중, 흉위 및 비만을 .....	585
〈표 3-6- 3〉 정신질환 유병률 .....	586
〈표 3-6- 4〉 치매노인수 및 유병률 .....	586
〈표 3-6- 5〉 초등학교 5학년 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 및 무치아노인 비율 .....	586
〈표 3-6- 6〉 주관적 건강평가 및 스트레스 인식 정도 .....	587
〈표 3-6- 7〉 1인 1일 열량,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 섭취량 .....	587
〈표 3-6- 8〉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	588
〈표 3-6- 9〉 성인비만을 및 규칙적 식사, 규칙적 운동, 정상수면을 하는 비율 .....	589
〈표 3-6-10〉 영아사망률, 주산기사망률, 모성사망률 및 저체중아 출생률 .....	589
〈표 3-6-11〉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	590
〈표 3-6-12〉 암 사망률 .....	590
〈표 3-6-13〉 AIDS 환자수 및 유병률 .....	591
〈표 3-6-14〉 주요 만성전염병 유병률 .....	591
〈표 3-6-15〉 만성질환 유병률 .....	591
〈표 3-6-16〉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	592
〈표 3-6-17〉 2주간 유병률, 연간 1인당 평균 활동제한일수 및 외병일수 .....	592
〈표 3-6-18〉 건강검진을 및 암검진을 .....	593
〈표 3-6-19〉 예방접종률 .....	593
〈표 3-6-20〉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 의료이용 .....	593
〈표 3-6-21〉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이용 및 병상이용률 .....	594
〈표 3-6-22〉 구급차 수 및 구급차 출장건수 .....	594
〈표 3-6-23〉 의료인력수 .....	595
〈표 3-6-24〉 인구당 및 병상당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수 .....	595

〈표 3-6-25〉 의료기관수 .....	596
〈표 3-6-26〉 의료기관 병상수 .....	596
〈표 3-6-27〉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	597
〈표 3-6-28〉 국민의료비지출 .....	597
〈표 3-6-29〉 정부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 .....	598
〈표 3-6-30〉 고가장비 보유대수 .....	598
〈표 3-7- 1〉 주택보급 및 주택투자율 .....	599
〈표 3-7- 2〉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	600
〈표 3-7- 3〉 건축년도 및 주택형태별 주택분포 .....	601
〈표 3-7- 4〉 연건평별 주택 분포 .....	601
〈표 3-7- 5〉 주택마련 방법 .....	602
〈표 3-7- 6〉 도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	603
〈표 3-7- 7〉 주택에 대한 만족도 .....	604
〈표 3-7- 8〉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 .....	605
〈표 3-7- 9〉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	606
〈표 3-7-10〉 현주택 거주년수 .....	607
〈표 3-7-11〉 주택 마련 시기 .....	608
〈표 3-7-11〉 Time of Purchasing Own House .....	609
〈표 3-7-12〉 결혼후 내집 마련시까지 이사횟수 .....	610
〈표 3-7-13〉 현거주지 선택이유 .....	612
〈표 3-7-14〉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613
〈표 3-7-15〉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이유 .....	614
〈표 3-7-16〉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	615
〈표 3-7-17〉 주거 공간 .....	615
〈표 3-7-18〉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	616
〈표 3-7-19〉 자동차 차고지 확보유무(2000) .....	617
〈표 3-7-20〉 교통기반시설규모 .....	618
〈표 3-7-21〉 교통수단보유규모 .....	618
〈표 3-7-22〉 건설교통예산 .....	619
〈표 3-7-23〉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	619

〈표 3-7-24〉	통행목적별 통행회수	620
〈표 3-7-25〉	자동차등록현황	620
〈표 3-7-26〉	통근·통학 교통수단	621
〈표 3-7-27〉	통근·통학 소요시간(및 거리)	621
〈표 3-7-28〉	버스·지하철 접근성	622
〈표 3-7-29〉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622
〈표 3-7-30〉	교통문제	622
〈표 3-7-31〉	교통수단별 만족도	623
〈표 3-7-32〉	자가용 이용시 교통문제	623
〈표 3-7-33〉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문제	623
〈표 3-7-34〉	통근·통학비용	624
〈표 3-7-35〉	도로교통혼잡비용	624
〈표 3-7-36〉	물류비용	624
〈표 3-7-37〉	도로교통사고비용	625
〈표 3-7-38〉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	625
〈표 3-7-39〉	교통수단별사고	626
〈표 3-7-40〉	도로교통사고	626
〈표 3-7-41〉	법규위반별 도로교통사고	627
〈표 3-7-42〉	고속도로교통사고	627
〈표 3-8- 1〉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628
〈표 3-8- 2〉	정보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629
〈표 3-8- 3〉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단위: 억원)	630
〈표 3-8- 4〉	정보통신산업 수출입액 (단위: 천불)	631
〈표 3-8- 5〉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단위: 억원)	633
〈표 3-8- 6〉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	634
〈표 3-8- 7〉	전화 가입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635
〈표 3-8- 8〉	케이블 TV 가입 가구	636
〈표 3-8- 9〉	위성방송 가입 가구	637
〈표 3-8-10〉	인터넷이용률	638
〈표 3-8-11〉	인터넷 호스트수 및 도메인수	639



〈표 3-8-12〉 인터넷 접속방식(중복응답) .....	639
〈표 3-8-13〉 전자상거래 규모 .....	640
〈표 3-8-14〉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횟수 .....	641
〈표 3-8-15〉 인터넷쇼핑 구매품목(복수응답) .....	642
〈표 3-8-16〉 인터넷상거래 지출액 (2002년) .....	643
〈표 3-8-18〉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 .....	644
〈표 3-8-19〉 컴퓨터 이용시간(주평균) .....	646
〈표 3-8-20〉 컴퓨터 이용목적(복수응답) .....	647
〈표 3-8-21〉 휴대전화 이용목적(복수응답) .....	648
〈표 3-8-22〉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 .....	649
〈표 3-8-23〉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수 .....	650
〈표 3-8-24〉 통신서비스 지출비용 .....	651
〈표 3-8-25〉 필요 정보 입수경로(복수응답) .....	654
〈표 3-8-26〉 정보화의 영향 .....	655
〈표 3-8-27〉 정보화 격차 .....	658
〈표 3-8-28〉 해킹,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 .....	659
〈표 3-9-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660
〈표 3-9- 2〉 폐수발생량 .....	661
〈표 3-9- 3〉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	662
〈표 3-9- 4〉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663
〈표 3-9- 5〉 지정폐기물 발생량 .....	663
〈표 3-9- 6〉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 .....	664
〈표 3-9- 7〉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 .....	665
〈표 3-9- 8〉 상수도 보급률 .....	666
〈표 3-9- 9〉 1일 1인당 급수량 .....	666
〈표 3-9-10〉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	667
〈표 3-9-11〉 1인당 전력 소비량 .....	667
〈표 3-9-12〉 대기 오염도 .....	668
〈표 3-9-13〉 주요 도시의 오존 오염도 .....	668
〈표 3-9-14〉 수질오염도 .....	669

〈표 3-9-15〉	해수오염도 .....	669
〈표 3-9-16〉	주요 도시의 빗물의 산도 .....	670
〈표 3-9-17〉	먹는 물의 수질 현황 .....	671
〈표 3-9-18〉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행태 .....	672
〈표 3-9-19〉	주요 도시의 소음공해도 .....	672
〈표 3-9-20〉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673
〈표 3-9-21〉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673
〈표 3-9-22〉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	674
〈표 3-9-23〉	GDP 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비율 .....	674
〈표 3-9-24〉	환경오염방지 노력 .....	675
〈표 3-9-2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675
〈표 3-9-26〉	재생산업 사업체 수 .....	676
〈표 3-9-27〉	환경보호 부담의향 .....	676
〈표 3-9-28〉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 .....	677
〈표 3-9-29〉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	677
〈표 3-9-30〉	VOCs 배출량 .....	678
〈표 3-9-31〉	방사성폐기물발생량 .....	678
〈표 3-9-32〉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	679
〈표 3-9-33〉	1인당 CO2 배출량 .....	680
〈표 3-9-34〉	CFCs 사용량 .....	680
〈표 3-9-35〉	해양오염사고현황 .....	681
〈표 3-9-36〉	지하수 이용현황 .....	682
〈표 3-9-37〉	농지면적 변화추이 .....	682
〈표 3-9-38〉	도시화율 .....	683
〈표 3-9-39〉	산림지역 .....	683
〈표 3-9-40〉	임목벌채 .....	684
〈표 3-9-41〉	연간 총 어획량 .....	684
〈표 3-9-42〉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현황 .....	685
〈표 3-9-43〉	하수도 보급률 .....	686
〈표 3-9-44〉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중 .....	686

〈표 3-9-45〉 폐기물 재활용 .....	687
〈표 3-10-1〉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	688
〈표 3-10-2〉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	688
〈표 3-10-3〉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	689
〈표 3-10-4〉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	689
〈표 3-10-5〉 민간부문 모금액 .....	689
〈표 3-10-6〉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690
〈표 3-10-7〉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 .....	690
〈표 3-10-8〉 1인당 건강보험 급여액 .....	690
〈표 3-10-9〉 공적연금 가입자 .....	691
〈표 3-10-10〉 공적연금 수급자 .....	691
〈표 3-10-11〉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	692
〈표 3-10-1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	692
〈표 3-10-13〉 정부예산 대비 공공부조예산 .....	693
〈표 3-10-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	693
〈표 3-10-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 .....	694
〈표 3-10-16〉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 .....	694
〈표 3-10-17〉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95
〈표 3-10-18〉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	695
〈표 3-10-19〉 최저생계비 .....	696
〈표 3-10-20〉 노숙인 현황 및 보호시설수 .....	696
〈표 3-10-21〉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	697
〈표 3-10-22〉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	698
〈표 3-10-23〉 종별 지역사회복지관 수 .....	698
〈표 3-10-24〉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 .....	699
〈표 3-10-25〉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 .....	699
〈표 3-10-26〉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수 .....	700
〈표 3-10-27〉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 .....	700
〈표 3-10-28〉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700
〈표 3-10-29〉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 .....	701

〈표 3-10-30〉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	701
〈표 3-10-31〉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	701
〈표 3-10-32〉 노인문제 .....	702
〈표 3-10-33〉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	702
〈표 3-10-34〉 65세 이상 받고 싶은 서비스 .....	703
〈표 3-10-35〉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용의향 .....	703
〈표 3-10-36〉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	704
〈표 3-10-37〉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	704
〈표 3-10-38〉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	705
〈표 3-10-39〉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 .....	705
〈표 3-10-40〉 자녀양육실태 .....	706
〈표 3-10-41〉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	706
〈표 3-10-42〉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	707
〈표 3-10-43〉 아동입양 기관수 및 입양아 수 .....	707
〈표 3-10-44〉 요보호아동 발생수 .....	708
〈표 3-10-45〉 위탁아동 보호현황 .....	708
〈표 3-10-46〉 장애인 등록률 .....	709
〈표 3-10-47〉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	709
〈표 3-10-48〉 장애인 취업자 비율 .....	710
〈표 3-10-49〉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710
〈표 3-10-50〉 장애인증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비율 .....	711
〈표 3-10-51〉 희망하는 복지혜택 .....	711
〈표 3-11- 1〉 국가지정 문화재 수 .....	712
〈표 3-11- 2〉 시·도지정 문화재 수 .....	712
〈표 3-11- 3〉 문화시설 수 .....	713
〈표 3-11- 4〉 도서관 현황 .....	714
〈표 3-11- 5〉 영화관 현황 .....	714
〈표 3-11- 6〉 문화시설 이용률 .....	715
〈표 3-11- 7〉 예술행사 수 .....	715
〈표 3-11- 8〉 영화상영편수 .....	716

〈표 3-11- 9〉	예술행사 관람률 .....	716
〈표 3-11-10〉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717
〈표 3-11-11〉	신간 도서발행 현황 .....	717
〈표 3-11-12〉	독서인구 비율 .....	718
〈표 3-11-13〉	신문구독 .....	719
〈표 3-11-14〉	신문구독 만족도 .....	719
〈표 3-11-15〉	텔레비전 시청률 .....	720
〈표 3-11-16〉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720
〈표 3-11-17〉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	721
〈표 3-11-18〉	비디오 시청률 .....	721
〈표 3-11-19〉	음악청취현황 .....	722
〈표 3-11-20〉	게임물 이용률 .....	723
〈표 3-11-21〉	문화관련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	723
〈표 3-11-22〉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724
〈표 3-11-23〉	문화단체 참여율 .....	724
〈표 3-11-24〉	여가활용 방법 .....	725
〈표 3-11-25〉	여가활용 만족도 .....	725
〈표 3-11-26〉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	726
〈표 3-11-27〉	평균 여가시간 .....	726
〈표 3-11-28〉	가구 여가활동 비용 .....	727
〈표 3-11-29〉	국내 관광여행 비율 .....	727
〈표 3-11-30〉	국내 관광여행 지역 .....	728
〈표 3-11-31〉	휴양시설 이용률 .....	728
〈표 3-11-32〉	해외여행 비율 .....	729
〈표 3-11-33〉	시·도별 체육시설 .....	729
〈표 3-11-34〉	생활체육 참여율 .....	730
〈표 3-11-35〉	스포츠경기 관람률 .....	730
〈표 3-12- 1〉	5년 후의 생활안정에 대한 견해 .....	731
〈표 3-12- 2〉	준법준수 .....	731
〈표 3-12- 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732

〈표 3-12- 4〉	공중 질서 수준 .....	733
〈표 3-12- 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734
〈표 3-12- 6〉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735
〈표 3-12- 7〉	전화폭력 경험여부(복수응답) .....	736
〈표 3-12- 8〉	공직자의 증·수뢰 경험률 .....	736
〈표 3-12- 9〉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	737
〈표 3-12-10〉	형법법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	737
〈표 3-12-11〉	절도범죄 중 자동차범죄 발생건수 .....	738
〈표 3-12-12〉	외국인 범죄자 비율 .....	738
〈표 3-12-13〉	주요 범죄자수 및 소년범죄자 비율 .....	739
〈표 3-12-14〉	주요 범죄자 평균연령 .....	739
〈표 3-12-15〉	유형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 .....	740
〈표 3-12-16〉	교도소 수용인원, 교도관수 및 교도예산 .....	742
〈표 3-12-17〉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743
〈표 3-12-18〉	수감되지 않은 법규위반자 .....	743
〈표 3-12-19〉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 분야 종사 공직자의 비율 .....	744
〈표 3-12-20〉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사법기관별) .....	744
〈표 3-12-21〉	경찰력 구성 .....	745
〈표 3-12-22〉	경찰관수 및 순찰차량수 .....	746
〈표 3-12-23〉	주요 범죄 미신고 비율 및 이유 .....	747
〈표 3-12-24〉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별 분포 .....	748
〈표 3-12-25〉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	749
〈표 3-12-26〉	교통수단별 사고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	750
〈표 3-12-27〉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및 부상률 .....	751
〈표 3-12-28〉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	752
〈표 3-12-29〉	총도로연장 및 교통안전시설 .....	754
〈표 3-12-30〉	법률 구조, 상담 및 개업 변호사수 .....	754
〈표 3-12-31〉	재해 .....	755
〈표 3-12-32〉	소방관수 및 소방자동차수 .....	755
〈표 3-12-33〉	주택형태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가입금액 및 보험료 .....	756

〈표 3-12-34〉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 .....	757
〈표 3-12-35〉 구속영장 발부율 .....	757
〈표 3-12-36〉 소 송 사 건 (처리) .....	758
〈표 3-12-37〉 기소에서 선고까지의 평균일수 .....	758
〈표 3-13- 1〉 공무원 수 .....	759
〈표 3-13- 2〉 공무원 부처별 분포 .....	759
〈표 3-13- 3〉 여성 고위 공무원 비중 .....	760
〈표 3-13- 4〉 전자정부(E-gov.) 서비스 만족도 .....	760
〈표 3-13- 5〉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	761
〈표 3-13- 6〉 GDP대비 기능별 예산 .....	761
〈표 3-13- 7〉 정부예산의 구성: 기능별 예산 .....	762
〈표 3-13- 8〉 국민 1인당 기능별 예산액 .....	762
〈표 3-13- 9〉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763
〈표 3-13-10〉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	763
〈표 3-13-11〉 투표율(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	764
〈표 3-13-12〉 정치에 대한 관심 .....	764
〈표 3-13-13〉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	765
〈표 3-13-14〉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765
〈표 3-13-15〉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중 .....	766
〈표 3-13-16〉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중 .....	766
〈표 3-13-17〉 통일에 대한 태도 .....	767
〈표 3-13-18〉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	767
〈표 3-13-19〉 주변국(일본, 중국, 러시아) 및 미국에 대한 태도 .....	768
〈표 3-13-20〉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	768
〈표 3-13-21〉 사회단체 참가율 .....	769
〈표 3-13-22〉 사회교육 참여율 .....	769
〈표 3-13-23〉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	770
〈표 3-13-24〉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 비율 .....	770
〈표 3-13-25〉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	771
〈표 3-13-26〉 종교인구분포 .....	771

〈표 3-13-27〉	종교집회 참여도 .....	772
〈표 3-13-28〉	해외봉사활동 참가자 수 .....	772
〈표 3-13-29〉	해외교포단체 수 .....	773
〈표 3-13-30〉	사회적이동에 대한 태도 .....	773
〈표 3-13-31〉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	774
〈표 3-13-32〉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	774
〈표 3-13-33〉	탈북자에 대한 태도 .....	775

## 그림목차

〈그림 2-9-1〉	OECD 압력-상태-반응 모형 .....	245
〈그림 2-9-2〉	대만의 확장 압력-상태-반응 모형의 동태 .....	267
〈그림 2-9-3〉	대만의 도시 지표 모형 .....	268
〈그림 2-9-4〉	Pressure-State-Response 기본구조 .....	282



## 제1장 인 구

### 제1절 서론

#### 1. 인구지표체계의 개편과 새로운 지표개발의 필요성

1995년 사회지표의 개편이래 인구현상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수준은 1990년 이후에 합계출산율이 1.7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2000년에 1.47명으로 낮아진 후에 더욱 감소 속도가 빨라져서 2003년에는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통계청, 2004). 이러한 출산수준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전에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망률도 계속 낮아져서 2001년에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80세에 도달하였다(통계청, 2003).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의 팽창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잉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총량적인 측면 외에도 과거의 심각하였던 남아선별출산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현상이 잔존함으로써 그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인구현상의 변화는 자녀관이나 윤리의식의 변화와 상실, 노동력인구의 감소와 부족, 노인인구의 증가와 부양문제, 성비의 불균형과 결혼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등장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과거의 출산억제정책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1996년부터 사회복지 측면에서 인구현상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가까운 장래의 빠른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은 적극적인 인구정책, 즉, 출산장려와 고령화대책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인구현상의 변화 중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인구구조의 왜곡

합계출산율이 1990년 대에 1.6-1.7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에 1.47명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에는 1.19명이 되었다. 이 출산수준은 일본(1.29명)보다 낮아져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유소년인구 구성비를 급감시키고,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장래 인구의 부양비와 노령화지수의 급등으로 인구구조는 역삼각형 모양의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결혼과 가족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심각한 성별 인구의 불균형현상은 사회문제로 직결될 것이다. 또한, 성비불균형은 기존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변형시킬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회안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

### (2) 급속한 고령화 현상

출산수준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구의 구조는 크게 바뀌고 있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생산년령인구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노인복지를 포함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리고 2040년에는 총인구의 30%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된다(통계청, 2001). 이러한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생활보장 등 노인복지 부담의 급증과 생산연령세대의 부양부담 급증으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워 질 것이다.

### (3) 인구의 도시집중의 지속과 농촌사회의 소멸

1970년대 이후 강력한 인구집중억제(특히 수도권)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의 건설과 확장에 따른 도시(특히 수도권)로의 인구집중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인구가 1990년에 전국인구의 42.8%였으나 2000년에는 46.3%로 증가하였다(최진호, 2002). 더욱이 지역(도시와 농촌)간 개발의 차이로 농촌에서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이동의 지속은 장차 농촌사회의 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4) 국가간 인구이동의 증가와 외국 근로자수의 증가

1990년대 이후 무역(수출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으면서 해외투자의 증가, 유학생수의 증가, 해외 관광객 수의 증가 등으로 해외 이출과 이입인구가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3D 업종의 노동력을 해외근로자로 충당하면서 외국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노동력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개편의 방향 및 내용

지금까지의 사회변화, 특히 인구현상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국민생활에는 물론 사회정책에 바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인구부문의 지표개편을 수행하였다.

- (1) 지표는 시계열을 유지할 때 자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1977년의 최초 사회지표(인구부문)체계의 개별지표로부터 쌓아온 시계열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사회지표는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내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지표의 나열식을 지양하고 지표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역간의 자료이용성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였다.
- (3) 다른 부문(예, 가족, 보건)과 중복되는 부문을 조정하여 이용상의 혼선을 피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인구부문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별지표(예, 연령별 기대여명)를 인구부문에도 포함하여 동일 부문 내에서 인구현상의 변화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최근 인구현상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지역이나 특수 분야별 지표체계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표별 집계항목의 분류를 다양화하였다.

위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회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행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사회지표(인구부문)의 체계를 설정하였다. 체계의 영역별 개별지표를 재분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규지표를 추가하거나 기존지표를 삭제하여 종합적인 지표체계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표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삶의 질'의 수준에 관심을 두기 위하여 주관적 지표를 추가하거나 신규작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국외연구의 검토

#### 가. 초기 사회지표(1990년 까지)

1960년대부터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0년대에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사회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사회지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발전에서 얻어진 혜택이 모든 계층에 분배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에 따라 국민이 관심을 갖는 영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역내에서도 명확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삶의 질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국가간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여 각국의 지표체계나 특정분야의 특수지표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지표체계로 1975년에 개발된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SDS)와 OECD 회원국 대표들이 1973년에 발간한 「OECD 제국의 공통적인 사회적 관심영역」이라는 보고서를 들 수 있다. OECD의 체계는 사회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선진국의 사회발전 상태를 측정하고, 새로운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준이 되는 관심영역과 분야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연합의 SSDS에서는 사회지표로서 유용한 사회인구통계를 거의 망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모든 나라에서 그 사회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고, 통일된 지표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구부문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SSDS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SSDS의 하위영역을 인구상태(Stock)와 인구동태(Flow)로 구분하여 한 시점의 인구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 특정기간의 인구변동요인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지표는 모두 17개로 되어있으나 각 지표를 특성분류에 따라 작성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표 2-1-1> 참조).

<표 2-1-1> UN의 「사회인구통계체제(SSDS)」 (인구부분)의 지표체계와 지표항목, 1975

하위 영역	통계 계열	자료	특성 분류	사회 지표
인구 상태	1.인구 규모	1) 제 특성별 인구통계	성, 연령, 지역, 인종계층, 가족형태	1) 연평균인구성장률 2) 평균연령 3) 부양인구비 4) 성비
인구 동태	1.출생	1) 출생아수 2) 정상 출산수	모의 연령, 출생순위 출생아의 성, 지역	1) 조출생률 2) 일반출산율 3) 총재생산율 4) 순재생산율 5) 사산율 6) 기형아출산율
	2.사망	1) 사망자수	성, 연령, 지역	1) 조사망률 2) 표준화사망률 3) 0, 30, 60세시 평균연령
	3.이동	1) 이입인구 2) 이출인구 3) 국내인구이동	성, 인종, 계층 가족형태 연령, 가족크기, 지역	1) 조이입률 2) 조이출율 3) 순국제이동률 4) 조국내이동률

자료: U.N.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Y., 1975.

국제연합의 체계는 인구통계에서 작성될 수 있는 지표들을 총 망라하고 있지만 인구지표는 다른 영역의 지표산출이나 개발수준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자세한 지표를 제공할수록 사회연구나 장단기 발전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초 통계자료의 미비로 국제연합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든 지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초통계자료(인구센서스 및 인구동태통계)의 보완·정비를 통하여 특성분류별 사회지표 작성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인구부문의 지표가 사회 전체 구성원의 특징을 설명하고 다른 모든 지표부문의 기초가 되므로 인구통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통계체계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지역분류의 제한(예를 들면 시·군 까지)과 사회에 따라서는 인종에 관한 지표를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과거자료를 소급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사회지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으로서 제3차 개정 사회지표체계(Social Indicators III)를 1980년에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구와 가족을 같은 영역으로 하여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2> 참조). 인구관련 하위영역은 「인구성장구 구성」으로 사회지표를 7가지의 통계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특성별 분류에 따라 개별지표가 작성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미국 사회지표의 특징은 과거 시계열의 집대성에 있다고 하겠다. 빠르게는 1790년부터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대체로 1900년 전후 또는 20세기 초부터 시계열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통계(지표 포함)는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시계열을 유지할 때 효용가치를 크게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코호트별 누적출산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출산을 담당한 계층의 평생 출산수준을 측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출산자료가 누적될 때 이 지표의 작성이 가능하다. 사회지표의 개발은 그 사회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국이 다민족 국가이면서 이민이 많은 사회이므로 사회지표의 인구부문에서 종족별 인구와 인구가동관련 지표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표 2-1-2〉 미국의 사회지표 체계(인구 및 가족 부분)

관심영역	개별지표
I.공적 구성	1. 종족 및 18-34세 유배우 여성별 기대자녀수, 1967-78 2.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성장한 자녀와 함께사는 노인에 대한 태도, 결혼의 행복정도 및 이혼의 수월성, 1973-78
II.인구성장 과 구성	1a. 인구성장, 1970-2040 1b. 연평균 인구증가율, 1970-2040 2. 성 및 연령별 인구, 1890, 1950 및 2010 3. 종족 및 연령별 인구, 1920, 1960 및 2000 4. 인구변동요인, 1930-2000 5a. 모의연령별 출산율, 1940-1977 5b. 코호트별 누적 출산율, 1942-1977 6. 주요직업별 허용 이입자수, 1900-1977 7a. 대도시별 연평균 인구가동률, 1960-70 및 1970-76 7b. 인구 밀도별 (SMSA주변이 아닌)지역(country)의 연평균 인구가동률, 1960-70 및 1970-76
III.가족규모 와 구성 IV.거주상태 V.혼인상태와 안정성 VI.국제비교	(생략)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1980.

영국의 중앙통계국에서는 1990년에 「사회의 경향(Social Trends)」이라는 책에서 영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회지표체계내에서의 인구부문은 세계 영역에 7개의 차트와 11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2-1-3 참조). 세 개의 영역은 「인구구조 및 변화」, 「출생 및 사망」, 그리고 「인구가동」으로 국제연합에서와 같이 인구의 정태(규모, 구조 및 성장)와 동태(출생, 사망 및 이동)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지표에서는 국가간의 인구가동만을 「인구가동」영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이동은 4개 지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간의 인구가동통계표만을 작성하여 「인구구조 및 변화」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2-1-3〉 영국의 사회지표(인구부분), 1988

관심영역	개 별 지 표(표 및 차트)
I. 인구구조 및 변화	C 1. 연령별 인구 T 2. 연령 및 성별 인구구조 C 3. 성별 16-19세 인구 T 4. 종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 1985~87 C 5. 연령 및 출생지별 소수민족인구, 1985~87평균 C 6. 지역별 인구변화 T 7. 연령별 국내인구이동(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T 8. 인구변화와 전망
II. 출생 및 사망	T 9. (정상)출생아수와 모의 연령 C10. 모의 연령별 정상 출생아수 T11. 모의 출생지역별 정상 출생아수 T12. 모의 출생지역별 혼외의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수 T13. 성 및 연령별 사망률
III. 인구 이동	T14. 과거와 장래 거주국가별 영국의 국제전입 및 전출인구, 1988 T15. 국적 및 장래 거주국가별 영국의 국제전입 및 전출인구, 1988 C16. 허가유형별 영주권 취득현황 T17. 과거 시민권 또는 국적별 영국의 시민권 취득 현황 C18. 국적별 피난민 상태나 수용소 입소허가 현황

주: 개별지표의 번호앞에 명시된 'C'와 'T'는 각각 차트와 표를 구분하는 것임.

자료: Central Statistical Office, British Government, *Social Trends*, 1990.

「인구구조 및 변화」 영역에서는 인구현상(규모, 구조 및 국내이동)과 장래 인구전망을 포함하여 국내인구현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생 및 사망」 영역에서는 출생 및 사망과 관련된 지표를 망라하고 있으나 사망관련지표으로는 특성(성 및 연령)별 사망률에만 국한하고, 나머지(사망원인, 평균여명 등)는 다른 부문(보건, 복지 등)에 포함하고 있으며, 출산관련 지표로는 모의 특성별 출산지표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여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여성관련연구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이동」 영역에서는 국가간의 이동지표를 종합하여 수록하였으며, 전출은 총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국내 전입자에 대해서는 허가나 시민권 획득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별 통계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간의 이동(특히 전입)에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국제연합의 SSDS체계와 미국 및 영국의 사회지표체계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인구부문의 지표영역을 인구상태와 동태로 대분하고 상태에서는 인구의 규모, 구조 및 성장을, 동태에서는 출생, 사망 및 이동을 포함하여 영역내 지표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영역별 특수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지표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계열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자료의 축적으로 새로운 지표(예를 들면, 코호트별 누적출산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미국과 영국 인구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다양한 지표나 통계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국가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국가간의 인구이동에 대한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 나. 최근 외국의 사회지표 동향

1990년대 까지 국제연합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의 사회지표체계는 인구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표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이 지표의 특징은 최근 각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성(Ageing and Gender)에 관한 지표를 일반체계에서 독립하여 "사회의 경향(Social Trends)"의 앞에 제시하였다(표 2-14 참조).

〈표 2-1-4〉 영국의 사회지표(인구부문), 2004

부 문	관심영역	개별지표(표, 그림 및 지표)
고령화와 성	변동하는 인구	T1. 성 및 연령별 고령인구 구성비, 1971-2001
	노년의 여성화 감소	F2. 연령별 고령인구의 성비, 1951-2001
	혼인상태의 변화	T3. 6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변화, 1971-2001 F4. 성 및 연령별 6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 2001
	성과 주거방법 노년의 빈곤가구 노년의 다양한 소득 자동차소유 및 소득	(생략)
인구	인구현상	T1.1. 영국의 인구 T1.2. 성 및 연령별 인구 F1.3. 연령별 피부양 인구 F1.4. 성별 90세 이상 인구 T1.5. 종족 및 연령별 인구, 2001 F1.6. 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노동력인구, 2003
	인구변동	T1.7. 인구변동 F1.8. 출생과 사망 T1.9.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지리적 분포	M1.10.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2001 T1.11. 국내이동, 2002
	국제이동	T1.12. 다른 EU국에 살고 있는 영국인과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내 타국인구 F1.13. 출신지역별 주거지원 T1.14. 피부양인구를 포함한 수용소지원자 수: EU와의 비교
	국제인구전망	T1.15. 세계인구지표 T1.16. 유럽 인구지표의 비교

주: T, F, M은 각각 표, 그림, 지도를 표시함.

자료: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the United Kingdom (2004) "Social Trends" No.34.

영국의 사회지표에서 13개의 일반부문 외에 독립적으로 “고령화와 성”이라는 부문을 설정하고 있다. 고령인구를 성별로 지표를 작성하여 고령인구의 현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표부문이다. 여기에는 7개 관심영역에 12개 지표(표, 그림 및 지도)가 있으며, 그 중에 3개가 인구관련 영역(4개 지표)에 해당된다. 고령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 성비, 혼인상태의 변화지표와 최근의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영국 통계청 ONS, 2004).

13개 일반부문에 속해있는 인구부문은 5개 관심영역에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의 지표체계(표 2-1-3 참조)에서는 “인구구조 및 변화, 출생 및 사망, 인구가동 등” 3개의 전통적 분류를 하였으나 2001년의 체계에서는 “지리적 분포”를 독립시켰고, 유럽 국가의 통합으로 국제이동과 국제인구전망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 인구부문에서도 새로 추가된 고령인구와 관련한 지표들이 있다. “성별 90세 이상 인구”,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사회생활통계지표(2004)에서도 고령인구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인구지표는 “A. 인구, 세대” 부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관련 관심영역은 4개로 구분하고 있다.(표 2-1-5 참조).

일본의 사회지표체계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고령인구, 외국인에 대한 지표와 통근통학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인구와 관련하여 연령 3구분(0~14세, 15~64세, 65세 이상)인구와 노령인구지표를 독립시키고 있다. 외국인 인구와 관련하여 3개의 지표가 있으며, 통근통학인구관련 지표 3개를 묶어서 하나의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사망률(일본에서는 연령조정사망률)을 별도 계산하여 사망률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일본지표의 특징은 주요 일본인구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도시권 인구집중,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문제, 세계 최장수국의 사망률변동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표를 채택하고 있다.

〈표 2-1-5〉 일본의 사회생활 통계지표(인구부문), 2004

부 문	관심영역	개별지표
인구·세대	1. 인구의 규모·구조	1. 인구총수 2. 일본인인구 3. 외국인인구 4. 행정구역내 인구(주민기본대장인구+외국인등록인구) 5. 외국인등록인구 6. 연령3구분인구 7. 노령인구 8. 배우관계별인구 미혼인구, 유배우인구 사별인구, 이별인구 9. 인구집중지구인구·면적
	2. 인구의 자연증가	1. 출생수·사망수 2. 합계특수출생률 3. 연령조정사망률
	3. 인구의 사회변동	1. 전입자수 2. 전출자수
	4. 종업지·통학지인구	1. 주간인구 2. 유입인구 3. 유출인구
	5. 세대수·일반세대인구, 가족구성	(생략)

주: 표내의 용어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직역한 것임.  
 자료: 총무국 통계국(2004) "사회생활 통계지표" pp.354~458

이상에서 검토한 최근의 영국과 일본의 사회지표체계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최근 인구변동의 특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시계열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별 사회적 관심에 따라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고령화와 관련된 지표와 국제간 인구가동에 관한 지표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2.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의 검토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78년에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로 마련한 「사회지표 시안」을 보완하여 1979년에 경제기획원에서 「한국의 사회지표」를 공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이후 매년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1978년에 성안된 「사회지표 시안」은 인구부문을 포함하여 8개 부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부문은 2개 관심영역(인구규모와 변동, 인구구조와 분포)에 6개의 세부관심영역 총 25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그 후 경제사회현상의 급속한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지표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어 1987년에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개편된 사회지표체계의 인구부문에서는 관심영역을 총인구성장, 출생과 사망의 구조, 인구분포와 이동, 그리고 인구구성의 4개로 하고 세부관심영역을 17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개별지표의 수도 46개로 확대하여 가구·가족 분야를 포함한 인구부문 지표체계를 이루었다. 1987년에 전면 개편된 인구부문은 1978년에 최초로 마련된 인구부문의 관심영역과 개별지표외에 그 동안에 변화한 인구현상을 포함하고, 새로운 자료에 의한 지표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지표체계의 제2차 개편이 1995년에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종전의 4개 관심영역을 6개영역으로 개편하였으며, 북한인구와 가구관련지표를 제외하고 44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1987년과 1995년 사회지표체계의 인구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통계청(1989년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외에 특수분야별 지표(예를 들면, 보건지표, 문화지표, 소비자지표, 서울시 지표 등)들이 최근에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나 이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부문의 지표들은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인구부문지표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신 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특수분야의 지표와 연결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다.

### 가. 1987년 사회지표(인구부문) 체계 및 관심영역의 검토

1987년 개편된 사회지표체계의 인구부문 관심영역이 1978년의 최초의 인구지표가 설정된 후의 사회변화와 인구자료의 활용 등을 감안하여 관심영역을 2개에서 4개 영역, 즉 「총인구성장」, 「출생과 사망의 구조」, 「인구이동과 분포」 및 「인구구성」으로 확대되었

다. 「총인구성장」에는 전국수준에서의 인구추세와 변동, 그리고 그 인구학적 구성요인에 관한 것을 포함하였다. 「출생과 사망의 구조」에서는 인구성장의 구성요인에 속하는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을 제외한 보다 대표적이거나 정밀한 출생 및 사망지표들과 출산억제지표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인구분포는 국내인구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들을 묶어서 「인구이동과 인구분포」로 하였고, 인구의 내부적 특성의 파악을 위하여 인구구성을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으로 독립시켰다.

이와 같이 관심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부관심영역도 최초의 6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관심영역을 추가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1987: 143~144).

첫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도시인구의 빠른 증가이며, 이 도시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도시화와 농촌도시인구의 재분포에 관한 영역을 인구부문 세부영역으로 추가하였다.

둘째, 인구는 정책의 수립이나 미래사회현상에 대한 각종 예측의 필수적인 배경변수이므로, 사회지표가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장래 추계인구의 제시는 필수적이다.

셋째, 우리의 삶의 질이 조국분단 내지 통일 전망의 영향을 받으므로 북한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지표로서 북한의 인구추세를 세부관심영역으로 추가하였다.

넷째,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한 사회의 계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구의 사회경제적 구성을 추가하여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5년 개편을 위하여 1987년에 개편된 지표체계(인구부문)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1995년 지표체계를 위하여 1987년 이후 인구현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영역도 함께 검토하였다.

첫째, 1987년 체계에서 관심영역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인구정태와 동태에 관한 지표들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 총인구 중심의 관심영역인 「총인구성장」에 국제이동관련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총인구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한 영역에 포함하여 지표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으나 총인구의 정태적 특성(구성 및 분포)을 제외하고 있다.

둘째,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이동이 인구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구분포와 경제사회적 영향을 받아 인구이동의 양과 방향

이 결정된다. 그러나 총인구규모는 지역별 인구로 이루어지고, 지역별 인구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하여야 했다.

셋째, 세부관심영역에 북한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이용의 제약성 때문에 지표의 구축이나 시계열 유지가 사실상 곤란하다. 또한 북한관계연구가 활발해지는 요즘 북한 관련 연구분야에서 제한적인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의 이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가구와 가족에 관한 지표들을 묶어 세부관심영역으로 독립시켜 놓았으나 최근 가족복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세부영역으로 모든 지표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문을 새로운 영역으로 독립시켜 인구부문에서 분리하도록 하였으므로 관련 지표의 재구성과 조정이 필요하였다.

끝으로, 1987년 개편이래 인구현상의 변화를 명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세부 관심영역의 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현상과 같은 인구행태의 변화는 바로 사회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분야로 떠오른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인구현상의 변화로 지표체계의 개편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1995년 사회지표(인구부문)체계 및 관심영역의 검토

1995년 사회지표체계(인구부문)에서는 인구부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구의 정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과 인구의 동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인구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관심영역들로 나누었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는 총인구, 인구구성, 인구분포와 같은 일정시점에서의 인구특성을 대표하는 지표들이 속한다. 그리고, 「인구변화의 요인」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과 같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구현상을 표시하는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인구의 두 가지 특성인 정태(stock)와 동태(flow)로 인구부문의 지표를 대분하여 각각 3개 영역씩 총 6개 관심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1987년 지표체계의 4가지 관심영역에서 인구의 정태와 동태개념이 혼재해 있는 분류(예를 들면, 인구분포와 이동)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인구동태의 주 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을 관심영역으로 독립시킴으로써 관련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울러 기존의 지표들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개발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였다. 인구동태통계의 다양한 개발과 통계질의 향상은 다른 부문의 지표개발이나 사회현상의 평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되므로 인구부문의 관심영역을 확대 개편하는데 의의가 있었다(표 2-1-6참조).

〈표 2-1-6〉 기존체계와 신체계(인구부문)의 구성비교

1987년 체계		1995년 체계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총 인구성장	인구추세 자연증가 국제이동 추계인구 북한인구	총인구	인구추세 장래인구
출생과사망의 구조	연령별 출산 출산억제 자녀수와 성선회 출생시 기대여명 연령별 사망률 순재생산율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인구분포와 이동	도별인구 도시인구 국내이동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도시인구
인구구성	연령 및 성구성 혼인상태 가구 및 가족구성	출생	출산율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 자녀수와 성선회
		사망	사망률 기대여명
		인구이동	국내이동 국제이동

세부관심영역에서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기존체계에서는 17개로 되어있던 세부관심영역 중 2개(북한인구, 가구 및 가족구성)를 제외하고, 2개(자연증가, 순재생산율)를 유사영역에 포함하였으며, 대신 「연령 및 성별 인구」를 2개(연령별 인구와 성별 인구)로 분류하여 1995년 체계에서는 14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조정하였다. 제외한 두 가지의 세부관심영역 중 「북한인구」는 앞으로 통일을 예상하고, 남북경협 또는 노동력 교류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의 지표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영역이지만 북한관계 자료의 제한적 구득 내지 이용으로 다양한 지표작성이 용이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북한관계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거기에서 인구관련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외하였다. 1995년 사회 지표체계에서 가족부문이 독립되었으므로 기존 지표체계에서 인구부문에 속해있던 「가구



및 가족구성」을 가족부문으로 분류를 바꾸었다.

두 개의 세부관심영역이 유사영역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서 「자연증가」는 「인구추세」에 포함하여 인구규모의 변화와 연계되는 지표들을 함께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재생산율」에는 하나(순재생산율)의 지표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산에 관련된 유사한 지표들과 함께 세부관심영역 「출산율」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1995년 사회지표체계는 1987년 체계를 체계의 논리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태지표와 동태지표를 분리하여 지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인구와 가구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인구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거의 나열식 지표(예, 도별인구, 도시인구 등)를 통합하여 지표체계를 명쾌하게 하였다. 이렇게 일목요연한 지표체계이지만 그 후 사회의 변동과 인구현상의 급변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지표의 논리적인 면은 강하나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특성을 강조하는데 부족하였다. 즉, 인구구성, 분포, 출생, 사망, 이동 등이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지표간의 중요성이나 특징의 강약을 비교할 수 없다.

둘째, 1990년대에 이미 저출산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출산억제수단인 가족계획과 인공임신중절 지표를 세부 관심영역으로 독립시키고 있다. “시도별 인구”와 “광역시별 인구”는 중복된 지표이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부족하다. 특히, 고령인구에 관한 지표가 타 연령층과 함께 단순 나열되어 세분된 개별지표가 필요하다.

넷째, 인구정책에 필요한 지표는 총괄지표, 종합지표만이 아니라 인구의 특성별 차별 지표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지표로 특성별 출산율의 차이에 관한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3.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지금까지 국제기관과 외국의 사회지표체계를 검토하고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1977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지표체계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신 지표체계(인구부문)의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지표는 정확성과 시계열의 축적을 확보할 때 정책이나 각종연구에서 그 가치가 충분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1997년 체계의 지표 시계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회변동에

맞게 체계의 특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인구변동의 특징은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표에서 이 두 영역의 지표를 강화(또는 세분)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지표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인구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동일한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별 출산율을 측정하여 취약그룹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인구에 대한 지표화이다. 총 외국인로자수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증가, 국외이동의 빠른 증가 등에 대한 지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도시의 광역화로 주간 이동인구가 증가하였다. 지역별 주간인구의 유입과 유출인구를 측정하여 지역별 주간인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는 교통정책과 같은 도시정책의 주요지표가 될 것이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우선 관심영역을 기존의 1997년 체계와 같이 6개로 유지하였다. 인구상태영역 3개(총인구, 인구구성 및 인구분포)와 인구동태영역 3개(출생, 사망 및 이동)가 인구부문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관심영역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를 추가 또는 통합하였다(표 2-1-6 참조).

관심영역 “인구구성”은 기존 체계에서 “연령별 인구”와 “성별 인구”로 분리되었던 세부 관심영역을 신 체계에서는 “성 및 연령별 인구”로 통합하고 여기에 장래인구의 성, 연령별 인구구성을 포함시켰다. 성과 연령은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구구성을 분석할 때 두 특성별 인구지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관심영역 “인구분포”에서는 “인구밀도”를 세부관심영역으로 독립하였다. 지역별 인구집중으로 인구의 밀집지역과 과소지역의 인구밀도를 강조하였다.

관심영역 “출생”에서는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이 인구억제정책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영역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재에 지표로서의 가치가 감소하였다. 가족계

확실천율은 100%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가족계획”을 삭제하여 “인공임신중절률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세부관심영역인 “자녀수와 성선택”을 “자녀관”으로 변경하여 개별지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므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구의 특성별 출산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특성별 출산율”을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으로 추가하였다.

관심영역 “인구이동”에는 “주간인구”를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에 추가하였다. 대도시권의 주거지가 계속 외곽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심의 상업지구와 외곽의 주거지역간의 정기적인 이동을 파악하여 교통을 포함한 지역별 개발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7〉 기존체계와 신체계의 구성비교

관심영역	기 존 체 계	관심영역	신 체 계
	세부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총인구	인구추세 장래인구	총인구	인구추세 장래인구
인구구성	연령별인구 성별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인구분포	지역별인구 도시인구	인구분포	인구밀도 지역별인구 도시인구
출 생	출산율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 자녀수와 성선택	출 생	출생아수 및 출산율 인공임신중절 자녀관 특성별 출산율
사 망	사망률 기대여명	사 망	사망자수 및 사망률 기대여명
인구이동	국내이동 국제이동	인구이동	국내이동 국제이동 주간인구

세부관심영역 조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체계의 14개 세부관심영역 중 “연령별 인구”와 “성, 연령별 인구”를 통합하였고, “가족계획 및 인공임신중절”과 “자녀수와 성선택”을 각각 “인공임신중절”과 “자녀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신규로 “특성별 출산율”, “인구

밀도”, “주간인구” 등 3개 세부관심영역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세부관심영역의 수는 14개에서 16개로 증가하였다.

## 2. 개별지표의 선정

개별지표를 선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인구현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개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표를 최대한 포함시켰다. 지난 10여년 간의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새로 작성하였다.

둘째, 시계열의 확보이다. 지표의 시의성에 따라 삭제나 변경이 필요하지만 과거부터 축적된 시계열을 유지할 때 자료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사한 지표나 부수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묶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위한 지표의 개발을 추가하였다. 인구정책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이라고 하겠다.

### 1) 삭제된 지표

이번 개편작업에서 “5대 광역시별 인구”가 “시도별 인구”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계획과 인공임신중절관련 지표들을 처음에 설정한 목적이 출산억제에 있었으므로, 지금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90%이상 실천하고 있는 “가족계획실천율”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률”과 “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앞으로 모자보건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표로도 가치가 있으므로 존치하였다.

“유배우 출산율”은 유배우 구성비의 영향을 받고, 출산수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표이므로 삭제하였다. 대신 “유배우 부인당 출생아수”를 채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존의 “기혼부인당 평균 출생아수”와 유사하고, 가족유형의 변동이 심해지는 현재 지표로서의 가치가 감소되었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세부관심영역 중에서 “성별 인구”를 삭제하였으므로 여기에 속해 있던 두 가지 지표를 다른 세부관심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지역별 출생시 성비”를 관심영역 “출생”의 세부관심영역인 “출생아수 및 출산율”로 이동시켰고, “지역 및 연령별 성비”를 동일관심영역의 세

부 관심영역인 “성 및 연령별 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성비 및 구성비)”에 통합하였다. 세부관심영역 “지역별 인구”에 속해있던 “시도별 인구구성비 및 밀도”를 신규 세부관심영역인 “인구밀도”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이주상태”는 “지역별 전입, 전출 인구”와 “지역별 순 인구이동률”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 2) 첨가 또는 조정된 지표

관심영역 “총인구”에 “외국인 인구(국적, 성, 연령별)”를 추가하였다(<표 2-1-8> 참조). 우리나라 대외 무역의 증가, 해외투자의 증가, 해외인력수입의 증가 등으로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파악하여 산업발전, 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에 활용한다. 그리고 세부관심 “장래인구”에 포함되어 있던 “장래자연증가율”과 “장래인구성장률”을 “장래인구성장률(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으로 통합하였다.

관심영역 “인구구성”에는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구성비)”와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구성비)”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같은 영역에 “성 및 연령별 인구(성비 및 구성비)”가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인구와 생산연령인구를 별도로 연령을 분류하여 노인과 생산연령인구의 특성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심영역 “인구분포”에서는 “5대 광역시별 인구”를 삭제하고, “지역별 장래추계인구(성, 연령별)(구성비)”를 신규로 설정하였다. 1995년 총조사 이후 시, 도별 장래인구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별 장래인구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관심영역 “출생”에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구성비)”를 추가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출생아수의 감소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계획실천율”은 출산억제목적의 지표이고 90%이상 지속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주관적 지표로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로 결혼 후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만을 갖는 이유를 조사하여 집계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세부관심영역으로 “특성별 출산율”을 신설하고, 여기에 “교육정도별 출산율”과 “거주지역별 출산율” 지표를 신규로 포함하였다. 이것은 출산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지표라고 하겠다.

〈표 2-1-8〉 신체계에서 첨가 또는 조정된 지표들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총인구	인구추세	외국인인구(국적, 성, 연령별)	신규
	장래인구	장래인구성장률(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2개 지표 통합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인구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구성비)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구성비)	신규 신규
인구분포	인구밀도	시도별 인구밀도	신 세부관심영역으로 이동
	지역별인구	시도별 인구(성, 연령별) 지역별장래추계인구 (성·연령별) (구성비)	“지역 및 연령별 성비” 포함 신규
	도시인구	5대광역시별 인구(구성비)	삭제
출생	출생이수 및 출산율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이수(구성비) 출생시 성비	신규 타영역에서 이동
	인공임신중절	가족계획실천율	삭제
	자녀관	무자녀 또는 한자녀 이유*	신규
	특성별 출산율	교육정도별 출산율의 비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비	신규 신규
사망	사망자수 및 사망률	성·연령별 사망자수	신규
인구이동	국내이동	지난 1년간 이주상태	삭제
	국제이동	지역별 출입국 현황(내외국인) 지역별 국제인구이동(내외국인)	삭제 신규
	주간인구	지역별 주간인구(이입, 이출 포함)	신규

주: \*는 주관적 지표임.

관심영역 “사망”에서는 “성, 연령별 사망지수”를 지표화 하였다. 관심영역 “인구이동”에서는 국제이동의 “지역별 출입국 현황(내외국인)”을 삭제하고, 90일 이상 체류 목적의 이동자만을 분류하여 “지역별 국제인구이동(내외국인)”을 신설하였다. 세부관심영역으로 “주간인구”를 신설하고, “지역별 주간인구(이입, 이출인구 포함)”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이상의 조정내용을 종합하면 5개 지표를 삭제하고, 기존의 2개 지표(장래자연증가율과 장래인구성장률)을 한 개(장래인구성장률(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로 통합하였으며, “지역 및 연령별 성비”를 “시도별 인구(성, 연령별)”에 포함시켰다. 신규로 11개 지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총지표수 44개에서 4개가 순증하여 총 48개 지표로 확대되었다.

### 3) 신 사회지표체계(인구부문)

이상에서 설정된 신 사회지표체계의 인구부문은 6개의 관심영역에 16개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개별지표는 48개로 1995년의 지표수 44개보다 4개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지표를 정리하면 <표 2-1-9>와 같다.

## 제4절 결론

1995년 제2차 사회지표의 개편 이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현상을 바르게 측정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제연합의 인구사회통계체계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그 장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지표체계를 검토하여 전체적인 사회지표체계 내에서 인구부문의 체계를 설정하고, 기존의 개별지표 하나하나에 대한 정밀 검토를 거쳐 존치여부를 결정하였으며, 그 동안 인구현상의 특성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그 결과 신 지표체계의 인구부문은 정태와 동태영역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관심영역에 16개의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총 개별지표의 수는 주관적 지표 6개를 포함하여 48개가 되었다. 1995년에 개편한 지표체계와 비교하여 보면, 관심영역은 동일하였으나 세부관심영역은 통폐합과 신규추가로 14개에서 16개로 두 개 증가하였다. 개별지표의 경우는 그 동안 인구현상의 변화를 감안하여 11개의 신 지표를 추가하

였으며, 삭제 5 개와 두 개 지표의 통합으로 1995년의 44개 지표 보다 4개가 증가한 48개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새로이 구성된 신 지표체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는 정확성과 시계열의 축적을 확보할 때 정책이나 각종연구에서 그 가치가 충분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1997년 체계의 지표 시계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구현상의 변동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인구변동의 특징은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표에서 이 두 현상과 관련된 지표를 강화(또는 세분)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지표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인구와 생산연령인구를 분리하여 지표화 하였다.

셋째, 인구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동일한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별 출산율이나 사망률을 측정하여 취약그룹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세부관심영역에 “특성별 출산율”을 신설하였다.

넷째, 외국 근로자에 대한 지표화이다. 총 외국근로자수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증가, 국외이동의 빠른 증가 등에 대한 지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거주목적별 지표가 필요하나 자료수집상의 문제로 총인구 개념의 외국인 인구(국적, 성, 연령별)를 신규지표로 추가하였다. 종전의 지역별 출입국가 현황을 삭제하고, “국제인구이동”을 신설하여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자만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대도시 주변의 인구집중과 도심의 상주인구감소로 통근통학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도시권 교통정책이나 도심정비를 위한 도시정책을 위하여 세부관심영역에 “주간인구”를 신설하고, 신규지표로 “지역별 주간인구(이입, 이출인구 포함)”를 추가하였다.



〈표 2-1-9〉 신 사회지표 인구부문 체계표(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총인구	인구추세	총조사인구(연도, 성별) 연앙추계인구(연도, 성별) 연도별 성장인구 및 인구성장률 자연증가율(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외국인 인구(국적, 성, 연령별)
	장래인구	장래추계인구(성 및 연령별) 장래인구성장률(조출생률, 조사망률 포함)
인구구성	성 및 연령별 인구	성 및 연령별 인구(성비 및 구성비) 국민평균연령(또는 중위연령)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구성비)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구성비) 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혼인상태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성 및 연령별)(구성비) 초혼연령별 인구(성 및 연령별)(구성비)
인구분포	인구밀도	시도별 인구밀도
	지역별 인구	시도별 인구(성, 연령별)(구성비) 동, 읍, 면부별 인구(성, 연령별)(구성비) 지역별 장래추계인구(성, 연령별)(구성비)
	도시인구	도시규모별 인구(구성비) 수도권 인구(구성비) 도시인구성장의 요인(출생, 사망, 이동)(수도권 포함)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출 생	출생아수 및 출산율	성 및 출생순위별 출생아수(구성비) 출생시 성비(전국, 지역 및 출생순위별)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순 재생산율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인공임신중절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출 생	자녀관	이상자녀수* 자녀수에 대한 선호*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
	특성별 출산율	교육정도별 출산율의 비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비
사 망	사망자수 및 사망률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성 및 연령별 사망률 표준화 사망률
	기대여명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인구이동	국내이동	지역별 전입, 전출인구(순이동 포함) 지역별 순인구이동을 지난 1년간 이주 원인별 구성비*
	국제이동	지역별 국제인구이동(내국인 및 외국인) 해외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이민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이민지역*
	주간인구	지역별 주간인구(이입, 이출인구 포함)

주: \* 는 주관적 지표임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1978.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995.
- 농촌진흥청, 『2003 농촌생활지표』,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사회지표체계개발에 관한 연구』, 1993.
- 조사통계국·한국개발연구원, 『인구통계개선: 발전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1977.
- 주하중 외, 『한국의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통계청, 『2001년 생명표』, 2003.
- 통계청, 『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 II)』, 1995.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사회지표 개발』, 19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정신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1983.
-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新國民生活指標』, 1995.
- 總務省 統計局, 『社會生活統計指標』, 2004.
- Central Statistical Office, *Social Trends*, British Government, 1995.
-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US Government, 1980.
-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1982.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ocial Trends*, British Government, 2004.
- United Nation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975.

## 제2장 가구와 가족

### 제1절 서론

1990년 이후 지난 15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사회제도를 꼽는다면 아마도 가족이 으뜸을 차지할 것이다. 한국의 가족은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거의 모든 사회성원은 가족을 꾸리며 가족 안에서 생활하였다. 혼인은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미혼 독신자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압력을 받아왔다. 혼인과 가족의 안정성은 무엇보다도 매우 낮은 이혼율, 부부 사이의 자녀 출산을 당연시하는 현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의 안정성과 혼인의 보편성은 1990년 이후 급속한 변화를 보인다. 정상적인 핵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중심의 가족 비율은 감소하고 대신 독신가구와 부모 어느 한 쪽과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흔히 가족의 해체라고 부른다. 이때 가족해체라는 용어는 다분히 이러한 가족이나 가구를 사회문제의 징표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자료에 따르면, 소위 가족해체 현상은 한국에서도 더 이상 일탈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다.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980년 4.8%에 불과하던 비율은 2000년에는 15.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1990년까지는 주로 농촌 노인 여성인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소위 원룸아파트에 사는 도시 젊은층 가운데 독신가구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이미 결혼이 인생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 중심의 젊은 층을 통한 독신 인구구비율의 증가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독신주의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이미 이를 가족해체의 맥락에서 다룰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만약 이들의 삶을 사회문제 또는 사회병리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당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따라 탈 규범적 상황에

처하게 된 자녀들에게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의 변화는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의 한 축을 구성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가족과 개인의 삶의 양식의 변화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해온 압축적 성장과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도시화, 경제성장, 인구변천, 가치관의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결과이기도 하다. 가족의 크기는 출산수준의 저하와 함께 급속히 떨어졌고, 적은 자녀 수는 가족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해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화는 전통가족의 기반이었던 친족의 가족지배를 약화시켰고, 경제성장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늘리고, 소위 사회전반에 걸친 근대화는 변화 및 새로운 가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였다.

가족변화의 배경에는 또한 가족주의서 개인주의로의 한국사회의 가치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한국사회가 가족적 지위와 정체성 그리고 고려가 개인행동의 기준이 되며 가족이 사회적 평가의 단위로 작용하던 데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의 주체로 빠르게 탈바꿈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뜻한다. 이제까지 가족의 논의는 거의가 그것이 사회적 단위이던 통계적 단위이던 가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 지고 우리가 이러한 가치변화를 유의미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가족이나 가구생활에 관련된 자료도 개인을 단위로 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과 가구 통계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주의적 가치의 전파 외에도 여성주의적 이념의 사회적 확산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족의 이념적 위치 설정도 가족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주의적 가치는 한국의 전통가족의 뿌리인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있으며 여성의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가족의 변화에 핵심적인 동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전망과 관념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의 변화와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즉 오늘날 우리의 가족은 새로운 전망을 요구한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지표체계, 특히 가족부문의 체계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기존 체계의 검토

전통적으로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로 간주되어 왔다.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으며, 가족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핵심적인 생활세계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지표”에 있어 가족에 대한 관심은 1995년 지표체계 개선 이전까지는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가족 관련 내용은 “사회 부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가족의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로 언론에 회자되는 단편적인 가족관련 문제와 인구학적 관심과 연관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 상태분포”, “평균 혼인 연령”, “이혼사유 구성비율”, “가족계획 실천율”,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가구 구성형태별 비율”, “노후 준비방법”,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견해”, “가정생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가족이나 가족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어렵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1995년 지표개편 때에는 가족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설정하여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도 개편안은 가족의 핵심영역으로 가족형성, 가족구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그리고 가족문제로 설정하여 가족 부문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표 2-2-1>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실제 채택된 가족부문 내용은, 체계성에 대한 고려와는 별도로, 자료 수집과 구성의 문제,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 유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로, 제안의 일부만이 선택적으로 채택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가운데 체계상 가장 어색한 관심영역은 “가족생활”로 여기에는 원래 “주거 및 주택환경”, “가구 소득 및 지출”, “생활안정”, “문화생활”의 4개 하위영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결과적으로 출간된 사회지표에는 “생활안정” 하나만이 제시되었다. 이는 다른 하위영역들이 다른 관심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설명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한 쪽에서 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표는 어느 한쪽에 기재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같은 표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상의 문제 이외에 기존 지표의 문제점은 1990년 이후 가족의 변화에서 찾을

있다. 기존의 가족부문의 지표는 가족의 안정과 보편성을 규범적 전제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가족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보편적 사회제도로서의 가족의 기능과 성격도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지표체계를 가지고는 가족의 의미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존체계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지표체계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2-2-1〉 1995년 개편당시 제안된 가족부문 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 고
가구구성	가구구성	가구의 형태별 분포	'가구의 세대구성 형태비율' 을 재구성
	가족의 크기	평균 동거 가족원수	신규
	가족형태	가족의 세대수별 분포	'가구의 세대구성 형태비율' 에서 수정. · 모집단 변경
		가족의 형태별 분포	신규
	가족의 동거 핵수별 분포	신규	
가족형성	혼인	조혼인률	신규
		조재혼률	신규
	자녀출산	첫자녀 출산연령	신규
	가족의 해체	조이혼률	'연간이혼율'에서 수정
이혼 사유		'이혼사유별 구성비'에서 변경	
가족생활	주거 및 주택환경	거주주택의 종류	신규
		거주주택의 소유	신규
		가구당 주거 공간	신규
	가구 소득 및 지출	가구소득분포	신규
		가구지출구조	각 부문에 산재된 내용 통합
	생활안정	가구당 저축비율 분포	신규
		생활안정에 대한 평가	'가정생활만족도'를 생활안정에 제한 시킴
		중요한 생활 관심사	신규
	문화생활	가족 여가활동 현황	신규
가족 외식 빈도		신규	
가족 생활용품 현황		신규	

〈표 2-2-1〉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 고
가족문제	노인들의 가족생활	노인의 거주가구 분포	신규
		노인의 가족내 역할	신규
	청소년 및 취약 가구	편부모 및 부모의 친족 가구비율	'불안정가구비율'의 세분화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혼인에 대한 태도	신규
		이혼에 대한 태도	신규
		재혼에 대한 태도	신규
	가계의 중요성	남아선호도	신규
		대잇기에 대한 태도	신규
	가족생활 선호	선호하는 가족형태	신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신규
		기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신규
	여성의 역할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신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신규	

## 2. 요구되는 새로운 전망들

이상의 문제제기를 통해 나타난 가족부문 지표체계의 개편에 필요한 새로운 전망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중심의 접근과 가구의 포함

독신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보편성 관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의 중요한 제도적인 삶의 단위로서 전통적인 가족은 이제는 더 이상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의 삶을 분석하면, 독신 가구나 “노인의 집”, “공동체 가족”과 같은 집단 가구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사회적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고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기서는 가구와 가족을 하나의 범주로서 묶을 것을 제안한다. 가족에서 빠지는 사회성원들에 대한 고찰은 가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가족”의 상위 개념으로 “가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요 관심의 대상이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가구와 가족을 병치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 나. 탈가족화

가족의 해체가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을 때, 그리고 독신주의가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등장할 때, 이는 “탈 가족현상” 또는 “탈가족화”로 정의할 수 있다. 탈가족화는 다른 말로 개인의 생활이 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과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고, 그러한 관념은 소위 “문제자녀”, “문제가족” 또는 “깨진 가족”(broken family)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인들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이들 관념은 이러한 가구나 가족에 사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에서 살거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탈 가족화”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적합한 용어로 판단된다. 그 일차 지표로는 독신가구와 비친족가구, 집단가구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들 수 있다.

#### 다. 다양한 가족 관념의 수용

현대 가족에서는 근대가족의 전형인 핵가족과 확대가족, 또는 친족중심 가족과 부부중심 가족의 구분은 그 의미를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핵가족화, 부부중심 가족화가 이루어졌지만, 혼인의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거기에서 전형성은 찾기 어렵게 되었다. 탈가족화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는 혼인상태를 전제하지 않은 양성동거(가족)의 증가, 계약결혼, 동성애가족의 대두가 가족의 의미와 이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변화로 파악한다면, 이는 현대가족 변화의 특징을 가족형태의 다양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탈가족화와 다양한 가족의 개념은 오늘날 변화하는 한국가족의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 라. 여성과 노인관련 내용의 분리와 새 부문으로의 독립

“여성과 노인”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에 관한 내용은 현재의 지표체계에서는 “가족” 부문에 “문제” 집단의 관념 하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념은 전통적인 인식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인구 상황에서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위치의 중요성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그들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며 능동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여성과 노인”은 하나의 독립된 “부문”으로 분리시켜,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필요성은 또한 여성과 노인이 중요한 정치 및 시민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절실하게 대두하고 있다.

### 3. 기존 지표의 구체적인 문제점

기존지표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부문의 명칭, 관심영역의 설정과 같은 전반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그 하위 영역에 속하는 세부관심영역의 설정 그리고 개별지표의 문제로 초점을 점점 구체화 시키면서 전개하고 있다.

#### 가. 부문 명칭

친족가구를 떠나 독신가구 또는 비 친족가구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문명칭 “가족”은 인구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합성이 약하다. 따라서 부문명칭을 보다 포괄적인 명칭으로 볼 수 있는 “가구와 가족”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가구는 가족의 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을 대치하는 개념으로 “가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구와는 달리 가족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기본적 사회적 단위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심의 주안점이 가족에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가구와 가족”의 명칭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나. 관심 영역의 적절성

현재의 사회지표 가족부문의 지표체계는 <표2-2-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관심영역 “가족생활”과 “가족문제”는 완전히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체계상 “가

족생활"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표에 따르면 세부관심영역이 "생활안정"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생활 자체보다는 오히려 가족문제의 하위영역의 성격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구체적인 지표 두 가지, 즉 "중요한 생활관심사"와 "노후준비"도 가족생활의 지표로 보기가 어렵다. "중요한 생활 관심사"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노후준비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단위로 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생활조건의 파악은 이러한 구성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가족문제"와 관련된 지표 내용도 매우 불실하다. 여기에는 "노인의 가족생활"과 "취약 가구"가 하위관심영역으로 제시되어있으며 "노인가족생활"의 지표는 "60세이상 가구의 주택형태별분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취약가구에는 여성가구주 가구와 편부모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가족, 여성가구주 가족, 편부모가족을 과연 "문제"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문제는 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가족지원 체계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와 이혼으로 노인가구와 편부모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들을 문제 가족 또는 가구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족문제는 다르게 정의하거나 아니면 관심영역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속하는 기존의 내용은 쉽게 가족구성-가족형태의 개별 지표로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영역 "가족구성"은 "가구 및 가족구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세부관심영역에 그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심영역 "가족규범"에서 "가족생활 선호"는 규범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된 내용(가정생활 만족도, 청소년 고민상담내용,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개별지표 "가정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관심영역 가족생활 쪽으로 가야하고, 청소년 관련 문제는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개별 지표의 적절성

가구구성의 지표의 하나인 가구주의 성별 장래가구는 과거의 구성이 없이는 별 의미가 없다. 특히 다른 항목에서는 장래 추계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 항목은 장래 추계만 제시하는 것이 체계상 어색하다.

개별지표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에서 가구는 친족(혈연)가구를 뜻한다. 따라서 이는 “가족의 세대수별 분포”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이 지표는 또한 가족구성의 지표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옳다. 세부관심영역 “가족형태”, 개별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의 범주구성도 어색하다. 여기서 세부관심영역을 “가족구성”으로 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관심영역의 명칭과 충돌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요구되며, 잠정적으로는 “가구 및 가족구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표 2-2-2〉 1995년 개편이후 확정된 가족부문 지표 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통계표
가족구성	가구구성	일반가구수	2-1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2-1
		평균가구원수	2-1
		가구의 성별 장래가구	2-2
	가족형태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2-3
		가족의 형태별 분포	2-4
가족형성	혼인	평균초혼연령	2-5
		평균재혼연령	2-5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2-6
		조혼인율	2-7
		재혼건수	2-7
	자녀출산	기대자녀수	2-9
		이상자녀수	2-9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 첫 자녀 출산연령	2-10
	가족의 해체	평균이혼연령	2-5
		조이혼율	2-7
사유별 이혼구성비		2-8	
가족생활	생활안정	중요한 생활관심사	2-11
		노후준비 방법	2-12
가족문제	노인의 가족생활	60세 이상 가구의 주택형태별 분포	2-13
	취약가구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2-14
		편부모가구 비율	2-15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결혼에 대한 태도	2-16
		이혼에 대한 태도	2-17
		재혼에 대한 태도	2-18
	가계의 중요성	성차별에 대한 인식	2-19
		가정생활 만족도	2-20
	가족생활 선호	청소년 고민 상담대상	2-22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2-23
여성의 역할	가사분담 실태	2-21	

“가족형성”, “혼인”에서 “재혼건수”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쪽 재혼인 경우도 “재혼건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혼건수 또는 재혼자수는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에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혼건수는 지표상 중복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보다는 “혼인자 중 재혼자의 비율”이 보다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혼인률”은 가족형성의 지표로는 매우 조잡한 지표에 불과하다. 인구의 연령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서는 조혼인율이 혼인현상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대 30대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평생 미혼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즉 혼인의 보편성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혼인제도가 변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드려 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혼인율은 이러한 혼인의 의미, 혼인의 보편성의 와해와, 탈가족화 현상에 대해 별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가족형성에 관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알려주는 새로운 지표가 요구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개인의 평생 한번 이상 혼인할 확률을 보여주는 총(합계)혼인율의 작성일 것이다.

“자녀출산”에서 “기대자녀수”는 가족관련 의미보다는 오히려 인구관련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다양화 현상은 “미혼모 가족”의 규범적 수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가족 규범의 강요는 서구에서 보는 바와 같은 미혼모 출산율의 상승을 통한 전체 사회의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미혼모 가족은 혼인을 통한 가족형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자녀출산”에서는 미혼모 출산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가족의 해체”에서 개별지표 “조이혼율”은 “조혼인율”과 마찬가지로 전혀 이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구구조와 혼인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지표의 추가 개발이 요구된다. 그 하나가 한 개인이 평생 이혼할 확률을 나타내는 총(합계)이혼율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개별지표 “사유별 이혼구성비”는 별로 의미가 없는 지표로 판단된다. 이는 이혼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우선 응답 범주가 지나치게 단순할 뿐 아니라, 같은 이혼자일지라도 부부 사이에 그 이유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결혼생활 및 이혼의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인지가 이혼의 고찰에 있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표는 유용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 지표는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새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생활안정”의 “중요한 생활관심사”와 “노후준비 방법”은 반드시 가족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가족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생활관심사”는 현재의 가족구성과 특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별 가족의 특성을 무시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단순 집계한 것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노후준비방법”도 독자를 오도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 걱정이 크며, 그들대로 노후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접어둔 채, “노후준비방법”만을 물어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노인문제의 파악이나 노인 정책의 수립 모두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관심영역 “가족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관심영역 “노인의 가족생활”과 그 개별지표 “60세이상 가구의 주택형태별 분포는” 문제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취약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이나 “편부모가구 비율”도 마찬가지다. 이들 가운데 실제 취약가구의 비율은 이들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들 가구는 결코 비정상 가구도 취약가구도 아니다. 또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나 가족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얼마든지 있다. 만약 기존 지표체계에서와 같이 취약가구 개념을 쓴다면, “장애자 가구”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관심영역 “가족규범”, 세부관심영역 “가계의 중요성”의 유일한 개별지표인 “성차별에 대한 태도”는 지표로서의 적합성의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긍정-부정 여부를 성차별에 대한 인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조잡한 측정에 불과하다. 이 지표는 삭제하든가, 새로운 적합성이 높은 지표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성차별에 관한 내용은 여성관련 부문에서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세부관심영역 “여성의 역할”과 그 개별지표 “가사분담의 실태”도 비슷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사분담의 실태”는 여성의 지위나 역할 판단의 매우 조잡한 지표일 뿐이다. 그리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도 매우 포괄적인 질문으로 만들어져 실제 여성의 역할에 관한 규범적 관념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역시 여성관련 부문에서 새로운 개발이 요청되는 분야로 판단된다.

세부 관심영역 “가족생활 선호”는 관심영역 “가족규범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지표 내용

으로 볼 때, 규범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심영역 “가족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두개의 청소년 고민 관련 개별지표도 가족생활 선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고민을 가족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지표도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요구된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새 지표체계의 구성을 위한 논의도, 4절의 기존지표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초점을 체계 전반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보다 세분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 1. 부문 명칭의 변경

1990년 이후 급증하는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존의 부문 명칭인 “가족”을 “가구와 가족”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가족을 단위로 한 고찰에 개인을 단위로 한 고찰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이행과, 정상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가족의 다양성과 탈가족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사고로의 전이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관심영역의 구성

부문 명칭을 가구와 가족으로 할 경우, “가구구성”을 별도의 관심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가족구성을 “가구구성”과 “가족구성”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관심영역의 세부관심영역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성의 하위 영역을 “가구형태”와 “가구주 구성”으로, 그리고 가족구성의 하위 영역을 “가족형태와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관심영역 “가족형성”은 가족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영역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관심영역에 “혼인”은 그대로 두고 “가족의 해체”는 보다 명확한 용어인 동시에 가치중립적

인 용어인 “이혼”으로 바꾸고, 여기에 1990년 이후 가족형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상의 하나인 “재혼”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자녀출산”은 부모-자식관계 형성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도입하여 “자녀출산과 입양”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족의 형성과 탈가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족은 보편적 제도로 인식되었고, 모든 사람은 가족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 관념에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그러나 그 도전은 매우 거세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기서는 “탈가족화”를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세부관심영역은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대안적 가족”으로 일컬어지는 공동체 가족을 포함하는 비친족 동거가구, 비혼동거가족 등을 포함하여 탈가족화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탈가족화의 추세”와 현재 한국 사회 탈가족화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청년”들과 “노인”들의 탈가족생활의 3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존 가족부문 지표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이 “가족생활”과 “가족문제”이었다. 그것은 원래 이들 항목의 설정취지를 무시하고 이들의 세부관심영역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체계에 따르면, 이 두 영역은 “노인가구”와 소위 “취약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외의 가족생활 지표인 “중요한 생활관심사”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그리고 가족문제의 지표 가운데 노인의 가족생활 관련 항목 이외의 것은 관심영역 “가족구성”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생활”과 “가족문제”는 실제 내용에 맞게 “노인생활”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재 사회 지표체계에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가구 및 가족생활과 관련해 “노인생활”에 대한 내용을 독자적인 관심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 하위영역으로는 기존의 노인 관련 항목들은 묶어 노인들의 “가구생활”, “생활지원” 및 “노후에 대한 태도”로 설정할 수 있다.

관심영역 “가족규범”의 경우 세부관심영역의 조정이 요구된다. 우선 기존 하위 영역에서 “가정생활 선호”는 전혀 규범적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영역은 삭제가 요청된다. 한편 “가계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할”은 부적절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은 가족제도에 대한 관념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 가족문제에 대한 논의는 흔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 또는 서구에서 등장하여 전파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



적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변화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할 때, 관심영역 “가족규범”의 세부관심영역으로는 “가족제도관련 관념”, “혼인관련 태도”,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의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2-2-3>과 같다.

<표 2-2-3> 가족부문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의 새로운 개편안

현재계 (1995년 개편)		새로운 개편안		비고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가족구성	가구구성	가구구성	가구형태	신설
	가족형태		가구주구성	
		가족구성	가족형태	대체로 신규
			다양한가족	
가족형성	혼인	가족형성	혼인	현 체계에서는 가족의 해체 현 체계 혼인에서분리 입양 신설
	자녀출산		이혼	
	가족의 해체		재혼	
			출산과 입양	
		탈가족화	청년가구	신설
			노인가구	신설
			비친족 동거 가구 거주자	신설
가족생활	생활안정	노인생활	가구생활	대폭 확충. 현재계의 취약가구는 개편한 다양한 가족에 흡수
가족문제	노인가족생활		생계지원	
	취약가구		노후에 대한 태도	
가족규범	혼인의 의미	가족규범	가족제도 관련 관념	대폭 개편
	가계의 중요성		혼인관련 태도	
	족생활선호		대안적 가족 생활에 대한 태도	신설
	여성의 역할			가족생활선호 제외

### 3. 개별지표의 선정

가구구성과 가족구성 영역의 개별지표는 그 내용이 기존의 지표와 비슷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표는 재조정의 결과 상당한 내용의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지표 가운데 “일반가구수”는 새로 제안된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지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다른 지표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명칭을 삭제하였다. 기존 체계의 “가구구성” 영역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가구를 일반가구에 한정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화와 탈가족화로 인하여 공동체적 가구나 양노원이나 보육원 등의 시설 거주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가구에 대한 고찰을 일반가구에 한정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 체계에서는 센서스의 가구 분류체계에 따라 크게 일반가구(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 분리)와 집단가구로 가구의 종류를 나누어 그 분포의 변화를 고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내용은 신 체계에 새로 설정된 “탈가족화”와 “노인생활” 영역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형태별 분포”는 신 지표체계에서는 추가 제표를 통해 여러 개의 지표로 나뉘어 진다. “다양한 가족”에 포함되는 개별지표 가운데 “부부와 자녀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와 자녀가족”, “모와 자녀가족”, “조부모 자녀가족”, “미성년 가족”의 추세가 그것이다. 한편 신 지표체계에서는 “가족종류별 구성”은 친족가구의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구분에 한정시킬 것을 제안한다. 한편 기존의 “가구의 성별 장래인구”는 삭제하거나 아니면 신지표의 “일반가구의 성 구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 지표의 관심 영역 “가족구성”에 속하는 개별지표들은 모두가 새로 제안되는 개별지표에 흡수 통합될 수 있다. 그리고 신 체계에서는 기존 지표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가족생활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개의 지표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미혼모 가족”, “양자가족”, “분산가족” 및 “비혼 동거가족”의 추세이다.

“가족형성” 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틀은 유지하고 미비한 내용은 보완하는 개편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특기 할 것은 흔히 혼인과 이혼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는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을 보완하는, 인구구성과 상황에 관계 없이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시기별 추세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 즉 “총혼인율”과

“총이혼율”의 개발 제안이다. 이외에 혼인과 관련해서는 “평균 초혼연령”을 센서스의 미혼 비율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과 동태통계로부터 계산하는 것을 구분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인구학에서는 보통 평균 혼인연령으로 전자를 사용하나, 이 경우 보통 동태통계 자료에서 계산되는 평균 이혼연령이나 재혼연령과 함께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지표 가운데 “사유별 이혼 구성비”는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하고 오히려 이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아 삭제하였다. 한편 이혼이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연령에 따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이혼연령분포”를, 그리고 여성의 재혼이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재혼율” (또는 재혼비율) 을 새 지표체계에 추가하였다.

자녀출산과 관련해서는 “기대자녀수”를 빼고, “첫출산 비율”을 추가하였다. 첫출산 비율은 앞으로 현재의 출산수준과 앞으로의 출산행위의 예측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사회에서 입양은 중요한 가족형성의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입양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의 개방과, 소가족화, 무자녀 부부와 이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입양 대상 아동의 증가가 예측된다. 입양제도의 정착은 출산력 상승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 지표체계에는 “입양추세”와 “입양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표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가족형성”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탈가족화”에 관련된 세부영역은 “탈가족 생활 종류”와 목표 집단으로서 “청년가구”가 “노인가구”를 택하여 3으로 구성하였다. 거기에는 총체적인 “1인가구 추세”, 그리고 다른 종류의 탈가족화의 형태로 “비친족가구” 및 시설가구와 “비혼동거가족”의 추세를, 그리고 청년과 노인의 두 목표 집단과 관련해서는 “미혼청년 1인가구”, “기혼청년 1인가구”, “노인 1인가구”의 추세와 비율, “비친족가구 거주 노인”의 추세를 개별지표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신규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지표의 “가족생활”과 “가족문제”를 통합하여 제안된 “노인생활”에서는 기존 지표를 모두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였다. “가구생활”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거주 가구형태별 분포”와 “연령별 가구생활 변화”를, “생계지원”의 지표로는 “주 생계지원형태”와 “부차 생계지원 형태”를, “노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을 선정하였다.

“가족규범”의 하위영역 “가족제도관련 관념”의 개별지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쟁점으

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지표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에는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현모양처 관념에 대한 평가”,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 “혼인관련 태도”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독신에 대한 태도”와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로 대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새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의 지표로는 “미혼모 (또는 의도적인 미혼모)에 대한 태도”, “입양에 대한 태도” 및 “비혼동거에 대한 태도”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2-2-4>와 <표 2-2-5>와 같다.

<표 2-2-4> 기존 개별지표의 새 지표체계에서의 위치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가구구성	일반가구수	내용 흡수
	가구원수별 분포	가구종류별 가구원수 분포에 흡수
	평균가구원수	가구종류별 평균 가구원수에 흡수
	가구의 성별 장래가구	일반 가구의 성 구성에 흡수 가능
가족형태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가족의 세대구성으로 개칭
	가족의 형태별 분포	가족종류별 구성과 “다양한 가족”으로 재구성
혼인	평균초혼연령	그대로 수용
	평균재혼연령	삭제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재혼형태분포로 변경 수용
	조혼인율	그대로 수용
	재혼건수	재혼형태분포에 수용
자녀출산	기대자녀수	삭제
	이상자녀수	수용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 첫 자녀 출산연령	수용
가족의 해체	평균이혼연령	수용
	조이혼율	수용
	사유별 이혼구성비	삭제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생활안정	중요한 생활 관심사	삭제
	노후준비방법	삭제
노인의 가족생활	60세이상 가구주의 주택 형태별 분포	삭제
취약가구	여성가구주 비율	일반가구주의 성구성에 흡수
	편부모가구 비율	편부가족, 편부가족 추세로 구분
혼인의 의미	결혼에 대한 태도	독신에 대한 태도로 변경
	이혼에 대한 태도	수용
	재혼에 대한 태도	수용
가계의 중요성	성차별에 대한 인식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로 바꿈
가족생활선호	가정생활 만족도	삭제
	청소년고민상담 대상	삭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삭제
여성의 역할	가사분담 실태	삭제

〈표 2-2-5〉 가구와 가족 부문 지표체계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가구구성	가구형태	가구의 종류별 분포	신규
		인구의 거주 가구종류별 분포	신규/중복
		가구종류별 평균 가구원수	상세화
	가구주 구성	일반가구주의 성구성	명칭 변경
		일반가구주의 연령구성	신규
가족구성	가족형태	가족의 세대구성	명칭 변경
		가족의 종류별 분포	내용 단순화
		인구의 거주 가족종류별 분포	신규
		가족종류별 평균 가구원수	신규
	다양한 가족	일반 가족의 성원구성별 추세	상세화 분리
		· 부부만의 가족추세	
		· 부부와 자녀 가족 추세	
		· 부와 자녀 가족 추세	
		· 모와 자녀 가족 추세	
		· 조부모 자녀가족 추세	
		특별가족추세	신규
		· 미성년 가족추세	
		· 미혼모가족추세	
		· 양자가족추세	
		· 분산가족 추세	
· 비혼동거가족 추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가족형성	혼인	평균 초혼연령 1 (센서스)	신규
		평균초혼연령 2 (동태통계)	수용
		조혼인율	수용
		총(또는 합계)혼인율	신규
	이혼	이혼연령분포	신규
		평균이혼연령	수용
		조이혼율	수용
		총이혼율	신규
	재혼	재혼형태분포	부분 변경
		재혼율 (또는 재혼비율)	신규
	자녀출산과 입양	첫 자녀 출산연령	명칭변경
		첫 자녀 출산비율	신규
		이상자녀수	수용
		입양추세	신규
*입양에대한 태도		신규/중복	
탈가족화	탈가족 생활 추세	1인가구 거주자 추세	신규/중복
		비친족가수 거주자 추세	신규/중복
		비혼동거가족 거주자 추세	신규
		시설가구 거주자 추세	신규/중복
	청년가구	청년 1인가구	신규
		· 미혼청년 1인가구 추세	
		· 기혼청년 1인가구 추세	
	노인가구	노인1인가구 추세	신규
		비친족가구 거주 노인 추세	신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노인생활	가구생활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 분포	신규
		노인의 연령별 가구생활 차이	신규
	생계지원	주 생계지원 형태	신규
		부차 생계지원 형태	신규
	노후에 대한 태도	바람직한 노후생활에 대한 인지	신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신규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		신규	
가족규범	가족제도관련 관념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신규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신규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	신규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신규
	혼인관련 태도	독신에 대한 태도	명칭/내용변경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신규
		이혼에 대한 태도	수용
		재혼에 대한 태도	수용
	대안적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미혼모에 대한 태도	신규
		입양에 대한 태도	신규/중복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신규	

#### 제4절 결론

사회지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60년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는 흔히 경제발전, 도시화, 인구변천, 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대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1990년경에 끝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변



화와 함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전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세대갈등이 표면으로 부상하고,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여성주의의 거센 도전, 이들과 연관된 혼인과 가족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의 관심이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지표체계의 현실적 합성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표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의 필요성은 가족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바로 지표체계의 현실적합성과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가족부문 개편논의의 핵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가족부문 체계개편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혼인과 가족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로 치부되고, 독신생활, 탈가족생활, 무자녀가족에 대한 선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지표개편 원칙을 정하였다. 그 첫째는 새로 등장하는 가치나 행위를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을 가족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가족의 종류나 가족생활을 선택하는 주체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자칫 새로운 지표와 기존지표 사이에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기존지표의 중요한 한계로 우리는 지표체계의 낮은 통일성과 상당한 정도의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개별지표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개편작업에서는 지표의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지표체계의 통일성과 통합성도 다른 어떤 원칙 못지않은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 제3장 소득과 소비

### 제1절 서론

경제·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시키는데 있다. 삶의 질은 국민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부문은 경제적 측면에서 본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경제력의 확대는 소득 및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며, 가처분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나타나는 저축은 재산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본 연구는 최근 증대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1994년에 개편된 지표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회지표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존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소득·소비에 관한 주관적인 지표들을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소득 및 소비의 관심영역 외에 재산형성에 관한 지표들이 추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주관적·객관적 지표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 가. 국외연구의 검토

##### 1) 미국의 사회지표체계

미국의 사회지표체계는 개별지표의 수가 매우 많고, 인종별 및 성별 노동 참여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인 미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빈곤에 관련된 개별지표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서 빈곤퇴치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포괄성과 사회적·정책적 관심사를 충실히 반영한 미국의 사회지표체계는 수정·보완작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2-3-1〉 미국의 사회지표체계(소득과 생산성)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인지도	경기예상
	개인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
	가장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생산성	생산성과 소비자 물가 (시간당 생산량, 단위 노동비용, 시간당 급여, 소비자 물가)
	생산과 노동시간(총인구, 생산고, 총노동시간)
	기업활동지수: 생산성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
	민간기업산출량과 총작업시간 (산출량, 취업자 및 지수)
소득·내구재소비	개인소득과 소비
	개인소득의 소득원천
	개인소득중 세금의 비율과 세금의 구성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중 개인 연방소득세의 비율
	소득중 개인연방소득세의 비율 - 수입계층별
	소득과 개인연방소득세의 집중도
	1인당 개인소비지출(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1인당 가처분 개인소득, 자기소유 내구재의 순스톡(net stock of durable good), 내구재에 대한 개인소비지출
	1인당 사용가능수입에 대한 소유내구재가격의 비율
	평균 가계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5분위별 소득
	가계소득 집중도
소득의 비교	제1분위 소득가구수와 제 5분위 소득가구수의 차이
	5분위별 가계소득 분포(특성별)
	소득 5분위별 흑인과 기타 인종가족의 비율
	가계소득의 중복(Index of Family Income Overlap)
	인종별 가계소득의 비교
	인종별, 가족형태별, 부인의 노동참여상태별 평균가계소득
	인종별 실제 및 표준화된 가계소득의 변화

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the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1980.

〈표 2-3-1〉 계속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의 비교	가족속성별 (인종별, 아내의 노동참여상태별) 남편-아내 가족의 구성비
	인종별 평균가계수입(모든 가족 및 맞벌이가족)
	인종별 실제 및 표준화된 가계소득
	흑인의 실제 및 표준화된 가계소득의 대 백인가계소득 비율
	인종별 평균가족수입에 대한 가구의 위치
	인종별 2명 이상 취업자를 가진 가족의 비율
빈곤층	가족특성별 (인종별 · 가족형태별) 빈곤선이하의 가족의 수
	지역별 빈곤선이하의 인구수
	연령별 빈곤선이하의 인구수
	가구주의 성별 빈곤선이하의 인구수
	가족의 형태와 가구주의 인종별, 빈곤선이하의 가족에서 살고 있는 18세 아동의 비율
	지역별 인구와 빈곤의 분포
국제비교	노동생산성에 있어서의 변화
	소비자가격의 변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구성
	1인당 국내총생산의 구성

2) 일본의 사회지표 체계

일본은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를 따라 총무청 통계국에서 발간하는 『사회생활통계지표』와 경제기획청에서 국민생활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발간하는 『신국민생활지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86년에 성안된 국민생활지표(NSI)를 수정·보완한 1992년 『신 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를 검토하였다. 이 PLI는 15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

어있으며, 포괄적인 지표체계라기 보다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비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표 2-3-2 참조).

〈표 2-3-2〉 일본의 사회지표(경제적 안정)

NSI의 개별지표	PLI의 개별지표
일년간 실수입액	년간수입 (전세대)
실질수입증가율	(삭제)
사회보장이전	사회보장이전 (고령화)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역차지수
공적부조율	생활보호세대비율
-	국민생활센터에 접수된 위해정보건수
-	생명보험계약건수
조세부담률	(삭제)
사회보장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고령화)
저축잔고	저축연수비
저축잔고의 최정치	가계지출중 서비스관련지출의 비중
부채잔고	개인파산건수
-	소비자금융대출잔고
-	현금카드발생매수
-	CD 설치대수
-	내구소비재등 지출

자료: 일본 경제기획청, 「신 국민생활지표」, 1992.

### 3) 캐나다의 사회지표 체계

캐나다에서 2000년에 제시한 사회지표 체계에서는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 분위별 가처분소득의 분포, 근로자와 비근로자간의 급여 비율, 지역별 상대소득 수준, 소수인종의 상대소득 수준, 장애인 소득의 비중, 성별 상대소득 비중, 빈곤율(poverty ratio)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간의 급여 비율 지표는 근로시간을 일정하게 조정하였을 때

근로자 형태별 소득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인종, 장애인, 그리고 남·녀 간 소득수준 또는 소득비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율의 척도로 중위 동등소득(median equivalent income)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4) 독일의 사회지표 체계

유로경제의 사회지표를 구축하는데 근간이 된 것은 독일의 사회지표 체계이다. 독일의 사회지표 중 소득·소득분배에 관한 항목에는 1인당 순국민소득(NNP) 및 그 증가율, 지역별 가구소득의 분포, 소득집중도(하위 20% 및 상위 10%), 가구소득 만족도, 가구소득 중요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1993년에 개정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에 따라 GNI 또는 GDP를 거시경제 측면의 소득 척도로 보고 있는데 비하여 독일은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을 사용하고 있다. 동·서독 간의 소득수준을 비교하기위하여 지역별 가구소득을 수록하고 있으며, 주관적 지표인 가구소득 만족도 및 가구소득 중요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5)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

UN에서 1975년에 제시한 사회·인구통계체계에서는 소득분포, 소비 그리고 재산형성을 주요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관심영역으로는 개인과 가계의 소득, 최종소비지출과 가구총소비 그리고 저축과 내구소비재를 설정하고 있다.

UN의 사회지표는 현재까지도 이 체계가 근간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간 소득의 비교를 위하여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를 이용한 소득 통계도 수록하고 있다.

〈표 2-3-3〉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소득분포, 소비, 재산형성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개인과 가계의 소득	경상 및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1인당 1차소득
	경상 및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인구 1인당 분배소득
	가구주 1인당 가계당 분배소득
최종소비지출, 가구총소비	경상 및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가구원 1인당 개인소비 지출
	경상 및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식료품개인소비
	경상 및 불변가격으로 평가한 1인당 총소비
저축, 내구소비재, 가계의 순가치	획득가능소득 대비 저축율: 1인당 개인저축(경상, 불변)
	내구소비재 유형별 소유가구비율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개인순자산

자료: United Nations,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New York, 1975, pp.76~79.

## 6) OECD지표

OECD지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이 관심부문인데 소득분배, 저소득, 물질적 박탈 등이 소득부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富力 분포는富力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표 2-3-4〉 OECD의 사회적 관심영역(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	소득분배
	저소득
	물질적인 박탈
부	부의 분포

자료: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3, pp. 17~46.



## 나. 국내연구의 검토

1978년에 처음 성안된 한국의 사회지표는 1987년의 1차 개편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개편되어 왔다. 1978년의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는 소득수준, 소득분배, 그리고 저축수준을 관심부문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이후에 경제적 생활의 안정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1994년에 작성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는 기본적으로 1987년에 개편된 안을 따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가와 소득부문이 미흡하고 분배부문에 치중한 것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1987년 개편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1994년의 사회지표에는 누락된 지표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1995년의 개편에서는 이들 누락된 지표들을 다시 포함시키고, 소득부문을 대폭 보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 신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소득·소비부문에 대한 신지표체계의 방향은 1995년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크게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표체계를 소득·소비·저축·조세·재정·분배라는 거시경제학에서의 국민계정 체계에 의거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지방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재산은 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는 조사나 자료획득이 용이하지는 않더라도 장래개발지표로서 개발하도록 한다. 넷째, 조세부담 부분을 보강하여 다른 부분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장률 둔화와 관련하여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저축영역에 투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2004년의 개편에서는 1995년에 개편된 지표체계를 유지하면서 내용설명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발달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과 소비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위 관심영역별 개별지표의 선정은 이들 관심영역의 결과로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편된 지표체계에 따라 소득수준, 소비수준, 저축 및 투자,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같이 5개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소득, 소득의 원천, 지역 내총생산, 소비규모, 소비지출, 저축 및 투자 수준, 저축생활, 분배구조, 분배상태, 조세부담, 소득의 안정, 소비의 안정 등과 같이 12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소득-소비-조세·재정-분배라는 거시경제의 틀에 따라 관심영역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저축영역에서 투자를 포함하도록 관심영역을 확대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세부영역 또한 확대하였다. 1995년 개편에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하였던 소득영역의 「지역내총생산」 세부 관심영역을 이번 개편에서도 유지하였다. 그리고 소득분배영역의 「조세부담」 세부 관심영역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전체적으로는 5개의 관심영역과 12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지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표 2-3-5 참조).

〈표 2-3-5〉 소득과 소비 부문 지표체계 비교

1986년 체계		1994 및 2004년 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소득수준	소득	소득수준	소득
	소득자원		소득원천
소득분배	분배상태	소비수준	지역내 총생산
	재분배		소비규모
소비수준	소비규모		소비지출
	내구소비재지출	저축·투자 및 재산 형성	저축 및 투자수준
저축수준	국민저축수준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저축생활
	저축생활		분배구조
경제적 생활의 안정	소득의 안정		분배상태
	소비의 안정	경제적 생활의 안정	조세부담
			소득의 안정
			소비의 안정

## 2. 개별지표의 선정

### 가. 삭제지표

신지표체계에서는 기존지표를 삭제하는 대신, 일부 지표를 수정하고 부족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1995년 개편에서 제외되었던 지표들을 재검토 해 보았으나, 추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지표체계 내에 수록하지 않았다. 1995년 당시 제외된 지표들은 「소득」중 ‘가구당 평균소득증가율’, 「분배상태」, 세부관심영역내의 ‘소득계층별 가구분포’(‘소득10분 위별 분포’와 중복), ‘분배개선도’(산식의 의미가 모호), ‘1인당 국민소득 (per capita NI)에 대한 근로자 가구원 1인당 소득비율’ (의미가 불명확), ‘사회보장분담금 비율’, ‘해외저축률’(‘총투자율’에서 집계항목을 통하여 국내총투자율과 대외투자율 구분) 등이다.

### 나. 신규지표

1987년 안에는 없었으나 1995년 지표체계에서 새로 추가된 지표는 ‘국민가처분소득’, ‘지역내 총생산(GRP)’, ‘1인당 GRP’, ‘지역별 생산구조’, ‘가구당 소비재 종류별 지출률’, ‘가구당 평균소비성향’, ‘총투자율’, ‘영업잉여’, ‘순간접세’, ‘구매력지수’, ‘수입물가지수’, ‘공공요금지수’ 등의 14개이었다.

그리고 기존안의 ‘GDP 및 GNP’는 ‘GDP, GNP 및 GNI’로 확대하였다. 과거에 자주 사용되던 국민총생산 (GNP) 지표를 한국은행에서 새로 발표하고 있는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이 대신함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지표 중 국민계정과 관련된 것은 GDP에 대한 정부소비 비율, 1인당 정부소비지출, 투자재원자립도 등이다.

조세부담 세부관심영역에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 그리고 사회보장부담률을 새로 추가하여 조세부담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의 안정에는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물가지수를 추가하였다.

### 다. 주관적 지표

기존 지표체계 내에 수록된 주관적 지표로는 ‘분배상태에 대한 인식’,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장내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다. ‘분

배상태에 대한 인식'과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은 현 분배상태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또 소비의 안정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들과 더불어 '장래가 구소득에 대한 기대'와 '소득만족도' 지표를 통하여 소득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CSI에 일부 주관적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3. 신 사회지표체계의 구성

신 지표체계에서는 관심영역으로서 소득수준, 소비수준, 저축·투자 및 재산형성, 소득 분배 및 조세부담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안정 등 5개 영역을 설정하였고, 이들 관심영역에 따라 선정된 세부관심영역별 개별지표를 선정한 결과는 <표 2-3-6>에 정리되어 있다.

〈표 2-3-6〉 소득과 소비 부문 신 사회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소득수준	소득	GDP 및 GNP/GNI	
		1인당 GDP 및 1인당 GNI	
		국민가처분소득	
		개인가처분소득	
		가구당 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농가 월평균소득	
		도시·농가의 평균소득 비율	
	소득원천	소득원천별 구성비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GRP)
1인당 GRP			
지역별 생산구조			
소비수준	소비규모	GDP 대비 민간소비 지출비율	
		GDP 대비 정부소비 지출비율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1인당 정부소비지출액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률	
	소비지출	소비지출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가구당 소비재 종류별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내구소비재지출율
			가구당 평균소비성향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흑자율
저축·투자 및 재산	저축 및 투자수준	총저축률	
		민간저축률	
		정부저축률	
		국내 총투자율	
		국외 투자율	
		투자재원자립도	

〈표 2-3-6〉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저축생활	가계저축률
		가구당 금융자산잔고
		부채가구 비율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배구조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잉여
		순간접세
	분배상태	소득10분위별 분포
		소득집중도(지니계수,소득10분위분배율)
		소득분배의 형평에 대한 인식*
	조세부담	조세부담의 형평에 대한 인식*
		조세부담률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금부담률		
비조세부담률		
경제적 생활의 안정	소득의 안정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 만족도*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구매력 지수
		생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공공요금지수
		소비자피해 구제건수

\* 주관적 지표임.

## 제4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대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와 삶의 질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개편된 사회지표체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체계를 소득-소비-저축-조세·재정-분배라는 거시경제학적 이론체계에 의거하여 구성함으로써 부문의 체계성을 증대시켰다. 둘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개별지표를 포함하였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와, 국제화 시대에 따라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항목을 보강하였다. 셋째, 부문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취약한 영역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다. 재산은 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는 조사나 자료획득이 용이하지는 않더라도 장래개발지표로서 개발하도록 하였고, 소득부분과 조세부담부분을 보강하여 분배부분과의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산부분의 포괄범위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자산은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공식통계가 있으나 실물부분은 자료의 포괄범위나 입수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순환통계에서 포착되는 개인부분의 금융자산잔고와 가구당 금융자산잔고만을 제시하였다.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각종 물가관련지표들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선진 외국의 물가지표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향후의 연구를 바탕으로 물가를 별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독립시키는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형성에 관한 포괄범위 및 자료의 입수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김경중, 『한국의 경제지표』, 1993.
-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각년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사회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1993.12.
- 주학중 외,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주학중 외,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보건사회연구원·통계청, 1994.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30년: 1963~1992』, 1993.12.
- 통계청, 『물가연보』, 각년도.
- 통계청, 『통계로 보는 한국의 발자취』, 1995.8.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1994.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4.
- 한국은행, 『국민계정 용어해설』, 1993.
- 한국은행, 『물가총람』, 1994.
-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2004.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 -어제와 오늘-』, 1995.
- 한국주택은행, 『주택금융』, 1995.6.
- 한성덕,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체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8.
- Atkinson, Tony, Bea Cantillon, Eric Marlier, and Brian Nolan, *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Oxford, 2002.
- CCSD, *Social Cohesion in Canada: Possible Indicators*,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November 2000.



- Carley, Michael,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1981.
- Drewnowski, Jan,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 Erikson, R., "Descriptions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in M. Nussbaum and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1993, pp. 67-87.
- Erikson, R., and H. Uusitalo, *The Scandinavian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Reprint Series No. 181, Stockholm, 1987.
- GESIS, "The Germ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http://www.gesis.org>
- Innes, J.E., "Disappointments and Legacies of Social Indicators," *Journal of Public Policy*, 9, 1990, pp. 429-432.
- Innes, J.E., *Knowledge and Public Policy. The Search for Meaningful Indicator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89.
- Johnston, D.F., "Toward A Comprehensive 'Quality-Of-Life'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1988, 473~496.
- Land, K., "Social Indicators," in *Encyclopedia of Sociology*, 1992, pp.1844~1850.
-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OECD Social Indicator Development Programme. Paris: OECD, 1982, pp.17~46.
- Rose, Richard, "Whatever happened to Social Indicators? A Symposium,"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9, 1990, pp.399~450.
- Rothenbacher, F., "National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in Social Report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9, 1993, pp.1~62.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the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the Census, December 1980.
- United Nations,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eries F, No. 49, 1989.
-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3.
- United Nations,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eries F, No.18, 1975.
- Vogel, Joachim, "Social Indicators: A Swedish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Policy*, 9, 1990, pp.439~444.
- Vogel, Joachim,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Indicators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2, 1997, pp.103~116.

## 제4장 노동

### 제1절 서론

「노동부문」을 포함하여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 사회의 현재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체계가 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지표체계를 추구한다는 방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미래 우리 사회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는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인구의 고령화'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여건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각 분야의 변화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한국의 사회지표」 노동부문 지표들은 노동시장의 산업별 구조와 근로조건 변화 등을 적절히 포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변화는 일정한 정도로 기존 지표체계에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고령화는 주류 남성노동자에 집중되던 관심을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 기존에는 주변에 머물렀던 노동력인구들에게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개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성인지적 지표체계의 구축이다. 기존의 지표체계는 대체로 성을 구분하지 않은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성차별 이슈와 관련된 지표를 따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상과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표체계인 「한국의 사회지표」는 대부분의 통계수치 제시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성인지적인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개편 방안의 기본 원칙

- 내용 상의 변화
  - 성인지적 지표체계
  - 노동시장의 사회통합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체계
- 형식 상의 변화
  - 시계열 축소와 지표통합
  - 순서 재배치와 재분류

둘째,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수치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통합(inclusion)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빈곤대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배제(exclusion)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집단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통계수치를 작성하는 대상집단을 세분화하고 지표체계의 성별성을 강화하는 경우 제시되는 통계의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시계열을 축소하고 몇 가지 지표는 통합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존 노동부문 지표들은 순서의 재배치를 통하여 주제별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표체계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국외연구의 검토

현행 「한국의 사회지표」는 OECD의 「Employment Outlook」이나 일본의 「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에서 다루고 있는 지표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욱 다양한 지표들

을 제공하고 있다. OECD의 「Employment Outlook」이 제공하는데 「한국의 사회지표」가 포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출과 수혜자 규모'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지표」는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유사한 지표로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된 통계를 싣고 있다.

일본의 지표가 우리 지표와 다른 점은 구인배율과 구직율과 같은 취업알선의 실적들을 제공한다는 점과 장애인·고령자의 고용에 관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취업알선 관련 실적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취업알선기관의 통계는 '중앙고용정보원' 통계를 인용하여 제공할 수 있지만 전체 취업 건수 중에서 공공기관을 통해 성사된 취업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는 것 자체의 의의가 크지 않다. 장애인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통계는 향후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개편에서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OECD employment outlook

1. OECD 27개국의 표준화된 실업률
2. 인구대비 고용률, 경활율과 실업률; 15~64세, %
3. 연령별 구분에 따른 인구대비 고용률, 경활률과 실업률: 남녀 모두, %
  - 3-1. 연령별 구분에 따른 인구대비 고용률, 경활률과 실업률: 남성, %
  - 3-2. 연령별 구분에 따른 인구대비 고용률, 경활률과 실업률: 여성, %
4. 교육정도에 따른 인구대비 고용률, 경활률과 실업률: 남녀 모두, %, 25세~64세
  - 4-1. 교육정도에 따른 인구대비 고용률, 경활률과 실업률: 남성, %, 25세~64세
  - 4-2. 교육정도에 따른 인구대비 고용률, 경활률과 실업률: 여성, %, 25세~64세
5.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과 구성
6. 근로자 1인당 실제 연간 평균 근로시간
7. 장기 실업자의 비율: (전체 실업자 대비)
8. 장기 남성 실업자의 비율: (전체 남성실업자 대비)
9. 장기 여성 실업자의 비율: (전체 여성실업자 대비)
10.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출과 수혜자 규모

## (2) 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 (일본)

## 1. 경제활동상태

- ①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 ② 1차산업 취업자 비율
- ③ 2차산업 취업자 비율
- ④ 3차산업 취업자 비율
- ⑤ 실업률(성별)

## 2. 고용상태

- ① 임금근로자 비율
- ②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 비율
- ③ 다른 지자체로부터 통근하는 취업자 비율

## 3. 고용기회

- ① 신규 고용률
- ② 구인배율
- ③ 고졸자의 신규 고용률
- ④ 전문대, 대졸자의 신규 고용률
- ⑤ 45세 이상의 고령자의 구직률
- ⑥ 4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률
- ⑦ 장애인의 고용률(취업자 1,000명 대비)

## 4. 이직률

- ① 이직자 비율
- ② 신규고용자 비율

## 5. 고용조건

- ① 한달 평균 근로시간 (성별)
- ② 한달 평균 급여 (성별)
- ③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시급 (여성)
- ④ 고졸자의 한달 평균 초봉 (성별)
- ⑤ 대졸자의 한달 평균 초봉 (성별)
- ⑥ 전문대졸자의 한달 평균 초봉

## 2. 국내연구의 검토

국내에서 비교적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 노동통계』이다(별첨1 참조). 『KLI 노동통계』는 관심영역으로 고용전반, 임금 및 노동비용, 근로시간, 근로자생활, 노동생산성, 노사관계의 6개 영역을 설정하고 있고, 노동관련 주요지표를 망라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가 노동부문에서 이 정도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사회지표』가 갖는 추가적의 의미는 노동분야의 핵심지표들과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측정한 지표들을 제공함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신지표체계의 관심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영역을 제안한다. 관심영역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지표에서 특수지표로의 순으로의 배열순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 취업자의 구성
- 근로조건
- 노동이동
- 훈련 및 기술자격
- 고용보험
- 산업안전
- 노동생산성
- 노사관계
-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 2. 개별지표의 설정

1995년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을 위한 연구보고서는 62개의 노동관련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사회지표(2003)』는 3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안된 지표 중에서 26개가 삭제되고 36개의 지표가 최종선택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2개 이상의 지표를 하나로 축소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달리 말하자면, 1995년 보고서의 지표리스트와 실제 『한국의 사회지표(2003)』 지표 리스트의 단순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비교적 축약되고 체계화된 상태인 『한국의 사회지표(2003)』의 노동부문 지표와 새로이 제안하는 지표체계를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관심영역별로 새로운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삭제된 지표와 추가된 지표를 따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1995년 보고서에서 제안되었으나 『한국의 사회지표(2003)』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은 지표들을 검토하여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유의미한 지표들이 있다면 다시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1) 신·구 지표체계의 비교

<표 2-4-1>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1980~2002	-전체 -농가,비농가 구분 -남여구분	- 15세이상 인구, 경활인구(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 경활인구(농가, 비농가, 남자, 여자), 취업률
4-13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1998~2002	-전체	청년층인구(경활인구(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경활률, 실업률)
4-15	실업률	1980~2002	-전체 -남여구분 -농가,비농가 구분	계, 남자, 여자, 농가, 비농가
4-16	교육정도별 실업률	1995~2002	-전체 -남여구분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4-17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1995~2002	-전체 -남여구분	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 15세 이상 인구, 경활인구(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인구 - 경활참가율: 전체; 남자, 여자; 청년층, 고령층; 농가, 비농가
4-2	실업률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전체; 농가, 비농가; 남자, 여자; 고졸 미만, 고졸, 대졸 이상; 청년층
4-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남여구분	전체,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에 관한 구지표는 성별구분, 농가·비농가구분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기간(년도)의 범위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이점을 조정하였다. 실업률 관련 지표의 위치는 경제활동참가율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따로 분류해내지 않고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전체 표 안에서 하위집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결한 체계 속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정도별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 표 안에서 처리하였다.

〈표 2-4-2〉 취업자의 구성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1980-2002	전체	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44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①1984-1992 ②1993-1999 ③2000-2002	전체	①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직 ② 취업자,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직, 기계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 ③ 취업자,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기계·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종사자
4-10	여성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	①1982-1992 ②1993-2002	전체여성	① 총여성취업자,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전문관리직비율 ② 총여성취업자, 전문·기술공 및 준전문가,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관리직 비율
45	55세이상 취업자비율	1980-2002	-전체 -남여구분 -농가, 비농가구분	55세이상 취업자수, 55세이상 취업자 비율(전체, 남자, 여자, 농가, 비농가)
46	산업별 55세이상 취업자비율	1980-2002	전체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1980,1985, 1990,1995, 2000-2003	전체 남녀구분	취업자,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4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①1980, 1985, ②1990, 1995 ③2000-2003	전체 남녀구분	①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직 ② 취업자,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직, 기계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 ③ 취업자,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기계·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종사자
46	55세이상 취업자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남여구분 -농가, 비농가구분	55세이상 취업자수, 55세이상 취업자 비율(전체, 남자, 여자, 농가, 비농가), 산업별 55세이상 취업자 비율(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는 전체 취업자와 남성, 여성 취업자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성별로 구분된 통계수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여성 전문·관리직 비율은 따로 지표화할 필요 없이 전체 취업자분포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5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과 각 산업별 고령취업자 비율도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3	임금근로자비율	1980-2002	-전체 -남여구분	- 취업자(18세미만),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비율(남자, 여자,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4-14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1995-2002	-전체 -남여구분 -시간대 구분	취업자(1-17시간, 18-35시간, 36-44시간, 45-53시간, 54시간이상), 일시휴직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7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여성 - 55세 이상	- 전체취업자 - 18시간미만 근로자 -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는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지표가 이후에 다시 제시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하는데, 그만큼 중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간결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18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전체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에 남겨서 제시하기로 한다. 이 이외에도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7	외국인 근로자 현황	①1980-1992 ②1993-2002	전체	①외국인근로자(교육연구, 취업, 기술제공, 흥행) ②외국인근로자, 교수 및 연구, 회화지도, 기술지도, 전문 및 특정직업, 예술흥행, 연수취업, 산업연수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8	외국인 고용현황	①1980, 1985, 1990 ②1995, 2000-2002	전체 남녀구분	①외국인근로자(교육연구, 취업, 기술제공, 흥행) ②외국인근로자, 교수 및 연구, 회화지도, 기술지도, 전문 및 특정직업, 예술흥행, 연수취업, 산업연수
4-9	장애인 고용현황	①1980, 1985, 1990 ②1995, 2000-2002	전체 남녀구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은 성별구분을 추가하여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에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제시해 주는 것도 취약한 노동그룹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지표가 될 것 이다.

<표 2-4-3> 근로조건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4	주당근로시간	1980-2002	-전체 -남여구분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21	월평균 근로일수	1980-2002	-전체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4-8	장기근속자비율	1994-2002	-전체 -근속연수별	총근로자, 5년이상근로자, 근속연수별 장기근속자비율(5-9년, 10-14년,15-19년, 20년이상)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0	산업별 주당근로시간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남여구분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 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 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 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11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남녀구분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 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4-12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남녀구분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 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4-13	주5일 근무제 실시 사업체 비율	2004~	-산업별 -규모별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 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1-9인,10-99인,100-299인, 300인이상
4-14	평균정년퇴직 연령	2004~		

구지표체계에서 주당근로시간과 월평균근로일수, 장기근속자 비율은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기간'이라는 근로조건외의 큰 틀에서 볼 때 일관성있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신지표체계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성별구분과 포함 기간 등의 면에서 일관성을 기하고 기간도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특히 근속기간별 계속근속기간은 하나의 독립적인 지표로서 임금수준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으로 대체하였다.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여부에 관한 지표를 장래개발하여 포함시킨다.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5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1980-2002	-전체	전산업(임금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26	산업별 평균 임금격차	1980-2002	-전체	농림수산업 및 수렵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27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①1984-1992 ②1993-1999 ③2000-2002	-전체	① 평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직 ② 평균,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판매, 농림어업직, 기능원·장치계조직원, 단순노무직 ③ 평균,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업·어업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4-23	직종별 평균 임금격차	①1984-1992 ②1993-1999 ③2000-2002	전체	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직 ②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직, 기계장치기계조직원, 단순노무직 ③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직원, 단순노무종사자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5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남녀구분	전산업(임금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16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①1980, 1985, ②1990, 1995 ③2000-2003	-전체 -남녀구분	① 평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직 ② 평균,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판매, 농림어업직, 기능원·장치제조작원, 단순노무직 ③ 평균,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업·어업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산업별, 직종별 평균 임금격차는 각각 산업별,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에서 바로 계산이 가능한 지표이므로 또 다시 나열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성별로 분리된 통계수치의 제시를 통해서 성인지적인 지표체계를 추구한다.

〈표 2-4-4〉 노동이동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8	입직률	1980-2002	-전체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4-19	이직률	1980-2002	-전체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7	산업별 입직률	1980, 1985, 1990, 1995, 2000 - 2003	-전체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4-18	산업별 이직률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표 2-4-5〉 훈련 및 기술자격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0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980-2002	-전체	취업자(기술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9	직업훈련자 수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산업별
4-20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취업자(기술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표 2-4-6〉 고용보험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32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	2001 2002	-근로자 수 (30인미만,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체수(사업체당 평균피보험자수),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남자, 여자)
4-33	산업별 고용 안정사업 지원현황	2001-2 002	-전체 -지원사업건수, 지원금액, 지원인원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4-34	산업별 실업급여 수혜자 수	2001-2 002	-전체 -남여구분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1	고용보험 적용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근로자 수 (30인미만,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체수(사업체당 평균피보험자수)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남자, 여자)
4-22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남여구분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고용안정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단일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소규모 사업들이 결합되어있는 상태이고 각각의 사업은 지원금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크므로 전체 고용안정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지표로 처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표 2-4-7> 산업안전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0	건강진단 수검률 및 직업별 근로자 비율	1978-2002	-전체 -근로자수와 비율	건강진단대상근로자수, 건강진단수검근로자수(율), 직업병유소견자수(율),
4-21	산업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및 재해사망률	1980-2002	전체	피해자수(사망자수), 재해건수, 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사망률(만명당)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3	건강진단 수검률 및 직업병 근로자 비율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건강진단대상근로자수, 건강진단수검근로자수(율), 직업병유소견자수(율),
4-24	산업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및 재해사망률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피해자수(사망자수), 재해건수, 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사망률(만명당)

<표 2-4-8> 노동생산성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2	노동생산성 지수	1980-2002	-전체	총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지수, 전년대비 증감률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5	노동생산성 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총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지수, 전년대비 증감률

〈표 2-4-9〉 노사관계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36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1981-2001	-전체	단위노동조합수, 노동조합조합원수(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 건수, 근로손실일수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6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전체	단위노동조합수, 노동조합조합원수(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 건수, 근로손실일수

〈표 2-4-10〉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9	직업선택요인	1995 1998 2002	-남여구분 -연령구분 (15-19,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15세이상 인구, 명성명예,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모르겠음
4-28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1991 1995 1998	-전체 -남여구분 -직종구분 -만족도구분 (만족, 보통, 불만, 모름)	하는일, 인사관리, 복리후생, 임금,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상하관계, 직장에서 성희롱 방지노력, 근로시간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7	직업선택요인	1995 1998 2002	-남여구분 -연령구분 (15-19,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15세이상 인구, 명성명예,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모르겠음
4-28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1991 1995 1998	-전체 -남여구분 -직종구분 -만독도구분 (만족, 보통, 불만, 모름)	하는일, 인사관리, 복리후생, 임금,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상하관계, 직장에서 성희롱 방지노력, 근로시간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11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1995,1998	-전체 -남여구분 -동부,읍면 -학력별(초, 중,고, 대졸) -연령별	15세이상인구(가정에만 전념, 결혼전까지 취업, 첫째자녀출산전까지, 자녀성장후취업,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취업,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 모르겠음) - 연령(15-19, 20-29, 30-39, 40-49, 50-59, 60+)
4-12	여성취업 장애요인	1995, 1998, 2002	-남여구분 -연령구분 -직종구분(전문,사무, 서비스판매, 농어업, 기능노무직)	15세이상인구(사회적 편견과 관행, 직업의식 및 책임감부족, 불평등한근로여건, 여성의 능력부족, 육아부담, 기타, 모르겠다)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29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1995,1998	-전체 -남여구분 -동부,읍면 -학력별(초, 중,고, 대졸) -연령별	15세이상인구(가정에만 전념, 결혼전까지 취업, 첫째자녀출산전까지, 자녀성장 후취업,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취업,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 모르겠음) - 연령(15-19, 20-29, 30-39, 40-49, 50-59, 60+)
4-30	여성취업장애요인	1995, 1998, 2002	-남여구분 -연령구분 -직종구분(전문,사무, 서비스판매, 농어업, 기능노무직)	15세이상인구(사회적 편견과 관행, 직업의식 및 책임감부족, 불평등한근로여건, 여성의 능력부족, 육아부담, 기타, 모르겠다)

※ 삭제된 지표

구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9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1982-2002	전체여성	여성취업자수, 미혼, 기혼(유배우, 기타)
4-35	성별 임금, 근속년수, 근로시간 격차 및 이직률 비	1980-2002	-남여구분	임금, 근속년수, 근로시간, 이직률
4-33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2001-2002	-전체 -지원사업건수, 지원금액, 지원인원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여성취업자의 혼인상태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하여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므로 이 지표를 삭제하였다.

임금, 근속년수,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지표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표로 분산배치 되었다.

## ※ 추가된 지표

신지표	지표의 명칭	년도	대상	하위범주(내용)
4-9	장애인 고용현황	①1980, 1985, 1990 ②1995, 2000-2002	전체 남녀구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4-13	주5일 근무제 실시 사업체 비율	2004~	- 산업별 - 규모별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사회 및개인서비스업 1-9인, 1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4-14	평균정년퇴직 연령	2004~		
4-19	직업훈련자 수	1980, 1985, 1990, 1995, 2000-2003	- 전체	산업별

## (2) 1995년 개편 안을 기준으로 한 비교

1995년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는 62개의 노동관련 지표를 제안하였다. 일부 축약된 형태로 제시된 지표를 고려하면, 1995년 보고서에서 제안하였으나 『한국의 사회지표(2003)』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4-11〉 1995년 개편안을 기준으로 한 비교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고용인력개발	취업	대기업근로자 비율	
		재택근로자 비율	
		파견근로자 비율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직업안정	전직자 비율	
		구인배율	
		취업알선비율	
	고용보험	능력개발기금수혜사업체 비율	
		고령자 재고용비율	
	인력개발	직업훈련자 수	○
		재훈련수료자 지수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근로조건	근로시간	연간 평균유급휴가일수	
		토요휴무제 실시사업체 비율	○
	임금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임금계층별 임금수준(지니계수)	
		기본급비율	
		노동분배율	
		근로조건	평균정년퇴직연령
		희망정년시기	
	안전보호	재해예방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노사관계	노동3권	단체협약체결 기업체 비율	
	경영참가	종업원 지주제도 참여업체율	

1995년 보고서에서 제안하였으나 『한국의 사회지표(2003)』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지표 중에서 직업훈련자 수는 새지표체계에 포함시켰다. ‘토요휴무제 실시사업체 비율’은 근로시간단축의 제도변화 이후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정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장래개발하여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는 부분적인 표본조사로만 파악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평균 정년 퇴직연령’ 역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이므로 장래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표이므로 구체적인 조사방안이 먼저 필요하다.

나머지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신지표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 ①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표: 재훈련수료자 지수, 전직훈련수료자 지수 등
- ②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제시하기 어려운 지표: 파견근로자 비율, 구인배율 등
- ③ 다양한 제도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종합결과는 지표로서 전달하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능력개발기금수혜사업체 비율
- ④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더 이상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않는 지표: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등
- ⑤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표: 재택근로자비율,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비율 등

### 3. 신지표체계의 구성

〈표 2-4-12〉 신지표체계의 구성

일련 번호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1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2		실업률		
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4	취업자의 구성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6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7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8		외국인 고용현황		
9		장애인 고용현황		
10		근로조건	산업별 주당근로시간	
11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12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	
13	주5일제 근무 사업체 비율			
14	평균 정년퇴직 연령			
15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16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17	노동이동	산업별 입직률		

일련 번호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18		산업별 이직률	
19	훈련 및 기술자격	직업훈련자 수	
20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21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22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23	산업안전	건강진단 수검률 및 직업병 근로자 비율	
24		산업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및 재해사망률	
25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지수	
26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27	취업관련 주관적 의식	직업선택요인	
28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29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30		여성취업 장애요인	

## 제 4 절 결 론

새로이 제시한 신지표체계는 구지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격한 변화나 자료의 삭제는 피하면서 구지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개편의 주요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지표체계는 내용면에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를 따로 구성하기 보다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령별로 구분이 필요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강하였다.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주류 노동력군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적 노동계층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였다.

둘째, 기존에 제공하던 노동관련 지표는 분량이 많아서 사회전체의 주요 관심사를 망라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지표의 수를 줄였다. 그러나 줄인 지표의 수만큼 정보의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계열을 축소하고 몇 가지 지표는 통합해서 제시하는 방식을 통하여 전체 지표의 수 자체는 줄이면서도 정보의 단절은 최소화 하였다. 순서의 재배치와 주제별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표체계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참고문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4.

경제기획청생활국, 신국민생활지표, 평성 16년: 2004년.

Atkinson, T., B. Cantillon, E. Marlier & B. Nolan *Social Indicato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uropean commission *The Soci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2003.

European Unions *Employment Report* 2003

ILO, Geneva and Washington, D.C.: *World Employment Repor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1.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참고자료>

## KLI 노동통계 (2003년)

### 고용 전반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경제활동인구 추이: 전체, 여성, 15~64세, 청년층(15~29세)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추이

노동이동률의 내역별 추이

직종대분류별 인력부족률 추이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생산관련직의 사업체규모별 인력수요 추이

직업안정 추이 : 전국, 노동관서별

신규학졸자 취업률 추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추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현황

## 임금 및 노동비용

임금상승률 추이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임금소득분배 추이  
 산업대분류별 임금총액 추이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추이  
 성별 임금총액 추이  
 학력별 임금총액·평균연령 추이  
 연령계층별 임금총액 추이  
 직종대분류별 임금총액 추이: 성, 학력, 연령, 근속년수별  
 학력별 초임급 수준 추이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 2003년  
 제조업의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 2003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2002년  
 기업규모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2002년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복리비 추이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

##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산업대분류별 근로시간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연령계층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성별·학력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성별·종사상 지위별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근로자생활**

-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수입 추이
-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가계지출 추이
-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내역 추이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 추이
-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비목별 구성비 : 2003년
- 한국노총의 생계비 추이
- 민주노총의 생계비 추이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2004년
- 산업재해 발생추이
-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02년
- 산업별 산재강도율 추이
- 산업별 산재도수율 추이

**노동생산성**

-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B)
- 1인당 명목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C)
- 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E)
- 시간당 명목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감률 추이(F)
-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 및 증감률(한국생산성본부 추계)
- 기업경영 관련지(제조업)

노사관계
------

노사관계 주요지 추이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산업·성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 2002년 말 현재

노동조합 가입률 현황 : 2003년 8월

사업체규모별 노동조합 조직사업체 비율 추이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손실 추이

발생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추이

주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요구율과 제시율 추이

임금인상방식 : 2002년

임금배분방식 : 2002년

임금교섭방식 : 2002년



## 제 5장 교육

### 제 1절 서론

한국의 사회지표는 한국 사회의 삶의 조건과 특성, 변화를 통계 데이터를 매체로 하여 함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지표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대표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사회지표 가운데 교육지표는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교육은 인간 개개인 및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여 왔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근대화·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또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국민들은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의 소질과 능력 개발, 사회에서의 성공,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교육에 투자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교육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부문의 사회지표 개발과 관련하여서 1995년 교육지표체계 수정·보완 이후 일어나고 있는 3가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정보화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우리 나라는 정보화 사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교육통계사업도 정보화를 기반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통계센터를 설치하고, 1998년부터 교육통계DB 개발을 완료하여 수작업에 의한 조사집계방식을 탈피하여 컴퓨터를 통한 입력출력검증·집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통계정보의 공동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통계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교육관련 지표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 이후 교육통계정보의 양이 확

대되고 DB화되면서, 교육통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교육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둘째로, 국제교육지표 개발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다.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교육지표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OECD 교육지표는 한국 교육의 수준을 진단하는 표준으로 작용하여, 구조개혁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통계 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OECD 표준에 따라 교육지표가 표준화되는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셋째로, 한국 교육의 폭이 넓어진 점이다. 특별히 평생교육과 정보화교육 부분의 확대·발전이 주목된다. 21세기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평생교육이 강조되면서 관련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되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정보화 촉진과 함께 교육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교육정보화지표를 개발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지표의 영역도 학교교육 부문, 평생교육 부문, 교육정보화 부문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지표 가운데 교육부문 지표 역시 개정 및 개선하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기존 항목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퇴색된 부문의 삭제 또는 변경, 새로운 항목의 신설 등 양적이고 질적인 개편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교육부문 교육지표의 개편 방향과 개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 가. 국외 연구의 검토

우리 나라 사회지표의 체계에서 교육 부문 관심 영역을 결정하기 전에 주요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의 관심 영역에 참고하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교육 부문의 지표를 4가지 관심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

과, ② 교육에 투자된 재정적, 인적 자원, ③ 교육에의 접근, 참여, 발달, ④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OECD 교육지표, 2003). 즉, 체제론적 접근에 따라 교육의 투입요인, 교육 참여 요인, 교육의 과정 요인, 교육의 결과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UN은 1979년에 발간한 “개발도상국 사회지표 개선” 보고서에서 교육부문 지표 영역을 ① 교육기회와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and educational achievements), ② 교육서비스의 활용(Use and distribution of educational services), ③ 교육서비스의 투입, 산출 및 성과(Inputs, outputs and performance of educational services)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U.N., Improving Social Statistics in Developing Countries, 1979, 36-38)

UN은 1989년에 발간한 “사회지표 핸드북”에서 교육부문의 지표영역을 ① 교육기회와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and illiteracy), ② 교육참여(Enrolment and retention), ③ 성인교육과 훈련(Adult education and training), ④ 교육자원과 교육재정(Educational personnel and expenditures)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U.N.,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1989, 51-52) 이렇게 볼 때, UN은 크게 교육기회와 참여, 교육자원의 투입, 산출 및 성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사회지표 중에서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을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교육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Public Perceptions), ② 교육의 자원(Resources Commitments), ③ 교육의 참여(Enrollment and Attainment), ④ 교육의 성취(Performance and Achievement), ⑤ 성인교육과 훈련(Adult Education and Training) ⑥ 국제비교(International Comparisons) 등이다(U. S. Department of Commerce, 1980). 미국 역시 기본적으로 교육의 투입 요인, 교육의 참여 요인, 교육의 성취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사회 지표 중에서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교육 참여, ② 교육 성취, ③ 교육과 직업간의 연계, ④ 재정적 자원, ⑤ 인적 자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4:84~85). 교육자원과 참여와 성취 요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회 지표 중에서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교육자원, ② 교육기회, ③ 교육태도, ④ 교육성과, ⑤ 교육만족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日本國民生活審議會調査部 編, 1975). 일본 역시 체제론적 접근을 기초로 교육의 투입요인, 교육의 과정요인, 교육의 산출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생활 현상 전체를 몇 가지 영역의 지표로 요약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각 영역마다 그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지표 역시 각 나라의 교육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 주요국들의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을 종합하면 유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교육을 체제론적 관점에서 보고, 투입요인과 과정요인과 산출요인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교육지표 체계로는 ① 교육 기회, ② 교육 자원, ③ 교육의 성과, ④ 교육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 등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나. 국내 연구의 검토

우리 나라의 사회 지표 체계 중에서 교육 부문의 관심 영역은 1978년도에 ① 교육 기회의 확대, ② 교육 기회의 균등, ③ 교육 자원의 확보, ④ 교육 자원의 활용, ⑤ 교육의 효과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987년도에는 ① 교육 기회, ② 교육 자원, ③ 교육 효과, ④ 교육 의식 등 4개로 조정하였다. 1995년도에는 ① 교육 기회, ② 교육 자원, ③ 교육 효과 등 3가지로 재조정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지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사회 지표 중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내용 구성에서도 투입-과정-산출이란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 점, 사회적인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지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선진국과도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외에도 교육지표만을 대상으로 지표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1994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교육지표」에서는 ① 교육의 배경, ② 교육 기회, ③ 교육 여건, ④ 교육 재정, ⑤ 교육 결과, ⑥ 사회 교육, ⑦ 국제 비교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2001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에서는 투입부터 성과를 낳기까지의 순환과정에 기초하여 ① 사회적 배경, ② 개발 인프라, ③ 양성, ④ 이행, ⑤ 활용, ⑥ 성과 등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2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에서는 ① 인적자원의 축적, ② 개발, ③ 이행, ④ 활용, ⑤ 결과, ⑥ 유출과 상실 등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넷

째, 2003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평생교육지표」에서는 역시 체제론적 접근 모형을 기초로 ① 외적 환경, ② 투입, ③ 과정, ④ 결과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지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투입-과정-산출이란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지표를 개발·구성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 2. 국내 지표 체계의 검토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가운데 교육지표는 1979년 처음 발간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조금씩 변화되었다. 여기서는 1980년, 1990년, 2000년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추적해 보고, 차후의 개편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표 2-5-1> 1980년, 1990년, 2000년의 교육부문 개별지표 항목 비교

	1980	1990	2000
존속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자녀에게 희망하는 교육정도</li> <li>- 취학률</li> <li>- 성별 국민 평균 교육연수</li> <li>- 지역별 국민 평균교육연수</li> <li>- 초등교육학생 및 총학생 비율</li> <li>- 전공분야별 대학생 비율</li> <li>- 교원 및 학교현황</li> <li>- 각급학교 교원현황</li> <li>- 교원의 이직률</li> <li>- 유아교육기관 및 유치원 아동수</li> <li>- 학급당 학생수</li> <li>- 학생 1인당 건물 및 교지면적</li> <li>- 졸업자중 진학자 비율</li> <li>- 방송통신교육보급율</li> <li>- 과외교육율</li> <li>- 교육정도별 임금수준</li> <li>- 연간 교육비 지출율</li> <li>- 정부예산 대 문교예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연령계층별 국민 평균 교육연수</li> <li>- 가구주의 자녀 기대교육수준</li> <li>- 취학률</li> <li>- 졸업생의 진학률</li> <li>- 유치원 취원률</li> <li>- 방송통신교육 수혜비율</li> <li>- 학생현황</li> <li>- 교원 및 학교수</li> <li>- 각급학교 교원현황</li> <li>- 교원의 이직률</li> <li>- 학급당 학생수</li> <li>- 학생 1인당 건물·교지 및 체육장 면적</li> <li>- 정부예산 대 문교예산</li> <li>- 교육비 지출율</li> <li>- 전공분야별 대학생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연령계층별 국민 평균 교육연수</li> <li>- 유치원 취원률</li> <li>- 학생의 기대교육수준</li> <li>-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li> <li>- 취학률</li> <li>- 졸업생의 진학률</li> <li>- 시·도별 학생현황</li> <li>- 교원 및 학교수</li> <li>- 각급학교 교원현황</li> <li>- 교원의 이직률</li> <li>- 학급당 학생수</li> <li>- 학생 1인당 건물, 교지 및 체육장 면적</li> <li>-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li> <li>- 교육비 지출율</li> <li>- 교육정도별 임금수준</li> <li>- 전공분야별 대학생수</li> </ul>
1차 변경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학력구성비</li> <li>- 여교사 비율</li> <li>- 사무직원당 교원수</li> <li>-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li> <li>- 학교당 학급수</li> <li>- 학교도서관 강좌 및 장서수</li> <li>- GN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li> <li>-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li> <li>- 학생의 졸업률</li> <li>- 학교교육의 효과</li> <li>- 자녀교육의 목적</li> <li>- 졸업생의 취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학력구성비</li> <li>- 교육기회의 미충족 및 이유</li> <li>- 여교사 비율</li> <li>- 사무직원당 교원수</li> <li>- 학교당 학급수</li> <li>-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li> <li>-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li> <li>- 학교교육의 효과</li> <li>- 졸업생의 취업률</li> <li>-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li> </ul>

	1980	1990	2000
2차 변경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자 취학자수</li> <li>- 학교급별 컴퓨터 보유 현황</li> <li>- 학교당 용도별(시설)면적</li> <li>- 급식 실시 학교 및 학생비율</li> <li>-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li> <li>-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li> <li>- 탈락률</li> <li>- 비행학생수</li> <li>-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li> <li>-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li> <li>- 계열별 학위취득자</li> <li>-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 이수 일수</li> </ul>

위에서 살펴 본 지표들 중 연도별로 게재되기 시작한 개별 지표는 그 당시의 교육 현안이나 교육 상황을 필요에 의해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개별 지표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은 그 지표의 중요성을 그 사회 및 시대가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대의 변화,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은 새로운 지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위의 항목 변화를 살펴보면 그 동안 교육지표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교육지표의 확대 요인을 보면, 먼저 교육통계조사의 발전과 더불어 조사내용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용 지표 항목도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취업률 등 사회적 관심사를 적극 수용하여 지표화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교육정보화, 평생교육 분야 등 관심 교육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교육지표 확보가 가능해진 점이다. 넷째로, 중도탈락, 비행학생수 등에서 확인되듯이, 교육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를 반영한 점도 확인된다. 다섯째, 객관적 지표 뿐 아니라, 주관적 지표를 적극 반영한 점도 교육지표를 확대하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신 지표체계는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연구동향을 기초로 그 동안의 지표체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육을 대표하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세계 주요국들의 사회 지표 중에서 교육 부문의 관심 영역을 종합해 보면, 교육 지표 체계로는 교육 기회(교육 참여), 교육 자원, 교육의 성과 등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 지표 중 교육 분야의 관심영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신 지표체계는 교육 자원 등 교육의 투입요인, 교육참여와 기회 등 교육의 과정요인, 교육의 성과 등 산출요인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체제론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새 지표체계에서는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을 교육 기회, 교육 자원, 교육 효과의 3대 영역으로 보고 세부관심영역을 모두 7개로 설정하였다.

#### ① 교육 기회

「교육 기회」는 국민의 교육참여와 교육수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관심영역이다. 이는 현재 학생들의 교육참여 상태를 파악하는 영역과 국민의 교육참여 결과 획득된 수준을 파악하는 영역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교육 기회의 세부 영역으로는 「국민의 교육수준」 및 「교육참여」의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② 교육 자원

「교육 자원」은 교육에 투입하는 인적, 물적 노력과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 자원의 영역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물적 자원 중에서 「교육 재정」은 그 가치와 효용성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물적 자원



과 동등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③ 교육 효과

앞에서 교육의 기회와 교육 자원을 투입하여 운영한 결과를 알아보는 단계로서 인적자원 개발 차원의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교육의 성과」를 설정하고, 국민들의 교육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만족도」를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 지표의 체계 안에서 교육 부문 지표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5년도의 체계와 2004년도의 체계를 <표 2-5-2>와 같이 관심영역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2004년도의 교육부문 지표체계는 1995년도의 교육부문 지표체계에 비하여 관심영역은 3개로 동일하게 하였고, 세부관심영역 역시 7개로 동일하게 하되, 세부관심영역의 내용은 수정·보완하였다. 특별히 교육효과를 구성하는 요소를 「교육의 성과」와 「교육만족도」로 하여 내용을 새롭게 구성한 점이 주요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2> 1995년과 2004년의 교육부문 지표체계 비교

(1995년 체계)		(2004년 체계)	
관심영역	세부 관심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 영역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참여
교육자원	인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교육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물적자원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		교육재정
교육효과	교육의 효과	교육효과	교육의 성과
	교육의 인력 양성효과		교육만족도

## 2. 개별지표의 선정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을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효과 등 3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모두 7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 영역마다 해당되는 개별지표를 두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개별지표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그 동안 교육 및 교육통계가 발전해 온 점을 반영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 수용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 가. 삭제 지표

1995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중 2004년도에 삭제된 내용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 지표에서 삭제된 공통적인 이유는 대체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교육적 환경이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회」에서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은 특수교육대상아동수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하였다. 「교육자원」에서 '학교당 학급수'는 1960-80년대 과대학급이 많을 당시에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지표였으나, 현재에는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지표로서는 그 의미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시설·부품 확보율' 및 '특별교실 확보율' 역시 현재 학교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주요 교육지표로서의 의미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교육효과」에서 '전공선택 만족도'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포함하여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여 삭제하였다.

〈표 2-5-3〉 신 지표(교육부문)에서 삭제된 기존의 개별지표들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기회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
교육자원	물적자원의 확보 및 활용	학교당 학급수
		시설·비품 확보율
		특별교실 확보율
교육 효과	교육의 인력양성	전공선택 만족도

## 나. 첨가·조정·신규 지표

새로운 지표의 첨가 또는 조정 역시 대체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교육적 환경이 바뀐 점들을 반영하였다. 「교육기회」에서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및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 관심,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와 더불어 중요한 지표로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유치원 취원율'은 취학률에 포함시켜, 전체 학교교육기관의 취학률 상황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취학률 지표에 포함시켰다. '인구 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는 점차 고학력화 되어가는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비교 차원에서 국민의 교육참여와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일수'는 현대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교육 수준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은 역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민의 교육 희망을 확인하는 중요 지표로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교육자원」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원의 평균연령, 경력연수'에서는 최근에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당수업시간수를 포함하여 '각급학교 교원 세부 현황'으로 통합하였다. '여교원 비율'은 '교원 현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정보화가 촉진되면서 교육정보화가 주요 교육지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컴퓨터 1대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학생 1인당 도서실 장서수'에서는 최근 도서실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 여건을 쟁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좌석수를 추가하여 '학생 1인당 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로 변경하였다. 더불어 최근 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급식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급식실시 학교 및 학생비율'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에서 최근 사교육이 국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분리하여 지표화하고, 사교육비는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로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변경하였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비율'은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학교단계별 공교육비 비율'은 최근 공교육비 비율이 국가 교육제정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비율'로 수정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2-5-4〉 신 지표(교육부문)에서 첨가 또는 조정된 개별지표들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	비고
교육 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및 목적	신규
	교육참여	유치원 취원을	"취학률"에 포함시킴
		인구 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신규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일수	신규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신규	
교육 자원	인적자원	교원 1인당 학생수	"각급학교 교원 세부 현황"으로 통폐합
		교원의 평균연령, 경력연수	
		여교원 비율	
	물적자원	컴퓨터 1대당 학생수	신규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	신규
		학생1인당 도서실 장서수	"학생 1인당 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로 변경
		급식실시 학교 및 학생비율	신규
	교육재정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로 변경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에 통합 조사
학교단계별 공교육비 비율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로 변경	
교육 효과	교육의 성과	지식·기술 습득의 효과(지)	'학교교육의 효과'에 통합하여 포함시킴
		인성형성에의 효과(덕)	
		건강·체력 증진의 효과(체)	
		학업성취수준	
	교육만족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신규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신규
		교사의 직업 만족도	신규

「교육효과」에서 '지식·기술 습득의 효과(지)', '인성형성에의 효과(덕)', '건강·체력 증진의 효과(체)'는 '학교교육의 효과' 1개 지표로 통합하여 조정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은 교육효과를 재는 중요한 지표이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가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에 참여하면서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규 지표로 설정하였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학부모가 학생과 더불어 주요 교육수요자인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더불어 지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하였다. '교사의 직업 만족도' 역시 우리 교육의 여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 3. 신 지표체계의 구성

신 지표체계는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효과」 등 세 영역을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교육기회 아래 「국민의 교육수준」과 「교육참여」를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자원 영역 아래에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교육재정」 등 세 영역으로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교육효과 영역 아래에는 「교육의 성과」와 「교육만족도」를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관심영역별 개별 지표는 <표 2-5-5>에 표기하였다.

<표 2-5-5> 신 사회지표체계(교육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기회	국민의 교육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연령계층별 평균교육년수</li> <li>-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li> <li>- 자녀교육의 목적</li> <li>-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li> <li>-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li> </ul>
	교육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률(유치원 취원을 포함)</li> <li>- 진학률</li> <li>- 중도탈락률</li> <li>-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li> <li>- 인구 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li> <li>-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li> <li>-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li> <li>-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li> </ul>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자원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현황(여학생 비율 포함)</li> <li>- 교원현황(여교원 비율 포함)</li> <li>- 교원 1인당 학생수</li> <li>- 교원의 평균연령, 평균경력년수</li> <li>- 각급학교 교원 세부현황</li> <li>- 교원 이·퇴직률</li> <li>- 사무직원당 교원수</li> </ul>
	물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당 학생수</li> <li>- 학생 1인당 건물·교지·체육장 면적</li> <li>- 학생 1인당 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li> <li>- 컴퓨터 1대당 학생수</li> <li>-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li> <li>- 급식실시학교 및 학생 비율</li> </ul>
	교육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대비 공교육비</li> <li>-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산</li> <li>-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li> <li>-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li> <li>-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li> <li>-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li> <li>-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li> <li>-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li> </ul>
교육효과	교육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성취 수준</li> <li>- 학교 교육의 효과</li> <li>- 졸업생 취업률</li> <li>-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li> <li>- 비행 학생 비율</li> <li>-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수준</li> </ul>
	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li> <li>-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li> <li>- 교사의 직업 만족도</li> </ul>

## 제 4절 결론

### 1. 연구결과와 함의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우리 나라 교육은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취학을, 진학을, 졸업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의 학력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학교교육 환경 등 교육여건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 교육은 한국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교육의 발전이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한국 교육의 발전은 교육지표의 발전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의 지표 발간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교육지표는 그 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적절히 반영하여 교육지표가 추가되었다. 교육지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의 모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개발되면서 질적인 보완이 있어 왔고, 주관적 지표가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확인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지표체계와 항목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교육지표는 체계성과 타당성과 국제성이라는 관점에서 선진국들의 교육지표와 비교해 볼 때, 전혀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최고 수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지표체계의 우수성을 확보·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향후의 과제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교육지표의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보완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 첫째로,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교육지표는 대부분 양적인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의 양적 발전 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새로운 교육 영역의 지표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교육지표는 그 영역이 초·중·고등 교육에 집중하여 있다. 평생학습 사회가 도래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지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지표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새로 주목을 끄는 교육 영역과 더불어 관련 교육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로, 국제비교 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그것을 「한국의 사회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가 OECD 교육지표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제 비교지표가 개발되고 있고 자료가 정기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국제비교 지표야말로 우리 나라 교육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볼 때,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국제비교 지표를 교육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지표의 교육지표 부분에 국제비교지표를 담고 있다. 국제비교 지표를 교육지표에 포함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추가적인 국제비교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1995.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각년도.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각년도.
- 한국교육개발원(편역), 「OECD 교육지표」, 각년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각년도.
- 일본국민생활심의회조사부 편, 「사회 지표」, 동경, 1975.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Social Trends 2004*, 2004.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Lausanne, 2004.
- U.N.,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 U.N., *Improving social statistics in developing countries: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s*, New York, 1979.
- U.N.,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New York, 1989.
- OECD.,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1973.
- U. S.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Washington D.C., 1980.

## 제 6장 보건

### 제 1절 서론

#### 1. 연구의의와 필요성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문제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보건수준을 측정하고 보건문제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보건통계 및 보건지표의 생산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사회지표를 처음 생산하여 발표하였는데, 그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1987년 기존 사회지표체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졌고, 1995년에 2차로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도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가 요구하는 보건관련 통계지표를 생산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2003년 현재 보건부문의 통계 제출수는 요구수의 60.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sup>1)</sup>, 국민의 보건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제시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상황의 변화,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 전국민 의료보장 실현, 지방자치제의 실시, 국제화 및 정보화의 보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보건통계 및 보건지표의 생산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보건의료부문과 관련되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병구조가 급성전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변화되어 왔다. 인구의 고령화 등과 같은 변화는 생활습관병과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 증대를 가져왔고,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사고발생률도 증가하여 왔다. 특히, 만

1) OECD에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통계제출률은 2003년에 532개 요구에 320개로 60.2%이지만, 이는 1997년의 17.1%, 2000년의 34.6%, 2001년 48.8%, 2002년 54.9%로 계속 증대되어온 것이다(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2004, p.675).

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는 건강수명을 단축시키고 조기사망과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00년의 사망원인에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자살, 고혈압성 질환, 폐렴이 10대 사인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전체사망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1989년부터 시행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는 특히 보건의료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급여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보험급여에 산전진찰 등 예방급여를 포함하고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 보건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소득의 증대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대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소득수준의 증대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우리의 식생활 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쌀의 소비는 점차 감소한 반면 육류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식생활 행태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영양과다, 영양불균형 및 운동부족 현상은 건강상태와 질병구조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생활의 단순화와 상대적 빈곤감 등은 인구집단의 무력감을 조성하여 마약이용률 및 자살률 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넷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보건의료부문에 관한 관심의 강도에 따라 지역간 보건의료자원의 분배가 차등을 보일 것이다.

다섯째,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즉, 새로운 치료 및 수술기법의 도입, 신약개발, 의료보장구의 개발, 장기이식술의 증가 등은 인간의 수명과 경제활동을 연장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외적 제반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관심과 욕구를 파악하여 국민보건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보건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보건통계 및 보건지표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편의 방향

보건지표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지표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보건지표의 조건을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보건지표의 개념은 인간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즉, 보건정책,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자원, 자연환경, 인구규모와 구조, 국민의 보건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인구집단의 건강과 이와 관련된 제반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보건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파악, 가능케 해주는 척도이다<sup>2)</sup>.

보건지표의 기능은 보건상태와 그 변화를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보건문제를 진단하고, 보건정책과 보건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기능을 갖는다(WHO, 1981). 또한 보건문제의 인식과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도구이며, 장래의 보건상황을 예측하는 지침이 된다<sup>3)</sup>. 결국, 보건지표체계의 기능은 국민 보건수준의 측정, 보건상황 변화의 예측, 그리고 국가 보건정책의 성과 측정, 보건상황 변화의 민감 반영 등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보건지표의 조건으로는 보건의료체계의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에 의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충족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해야 하고, 지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량화 작업으로서의 방법론적 기준과 사회지표로서의 역할을 만족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 수량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보건지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WHO, 1971). 첫째, 복잡한 조사기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료의 획득이 가능해야 하며(availability), 둘째, 대상으로 하는 인구집단의 자료로부터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completeness of coverage). 셋째,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지표의 내용이 변화해서는 안되며(quality), 넷째, 건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요인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universality). 다섯째, 지표의 산출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며(calculation), 여섯째, 지표가 폭넓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에 의문

2) 김윤신 등. 『한국의 보건지표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강증진기금사업단 용역보고서, 2003.1, pp.19-22 참조.

3) 김윤신 등. 전계서 참조.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지표체계개편 연구(II)』. 1995, p.147 참조.

이 제기되어서는 안된다(acceptance). 일곱째, 국제간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하는 방법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producibility), 여덟째, 대상으로 하는 현상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고(specificity), 관계된 현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sensitivity), 그리고 측정하고 하는 요소들의 실재를 표현하여야 하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외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validity). 그리고 보건지표의 작성범위는 국가의 보건지표 이용목표, 이용가능성, 계산가능성, 유용성 및 타당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sup>5)</sup>.

결국, 보다 나은 보건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보건 부문 지표의 다양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건지표의 기능, 보건지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보건지표체계 및 국내 연구의 검토, 그리고 UN, OECD, ISO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외국의 보건지표체계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지표의 정의 및 용어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하여 영역을 신설하거나 재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국외 연구의 검토

UN의 사회인구통계체계(SSDS)의 건강 및 보건서비스부문의 지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표가 UN의 개별지표를 많은 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6-1 참조).

---

5) 김윤신 등. 전계서 참조.

〈표 2-6-1〉 UN의 보건지표체계와 지표항목

부문(11)	개별지표
건강 및 보건서비스	31지표
(건강조건)	- 평균신장 - 평균체중 - 특정영양물의 평균섭취량 - 평균 알코올 섭취량 - 평균 흡연율 - 특정약물 소비량 - 표준이하 가옥입주자 비율 - 1시간이상 통근자의 비율 - 연평균 활동불능일수 - 등록환자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 산재자, 교통사고자 등의 비율 - 신체장애자의 비율 - 병명별, 사인별 표준화 사망력
(예방의학)	- 최근 접종보유인구의 비율
(진료)	- 과별 내원인구의 비율 - 의사1인당 내진환자수
(외래환자)	- 기록상 외래환자의 인구비율
(입원환자)	- 기록상 입원환자의 인구비율 - 병상점유율 - 평균입원기간 - 병상당 년평균 이용환자수
(특수시설)	- 특수의료시설별 이용률
(대기명단)	- 전년도의 대기 환자비율
(의료요원)	- 각급 의료요원대 인구비 - 연도별 각급 의료요원 증가율
(의료시설)	- 연도별 의료시설의 종류별 증가율 - 병상당 인구비
(세입, 지출)	- 정상가격에서의 보건서비스 투입지수
(의료비)	- 정상가격에서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소      비지출지수 - 보건서비스 비용전체에 대한 1인당 보건서비스지출의 비

자료: 유엔, 『사회인구통계체계(SSDS)』, 19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 연구(II)』, 1995. p. 148.

OECD의 보건통계는 8개 관심영역, 50개 세부관심영역, 701개 개별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OECD에서는 2002년의 보건통계 항목으로 701개를 선정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sup>6)</sup>.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어 생산하여야 할 통계로 50개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2-6-2 참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보건지표체계는 <표 2-6-3>에서와 같이 관심영역을 건강상태,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보건제도 이행, 사회 및 보건조직의 특성 등 4가지로 분류하고 하고 있고, 세부관심영역을 16개로 나누어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6) OECD가 회원국들에 요구한 보건부문 통계는 1998년 1,421개에서 1999년 986개, 2000년 708개, 2001년 715개, 2002년 701개, 2003년 532개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p.675).

<표 2-6-2> 2002년 OECD의 보건통계 요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여명</li> <li>- 모성 및 영아 사망</li> <li>- 인지된 건강상태</li> <li>- 건강기대여명</li> <li>- 영아건강</li> <li>- 선천성 이상</li> <li>- 치아건강</li> <li>- 전염병</li> <li>- 압</li> <li>- 상해</li> <li>- 결근</li> </ul>	재정 및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별 보건의료비</li> <li>- 의료수가</li> </ul>
보건의료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문 종사자 수</li> <li>- 병상수</li> <li>- 침단의료 장비</li> </ul>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li> </ul>
보건의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진료활동</li> <li>- 입원시설</li> <li>- 입원 및 급성질환 평균입원기간</li> <li>- 진단범주 별 평균입원기간</li> <li>- 혼합예별 퇴원을</li> <li>- 외과수술</li> <li>- ICD-CM별 외과수술</li> <li>- DRG별 외과수술</li> <li>- 이식</li> </ul>	의약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소비</li> <li>- 의약품 판매</li> </ul>
보건지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문 총지출</li> <li>- 개인보건의료비</li> <li>- 집단적 보건의료비</li> <li>- 예방 및 공중보건</li> <li>- 사업운영 및 의료보험</li> <li>- 의료서비스 총지출</li> <li>- 입원치료비용</li> <li>- 외래치료비용</li> <li>- 보건서비스 및 재가보건의료</li> <li>- 재가진료비</li> <li>- 총의료용품비</li> <li>- 의약품</li> <li>- 치료기기 및 의료장비</li> <li>- 보건관련 비용</li> <li>- 연령층별 비용</li> <li>- 질환의 직접비용</li> <li>- 물가지수</li> </ul>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의료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 소비</li> <li>- 담배 소비</li> <li>- 채증 및 체형</li> </ul>

자료: 장영식 외 5인, 「OECD 요구 보건통계 생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4.



〈표 2-6-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보건지표체계

관심 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건강 상태	사망	영아사망률, 주산기사망률, 기대여명, 순환기질환 사망률, 암사망률, 호흡기 질환사망률, 자살, 고의가 아닌 상해로 인한 사망, 백일해로 인한 사망, AIDS로 인한 사망, 잠재수명손실연수, 기대여명의 불평등 등
	건강상태	비만, 관절염(통풍), 당뇨병, 천식, 만성통증, 우울증, 상해로 인한 병원입원, 식품 및 수인성 질환 등
	인간기능	기능적 건강, 장애일수, 활동제한, 건강기대여명 등
	복지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자신의 존중성,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건강행위	흡연을, 청소년 흡연을, 흡연시작연령, 규칙적으로 과음하는 사람의 비율, 건강활동, 모유수유 등
	생활 및 작업조건	고등학교이상 졸업률, 비취업률, 장기 및 청년 실업, 저소득 인구 비율, 저소득가구의 어린이 비율, 소득 불균형, 주택지수, 일반 및 청소년범죄율, 작업시 결정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등
	인적자원	인적자원은 건강과 관련되는 사회지원 및 생활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의 정도측정으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이 비율, 사회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생활스트레스를 받는 비율
	환경요인	잠재적으로 인간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보건 제도 이행	만족도	지역사회, 공급자, 지불기관에 대한 만족도
	접근성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50-69세 부인의 유방암검진, 유년 예방접종
	적정성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유방보존수술, 제왕절개 등
	능력	지식 및 기술
	연속성	서비스의 연속성
	효과성	흡연중단, 저체중출생아, 백일해, 홍역, 결핵, HIV, 콜라미디아혈증, 폐렴 및 인플루엔자 입원치료, 의료적 처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
	효율성	주간수술율, 병원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율, 입원일의 수준, 필요입원일에 대한 실제 입원일수의 수준 등
	안정성	고관절 골절
지역 및 보건조직 특성	인구, 10대 임신 및 출산,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국민 1인당 의사수 및 간호사수, 국민 1인당 입원일수, 고관절 대체, 자궁절제술, 고막절개술 등	

자료: 김윤신 등. 『한국의 보건지표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연구사업 보고서, 2003.1. p.59.

미국의 보건부문지표는 <표 2-6-4>에서와 같이 관심영역을 '건강에 대한 인식' '보건자원 및 이용과 비용', '사망' '영양과 예방'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체계의 특징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표가 다수 제시되고 있고, 정신병에 관한 사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방과 영양'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지표도 상당수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1년에 미국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최종보고서 (Healthy People 2000) Final Review)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분야를 건강증진, 예방서비스, 감시 및 정보체계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건강증진 분야에 8개 영역으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들 영역별 사업목표와 해당 개별 보건지표는 <표 2-6-5>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는 10대 미혼모수, 원치않은 임신율, 심각한 스트레스 보유인구 비율, 자살률 및 타살률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사망통계만 정확하면 생산할 수 있는 지표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표 2-6-4〉 미국의 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관심영역	개별지표
건강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li> <li>-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li> <li>- 건강상태 증진을 위한 국가투자에 대한 평가</li> <li>- 의료진에 대한 신뢰</li> </ul>
보건자원, 이용,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진료의사, 치과의사수</li> <li>- 성, 연령, 수입수준별 의사 및 치과의사 방문회수</li> <li>- 성, 연령, 수입수준별 입원기간</li> <li>- 정신병원 외래, 입원치료건수</li> <li>- 증상별 정신병원 신규입원자</li> <li>- 증상별 정신병원 외래환자수</li> <li>- 의료비 지불방법</li> </ul>
사망(생명의 지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65세시의 기대수명</li> <li>- 50세 이상에서의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li> <li>- 아동과 청소년의 원인별 사망률</li> <li>- 영아사망률</li> <li>- 성, 가족수입별 신체적 활동불능일수(disability)</li> <li>- 원인별 만성병의 유병률(연령, 성, 수입별)</li> <li>- 성인중 고혈압환자의 비율(성, 연령, 인종별)</li> <li>- 지난 1년간 혈압검사자의 비율</li> </ul>
예방과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률(1-24세)</li> <li>- 흡연자의 비율</li> <li>- 음주자(1일 0.5Oz이상 음주)의 비율</li> <li>- 20-74세 인구중 비만자의 비율</li> <li>- 20-74세 인구중 체중조절중인 사람의 비율</li> <li>- 철분섭취량</li> <li>- 산전진찰시기(전기, 중기, 후기)</li> <li>- 성인중 고콜레스테롤인 사람의 비율</li> <li>- 음식물의 종류별 섭취량</li> </ul>
국제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시 기대수명</li> <li>- 영아사망률</li> </ul>

자료: Federal Statistical System, *Social Indicators III*. Washington D.C 1980.

〈표 2-6-5〉 미국의 국민건강증진의 사업내용 및 보건지표

영역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보건지표	
1. 건강 증진	1. 운동	- 적절한 운동실천인구 증가 - 운동 비실천인구 감소
	2. 영양	- 과다체중과 비만인구 억제 - 영양권장량과 식사지침에 입각한 건강지향 식생활실천
	3. 흡연	- 흡연인구 감소 - 청소년의 흡연인구 감소
	4. 알코올 및 약물사용	- 음주와 관련된 자동차사망 감소 - 청소년의 약물사용 감소
	5. 가족계획	- 10대 미혼모 감소 - 원치 않는 임신율의 감소
	6. 정신보건	- 자살 감소 - 심각한 스트레스 보유인구의 감소
	7. 폭행치사 감소	- 타살 감소 - 폭행으로 인한 상해 감소
	8. 교육 및 지역사회 기반사업	- 학교보건교육의 제공 - 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 산업장 증가
2. 건강 보호	1. 불의의 사고	-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감소 - 자동차 안전규칙 준수
	2. 산업재해	- 작업재해 사망자수 감소 - 작업재해 상해 감소
	3. 환경보건	- 아동의 혈중 납중독 방지 - 대기오염 규제수준 이하의 환경오염 유지
	4. 식품 및 약품의 안전관리	-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감소 - 아동의 치아우식 발생감소
	5. 구강보건	- 노인의 자연치아 손실감소
3. 질병 예방 서비스	1. 모자보건	- 저체중아 출생의 감소 - 조기 산전관리 강화
	2. 심장병, 뇌졸중	-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억제 -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3. 암	-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억제 - 조기진단을 위한 건강검진 확대 - 여성 유방암, 자궁암 검진 확대
	4. 당뇨병 및 만성 장애(불구) 질환	- 만성질환에 의한 활동제한 감소 - 당뇨병 관련사망 증가억제
	5. AIDS	- AIDS 감염자 증가억제
	6. 성병	- 임질 및 매독 감염 억제
	7. 예방가능 전염병의 예방접종	- 예방접종률 증대 - 폐렴, 인플루엔자 사망 감소
	8. 입상예방서비스	- 입상예방서비스 이용장애 해소
4. 정보	1. 정보 및 평가체계	- 州간 공동 보건지표 사용

자료: DHHS. *Healthy People 2000*. Washington D.C., 1990.

영국의 보건지표체계는 관심영역으로 '국민건강상태', '식생활', '사회적 건강위해요인', '사고', '예방', '보건서비스', '사회서비스', '보건자원'의 9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영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식생활과 사회적 건강위해요인, 사고,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식생활에 의한 영양섭취에 관한 지표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영국의 보건지표체계는 국민건강과 사회체계와 생활양식 및 국가 사회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보건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영국은 의료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상이하기 때문에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영역의 지표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기 곤란한 것이 많다고 하겠다(표 2-6-6 참조).

호주의 보건지표체계는 <표 2-6-7>에서와 같이 건강의 개념 틀에 준거하여 관심영역을 건강, 기능 및 장애, 사망, 비전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 기타 보건자원 및 보건의용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AIHW, 2002). 호주의 보건지표체계는 질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대여명의 측정, 스트레스 받는 비율, 질병부담, 면역상태율 등의 보건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데, 건강기대여명과 스트레스 받는 비율 등은 우리나라 보건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6〉 영국의 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국민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사망률(연도별 변화)</li> <li>- 연령, 성별 기대수명</li> <li>- 주산기 사망률과 영아사망률: 출생시 체중별</li> <li>- 사인별 사망률</li> <li>- 연령표준화된 여성암환자사망률</li> <li>- 제 전염성 질병의 신고건수</li> <li>- 식중독 신고건수</li> <li>- 신고된 AIDS 환자수</li> <li>- HIV 항체보유자, AIDS건수와 그로 인한 사망건수</li> </ul>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식품의 가정내 구입도의 변화(연도별 제 식품의 소비량의 변화추정)</li> <li>- 성, 연령, 식사유형별 1일에너지 섭취중 점심식사의 비율</li> <li>- 일상식생활에 있어서의 지방, 지방관련식품의 섭취</li> </ul>
사회적 건강위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아동의 흡연을 및 습관</li> <li>- 성별 결혼상태별 음주량</li> <li>- 약물중독 보고건수</li> <li>- 향정신성의약품(barbiturates 또는 benzodiazepines) 조제건수</li> </ul>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원인별 사망건수</li> <li>-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운전자, 탑승자 포함)</li> <li>- 시간, 교통수단별 음주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건수</li> <li>- 산업분야별 산업재해건수</li> </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의 사망건수와 검진율</li> </ul>
보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국민보건서비스(NHS) 병원수</li> <li>- 전문분야별 NHS 대기환자수</li> <li>- 가정의와 치과의사수</li> <li>- 민간 보건서비스</li> <li>-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수</li> <li>- 경제활동별 의료보험의 재원 구성(개인/고용주)</li> </ul>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보호소 아동수</li> <li>- 성, 연령별 보호아동과 청소년의 수</li> <li>- 원인별 보호아동수</li> <li>- 노인의 주거형태(개인집, 공공시설...)</li> <li>- 연령, 성, 증상정도별 장애아동의 비율(인구천명당)</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수</li> <li>- 보건의료비 지출액</li> <li>- 사회서비스 종류별 지출액(노인, 아동, 사회사업, 정신병, 기타서비스)</li> </ul>

자료: UK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Social Trends 20*. London, 1990.

〈표 2-6-7〉 호주의 보건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I. 건강	1. 장수	- 평균수명 - 건강수명
	2. 자신의 건강 평가	-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양호, 보통, 불량) - 자신이 보고한 건강행태
	3. 구강보건	- 소아충치율 - 학생충치율 - 성인치아상태율(완전, 결손, 파손)
	4. 면역상태	- 면역상태율(알리지, 자동면역, 면역결핍)
	5. 성적건강	- 출산율 - 피임률 - 임신중절
II. 기능 및 장애	1. 활동제약	- 주요활동 제약률(심함, 보통, 약함) - 등교 및 출근제약
	2. 장애	- 신체장애율 - 감각기능장애율 - 정신장애율
III. 사망	1. 사망원인	- 주요 사인별 사망률 - 주요 사망원인 변화율 - 생애주기별 사망원인
	2. 전체사망	- 사망률 - 자살률
IV. 비 전염성 질환	1. 발생	- 발생률·유병률(심형근관질환, 심장마비, 암, 상해, 정신질환, 당뇨병, 천식, 만성폐질 환, 근 골격계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신경 계질환)
	2. 보건의료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일반의료, 입원)
V. 전염성 질환	1. 발생	- 발생률·감염률(감염성질환, 급성호흡기질 환, 소화기계감염, 혈액을 통한 질환, 성 병, 매개곤충질환, 결핵)
	2. 예방	- 백신예방질환 발생률(DPT, 폴리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 예방접종률
VI. 기타	1. 보건자원	- 보건의료인력 - 보건의료비지출 - 질병부담
	2. 보건이용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일반의, 전문의)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002.

일본의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의 「신국민생활지표」에 제시한 보건지표로는 평균수명, 유병률, 성인병사망률, 보건의료비의 지출구성, 국민의료비중 환자 비부담률, 종합병원수(인구비), 지정응급병원수(인구비), 의사수(인구비), 간호사수(인구비), 피보호노인비율, 치매성노인 발생률 등 11가지로 매우 단순화 되어 있다. 이외에 보육과 관련된 지표에 영아 사망률이 포함되어 있고, 주거지표에 의료기관 500미터 이내 세대비율, 노동지표에 업무상 질병발생률이 포함되어 있다<sup>7)</sup>.

한편, 일본 총무성 통계국(2004)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회생활통계지표」에는 보건지표를 '건강·의료' 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제시하면 <표 2-6-8>과 같다. 이 지표는 행정구역간 비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으로써, 거주지역 면적당 의료시설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생활양식 등 건강행태와 관련된 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7)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신국민생활지표」, 1992.5. p.19의 제1표 PLI의 구성표(활동영역별 지표)에서 발췌하였음.



〈표 2-6-8〉 일본의 보건지표체계(일본 사회생활통계지표내의 건강 및 의료부문)

영역	개별지표
이환율·유병률	유호소자율, 통원자율 일반병원 및 정신병원 연간신입환자수(인구당) 일반병원 및 정신병원의 1일평균 외래환자수(인구당) 일반병원 및 정신병원의 1일평균 재원환자수(인구당)
사망률·평균여명	표준화사망률 평균여명(0세, 20세, 65세 남녀별)
사인별사망자	생활습관병·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자수(인구당) 당뇨병·고혈압에 의한 사망자수(인구당) 고혈압의 심질환·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자수(인구당) 자살자 수(인구당)
임산부·유아의 건강	사산율, 신생아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영아사망률 임신·분만후 산욕기에 의한 사망률 2500g 미만 출생률
아동·학생의 체위	평균신장(소5년·중2년·고2년 남녀별) 평균체중(소·중·고 남녀별)
의료시설	일반병원수, 일반진료소수, 치과진료소수, 정신병원수 일반병원병상수, 정신병상수(인구당)
의료시설종사자수	의사수, 치과의사수, 간호사수(인구당)
일반병원 진료체계 충실상황	일반병원상근의사수, 일반병원간호사수(병상당)
공공병원비율	공공일반병원비율, 공공일반병원병상수 비율
의료시설의 지역분포	일반병원수, 일반진료소수, 치과진료소수(면적당)
일반병원 진료상황	일반병원외래환자수(상근의사1인1일당) 일반병원재원환자수(상근의사, 간호사 1인1일당) 일반병원병상이용률 일반병원평균재원일수
정신병원 진료상황	정신병원외래환자수(상근의사1인1일당) 정신병원재원환자수(의사, 간호사 1인1일당) 정신병원병상이용률 정신병원평균재원일수
구급활동	응급고시 병원 및 일반진료소수(인구당) 응급자동차수, 연간구급출장건수(인구당)
보건활동	보건사수, 생활습관병 건강검진수진율 치과검진·보건지도면인원(인구당) 임산부보건지도수(출산당) 식품영양시설처분건수(시설당)
의약품영업시설	약국수, 의약품판매업수(인구당) 면적 100km <sup>2</sup> 당 약국수 면적 100km <sup>2</sup> 당 의약품판매업수

자료: 총무성통계국, 「사회생활통계지표」, 2004.

## 2. 국내 연구의 검토

우리나라는 1954년에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사회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미미하지만 보건 통계 및 지표가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많은 보건통계 및 지표가 생산되고 있다. 1976년에 보건사회부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지표를 발표한 바 있고<sup>8)</sup>, 1978년에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발을 연구하여 1979년부터 책자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보건부문 지표에 포함된 것은 22개로서, 영아사망률, 이환율, 와병일수, 기생충 감염률, 결핵유병률, 연도별 의료기관수, 지역별 의료기관분포, 의료인력(1인당 인구수, 병상당 인구수, 병상이용률, 의료시설이용률, 산전진찰률, 분만개조율, 의료시설 접근소요시간별 가구분포, 가계비지출 대 가계비지출 배 의료비지출률, 1인당 쌀소비량, 1인당 육류소비량, 열량섭취량, 단백질 섭취량, 초중고 생의 신장, 체중, 흡위 등이었다. 이후 조금씩 가감하여 제시하였는데, 1980년에는 활동제한일수,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평균입원일수 등이 추가되었고, 1982년부터는 연령별 기대여명, 1차 진료장소 등 2개가 추가되었으며, 1983년에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1984년부터는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가 제시되었고, 1986년에는 음주인구, 개인건강평가 및 관리방법이 포함되어 33개를 지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1987년 이전까지의 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은 4부문으로 보건상태, 영양상태, 보건의료서비스, 의료인력 및 시설이었지만, 1987년에 1차 개편이 이루어져 1988년부터는 건강상태, 사망 및 질병,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이용 등 4개의 관심영역과 15개의 세부 관심영역, 그리고 33개의 개별지표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건지표체계의 개편에서 고려한 사항은 관심영역으로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이용'을 강조하였고, 세부관심영역으로 '예방' 및 '의료서비스 충족도'를 강조하였다(표 2-6-9 참조).

1987년의 보건지표체계는 다양한 보건의료부문의 지표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라 199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 연구에서 사회 각 분야를 다루면서 보건부문의 지표체계를 <표 2-6-10>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때의 2차

8)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한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지표」, 1976.11에서는 보건의료지표를 ① 건강상태 ②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영향 ③ 인구문제 ④ 의료제도와 조직에 국한시키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것만 제시하였다.

개편으로 인해 사회지표체계 내에서 보건부문의 지표체계는 기존의 보건지표체계에 사회의료 개념을 확대하고, 보건부문의 정책, 구조, 과정 및 결과가 배합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지표의 특징은 첫째, 관심영역을 기존의 4개 영역에서 건강상태, 사망, 상병, 영양,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기술이라는 7개 관심영역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둘째, 현재의 보건상황과 문제를 반영하는 개별지표의 조정과 추가적인 지표가 첨가되었다<sup>9)</sup>. 즉 개별지표가 종전의 48개에서 50개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1996년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보건지표를 생산하지 않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관심영역은 1995년 보건지표체계 연구결과에서 '보건의료기술'을 제외하고 현재의 6개 영역(건강상태, 사망, 상병, 영양,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추가된 신규지표는 학생의 신체중량지수(BMI), 1인당 주류출고량, 금연에 관한 견해, 주요성인질환 유병률, 식품공급량(1인 1일당), 1인당 평균 외래내원일수 등으로 총 33개의 개별지표가 제시되었다. 이후에 보건지표에 음주량, 연간담배 판매량, 유병일수,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비율 및 평균 방문횟수가 포함되고 금연에 관한 견해가 삭제됨에 따라 2003년 현재 <표 2-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6개의 개별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연구」, 1995 참조.

<표 2-6-9> 1987년 사회지표체계(보건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 별 지 표
건강상태	생존년수 출생시 체중 성장 성인건강 영양섭취  구강보건 개인건강평가	연령별 기대여명 출생시 체중미달 신장·체중·흉위 신체장애자율 열량섭취량 단백질섭취량 쌀소비량 육류소비량 D.M.F.비 혈압정상비율* 비만율* 흡연인구비율 흡연인구비율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사망 및 질병	사망수준  사망원인 질병  질병평가	영아사망률 5세미만 사망비율 65세 이상 사망비율 모성사망률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결핵유병률 기생충감염률 나환자등록수 주요성인질환(암, 심장병, 간질환, 당뇨병 등) 이환율 활동제한일수 와병일수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 보건의료자원배정	의료인력당 인구 보건인력당 인구 의료기관수 병상당인구 정부예산 대 보건예산 보건관련예산
보건의료이용	예방 진료  이용  의료비 의료서비스충족	산전진찰률 예방접종률 의사 진료자수 및 1인당 진료회수 치과 의사 진료자수 및 1인당 진료회수 분만개조자별 구성비 의료시설 접근소요시간별가구 1차 의료장소 병상이용률 입원환자비율 평균입원일수 지역의료시설방문회수 가구당 의료비 지출률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자료: 주학중 외,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표 2-6-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보건지표체계(1995)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건강상태	생존년수	연령별 기대여명 후병기대여명
	체격	신장, 체중, 흉위 신체중량지수(BMI)
	개인건강평가	혈압정상비율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구강보건	1인 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
	보건의식행태	음주율 및 과음회수 1인당 주류소비량 흡연율 및 흡연량
사망	사망수준	영아사망률 1-4세 사망률 주상기 사망률 65세 이상 사망비율 모성사망률
	사망원인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상병	질병	주요 성인질환 유병률 주요 질병 발생건수 치매 유병률 정신질환 유병률
	부상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상병평가	유병률 활동제한일수 와장일수
영양	영양섭취	열량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식품소비	1인1일당 식품소비 구성비
보건의료이용	예방	예방접종률 건강검진률
	이용	인원을 평균재원일수 1인당 평균 의사방문회수 병상이용률 한방의료 이용횟수 및 이유
	의료서비스 충족	의료서비스 충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의료시설	의료기관수 및 병상수, 병상당 인구 특수의료시설 및 병상수
	국민의료비	총국민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부문별 국민의료비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가구당 의료비지출률
보건의료기술	장기이식	장기이식건수
	의료보장구 이식	의료보장구 장치건수
	장비보유현황	고가장비대수(인구 1,000명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연구(II)』, 1995, p.160-161.

2003년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수행한 한국의 보건지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관심영역을 크게 6개 영역 즉, 건강상태 및 행태, 사망·질병·장애,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 기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 등으로 구분하였다<sup>10)</sup>. 이는 통계청 발표의 '한국의 사회지표(2003)'내의 보건지표체계 관심영역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에서 개발한 '신 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의 관심영역과 세부관심 영역의 특징은 국민보건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outcome)부문, 과정(process)부문, 투입(input)부문을 포함하였고,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통계 제출요구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국민의 보건양상 변화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시행과 같은 정부의 보건정책을 반영하는 등 많은 지표들이 수정, 추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표 2-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관심영역을 23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누고 87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72개가 현재 생산되고 있으며, 7개는 부정기적으로 생산되고, 8개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지표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지표가 자살률, 암검진율, 의약품소비량, 의약품 총판매액, 의료서비스 총족률, 가구당 의료비지출률, 진료비중 본인부담률이라 하였다<sup>11)</sup>.

10) 김윤신 등. 『한국의 보건지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연구사업 보고서, 한양대학교, 2003.1.

11) 이들 지표는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11〉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 보건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건강상태	생존년수	연령별 기대여명
	체격	학생의 신장 학생의 체중 학생의 신체중량지수(BMI) 학생의 가슴둘레
	개인건강평가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보건의식행태	음주인구 비율 음주량 음주자의 과음횟수 1인당 주류출고량 흡연인구비율 흡연량 연간 담배판매량
사망	사망원인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상병	질병	주요 전염병 발생건수 및 발생률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상병평가	유병률 유병일수 외병일수
영양	영양섭취	열량공급량(1인 1일당)
	식품소비	식품공급량(1인 1일당) 쌀 및 육류소비량(1인 1일당)
보건의료이용	이용	1일 평균 재원환자수 평균입원일수 1인당 평균 내원일수(외래) 병상이용률 인구 천명당 진료자수 환자 1인당 치료일수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비율 및 평균방문횟수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의료시설	의료기관수 병상수 병상당 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12, p.50-51.

〈표 2-6-12〉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결과의 보건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보건 지표
건강상태 및 행태	생존년수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
	성장발육	저체중아 출생률 학생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 12세 아동의 비만율
	정신건강	정신질환 유병률, 치매유병률 정신질환 치료 경험률
	구강보건	1인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 노인의 무치아 인구비율(65세 이상)
	주관적 건강평가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지율
	영양	1인당 열량 섭취량, 1인당 단백질 섭취량 1인당 지방 섭취량, 1인당 탄수화물 섭취량 1인당 쌀소비량, 1인당 육류 소비량 성인비만율
사망·질병 장애	보건의식행태	음주인구비율, 고도음주자 비율 1인당 주류소비량 흡연율(성인, 청소년, 여성), 1일 평균 흡연량 식습관(식사의 규칙성), 운동실천율
	사망	주산기사망률, 영아사망률, 유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 만성질환 사망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암 사망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전염성 질환	인구 10만명당 AIDS 환자수 주요전염성질환 발생률(유병률)
	비전염성질환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사고 및 장애	자살률, 산업재해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장애자 비율, 활동제한일수, 외병일수	



〈표 2-6-12〉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보건 지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시설	100병상 당 인구수 의료기관수(의료기관종별) 병상수(의료기관종별) 특수의료기관수 특수의료기관 병상수 공공보건의료기관수
	의료장비	인구 10만명 당 첨단의료장비수
보건의료이용	예방	건강검진율 암검진율 예방접종률
	외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횟수(전체, 노인) 1인당 연간 치과 진료횟수(전체, 노인)
	입원	병상이용률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전체, 노인) 입원율(전체, 노인) DRG별 평균재원일수
	의약품소비	의약품 소비량 의약품 총판매액
	의료서비스 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 충족률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	보건의료비용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가구당 의료비 지출률 GDP 대비 국민보건의료비 비율 국민보건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외래건당 진료비, 입원건당 진료비 진료비중 본인부담률 진료비중 약제비 비율
	보건의료재정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비율 재원별 보건의료비 비율
기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	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주택보급률, 방당 가구원수
	인구	출생률, 합계출산율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부양비, 노인인구비율

자료: 한양대학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한국의 보건지표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 제 3 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보건부문에서 장애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지표의 다양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 관심영역을 건강상태 및 행태, 사망·질병·장애,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 보건의료기술 등 6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2003년 한양대학교에서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의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한국의 보건지표체계(표 2-6-12 참조)에서 '기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삭제하고, '보건의료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보건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청 발표의 '한국의 사회지표'(2003) 내의 보건지표체계 관심영역이나 1995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개발한 '신보건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이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관심영역별 세부관심영역은 「건강상태 및 행태」의 경우에는 생존년수, 성장발육, 정신건강, 구강보건, 주관적 건강평가, 영양, 보건의식행태로 구분하였다. 「사망·질병·장애」에는 사망,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 사고 및 장애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이용」은 예방, 외래, 입원, 응급의료, 의약품소비로 구분하였고,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은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재정으로 구분하였고, 「보건의료기술」은 장기이식, 의료보장구장치, 의료장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보건지표체계는 <표 2-6-13>과 같다.

<표 2-6-1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건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보건 지표
건강상태 및 행태	생존년수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성장발육	저체중아 출생률* 학생(초5, 중2, 고2)의 신장, 체중, 흉위 학생 비만을* 성인 비만을*
	정신건강	정신질환 유병률 치매유병률
	구강보건	1인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12세아동) 무치아 노인 인구비율*
	주관적 건강평가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2주간 주관적 호소 유병률
	영양	1인당 열량 섭취량 1인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 1인당 쌀 및 육류소비량
	보건의식행태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1인당 주류소비량(출고량) 흡연율 및 1일 평균 흡연량 연간 담배판매량* 규칙적 식사 이행률* 규칙적 운동 실천율* 정상 수면율*
사망·질병· 장애	사망	주산기사망률 사산율*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주요사망 원인별 구성비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암사망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표는 신규지표임

〈표 2-6-13〉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보건 지표
사망·질병 장애	전염성 질환	주요 전염성질환 발생률 AIDS 환자수 및 유병률* 만성전염병 유병률(결핵, 한센병, B형간염)*
	비전염성 질환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암 유병률(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사고 및 장애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활동제한일수 와병일수
보건의료이용	예방	건강검진율 암검진율* 예방접종률
	외래	외래수진율(일반, 치과, 한방) 외래건당 내원일수(일반, 치과, 한방) 외래 내원일당 진료일수(일반, 치과, 한방)
	입원	병상이용률(일반 특수병원, 한방) 입원 수진율(일반, 한방) 평균재원일수(일반, 한방)
	응급의료	구급차수 및 보유율* 구급차 출장건수*
	의약품소비	의약품 소비량 및 생산실적*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인력	의료인력수 및 1인당 인구수(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수(의사, 간호사)*
	보건의료시설	의료기관수 및 인구10만당 수(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및 인구10만당 병상수(의료기관종별)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	보건의료비용	1인당 국민의료비지출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부문별 국민의료비 지출비율(민간, 공공, 보험) 가구지출 중 의료비지출 비율 의료비중 노인의료비 지출비율*
	보건의료재정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비율
보건의료기술	장기이식	장기이식건수
	의료보장구장치 의료장비	의료보장구 장치건수 고가 의료장비수(인구 10만명당)

## 2. 개별지표의 선정

199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정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제시한 보건지표체계의 개별지표(표 6-10 참조) 중에서 본 연구에서 조정, 삭제, 추가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삭제된 개별지표

① 혈압정상비율: 보건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혈압 정상자보다 경계혈압이나 고혈압에 있는 자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종전의 지표에서는 혈압의 실측치로 조사한 지표도 아니고 혈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미가 없다. 본 연구의 신규지표로 만성질환 유병률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지표는 삭제하였다.

② 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구체적 건강유지 관리방법(운동, 식사조절, 담배·술 절제, 보약·영양제 복용, 기타, 아무 것도 안 함)을 백분율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관리방법은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복이용자에 대한 비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 각각에 대한 실천정도를 지표로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③ 14세 사망률: 유아사망률도 주요 사망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사망관련 지표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인구지표에서 연령별 사망률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④ 65세 이상 사망 비율: 전체 사망자중 노인의 사망 비율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이용 가능한 지표이지만, 인구부문지표에서 연령별 사망자 분포를 보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지표에서는 삭제하였다.

⑤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자수는 보건지표로 중요할 수 있으나 부상자의 기준설정이 어렵고, 통계생산 또는 보고체계도 미미하다. 장래에는 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

하였기에 삭제하였다.

⑥ 한방의료이용 횟수 및 이유: 한방의료이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나 한방의료이용 행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조사로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에서 한방의료기관이용률로 대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였다.

⑦ 의료서비스 충족도: 주관적 지표로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나 개인에게 질문한다고 하여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다양하고 의료이용회수가 많아 어떤 상황에서의 충족도를 제시하는지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막연한 지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⑧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서비스는 한사람이 여러 번 이용하므로 단편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서는 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불만 이유도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를 제시할 필요성이 없다.

한편,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되어 있는 지표 중에서 앞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한 지표 이외에도 추가로 삭제해야 할 지표가 있다. 첫째, 음주량(6-9)<sup>12)</sup>을 삭제해야 한다. 음주량을 맥주 1병=소주 2홉과 같은 모호한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횟수 많은 경우 평균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도 음주량을 지표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식품공급량(1인 1일당)(6-19)인데, 건강관련지표로는 식품의 공급보다는 식품의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성분별 섭취량의 지표로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조사직전 2주간)(6-24)는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전국민 건강보험이 되어 건강보험 보험자가 하나로 통합되었기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의료이용량으로 환자통계를 알 수 있으므로 개인의 회상력에 의존한 신뢰성이 미흡한 자료를 사회지표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12) 여기서 개별지표 뒤에 표시한 ( )안의 수치(예 6-9)의 의미는 「2003 한국의 사회지표」의 표 번호를 의미함.

## 나. 조정된 개별지표

① 학생 및 성인 비만율: 기존의 지표체계에서 '신체중량지수(BMI)'를 포함시켜 2003년 사회지표에는 학생들의 BMI를 평균치로 제시하고 있다. 평균치는 의미가 별로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학생의 비만율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성인에 대한 비만율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② 규칙적 운동실천율, 규칙적인 식사 이행율, 정상 수면율: 개인의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구체적 건강유지 관리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상적인 건강행태에서 운동, 식사, 수면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존의 지표체계에서 '건강 관리방법'은 여러 항목 중에서 중복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주요 항목에 대해 실천하는 인구비율 지표로 조정하였다.

③ 고도음주자 비율(알코올 의존 비율): 고도 음주자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기존 지표체계에서 음주자의 과음횟수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도음주자 비율 지표로 조정하였다.

④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사망률, 암(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사망률: 기존 보건지표의 '주요사망원인 구성비'에서 원인별 사망 구성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에 보건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특수질병의 사망률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특수질환별 사망률(인구 10만당)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주요 전염병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AIDS 환자수: 기존지표체계의 '주요 질병 발생 건수' 지표를 조정하여 주요 법정전염병 발생률과 AIDS 환자수를 분리하여 지표로 선정하였다.

⑥ 수진율, 건강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일수(입원, 외래, 치과 구분): 전국민 의료보장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의료이용지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통계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기존지표체계에서 1일 평균 재원환자수 및 평균 입원일수와 1인당 연간평균 내원일수(외래)를 건강보험통계로서 조정할 수 있다.

#### 다. 추가된 개별지표

① 저체중아 출생률: 모자보건에서 영아사망에 주요 요인이 되는 출생시 저체중아(2,500g 미만)가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출생아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모자보건 지표이다.

② 무치아 노인인구 비율: 노인의 구강보건 상태, 특히 무치아 노인의 인구비율이 구강보건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통계자료 및 지표체계에 발표되지 않고 있다. 노인 구강보건문제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되어야 할 지표이다.

③ 스트레스 인식정도: 현대인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나이다. 기존의 보건지표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중요한 보건지표로 생각된다.

④ 연간 담배판매량: 이 지표는 기존의 사회지표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포함되어 있다. 실제 담배소비량이 정확히 보고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담배판매량을 보건지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국가간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로서 기종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영아사망률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후 28일 미만 아동의 사망률인 신생아사망률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⑥ 사산율: 주산기 사망률은 임신 29주 이후의 태아사망과 생후 7일 이내의 초생아 사망을 나타내는데, 이를 더 세분하여 임신 29주 이후의 태아 사망률인 사산율을 보건지표에 포함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⑦ 만성 전염병 유병률: 기존의 사회지표에는 비전염성 만성질환 유병률은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중요한 전염병인 결핵, B형 간염, 한센병 등의 유병률을 별도로 지표로 제시해야 한다.

⑧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이들 지표는 사망원인별 사망률에 포함



될 수 있으나 사회 발전과정에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회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⑨ 암검진율: 암은 조기진단을 통해 조기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고, 국가 질병관리사업 중에서 매우 비중 높은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암관리에 대한 투자도 증가되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율과는 별도로 부위별 암검진률을 보건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⑩ 구급차수, 구급차 출장건수: 최근에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수를 지표로 할 수 있으나 모든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복의 의미가 있어 구급차 보유대수와 구급차의 출장건수를 지표로 포함시켰다.

⑪ 의약품 소비량 및 생산실적: 국민보건에서 의약품의 소비와 지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품소비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려우면 의약품 생산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⑫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수: 기존지표에 보건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종사자가 아닌 면허자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수를 인구당 비율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⑬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국가간의 공공의료에 대한 비교시 공공의료비 지출과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로 주로 비교하게 된다. 공공의료비 지출은 부문별 국민의료비 구성비로서 제시될 수 있으나 공공병상의 비중은 별도의 지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⑭ 노인의료비지출 비율: 노인의료비 지출이 의료비지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점차 증가되고 있고, 노인 의료비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기존지표와 신 지표체계의 비교

1995년에 개정된 보건부문의 지표에는 관심영역이 '건강상태', '사망', '상병', '영양', '보

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및 '보건의료기술' 등7개로 구성되었고, 세부관심영역은 21개, 개별지표는 50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체계에 비하여 관심영역은 6개로 줄었지만 그 내용을 조정하였다.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을 '보건의료자원'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고, '보건의료이용'과 '보건의료자원'은 그대로 두었으며, 종전의 '건강상태'와 '영양'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합쳐 '건강상태 및 행태'로 하고, '사망'과 '상병'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사망·질병·장애'로 합쳐서 관심영역을 구성하였다. 세부관심영역도 조정하여 종전의 21개에서 2개가 증가되어 23개로 구성되었다. 이는 새로이 설정한 관심영역에 포함된 세부관심영역이 신설되고, 정신건강, 응급의료, 의약품소비 등의 영역이 신설되었고, 용어를 많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별지표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종전의 50개에서 69개로 대폭 증가시켰다. 주관적 지표는 기존에는 4개(건강관리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였으나 3개(개인이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지정도, 주관적 질병호소율)로 내용도 바꾸고 1개 줄었다.

<표 2-6-14> 및 <표 2-6-15>에서 기존지표와 새로운 지표체계를 비교하였다.

<표 2-6-14> 본 연구에서 삭제된 개별지표와 신규 개별지표

삭제된 개별지표	신규 개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질량지수(BMI)</li> <li>- 혈압정상비율</li> <li>- 건강관리방법</li> <li>- 14세 사망률</li> <li>- 65세 이상 사망비율</li> <li>- 각종사고에 의한 부상자수</li> <li>- 1인당 평균 의사방문회수</li> <li>- 한방의료이용회수 및 이유</li> <li>- 의료서비스 충족도</li> <li>-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비만율</li> <li>- 성인비만율</li> <li>- 저체중아 출생률</li> <li>- 무치아 노인인구 비율</li> <li>- 스트레스 인식정도</li> <li>- 연간 담배판매량</li> <li>- 규칙적 식사 이행률</li> <li>- 규칙적 운동 실천율</li> <li>- 정상수면율</li> <li>- 신생아사망률</li> <li>- 사산율</li> <li>- 주요 만성질환사망률(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li> <li>- 암사망률(위암, 갑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li> <li>- AIDS 환자수 및 유병률</li> </ul>

삭제된 개별지표	신규 개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전염병 유병률(결핵, 한센 병, B형간염)</li> <li>- 자살률</li> <li>- 교통사고 사망률</li> <li>- 산업재해 사망률</li> <li>- 암검진율</li> <li>- 수진율, 건당내원일수, 일당진료일수(입원, 외래; 치과, 한방)</li> <li>- 구급차수 및 보유율</li> <li>- 구급차 출장건수</li> <li>- 의약품 소비량 및 생산실적</li> <li>-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수(의사, 간호사)</li> <li>-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li> <li>- 노인의료비지출 비율</li> </ul>

〈표 2-6-15〉 신·구 지표체계의 비교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관적 지표
1995년 지표	7	21	50	4
2003년 지표 <sup>1)</sup>	6	13	36	4
신 개선안	6	23	68	3

주: 1)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보건부문에 실제 게재된 지표임.

## 제 4 절 결 론

사회지표 중에서 보건부문 지표는 경제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빠르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표이다. 현재 여건과 미래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기존체계에서의 개별지표 50개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68개로 구성하였으며, 관심영역도 더욱 광역화하고 '보건의료비용 및 재정'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크게 조정하였다. 너무 주관

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상태를 반영하기 곤란한 4개의 개별지표는 삭제하였고, 지표의 산출이 모호하거나 기존 지표에서 제시되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표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삭제하거나 조정하였다. 특히, 건강행태, 의료이용, 사망률 및 사망원인과 관련된 지표를 많이 조정하고 추가하였다.

한편, 개별지표 중에서 현재 완전한 통계자료의 생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증가되고 있어 필히 생산하여야 할 지표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표는 기존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합의하여 단계적으로 통계자료가 생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지표 중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국제화 및 세계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1978.
- 김윤신 등, 『한국의 보건지표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강증진기금사업단  
 용역보고서, 2003.1.
-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2004.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2003.
-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 『한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지표』, 1976.11.
- 장영식 외 5인. 『OECD 요구 보건통계 생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4.
- 주학중 외,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상권)』,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총괄편』. 199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I): 해설편』. 199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2.
-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신국민생활지표 PLI』, 1995.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사회생활통계지표』, 2004.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s Health*, 2002.
- 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Trends and Indicators in the Changing Health Care Marketplace*, Menlo Park, CA, 2002.

UK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Social Trends 20*, London, 1990.

U.N.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US Federal Statistical System, *Social Indicators III*, Washington D.C., 1980.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States: 1994*. 114th edition, Washington D.C., 1994.

US DHHS. *Healthy People 2000*. Washington D.C., 1990.

Saito Y, Qiao X, Jitapunkul S. 'Health Expectancy in Asian Countries'. Robine JM, Jagger C, Mathers CD, Crimmins EM, Suzman RM(eds), *Determining Health Expectancies*. John Wiley & Sons, Ltd, 2003. pp. 289-317.

## 제7-1장 주거와 교통: 주거

### 제1절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의 모태가 되고 있다. 사회지표는 그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을 대변하는 지표이므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화·고도화가 곧 사회지표상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7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지표체계의 제1차 개편이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에 걸친 각 부문의 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사회지표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 및 문화욕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국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거문제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부문에 대한 사회지표체계를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는 과제는 선진형의 복지국가로 가는 사회적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도 내포한다.

인간의 주거는 주택이라는 물적 용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택은 주거를 포함한 인간생활이나 활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존(Subsistence), 적정(Adequacy), 쾌적(Comfort)이라는 축도를 통하여 인간이 가진 생리적, 정서적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물질적인 용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주택은 인간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최소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주택은 고가성, 비이동성, 내구성 및 장기간의 건설기간소요라는 물리적 성격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거의 수요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며, 이는 개인의 수요를 제약하고 주택시장의 형평적 분배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주택이 가지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주거문제를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경

우 계층간 주거서비스 분배의 비형평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의 증가 등으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고소득층이나 자가소유자는 주거서비스수준의 손실 없이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의 증가라는 이익까지 향유하는 반면, 임차인을 위시한 저소득층은 높아진 가격에 맞추어 서비스 수준을 낮추거나 추가의 주거비 지불을 감수하여야 하는 필터링-다운(filtering down)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서비스 분배에 대한 시장기능을 보전하여 개인의 후생복지와 가족의 안녕, 건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주택부문은 각국에 있어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선진국일수록 복지적 측면에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주택공급의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분배적 측면에서의 주거복지의 실현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삶의 질을 점차 중시하면서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같은 주거복지 및 분배적 측면에서의 주택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의 주택부문 사회지표체계는 주거문제를 비롯한 국민복지의 척도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체계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보고서에서는 주택부문을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이라는 두 개의 관심영역으로 제시하면서, 주거상태에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주거비용, 주거이동의 세 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고, 주거의 질에서는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경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정책의 대상이 주택이라는 물리적 요소와 거주라는 인간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과 거주 의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분류하고, 거주 부문은 다시 가구의 주거상황과 주거의 질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개별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삶의 질을 반영하고, 주거복지수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을 개발하며, 지역간, 집단간 등의 분배문제까지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기존의 주택부문 사회지표체계 및 여건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새로운 체계내에서 개별지표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선정의 배경을 설명



하였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제기되었던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모색으로 간단한 결론을 맺고 있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국외 연구의 검토

#### 가.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생활수준지표체계

드로노우스키(Drewnowski, J.)에 의하여 제시된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지표 체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영역'과 '지표'의 2단계구조로 되어 있다. 이 체계는 생활수준을 규정짓는 영역으로서 7개 영역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표에 대하여, 인간의 기본적 필요의 충족수준별 분포를 감안하고 있다.

이 체계는 생활의 영역을 ① 영향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음식물, 의복, 거처,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소비영역, ② 여가와 안전을 위한 생활의 보호영역, ③ 사회적 및 물리적인 환경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과 지표는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택소비생활의 양태 및 행위를 보여주는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여기서 주거생활과 결부되는 지표들은 주택소유율, 거주밀도, 주택의 전용 등이 있으며, 소비생활의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파악하는 지표인 환경영역의 지표에는 교통과 관련된 통신·여행 등의 지표가 있다.

#### 나. OECD의 사회적 관심체계

이 체계는 1973년에 작성된 후 1982년에 새로운 체계가 작성되었다. 전자의 특징은 개 개인의 복지에 기본적인 중요성이 있고 확인과 정의가 가능한 열망 또는 복리를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삼으며, 그 체계는 '8개의 관심분야'→'14개의 기본적·공통적인 관심영역'→'독립적·보충적 관심영역'으로 24개의 지표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 체계에서 주거와 관련있는 관심영역(과 지표)은 물적환경(주거상태) 영역이다. 유량적

개념의 소비생활의 지표로서 주거와 관련되는 지표로는 통근시간, 주당 평균자유시간, 주거공간,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의료·상점 등 선정된 서비스로의 근접도 등이고, 관심영역에 속한 여타의 지표들은 주거와 관련한 소비생활의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다. 유엔의 주택사정에 관한 사회통계

사회지표로 전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통계, 인구통계를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료 중의 하나로 유엔의 주택사정에 관한 사회통계지표 권고안을 들 수 있다. 유엔은 주택과 관련한 사회지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과, 과밀에 대한 지표, 그리고 상수도과 변소 등 주택부대시설의 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차적으로 주택의 질과 부대시설의 수준 등을 지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에서 제시하는 지표들로는 기본지표로서, 주택거주인구의 비율, 1실당 3인 이상 거주주택의 비율, 주택내 상수도보급률, 화장실보유 주택비율 등이 있으며, 보조지표로서, 수세식화장실을 갖춘 주택의 비율, 추정소요 주택수에 대한 주택건설지수 등이 있다.

#### 라. 인간정주기구(HABITAT)와 세계은행의 주택지표

198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범세계주택전략의 기본개념은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간정주기구와 세계은행은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택지표프로그램(Housing Indicators Programme, HIP)을 시행하여 주택지표의 개발을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주택에 관한 25개의 주요지표와 10개의 대체지표, 주택규제관련 20개의 추가지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로 1993년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는 각 정부에게 주택지표를 활용하여 주택부문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주택정책의 개선과 주택부문관련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유엔 인간정주기구 주관 하에 주택지표를 회원국에 보급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각 회원국이 1개 주요도시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할 10개 지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도시를 점차 늘려 긍정적으로 모든 주요도시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수집된 주요지표는 유엔 개발기구(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가 발행하는 Human Development Report, 세계은행이 발행하는 World Development Report, 유엔 인간정주기구에서 발행하는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에 수록되었다.

주택시장 및 정책관련지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국제비교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주거수준 및 주거상태는 각 나라의 경제, 사회발전 전에 수반하는 가치관과 생활수준, 규범, 문화, 전통, 생활 양식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간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택부문의 실적을 측정하고 이를 시간과 공간별로 비교하는 조작적인 도구는 각 국가간 및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주택정책 경험으로부터 향후 주택정책의 수집 및 집행에 참고가 될 정보를 얻게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하며, 이러한 도구는 전체 주택정책의 이해와 비교관점(comparative perspectives)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들 지표는 한 나라 또는 한 도시의 주요지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혹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분석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개발된 지표들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와 보조금 지급 규모 및 수혜계층에 관한 지표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주거수준을 파악하고 주택정책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러나 각 도시 고유의 주택문제를 나타내는 지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같은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주택지표가 주택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계량적 지표가 되려면 그 배후에는 주택부문의 작동에 관한 분석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 주택부문의 결과, 즉 주택가격, 임대료 및 상승률, 자가보유율, 주거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 등은 주택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힘과 시장기구가 작동하는 토양이 되는 정부정책 및 규제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주택정책과 주택부문의 결과는 가계저축률, 인플레이션, 고정자본형성, 재정수지 및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주율, 주거안정성 등 사회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

주택부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택부문을 구성하는 소비자(가계), 주택금융기관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택지표는 주택 수요, 공급, 정부규제에 관련된 주

요 변수들의 수치를 조사하고 각 도시의 주택시장이 이상적인 기준에 얼마나 가까우며 도시별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마. 미국의 사회지표체계

미국의 사회지표체계(Social Indicators III)는 미국사회의 현상과 다가올 변화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요추세 및 발전을 서술하는 체계로서, 삶의 질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문구성은 건강과 영양 등 관련된 목표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장인 건강과 영양으로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구 및 가족, 住居와 환경, 사회보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 문화·여가·시간의 사용 등 관련된 영역을 각각 하나의 목표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체계에서 주거생활과 관련이 깊은 1인당 개인소득의 원천, 혹은 1인당 개인소비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지표 중에는 재산소득, 임대료, 가구와 주택설비, 주택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바.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

일본의 총무청 통계국에서 지역별로 작성하고 있는 사회생활통계지표(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는 유엔의 사회통계지표(SSDs)를 원용하여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관련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내용의 구성은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통계는 지역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통계와 지표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결국 이 체계는 국민전체, 가계, 개인의 생활을 총망라하여 표시하는 국민생활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생활통계지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 주거 및 교통생활과 관련이 깊은 지표들은 J(거주환경)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거주환경'은 주택수, 주택의 질, 주택에 관련된 비용, 사회적 편익, 생활편익시설, 교통기관, 시가지의 이용상황, 도시공원 및 녹지, 주거환경의 만족도 등의 9개 관심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 사. 평가

국가의 사회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지표의 내용은 그 나라의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분양별로 번문화·분화 정도가 크고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비교적 부문의 수도 많고 지표의 수도 많은 편이다.

주택부문에 포함할 내용은 주로 인간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등에서는 주택사정의 통계적 지표로써 최소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과밀에 대한 지표, 상수도 등 부대설비 지표를 포함하여야 하고, 부차적으로 주택의 질과 부대시설의 수준 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평균적으로 국가의 주택사정을 나타낼 뿐으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미흡하다.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또 지표의 범위도 주택이라는 재화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환경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회통계지표들은 비교적 주거상태, 주거의 질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경우는 주거환경 영역을 주택수, 주택의 질, 주택 및 세대, 주거비, 사회적 편익, 생활편익시설, 시가지의 이용상황, 도시공원 및 녹지, 주거환경의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지표화하였으며, 이에는 주거상태 및 주거의 질적인 측면과 분배구조까지도 시사할 수 있는 거주밀도, 거주 소유관계별 비율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 2. 국내 연구의 검토

주거지표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1987년에 제1차로 개정된 바 있는 주택·환경부문 사회지표체계 및 이를 개정하여 한국의 사회지표에 사용한 연구가 있다.

전자의 경우 주거부문을 3개의 관심영역과 9개의 세부관심영역, 54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환경관련지표를 제외한 주거관련 사회지표는 주거상태라는 하나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주택공급, 주거공간, 주택수요, 주거비용, 주택부대시설, 인근편익시설, 주변환경이라는 7개의 세부관심영역, 그리고 48개의 개별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의 경우는 주택부문을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이라는 두 개의 관심영역으로 제시하면서, 주거상태에서는 주택수급, 주거비용, 주거이동의 세 가지 세부영역을 설정하고, 주거의 질에서는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변환경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유엔 인간정주기구와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주택지표프로그램

(Housing Indicators Programme, HIP)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주택부문지표를 개발하였다. HIP의 목표는 주택정책당국이 주택시장 및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 지표를 전세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수집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의 모색에 참고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책적 함의가 분명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소수의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HIP에서는 주요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1) 주택의 가격, 수량, 질, 수요 및 공급 등 5개 분야와 주택부문에 관여하는 가계, 주택사업자, 주택금융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5개 주체가 대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지표가 필요하다.
  - (2)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절대금액보다는 정규화된 비율이 더 적절하다. 예컨대 중위주택가격 자체보다는 중위소득과 대비한 중위주택가격이 더욱 중요하다.
  - (3) 정의가 분명하여 연구자나 정책입안자의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적어진다. 따라서 주택소요(housing needs)나 종합지표(composite measures)는 배제한다.
  - (4) 양적 지표와 가격지표, 저장(stock) 지표와 유량(flow) 지표의 적절히 안배한다.
- 이중에서 내구적인 주택 비중과 허가된 주택의 비중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제하고, 주택부문지표를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1〉 10개의 선정지표와 기타 주요지표

분류	선정 지표	기타 주요지표
I.주택가격지표	지표1 : 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수 지표2 : 연소득대비임대료비중	·주택가격상승율 ·최저가구주택의 연소득배수
II.주택생산 및 투자지표	지표3 : 주택생산량 지표4 : 주택투자율	·입주가능 공기수
III.주거수준 질적지표	지표5 : 1인당 주거면적 지표6 : 내구적인 주택 비중 지표7 : 허가된 주택 비중	·가구당 주택면적 ·자가보유율 ·방당 거주인원 및 주택당 가구수 ·주거이동성
IV.주택수요지표	지표8 : 주택금융 비중	·가구수 증가율 ·주택투자대비신규대출 비율
V.주택공급지표	지표9 : 택지개발승수 지표10 : 1인당 기반시설투자비	
VI.주택·토지시장 구조와 규제지표		·주택산업 집중율 ·토지전환용도승수 ·토지건축규제지수

### 3. 새로운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사회지표의 기능은 국민생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현황자료의 제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통하여 정책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사회지표체계에 포함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측정형 지표체계는 국민생활의 영역을 세분하고 생활행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망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체계에서는 주거부문을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로 크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주택수급, 주거비용, 주거이동,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경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

한 체계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측정형 지표체계라는 점에서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주거복지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인 주택과 정책의 목표인 주거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수급 및 주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배경에 근거한다. 둘째, 일부 지표의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하여 국민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어떤 지표는 더욱 중요해지거나, 또는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주택부문의 환경변화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택법에서 새로 도입한 최저주거기준 같은 지표는 새로운 지표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표체계의 구상에서는 첫째, 주택부문과 주거부문을 대별하여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둘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진 지표를 세분하여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기존체계에서 나타난 주거부문의 관심영역은 크게 구분하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거부문을 주택이라는 물리적 요소와 주거라는 인적 요소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때 주택의 관심영역에는 주택보급률 같은 주택공급 및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 주택유형, 규모 등 주택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거의 관심영역에서는 주거점유형태 같은 주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주거면적 같은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각기 다양한 세부관심영역을 포함하면서 주거부문의 사회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이 제안된 세부관심영역의 구성은 기존의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다. 기존의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보다는 현재의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자료원의 한계면에서나 작성기관의 시행 용이성 측면에서도 실제



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주택수급, 주거비용, 주택부대시설 등의 중요한 세부지표는 영역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그대로 포함시켰다.

기존의 체계와 새로 구성한 지표체계의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주택과 인간, 즉 거주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주거부문의 지표를 구성했다는 점, 주거복지에 관련된 몇 가지 지표를 추가로 포함시켰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2-7-2〉 기존체계와 새로운 체계의 구성 비교

기존체계		신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주거상태	주택공급과 수요 주거비용 주거이동	주택	주택수급 주택채고 주택상태
주거의 질	주거공간 주택부대시설 주위환경	주거	주거상황 주거의 질

## 2. 개별지표의 선정

### 가. 제외 또는 대체된 개별지표

새로 제시된 지표체계에서는 기존 체계에서 사용되었던 지표 가운데 4개의 지표가 삭제되고, 3개의 지표는 주거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대체되었다(〈표 7-3〉참조). 삭제된 지표들은 첫째, 경제발전과 사회의 성숙에 따라 현재의 사회지표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이거나, 둘째, 지표설정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지표화하더라도 복지척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들, 셋째, 주거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도 지표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들 등이다. 삭제되거나 대체된 지표의 내용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자가보유율

주택의 자가보유율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별 가구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주거지표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자가보유율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자가점유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가점유율을 자가소유통계로 잘못 사용하는 혼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자가점유율에 관한 지표는 별도의 주거점유형태 지표에서 파악가능하다. 자가보유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2005년 이후로는 중요한 주거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원하는 주택방수

원하는 주택방수는 대부분의 가구가 방수보다는 주택규모나 주택유형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지표로의 중요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원하는 주택규모 지표 등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방수에 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지표로서 갖는 효용성이 예전에 비하여 떨어졌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 ③ 취사용 연료

석유, 가스, 전기 등의 공급 확대로 대부분의 가구는 편리한 취사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사용 연료는 주거사정을 나타내는 사회지표로서의 기능이 크게 낮아진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새로 구성된 주거지표에서는 취사용 연료에 대한 지표를 삭제하였다.

### ④ 에어컨 소유가구율

에어컨은 최근 들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향상으로 주택의 냉방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어컨의 소유 여부가 주거복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택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도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표에서는 에어컨 소유가구율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2-7-3〉 새로운 지표체계(주거부문)에서 제외된 개별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상태	주택공급	자가보유율
		원하는 주택방수
	주택부대시설	취사용 연료
		에어컨 소유가구율

#### 나. 대체 또는 조정된 개별지표

##### ① 가구당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주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자료이며, 주택의 구분소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채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대지면적을 가구단위로 산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국민들의 주거사정을 보여주기 위한 주거지표라는 측면에서 대지면적보다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주거면적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지표체계에서는 가구당 대지면적을 주택당 대지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② 과밀거주가구수

2003년 주택법의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의 세가지 요소로 작성되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3%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과밀거주가구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라는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산출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년 신속한 자료를 산출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

는 주거실태조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③ 난방방식별 주택분포

난방방식은 주거상태를 보여주거나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의 추진이나 사회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감안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가구의 난방상태로 여겨지므로 난방기준별 주택의 분포에 관한 지표는 가구별 난방방식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 2-7-4〉 새로운 체계(주거부문)에서 조정된 개별지표

기존체계의 개별지표	기존체계의 개별지표
가구당 대지면적	주택당 대지면적률
과밀거주가구수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
난방방식별 주택분포	가구별 난방방식 비율

### 다. 추가된 지표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에서는 기존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개별지표들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주거복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과, 주거에 관련된 법·제도의 변경으로 중요도가 높아 지거나 신설된 지표들이다. 추가된 개별지표와 지표의 정의 및 산식, 그리고 의미 등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주택의 수급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주택보급률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가구수와 주택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으로 주거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며, 주택 및 가구의 정의에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내포한다. 주택의 경우 여러 채의 주택기능을 가진 다가구주택이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되며, 현실적으로 주거기능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도 주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가구의 기준 역시 보

통가구를 사용하므로 단독가구 등이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사람들이 느끼는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고, 주택시장이나 주거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주택보급률의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수정 주택보급률 지표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주택보급률이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하여 정책적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택보급률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택의 양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가구기준을 적용한 주택보급률과 함께 인구기준을 적용하는 새로운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는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들 수 있다. 이 지표는 일반가구, 보통가구,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같은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다. 특히 외국의 경우 별도의 주택보급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을 외국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지표는 총주택수를 총인구로 나누어서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산이 용이하다. 이때 주택의 정의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만 현재의 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나 주택보급률과의 개념 차이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정의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 ② 공공주택 비중

주거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처럼 주택가격이나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가에서는 공공주택은 가구,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거안정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주택의 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은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주택업체 등에서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당국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등 공공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공공주택 비중이 주거부문의 지표로서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

이다. 공공주택 비중의 통계는 건설교통부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③ 주택규모(호당 주택면적 및 호당 대지면적)

사회의 성장과 소득 향상은 사람들의 주거서비스 욕구를 증가하게 만들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아파트분양가격 자율화 등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신규공급된 주택의 대형화, 고급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감안할 때 주택규모는 주거에 관한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주택규모에 관한 지표는 호당 주택면적 및 호당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주택규모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으며, 매년 신고되는 주거용건축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도 가능하다. 이 지표는 가구당 주거면적, 가구당 사용방수 등과 함께 양적인 주거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1인당 주거면적

국민의 양적인 주거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는 주거면적이다. 기존의 지표체계에서도 가구당 사용건평, 가구당 사용방수라는 지표에 의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가구기준의 지표는 가구원수에 따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별 가구원수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한다거나,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현상이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인당 주거면적 지표는 이런 문제를 가지지 않은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⑤ 원하는 주거형태

기존의 지표체계에 포함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형태, 원하는 주택방수 및 원하는 주택규모 같은 지표들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이나 주거상황은 주택뿐 아니라 가구측면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형태는 주거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이를 새로운 지표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⑥ 도시주택전세값지수

기존의 지표체계에서는 도시주택가격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1987년의 지표체계는 도시주택가격지수 이외에 도시주택전세값지수도 포함되었으나, 개정된 지표체계에서 도시주택가격지수와 도시주택전세값지수를 기본적으로 같은 지표로 간주하면서 도시주택전세값지수를 지표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도시주택가격지수와 도시주택전세값지수는 국민주거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계층별 영향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반면, 전세값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도시주택가격지수와 함께 도시주택전세값지수를 지표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주택전세값지수는 국민은행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에 의해 쉽게 구할 수 있다.

### ⑦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

지난 몇년 사이에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저금리현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이 주택금융에 대거 참여하고, 정책당국에서도 저당채권유동화 등을 통하여 제2차저당시장을 적극 육성하면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관리가 과거의 직접관리 방식에서 세제, 금융을 통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지표는 중요한 정책지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에 관한 지표는 앞으로 주거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다룰 필요가 있다.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은 국민은행의 자료나 한국은행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통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표 2-7-5〉 새로운 체계(주거부문)에서 추가된 개별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 별 지 표
주택	주택수급	인구 1천명당 주택수
		공공주택 비중
		주택규모
주거	주거상황	1인당 주거면적
		원하는 주거형태
		도시주택전세값지수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

### 3. 기존체계와 새로운 체계의 비교

지금까지의 검토에 따른 새로운 사회지표 분류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7-6>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주거부문 사회지표체계는 주택 및 주거라는 2개의 관심영역으로 구성되며, 주거는 다시 주거상황 및 주거의 질이라는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세부관심영역에는 37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와 기존의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기존의 지표체계에서는 물리적 기준이며 정책수단의 대상인 주택과 정책목표인 주거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주거상황의 실태 파악과 함께 정책의 수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주거부문도 양적지표인 주거상황과 질적지표인 주거의 질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체계에서는 35개의 개별지표를 가지고 있으나, 새로 구성된 체계는 일부 지표를 제외했음에도 37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주거부문 사회지표체계에는 시대적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표 2-7-6> 새로운 지표체계(주거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택	주택수급	주택보급률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주택투자율
		연간 주택건설호수
		주택의 유형
		공공주택 비중*
		주택의 노후도
		주택규모(호당주택면적, 호당대지면적)*
		최초 주택마련시 지급조달방법
		도시주택가격지수
		도시주택전세값지수*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
	주택의 질	주택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원하는 주택규모
		원하는 주택유형
주거	주거상황	주거점유형태
		주택당 거주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현 주택거주년수
		최초 주택마련시기

〈표 2-7-6〉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거	주거상황	결혼후 내집마련까지의 이사회수
		현 거주지 선택이유
		거주지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원하는 주거형태*
		가구당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	가구당 주거면적
		가구당 사용방수
		1인당 주거면적*
		방당 거주인수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입식부엌 시설률
		목욕탕 시설률
		수세식화장실 시설률
		주차장 확보율
		가구별 난방방식*
		편의시설 근접도

\* 주관적 지표임.

## 제4절 결론

새로 구성된 주거에 관련된 사회지표체계는 주거부문을 크게 주택과 주거로 나누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거부문 사회지표가 보다 정확하게 현상을 보여주고, 정책적으로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주거부문 사회지표체계는 2개의 관심영역과 3개의 세부관심영역, 그리고 37개의 개별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관심영역은 각각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주택이라는 세부관심영역에서는 플로우(flow)를 보여주는 주택수급, 스톡(stock)개념인 주택재고, 주택상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주거상황의 세부관심영역은 국민들의 주거실태를 보여주며, 주거의 질이라는 세부관심영역은 질적인 측면의 주거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주거부문 사회지표체계는 기존의 체계에서 시대에 동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낮은 지표들인 원하는 주택방수, 취사용 연료 등은 제외하거나 다른 체계로 대체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산출이 곤란한 체계인 자가보유율 등도 잠정적으로 제외하는 전략을 택했다. 물론 여기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외된 개별지표들은 관련통계가 정비되는대로 다시 주거부문 사회지표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거부문 사회지표체계에 포함된 37개의 개별지표 중에서 기존체계에는 없었으나 새로이 추가되거나 대체된 지표로는 '인구 1천명당 주택수', '공공주택의 비중', '호당대지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원하는 주거형태', '도시주택전세값지수', '1인당 주거면적', '가구별 난방방식', 등의 7개였다. 37개의 개별지표 중 주관적 지표는 '현거주지 선택이유', '원하는 주택형태', '원하는 주택규모', '원하는 주거유형',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거주지의 만족도 및 불만이유', 등이다. 특히 새로운 사회지표 분류체계는 인구 1천명당 주택수, 공공주택 비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같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나 정책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들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구당 주택자금대출 비중 같은 지표의 추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제안된 결과는 향후 몇가지 방향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거의 질과 관련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지표들을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우체국,

병원 이외에도 세탁소, 어린이놀이터,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인근편의시설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거지 선택과 교육시설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수한 교육시설 혹은 교육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교육시설과 주거환경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연계시키는 지표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성이 높으면서도 자료의 미비로 제외된 지표들은 조속한 통계의 정비를 통하여 지표체계에 포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제7-2장 주거와 교통: 교통

### 제 1 절 서 론

1978년부터 작성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에서 교통부문은 타 부문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인 1995년 지표체계 개정에 와서야 명시적인 관심영역으로 고려되었다. 1995년의 지표체계에서는 “주거와 교통부문”에 교통부문을 포함시키고 2개 관심영역, 4개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누어 16개 개별지표(장래개발 포함)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전체 13개부문 492개의 지표 중 “주거와 교통부문”에 8개의 교통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과 소비부문”에 2개, “환경부문”에 3개, “안전부문”에 12개의 교통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의 지표체계와 2003 한국의 사회지표를 비교해 보면 1995년 지표체계에서 제시되었던 많은 개별지표, 특히 장래개발로 제시되었던 지표들이 실제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3 한국의 사회지표 내에서도 교통과 관련된 항목들이 안전부문을 비롯한 타 부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부문을 이전보다 독립된 분야로서 고려하고 타 부문에 포함된 지표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교통부문 전체를 고려한 관심영역 재설정과 개별지표의 선정 및 재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지표체계 개정시 설정한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 도시과밀화 문제 등의 상황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 열풍이 불 정도로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으며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도시과밀화와 관련한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될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며 지방광역권의 인구 및 지역범위 확장과 광역권으로의 집중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이러한 기본방향은 그대로 수용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 증가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평가요구 증가 등 최근의 정책·사회·경제적 관심을 반영하도록 한다.

## 제 2 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 가. 1995년 사회지표 (교통부문)

1995년 개정된 사회지표에서는 처음으로 교통부문을 명시적인 관심영역으로 설정하여 “주거와 교통” 부문내 4개 관심영역 중 2개 관심영역을 교통부문에 할당하였고 이에 따른 지표세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제기관이나 외국 혹은 다른 사회지표체계들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표들을 가급적 새로이 추가하고, 기존 연구 및 정책들의 지속적인 연구 및 관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안의 지표들을 가능한 한 제거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지표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삶의 질을 반영하고, 집중에 따른 과밀문제와 혼잡문제 등에 대한 복지수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지역간, 집단간 등의 분배문제까지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지표 개발하고자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통부문은 “주거와 교통” 부문내에 포함되었으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통의 양적지표가 될 수 있는 “교통시설”, 질적지표가 될 수 있는 “교통의 질”의 2개 관심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두 개 관심영역은 각각 “교통수단”, “교통비용”과 “교통편의”, “교통운행의 질”의 4개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뉘고 16개 개별지표(장래개발 포함)가 선정, 제시 되었다.

<표 2-7-7> 1995년 사회지표체계 중 교통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2003 사회지표**
교통 시설 (양적 지표)	교통수단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및 보급률	○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
	교통비용	가구당 교통비 및 지출비율	○
교통의 질 (질적 지표)	교통편의	도로연장	○
		도로포장률	○
		통근·통학 소요시간	×
		주된 통학·통근수단	○
		버스·지하철 접근성	×
		장애인 편의시설수	×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
		시내버스 혼잡률	×
	교통운행의 질	지하철 혼잡률	×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
		자동차 주행속도	×
		차량당 교통법규 위반건수	×

주: \* 주관적 지표

\*\*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 여부

1995년 지표체계에서 교통비용은 "교통시설"보다는 "교통의 질"의 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도로연장은 "교통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편의와 교통운행의 질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3 한국의 사회지표"의 수록내용과 비교해 보면 16개 개별지표 중 7개만이 수록되어 많은 개별지표, 특히 장애개발 또는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조사 하도록 제안 되었던 지표들이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2003 사회지표 항목 참조).

## 나. 2003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 중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13개부문 492개의 국내지표와 50개 국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거와 교통부문”에 포함된 교통부문 지표는 1995년에 개편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2개 관심영역, 3개 세부관심영역에 8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는 대부분 건설교통부의 교통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한 지표이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통근통학부문과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지표가 한 개씩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거와 교통부문”외에 “소득과 소비부문”(2개), “환경부문”(3개), “안전부문”(12개) 등에도 교통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안전부문”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표가 교통부문 전체 지표보다 많은 9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교통사통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1) 주거와 교통부문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	비 고
교통 시설	교통수단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자동차 1대당 인구수(자동차 등록현황)	
	교통비용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비율	
교통의 질	교통편의	도로연장 도로포장률 포장도로 km당 자동차 대수	
		통근 및 통학 이용교통수단 분포	
		교통문제	



2) 안전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안전에 대한 의식	사회의 안녕도	준법수준	
		공중질서 수준	[차레지키기], 보행질서, 운전자 교통질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교통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수단별 사고발생건수 교통수단별 사망자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사상자수(10만명당, 1일평균)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안전시설	

3) 소득과 소비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소비수준	소비지출	농가의 소비지출 구성	교통통신비 항목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교통통신비 항목

4) 환경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환경영향	환경의 질	대기오염도	자동차(%) 항목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대기오염/소음공해

개별지표들을 살펴보면, “주거와 교통부문”에 수록된 교통지표는 8개이나, 실제 수록된 표는 6개에 지나지 않는 반면, “소득과 소비부문”, “환경부문”, “안전부문” 등 타 부문에 더 많은 교통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안전부문”의 교통사고지표만도 8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1995년 사회지표체계에서 제시됐던 많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다. 국가주요교통통계

국가주요교통통계는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교통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발행한 핸드북으로 교통개발연구원의 국가교통DB센터에서 수집·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사회경제, 교통일반, 도로, 철도, 항공, 해운 6분야로 구분하여 주요통계자료와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국가주요교통통계에서는 6개 분야 중 사회경제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교통주요지표를 선정하여 별도 수록하고 있는데, 시계열 변화를 통해 교통부문의 주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교통수단별로 수록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7-8〉 국가주요교통통계의 교통주요지표

구 분	항 목
교통일반	교통부문별 증가 추이 국내 여객/화물 수송실적 추이 건설교통예산 추이 교통혼잡비용 추이 국가 물류비용 추이 총사고비용 및 차량당 사고비용 추이
도로교통	도로유형별 도로연장 추이 차종별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평균 일교통량 추이 10만명당 사망자수 / 차량1만대당 사망자수 추이
철도교통	철도노선연장/철도차량보유대수 추이 철도여객/화물 수송실적 추이
항공교통	공항별 국내선 운항회수 추이 공항별 국제선 운항회수 추이 국내선/국제선 여객수송실적 추이 국내선/국제선 화물수송실적 추이
해상교통	항만하역능력 추이 해운 여객수송실적 추이 해운 화물수송실적 추이 컨테이너화물수송실적추이

라. 미국교통통계국(BTS) 의 교통지표(Transportation Indicators)

이 지표는 미국교통통계국에서 2002년 12월까지 월별로 발표하던 교통전반에 관한 지표로 2002년 12월 자료의 경우 Safety(15개), Security(10개), Mobility(25개), Economic

Growth(64개),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6개)의 5개분야 1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교통산업과 관련한 지표 등이 포함되고 항공 관련 지표가 많은 점 등 우리나라 또는 사회지표와는 다른 지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마. 국제연합(UN)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

본 서에서는 사회지표를 다음과 같은 13개 분야로 나누어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나, 자동차보유자료 정도 외에 교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 A. Population composition and change
- B. Human settlements and housing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 C. Households and families, marital status, fertility
- D. Health and health services; impairment and disability; nutrition
- E. Learning and educational services
- F. Economic activity and population not economically active
- G. Socio-economic groups and social mobility
- H.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 I.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ervices
- J. Leisure, culture and communications
- K. Time use
- L. Public order and safety
- M. Other fields to be considered in further work

## 2. 신지표체계의 방향설정

본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의 수준측정을 위한 현황자료 제시와 국가정책의 목표를 설정에 활용 가능한 지표 제시라는 사회지표의 기본 기능을 고려하고, 기존 지표체계에서 고려한 기본취지와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신지표체계의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 지표체계 개정시 고려했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 도시과밀화 문제 등의 상황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 열풍이

불 정도로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으며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도시과밀화와 관련한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될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며 지방광역권의 인구 및 지역범위 확장과 광역권으로의 집중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집중에 따른 과밀문제와 혼잡문제 등에 대한 복지수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이라는 기존지표의 취지를 수용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 증가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평가요구 증가 등 최근의 정책·사회·경제적 관심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교통부문을 이전보다 독립된 분야로서 고려하고 기존지표체계에서 교통부문에 포함된 지표뿐만 아니라 타 부문에 포함된 교통관련 지표들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교통부문 전체를 고려한 관심영역 재설정과 개별지표의 선정 및 재분류를 수행한다.

관심영역 설정 및 개별지표 선정에 있어서는 화물통행에 비해 사람의 통행과 관련한 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항공교통과 해상교통 보다는 도로교통과 철도교통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국내통행에 관련한 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지표를 이용한 연구의 시계열 분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기존 지표는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에 의해 유사지표로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며, 새로운 지표에 대해 과거부터의 시계열 지표 도출 가능성도 고려한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 설정

신지표체계에서 교통부문의 관심영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통관련 인프라와 운영규모 등 교통의 양적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교통시설”과 통행자 및 사회적 입장에서 현재 교통의 상태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교통의 질” 두 분야의 관심영역 구분을 유지하고 세부관심 영역 및 개별지표를 조정한다.

“교통시설” 영역은 교통수단별 교통시설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시설투자”와 실제

교통에 대한 공급과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용”의 두 가지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며, “교통의 질” 영역은 개인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편의”와 교통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교통관련비용”의 두 가지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한다. 또한 기존 지표체계에서 “안전부문”에 포함된 교통안전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을 하나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교통의 질” 영역에 포함되도록 한다. 교통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환경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지표체계 대로 “환경부문”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부문에서는 관심영역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표 2-7-9〉 기존지표체계와 신지표체계의 관심영역 비교

기존지표체계		신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교통시설	교통수단	교통시설	시설투자
	교통비용		시설이용
교통의 질	교통편의	교통의 질	교통편의
	교통운행의 질		교통관련비용
			교통안전

## 2. 개별지표의 선정

### 가. 삭제된 지표

기존지표체계의 교통부문에 포함되었던 지표 중 장래개발 지표로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자료가 수집·정리되고 있지 않아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표와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 등 3개의 지표가 삭제되었다. 삭제된 지표 중 " 시내버스 혼잡률", "지하철 혼잡률"은 기존지표체계에서 장래개발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지표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차량당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필요한 경우 원자료를 이용해 쉽게 지표값을 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들 지표를 이용한 타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삭제된 개별지표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시내버스 혼잡률

기존지표체계에서 시내버스 한 대당 이용승객수로 시내버스의 혼잡률을 평가하고자 한 지표로 총시내버스이용승객수를 총시내버스대수로 나누어 구하는 산식을 제시하였으나, "2003 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내버스의 혼잡은 승객수요와 배차간격을 고려한 용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 두가지는 요일별, 시간대별, 노선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시내버스의 혼잡률을 기존에 제시된 단순한 총량기준의 산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시내버스의 혼잡률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지표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신지표체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 ② 지하철 혼잡률

시내버스 혼잡률과 같은 이유로 신지표체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③ 차량당 교통법규 위반건수

경찰 등의 단속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통계집계 당시의 교통법규변화, 단속수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자료로 객관적인 시계열 비교자료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현실에서 느끼는 교통상황은 단속에 적발된 위반사안 및 건수보다 과속, 난폭운

전, 새치기 등 적발이 어렵거나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규위반과 적발대상이 아닌 사안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고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교통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행자의 종합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항목을 삭제하였다.

#### 나. 추가 및 일부 수정된 지표

##### ① 교통기반시설규모

기존지표체계에서 도로연장 및 도로포장률로 나타내던 내용을 확장하여 교통수단별로 시설규모를 나타내고 그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공항/항만 각각에 대해 대표적인 항목을 선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교통시설인 도로에 대해서는 단순연장 외에 국가간 비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면적대비 도로연장을 나타내는 도로밀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관련된 세부항목은 도로연장(도로밀도), 철도연장, 지하철영업거리, 공항처리능력(연간운항회수, 동시계류대수), 항만처리능력(접안능력, 하역능력)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과거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다.

##### ② 교통수단보유규모

교통기반시설규모와 함께 교통시설의 공급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교통수단별 수송수단보유규모를 선정하였다. 교통수단별로 자동차등록대수, 철도차량보유대수, 항공기보유대수, 국적선선박수로 구성하였으며,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과거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다.

##### ③ 건설교통예산

교통시설전반 및 수단별 투자규모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통시설투자의 대부분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대변할 수 있는 건설교통분야 예산규모와 교통수단별 예산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건설교통예산합계(전체예산대비비율), 도로, 철도(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공항(신공항, 일반공항)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과거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다.



#### ④ 평균통행회수(통행목적별 통행회수)

교통에 대한 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통행목적별 통행회수를 선정하였다. 특정기간(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개개인의 모든 통행을 통근 및 통학, 학원, 업무, 개인용무, 쇼핑, 여가 등 통행목적별로 조사·집계하여 통행목적별 평균통행수요 나타낼 수 있다. 본 지표의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통행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 부문에 포함하여 조사하거나 사회통계조사의 한 항목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⑤ 자동차 주행속도

기존지표에 선정되었으나 이용가능한 적절한 자료가 없어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도 수록되지 않은 지표로, 현재 서울시 및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통행속도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동차 주행속도를 나타낼 대표값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수행이 계획되고 있어, 연구 완료 후 산정방법 등이 제시되면 지자체의 속도조사 자료 등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주행속도 지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⑥ 교통관련비용

신체계에서 추가한 "교통관련비용" 세부관심영역 내에 기존지표인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외에 개인통행지출 중 가장 대표적인 통근·통학 비용과, 교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적 비용인 도로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추가하였다.

통근·통학 비용은 가장 대표적인 통행인 통근·통학 통행에 대해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을 나타내며 도로교통혼잡비용은 특별·광역시 및 지역간 도로에서 도로교통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물류비용은 전체 물류비용 중 많은 부분을 수송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되어 교통관련 주요 비용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의료비용, 차량수리비용 등 직접비용과 생산손실, 교통비용 등의 간접비용을 포함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유발되는 제반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통근·통학 비용은 평균통행회수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사회통계조사 등의 한 항목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표이며, 나머지 세가지 비용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매년 추산하여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⑦ 도로교통사고

기존지표체계에서 "안전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 항목을 보다 명확한 항목명인 "도로교통사고" 항목으로 항목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기존에 제시된 내용 중 1일평균 사망자수(부상자수)를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부상자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 ⑧ 도로교통사고 원인(법규위반별 도로교통사고)

기존지표체계에서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해 보행자와 운전자 각각의 입장에서 응답한 자료를 이용해 작성하던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항목에 대해 신지표체계에서는 기존의 주관적인 지표대신 집계된 통계량인 "법규위반별 도로교통사고건수" 자료를 주요 교통사고 원인을 나타내는 지표로 제안한다. 본 항목은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과거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다.

### 3. 신지표체계의 구성

신지표체계에서는 교통부문을 "교통시설"과 "교통의 질" 2개 관심영역을 구분하고 "시설투자", "시설이용", "교통편의", "교통관련비용", "교통안전"의 5개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지표의 추가, 삭제, 재분류를 통해 25개의 개별지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관심영역 구분 및 개별지표 항목은 다음 <표 2-7-10>과 같다.

〈표 2-7-10〉 교통부문 신지표체계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개별지표	비 고
교통 시설	시설투자	교통기반시설규모	
		교통수단보유규모	
		건설교통예산	
	시설이용	교통수단별 여객수송(A)	
		평균통행회수	
교통의 질	교통편의	자가용승용차보유(A)	
		자동차 주행속도(a)	
		통근·통학 교통수단(A)	
		통근·통학 소요시간(a)	
		버스·지하철 접근성(a)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a)	기존 : 교통안전시설만족도
		장애인 통행 편의시설수(a)	
		교통문제(B)	
		교통수단별 만족도	
		자가용 이용시 교통문제	
	교통관련 비용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문제	
		통근·통학비용	
		도로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도로교통사고비용	
	교통안전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A)	
		교통수단별사고(B)	
		도로교통사고(B)	
		도로교통사고 원인(B)	
		고속도로교통사고	

주: A : 1995년 사회지표 연구에서 선정되었거나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지표

a : 1995년 사회지표 연구에서 선정되었고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되지 않은 지표

B :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 중 주거와 교통 이외의 분야에 수록된 지표

## 제 4 절 결 론

본 연구는 1995년 개정된 사회지표체계 중 “교통부문”을 검토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5년 지표체계의 기본방향과 지표구성에 대한 검토, “2003 한국의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한 관련연구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관심영역 설정 및 개별지표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신지표체계를 제안하였다.

1995년의 지표체계에서 “주거와 교통부문”에 포함된 “교통부문”은 “교통시설”과 “교통의 질”의 2개 관심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다시 “교통수단”, “교통비용”, “교통편의”, “교통운행의 질”의 4개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뉘어 16개 개별지표(장래개발 포함)가 제시되었다. 신지표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은 기존체계의 구분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세부관심영역은 “시설투자”, “시설이용”, “교통편의”, “교통관련비용”, “교통안전”의 5개 분야로 조정 제시하였다. 개별지표에 있어서도 많은 조정이 있었으나, 기존지표를 이용한 연구의 시계열 분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삭제되는 지표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세부관심영역별 개별지표 검토를 통해 25개의 개별지표를 최종 선정·제시하였다.

본 신지표체계에서 삭제된 지표 또는 검토대상이었으나 최종지표에서 제외된 항목 중 일부는 그 중요도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당지표와 관련한 적절한 자료의 구득이 어렵거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향후 산정이 가능해지는 지표들과 본 지표체계에서 간과한 지표들의 추가 및 조정이 신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나은 지표체제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제8장 정보와 통신

### 제1절 서론

정보통신 발전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기술의 확산은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소비는 물론 고용, 문화생활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이어 전자생활 (e-life), 전자정부 (e-government) 등 "전자(e)"라는 접두사가 쓰인 새로운 용어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빠른 확산에 기초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문자, 음성, 화상은 물론 동화상 등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하였고 반도체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처리와 저장을 자유롭게 하였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에 이어 이제는 TV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네트워크 기술도 전화선에서 이제는 위성, 케이블 TV, 그리고 전기선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으로 사람들은 대규모의 정보를 공간과 비용의 제약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발전이 경제는 물론 사회, 정치, 문화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닷컴 (dot.com) 거품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이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생산, 확산 및 활용은 한 국가뿐 아니라 국가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신경계, 인터넷경제, 디지털 경제, 지식기반경제 등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나 지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OECD를 중심으로 많은 국제기구에서 정보통신 관련 통계 정의, 도출 방법론 등 정보통신의 증가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간에 비교 가능한, 포괄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 관련 지표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고 새로운 지

표체계 방향과 그에 따른 개별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 설정

### 1. 국외연구의 검토

#### 1)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3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3은 OECD국가들의 통신 부문 현황 및 정책 기조에 관한 최신 비교 자료들을 담고 있다. OECD의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ICCP) Committee와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Policy (TISP) 연구반에서 제공되는 Communications Outlook은 OECD 전역에 걸친 여러 통신 네트워크 발전의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하며 통신서비스 정책의 최신 동향,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과 광대역 인프라, 요금, 서비스의 품질, 고용과 생산성, 통신서비스 장비 교역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표 2-8-1〉 Communication Outlook 2003 목차

장	주요 내용
최근 통신서비스 정책 발전 (Recent Communication Policy Developments)	경쟁 환경, 외국인 소유,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사전선택제, 가입자망 공동활용, 케이블TV 성장, 가구당 통신비 지출 등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Telecommunication Market Size)	이동통신 서비스, 국가간 통신서비스, 회선임대, 연구개발투자 등
통신 네트워크 (Network Dimension and Development)	이동통신 보급, 디지털화, 투자 등
인터넷 및 광대역 인프라 (Internet and Broadband Infrastructure)	인터넷 가입자수, 광대역 서비스 보급, 인터넷 호스트, 웹사이트, 보안 서버, 전자상거래 보급, 웹호스팅, 도메인 이름 등
요금 (Main Trends in Pricing)	다이얼업 인터넷 접속요금, DSL 요금, 가정 및 기업 통신서비스 요금, 국제전화요금,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회선임대 요금, 가입자망 공동 활용 비용
서비스 품질 (Quality of Service)	전화설치 대기기간, 공중전화 보급, 네트워크 장애, 안내 서비스, 전화 성공률 등
고용 및 생산성 (Employment and Productivity)	고용, 생산성, 통신서비스의 직종 및 기능 변화
통신서비스 장비 교역 (Trade in 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서비스 장비 수출입, 상품수지 등

## 2)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 2002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 2002는 OECD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WPIIS)가 국가별 정보통신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지표를 제공하며, (i) 소비, 투자, 정보통신 특허, 정보통신 관련 직종 등 정보경제의 원천에 대한 분석, (ii) 정보통신 분야가 성장, 연구개발투자, 고용, 수출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iii) 정보통신이 가정, 기업에서 사용되는 정도를 분석, (iv) 전자상거래에 대한 분석, (v) 정보통신이 교육과 정부 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표 2-8-2〉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 2003 목차

장	주요 내용
정보경제의 원천 (Resources for the Information Economy)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 정보통신 재화 및 서비스 소비, 투자, 정보통신 특허, 정보경제에서 직종 및 기능
정보통신 부문 (ICT Sector)	정보통신 부문의 생산 및 성장률, 정보통신 부문의 고용 기여도, 정보통신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정보통신 부문의 수출 및 기여도, 정보통신 부문의 수출 특화도 및 비교 우위, 정보통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정보기술의 보급 및 활용 (Access to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인프라 및 가입자수, 가정 및 기업의 인터넷 가입과 활용, 산업별, 기업규모별 인터넷 가입과 활용, 기업의 인터넷 가입과 활용 저해요인, 인터넷 가입과 활용 요급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인프라, 전자상거래 규모, 소비자 유형별 전자상거래 특성, 전자상거래 촉진/장애요인
교육과 정부 부문의 정보통신 보급 (ICT in Education and Government)	교육기관의 정보통신 보급, 정부 부문의 정보통신 보급

## 3)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3-2004, WEF (World Economic Forum)

WEF는 INSEAD, World Bank (*infodev*)와 협조하여 각 국가의 IT보급 및 활용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는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i) IT보급과 활용을 지원하는 시장 환경, 법제도 환경,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 등 환경 요인 (*environment*), (ii)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이 I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준비도 요인 (*readiness*), (iii)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이 IT를 실제 활용하는 정도 (*usage*) 등 3가지 항목을 측정하여 The Networked Readiness Index (NRI)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04년 한국 NRI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부부문의 정보화는 상위 수준이었으나 개인과 기업의 낮은 정보화 수준으로 인해 102개 국가에서 20위를 기록하였다.



〈표 2-8-3〉 The Networked Readiness Index 구성

	세부항목	주요 내용
환경 (environment)	시장 환경	인적자본, 지식기반산업 등
	법제도 환경	법제도, 규제, 정책 등
	인프라 환경	IT활용을 위한 인프라의 접근성, 인프라의 품질 등
준비도 (Readiness)	개인 준비도	문맹률, 인터넷 접근방식 등
	기업 준비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IT활용 의지 등
	정부 준비도	정부서비스의 온라인화, 정부의 정보화 비전 등
활용 (usage)	개인 활용	전화, 인터넷 활용정도, 인터넷 활용수준,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 등
	기업 활용	B2B, B2C전자상거래 규모, 마케팅 등 기업활동에서의 IT활용 등
	정부 활용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활용한 상거래 규모 등

#### 4) The 2004 e-Readiness rankings,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부설 전문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지난 2000년부터 IBM과 공동으로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e-business 환경을 측정하고 있다. 100여개 가까운 정량적, 정성적 질문을 '인터넷 접근성 및 기술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소비와 비즈니스 전반의 e-비즈니스 활용도', '정책 및 법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e-서비스 지원' 등 6개 분야를 총괄하여 'e-비즈니스 준비도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인터넷 접근성 및 기술 인프라', '소비와 비즈니스 전반의 e-비즈니스 활용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비즈니스 환경', '정책 및 법적 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적인 e-readiness ranking이 64개국 가운데 14위를 기록하여 2003년의 16위보다 2단계 상승하였다. 그 외 해외 각 기관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e-Readiness 분석 모델 및 측정 지표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표 2-8-4〉 EIU e-Readiness index 구성

항목	가중치	주요 내용
인터넷 접근성 및 기술 인프라 (connectivity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25%	유무선통신보급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PC보급률, 통신서비스산업 경쟁도, 인터넷접속품질, 통신인프라 보안성 등
비즈니스 환경 (business environment)	20%	정치안정성, 규제환경, 조세, 경쟁정책, 노동시장, 인프라수준,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등
소비와 비즈니스 전반의 e-비즈니스 활용도 (consumer and business adoption)	20%	GDP대비 IT투자, e-비즈니스 발전단계, 전자상거래 수준, 물류품질, 투자재원조달 환경 등
정책 및 법적환경 (legal and policy environment)	15%	사유재산보호, 디지털시대에 대한 정부비전,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 인터넷 관련법, 검열수준, 창업관련제도 등
사회문화적 환경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15%	교육수준, 문맹률, 인터넷문맹률, 기업가정신, 노동자들의 기술력 등
e-서비스 지원 (supporting e-service)	5%	e-비즈니스 컨설팅 및 기술지원서비스, 사업서비스지원, 플랫폼산업표준 및 프로그래머 등

## 2. 국내연구의 검토

### 1)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활용이 확대되면서 지식이나 정보가 소득분배 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디지털격차 현상을 설명하는 기초통계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여 통계청은 2001년부터 매년 정보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전국 30,000여개의 표본가구의 만 6세 이상 80,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보유 현황,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여부, 인터넷 상거래 현황, 희망하는 정부 정보화 정책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는 연령·소득·지역 등 각 계층별 정보 접근 기회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정보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2-8-5〉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세부항목
컴퓨터	컴퓨터 보유율,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 여부, 컴퓨터 사용 부문, 컴퓨터 사용 시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향후 6개월 이내 컴퓨터 구입 계획
인터넷	인터넷 이용,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이용 의사, 인터넷 이용 부문,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 이용 장소별 사용 시간, 인터넷 접속 방식, 전화 모뎀 월평균 지출비용, 초고속인터넷서비스회선 월평균 지출비용
인터넷상거래	인터넷상거래 이용여부, 인터넷상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 인터넷상거래 물품, 인터넷상거래 횟수, 인터넷상거래 금액, 인터넷상거래 금액, 인터넷상거래 결제방법
통신기기	전화보유율, 전화 월평균 지출비용, 이동전화 보유율, 이동전화 월평균 지출비용
정보화 수요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정부 정보화 지원 수혜 여부, 지원 후 활용 여부, 향후 정보화 희망부문, 정보의 입수경로, 정보화 자격증 소지 여부

## 2) 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NCA)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국가 정보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정보화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정보화 추진의 주요 성과와 함께 정보화가 국가사회에 미친 파급효과 등을 부문별로 종합 정리하여 우리 사회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2-8-6〉 정보화백서 통계 구성

	세부 항목
컴퓨터 보급	PC보급 현황, PC 유형별 보급 현황, 범용컴퓨터 보급 현황
IT산업	정보통신기기 품목별 내수 및 수출입 현황, 정보기기 산업의 수출입 현황, 세계 반도체시장에서의 국내 반도체 시장 규모,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의 국내 메모리 시장 규모, 연도별 정보통신 산업 생산 규모
S/W	세계 S/W 산업대비 국내 S/W 산업 시장 규모, SI 사업부문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분포, SI 사업부문 기술인력 보유 규모별 사업자 분포, 연도별 프로그램 등록 실적, 업종별 S/W 불법복제 단속 건수, S/W 제품 분야별 불법복제 수량, 연도별 S/W 불법복제 단속 건수와 복제율
정보통신 서비스	시내전화 가입자 수, 시외전화 사전선택 가입자 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이동통신 사업자별 가입자 수, 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 CDMA 2000-1x 가입자 현황
인터넷	인터넷 이용자 수, 호스트 수, 도메인 수, 주요국 인터넷 이용자 수,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인터넷 이용자 수, ISP 현황,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 인터넷 접속 방법, 가구 인터넷 용도, 인터넷PC방 현황,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 수 증가 추이
정보통신 인력 현황	정보통신산업 고용
정보화 역기능	바이러스 증가 현황, 바이러스 종류별 발생 현황, 월별 바이러스 피해접수 현황, 해킹 피해 현황, 기관별 해킹 피해 건수, 스팸메일 신고, 상담 월별 접수 현황, 연도별 스팸메일 수신량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업종별 구매자 중심형 전자상거래액, 사이버쇼핑몰의 매출규모,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예측, 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 현황
디지털 방송	디지털TV 생산액 현황, 컬러TV와 디지털TV 생산 예측, 인터넷 방송국 수 증가 추이 및 예측
IT벤처	업종별 IT벤처 현황, 지역별 IT벤처 현황, 유형별 IT벤처 현황, 매출규모별 유형별 IT벤처 업체 분포

### 3) 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는 전국 7,685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6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실시되어 온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를 2003년부터는 “정보화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내용도 확대하여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수, 컴퓨터 이용률과 이용자수, 정보화 환경,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행태, 인터넷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비이용자 조사를 통한 향후 인터넷 이용 전망 등 국내 정보화 현황 전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본 조사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 및 이용 확산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수립과 업계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3)</sup>

---

13)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4)

〈표 2-8-7〉 정보화실태조사 목차

장	주요 내용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지역·지역규모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컴퓨터이용률 및 이용자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지역·지역규모별 컴퓨터이용률 및 이용자수
정보화 환경	가구 인터넷 환경,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이용장소, 접속방법), 인터넷 이용비용(가구당 월평균 인터넷 이용비용, 개인지출 인터넷 이용비용)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행태	컴퓨터 이용행태(컴퓨터 이용시간, 이용목적, 이용능력), 인터넷 이용행태(인터넷 이용계기,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목적, 이용시 불편한 점)
생활 속의 인터넷	인터넷 이용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인터넷 이용에 따른 정보입수 경로 비교, TV 시청시간 비교, 종이신문 읽는 시간 비교, 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의견), 이메일 이용 현황(이메일 보유현황, 보유개수), 인터넷쇼핑 이용현황(인터넷쇼핑 이용경험, 구매회수, 구매품목, 구매금액, 만족도, 향후 인터넷쇼핑 이용의향), 유료콘텐츠 이용현황(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비용, 결제방법, 주로 이용하는 유료콘텐츠 종류, 유료콘텐츠에 대한 의견, 향후 유료 콘텐츠 이용의향)
인터넷 비이용자	인터넷 비이용 이유, 인터넷 이용전망(향후 인터넷 이용의향, 향후 인터넷 이용 예상시기)

#### 4) 신지표체계의 방향설정

90년대 들어 정보통신 발전과 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디지털 경제,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E-economy 등 신경제와 유사한 뜻을 갖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OECD(1996)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의 창출, 파급 및 활용과 관련된 경제<sup>14)</sup>로 정의한다. 교역자유화, 투자자유화, IT발전 등에 따른 지식의 국가간 이전은 지식기반경제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하는 소비자, 기업, 정부의 모습으로 정의되고 있다. 98년 이후 매년 발행하고 있는 미상무성의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The Emerging Digital Economy)” 보고서 시리즈에서도 IT산업과 관련된 성장, 생산성, 물가, 고용 등의 현상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Choi and Whinston(2000)은 인터넷 경제를 인터넷이나 World Wide Web

14) Economies which are directly based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등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화 되는 새로운 경제(smart economy)로 정의하고 있다. Cohen et al(2000)은 IT발전과 파급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경제를 E-conomy로 정의<sup>15)</sup>하고 있다.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보급은 이전과 다른 모습의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모습을 정량화 해 주는 지표의 방향을 (i) 정보통신산업과 (ii)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인프라와 (iii) 인프라의 활용, 즉 정보화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 1) 정보통신산업

주요 선진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부상한 정보통신산업은 성장의 동인으로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업·산업·시장의 구조조정과 결합되어 '신경제'의 주도 산업으로 역할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는 성장과 노동생산성 증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집약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은 연구개발투자는 물론 특허권 등 혁신 부문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다른 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내 변화를 가져온다. 산업구조를 지식집약 구조로 전환시키고, 또한 고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고용구조로 변화를 가져온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도 IT산업은 국제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이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sup>16)</sup>

국내 정보통신산업도 1960년대 섬유, 합판 등 저숙련·노동집약적 경공업, 1970년대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1980년대에는 가전, 조선, 자동차 등 조립가공 산업에 이어 1990년대의 성장엔진으로 성장하였고,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국내

15) Economic transformation driven by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modern electronic-based information technology

16) 1990년대 OECD국가들의 IT산업 교역은 연 24% 증가하여 전체 교역 성장률 7.6%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IT산업의 국가간(cross-border) M&A는 1990년 270억불에서 2000년 2,450억불로 증가하여 총 국제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000년)에 달하였다.

IT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전체 GDP 성장률을 3~4배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40%를 넘는 높은 성장기여도를 실현하였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7.7%에서 2003년(3/4분기 기준) 17.9%로 증가하였다. 특히 반도체, 휴대전화, LCD, PC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은 2003년 574억불을 기록하여 전체 수출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중심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 2)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망을 통해 전화가 가능해 지고, 인터넷을 통해 TV시청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되는 차세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파급효과는 먼저 M-Gov, T-Gov 등 전자정부가 구현되고, 산업분야에서도 건설, 금융, 의료, 유통 등 전 분야의 정보화가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이 일하는 e-Work,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e-learning, 원격검진과 처치 등 고품질 의료 서비스인 e-Health 등이 확산되는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유·무선, 통신·방송 등이 융합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데이터와 소리, 영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2010년까지 2천만 유무선가입자에게 50-100Mbps급의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통합망 구축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 3) 정보화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세계 각 국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과정을 연구하고 벤치마크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러한 잘 갖추어진 기반의 활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새로운 정보화에 앞서 나가려는 의지 표명과



더불어 인터넷 중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996년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9년에 "Cyber Korea 21", 2002년에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sup>17)</sup>

환경의 고도화와 함께 생활의 편리함도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스팸메일, 유해정보,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 문제이다. 해킹,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2. 개별지표의 선정

### 1) 삭제된 지표

2003년 지표 가운데 '패키지소프트웨어 생산액과 '정보통신서비스 인력 비중은 범위를 정보통신산업 전체로 확대하였다. '전기통신 특허수는 전기통신의 범위가 정보통신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삭제하였다. 또한 '컴퓨터 사용 능력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이용 의향은 국내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이 성숙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판매관리전산시스템 도입 점포수 및 단말기대수와 금융기관의 주전산기 및 단말기대수는 정보화의 인프라 성격을 가지는 지표로 대체하였다.

---

17) 정보통신부 (2003) 참고

〈표 2-8-8〉 정보와 통신 지표 (2003년)

정보화기 반조성	연구개발활동	8-1. 정보통신연구개발비	
		8-2. 패키지 소프트웨어 생산액	삭제
		8-3. 전기통신 특허수	삭제
		8-4. 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정보관련 인력	정보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8-6. 정보통신서비스 인력 비중	삭제
정보화정 도	PC보급 및 이용	8-5.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	
		8-7. 컴퓨터 사용 능력	삭제
		8-8. 컴퓨터 이용시간(주평균)	
		8-9. 컴퓨터 이용목적	
	통신서비스 이용	8-10. 전화보급률	
		8-11. 이동통신, PC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8-12. 인터넷 호스트수 및 도메인수	
		8-13. 인터넷 이용목적	
		8-14.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이용 의향	삭제
		8-15. 최근 6개월내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회수	
		8-16. 인터넷쇼핑 구매품목	
	8-17. 최근 6개월내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		
	방송서비스 이용	8-18. 케이블TV 가입가구	
전산망 확충	8-19. 판매관리전산시스템 도입 점포수 및 단말기대수	삭제	
	8-20. 금융기관의 주전산기 및 단말기대수	삭제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화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인식	8-21. 필요정보 입수경로	
		8-22. 정보화의 영향	

## 2) 추가된 지표 (신규지표)

## 가) 정보통신산업 생산, 수출입, 종사자수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 이래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고성장을 실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은 통신 및 방송서비스와 정보기기, 통신

방송기기, 정보통신부품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구성된다. 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03년 205조원을 기록하였고, 국민경제 성장의 30%를 넘는 기여를 하였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은 수출 증대를 통하여 성장하였다. 반도체, 이동전화단말기, TFT-LCD, PC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은 2003년 57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는 2003년 말 현재 약 58만 4천명으로 2002년도 49만 6천명에 비해 18.0% 증가하였다. 산업별 종사자수는 하드웨어 부문이 34만명으로 가장 많고, 소프트웨어 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각각 13만 1천명, 11만 4천명이었다.

#### 나) 인터넷 이용자수, 인터넷 접속방식, 위성방송 가입자수

전국 144개 주요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0년 12월에 구축 완료하여, 읍·면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고, 세계 최초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2004년 6월말 현재 3,067만명 (인구대비 68.6%)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162만 가구 (보급률 79%)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실현하였다.

2003년 12월 말 현재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방법은 ADSL이나 VDSL 등 DSL 방식이 83.5%로 가장 많고, 케이블모뎀 방식이 12.4%로 두 가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무료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 5월부터 유료서비스를 개시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2004년 4월말 현재 전체 가입대상가구 대비 7%인 120만 가구를 확보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개국 3차 년도에 3%를 점유한 것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sup>18)</sup> 위성방송은 케이블TV와 같이 대표적인 다채널 방송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전자상거래 규모, 인터넷상거래 지출액

전자상거래란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즉, 거래의 여러 과정 중에서 입찰/계약/주문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sup>19)</sup> 전자상거래는 거래주

18) 케이블TV, 2004. 4 참고

체에 따라 기업-소비자간 (B2C), 기업간 (B2B), 기업-정부간(B2G) 거래 등으로 분류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인터넷 이용 인구와 무한 경쟁 시장에서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e-비즈니스 필요성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가격의 저렴성, 거래비용의 절감, 상품정보의 풍부함 그리고 품목의 다양성에 기인하여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조사하는 전자상거래기업체조사(B2B 거래),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통계조사(B2G 거래)와 매월 조사하는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B2C 거래 등)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있다.<sup>20)</sup>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235조 2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7조 2,150억 원 (3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 휴대전화 이용목적

유·무선, 통신·방송 등이 융합되고 데이터와 소리, 영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 (BcN)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기, TV를 중심으로 하는 오락기기, 그리고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신기기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통신기능 이외에도 카메라, MP3, 오락기, 방송수신, 인터넷접속을 통해 게임, 정보검색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마)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통신비의 규모와 비중은 2003년 3분기 현재 각각 132,848원, 6.9%로 10년 전인 1993년 3분기의 18,518원, 1.8%와 비교해 볼 때 금액상으로 7.2배, 비율 상으로 3.8배나 증가했다. IMF로 인해 월 가계지출이 11.6% 줄어든 1998년에도 통신비 지출은 17.2%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이동통신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99년에는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29.7%나 늘어났으며, 이동통신과 더불어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에는 통신비 지출이 32.6% 증가

19) 통계청 참고

20) 국내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공기업, e-마켓플레이스 및 기타 전자상거래 유력 업체 등 2,5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 가구 당 지출액 중 4.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통신비 지출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통신비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각국과 비교하더라도 최고 수준에 있다. OECD와 각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 비중은 2000년에 4.7%로 일본의 1.7%, 미국 2.1%, 영국 2.2%, 독일 2.3%, 프랑스 2.2% 등 선진국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1)</sup>

#### 바)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은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면 등록 고객 수는 2002년 말 1,771만명에서 2004년 6월 말 현재 2,436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고객수는 2,322만명으로 2004년 3월말에 비해 6.3%, 기업고객수는 114만개사로 2004년 3월말에 비해 7.4% 증가하였다. 2004년 2/4분기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871만건으로 전분기에 비해 8.6% 증가하였다. 전체 금융서비스 업무처리에서 인터넷뱅킹의 비중은 2004년 6월말 현재 2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사) 정보화 역기능: 정보화 격차, 해킹, 바이러스, 스팸메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연령·학력·소득·지역간 인터넷 이용률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정보문화원이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을 집계한 결과, 2000년 12월 44.7%에서 2004년 6월에는 68.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가 등장하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는 제약요인이 되어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해마다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 환경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 및 개인·기업·공공기관의 정보보화 활동이 미흡하여 정보보호 수준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전자메일 이용이 급증하면서 스팸메일 유통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스팸메일은 인터넷 체증 가중 및 통신속도 저하 등 유·무형의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한

21) 이영수(2004) 참고

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2003년에 해킹과 바이러스는 2002년에 비해 72%와 120% 증가한 2만 6,179건과 3만 8,677건이 각각 발생하였다. 또한 2004년 5월 기준 1일평균 스팸메일 수신건수는 26.7건이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3. 신지표체계의 구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표체계를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프라의 활용, 즉 정보화로 구성하였다. 기술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와 고성장의 수출, 생산 및 고용 등을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PC, 통신 및 방송서비스, 인터넷 보급을 설명하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정보화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뱅킹,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였다.

〈표 2-8-9〉 정보와 통신 신지표체계(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활동	정보통신연구개발비	
		정보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신규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신규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	신규
정보화 기반	PC보급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	
	통신서비스 이용	전화보급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방송서비스 이용	케이블TV 가입가구	
		위성방송 가입가구	신규
	인터넷보급 및 이용	인터넷 이용자수	신규
		인터넷 호스트 및 도메인 수	
인터넷 접속방식		신규	
정보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규모	신규
		최근 6개월내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회수	
		인터넷쇼핑 구매품목	
		인터넷상거래 지출액	신규
		최근 6개월내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현황	컴퓨터 이용시간	
		컴퓨터 이용목적	
		휴대전화 이용목적	신규
	인터넷 이용목적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수	신규
	통신비 지출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	신규
	정보입수경로	필요정보 입수경로	
	정보화실태와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보화의 영향	
정보화 역기능	정보화 격차	신규	
	해킹,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	신규	

주: \*표는 신규지표

## 제4절 결론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의 발달로 시작된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구조와 경제 사회활동의 형태 및 개인과 집단의 생활양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이 국가경쟁력의 주요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활용은 지식정보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정보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대다수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의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정보통신 기술과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관계 그리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형태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발전이 경제활동은 물론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문화 그리고 사회구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통신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정량화된 지표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발전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를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인프라, 정보화 등으로 분류하고 정량화된 지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영향의 범위가 넓어 관련 통계 확보의 어려움과 향후 정량화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 방송위원회, 200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각년도
- 이영수, 신규 통신서비스 수요 촉발 어렵다, LG주간경제, 2004.2.4
-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 전략, 2003. 4
- 통계청, 정보화실태조사, 각년도
-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분기별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각년도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반기별, 2204
- Choi, Soon-Yong and Andrew B. Winston, The Internet Economy: Technology and Practice, SmartEcon Publishing, 2000
- Cohen, Stephen S., J. Bradford DeLong, John Zysman/, "Tools for Thought: What is New and Important About the "E-economy," BRIE Working Paper, no. 138, 2000
- EIU, The 2004 e-Readiness Rankings, 2004
-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1996
- OECD, Measuring the Information Economy 2003
- ITU, Yearbook of Statistics
-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Digital Economy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3-2004

## 제9장 환경

### 제1절 서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 선진화는 자국의 환경수준을 높이려는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된 정책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상태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환경지표 체계화와 종합정보화가 시급한 상황이다.<sup>22)</sup>

이미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지표를 인간생활과 환경과의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환경과 경제 정책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 환경통계의 작성이 미흡하고 환경지표의 활용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환경문제는 상호 연계성을 띄고 있으며 환경통계 역시 일정한 원리나 체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통계의 실정은 오염매체별 작성 수준에 머물고 있어 환경친화적 정책 수립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통계는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환경상태에 관한 통계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상태에 관한 통계뿐만 아니라 환경상태의 악화를 초래하는 인간활동이나 자연재난, 환경악화에 대응하는 활동에 대한 통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환경통계는 생물·물리적 자료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회·인구·경제통계들도 포함하므로 여러 학문분야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 통계 특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의 특징은 자연영역

22) 지표(indicators)는 통계(statistics)와 자료(data)로 바탕으로 선정되고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지표의 경우 통계 자체가 바로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통계·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다.

의 자료를 사회, 경제적 영역의 자료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 사회, 환경, 경제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도 사회통계, 환경통계, 경제통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관련된 사회·경제통계는 환경과 유관한 통계를 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는 환경통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넓은 의미의 환경통계는 생물·물리적 자료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회·경제통계들도 포함하므로 여러 학문분야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어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통계는 넓은 의미의 환경통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환경통계의 범위는 광의의 환경통계, 즉 환경상태에 관한 통계뿐만 아니라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인간활동, 자연재해, 환경변화의 대응조치, 환경관련 배후 자연자산 스톡 등 환경상태 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인구,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를 망라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통계 작성목적은 좁은 의미의 환경통계 차원에서 주로 환경질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환경통계연감을 비롯한 각종 환경통계 간행물들의 내용이 환경상태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통계의 작성목적은 환경질 파악을 통해서 환경질을 개선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작성의 목적을 환경질의 파악에 치중하게 되면 그만큼 통계의 작성대상 범위나 활용용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통계가 모든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요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데이터와의 병용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통계의 문제점을 기존의 데이터 수집, 처리, 적용 방법들을 활용해 극복하는 새로운 통계적 접근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연계시켜 볼 때, 환경통계의 주된 활용용도는 환경상태의 측정과 같이 제한된 용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각종 환경문제의 인식과 문제해결,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의 수단, 환경정책의 목표설정과 그 성과비교를 위한 수단 등 그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는 여러 관련분야와 자료원에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합된 사회·경제 프로그램과 환경정책을 형성

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의 범위는 자연자원, 매체, 이들 매체내에 있는 생물, 그리고 인간주거를 포함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내에서 자연자원의 질과 이용,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간활동과 자연적 사건, 인간활동과 사건의 환경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반응 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환경부문에 대한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 설정

### 1.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지표(indicators)란 단어의 어원은 지적·측정·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indicare*에서 찾을 수 있다. 지표는 어떤 현상이나, 그 변화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체의 값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또는 요약된 정보를 의미한다. 즉 지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속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표는 자료(data)나 통계(statistics)와 구별된다.

지표는 현상에 대한 정보가 쉽게 전달되도록 복잡한 현상을 계량화하고 단순화 시킨 것으로서 단순화, 계량화,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표는 상세한 자료와 정보의 해석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지표는 정책결정자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적 적합성, 정책적 관심사항과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최종지표의 수가 한정되어야 한다. 즉, 지표는 사용자 중심성, 정책적합성, 집합성(*high-aggregated*)을 요건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지만, 일반적인 지표는 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분야에 있어 GDP나 실업률 같은 지표들은 경제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지표의 활용은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어서, 문맹률이나 인구대비 의사수 같은 지표들은 국가의 발전계획 수립

에 있어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접근이어서, 아직까지는 경제분야나 사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일반적인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나 경제동향 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속가능성 여부를 적절히 나타내주지 못한다. 또한 각기 다른 부문간(사회, 환경, 경제 등)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방법도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 및 발전의 통합시스템이 지속가능하도록 스스로 통제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모든 수준에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개발하도록 장려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환경부, 200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일명 Earth Summit 지구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세부실천계획으로 각국의 정책지침인 '의제 21 (Agenda 21)'을 채택한 이후 국제기구 및 각 국가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가 구성요소의 중심축인 사회, 환경, 경제 그리고 제도 요소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일부를 개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관련 분야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sup>23)</sup>

## 가. 국제기구 SDIs 개발 현황

### (1) UNCSO

UNCSO(United Nations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가입국의 환경성공과를 평가하고, 정부정책 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6년 지속가능발전지

2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범위는 사회, 환경, 경제 등과 같이 분야별로 분류할 수 있으나 어떤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넓게 통합되어 있어 분야별 지표수에서 정확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표에 대한 기본체계를 발표하였다. UNCSO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네 가지 영역에서 132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시하였다. 이 지표체계에서는 중요도, 과제, 정책목표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여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CSO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의제 21'의 주요 분야를 포괄하는 초안적 성격의 방법론서라고 할 수 있다. UNCSO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DSR(Driving force - State - Response)구조를 채택하였는데, 이 중 추진력(Driving force)은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고, 상태(State)는 환경의 상태로 환경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반응(Response)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등을 의미한다.<sup>24)</sup>

UNCSO는 1996년 SDIs에 대한 기본체제를 발표한 이후, 일부 시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표들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총 22개 국가가 참여한 이러한 실험적 연구(pilot study)를 통하여 2001년 각 회원국에 적용하기 적합한 핵심(core)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2001년에 제시한 핵심지표(core indicator)는 기존의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분류를 그대로 따르면서 세부 분류로 들어가 총 15개 영역(Theme)과 총 38개 항목(Sub-theme)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의제 21'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UNCSO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는 특히 EU 및 OECD의 지표체계와도 비교 가능하도록 선정되어 있다. <표 2-9-1>에서는 UNCSO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영역과 항목을 제시하였다.

24)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연구에서 UNCSO의 DSR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그 밖의 세계 여러 나라와 기관에서도 최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의 기본틀로서 DSR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통계국(Eurostat)은 UNCSO 지표체계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제도 4부문에 걸친 46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9-1>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2001년)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형평성	빈곤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실업률
	건강	남여평등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영양상태	유소년 영양 상태
		사망률	영아 사망률
		공중위생	출생시 기대여명
		식수	하수처리 함유 인구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건강관리	주요한 보건시설 접근 인구
	교육	교육수준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비문맹	피임 보급율
	주택	생활환경	중등학교 순출입율
	안전	범죄	성인 비문맹율
1인당 바닥 면적			
인구	인구변화	1000인당 신고된 범죄 수	
		인구 성장률	
환경	대기	기후변화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인구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물질의 소비
	토지	농업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적인 경작지
			비료 사용
			농약 사용
			토지지역 중 산림지역 비율
	해양/연안	연안지역	목재 벌채 정도
			사막화 영향을 받는 토지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면적
	담수	수질	연안 해조류 농도
			해안지역 총 인구 비율
			주요 종의 연안 수확 사용 변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안 취수량
			BOD
			담수내 대장균 밀도
	총	종	주요 보호 지역
전체 대비 보호구역 비율			
			주요 다양한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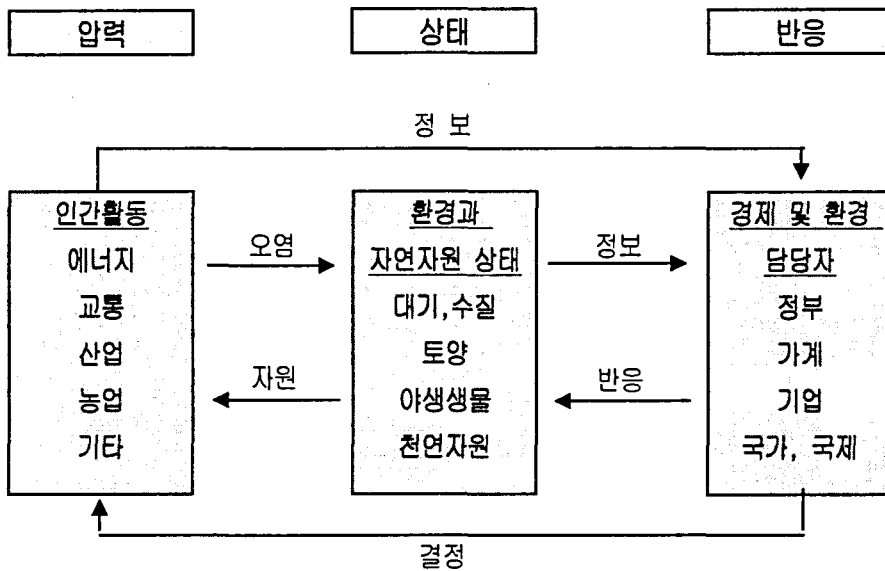
분야	영역	항목	지표	
환경	대기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대기질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토지	농업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적인 경작지
				비료 사용 농약 사용
		산림	토지지역 중 산림지역 비율	
		사막화	목재 벌채 정도	
		도시화	사막화 영향을 받는 토지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면적	
	해양/연안	연안지역	연안 해조류 농도	
		어업	해안지역 총 인구 비율 주요 종의 연안 수확 사용 변화	
	담수	수량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수질	BOD 담수내 대장균 밀도	
	생물 다양성	생태계	주요 보호 지역 전체 대비 보호구역 비율	
		종	주요 다양한 종	
	경제	경제 구조	경제이행	1인당 GDP GDP의 투자분
무역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균형	
재정상태			부채/GNP GNP대비 총 ODA	
소비/생산		물질소비	원료이용도	
		에너지사용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에너지이용도
		폐기물관리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 유해 폐기물 발생량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운송		1인당 수송모드에 의한 승차거리		
제도		제도 형태	지속가능성 실현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국제협력		인준된 국제적 합의 사항의 수행	
	제도 용량	정보접근	1000인당 인터넷 계정 및 라디오 수	
		정보인프라	1000인당 주전화선 수	
		과학과 기술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재해준비와 반응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경제적 손실			

## (2) OECD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환경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통합하고, 경제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UNCSO의 DSR모형과 유



사한 PSR(Pressure - State - Response)모형을 기본틀로 하여 제시하였다. PSR구조는 압력·상태·반응의 지표체계로 OECD의 기본적 지표체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국가와 관련기관에서 PSR 구조를 기본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자료 : OECD,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al Indicators*. 1998.

[그림 2-9-1] OECD 압력-상태-반응 모형

OECD는 <표 2-9-2>에서와 같이 환경지표와 사회경제지표로 대별하여 환경지표 9개 분야, 18개 지표 그리고 사회경제지표 6개 분야, 15개 지표 등 총 33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9-2〉 OE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구분		지표
	이슈 (issues)		
환경 지표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CO2 배출 수준
			온실가스 밀도
	오존층 파괴 (Ozone Layer Depletion)		오존층 파괴물질
			성층권 오존
	대기질 (Air Quality)		대기배출물 수준
			도시 대기질
	폐기물 (Waste)		폐기물 발생
			폐기물 재활용
	수질 (Water Quality)		강의 수질
			폐수 처리
	수자원 (Water Resources)		수자원 이용수준
		수도 공급 및 공급가격	
산림자원 (Forest Resources)		산림자원 이용수준	
		산림 및 임야지	
수산자원 (Fish Resources)		수산 어획 및 소비 : 국가	
		수산 어획 및 소비 : 세계 및 지역	
종(種) 다양성 (Biodiversity)		위협받는 종	
		보호 지역	
사회·경제 지표	GDP 및 인구 (GDP and Population)		GDP
			인구성장 및 인구밀도
	소비 (Consumption)		개인 소비
			정부 소비
	에너지 (Energy)		에너지 수준
			에너지 공급 구조 및 변화
			에너지 가격
	교통 (Transport)		도로 교통 및 자동차 보유수준
			도로 밀도
			연료 가격 및 세금
	농업 (Agriculture)		절소 및 인 비료의 사용수준
			가축 밀도
			농약 사용수준
지출 (Expenditure)		오염 저감 및 통제(PAC) 비용	
		공식적 발전 지원(ODA)	

### (3) EU

EU는 1996년에 발표된 UNCSO의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을 유럽 연합에 적용시키기 위한 시범 연구로 1997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는 UNCSO의 132개의 지표 목록을 기초로 Eurostat에 의해 수행되었고, 지표선정의 기준은 유럽연합 회원국가 관련자료 보유 현황과 유럽환경에 적절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이었다.

EU는 지표의 구성체계를 UN과 연결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UNCSO의 경제, 환경, 사회, 제도 등 4개 분야로 대별하고, 경제지표 9개, 사회지표 14개, 환경지표 21개, 제도지표 2개 등 총 46개로 구성하였다. 특히 각 선정지표에 대해서는 '의제 21'과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EU의 지표체계는 UNCSO의 DSR구조를 적용하였다. 즉 경제, 사회, 환경, 제도의 4가지 범주 내에서, 3가지 유형의 지표로 대별되어 있는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인간활동, 과정, 유형 등을 대표하는 추진력 지표와 기존 상황에 대한 모습을 제공하는 상태지표, 개괄적 측정을 수행하는 반응지표이다. 이러한 EU의 지표는 지속가능지표 리스트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 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료원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점진적인 개정과 보완이 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측정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 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2000년에 UNCSO는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하나의 일반화된 합의를 이루기 위해 57개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에 발맞추어 EU는 지난 3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2001년 EU의 상황에 적절한 새로운 63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UN체계에 맞추어 선정하였다. EU는 통계자료와 통계기법의 연구를 통하여 UNCSO의 기본틀과 DSR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U 지표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몇몇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며, EU와 관련성이 적은 지표들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UNCSO가 선정한 지표에 상응한 통계자료나 지표가 없는 경우,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지표로 대체·수정하였다. (표 2-9-3 참조).

〈표 2-9-3〉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1)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형평성	빈곤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 정도	
			실업률	
			청년 실업률	
			1인당 사회 연금	
	남여명등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비율		
	유소년복지	유소년 복지		
	건강	영양상태	인구 영양상태	
		질병	질병에 의한 사망	
		사망률	영아사망률	
		공중위생	출생시 기대여명	
		건강관리	국가 보건 지출	
	교육	교육수준	교육달성 수준	
		비문맹	저 능력 수준	
	주택	생활환경	1인당 방의 수	
	안전	범죄	가족 구성	
			보고된 범죄	
	인구	인구변화	인구 성장률	
			인구 밀도	
			순 이주율	
환경	대기	기후변화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고갈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	
		대기질	도시내 대기농도	
	토지	농업	농지와 유기농업	
			질소 비료	
			농약사용	
		산림	총 산림지역	
	해양·연안	연안지역	목재 벌채율	
			도시화	도시의 성장
			연안지역	해양/연안의 부영양화
	담수	어업	선택된 종의 수확	
			수량	물 사용의 강도
	생물 다양성	수질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생태계	목욕물의 질
			종	전체 대비 보호지역 비율
			위협받는 종의 수	

〈표 2-9-3〉 계속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제도	제도형태	국가 SDI실행의 국회 내 주요집단의 기여	
	제도용량	정보접근	1000인당 인터넷 계정 및 라디오 수
		정보인프라	1000인당 주전화선 수
		과학과 기술	R&D에 대한 지출
	자연재해 준비와 반응	인명 및 천연자원의 손실	
경제	경제구조	경제이행	1인당 GDP
			GDP대비 투자분
			주요부문의 부가가치
			인플레이션율
	무역	순 당좌계정	
		EU와 국제시장	
	재정상태	공채	
		개발도상국 원조	
	소비와 생활패턴	물질소비	원료소비
			에너지사용
		폐기물 발생과 관리	1인당 국내 총 에너지 소비
			재생가능 에너지자원
			에너지 이용도
			도시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산업폐기물 발생량			
유해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재활용 폐기물 : 종이, 유리			
폐기물 처리와 처리시설			
운송	여객수송 모드		
	화물운송 모드		
환경보호	환경친화적 소비		

#### (4) UN ESCAP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하여 지표개발과 관련된 몇몇 주요한 사례들을 평가해보고 이를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응용하였다. UNCSD의 결정에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지속가능발전정책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표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UN ESCAP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개도국의 지표개발 현황을 파악반영함으로써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UN ESCAP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관련 지표들을 구조화하기 위한 모형(framework)을 채택하는 단계인데, UN ESCAP은 UNCSD의 추진력-상태-반응(Drive force-State-Response) 모형을 채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그 지역에 대한 ‘우선 이슈(priority issues)’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다음 <표 2-9-4>에 관련 이슈들에 대한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UNCSD에서 채택한 4개 부문 즉, 환경, 사회, 제도, 경제 부문과 동일하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환경부문은 ‘지역 행동 프로그램(Regional Action Programme)’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목표를 만족하는 11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목표는 ‘오염 저감 및 보호 제어’, ‘환경질의 강화’, 그리고 ‘자연 자원 및 생태시스템의 관리와 보전’이다. 지역 행동 프로그램에서 자연자원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광물자원은 환경부문에서 개별적인 항목으로 주어졌다.

사회부문과 관련해서, 아태 지역에 대한 관련 문제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빈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인구, 보건, 식량, 교육, 여성의 지위와 주거환경 등 5개 이슈들이 제시되었다.

<표 2-9-4> 아태 지역에서 제시된 관련 이슈

영역	항목	관련 이슈
환경	대기질	대형 도시 지역; <i>CO</i> , <i>NO<sub>2</sub></i> , <i>SO<sub>2</sub></i> , <i>TSP</i> ; 산성 퇴적물 및 안개; 대도시 지역의 지오염 및 안전한 교통 시스템
	수질	수질 강화; 강 복구 프로그램; 불공정한 수자원 분배; 수자원 보호; 통합 수자원 관리
	독성 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	토양에 위협한 화학물질; 독성 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에 관한 자료; 유해 폐기물 관리
	도시 환경문제	대기 오염; 수자원의 이용가능성과 보전; 교통; 고품 폐기물
	에너지	에너지 효율과 보전; 청정 기술; 온실 가스 배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산림	산림 자원의 평가; 산림 자원 관리 향상과 국가 계획; 사회적 산림; 산림 파괴의 원인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지정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생태 탐방
	연안 및 해양 환경	어족 자원; 수질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토양 황폐화의 원인; 식량 안보; 수자원 및 토양 생산성; 토양에 위협한 폐기물 관리; 토양 황폐화 평가; 사막화
	습지 및 호수 광물 자원	습지와 호수 자원의 감소와 파괴 자원 고갈
사회	인구	인구 규모; 인구 성장률
	보건	사망률; 기대 여명; 보건 정책
	식량	식량 공급; 식량의 질
	교육	가독률; 등록률; 학교 재적 비율
	여성의 지위	여성 교육; 여성 노동력
	주거	거주지
제도	국제 환경 회의 및 지역 환경 회의 이행	국제적 지역적 회의; 비준 및 이행
	정책 수단	국가적 계획 및 전략; 국가 표준; EIA 지출; 경제적 수단
	의사 결정 구조 및 참여	조직적인 제도;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관련한 민주적 참여
경제	일반 경제	경제 성장; 국제 수지; 고용; 국가 채무
	기술	환경 친화적인 기술 이전; 기술 개발
	개발 원조	GNP 대비 개발 원조 비율; 원조에 대한 의존도

## 나. 국가단위 SDIs 개발 현황

### (1) 한국

1996년 UNCSO가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발표한 이후 한국에서도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여러 지표들을 개발하여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2000)는 「국가 환경성과지표 개발·적용연구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여 기존의 국제 기구 및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영근 외(2001)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2001년에 발표된 UNCSO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몇몇 항목들을 추가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적은 지표들을 삭제하였다. 정영근 외(2001)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성체계를 UNCSO의 분류체계에 따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분야별로 사회, 환경, 경제, 제도 지표로 분류하였다(표 2-9-5 참조).



<표 2-9-5>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1)

부문	영역	항목	우리나라 SDIs	
사회부문	형평성	빈곤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실업율	
	건강	남여 평등	남성근로자100명대비여성비율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비율	
			영양 상태	
		건강 관리	사망율	인구 영양상태
			출생시 기대여명	
			공중 위생	영아사망율
			식수	하수처리향유 인구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교육	교육 수준	GDP 대비 보건 지출	
			주요한 보건 시설 접근 인구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주택		중등학교 순 졸업율		
		교육비비율		
		주택보급율		
안전	범죄	1000인당 신고된 범죄 신고		
		인구증가율		
인구	인구 변화	인구밀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온실가스 배출		
환경부문	대기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	
		대기질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토지	토지 이용	대기오염저감 지출	
			토지사용변화	
		농업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적인 경작지	
			비료사용	
			농약사용	
	도시화	토지지역 중 산림지역 비율		
		목재 벌채 정도		
	해양/연안	연안 지역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면적	
		어업	연안의 수질현황	
	담수	수량	주요 종의 연안 수확 사용 변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수질	1인당 물 소비량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 다양성	생태계	담수내 대장균 밀도	
			주요 보호지역	
종	전체생물중 멸종위기에 있는 종 비율			

〈표 2-9-5〉 계속

부문	영역	항목	우리나라의 선정된 지표
경제부문	경제 구조	경제 이행	1인당 GDP GDP의 투자분
		무역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균형
		재정 상태	부채/GDP
			GDP 대비 총 ODA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소비/ 생산	물질 소비	민간최중소비지출,재화형태별소비지출
		에너지 사용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1인당 차량용 화석연료 소비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폐기물 관리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지정 폐기물 발생량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관리 지출		
운송	자동차 등록현황		
제도부문	제도 형태	국제 협력	인준된 국제적 합의사항에 대한 수행
	제도 용량	정보 접근	PC공중전산망 가입회선수
		정보 인프라	1000인당 주전화선 수
		과학과 기술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재해준비와 반응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손실 재해도수율,재해강도율,재해사망율

## (2) 미국

미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sup>25)</sup>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 PCSD)의 권고에 따라 구성된 '미국 지속가능발전

25) 미국의 EPA는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표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각 주별로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SEGIP(State Environmental Goals and Indicator Project)로 불리고 있으며, 지표개발은 물론 미국전역에 걸친 자료수집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등 방대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지표개발의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OECD 모형인 PSR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표를 주제별(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로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별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표 관계부처 실무그룹(U.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SDI Group)'은 두 가지 분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였다.<sup>26)</sup> 첫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 및 부채(Long-Term Endowments & Liabilities), 과정(Processes), 현재 결과(Current Results)로 구분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표를 분류하였고, 둘째는 경제, 환경, 사회지표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미국은 지표 선정 과정에 있어 일반적 선택기준과 구체적 선택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선택기준은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이슈를 반영하고, 방법론이 복잡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유용한 자료에 근거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적 규모여야 하고 국가적 관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구체적 선택 기준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변화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 중요한 비용이나 편익을 가지는 이슈와 수년, 수십년, 수백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그리고 작은 변화가 잠재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영향을 가져오는 이슈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표 2-9-6 참조).

26)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6년 발간된 1차 보고서인 “지속가능한 미국(Sustainable America)”에서 연방정부가 민간부문과 비정부부문(NGO)을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일반 대중에게 이러한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2-9-6〉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구분		지표
분야	이슈 (issues)	
경제 지표	경제적 번영	자본재
		노동 생산성
		국내 생산(Domestic Product)
	재정상 책임	인플레이션
		GDP 대비 연방 부채
	과학적·기술적 진보	GDP 당 R & D 투자
	고용	실업
	주택	자가보유율
문제주택 거주가구 비율		
소비	1인당 에너지 소비 및 GDP 당 에너지 소비	
	1인당 원료 소비 및 GDP 당 원료 소비	
	1인당 소비 지출	
형평성	소득 분포	
환경 지표	천연자원 상태	농경지의 용도 변경
		토양 침식율
		취수량 대비 재생가능 수자원 공급비율
		어업 이용
		벌채 대비 목재성장 균형정도
	대기 및 수질	지표수 수질
		대도시 대기질
	오염 및 유해 물질	생물군내 오염물질
		슈퍼펀드*지역의 확인 및 관리
		핵연료 소비량
생태계 보전	주요 육상 생태계 면적	
지구 기후변화	침략적 외래 생물종	
	온실가스 배출	
성층권 오존 파괴	지구온난화 기후반응지수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성층권 오존상태	
사회 지표	인구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가족 구조	미국 인구
		이혼 가정 유소년수
	지역사회 발전	미혼모에 의한 출산
		자선활동에 투입된 시간 및 자금
	교육	교사의 훈련수준 및 자격제의 적용
		수준별 교육 달성
	공공 안전	교육 성취율
인류 건강	범죄율	
평등	출생시 평균여명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빈곤자 수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에의 참여	

주: \* 슈퍼펀드(Superfund) : 미국의 화학폐기물로 인한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기금

### (3) 영국

영국은 다른 국가와 기구의 체계를 고려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 제시된 목적과 핵심 문제들에 기초한 그들만의 체계를 개발해왔다. 특히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지표를 능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면서 핵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와 자문을 거쳐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예비적 지표로서, 일부 어려움을 설명하고 새로운 견해와 생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결론이 아니며 그 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의 취합 그 자체로도 유용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일부지표가 핵심적인 지표에 있어 지나치게 상세하더라도, 특정 부문에 있어서나 특정분야의 이익과 관련하여 그러한 노력이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기초로 하여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방 고유의 지표개발은 지역주민의 합의도출 및 주민 행태와 관련한 영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역간 비교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는 역기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국가지표의 개발은 물론 국제지표 및 지방지표의 개발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표 2-9-7>에서는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분야 및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표 2-9-7〉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구분		지표
	이슈 (issues)		
경제 지표	경제 성장 소비 투자 보건		GDP
			경제 구조
			GDP내 지출분 및 저축
			소비자 지출
			인플레이션
			고용
			정부 차관 및 부채
			오염 저감 지출
			영아 사망율
			기대 여명(life expectancy)
교통 지표	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용적인 교통 방식 능률적 교통 이용		차량 이용 및 총 승차거리
			단기 여행
			교통비용의 실제 변화
			화물 운송
레저 및 여행	환경 및 삶의 질 제고		레저 여행
			항공 여행
대외 무역	대외 무역		영국의 수출입
에너지	재생불가능 천연자원의 소비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연료 소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오염 및 영향 에너지 효율		화석연료 소비
			핵 및 재생가능연료 용량
			최초 및 최종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 및 생산
			산업 및 상업 부문별 소비
			도로교통 에너지 사용
			주거 에너지 사용
실제 연료가격			
토지 이용	개발에 의한 토지 수요 증가(특히 주택)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심 유지		도시개발에 의해 덮힌 토지
			가구 수
			도시의 토지 재개발
			토지의 축적 및 간척
			노상 건물
			도심외곽의 소매점 면적
			정기 여행
			재생산 지출
도시지역의 녹지 공간			

<표 2-9-7> 계속

구분		지표
분야	이슈 (issues)	
수자원	수자원 공급 수자원 소비 취수의 영향	합법적인 취수 및 효과적 강우
		수심저하의 완화
		소비 목적의 취수
		공유수 공급 목적의 취수
		공유수의 수요와 공급
산림	천연림 보존 새로운 환경적 관리림의 개발 나무 건강	관개 목적의 취수
		산림 지역
		목재 생산
		천연림
		나무 건강
수산자원	수산자원	산림 관리
		수산자원 보유량
		최소생물학적허용수준(MBAL)
기후 변화	전세계적 배출 영국의 영향	어획고
		지구 온실가스 복사 차단율
		지구 기온 변화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	전세계적 배출 영국의 영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계산된 염소 적재
		측정된 오존 파괴
		오존파괴물질의 배출
산 퇴적	산 배출 제한 및 토지관리의 적정성 보장	CFC 소비
		일시적이지만 중요한 적재물의 산성도 초과
		발전소의 이산화황 및 질소 산화물 배출
대기	도시 대기질 광화학적 오염	도로교통에 의한 질소 산화물 배출
		오존 농도
		이산화질소 농도
		특정 물질 농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배출
		매연(black smoke) 배출
납 배출		
대기오염저감 지출		

〈표 2-9-7〉 계속

구분		지표
분야	이슈 (issues)	
담수의 질	지표수와 지하수 질 오염 통제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물 사용	강의 수질 - 화학적·생물학적
		강과 지하수내의 질산염
		강에 포함된 인
		강과 지하수내의 살충제
		오염 사건
		오염 방지 및 통제
		물 추출, 처리 및 분배에의 지출
해양	해양 및 연안의 수질 오염 통제	하수 처리 지출
		연안의 수질
		핵심 오염물질 농도
		어류내 오염물질
		해수욕장 수질
야생생물 및 서식지	서식지의 범위와 질 핵심 종(種)의 수와 범위	오염물질의 투입
		기름 유출 및 방류
		멸종위기의 종
		조류 사육
		준개선 목초지의 식물 종 다양성
		백악(白堊: chalk) 목초지 지역
		관목지역의 식물 종 다양성
		서식지 분열
		호수 및 연못
		강가의 식물 종 다양성
포유동물 수		
토지형태 및 외관	농촌적 토지 형태 외관의 보호 및 환경 적 가치를 지닌 서식지 농업 생산성 질소 및 살충제의 사용 토지 관리	잠자리 분포
		나비 분포
		농촌적 토지 형태
		지정된 보호 지역
		지정된 보호 지역의 손상
		농업 생산성
		질소 사용
		살충제 사용
외관상 특징을 나타내는 선 길이		
토양보호	토양보호	환경적 관리지
		토양질
광물채굴	자원의 소모 폐기물 재활용 채굴(화석연료 포함) 광물 채굴 후의 외관 회복	표토(表土)의 중금속
		총 산출
		총 폐기물
		채굴 작업 토지
		복구된 토지
		채굴 작업의 교정
바다의 총 준설		



<표 2-9-7> 계속

구분		지표
분야	이슈 (issues)	
광물채굴	자원의 소모 폐기물 재활용 채굴(화석연료 포함) 광물 채굴 후의 외관 회복	총 산출
		총 폐기물
		채굴 작업 토지
		복구된 토지
		채굴 작업의 교정
		바다의 총 준설
폐기물	폐기물 산출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복구 폐기물의 최종 처리	가정 쓰레기
		산업 및 상업 폐기물
		특별 폐기물
		가정 쓰레기 재활용 및 비료화
		재활용 가능 제품
		폐기물 에너지
방사능	일상적이고, 허용되는 배출로 인한 영향 핵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매립되는 폐기물
		방사능 노출
		핵관련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배출
		핵 폐기물 발생 및 처리

(4) 일본

일본 정부는 1994년에 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 기본 환경 계획(the National Basic Environment Plan)”을 수립하였다. “국가 기본 환경 계획” 아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 계획에 명시된 장기적 목적에 관한 포괄적인 지표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2002년에 일본 정부는 추진력(Driving Force) - 상태(State) - 반응(Response)의 세 가지 영역을 편집하여 환경 통계서(Environmental Statistics Book) 연감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환경 지표를 측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개념이 잘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 현존하는 “국가 기본 환경 계획”은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포괄적인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지표가 통합된 어떤 지표도 없다. 단지 몇몇 정책입안자나 이 분야와 관련 있는 학자들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적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 사회의 특징에 있는데, 즉 사회적 으로나 조직적으로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일본인들은 불분명한

지향점에 대한 책임이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앙 정부의 구조 때문이다. 많은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각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항상 각 기관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서로 잘 조화되고 있지만은 않다. 중앙 정부의 분화된 구조는 일본에서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발전을 제한하곤 한다. 세 번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들 수가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환경문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일본에서의 환경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지방 정부들은 환경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예산, 행정력의 관점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채택하기 이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지표들은 주로 1980년대에 지역의 환경관리계획의 과정에서 개발되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이니셔티브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okyo도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한 가나가와(Kanagawa)는 일본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자 동시에 1970년대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성공적으로 조절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가나가와에서는 지방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1993년에 '지방의제 21'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일본에 있어서의 최초의 '지방의제 21'이기도 한다. 시민단체, 기업, 그리고 시와 주정부와 같은 각 영역의 대표자들이 효율적인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조성하였다.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이미 설정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외에 정량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민참여 과정의 결과로, 개정된 '지방의제 21'의 범위는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정부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만 시민 사회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만일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 사회는 적절한 분석을 행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는 사회, 경제, 환경 지표를 개발하는데 뒤쳐질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된다.

〈표 2-9-8〉 가나가나와의 지방의제 21에서 채택한 지표

영역	지표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절약
고형 폐기물	폐기물 발생
	폐기물 재활용과 재사용
화학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대기	대기 오염원 농도
	주간 오염
물	수질 오염
	수질
	해안(연안) 환경의 재생성
산림과 토양	토지 사용
	산림 보호
	지역적 차원의 소비에 대한 지역 생산
주거 계획	참여와 평등
	도시 인프라
환경 관리	ISO 14001 인증
	녹화
환경 경영	환경 경영에 대한 캠페인
환경 교육	환경 교육 촉진

(5) 중국

현재 중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 잘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한 문제점 역시 부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운영상의 관리 패턴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혹은 다른 지역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지속가능성이 달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중국 정기 과학기술넷(Chinese Science Technology Periodical Net)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문헌 조사 결과,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문헌이 5000여 건 이상 발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약 100여개는 지표 시스템 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것이다. 이 100여개의 문헌은 지속가능발전의 모형과 지표 시스템을 다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은 크게 지표 시스템 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표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따라서 중국에서 연구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오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 사이버네틱스(Natural Cybernetics) 이론은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정칭쿤(Zeng Qingcun)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어떻게 환경과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동시에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조화가 되는지를 제시하였다(Zeng Qingcun, 1996). 이 이론은 인간이 제어하는 기계, 자연의 자기제어 행동 연구와 인간이 제어하는 기술, 방법, 이론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을 시도하였다.

인간과 지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이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 생태 환경 개선, 그리고 자연 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목적이 서로 조화된 전략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 시스템의 건전한 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과 지구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인간은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생태의 균형 잡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북경대학의 예원후(Ye Wenhui) 교수는 브룬트란트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가치에 대한 이론과 동반적 발전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경적인 수행 역량에 관한 이론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으로 이루어진 지구에서 생산 관계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생산 관계에 대한 3가지 유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일 어느 연결고리라도 깨어지면 지구의 지속가능발전 시스템은 해를 입는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의미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자연 윤리와 문명과 같은 인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환경 윤리는 인간 중심적인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관의 주요한 내용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며, 모든 가치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는 단지 도구이며, 자연의 모든 서비스는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르고 자연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한다.

경제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은 중국 국무부 개발연구센터의 왕후이저용(Wang Huijiong, 1997)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 이론은 개발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이며, 지속가능성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 그리고 기술 구조가 경제 규모 확장에 의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 때문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원칙도 다양하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

중국의 과학 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그룹의 양두오구이(Yang Duogui etc)에 의해 제기된 지표시스템은 5개의 기본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합단계, 시스템단계, 상태단계, 변수단계, 항목단계이다. 시스템 단계의 내부는 5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명 지원 시스템, 개발 지원 시스템, 환경 지원 시스템, 사회 지원 시스템, 과학과 교육 지원 시스템이다. 상태 단계는 시스템 행동 구조 관계를 규명하는 1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변수 단계는 행동의 원인과 추진력과 상태의 변화와 관계를 반영하는 4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단계는 측정가능하고, 비교가능하고 획득가능한 지표와 지표 그룹을 정량화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231개의 항목 단계의 지표들은 포괄적으로 42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 시스템은 중국의 의제 21을 위한 행정센터(Administrative Center for China's Agenda 21: ACCA 21)과 통계국(Statistic Bureau of State)에 의해 개발되었다. 지표의 전체 구조는 6개의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제, 사회, 인구, 자원, 환경, 과학과 교육이다. 설명지표들은 83개 지표들을 총합한 각 하부 구조의 다양한 측면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각 하부 구조 사이에 발생하는 중복 때문에, 이 시스템은 현재 수정 중에 있다.

국제적인 연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쿤민(Zhang Kunmin et al., 2000)은 국가 경제와 환경의 통계적 정보에 의하여 중국의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는 지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형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자료, 분석자료, 그리고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표 2-9-9>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지표 시스템은 압력-상태-반응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다. 환경과 경제 지표들은 이 시스템으로 설정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 지표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를 통합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문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제공된다.

〈표 2-9-9〉 중국의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주요 문제		압력	상태	반응
경제			GDP GDP 대비 총 투자분 GDP 대비 전체 소비	
환경	대기 오염	SO <sub>2</sub> 배출량 NO <sub>x</sub> 배출량 PM10	SO <sub>2</sub> 농도 NO <sub>x</sub> 농도	GDP 대비 환경에 대한 투입물
	수자원과 오염	폐기물 방수 물 부족분 양 물 소비	오염 지수 이용가능한 수자원 GDP 대비 물 소비량	경제화된 수자원 처분을 물 경제화에 대한 투자
자원	고형 폐기물	산출량	저장량과 차지 지역	처분을 및 통합 이용을
	광물 자원	연간 개발정도 에너지 소비	광물자원의 전체 저장량	
	토지 자원	토지 이용 패턴의 변화	경작 지역	
	산림 자원	벌목 증가율	산림 지역 비율 목재 누적량	산림화의 비율
	어족 자원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성	저장량	
사회	실업률 가동률	교육분야에 대한투자 지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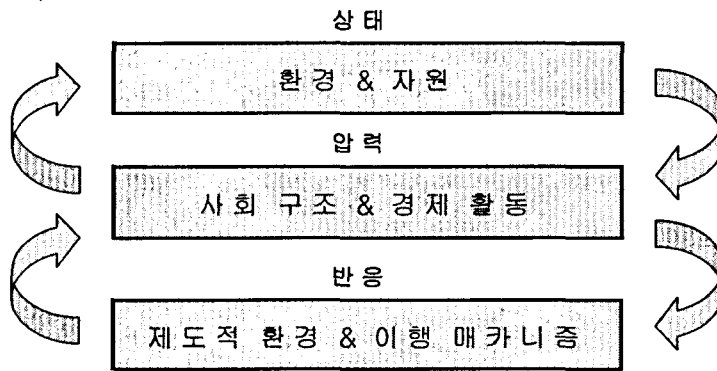
## (6) 대만

대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제도적 역량구축(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개념이 통합되어 있다. 확장된 PSR 모형(extended PSR)은 선별된 지표의 구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다.

대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압력 - 상태 - 반응(PSR) 모형을 사용하였다. PSR 모형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지표들에 기초한다.

진 실	사 실	정 보	참 여 에 의 한 합 의
현 상	과 학	인 주 주 의	대 표 성
희 소 성	경 제	법 의 원 칙	의 무
효 율 성	시 장	존 엄 성	정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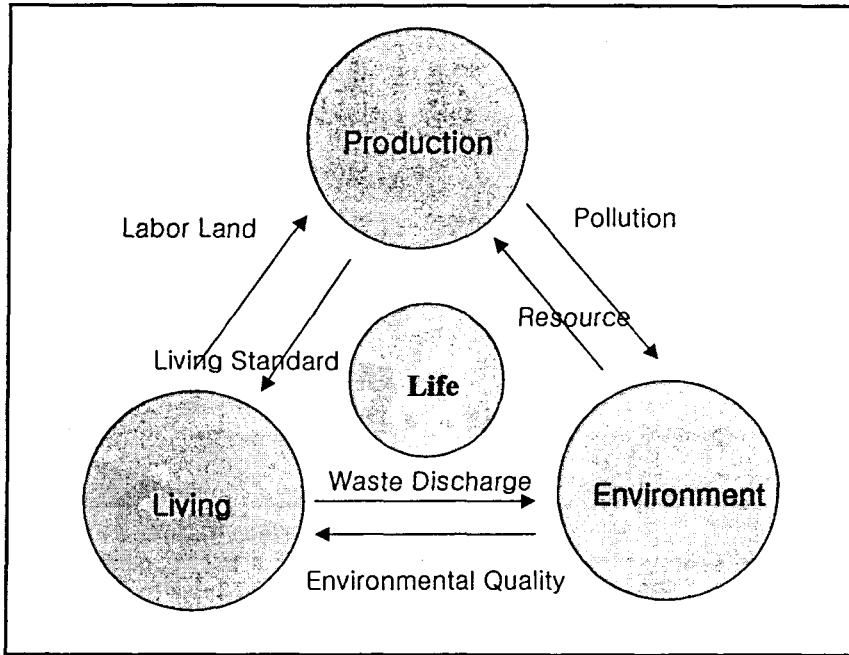
<그림 2-9-2> 대만의 제도 역량 하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



[그림 2-9-2] 대만의 확장 압력-상태-반응 모형의 동태

[그림 2-9-2]와 [그림 2-9-3]에서는 대만의 제도 역량 하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만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장 압력-상태-반응 모형의 동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는 인구, 경제 활동, 그리고 소비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하며, 또한 지역적, 국가적, 심지어 국제적인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세계인구의 약 60%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도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표는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로서 통합되지 않는다.



[그림 2-9-3] 대만의 도시 지표 모형

대만 도시지표에 관한 연구는 도시 발전으로부터 기인한 대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해준다. 도시 지표들의 개발 목적은 각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만 전체에 대한 도시 발전의 기여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대만 도시(Urban-Taiwan)'를 위한 지표는 도시 생산성, 도시의 환경질, 공공설비의 제공과 같은 사회 수준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서 정의된다. '생산', '삶', '환경' 등은 대만의 '국가토지계획과정(National Land Planning Process)'에서 제안된 3가지의 항목이다. 자연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대만의 환경으로 인해, 대만의 도시 지표 중에서 '삶' 항목이 더 포함되었다. 모두 29개의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DSR(driving force-state-response)구조가 채택되었다.

<표 2-9-10>은 대만의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 추세를 요약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 추진력



지표로서 작용하는 '생산'과 관련한 모든 지표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도시화는 대도시 지역에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차량 소유 증가로 인해 교통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와 소음에 대한 오염이 지난 10여 년간 개선되고 있지만, 수질 문제는 낮은 폐수 처리 비율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일반 대중들은 도시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 확충과 환경오염 방지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삶의 기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연 환경의 보호는 여전히 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데이터의 특성상, '녹화비율'이나, '도시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자연 위험요인 지역 비율'과 같은 몇몇 지표들은 자료의 추세분석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각 지표의 추세에 의해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그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며, 지속가능성 평가는 각 지표의 변화정도나 방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나 개발은 대만의 지속가능발전에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표 2-9-10〉 대만의 지속가능한 도시 지표

	추진력 (Driving Force)	상태 (State)	반응 (Response)
생산 (Production)	- 1인당 도시 생산성 - 도시 생산성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 - 도시 생산성 증가율		- 지방 지출에 대한 독립성
삶 (Living)	- 도시 지역 비율 - 도시 지역 증가율 - 개인 소유 자동차수 - 개인 소유 바이크수 - 공공 교통의 효율성	- 대도시 인구 밀도 - 도시 인구 비율 - 1인당 거주 지역 - 대도시 대기 오염 - 대도시 소음 - 도시 빈민가	- 공공시설 지역 비율 - 1인당 공원 지역
환경 (Environment)		- 녹화 비율 - 대도시의 농업 지역 - 오염된 하천 길이 비율 - CO <sub>2</sub> 배출량 비율 - 건설 폐기물	- 접근 가능한 수자원 비율 - 폐수 처리 비율 - 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지출 비율 - 환경 교육 활동 빈도수 - 환경 NGO 수
생명 (Life)		- 도시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자연 위험요인 지역 비율 - 도시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 2. 우리나라 환경통계 현황

### 가. 환경부문 승인통계

우리나라 환경통계는 환경부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기본이 되지만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에도 환경통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이렇게 집계되어 작성된 환경통계는 관련통계작성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체, 과학자, 대중매체,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통계는 2004년 9월 1일 현재 승인통계 20종이 있으며, 이 중 11종은 환경부에서 작성하는 통계로써 주로 환경통계연감에 수록되어 있다.<sup>27)</sup> 환경통계연감에 수록되

27) 통계법 제8조(또는 제9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468종으로서 지정통계 89종,

어 있는 환경통계들은 다음과 같다.

- 상수도통계 : 전국의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상수도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
- 하수도통계 : 전국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하수도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투자 및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질오염실태보고 : 전국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변화추세를 파악하고 집행된 주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수질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배출시설업무처리현황 :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행정처분실적을 파악하여 수질과 대기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대기오염도자동측정 : 전국의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도 및 산성강하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대기보전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간 환경보전 협력방안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 대기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 등의 각종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환경보전에관한국민의식조사 :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 폐기물의 매립·소각 등 최종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폐기물 조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방법 개발에 활용
-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 화학물질별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우선 관리대상의 발굴과 환경오염사고 예방, OECD 등 국제협약 이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방안을 강구함
-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 비점오염원까지 확대하여 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과정에서의 배출량을 파악

---

일반통계 379종이다.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는 239종, 보고통계는 175종, 가공통계는 54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340종(통계청은 53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28종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확대 개편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2003년부터 4개 환경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 : 폐기물관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제출한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취합·정리·분석하여 재활용정책의 수립·시행 기초 자료로 활용
- 월간재활용가능시장동향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장 참여자들에게 재활용재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시장 안정 및 자원순환을 촉진
- 지정폐기물다량배출업소폐기물발생량및감량화실적 :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화실적을 분석하여 폐기물 최소화정책 추진지표로 활용
-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실적을 분석하여 자원재활용촉진정책자료로 활용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하는 ‘지하수조사’가 매년 발행되는 지하수조사연보에 수록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해수수질실태보고’는 매년 발행되는 한국해양조사연보에 수록되어 있다. ‘해수수질실태보고’는 해양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해양환경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환경오염방지지출’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는데, 경제주체가 부담한 환경지출액을 파악하고 환경요인조정 국민순생산 추계에 필요한 환경계정 편제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에 승인된 ‘해양오염사고통계’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할 계획에 있으며 해양오염사고의 유형별 발생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사고예방 및 방제대책 등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통계청 통계분석과에서 발표되고 있는 환경산업체현황조사도 환경통계에 포함 될 수 있다.<sup>28)</sup>

현재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환경통계연감에서는 통계의 작성범위를 국민경제활동, 환경상태, 환경관리로 크게 분류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분야별 환경상태 그리고 환경악화에 대한 대응 관련 통계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즉 환경통계는 통계의 작성범위를 환경의 질과 환경관리로 구분하여 편제하고 있다. 환경의 질은 오염매체별로 오염현황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관리에서는 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활동을 수록하고 있다. 그 외 건설교통부의 건설통계편람,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 농림부의 농업통계연보 등

28) 환경통계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한국통계조사현황』을 참조 바람.

관련부처들이 작성하고 있는 각종 통계연보 속에 환경관련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표 2-9-11>은 환경부문 승인통계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9-11> 환경부문 승인통계 현황(2004년 9월1일 현재)

통계명칭	기관명	승인일자	최초실시연도	조사대상지역	작성방법
폐기물재활용실적통계	한국환경자원공사	2003-12-17	1998	전국	보고통계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한국환경자원공사	2003-09-30	2003	전국	보고통계
지정폐기물다량배출업소폐기물발생량및감량화실적	한국환경자원공사	2003-09-18	2003	전국	보고통계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환경부	2003-06-26	2003	시도	가공통계
월간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	한국환경자원공사	2003-01-16	2000	전국	조사통계
해양오염사고통계	해양경찰청	2002-02-28	2002	전국	보고통계
환경산업통계조사	통계청	2001-06-08	2001	전국	조사통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환경부	1999-01-16	1999	전국	조사통계
환경보호지출및수입통계	한국은행	1997-06-04	1997	전국	조사통계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환경부	1996-05-29	1996	전국	조사통계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	1996-04-30	1996	전국	조사통계
지하수조사	건설교통부	1995-10-13	1995	전국	보고통계
환경보존에관한국민의식조사	환경부	1995-08-30	1995	시도	조사통계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환경부	1981-03-02	1981	전국	조사통계
해수수질실태보고	해양수산부	1980-11-13	1980	기타	보고통계
대기오염도자동측정	환경부	1980-04-28	1980	전국	보고통계
배출시설업무처리현황	환경부	1980-03-18	1980	전국	보고통계
수질오염실태보고	환경부	1980-03-08	1980	전국	보고통계
하수도통계	환경부	1975-07-29	1975	전국	보고통계
상수도통계	환경부	1975-07-29	1975	전국	보고통계

#### 나. OECD 통계와의 비교

OECD 환경통계는 OECD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이 OECD에 제공하는 통계정보 중에서 환경분야 통계정보를 말한다. OECD 환경통계의 구성은 압력-상태-반응(Pressure-State-Response)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압력(자원소모, 오염물질배출), 이로 인한 환경상태의 변화(오염 정도, 자연자원 보존량,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환경관리, 환경보호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OECD 환경통계 작성 범위는 9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대기, 내수, 폐기물, 소음, 토지, 야생생물, 산림, 해양(2004년부터 적용), 환경오염방지지출(2002년부터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으로 변경)이 그것이다. 2002년 통계조사표를 기준으로 할 때, 대기 분야는 18개의 주표와 6개의 부표, 내수 분야는 9개의 주표, 폐기물 분야는 10개의 주표, 소음 분야는 3개의 주표, 토지 분야는 3개의 주표, 야생생물 분야는 2개의 주표, 산림 분야는 8개의 주표, 해양 분야는 3개의 우선표와 4개의 선택표,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분야는 4개의 주표로 이루어져 있다.<sup>29)</sup>

우리나라에서 OECD 환경통계의 취합 및 보고는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OECD 요구 항목에 비해 볼 때 국내 환경통계 작성 수준은 27~36% 정도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9-12 참조).

29) 한편 非OECD 국가들은 UNSD(UN Statistics Division)의 통계조사표에 의거하여 환경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ECD의 환경통계 조사내용에 비해 UNSD의 환경통계 조사내용은 매우 축소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UNSD 통계조사표(2001)는 물 분야 8개표, 대기 분야 10개표, 폐기물 분야 2개표, 토지 분야 4개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12> OECD 환경통계 작성 현황(2002년 기준)

분야	OECD 항목수	국내 가용통계 항목수		작성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대기(부표 제외)	133	77	77	57.9%	57.9%
내수	729	123	252	16.9%	34.6%
폐기물	317	68	83	21.5%	26.2%
소음	89	0	0	0%	0%
해양(선택표 제외)	304	51	55	16.8%	18.1%
토지	106	24	27	22.6%	25.5%
산림	120	76	118	63.3%	98.3%
야생생물	140	36	36	25.7%	25.7%
EPER	803	296	344	36.9%	42.8%
계	2,741	751	992	27.4%	36.2%

국내 환경통계자료는 <표 2-9-13>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승인통계 20종과 기타 행정보고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13> 국내 주요 환경통계자료

구분	자료	비고
총괄	환경백서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대기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산자부
수질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환경부
	상수도통계/하수도통계	환경부
폐기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환경부
환경자산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어업생산통계	해수부

환경통계연감은 환경통계 작성 범위를 크게 환경의 질(오염매체별 오염현황)과 환경관리

로 구분하여 편제하고 있다. 그 외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 농림부의 『농업통계연보』 등에 환경관련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 환경통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초 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표 2-9-14>에 제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OECD 요구통계의 작성 항목을 기준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작성 수준이 매우 낮다.<sup>30)</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통계청이 수차례에 걸쳐 환경통계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물론 통계 생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 통계자료를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통계 수집 및 작성 방법들이 체계화된다면 더 효율적인 환경통계의 생산 및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표 2-9-14> OECD통계 부문별 작성수준

통계부문	작성수준(%)
무역·국제협력	99.8
농림·어업	99.1
과학·기술·교육	70.5
인구·노동·임금	70.3
재정·금융·물가	49.5
보건·환경	30.7
광공업·에너지	29.3
관광·기타	21.0
계	65.4

자료: 통계청(1998)

둘째, 환경과 경제를 연결시키는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내 환경통계는 대부분 오염매체별 오염실태 및 관리실태 중심으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틀로는 인간활동(경제)과 환경 사이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며 정책 결정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에 근거하여 환경통계를 정비해 나갈으로써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계자료의 질이 낮다. 측정 자체의 객관성, 통계작성방법 및 대상기간 등의 불명확

30) OECD 환경통계 작성 정도에 대해 환경부(1997)는 21%(=239/1154), 통계청(1998)은 31%(=577/1822), 정영근(2002)은 약 30%로 평가하고 있다.



성으로 인해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낮으며, 통계작성방법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시계열성이 불충분하다. 이는 환경통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도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통계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환경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통계의 생산 및 관리 기관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기관에 따라 분류기준 및 분류항목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주로 국내 정책적 목적에 의해 통계가 생산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통계의 국제비교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식은 환경통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다. 기존의 환경통계개발계획에서 여러 차례 제시되었던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도 환경통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 3. 신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의 작성체계는 경제활동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개념적 특성을 설명한다. 이는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을 단순화시켜 준다. 통계자료 개발에는 자료수집과 조직화를 위해 사용될 일정한 원리나 지침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의 경우도 인간활동을 환경영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인구와 자연환경으로 연계시켜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는 인구동태, 자연자원이용, 그리고 자연환경질의 측정을 위해서 포괄적이어야 하며, 인간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인간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에 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자연자원을 많이 채취하면 할수록 환경에 남아 있는 자연자원의 양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경이 인간사회를 물질적으로 지탱해주는 능력, 즉 수용능력은 감소할 것이다. 또 인간이 환경에 폐기물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이 폐기물을 자연적으로 처리해주는 환경의 능력, 즉 자정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경의 수용능력은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는 인간생활과 환경과의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작성될 수 있는데 특히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력 - 상태 - 반응(PSR)체계에 입각해 접근하고 있다.<sup>31)</sup> PSR

31) 환경으로부터 자연자원의 채취와 환경에의 폐기물 방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환

에 입각한 환경통계 작성체계는 인간활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작성영역을 인간활동 즉 인구성장변화와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등의 경제활동 및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환경상태와 자연자원의 환경적 영향과 변화 그리고 환경과 자연자원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경제와 환경주체의 대응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고갈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제약 하고 위협하게 된다. PSR 모형은 이를 완화시키려는 반응조치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인간활동이나 자연재해는 기존의 환경상태와 자연자원에 충격을 주어 변화를 초래하는데, 그 영향으로는 자연자원의 물량변화, 환경질 변화, 인간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변화가 있다.<sup>32)</sup> 시계열화된 환경영향자료는 환경상태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이다. 환경통계분야는 사회경제통계만큼 시계열화 되어있지 못하며 공간지리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sup>33)</sup>

앞에서 살펴본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우리나라 환경통계 현황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중 환경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우선 현행 환경부문 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환경압력 - 환경상태 - 환경관리 등 PSR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성체계를 참고로 하여 세부관심영역의 구성을 보강하고 필요한 통계지표들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구성은 사회, 환경, 경제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CSO에서는 여기에 제도부문을 추가하여 4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표

---

경의 수용능력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이들을 압력요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압력요인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압력지표라 하며, 여기에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급수량 및 자연자원의 이용량 등이 포함된다. 환경의 상태 및 환경의 오염이나 환경파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나타내는 지표를 상태지표라 한다. 이러한 지표에는 대기의 질, 수질, 토양의 질 등 환경의 질(오염현황)과 고갈이 우려되는 자연자원의 보존량, 생물다양성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나타내는 반응지표가 있다.

32) 자연자원의 변화는 생물자원, 재생 및 재생불능자원을 포함한다. 환경질 변화의 지표로는 대기, 수질, 토지와 생물생태계악화를 들 수 있다.

33)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은 컴퓨터화된 지도기술을 환경질에 관한 공간data의 추세 파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 구성체계는 한국의 사회지표 전반적인 체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 개념 자체가 환경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기 때문에, 서론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의 환경지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에서는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과 지표를 포함한다면 사회지표 체계의 다른 부문과 중복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구, 교육, 주거, 교통, 여성 등 다양한 부문이 이미 한국의 사회지표 다른 부문 항목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그 자체가 한국의 사회지표 전반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에서 기존의 환경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및 지표를 한국의 사회지표 다른 부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하고자 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서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업, 해양수산, 산림 분야 중에서 환경 혹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부분 승인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지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환경부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활용' 및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새로이 환경부문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29개 환경부문 지표 중 일부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최근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대체가 가능한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향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 관심영역 설정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를 보면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개별지표로 3단계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 제시되어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이를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항목 - 통계지표로 4단계로 분류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부문 통계지표체계를 매체 및 특성에 따라 4단계로 재분류하면 <표 2-9-1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에서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체계이며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현행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과 비교하기 쉽고 새롭게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항목과 지표를 찾아내기가 수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표와 통계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여러 기초통계를 취합하여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지표단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2-9-16〉 지표 통계를 분리한 한국의 사회지표(환경부문)

관심 영역	세부관심 영역	항목	통계지표	통계표
환경 압력	환경오염 물질배출	대기부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9-3
		수질부하	폐수발생량	9-2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9-2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1인 1일)
		토양	지정폐기물 발생량	9-1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	9-11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		9-11	
	자연 자원의 이용		수자원	상수도보급률
		에너지	1일 1인당 급수량	9-8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9-21
1인당 전력 소비량			9-21	
환경 영향	환경의 질	대기오염	대기오염도	9-4
		수질오염	주요도시의 오존오염도	9-5
			수질오염도	9-4
			해수오염도	9-4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9-7
			먹는물의 수질현황	9-10
	수량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형태	9-9	
	생활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9-6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9-12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9-14	
환경관리 지출		환경관리 지출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9-16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9-16	
	환경관리 노력	일반관리	환경오염방지 노력	9-1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9-20
재생		재생산업 사업체수	9-17	
		환경보호 부담의향	9-15	
		경제적도구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	9-18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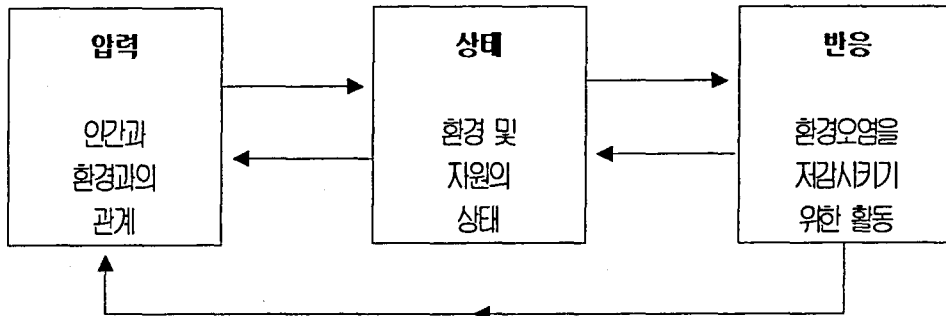
환경부문의 관심영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환경지표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환경압력 - 환경영향 - 환경관리의 3단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구조로 OECD에서 채택하여 사용한 압력 - 상태 - 반응 (Pressure - State - Response : PSR)구조와 UNCSO에서 사용한 추진력 - 상태 - 반응

(Driving force - State - Response : DSR)구조가 있다.

PSR구조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압력(Pressure), 자연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State), 환경, 경제 분야별 정책에서의 변화와 인식과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Response)을 고려하는 구조이며, DSR구조는 기존의 환경상태 또는 그 변화 정도만을 측정하던 지표와 더불어 이러한 환경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 제도 등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환경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 등에 대해서도 측정하고 평가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PSR구조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지표 상호간의 인과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DSR구조는 인과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에서는 지표설정이 어려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표 개발이 가능하다.

DSR 모형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또는 상황에 적합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조정될 수 있다. 조정된 예로 OECD 분야별 지표(Sectoral indicators)에 사용된 모형,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에 의해서 사용된 DPSIR(Driving force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 모형 등이 있다.



자료 : U.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1998.

[그림 2-9-4] Pressure-State-Response 기본구조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환경부문의 관심영역에서 환경압력 - 환경영향 - 환경관리의 3단계 분류는 적절하나 용어에 있어 환경압력 - 환경상태 - 환경관리로 정리할 수 있다. 즉 'state'를

환경영향으로 번역할 경우 용어상에서 환경압력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환경상태로 나타내는 것이 국제비교를 위해서도 타당하며, 'response'는 환경반응으로 번역할 경우 의미전달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환경관리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 2. 개발지표의 선정

### 가. 환경압력 영역

환경압력 관심영역은 세부관심영역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과 '자연자원의 이용' 등으로 2분화되어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대기부하', '수질부하', '폐기물', '토양' 등이 있으나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항목으로 '유해화학(Hazardous Chemicals)', '기후변화(Climate Change)', '오존층 파괴(Ozone Layer Depletion)', '해양오염(Ocean Pollution)'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자원', '에너지' 외에 '토지(Land)'와 '산림(Forest)'을 추가해서 <표 2-9-17>과 같이 새로이 구성해 보았다.

〈표 2-9-17〉 환경압력 영역 새로운 지표체계

관심 영역	세부 관심 영역	항목	기존 통계지표	추가 통계지표
환경 압력	환경 오염 물질 배출	대기부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VOCs 배출량
		수질부하	폐수발생량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인 1일)	
			지정폐기물 발생량	
		토양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	
		유해화학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 사
	기후변화		1인당 이산화탄소(CO <sub>2</sub> ) 배출량	
	오존층파괴		CFCs 사용량	
	해양오염		해양오염사고현황	
	자연 자원의 이용	수자원	상수도보급률	
			1일 1인당 급수량	
		에너지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1인당 전력 소비량	지하수 이용현황
		토지		농지면적 변화추이
				도시화율
산림		산림면적		
		임목 벌채		

대기부하와 관련된 통계지표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VOCs 배출량(Emission of VOCs)'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폐기물 부하와 관련된 지표는 '생활폐기물발생량'과 '지정폐기물발생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발생량(Generation of Radioactive Waste)'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해화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환경부분 승인통



계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유통량(Chemicals in Circulation)'과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Emission of Chemicals in Non-point Sources)'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1인당 CO<sub>2</sub> 배출량(CO<sub>2</sub> Emissions per Capita)' 지표는 거의 모든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지표 환경부문에서도 꼭 필요한 지표이다. 오존층 파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이자 성층권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에 대한 지표인 'CFCs 사용량(Use of CFCs)'도 최근 다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양오염과 관련된 지표로는 현재 환경부분 승인통계로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해양오염사고현황(Marine Pollution Accidents)'을 포함하였다.

세부관심영역으로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수자원'과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자원 항목의 지표로는 '상수도보급률'과 '1일1인당 급수량'이 있으나 최근 수량 부족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하수 이용현황(Use of Groundwater)'을 추가하였다. 자원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토지 자원과 관련된 지표로 '농지면적 변화추이(Area of Cultivated Land)'와 '도시화율(Urbanization)'을 포함시켰다 도시화율 지표는 주거교통부문과 중복될 수도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표이다. 산림 자원 지표로는 '산림면적(Forest Area)'과 '임목 벌채(Logging)'를 포함하였다.

#### 나. 환경상태 영역

관심영역과 관련하여 현행 '환경영향'이라는 관심영역의 용어를 영어 원문에 가깝게 '환경관리'로 바꾸고 '환경의 질'로만 되어 있는 세부관심영역을 '환경의 질'과 '생활환경'으로 <표 2-9-18>과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표 2-9-18〉 환경상태 영역 새로운 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항목	기존 통계지표	추가 통계지표
환경상태	환경의 질	대기오염	대기오염도	
			주요도시의 오존오염도	
		수질오염	수질오염도	
			해수오염도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먹는물의 수질현황	
		수량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형태	
	해안/연안		연간 총 어획량	
	생물종		멸종위기 및 야생 동식물 현황	
	생활환경	생활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공중위생		하수도 보급률
		재생/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율
	폐기물 재활용			

세부관심영역인 '환경의 질'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수량'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안/연안(Seas and Coasts)' 및 '생물종(Biodiversity)'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해안/연안과 관련된 상태지표로는 UNCSO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간 총 어획량(Fishery Production)'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항목과 관련된 지표로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현황(Endangered, Vulnerable Wildlife)'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세부관심영역으로 새로이 추가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생활' 항목이 있으나 '공중위생(Sanitation)'과 '재생/재활용(Reuse and Recycle)' 항목을 추가하였다.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환경부분 승인통계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하수도 보급률(Sewerage System Supply Rate)'을 추가하였으며, 재생/재활용 항목과 관련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율(Share of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과 '폐기물 재활용(Waste Recycling)'을 선정하였다.

다. 환경관리 영역

‘환경관리’ 영역은 ‘환경관리지출’과 ‘환경관리노력’으로 세부관심영역이 분리되어 있다. 환경관리지출에 포함된 통계지표로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과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은 한국은행에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 EPER) 통계의 일반적인 작성기준과 포괄범위가 새로이 수정되어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환경관리노력’은 ‘환경오염’, ‘폐기물 감소’, ‘경제적 도구’ 항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폐기물 감소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환경부분 승인통계인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실적’과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감량’을 추가하였다.

〈표 2-9-19〉 환경관리 영역 새로운 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항목	기존 통계지표	추가 통계지표
환경관리	환경관리지출	환경관리지출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환경오염	환경오염방지 노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재생산업 사업체수	
	환경관리노력	폐기물 감소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실적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감량
			경제적 도구	환경보호 부담의향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3. 신지표체계의 구성

앞에서의 논의를 정리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 대한 새로운 지표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관심영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은 환경압력 - 환경영향 - 환경관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구성체계이다. 다만 용어상에서 ‘환

경영향'보다는 '환경상태'로 PSR구조에 적합한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관심영역에서는 '환경압력' 영역을 '환경오염물질배출'과 '자연자원의 이용'으로 재분류하고, '환경관리' 영역을 '환경관리지출'과 '환경관리노력'으로 세부 분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상태' 영역에서는 이를 '환경의 질' 하나로 분류하고 있어 이 영역을 '환경의 질'과 '생활환경'으로 세부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강조한 항목 부분은 현 단계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다른 부문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생략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에 제시되어 있듯이 꼭 필요한 분류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통계'와 '지표'를 이원화해야 하며, 원래의 정의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목 분류는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목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통계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기초통계는 지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 혹은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항목을 사용하여 PSR체계를 재구성 해보면 어떤 항목이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떤 항목이 꼭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의 사회지표의 환경부문에서 대기부하 등 14개 항목 외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유해화학',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토지', '산림', '해안/연안', '생물종', '공중위생', '재생/재활용' 등 새로운 10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4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24개 항목이 환경부문 지표로 정착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서는 21개 분야의 29개 개별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넓은 의미의 환경지표 정의에 따라 새로 19개 지표를 추가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압력' 영역이 특히 강조되어 새로이 12개 지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환경상태' 영역에서는 새로이 5개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환경관리' 영역에서는 2개의 지표를 추가하였다. 향후 환경관리 영역의 통계지표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기초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서 제시된 19개 지표 중에는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지표는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이 어려운 환경지표의 특성에 따라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통계지표는 시계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구성체계를 바꾸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나 환경부문과 같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나 새

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요구된다. <표 2-9-20>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새로운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였다.

<표 2-9-20> 새로운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부문)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영역	기존 통계지표	추가 통계지표
환경압력	환경오염물질배출	대기부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VOCs 배출량
		수질부하	폐수발생량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1인 1일)	
			지정폐기물 발생량	
		토양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	방사성폐기물배출량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	
		유해화학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기후변화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오존층 파괴		이산화탄소(CO <sub>2</sub> ) 배출량	
	해양오염		CFCs 사용량	
	자연자원의 이용	수자원	상수도보급률	
			1일 1인당 급수량	지하수 이용현황
		에너지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1인당 전력 소비량	
		토지		농지면적 변화추이
				도시화율
	산림		산림면적 임목 벌채	
환경상태	환경의 질	대기오염	대기오염도	
			주요도시의 오존오염도	
		수질오염	수질오염도	
			해수오염도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먹는물의 수질현황	
		수량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형태	
	해안/연안		연간 총 이획량	
	생물종		멸종위기 종 비율	
	생활환경	생활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영역	기존 통계지표	추가 통계지표
환경관리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공중위생		하수도 보급률
		재생/재활용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중 폐기물 재활용
	환경관리지출	환경관리지출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GDP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환경관리노력	환경오염	환경오염방지 노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폐기물 감소	재생산업 사업체수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실적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감량	
	경제적 도구	환경보호 부담의향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 제4절 결론

최근 환경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환경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체계화된 환경지표 생산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통계는 환경행정분야가 상대적으로 뒤늦게 분화되어 나온 점을 반영하듯 여러 통계분야 중에서도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통계 작성항목은 OECD의 통계작성요구와 비교해 볼 때 약 30%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필요통계항목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가능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통계체계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sup>34)</sup>

현재 우리의 환경통계는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통계인 오염측정치를 주로 제시해주고 있어서 오염의 발생원과 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에 제대로 활용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환경통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환경통계는 기초통계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어 실제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환경과 경제를 연계한 통합환경통계체계 개발이 미흡하다.

둘째, 우리 환경통계는 오염매체별로 환경상태만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용가능한 자료가 부족하다. 더욱이 시대적 흐름이나 정보수요와 선호가 반영된 신규통계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sup>35)</sup>

셋째, 환경통계의 작성기관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미비로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보급이 미흡하다.

넷째, 새로운 환경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환경통계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환경친화적인 정책수립과

34)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 각종 환경통계의 분류방법이나 측정방법이 OECD와 상이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자료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5) 환경오염실태에 관한 통계도 오염농도나 오염물질배출량과 같은 1차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1차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또는 2차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통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환경통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통계의 정비 및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통계가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와 방법론에 의해서 작성되는 통계를 하나의 일관된 통계적 방법론 체계하에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경제와 환경을 연계한 체계로 환경통계를 정비개발하고 국가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국제환경통계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측면에서 경제활동과 환경보전을 통합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환경계정(Green GDP)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유엔의 환경계정에서 표방하는 화폐가치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계정 개발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통계 수요에 대비한 정보제공과 보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통계작성체계를 도입하여 환경오염이 배출원인 인간활동과 그로 인한 환경상태 악화, 환경 악화에 대한 인간의 오염방지 활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입각한 통계정비 및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환경부와 통계청, 그리고 유관 관련부처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통계의 종합적 관리 및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통계 작성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환경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나 자료수집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기관들의 정보교환과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자료의 활용이 신속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해당 환경통계의 작성기관간에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통계작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규 통계 개발의 경우 작성기관간의 혼란이 없도록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성 가능한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관련 자료의 생산수집·보급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며 관련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환경통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환경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환경·경제통계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기초 환경통계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설계를 포함한 조사방법, 조사표 설계 등을 위한 통계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공학적·자연과



학적 지식을 갖춘 환경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통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계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환경문제와 통계이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최근 선진국에서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환경통계의 작성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국제환경 전문기관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통계는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학문 및 과학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환경통계의 기초자료도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작성되는 방법도 환경분야와 환경문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통계가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와 방법론에 의해서 작성되는 통계를 어떤 하나의 일관된 통계적 방법론 체계 하에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은 범지구적 관심사항이므로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경통계의 국제적 비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앞에서 열거한 환경통계의 발전방향으로 환경통계의 선진화를 추진하여 OECD나 UN 등 국제기구나 회의에 보고할 환경통계의 일관성 및 국제비교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환경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승준 · 유승훈 · 장정인. 2003. “해양환경종합지수의 개발”.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2권 3호. 487-513
- 강광규 외. 1996. 「환경통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강상목. 1998. 「환경통계 정보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 통계연수원.
- 강상목 · 김명수 · 이명헌. 1999. “환경종합지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학연구」. 제47집 4호. 349-370
- 강상인 외. 2003.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및 녹색 GDP 작성 (1)」. 환경부.
- 강상인 외. 2004.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및 녹색 GDP 작성 (2)」. 환경부.
- 이용우 외. 2001.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임송수. 2000. 농업환경지표(AEIs)와 정책활용 방향. 「OECD 농업환경지표와 정책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42.
- 정영근. 2002. “환경통계 현황과 발전방향” 「환경포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영근. 2003. “환경지속성지수(ESI) 추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39권. pp 51-65
- 정영근 외. 200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환경부.
- 정영근 · 배현희. 2003.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 통계 발전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영근 · 이준. 200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통계청. 1996. 「한국의 환경통계 평가 보고서」.
- 통계청 통계분석과. 2001. 「OECD 환경통계 회의결과 보고」. 통계청.
- 표희동 외. 2000. 「수산부문의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환경부. 2000. 「국가 환경성평가지표 개발·적용 연구-국가지속가능개발지표 개발」.
- 환경부. 2002. 「국가 환경지속성지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tkinson et al. 1999.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 Cobb, C., M. Glickman, and C. Cheslog. 2001.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2000 Update*.
- EU European Communities. 199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 A Pilot Study Following the Methodology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Luxembourg.
- Hamilton, K., 2000, "Genuine Savings as a Sustainability Indicator". The World Bank Environment Department. *Environmental Economics Series*. Paper No. 77.
- Hass et al. 2002. "Overview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Us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STD/DOC(2002)2.
-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0. *Measurement and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iisd.ca/measure/faqs.htm>.
- Loh, J., 2002. *Living Planet Report 2002*. World Wildlife Fund.
- NRTEE. 2001. "NRTEE Indicators Overview Paper". Stock Holder Workshop. National Round Table on Environment and Economy.
- OECD. 1999.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al. Volume 2: Issues and Design--The York Workshop*. Paris. France.
- OECD. 2000.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 OECD. 2001a.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 OECD. 2001b. *10 Indicators for the Environment*.
- OECD. 2001c. *Sustainable Development-Critical Issues*.
- OECD. 2002a. "Sustainable Development: A Framework for Peer Review and Related Indicators". ECO/EDR/DIV(3003)3.

- OECD. 2002b. "Uses and Limi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Report on a Meeting of Trade Union Experts.
- OECD. 2002c. "Indicators to Measure Decoupling of Environmental Pressure from Economic Growth". SG/SD(2002)1/FINAL.
- Pearce, D. 2000. "The Policy Relevance and Uses of Aggregate Indicators: Genuine savings. In OECD". Framework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 OECD Expert Workshop.
- Turner, R. K., 1999. "The Place of Economic Values in Environmental Valuation; Valuing Environmental Preference". *Valuing Environmental Pre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UN. 2001.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United Nations. New York.
- UN. 2002.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Bank. 200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0*. Washington DC. United States.

## 제10장 복 지

### 제1절 서론

우리 경제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달성하고 전체 경제규모도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고실업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는 불경기로 고도의 성장에 수반되는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세계은행·OECD·WTO·UN 등 국제기구와 세계적인 전문 조사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분석,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정리한 '207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를 발간하였는 바, 한국의 삶의 질은 세계 34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한국무역협회, 2004). 인터넷 보급률, D램 매출액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은 경제수준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민정부에 들어서는 '삶의 질의 세계화'가 선포되었고,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도 '삶의 질'은 강조되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한다. 특히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내세우고 있다. 즉 21세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부민안국의 나라이며, 이를 위해 경제발전 뿐만아니라 사회발전, 즉 소득수준 뿐만아니라 '삶의 질'도 세계화되고 일류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상승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나아가 각 부문의 고른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이 국가발전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indicator)는 '즐거움 지수 + 복지 지수'이다. 복지 지수는 객관적 지표로서 경제적, 물질적 조건과 관련된 주택, 이웃, 건강, 재정, 자녀 양육, 친구, 여

가, 정부, 교육 등과 관련된 것이다. 즐거움 지수는 주관적 지표로서 만족감, 행복감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적, 심미적 만족과 사랑과 존경에의 욕구의 실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지표 가운데서도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연대감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이라고 불릴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초에는 미국 정부와 민간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활동에 투자하였고, 사실상 모든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사회지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DeNeuttrille, 1975:42). 사회지표가 단순히 사회상황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삶의 질'을 포괄하는 지표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사회지표의 개발은 삶의 질을 단순한 물량위주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주요 측면을 체계화하여 계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접근방법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이후 사회지표는 포괄적 상황을 제시하는 총체적 사회지표에서 특정영역에 대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특수지표로 발전하게 되었다(김미혜 외, 2000).

우리 나라의 경우 복지지표의 영역과 범위는 복지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국민들의 복지의식이 향상되고 욕구가 다양화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서는 폭넓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제도의 변화와 양적 증가에 따라 복지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노령인구의 증가와 장애범주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는 복지체계의 확충과 개선을 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지표가 이러한 경향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지표의 개발은 첫째, 사회적으로 복지관련 문제나 현상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둘째, 대상인구와 제도의 특성과 영향의 파악, 셋째, 국제 비교요구와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우선 총체적 사회상황을 보여주는 사회지표에서 복지에 초점을 맞춘 특정 영역의 하나로 사회복지지표가 발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총체적 복지상황만을 보여주는 복지지표만을 가지고 특정 복지대상에 대한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는대는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정 복지대상으로 한 지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영역의 복지지표로는 아동복지지표와 여성복지지표가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UN이 주축이 되어 이를 각 나라에 활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복지수준의 상태를 지표를 통해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 복지지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복지수요의 전망과 복지지표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제도, 노인·여성·장애인·아동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세 축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수혜 대상자의 제한, 급여수준의 불충분, 복지재원의 부족, 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의 수준은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경제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향후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복지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의 체계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수요를 종합해 보면,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7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먼저 고령층 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보장, 연금, 공적부조 등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문'에서는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가족

화 또는 핵가족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가족내의 노인부양, 자녀양육기능의 축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복지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이혼율의 증가와 장기불황과 고실업으로 인한 쪽방거주자 등 도시노숙자, 결손가정의 증가로 새로운 차원의 복지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관련 복지수요는 주로 '가족부문'에서 지표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녀양육, 결손가정 등에 대한 지표를 다룬다.

셋째,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를 보면, 먼저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평균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양육기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자녀를 결혼시키고 남는 여생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생애주기상에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노후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한 지표화 노력은 노인복지관련 지표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와 함께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는 여성과 장애인 분야이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사회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 맞벌이 등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보육관련 지표도 개발될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분야의 경우 과거에 비해 이동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범주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구와 함께 복지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97년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분야에서도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제도 전반에 있어서 변화는 대상인구 뿐만아니라 관련예산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복지현상을 나타내주는 복지 지표에도 이러한 변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복지수요는 인구구조, 가족구조, 생애주기, 법 및 제도변화 및 복지여건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복지수요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개별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장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결손가정, 요보호노인, 이동, 여성, 장애인 관련 지표와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지표화하



고자 한다.

## 2. 기존 지표의 평가

사회복지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지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총체적 지표에서 점차 특정영역에 대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특수지표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중 복지지표와 각 복지영역별 지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의 사회지표와 복지부문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복지지표가 차지하는 위상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복지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선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 사회지표 체계 수립시에는 복지를 나타내는 관심영역으로서 사회보장을 두었고 하위체계로서 주로 소득보장과 관련되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인적서비스가 주가 되는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지표가 지표체계에서 누락되었었다(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 1978). 이러한 점은 복지의 영역을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개 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으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복지지표의 기본적인 틀이 불완전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사회지표체계 수립시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분야에는 보험가입 및 적용의 보편화, 보험지급수준의 합리화 및 보험비 부담의 공정화,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심리적 만족이라는 3개의 관심영역하에 14개의 개별지표를 소개하고 있고, 공적부조분야에는 요보호대상자의 전수보호, 공적부조 사업비의 확보와 보호의 질적 향상,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심리적 만족이라는 3개의 관심영역하에 11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는 등 총 25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실제 지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표 2-10-1〉 1978년 최초의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사회보장

	1차 지표	2차 지표	3차 지표
사 회 보 험	보험가입 및 적용의 보편화	적용대상자의 증가	사회보험가입 증가율
			사회보험 적용률
		사회보험지급의 확대	사회보험지급증가율
			연금지급률
	보험지급수준의 합리화 및 보험비 부담의 공정화	총사회보험비	종류별 연간 총사회보험비 증가율
			GNP 대비 총사회보험비비율
		사회보험 지급액 수준	1인당 보험지급액 상승률
			퇴직자의 보험의존도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심리적 만족	보험수급자의 재활	사회보험수급자의 연간 재활률
			피보험자의 만족도
		보험수급자의 만족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태도
			지급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
공 적 부 조	요보호대상자의 전수보호	구호대상인구의 크기	요보호대상인구 증가율
			도시1인당 월평균소득의 1/2미만 소 득인구비율
			구호대상인구증가율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증가율
	공적부조사업비의 확보와 보호의 질적 향상	공적부조 사업비 규모의 변화	공적부조사업비 비율
			재원별 공적부조사업비 비율
		1인당 보호액 수준	1인당 평균 공적부조 생계비 지급수 준
			피보호인구의 칼로리 섭취량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심리적 만족	재활률	피보호자의 연간 재활률
		수혜지속기간	피보호자의 평균 수혜지속기간
		피보호자의 만족도	공적부조 피보호자의 만족도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1978.

그러나 1987년 사회지표의 1차 개편 시에는 이러한 사회보장부문의 지표들은 주로 가족 부문에 포함되어 체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표의 수가 1978년 사회지표체계 수립 시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은 늘어나고 있는 노인문제와 이혼문제 등 가족해체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사회보장부문의 지표들을 가족부문에서 흡수해 버린 결과이다. 이는 사회보장부문의 지표들은 가족생활의 안정과 보호라는 관심영역으로 묶어서 가족영역에서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결과이며, 따라서 복지와 관련하여 제시된 개별지표수는 6개에 불과하였다. 특히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개별지표 수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부조인구, 의료보호 수혜율, 사회복지시설 및 수혜자 수 등 3개에 지나지 않았다.

〈표 2-10-2〉 1987년 사회지표체계 중 복지관련 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 고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보호	사회보험의 보편화	사회보험가입증가율	산업재해보상사업체 및 근로자, 공무원연금대상자, 국민복지연금가 입자 연간증가율
		사회보험지급증가율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 연금, 국민복지연금, 지급건수의 연간증가율
	공적보호	공적보호인구	생활보호대상인구
		의료보호 수혜율	(의료보호수혜자/총인구)*100
		1인당 평균 공적부조 생계비 지급 수준	총 구호사업 생계비/피보호인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별 수용자수	

〈표 2-10-3〉 1994년 사회지표체계 중 복지관련 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 고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보호	공적보호	공적보호인구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수혜율	(의료보호수혜자/총인구)*100
사회계층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수혜자수	양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영·육아수용시설, 부랑아 수용시설

따라서 1987년 개편 시의 복지관련 지표들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높아진 복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반적인 복지지표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관련 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95년 2차 개편 시에는 복지부문을 독립된 부문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1995년의 2차 개편안에서 확정된 사회지표 체계는 13개 부문에 걸쳐 총 59개의 관심영역과 150개의 세부관심영역, 그리고 553개의 개별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문은 4개의 관심영역, 11개의 세부 관심영역, 그리고 43개의 개별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신규지표는 31개이고 장래개발 지표가 7개, 생산가능한 개별지표 36개, 주관적 지표가 5개로 구성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표 2-10-4> 1995년 사회지표체계(복지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복지증진	복지자원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민간모금액 및 사용처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5년전 대비 삶의 질의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사회보험	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인당 평균 부담액
		1인당 평균 급여비
	공적연금	공적연금 적용률
		가입자 대비 수급자
		연금급여 건당 평균 급여비
공적부조	자원	GDP 대비 공적부조예산
		정부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적부조예산
	생활보호	최저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성
		총인구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급여액
		의료보호 수혜율
		임대주택 공급호수

\* : 주관적 지표

〈표 2-10-4〉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복지 수용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시설별 평균 종사자수
	노인복지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 비율
		노인인구 대비 노인시설수용자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
		시설입소희망인구 비율*
	아동복지	보육시설수 및 보육이동현황
		요보호아동 발생수
		소년소녀가장세대수 및 아동수
		아동입양현황
	여성복지	요보호여성수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인복지	장애인 출현율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시설수용 장애인 비율
		장애인의 취업률
		장애인 등록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 주관적 지표

이와 함께 2003년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총 13개 부문에 걸쳐 57개의 관심영역, 총 492개의 개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부문 가운데 복지는 복지증진(1), 사회보험(2), 공적부조(2), 사회복지서비스(4)의 4개 관심영역과 9개 세부 관심영역 및 각 영역별로 총 48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포괄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회지표는 사회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와 상태를 개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지표가 작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지표들이 추가되어 사회복지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그렇지만 복지욕구를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 지표들이 부족하고, 사회복지시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각 대상별 특수한 문제와 상황을 도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지표의 방향은 대상자별로 또는 제도별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주관적 지표의 활용으로 지표란 일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척도와 같기 때문에 주관적 상황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객관적 상황보다는 주관적 상황인식이 개인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더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보충적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와 복지가 개인에게 전달되는 방향과 정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2) 영역별 사회복지지표

사회복지와 관련한 관심영역에 대한 지표들은 1990년 이후 개발되었는데, '사회복지지표 체계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윤혜미 외, 1990)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지표'(이상연, 1998)와 근로자의 복지에 초점을 둔 '근로복지지표'(근로복지공단, 1998)가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지표체계인 윤혜미 외의 연구는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 따라 총 9개 부분에 51개 영역과 114개 하위영역 및 542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복지지표는 근로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다양한 근로복지욕구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주관적 개별지표가 객관적 지표보다 훨씬 많아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정경희 외, 2002).

이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지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된 '직업교육훈련 지표', '국가인적자원개발지표' 등이 있는데, 정부의 교육 및 노동정책의 수립 및 집행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지표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관심영역과 개별지표, 산식과 자료원 등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지나치

개 주관적 지표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관련 지표들 가운데는 주로 대상별로 청소년지표, 여성사회지표, 노인부양지표 등이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인구, 가족, 교육, 보건, 고용, 소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지표는 각 국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기본 지표들과 특정 대상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된다.

아동지표는 전세계 아동에 대한 통계와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데 이의가 있으며, 아동상황에 대한 기본지표와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들은 영양, 교육, 보건부문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동의 전반적인 문제와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서비스 상황이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은 거의 없다.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경향(정영순, 1997)은 아동의 전반적인 문제와 상태를 포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문제와 상태를 지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물론 예측가능한 새로운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영순의 아동지표는 아동의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문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김미혜 외, 2000).

한국의 청소년지표(한국청소년개발원, 1977)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적 지표와 청소년기의 문제인 비행에 초점을 두어 지표구성을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표(이소희 외, 1999)의 경우는 기존의 여러 지표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영역들을 포괄하여 청소년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사회지표(한국여성개발원, 1997)은 주관적 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를 강화하고, 남북한 비교지표를 신설했으며 부문별로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지표를 선정, 제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지표 체계는 여성통계연보에서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김미혜 외, 2000).



〈표 2-10-5〉 사회복지관련 지표

지표종류	지표명	부문·영역·개별 지표수	부문(부문별 영역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2003)	13·57·492	인구(6), 가족(5), 소득과 소비(5), 노동(5), 교육(5), 보건(6), 주거와 교통(4), 정보와 통신(4), 환경(3), 복지(4), 문화와 여가(3), 안전(5), 사회참여(3)
아동청소년지표	UNICEF의 세계 아동상황지표	7·-·47	기본지표와 기본지수 향상율, 영양, 보건, 교육, 인구, 경제, 여성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경향	5·17·78	인구, 경제적안정, 가족소득과 빈곤, 보건상태와 보건케어, 교육달성, 사회적 발달, 행동적 건강, 청소년 임신
	아동지표(정영순, 1997)	6·25·111	인구, 가족, 지역, 경제적 안정, 부모상황, 보건, 교육, 사회복지
	한국의 청소년지표(1977)	7·26·104	인구, 가족, 건강, 문화, 복지, 비행
	청소년 복지지표(이소희 외 2인, 1999)	8·36·207	인구, 가족, 지역, 경제적인정, 부모상황, 보건, 교육, 문화, 정보·통신, 사회복지
여성지표	여성사회지표(1998)	10·34·196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및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국제비교
노인지표	노인부양지표(이가옥 외, 1990)	4·19·174	사회인구 및 노인복지재정, 경제적 욕구, 건강상의 욕구, 심리사회적 욕구
	노인복지지표(김미혜 외, 2000)	26·53·120	인구·가족, 교육, 정부·민간예산, 주거, 부양, 소득·고용, 보건·의료, 안전, 여가·사회활동, 서비스현황, 고용서비스, 주거만족도, 안전에 대한 만족도, 여가·사회활동 만족도, 삶의 만족도, 주거만족도 등
	노인복지지표(정경희 외, 2002)	5·14·118	배경(인구, 예산, 가치관), 기본생활(건강, 경제생활), 사회적 안전망(보건의료, 소득고용, 사회보호, 환경), 사회적 연계(비공식적 지지망, 사회활동, 연계지원), 사회적 배려(권익보호, 자아실현)

주: 김미혜 외(2000)의 표에서 재구성

자료: 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2) 정영순, 아동복지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권, 1997.

3)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의 청소년지표, 1977.

4)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999.

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8

6) 이가옥 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7) 김미혜 외, 노인복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00.

8) 정경희 외, 한국의 노인복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한편 노인부양지표(이가옥 외, 1990)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개발된 최초의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노인부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이나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준거틀로 하여 욕구의 충족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조망하고 있다. 한편 김미혜 외(2000)의 노인복지지표는 전반적인 노인복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 개별 객관적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2002년에 발간된 '한국의 노인복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정경희 외, 2002)는 Maslow의 욕구단계론을 토대로 노인복지정책의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배경부문, 기본생활,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연계, 사회적 배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노인의 삶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델파이조사를 통한 방법에 있어서 다른 지표와 차별성이 있다.

### 3. 국외연구의 검토

#### 가. 미국 및 국제기구의 사회지표체계

1960년대부터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회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사회학자인 Ogburn은 사회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집대성하여 대통령 특별 위원회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회보고 모델은 사회의 변동과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기에 수록된 통계는 사회생활을 평가하는 척도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은 국제간 비교를 위해 좋은 자료라고 인정됨으로써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관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사회지표개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사회지표 운동이 그 열기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줄어들게 되었다. 주된 이유는 사회통계 및 지표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연구자 사이에 어떤 통계와 지표를 선정해야 하는가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기대수명이나 교육정도와 같은 지표들은 그 타당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었으나 그외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서는 상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에 있어서 사회지표보고서는 1980년 제3

판이 나온 이후 지속적인 발간은 중단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기본적인 자료를 얻기가 쉬워졌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UN 등 국제기관에서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한 사회지표 개발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사회지표의 한 형태로서 “삶의 질”에 관한 국제간 비교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OECD는 1988년에 발표한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의 급격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의 사회보호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OECD는 사회의 노령화 경향으로 인한 취약 노인 및 장기요보호 등 새로운 문제와 직업유형의 변화, 편부모가정의 증가 등 새 욕구가 분출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박광덕, 2002).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사회지표체계는 <표 2-10-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10-6> 국제기구의 사회지표체계

UNRISD 생활수준지표(1966)	UN통계국 SSDS 지표체계 (1975)	OECD 사회지표 (1988)
1. 영양 2. 주거 3. 건강 4. 교육 5. 여가 6. 안전 7. 잉여소득	1. 인구 2. 가족 및 가구 3. 교육 4. 경제활동 5. 소득·소비·저축 6. 사회보장과 복지시설 7. 건강과 영향 8. 주거환경 9. 치안 10. 시간과 여가이용 11. 계층과 사회이동성	1. 보건 2. 학습을 통한 인간발달 3. 교육과 노동, 생활의질 4. 시간과 여가 5. 개인의 경제상태 6. 물리적 환경 7. 개인의 안전과 법집행 8. 사회적 기회와 참여

주: 박광덕(2002)에서 재인용

## 나. 일본의 사회지표체계

### 1) 신국민생활지표(PLI: People's Life Indicators)의 작성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정세의 급속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1986년 3월 국민생활지표(NSI: New Social Indicators)체계가 구축되었다. NSI는 사회지표의 개발작업이 시작된 1970년대 초반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시대와 비교하여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사회정세나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여 간다는 인식하에 만들어 졌으며, 1992년에는 이러한 NSI 를 보완한 PLI를 제안하고 있다. PLI에 수록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지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활동영역은 주거, 소비, 노동, 양육, 건강, 여가, 교육, 교제 등 8개 이며, 표에서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은 PLI에 있는 독특한 것으로서 4개 생활평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각 활동영역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안전·안심'은 개인의 욕구로서 보다 기본적인 축을, '공정'은 격차의 축소와 사회의 온건한 정도, '자유'는 개인생활에서 선택의 폭을, '쾌적'은 보다 활기찬 생활이 가능한가를 각각 나타낸다.

### 2) 사회생활 통계지표

이러한 신국민생활지표체계와는 별도로 UN의 SSDS(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체계를 기초로 하여 총무청 통계국에서는 '사회생활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관점이 종래의 GNP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양적인 발전지향에서 전체로서 균형잡힌 복지사회실현의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특성의 신장과 다양화에 따라 행정에 있어서 지역문제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시책의 전개가 중심적 과제로 되고 있다. 여기에 수반하여 경제통계 데이터 뿐만아니라 사회통계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높고, 광범위한 지역별 정보의 체계적인 확충과 정비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래의 국민경제계정을 중심으로 한 통계에서, 경제계정을 보충 또는 확장하고, 보다 종합적인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행해 졌다. 이는 국민경제계정체계가 경제계획의 책정과 평가에는 유용하지만, 국민의 사회생활이 경제계획만으로는 충분

히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시도부현, 연구기관 등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지표화한 사회지표 등의 시산과 개발이 행해지게 되었다.

총무청 통계국에서는 1975년부터 사회통계의 정비에 착수하여, 지역별로 각종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특성의 파악, 분석 등에 이용하기 위해 1976년도에 사회생활통계지표의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1981년에는 사회인구통계체계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러한 사회인구통계체계의 정비는 국민의 사회생활에 관한 통계데이터를 지역별로 수집하여 국제연합이 제창하고 있는 SSDS의 취지에 따라서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총무성 통계국, 2004)에 의하면 사회생활지표로서 인구·세대, 자연환경, 경제, 행정, 교육, 노동, 문화·스포츠, 주거, 건강·의료, 안전, 가계, 생활시간과 함께 복지·사회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는 주로 행정계통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보고통계를 중심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보장 부문은 사회보장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정원 및 입소자수, 복지활동, 연금 등 크게 6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되면서 관심영역이 고용보험과 노재보험(勞災保險)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1995년에 비해 기존의 항목 외에 사회복지시설 영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유료노인홈수'가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정원수 및 재소자수에 '65세 이상 인구 천명당 유료노인홈 정원수', '65세 이상 인구 천명당 유료노인홈 재소자수'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총 개별 지표수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1개이다.

〈표 2-10-7〉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체계(복지·사회보장)

사회 보장	사회보장 대상자	월평균보통세대천세대당 생활보호피보호실세대수
		월평균인구천명당 생활보호피보호실인원
		월평균인구천명당 생활보호교육부조인원
		월평균인구천명당 생활보호의료부조인원
		월평균 65세 이상 인구천명당 생활보호피보호노인수
		인구천명당 신체장애자수침교부수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피보호실인원 10만명당 보호시설수
		65세 이상 인구10만명당 노인홈수
		65세 이상 인구10만명당 유료 노인홈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센터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노인 레크리에이션 시설수
		인구 10만명당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수
		인구 10만명당 정신박약자 원호시설수
	인구 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보호피보호실인원천명당 보호시설종사자수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노인홈 종사자수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노인복지센터 종사자수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노인 레크리에이션 시설 종사자수
		인구 10만명당 신체장애자 갱생 원호 시설 종사자수
		인구 10만명당 정신박약자 원호 시설 종사자수
		인구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정원 수 및 재소자수	피보호실인원 천명당 생활보호시설 정원수
		피보호실인원 천명당 생활보호시설재소자수
		65세 이상 인구 천명당 노인홈 정원수
		65세 이상 인구 천명당 노인홈 재소자수
		65세 이상 인구 천명당 유료 노인홈 정원수 *
		65세 이상 인구 천명당 유료 노인홈 재소자수 *
인구 10만명당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시설정원수		
인구 10만명당 신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재소자수		
인구 10만명당 정신박약자 원호시설 정원수		
인구 10만명당 정신박약자 원호시설 재소자수		

〈표 2-10-7〉 계속

사회 보장	복지활동	인구10만명당 민생위원(아동위원)수
		인구10만명당 신체장애자 상담원수
		인구10만명당 정신박약자 상담원수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노인홈 헬퍼(helper)수
		인구10만명당 기타 홈 헬퍼(helper)수
		시설당 방문간호 이용자 수
		민생위원(아동위원) 1인당 상담·지도건수
		피보호세대 천세대당 생활보호 신청건수
		인구천명당 신체장애자갱생원호취급실인원
		인구천명당 신체장애자 갱생 상담소 취급실인원
		인구10만명당 복지사무소 정신박약자 상담실인원
		인구10만명당 정신박약자 갱생상담소 취급실인원
		연금
	20-59세 인구천명당 국민연금피보험자수 (제3호)	
	의료보험	인구 천명당 의료보험 가입자수
		의료보험 가입 인구 천명당 급여건수
		의료보험 건당 급여액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료보험 적용수
		공무원의료보험 가입자 천명당 급여건수
		공무원의료보험 피부양자 천명당 급여건수
공무원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급여액		
공무원의료보험 피부양자 1인당 급여액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자 비율	
	고용보험의 기본급여액 평균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중 일용직 비율	
	고용보험의 일용직 기본급여액	
산재보험	산재보상보험 수급노동자 비율	
	산재보상보험 평균 급여액	
	재해빈도율	
	재해강도율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사회생활통계지표』, 2004.

#### 4. 신 지표체계의 방향

사회복지지표체계는 사회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앞으로 변화하는 복지수요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지표는 궁극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표의 기능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여건에 대한 사실 보고와 장래의 예측, 사회적 조건의 변화 방향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원이라는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체계의 기능은 사회복지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공급의 측면인 국가적 복지정책의 현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적정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참여복지)로 되어 있다. 즉, 「복지의 보편성, 「국가 책임」의 강조, 「국민의 참여」로 요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으로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적극적 탈빈곤, 일을 통한 자활 촉진, 차상위계층의 보호 확대 등이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도 복지지표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 지표체계는 기존의 지표체계를 근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수요와 개별적인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사회지표체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의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개인 및 가족과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보충적 의미를



벗어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식주와 건강·교육 등 기본생활에 있어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적극적이고도 종합적인 제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즉,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등도 포함되는데, 사회지표체계에서는 광의의 사회복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사회보장의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보장)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왔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이 노령과 질병, 사고로 인한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나 노령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 겪게 되는 생계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이차적 안전망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자조, 자립, 자활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치료, 예방하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을 고양시키며,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완화 또는 제거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모·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제도가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본 지표체계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지증진이란 관심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총 4개의 관심영역과 총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을 두었다.

## 2. 신 지표체계

### 가. 복지증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결국 복지증진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관심영역으로 설

정하였었다. 「복지증진」이라는 관심영역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자원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지표로서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한나라의 복지수준을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로 인식됨에 따라 국제비교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의 정부와의 연계방안 등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표화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을 나타낼 수 있는 개별지표로서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민간모금액'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995년 지표에 비해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항목이 서로 유사하고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삭제하였다.

## 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은 질병·부상·노령·장애·사망·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의해 초래되는 생활곤란을 사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의 강제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특성을 갖는 제도로서 복지사회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이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특징은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제도에는 의료보장과 공적연금을 다루었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건강보험제도

의료보장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그 구성은 크게 기여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와 기여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여기서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관심영역에서 다루기로 한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분산시켜 의료이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

로 최초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 7월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조합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의료보험제도는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단일 공단으로 관리운영체계가 통합되었으며, 2003년에는 재정통합을 통해 건강보험의 직장·지역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출발한 보험제도는 꾸준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인해 보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건강보험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며, 이는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진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보험급여구조의 개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관련 지표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각종 급여수준 및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지표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의료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보여 주고 미해결 욕구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인당 평균 부담액 및 평균급여비'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 2)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도입시기를 보면 1960년 공무원연금,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제도가 먼저 도입되었다. 그 후 198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때 우선적으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적용 가입자로 하였다. 1991년 8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1999년부터는 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에게 연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실업자들을 적용범위에서 제외시켰고, 제도 도입당시의 노인은 제도외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적용범위에 대한 지표와 급여수준에 관한 지표도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된 개별지표는 '공적연금 가입자',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 평균 급여액'이며,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 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계의 보장에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책임주의의 표현이며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생활보장에 참여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상별로는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가지이다. 최저생활수준보장(national minimum)이라는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부조의 급여는 대상자들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조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는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로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사업규모와 재정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주로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61년의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되다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급권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근로유인을 통해 자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제도와 크게 달라졌다고 하겠다. 즉,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던 것을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우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보장을 한 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초수급자(약 140만명) 중심으로 추진하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약 320만명 추정)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자활사업 대상 선정기준도 재산·부양비 부과 제외 등 실질소득기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자활사업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도 우선 임시직 등의 조건부과제의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근로빈곤층 및 차상위 근로빈곤층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된 개별지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조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GDP 대비 공공부조예산'과 '정부예산 대비 공공부조 예산', 그리고 '사회보장예산 대비 공공부조예산'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을 추가하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세부관심영역 속에는 공공부조제도의 지급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비율', '의료급여대상자 비율', '연령별 기초생보대상자 비율',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을 선정하였고, 추가로 노숙인에 대한 실태와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내용은 '노숙인 보호시설 실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생계, 의료 및 주거 급여의 범위,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서비스 충족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보험·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의 중심사업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취약한 계층인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기능과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욕구와 애로사항의 해결 및 완화를 지원해 주는 전문 사회복지사업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제 수행하는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영역을 노인복지, 아동복지, 모(부)자복지, 장애인복지로 나누어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세부관심영역으로서 '자원'에 포함되는 지표로는 구체적으로는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사회복지시설별 평균 수용인원',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 수'이며, 이외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와 '종별지역사회복지관수'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약 1천여개가 넘고 있어 수적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2001년부터 그 규모가 파악되고 있어 추가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공공이나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총괄적인 복지인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를 담당하는 주요 복지시설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다. 또한 사회지표에 수록된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복지적 성격 보다는 문화·여가의 성격이 크므로 본 영역에서는 삭제하였다.

## 1) 노인복지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시책,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 보건의료, 취업, 주택, 교통, 여가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데 19년(2000년→20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불과 7년(2019년→20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복지영역에서의 지표는 '인구' 부문과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 '복지시설 생활인 비율', '시설수 및 입소자'를 개별지표로 선정하였으며, 1995년과 비교하여 치매노인 비율은 보건 부문에서 '치매 유병률'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또한 유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와 유료시설에의 입소희망인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장래 살고 싶은 곳' 항목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와 있는 65세 이상과 60세 이상의 기준은 혼동되므로 일관되게 한가지 기준(65세)으로 사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들에게 가장 적절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다. 최근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양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 및 미아 등 가족찾기사업 활성화를 통한 요보호아동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03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보육서비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사업도 2004년 6월부터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1950년대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주로 고아의 보호에서, 1960년대에는 가출아동문제, 1970년대이후에는 기아문제로 변화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 불황과 만성 실업 등으로 빈곤가정이 늘고 가족 구조적으로도 이혼과 별거의 증가, 미혼모, 맞벌이부부, 가출 등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아, 미아 등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아동문제에 대응하고자 종전의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에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나 주로 치료적, 보완적,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개별지표는 ‘자녀 양육실태’,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아동입양기관 및 입양아 수’ 등이며 ‘위탁아동수 및 보호현황’을 추가하였다.

### 3)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법은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자가정을 지원)을 근간으로 시행되어 오다 경제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6조(국가등과 가정)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1995년부터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모자가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2년부터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여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세부관심영역에 추가하였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2002년 6월말 현재 모·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대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되며, 지원내용은 모·부자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즉,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업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인 모자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이 있다. 미혼모나 윤락여성은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어려우나 부녀상담소를 방문하는 경우 이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995년의 지표에

서는 요보호 여성(미혼모, 가출여성) 한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모·부자복지를 나타내는 개별지표로서 모·부자복지서비스의 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부자복지시설 수 및 인원',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을 선정하였다.

#### 4)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가족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을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원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정상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범주의 확대로 1999년에 내부장애와 발달장애 등이 추가되었고 2003년부터는 간질, 안면장애, 간, 호흡기, 장루장애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15종의 장애가 법정 장애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서는 직·간접적 소득지원,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출현율과 복지욕구 등 장애인의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는 5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인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주로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지표에는 기존의 '장애인 출현률',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장애인 취업자비율', '취업희망 장애인비율', '장애인등록률'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비율', '장애인중 복지시설 수용자 비율',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희망하는 복지혜택'을 추가하여 개별지표로 선정하였다.



마. 신·구 지표체계의 비교

<표 2-10-8> 1995년 지표에서 삭제된 지표 및 추가된 지표

항 목	개별지표	비 고
삭제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li> <li>-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li> <li>-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li> <li>- 노인중 치매노인 비율</li> <li>- 유료노인시설 수 및 입소자 수</li> <li>- 시설입소 희망인구 비율</li> </ul>	<p>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대체</p> <p>상동</p> <p>상동</p> <p>보건지표에 포함</p> <p>장래살고 싶은 곳 항목으로 대체</p> <p>장래살고 싶은 곳 항목으로 대체</p>
추가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li> <li>-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li> <li>-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li> <li>- 노숙인 수 및 보호시설 현황</li> <li>-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li> <li>- 종별지역사회복지관수</li> <li>-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li> <li>-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li> <li>-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li> <li>-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li> <li>-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li> <li>-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중사상의 지위</li> <li>-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li> <li>- 노인문제</li> <li>-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li> <li>- 65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li> <li>-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동의향</li> <li>-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li> <li>-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곳</li> <li>- 모자보호생활시설 수 및 인원현황</li> <li>-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li> <li>- 자녀양육 실태</li> <li>- 위탁아동 수 및 보호현황</li> <li>- 취업희망장애인 비율</li> <li>-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li> <li>-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li> <li>- 희망하는 복지혜택</li> </ul>	<p>2003 사회지표 수록</p> <p>신규추가</p> <p>신규추가</p> <p>신규추가</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장애인, 아동, 노인복지관 등</p> <p>신규추가</p> <p>신규추가</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신규추가</p> <p>신규추가</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신규추가</p> <p>2003 사회지표 수록</p> <p>신규추가</p> <p>신규추가</p> <p>신규추가</p>

<표 2-10-9> 신·구 지표체계의 비교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주관적 지표
1995년 지표	4	11	43	5
개선안	4	10	62	8

〈표 2-10-10〉 신 사회지표체계(복지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 고
복지증진	자원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 예산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	추가 - 한국사회지표
		기업복지재단수 및 재단출연금	
		민간부문 모금액	수정
		5년전 대비 삶의 질 개선여부 *	삭제
		현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삭제
사회보험	의료보장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삭제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	
	공적연금	1인당 건강보험 급여액	
		공적연금 가입자	
	공적연금 수급자	수정(수혜·수급)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보장에 대한 인식 *	추가	
공공부조	자원	정부예산 대비 공공부조 예산	
		GDP 대비 공공부조 예산	
		사회보장 대비 공공부조 예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추가
	기초생활 보장 진급구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최저생계비	
		노숙인 현황 및 보호시설수	추가
사회복지서비 스	자원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추가 - 한국사회지표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생활인원	
		사회복지시설별 평균종사자수	
		종별지역사회복지관수	추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추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	추가

<표 2-10-10>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 고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노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중 복지시설 생활인 비율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	
		60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여부	연령(65세)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추가 - 한국사회지표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	추가 - "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추가 - "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추가 - "
		노인문제	추가 - "
		60세 이상 생활비(용돈) 마련방법	연령(65세), "
		60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	연령(65세), "
		60세 이상 여가시간 활동의향 *	연령(65세), "
		60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	연령(65세), "
	60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	연령(65세), "	
	모·부자복지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추가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	추가
		부랑인 생활시설 및 생활인원현황	추가
	아동복지	자녀양육 실태	추가 - 한국사회지표
		소년소녀 가장 가구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 수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위탁아동 및 보호현황	추가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장애인 출현율	
		장애인 취업자 비율	
		장애인중 복지시설 수용자 비율	
		취업 희망 장애인 비율	추가 - 한국사회지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추가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비율	추가
희망하는 복지혜택 *	추가		
장애인 편의시설수	추가		

\* 주관적 지표

## 제4절 결론

복지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세부적인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통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작업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혀 있다. 객관적인 지표와 척도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민들의 복지의식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지표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고 현실과 악과 앞으로 변화하는 복지수요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복지공급의 대상자의 다양한 인식과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보고 즉 사회여건에 대한 사실적 보고와 장래상황의 예측 기능, 사회변화에 대한 측정 즉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사회복지정책 수립지원 즉 복지수준의 향상이 가져오기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 갖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이란 객관적이고 물질적 상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대상자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구성이 중요하다.

본 지표체계안에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복지증진이라는 영역을 여기에 추가하여 총 관심영역의 수는 4개로 하였다.

먼저 복지증진 영역에서는 「자원」이라는 세부관심영역 속에 5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영역에서는 「의료보장」과 「공적연금」이라는 세부관심영역속에 7개의 개별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공공부조영역에서는 변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고 총 10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인 「자원」 세부영역과,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별 분류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모·부자복지」, 「장애인복지」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은 9개, 노인복지 14개, 모·부자복지 2개, 아동복지 6개, 장애인복지 9개의 개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지표는 각 관심영역 및 세부관심영역을 반영하되 자료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체계를 보면, 관심영역 4개, 세부관심영역이 10개, 개별지표수는 총 62개이다. 1995년의 복지관련 지표의 구성이 4개의 관심영역, 11개 세부

관심영역, 총 43개의 개별지표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비교하면 개별 항목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신 지표체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부문을 복지증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지표를 체계화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수준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복지자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여 현 복지여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비록 자료에는 한계가 있지만, 노숙자나 미신고시설 등 비공식부문의 복지실태와 요보호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지표』, 1998.
- 김미혜 외,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1호, 2000.
- 김혜영 외, 청소년복지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권 2호, 1999.
- 박광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보』, 9권, 2호, 2002.
- 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3.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3.
- 윤혜미·김환준·강혜규, 『사회복지지표의 체계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정경희 외,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정영순, ‘아동복지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1997.
- 조남훈 외, 『한국의 사회지표의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통계청, 『2003 한국의 사회지표』, 2003.
- 통계청, 『통계로 본 OECD 국가와 한국』, 1995.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9.
-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의 청소년 지표』, 1997.
-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신국민생활지표』, 1995.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사회생활통계지표』, 2004.
- Biderman, A. D.,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Bauer, R. A(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ss: MIT Press, 1966
- De Neuttrille, J.L,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 Amsterdam: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 1975.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 US Department of Commerce, *Social Indicators III*, 1980.
- <http://www.stat.go.jp/data/ssds/5.htm>

## 제11장 문화와 여가

### 제1절 서론

문화와 여가부문이 사회지표 내에 포함된 것은 1985년이다. 이후 두 차례의 사회지표체계 개편(1987년, 1995년)에 따라 관련지표가 대폭 개편된 바 있으며, 매년 약간 수정되어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생산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문화와 여가부문지표는 모두 41개가 수록되어 있다.

금번 사회지표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문화와 여가지표 개편작업은 문화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 처음으로 수행되는 지표체계 개편작업이라는 점이다. 20세기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이며, 주된 사회적 의제가 산업화의 진행과 결과인 경제, 노동, 사회복지 등이었다. 21세기는 노동과 자본에 기초한 산업사회와는 달리 창의력과 상상력이 주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문화의 세기로, 예술관람과 참여, 여가활동 등이 개인의 삶의 양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기능한다. 경제 제일주의에 입각한 압축 근대화(산업화)의 지난 세기, 우리에게 문화는 삶의 구성요인이 아니라 호사스런 사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많은 노동시간과 경쟁적인 사회구조에서 문화생활의 이미지는 소수 계층의 유희이거나 삶과 유리된 교양에 가까웠다.

우리사회에서 문화와 여가생활에는 세 차례의 분기점이 있다. 첫 번째는 197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장이다.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률은 1970년 6.4%, 1975년 30.7%, 1980년 86.7%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텔레비전 시청은 현재까지 여가활동의 최다빈도(62.7%)로 나타나고 있다(『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두 번째는 소비지출에서 교양오락비 지출비중이 3%를 넘어선 1980년대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1980년 후반부터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였다. 물론 현 시점에 보면 미약한 수준이지만, 승용차의 보급률의 증가(자가용 1대당 인구는 1985년

90.9명으로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이후 1990년 22.5대, 2000년 6.0대로 급속도로 줄었다.)와 함께 옥외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가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2000년대다. 주 5일 근무제가 공식적으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실제로는 금융과 대기업 등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여가시간의 증대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화된 자료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문화와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연결된다. 금번 지표체계는 문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기존의 문화와 여가활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문화적 욕구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이 삶의 전 영역에 깊숙이 개입한 다음에 처음으로 개편되는 지표체계라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문화와 여가의 접근방식 역시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현 시점의 문화와 여가환경은 2차 지표체계 개편 시기(1995년)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가장 고전적인 여가활동인 텔레비전 시청과 신문구독 양태도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된 정도다. 2000년에 실시된 『사회통계조사』에서 온라인 신문구독을 새롭게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인터넷은 단순히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게임 같은 새로운 문화와 여가유형을 창출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의 수용형태를 새롭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금번 지표체계 개편에서는 이점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화로 이행되는 시기에 지표체계가 개편된다는 점이다. 문화부문에서도 시민 참여와 모니터링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찍이 주장되어 온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문화복지와 문화에 술교육 등과 연결된다.

사회적 소수자의 소득보장과 보건의료 혜택 같은 기본적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두었던 복지개념이 행복추구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화와 여가생활을 커다란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는 문화복지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6년을 문화복지 원년으로 삼은 이래, 근린 생활공간에서 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시



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향유 증대와 문화사회 형성의 제1의 조건으로 인식되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화와 여가활동,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는 지역, 연령, 학력,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통해 응답자 속성별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새로운 기준, 곧 지표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금번 지표체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보완하고자 하였다.

## 제2절 기존지표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 방향설정

### 1. 기존 지표체계 검토

#### 1) 외국사례 검토

##### 가. 국제기구의 지표체계

외국에서 문화와 여가에 대한 통계(statistic)를 작성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지표(indicator)를 설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화관련 국제기구인 UNESCO에서 문화통계 작성에 대한 기준(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1986)을 작성한 바 있고, 이후 지표체계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UNESCO의 작업을 살펴본 다음, 몇몇 국가의 문화와 여가부문 통계를 추출해 보았다.

1986년 UNESCO에서 발표한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는 문화통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곧, 문화를 영역과 기능별로 나누고 이를 교차시켜서 개별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문화영역은 모두 열 가지로 분류하고, 기능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영역은 ① 문화유산, ② 출판물·문학, ③ 음악, ④ 공연예술, ⑤ 조형예술, ⑥ 오디오, ⑦ 시청각 매체, ⑧ 사회문화적 활동, ⑨ 스포츠·게임, ⑩ 환경·자연 등 열 가지다. 그리고 기능은 ① 창작(생산), ② 유통(분배), ③ 수용(소비), ④ 등록(보존), ⑤ 참여 등 다섯 가지다.

가로축에 열 가지 문화영역을 위치시키고 세로축에 다섯 가지 기능을 위치시켜 교차지점에서 작성 가능한 통계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 같은 행렬구조에 따라 통계항목을 추출하고자 하므로 비교적 체계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 기능이 일괄적으로 조합되지 않아서 모든 교차지점에서 통계항목을 생성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여덟 번째 영역인 ⑦ 사회문화적 활동이다. 사회문화적 활동은 기능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창작과 유통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고, 수용과 등록 그리고 참여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영역은 다시 세부영역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⑩ 문화유산은 0.1 역사적 기념물, 0.2 고고학적 유산, 0.3 박물관, 0.4 기록보관유산, 0.5 기타로 재분류된다.

〈표 2-11-1〉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구성원리(UNESCO, 1986)

기능 문화영역	문화활동	창작·생 산	유통·분 배	수용·소 비	등록·보 존	참여
0. 문화유산						
1. 출판물·문학						
2.3 음악, 공연예술						
4. 조형예술						
5.6 오디오·시청각매체						
7. 사회문화적 활동						
8. 스포츠·게임						
9. 환경·자연						

UNESCO에서는 1986년 생성한 문화지표체계 이후 명시적인 지표를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문화)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99년 7월 UNESCO 통계연구소(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를 설립하였다. 연구소는 국제교육지표(World Education Indicators; WEI)를 개발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준화된 문화지표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2002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문화통계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ulture Statistics)을 개최하였는데, 표준화된 문화지표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다만 국가별로 문화지표와 통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UNESCO에서는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문화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지표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국가별 문화통계

문화통계가 가장 발달한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다. 정체성 위기를 문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노력으로 두 국가는 문화통계를 비롯하여 문화일반의 행정지원이 활발한 국가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명시적인 문화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통계 작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한 지침을 지니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04년 펴낸 Canadian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는 UNESCO의 1986년 자료와 거의 비슷한 체계—문화영역과 기능의 조합—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점은 환경,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기술 등은 문화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산업과 문화직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문화통계 작성 시 문화의 개념을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활동, 이러한 활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영역은 창조, 생산, 제조, 분배(유통), 문화상품, 소비의 과정<sup>36)</sup>을 거치는 데, 각각의 교차점에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는 2001년 문화와 여가분류체계 Australian Culture and Leisure Classifications를 제시하였다. 문화와 여가의 분류체계는 사회지표의 일환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 산업분류, 생산분류, 그리고 직업분류와 연동해서 작성되었다.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문화는 모두 4가지 영역—① 문화유산, ② 예술, ③ 스포츠/체육활동, ④ 기타문화 및 여가—으로 구성되며, 세부영역은 다음과 같다.

36) 이 과정에서 지원과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창작, 생산, 제조, 유통, 문화상품의 제 과정을 창조적 사슬 Creative Chai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표 2-11-2〉 호주의 문화여가 분류체계(호주통계청, 2001)

1. 문화유산	1.1 박물관, 골동품 및 수장품 1.2 자연유산 1.3 도서관과 기록보관소
2. 예술	2.1 문학과 출판미디어 2.2 공연예술 2.3 작곡과 음반 2.4 미술과 공예 2.5 디자인 2.6 방송, 대중매체, 영화 2.7 기타
3. 스포츠·체육활동	3.1 경마와 경견 3.2 스포츠·체육활동 장소 3.3 스포츠·체육활동 서비스 3.4 스포츠·체육용품 제조와 판매
4. 기타문화 및 여가	4.1 도박 4.2 위탁산업(놀이공원 등) 4.3 교제(카페, 레스토랑, 클럽 등) 4.4 옥외여가 4.5 지역사회와 단체활동(동호회, 종교단체) 4.6 기타 문화여가 서비스 4.7 문화여가시설 건립 4.8 기타문화 및 여가상품 제조와 판매

이를 생산체계에 적용하면 '문화유산서비스'에서 '문화와 여가공간 및 시설'까지 모두 26개 범주로 분류되고, 직업체계에 적용하면 경영인·행정가에서 노동자와 소매상까지 모두 9개 범주로 분류된다.

미국 통계국(Census Bureau)에서 1878년부터 발간하는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3년 발간책자에 문화관련 통계는 31개 영역 가운데 26번째로 '예술, 오락, 여가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예술, 오락, 여가영역'에는 모두 35개의 통계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수록통계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된 내용은 여가

활동,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국내외 관광이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總務省 統計局)에서 2004년에 발간한 『日本統計年鑑』에 문화관련 통계는 27개 분류체계 가운데 23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문화통계는 다시 ① 문화관련 직업, ② 문화시설/문화재, ③ 출판/매스커뮤니케이션, ④ 스포츠/오락/공원 ⑤ 종교, ⑥ 생활 시간/생활활동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 문화통계 작성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와 호주사례에서 보듯이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등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우리의 문화예술통계가 산업분류 또는 직업분류와 연결짓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표체계 작성 시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지표체계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규정이 없고, 신뢰할 만한 문화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지표체계와 다른 분류체계 설정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2-11-3〉 일본통계연감의 문화부문(일본통계국, 2004)

문화시설·문화재	박물관 국립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부속도서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기념물 수 지방정부 지정문화재 및 기념물 수 지역별 문화재 수
출판·매스커뮤니케이션	도서출판사 수 잡지출판사 수 지역별 신문발행부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수 및 텔레비전 수신계약자 수 프로그램별 방송시간
스포츠·오락·공원	레저관련 산업 연매출 및 영업비용 지역별 스포츠시설 수 영화 주요 여행사의 여행취급현황 매체별 광고비 지출 교양오락비 지출비중 공원 지역별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종교	종교
생활시간·생활활동	연령별, 직업별 시간이용실태(1주일) 행동별 1일행위자 비율 및 평균시간 연령별, 요일별 여가활동 비율 및 평균시간 여가활동 참여율 연령별, 계층별 학습·연구·스포츠 참여비율 연령별, 계층별 여행·관광 참여비율

## 2) 국내 지표체계

우리의 문화와 여가관련 지표는 통계청의 사회지표에 포함된 지표와, 문화관련 부처에서 생산하는 문화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사회지표에 포함된 문화지표

통계청에서 설정한 한국의 사회지표는 5단계(전체,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로 구성된다. 사회지표체계는 13개 부문(①인구, ②가족, ③소득·소비, ④노동, ⑤교육, ⑥보건, ⑦주거·교통, ⑧정보통신, ⑨환경, ⑩복지, ⑪문화·여가, ⑫안전, ⑬사회참여)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각 부문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개별지표들의 통계치를 조사·수집하면서 매년 지표체계를 조금씩 보완하는데, 2003년 현재 문화와 여가부문의 지표는 <표 2-11-4>와 같다.

문화와 여가부문은 관심영역은 ① 문화예술활동, ② 여가활동, ③ 문화의식 세 가지로, 세부관심영역은 ① 문화예술지원 및 활용, ② 문화생활용품 보급, ③ 매스컴에 대한 접근과 인식, ④ 문화활동기회 향유, ⑤ 관광여행, ⑥ 여가 및 체육활동, ⑦ 시간배분, ⑧ 문화의식 등 여덟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 지표체계는 관심영역은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세부관심 영역의 구분이 정교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공연장 입장률, 독서인구 비율, 비디오시청률 등이 모두 동일한 관심영역(문화예술활동)에 속해 있지만, 각각 다른 세부관심영역(문화예술지원 및 활용, 문화생활용품 보급, 문화활동기회 향유)에 포함되어 있다. 세 가지 항목은 모두 문화활동기회 향유에 포함되거나 문화예술활용에 포함되어도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 결국, 현행 지표체계는 문화의 영역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표 2-11-4> 2003 문화와 여가부문 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지원 및 활동	정부예산 대비 문화관광부 예산	
		문화관광부예산 대비 문화부문 예산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공연장 입장률	
		전시장 입장률	
		도서관 수	
		인구 만명당 도서관 열람석 수	
		인구 만명당 장서 수	
		연간 도서관 이용자 수	
		문화생활 용품보급	CD 및 테이프 구입
	도서발행 종수		
	도서발행 부수		
	정기간행물(잡지) 건수		
	독서인구 비율		
	매스컴에 대한 접근 및 인식	신문구독인구 비율	
		신문구독 빈도	
		신문의 관심부문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이유	
		TV 기호 프로그램	
		TV 시청시간	
		TV 인구비율	
		TV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TV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유	
	문화활동기회 향유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이유	
		비디오 시청률	
		비디오 시청편수	
	여가활동	관광여행	레저시설별 이용자
			1인당 국내관광여행횟수
			해외여행자 비율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여가 및 체육활동	체육시설 입장률
여가활용 방법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이유			
여가활용비 지출률			
공공체육시설 수 및 면적			
1인당 도시공원면적			
시간배분		생활시간	
문화의식		문화의식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나. 문화영역의 독립된 지표체계

### a. 국민문화지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4년 수행한 연구로 우리나라 최초로 고안한 문화지표체계다. 지표체계는 ① 자아의식, ② 가족의식, ③ 사회의식, ④ 국가의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서울시민 2,0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모든 항목이 주관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지만, 문화지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b.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6)

1986년 UNESCO에서 개발한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보완·변형한 지표로, 5단계(전체, 분야, 세부분야, 관심영역, 세부항목)로 구성되며, 지표설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를 ① 문화유산, ② 문학과 예술, ③ 대중매체, ④ 사회문화적 활동, ⑤ 여가 활동, ⑥ 국제문화교류 등 6개 분야로 나누었다. 둘째, 6개 분야를 13개의 세부분야(① 문화유산, ② 문학, ③ 조형예술, ④ 디자인, ⑤ 음악, ⑥ 무용, ⑦ 연극, ⑧ 영화, ⑨ 연예, ⑩ 대중매체, ⑪ 사회문화적 활동, ⑫ 여가활동, ⑬ 국제문화교류)로 나누었다. 셋째, 13개 세부분야를 다시 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관심영역에서 구체적인 지표(세부항목) 333개를 산출하였다. 이 체계는 6개 분야를 설정하고 다시 13개의 세부분야로 나누고 있지만 '문학과 예술' 분야가 7개의 세부분야(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로 나누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체계는 13개의 분야 또는 13개의 세부분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 지표만으로 구성된 이 체계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문화지표체계로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문화예술통계』 등의 통계책자가 발행되고 있다. 이 체계는 UNESCO의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기초로 하였지만, 두 가지 점이 다르다. 하나는 UNESCO에서는 영역과 기능을 교차하면서 구체적인 지표를 생성하였지만, 이 연구에

서는 기능별 분류를 하지 않고, 단지 영역별로만 구분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UNESCO체계에는 없는 '국제문화교류'라는 분야를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외국문화의 수용을 강조한 것이다.

c. 문화지표체계개선(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의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로 형식적으로는 6단계(전체, 분야,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분야를 ① 문화유산, ② 문학과 예술, ③ 대중매체, ④ 사회문화적 활동, ⑤ 여가활동, ⑥ 국제문화교류 등 6개로 구분하였다. 둘째, 6개 분야를 33개의 부문으로 나누었다. 셋째, 33개의 부분별로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관심영역을 다시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세부관심영역에서 구체적인 지표 517개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1986년 체계를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6개 분야는 동일하고, 예술분야의 분류 역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86년 체계와의 차이점은 관심영역을 구분하면서 창작, 창작물, 유통, 생산, 수용, 향수실태 등의 기능별 분류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d.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문화관광부, 2000)

이 연구는 문화지표를 생성하기보다는 문화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표체계를 조정한 것이다. 2000년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이 4단계(전체,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관심영역을 ① 문화유산, ② 문학·예술, ③ 대중문화, ④ 사회문화적 활동·여가활동 4개로 구분하였다. 둘째, 세부관심영역을 16개로 구분하였다(① 유형문화재, ② 인쇄 및 기록문화재, ③ 무형문화재, ④ 민속문화재, ⑤ 유적 및 기념물, ⑥ 문화재 보존 및 활용, ⑦ 문학, ⑧ 공연예술, ⑨ 조형예술, ⑩ 영화, ⑪ 비디오, ⑫ 음반, ⑬ 만화, ⑭ 게임, ⑮ 사회문화적 활동, ⑯ 여가활동). 셋째, 개별지표는 모두 102개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주관적 지표를 제외하고 객관적 지표에 한정하였으며, 기존 지표에 비하여 지표체계를 단순화하고 개별지표 항목을 대폭 축소하였다. 연구목적이 지표체계 설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문화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는 지수산출을 위한 작업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표체계 연구와는 다소 접근방식이 다르다.

〈표 2-11-5〉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문화관광부, 2000)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문화유산	유형문화재 인쇄 및 기록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유적 및 기념물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문학·예술	문학 공연예술 조형예술
대중문화	영화 비디오 음반 만화 게임
사회문화적 활동·여가활동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문화영역의 독립된 지표체계는 사회지표에 포함된 문화지표와 달리 세분화되어 있다. 문화통계의 생산과 문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합하겠지만, 사회지표체계 전체의 틀에서 보면,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신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이번에 실시하는 지표체계 개편작업은 앞서 살펴 본 대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이를 위해서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지표의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분류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4차 개편 작업 시까지 안정적인 통계수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수용자 중심의 지표를 우선시하고자 하였다. 문화정책의 흐름이 공급자, 인프라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부응하여 문화향유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표본조사인 『사회통계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문화와 여가부문 이외의 다른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부문 간 중첩되는 부문이 있다. 또한 다른 부문의 지표체계에서 문화와 여가부문이 표면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문화와 여가지표에서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정책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지표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행 문화와 여가 관련 법률을 최대한 존중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같은 네 가지 기준의 확보를 통해, 문화와 여가부문의 지표가 사회지표의 네 가지의 기본기능—① 국민생활 수준 측정, ②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③ 사회변화 예측, ④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 설정

기존지표에서는 관심영역이 ① 문화예술활동, ② 여가활동, 그리고 ③ 문화의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문화예술활동이 포괄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번 지표에서는 관심영역을 다소 세분화하였다. 금번 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은 모두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오히려 국가와 사회의 문화정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문화정체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현재도 형성되는 중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문화는 정체성 형성과 보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문화에는 문화유산과 전해 내려오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모두 포함되겠지만,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은 수량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였다. 세부관심영역은 문화재로 설정하였다.

둘째, 문화와 여가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 가운데 예술을 특화하여 문화예술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예술은 한 사회 문화의 집약된 총체다. 따라서 예술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문화의 민주화, 곧 고급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욕구가 많은 점,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 개발의 원천으로서 예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영역을 설정하였다. 예술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고 명명한 것은 관련 법령에 문화예술로 되어 있고, 예술관련 공간이 문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세부관심영역은 ① 문화시설, ② 예술행사, ③ 예술관람, ④ 문화예술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화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문화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매체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문화가 단순히 삶의 질 고양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다. 문화산업에 기반한 대중문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만나는 문화영역이다. 세부관심영역은 ① 도서·출판, ② 신문, ③ 텔레비전, ④ 음반·비디오·게임, ⑤ 문화예술 인터넷으로 설정하였다.<sup>37)</sup>

넷째, 생활 속 문화의 활성화, 적극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문화활동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창작된 문화예술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모두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다. 사회문화는 일상성 속에서 자신을 문화를 매개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일찍이 1970년대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개념이기도 하다. 이것은 문화적 표현활동에 대한 개개인의 참여와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문화의 심층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관심 영역은 특별히 설정하지

37) 영화를 대중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영화는 다른 매체와 달리 영화관과 관련된 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문화시설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영역에서 다루었다.

않았다.

다섯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최근 더할 나위 없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여가활동을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여가는 노동 이외의 욕구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1995년 개편체계에서도 이미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부관심영역은 ① 여가활용 및 조건, ② 관광여행, ③ 체육활동으로 설정하였다.

〈표 2-11-6〉 문화·여가특수 관심영역 및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문화유산	문화재
문화예술	문화시설 예술행사 예술관람 문화예술교육
대중문화	도서·출판 신문 텔레비전 음반·비디오·게임 문화예술과 인터넷
사회문화활동	사회문화활동
여가활동	여가활용 및 조건 관광여행 체육활동

## 2. 개별지표선정

### 1) 삭제된 지표

첫째, 사회지표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삭제하였다.

- 정부예산 대비 문화관광부 예산
- 문화관광부예산 대비 문화부문 예산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문화관광부 예산항목은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중 1% 달성이 요원하던 시기에 지표 체계에 포함되었다. 문화관광부 예산 또는 문화관련 정부예산이 중요하다더라도, 이것은 국가예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파악할 성격이므로 삭제하였다. 필요하다면 문화와 여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을 총괄하는 정부예산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공원 면적은 환경부문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둘째,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지표를 삭제하였다.

-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이유

이 지표들은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며 자의적이다. 곧,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의 범주가 분명하지 않다. 지역의 범위가 광역지자체인지, 기초지자체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장소가 지역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지역문화행사는 예술행사(공연과 전시)와 중복되기 때문에, 지역분권과 문화복지의 증대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삭제하였다. 한편,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항목에서 전통문화가 의미하는 바는 응답자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관심 있다’와 ‘관심 없다’는 응답을 수치화하는 것을 무리라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셋째, 주관적인 지표 가운데 ‘불만이유’와 관련된 지표를 삭제하였다.

-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이유
- TV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이유
-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이유

이 같은 지표를 삭제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지표'에서 항목별로 세세한 내용을 모두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지표'의 기능은 한 사회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불만이유'는 수용여부와 만족도 측정 이후 측정해야 할 하위지표다. 따라서 이 같은 하위지표까지 포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하나는 만족도 측정방법을 조정하여 '불만이유'를 시계열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만족도를 만족과 불만 두 가지로 질문한 다음,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족도 측정이 단순히 '만족'과 '불만'으로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결정적이다. 따라서 5점 척도로 사용하여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조정하였다. 만족도 측정방법이 조정됨에 따라 '불만이유'의 통시적 비교가 어려워졌다.

넷째,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는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 연간 도서관 이용자 수
- CD 및 테이프 구입
- 정기간행물(잡지) 건수
- 신문구독빈도

연간 도서관 이용자 수, CD 및 테이프 구입, 정기간행물(잡지) 건수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용자 속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표본조사(문화시설 이용률, 음악 청취율, 독서인구비율)로 대체하였다. 신문구독은 주간 구독빈도보다 구독시간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신문구독시간으로 대체하였다.



〈표 2-11-7〉 2003 문화와 여가부문 지표의 변경내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지원 및 활동	정부예산 대비 문화관광부 예산	삭제	
		문화관광부예산 대비 문화부문 예산	삭제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조정	
		공연장 입장률	조정	
		전시장 입장률	조정	
		도서관 수	동일(기준조정)	
		인구 만명당 도서관 열람석 수	동일	
		인구 만명당 장서 수	동일(기준조정)	
		연간 도서관 이용자 수	삭제	
	문화생활 용품보급	CD 및 테이프 구입	삭제	
		도서발행 종수	동일(분류체계 조정)	
		도서발행 부수	동일(분류체계 조정)	
		정기간행물(잡지) 건수	삭제	
	매스컴에 대한 접근 및 인식	독서인구 비율	동일(분류체계 조정)	
		신문구독인구 비율	동일	
		신문구독 빈도	삭제	
		신문의 관심부문	동일(분류체계 조정)	
		신문보도에 대한 만족도	동일(분류체계 조정)	
		신문보도에 대한 불만이유	삭제	
		TV 기호 프로그램	동일(분류체계 조정)	
		TV 시청시간	동일	
		TV 시청인구 비율	동일	
		TV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도	동일(분류체계조정)	
	문화활동기회 향유	TV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이유	삭제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삭제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이유	삭제	
		비디오 시청률	동일(분류체계 조정)	
	여가활동	관광여행	비디오 시청편수	동일(분류체계 조정)
			레저시설별 이용자	동일(분류체계 조정)
			1인당 국내관광여행횟수	동일
		여가 및 체육활동	해외여행자 비율	동일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삭제
			체육시설 입장률	조정
여가활용 방법			동일(분류체계 조정)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동일(분류체계 조정)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이유			삭제	
여가활용비 지출률			동일	
공공체육시설 수 및 면적			조정	
1인당 도시공원면적	삭제			
시간배분	생활시간	조정		
문화의식	문화의식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동일	

## 2) 신규지표

## 가. 추가지표

첫째, 문화유산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추가하였다.

- 국가지정 문화재 수
- 시·도지정 문화재 수

문화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항목이 기존지표에서는 전시장입장에 포함된 박물관이 유일하였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유·무형 문화재는 국가와 지역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므로, 연도별·지역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①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사적·명승, 명승, 천연기념물)로 분류한다. 연간 지정 건수를 시·도별로 파악한다.
- ② 시·도지정 문화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한다. 연간 지정 건수를 파악한다.

둘째,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문화시설과 예술향유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추가하였다.

- 영화관 스크린 수
- 영화관 좌석 수
- 문화시설 이용률
- 예술행사 수
- 영화상영편수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① 영화관 스크린 수: 기존지표에서는 영화관 수를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에 포함시켜

파악하였다. 그런데 1999년부터 1개 영화관에서 여러 개의 스크린을 구비하고 상영하는 멀티플렉스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 수 이외에 별도로 스크린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영화관 수로 표기된 통계수치 역시 스크린 수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시·도별로 파악한다.

② 영화관 좌석 수: 영화관과 스크린의 개수뿐만 아니라 영화관 규모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수용자 위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화관 좌석 수가 필요하다. 한편, 영화관련 지표는 지역별로 파악하는데, 단순 영화관(스크린, 좌석) 수 못지않게 인구대비 개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만명 당 개수도 동시에 파악한다.

③ 문화시설 이용률: 기존지표에서는 문화시설 이용과 예술관람을 공연장 입장률과 전시장 입장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표명은 문화시설 입장을 가리키지만, 실제 내용은 공연예술행사 관람률과 미술전시회 관람률, 그리고 박물관 관람률이다. 이 경우, 문화시설 자체의 이용현황은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에서는 공연과 전시회가 모두 열리는데, 분리하여 파악할 경우 문예회관의 입장률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간이용과 관람을 분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시설 이용률과 예술행사 관람률을 개별지표로 설정하였다. 문화시설 이용률의 대상시설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으로 구분하였고, 예술행사 관람률의 대상행사는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국악), 대중예술(영화, 가요콘서트), 미술전시회로 분류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④ 예술행사 수: 예술작품은 창작된 것을 바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람자는 창작된 작품이 공연·전시·상영될 때 비로소 관람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행사가 얼마나 열리는지 하는 점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예술행사 수와 영화상영 편수를 추가하였다. 예술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대중가요콘서트, 미술전시회로 분류한다. 연도별 시·도별로 측정한다.

⑤ 영화상영편수: 영화상영을 예술행사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영화상영 편수는 시·도별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도별 측정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는 게 현실적이어서 별도의 지표로 생성하였다.

⑥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예술향유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학원, 대학교부설 기관, 방송국과

시설단체(백화점, 신문사) 부설 문화센터 등에서,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영화, 문화유산과 관련된 강좌를 수강(참여)한 비율을 의미한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셋째,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추가하였다.

- 음악 청취율
- 선호하는 음악장르
- 게임물 이용률
- 문화관련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① 음악청취율 + ② 선호하는 음악장르: 기존 지표에서 음악산업과 관련된 지표는 “CD 및 테이프 구입”이었다. 다른 대중문화 영역과 마찬가지로 최종소비자의 감상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음악 청취율”과 “선호하는 음악장르”로 대체하였다. 적극적인 음악청취를 의미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이용한 음악청취는 제외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청취는 별도의 지표(문화관련 인터넷사이트 이용률)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음악 청취율에서는 주간 청취시간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선호하는 음악장르는 클래식, 한국가요, 외국가요, 국악, 기타로 분류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③ 게임물 이용률: 게임은 청소년층의 여가활동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은 온라인, 아케이드, PC, 비디오, 모바일을 이용한 오락행위를 의미한다. 주간 게임이용률과 게임시간을 신규지표로 설정하였는데,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④ 문화관련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정보와 통신부문에서 인터넷 이용에 적지 않은 지표가 있지만, 문화활동과 관련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 인터넷 사이트 이용률을 신규지표로 설정하였다. 문화관련 사이트는 도서(문학), 공연예술, 미술, 영화, 음악, 신문, 방송, 만화,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넷째, 사회문화활동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추가하였다.

-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문화단체 참여율

①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시민 문화참여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유적지, 지역문화예술축제 등에서 무급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며, 사회참여부문의 지표와 연계할 수 있다.

② 문화단체 참여율: 문화관련 동호회·단체참여는 문화의 생활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영화, 문화유산, 생활취미, 여행, 체육 등과 관련된 단체와 동호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며, 사회참여부문의 지표와 연계할 수 있다.

다섯째, 여가활동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추가하였다.

-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 국내 관광여행 지역
- 생활체육 참여율

①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기존지표에서는 여가활용 만족도를 질문한 다음,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가활용의 불만이유를 측정하였다. 이번에는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걸림돌을 측정하여 조사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② 국내 관광여행 지역: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한 사람들의 목적지를 16개 시·도별로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③ 생활체육 참여율: 스포츠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 참여는 건강증진과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의미한다. 종목은 육상·조깅, 등산, 보디빌딩, 맨손체조, 수영, 축구, 스케이트, 자전거, 배드민턴, 에어로빅, 농구, 골프, 테니스, 볼링, 탁구, 요가, 스쿼시, 댄스, 검도, 무도(武道), 기체조, 족구,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 나. 조정된 지표

첫째, 문화예술영역에서 조정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문화시설 수
- 도서관 수
- 도서관 장서 수
- 예술행사 관람률

① 문화시설 수: “문화예술진흥법”의 분류에 따라 시설을 분류한 다음, 영화관과 도서관 시설은 별도의 지표(영화관 수, 도서관 수)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시설 수가 많지 않은 야외음악당, 조각공원, 기타시설을 제외하였다. 기존지표와 비교하면 영화관, 시·군·구민회관을 삭제하고, 문화체육센터를 추가한 것이 된다.

② 도서관 수 + 도서관 장서 수: 기존지표에 포함되어 있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제외하였다. 여기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도서관은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公共) 문화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도서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과 비도서자료(시청각자료)까지 포괄하였다.

③ 예술행사 관람률: 기존지표의 공연장 입장률과 전시장 입장률을 조정한 것이다. 예술행사 관람률은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국악)관람률, 대중예술(영화, 대중가요콘서트) 관람률, 미술전시회 관람률로 분류하였다. 기존지표와 비교하여 국악과 대중가요콘서트 관람률이 추가된 것이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둘째, 대중문화영역에서 조정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도서발행 종수
- 도서발행 부수
- 독서인구 비율
- 신문구독 만족도
- 신문 관심부문

-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 비디오시청률

- ① 도서발행 종수 + ② 도서발행 부수: 기존 분류체계에 만화를 추가하였다.
- ③ 독서인구비율: 기존에는 대상도서가 교양, 직업, 잡지, 생활취미정보, 기타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도서(문학, 교양, 실용, 기타), 잡지, 만화로 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 ④ 신문구독 만족도: 기존에는 만족도 측정이 '만족'과 '불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5점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 ⑤ 신문 관심부문: 기존에는 관심부문이 정치, 경제, 사회환경, 정보통신, 연예스포츠, 교육문화, 생활건강, 사설논평, 기타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역, 연예, 스포츠, 문화, 과학, 사설칼럼, 기타로 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 ⑥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기존에는 만족도 측정이 '만족'과 '불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5점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 ⑦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기존에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뉴스, 연속극, 스포츠, 오락, 영화, 교육교양, 홈쇼핑, 기타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뉴스, 드라마, 교육, 교양, 스포츠, 연예·가요·코미디, 영화, 만화, 홈쇼핑, 기타로 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 ⑧ 비디오 시청률: 기존에는 가구당 시청비율을 측정하였으나, 개인별 시청비율로 조정하였다. 비디오 시청 역시 다른 문화향유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셋째, 여가활동 영역에서 조정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여가활용 방법
- 여가활용 만족도

- 평균 여가시간
- 휴양시설 이용률
- 해외여행 비율
- 시·도별 체육시설
- 스포츠경기 관람률

① 여가활용 방법: 기존에는 여가활용이 감상관람, TV시청, PC관련, 승부놀이, 창작적 취미오락, 스포츠, 여행, 사교관련, 가족과 함께, 가사잡일, 휴식수면, 기타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예술관람, 스포츠관람, TV시청, 취미활동, 스포츠, 여행, 사교관련, 휴식, 인터넷이용, 기타로 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② 여가활용 만족도: 기존에는 만족도 측정이 '만족'과 '불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③ 평균 여가시간: 기존에는 생활시간 전체를 포괄하였으나, 이번에는 생활시간 중에서 여가와 관련된 시간, 곧 교제 및 여가활동을 세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교제 및 여가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치환하여 파악하였다. '교제 및 여가시간'은 교제활동, 대중매체이용, 종교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아무것도 하지않음,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다.

④ 휴양시설 이용률: 기존에는 레저시설이 관광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삼림욕장, 놀이공원, 기타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휴양시설을 해수욕장,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삼림욕장, 놀이공원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의 전문휴양업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문휴양업은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체육시설(스키장, 골프장 등),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휴양시설을 해수욕장,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산림욕장에 한정하고, 휴양시설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여행



지인 놀이공원(테마파크)을 포함시켰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⑤ 해외여행 비율: 해외여행의 목적에서 연수(교육)를 포함시켰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⑥ 시·도별 체육시설: 기존에는 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육상경기장)의 개수와 면적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은 모두 27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외에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의 수, 면적, 그리고 1인당 면적을 시·도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⑦ 스포츠경기 관람률: 기존에는 체육시설 입장률 자체만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포츠 경기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테니스, 기타로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다.

### 3. 신지표체계 구성

2004년 문화와 여가부분의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5개 관심영역(① 문화유산, ② 문화예술, ③ 문화산업, ④ 사회문화활동, ⑤ 여가활동) 설정하였다. 둘째, 14개의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42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개별지표와 기존지표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2-11-8〉 2004 신지표체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문화유산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수	신규	
		시·도지정 문화재 수	신규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시설 수	조정	
		도서관 수	동일(기준조정)	
		도서관 장서 수	동일(기준조정)	
		도서관 좌석 수	동일	
		영화관 수	동일	
		영화 스크린 수	신규	
		영화관 좌석 수	신규	
		문화시설 이용률	신규	
	예술행사	예술행사 수	신규	
		영화상영편수	신규	
	예술관람	예술행사 관람률	조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교육참여율	신규		
문화산업	도서·출판	도서발행 종수	동일(분류체계 조정)	
		도서발행 부수	동일(분류체계 조정)	
		독서인구 비율	동일(분류체계 조정)	
	신문	신문구독률	동일	
		신문 관심부문	동일(분류체계 조정)	
		신문구독 만족도	동일(분류체계 조정)	
	텔레비전	텔레비전 시청률	동일	
		텔레비전 선호프로그램	동일(분류체계 조정)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동일(분류체계 조정)	
	음반·비디오·게임	비디오 시청률	동일(분류체계 조정)	
		음악 청취율	신규	
선호하는 음악장르		신규		
게임물 이용률		신규		
문화예술과 인터넷	문화관련 인터넷사이트 이용률	신규		
사회문화 활동	사회문화활동	문화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신규	
		문화단체 참여율	신규	
여가활동	여가활동 및 조건	여가활동 방법	동일(분류체계 조정)	
		여가활동 만족도	동일(분류체계 조정)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신규	
		평균 여가시간	조정	
		가구 여가활동 비용	동일	
	시간배분	국민의 생활시간 배분	신규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신규	
	관광여행	국내 관광여행	국내 관광여행 비율	동일
			국내 관광여행 지역	신규
			휴양시설 이용률	동일(분류체계 조정)
			해외여행 비율	동일(분류체계 조정)
체육활동	시·도별 체육시설	체육시설	조정	
		생활체육 참여율	신규	
		스포츠경기 관람률	조정	
문화의식	문화의식	전문문화에 대한 태도	동일	

## 제4절 결론

문화와 여가부문 지표의 개편과 이에 따른 통계수치의 생산은 문화와 여가관련 연구와 활성화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와 여가활동 개념 설정과 분류를 통한 기본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정지작업, 곧 지표체계 개편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지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문화와 여가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수량화하여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화와 여가활동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문화와 여가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문화와 여가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작업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지표체계 개편 작업은 두 가지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계산출이 불가능한 몇몇 지표를 포괄하지 못한 점이다. 예를 들어, 예술인 수 같은 경우는 예술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개념규정이 어려워 지표로 형성하지 못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수용자 중심의 개별지표만을 생성하였을 뿐, 생산관련 지표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다. 두 가지 점은 『사회지표』 이외의 통계작업을 통해 보완되어야만 한다. 보완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지표체계 개선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12장 안전

### 제 1절 서론

안전부문지표체계의 개편은 사회지표체계의 시안이 작성된 1978년 이후 1987년, 1995년의 개편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의 시안작성을 위하여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된 1975년을 기점으로 하면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안전부문의 지표체계개편은 국내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계열을 정비하고 선정된 지표의 계수화를 위한 통계수집의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안전부문의 최초의 지표체계는 '공안'이라는 명칭 하에 행정통계의 수집가능성을 전제로 한 지표계열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7년의 체계개편시에는 행정통계에 의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벗어나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관한 의식조사에 의하여 주관적인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1995년의 체계개편시에는 부문의 명칭인 '공안'을 '안전'으로 바꾸었다. 기존의 공안부문이 법적·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지표계열을 수록하였으나 부문명칭이 바뀌면서 안전부문은 안전과 관련된 심리적·주관적인 측면의 지표계열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에 개편된 안전부문의 지표체계는 우리나라의 안전여건을 반영하는 지표계열을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의 틀(frame)을 가지고 정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안전부문지표체계는 개편이 이루어진 후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동안에 국민의 삶을 윤곽지어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여건은 이른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안전부문의 지표체계가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잡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기존 안전부문 지표체계의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이 국제비교가 가능한 틀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기존 안전부문 지표체계에서 삭제되어야 할 지표

와, 새로 제안할 신규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다. 셋째, 국민이 느끼는 안전은 보고 통계와 조사통계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와 범죄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과 관련된 주관적인 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다.

## 제2절 기존지표체계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안전부문의 지표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제시된 사회지표체계에서 안전 관련지표계열을 살핍으로써 2005사회지표체계의 개편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는 시안작성(1978년)→1차 개편(1987년)→2차 개편(1995년)으로 약 10년 간격으로 그 체계개편<sup>38)</sup>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안전부문과 관련된 국내외의 지표계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지표계열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의 체계개편과정에서 조차 당시까지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전부문에 포함되어야 할 지표들이 누락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1995년의 개편당시에 검토되었던 국제기관 및 외국의 기존지표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안전부문의 지표로 선정되지 않은 지표계열을 찾고<sup>39)</sup>, 1995년 이후의 국내외의 안전부문 관련 지표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

### 1. 국제기관의 안전부문 관련지표

#### 가. 국제연합 관련기관

국제연합(UN)과 국제연합관련기관의 대표적인 지표체계를 공표된 연도별로 살펴보면 '삶의 질'체계(1970), 사회통계체계(UN-SSDS; 1975), 범죄통계체계개발(2003) 등이 있다. 이들

38)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통계편]」, 1978.

주학중 외,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39) 1995년의 체계개편시에 이루어진 '안전부문'의 연구내용 중 국제기관 및 외국의 지표체계를 다 시 살핀다는 의미이며, 필요한 부분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중 안전부문과 관련된 지표계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의 생활수준체계

드로노우스키(Jan Drewnowski)에 의하여 제시된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의 사회지표 체계는, 삶의 질이 유량(flow)개념으로서 생활수준과 저장(stock)개념으로서 복지수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에 대한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생활수준지표체계<sup>40)</sup>에서 제시된 생활수준의 구성요소(components) 중 안전과 관련된 지표는 <표 2-12-1> 과 같다. 생활수준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의 결과로서 단위시간에 획득된 욕구에 대한 충족의 수준으로 정의하고(Jan Drewnowski, 1970, P.38), 생활수준을 규정짓는 구성요소<sup>41)</sup>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활동의 종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리고 개별지표는 욕구에 대한 충족의 수준을 결핍·부적절·적절·풍족 등으로 위계화하여 표시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되는 UNRISD의 지표는 단순한 안전(safety)이라기보다는 보장되는 안전(security)을 의미하는 주관적인 지표계열이라고 하겠다. 즉 법과 질서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를 보는 개인의 안전(security of person)과 경제적 생활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인 생활방도의 안전(security of the way of life)이 의미를 지닌다. '개인 및 생활의 안전'은 안전부문지표체계(1995년)에서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은 안전부문의 지표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40) Jan Drewnowski,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70.3, Geneva, 1970. P.63, 63a, 63b.

41) 1970년에 제시한 구성요소(components)는 영양·주거·건강·교육·여가·안전·환경 등 7개를 제시하여 관련지표를 선정하고 있고, 1974년에 제시한 구성요소는 영양·의복·주거·건강·교육·여가·안전·사회적 환경·물리적 환경 등 9개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안전' 관련지표에 대하여 수정된 내용이 없다.

Jan Drewnowski, *On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Index ; Computation Table.

Appendix I: Level of Living

〈표 2-12-1〉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안전관련 지표

총족의 지표	결핍	부적절	적절	풍족
개인의 안전	법·질서의 파괴상 황(전쟁, 테러)	법·질서의 나 쁜 유지(폭도, 갱단)	법·질서의 적 절한 유지	법·질서의 원 활한 유지
생활의 안전	경제적 혼란	보험 및 저축 이 없음(고용· 질병·연금보험)	최저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저축이 있 음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 분한 보험·저축이 있음

자료: Drownowski, J.,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NRISD; Geneva, 1970, P.63a.

## 2) 국제연합 사회통계체계

국제연합이 각국에 권고했던 사회통계체계<sup>42)</sup>(*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SDS)에서 ‘공공질서와 안전, 범죄와 범죄발생’부문의 지표선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즉 i)범죄자, ii)범죄피해, 그리고 iii)경찰·법원·교도소를 통한 법·질서의 집행 등이다.

범죄자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범행을 저지르는 조건과 어떻게 연계 되고 최종적인 선고유형 및 처분방법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이다. 범죄피해에 관한 관 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집단과,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범죄피해손실액을 아는 것이 유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법집행과 질서에 관한 관점으로부터, 그 집행을 위하여 고용된 자원과 이들 자원의 배치방법, 집행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지표작성시에는 물론 체계개편시에도 많은 부분 이 원용되었으나 표에서 제시된 지표계열 중 범죄자(또는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이 깊은

42) 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New York, 1975.

기소범죄의 평균형량, 사법처리과정에 소요된 평균시간, 기소에서 처분까지 걸린 평균시간 등은 감안되지 않았다.

〈표 2-12-2〉 국제연합의 사회통계체계(공공질서와 안전, 범죄와 범죄피해)

관점의 구분	지 표
A. 범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만명당 경찰기록에 의한 범죄건수</li> <li>· 기소율(기소범죄자수/총기소범죄)</li> <li>· 기소 범죄의 평균형량</li> <li>· 인구 10만명당 범죄 해결건수</li> <li>· 범죄해결비율(해결범죄/총범죄)</li> </ul>
B. 계고자, 기소자, 미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자 비율( 경고자/경고·고소자)</li> <li>· 유죄선고율(유죄자/기소범죄)</li> <li>· 선고범죄자에 대한 평균유죄건수</li> <li>· 미결수비율(미결수/기결수)</li> </ul>
C. 구류자, 집행유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류자 대비 선고범죄자비율</li> <li>· 유죄판결수감자 또는 기타 구류중인자의 평균 수감기간</li> <li>· 평균복역기간</li> <li>· 평균집행유예기간</li> </ul>
D. 범죄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만명당 신체범죄피해자수</li> <li>· 인구 10만명당 각종 제도에 의한 피해자수</li> <li>· 상해범죄의 평균형량</li> <li>· 범죄피해의 평균손실액</li> <li>· 제도적 피해에 의한 평균손실액</li> </ul>
E.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인력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만명당 안전관련 담당기관 종사자수</li> <li>· 인구 10만명당 안전관련 담당기관근무 정규직 종사자수</li> <li>· 업무시간 중 공공질서·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의 비율</li> <li>· 범죄해결에 소요된 평균 시간</li> <li>· 사법처리과정에 소요된 평균시간</li> <li>· 기소에서 처분까지 걸린 평균시간</li> <li>· 교도소 1실당 평균수감자수</li> <li>· 공공질서·안전과 관련된 투입액 지수(불변가격기준)</li> </ul>

자료: U. 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Statistics*, New York, 1975. Pp.120~125(Part Two : Individual Sequences and Subsystems).



### 3) 국제연합 범죄통계체계개발

범죄통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국제연합이 각국에 권고한 것이 범죄통계체계개발편람<sup>43)</sup>과 이를 전산화하기 위한 범죄정보체계전산화지침<sup>44)</sup>이다. 이중 전자가 국가차원에서 범죄통계를 체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범죄통계개발체계는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비수감처리 등 5개의 주요 구성요소(major components)에 의하고 각 구성요소는 다시 세부구성요소(sub-components)로 분화시켜 범죄(crime), 범죄자(offender), 범죄피해(victim)와 관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투입통계, 과정통계, 산출통계, 원천통계로서 파악하는 틀/framework)을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회지표체계를 작성하는 경우 부문별로 채택하는 지표계열이 투입이나 과정지표 보다는 삶의 여건 및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산출지표<sup>45)</sup>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범죄관련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 즉 안전부문의 지표선정에 있어서 '구형(求刑)', '항소'와 같은 투입지표와 '법정신문', '기소로부터 선고까지의 시간', 수감되지 않은 '각종 법규위반자' 등과 같은 과정지표는 안전부문의 지표로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89*. United Nations, New York, 2003.

이 편람은 캐나다의 범죄통계센터(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Statistics Canada)의 Rick Beattie와 Robert Kingsley에 의하여 1986년에 초안이 작성된 후 전문가회의(expert group meeting)를 거쳐 작성되었다. 동 회의는 국제연합의 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 국제범죄방지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CICP), 마약통제 및 범죄방지사무소(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ODCCP)등의 후원하에 아르헨티나의 남미범죄연구원(Latin American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4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Guide to Information System in Criminal Justice,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43*, United Nations, New York, 2003.

45) 예컨대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산출지표이나 '경찰관 1인당 주민수'와 같은 지표는 범죄해결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투입지표이다.

〈표 2-12-3〉 범죄통계체계화를 위한 틀

구성 요소	통계적 지표의 유형 (Type of statistical indicator)			
	투입통계	과정통계	산출통계	원천통계
경찰	· 경찰서비스요청 · 경찰에 보고된 사건 · 범죄피의자 · 구속된 범죄피의자	· 조사(수사)완료사건 · 수사중인 경찰 · 증거가 확보된 사건	· 종결된 범죄 · 기타 종결된 범죄 · 종결된 범죄자 · 기소된 사건	· 보완(보충)자료 · 인증된 자료 · 예산/지출
기소	· 기소된 사건 · 求刑	· 법정출석	· 선고된 사건 · 유죄선고자수	· 보완(보충)자료 · 인증된 자료 · 예산/지출
법원	· 기소된 사건 · 구형량 · 상습범죄율(재범율) · 항소	· 법정출석 · 법정심문 · 기소부터 선고까지의 시간	· 선고된 사건 · 사건별 선고 · 선고형량(벌금액)	· 보완(보충)자료 · 인증된 자료 · 예산/지출 · 사건당 비용
재소자	· 수감자 · 가석방, 집행유예 · 재범수감자비율	· 평균재소자수 · 법규위반자	· 유형별 석방자	· 보완(보충)자료 · 인증된 자료 · 수감자수용능력 · 예산/지출
비수감자	· 구금자 · 재범수감자비율	· 평균비수감범죄자 · 법규위반자	· 유형별 석방자	· 보완(보충)자료 · 인증된 자료 · 프로그램 · 예산/지출

자료: United Nations,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Series F No. 89, New York, 2003. p.18.

국제연합의 범죄통계체계개발편람은 범죄자료의 집계(aggregation)를 위하여 범죄분류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범죄를 강력범죄(violent crimes), 재산범죄(property crimes), 기타범죄, 그리고 마약범죄자(drug offenders)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회원국이 가장 많은 국제기관으로서 국제연합(UN)이 마약범죄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구촌에서 마약<sup>46)</sup>의 생산과 불법거래 그리고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 2-12-4〉 범죄자료 집계예시

범죄분류	범죄의 세분류	
강력범죄	- 살인 - 강도 - 강간 - 폭행상해	- 살인미수 - 어린이유괴 - 성적학대 - 유괴
재산범죄	- 침입범죄 - 사기 - 장물취득	- 방화 - 절도 - 장난범죄
기타범죄	- 무장범죄 - 풍속사범 - 공무집행방해	- 공중질서사범 - 도박
교통범죄	- 교통위반	- 기타교통사범
마약범죄	- 불법마약거래	- 마약소지

자료:United Nations,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Series F No. 89, New York, 2003. p.53.

마약(opium)의 경우 그 잠정적인 생산량은 1990~2002년의 기간에 3,760톤에서 4,491톤으로 증가하였고<sup>47)</sup>, 각종 마약류의 불법거래국은 55개국(1995년)에서 94개국(2000년)으로 증가하였다<sup>48)</sup>. 우리나라는 마약류<sup>49)</sup>의 생산량, 불법거래량, 소비량 등이 아직까지는 상대

46) 향정신성약물, 흔히 마약으로 지칭되는 불법약물은 아편(opium), 양귀비(opium poppy), 아편제제(opiate), 헤로인(heroin), 모르핀(morphine), 코카인(coca cocaine), 마리화나(cannabis), 환각·각성제(amphetamine-type stimulants; ecstasy, hallucinogen, LSD), 정신안정제(benzodiazepine), 흡입물(inhalant), 바르비투르 산염(barbiturate), 메타qual론(methaqualone), 카트(khat, qat, kat) 등이다.

47)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Global Illicit Drug Trends 2003*, United Nations, New York, 2003, p.16.

48)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p. cit.*, p.47.

49)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마약류와 관련된 사범수는 6,189명(1996년)에서 10,673명(2002년)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에 7,546명으로 감소하였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적으로 적어 다행으로 여겨지나, 앞으로 마약류의 불법거래와 소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마약범죄와 관련된 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 4) UNDP의 인간개발지수(UNDP-HDI)

국제연합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매년 공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에는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간, 도시간의 표본조사결과가 수록되고 있다. 표본조사는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s)결과에 의한다. 이 조사는 1989년부터 산업화된 14개국에서 실시된 이후 71개국이 참여하였다. 도시간 비교는 참여국의 수도에서 1,000명에 대한 면접조사로, 국가간 비교는 2,000명에 대한 전화조사에 의한다. 조사의 목적은 범죄경험과 안전감(*feelings of safety*)에 관하여 국제간에 표준화된 조사<sup>50)</sup>를 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의 인간개발보고서<sup>51)</sup>에 21개국과 35개국의 수도에 대한 범죄피해조사결과가 수록되어있다. 이들 중 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에 대한 조사결과를 예시적으로 신는다.

50) 표준화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한가지는 국가간 비교에 사용되는 범죄자료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즉 범죄측정에 있어서 범죄의 정의와 범죄건수의 계산이 국가간에 상이하여 범죄자료의 국가간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가지는 이 조사를 통하여 조사참여국으로 하여금 범죄정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5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3*, UNDP, Oxford Univ. Press, 2003.

〈표 2-12-5〉 범죄피해인구비율의 국제비교(1999)

(단위, %)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계 <sup>1)</sup>	21.1	23.8	18.2	15.2
재산범죄	10.0	10.4	4.5	3.4
강도	0.6	0.9	0.7	0.1
성폭행	0.4	0.8	0.6	0.1
폭행	1.2	2.3	1.0	0.1
증수뢰(부패)	0.2	0.4	0.2	-

주:1)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미수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파손, 자동차털이절도, 자전  
거절도, 성폭행, 개인재산절도, 폭행·위협, 공직자의 증수뢰 등 11개 범죄 중 1번 이  
상 피해를 경험한 백분율임.

자료: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3*, UNDP,  
Oxford Univ. Press, 2003. p.308.

우리나라는 국제범죄피해조사(ICVS)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불가  
능하나, 앞으로 이러한 조사를 시행하여 '범죄로부터의 안전도'는 물론 '공직자의 증·수뢰  
(贈·收賂)경험비율'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지표는 '사회적 관심체계'와 '사회지표체계'로 구분된다. 사회적  
관심체계는 경제성장이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에 역점을 두고 성장의  
질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 하에 사회지표계획(Social Indicator  
Programme)이 시작되어 연구된 체계<sup>52)</sup>이다. 동 연구결과는 1973에 최초로 공표되었으며  
〈표 2-12-6〉은 1976년의 체계<sup>53)</sup> 중 목표영역의 하나로 제시된 '개인안전과 법집행'과 관

52) OECD, *Measuring Social Well-Being :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76, p.7.

53) 1973년의 체계는 24개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심을 8개의 목표영역으로 묶었고, 1976년의 그것은 24개의 관

련된 지표체계이다.

〈표 2-12-6〉 OECD 사회적 관심체계 : 개인안전과 법집행(1976)

관심	하위관심	지표
개인의 희생	사망 또는 육체적 손상	1)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 2) 연간 백만명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영구적 불구자수 3) 영구적 불구는 아니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병상에 있는 일수
	협박과 집탈	주관적 지표
희생에 대한 인지된 위협	타인으로부터	주관적 지표
	사회적 기구로부터	주관적 지표
	환경으로부터	주관적 지표
법집행	형법의 평등	4) 체포후 6,12,24,48시간내 변호인의 접촉이 금지된 비율 5) 재판전에 1주, 1개월, 3개월, 1년 이상 구류된 피의자의 비율 5)a 보석자에 대한 재구류비율 5)b 무죄자의 재구류비율
	형사처벌	6) 연간 1인당 총유효기간으로 표시된 투옥형량
	법률서비스 접근가능성	7) 공소개시와 최종판결 간의 평균시간
	법률 적용절차의 신중성	주관적 지표
법집행의 신뢰성 확장	형법의 집행에서	주관적 지표
	민법의 집행에서	주관적 지표
	실제적인 집행에서	주관적 지표

자료: OECD, *Measuring Social Well-Being :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76, pp.48~50.

개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들은 이 관심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건강, 근로조건, 경제상태 등 안전(안정)과 관련되는 다른 관심영역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원하지

심영역 중 복리수준(level of well-being)을 드러내는 20개의 관심영역에 대하여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Member Countries*, 1973.

않는 불의의 사고와 예상이 불가능한 사고만으로 국한하여 해당되는 지표를 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안전을 저해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개인의 사망과 불구 그리고 병상에 있는 일수 등이 지표로 제시되고, 협박과 겁탈 등이 이 영역의 하위관심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타인·사회적 기구·환경으로부터의 희생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인지를 주관적인 관심사로 제시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과 인도적인 고려에 있어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제도가 공정하고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을 보는 하위관심은 형법의 평등, 형사처벌, 법률서비스의 근접가능성, 법률적용절차의 신중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형법집행상·민법집행상·실제적인 법집행상의 신뢰성이 얼마나 확장되어 왔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1976년에 이어 1982년에 제시된 OECD의 33개의 관심지표 중 안전관련 지표는 <표 2-12-7> 과 같다.

<표 2-12-7> OECD 안전관련 지표(1982)

관심	하위관심	지 표
사회적 환경	사회적 귀속	자살율
개인의 안전	위험에의 노출	돌발적인 치사 치명적이 아닌 심각한 상해인구비율
	인지된 위험	개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

자료: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p.13.

이 관심영역의 지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은, 사회적 관심과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회원국의 통계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계량화가 가능'<sup>54)</sup>한 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1976년의 연구의도를 계승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표의 계수화를 위한 통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표의 명칭은 관심을 드러내는 포괄성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54) OECD,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P.14.

사회적 귀속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인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자기자신을 치명적으로 상해하여 사망한 인구수를, 개인안전의 하위관심영역으로 위험에 노출된 인구인 '돌발적인 치사'는 인구 10만명당 불의의 외부적 사건<sup>55)</sup>(unexpected external events)으로 인한 사망 지수로 정의<sup>56)</sup>하고 있고, 두 지표의 값은 WHO의 국제사망분류에 따르고 있다. '치명적이 아닌 심각한 상해'는 교통사고·직업사고·가정내 사고·스포츠사고·살인미수 등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연간 3일·3·9일·10일 이상 활동을 제한 받은 상해로 분류하고 있다. 인지된 위협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개인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밤중에 혼자서 이웃을 걸어다닐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비율로 정의하며 두려움의 정도는 3가지<sup>57)</sup>로 나타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의 지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개인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지표는 안전부문의 지표작성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지표로 여겨진다. 특히 4관심사 중 법집행의 신뢰성 확장을 보는 '형법·민법의 집행에서의 신뢰성'과 '실제적인 집행에서의 신뢰성'과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의 사법부 및 행정부의 법집행에서 인권의 침해 또는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를 파악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근년에 공표되는 OECD사회지표<sup>58)</sup>에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과 관련되는 지표들 중에서 거시적으로 보아 우리의 안전부문과 관련이 되는 지표를 정리하여 보았다. <표 2-12-8>에서 제시된 관심사에서 '스트라이크'와 '10대의 출산·불취학' 등은 우리의 지표체계에서 노동·교육·사회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부문과 관련되는 관심사는 자살, 범죄, 청소년 범죄, 구금자, 마약 및 마약관련사망 등이라고 하겠다. 이들 관심사에 속하는 지표들은 '구금자', '마약 및 마약관련사망'을 제외하고는 이미 사회지표체계(1995년)의 안전부문의 지표로서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UN),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들의 '범죄'와 관련되는 지표계열은, 보고된 범죄보다는 국제범죄조사(ICVS)결과를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UN 및 OECD의 회원국이

55) 교통사고, 치명적인 직업적 상해, 가정내 사고, 살인사건 등임.

56) OECD, *op. cit.*, Pp.44-45.

57) "Are you afraid to walk alone in your neighbourhood at night?"라는 질문에, 무섭지 않다, 무섭다, 대단히 무섭다 등 3가지의 응답내용을 말함.

58) OECD 사회지표체계(2002)는, 사회적 관심사로서 ①일반적인 배경(general context), ②자족(self-sufficient), ③형평(equity), ④건강(health), ⑤사회통합(social cohesion)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앞으로는 범죄와 관련된 지표계열은 보고된 범죄는 물론 국제범죄조사의 조사항목을 기초로 한 지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범죄'와 마약 관련지표인 '마약관련 사망자수', '15세 이상 인구중 대마 및 각성제 사용자 비율'과 같은 지표를 참조하여 이들 지표가 나타내는 수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표 2-12-8〉 OECD 사회지표체계 중 '사회통합' 관련지표(2002)

관심사	지 표
스트라이크	· 피용자 1,000명당 비근로일수 · 피용자 1,000명당 (5년동안의) 평균비근로일수
자살	·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성, 연령) · 25세 미만의 자살자 변화율
범죄(ICVS결과)	· 범죄피해를 본 인구비율 · 자동차 관련 범죄 · 범죄접촉인구비율(폭행상해, 성범죄, 강도, 절도)
청소년범죄	· 범죄행위에 대한 면책 연령(회원국간 비교) · 청소년 범죄율 · 청소년 범죄율(남자)
10대 출산·불취학	· 10대(15~19세)의 출산율 · 10대(15~19세)의 불취학비율
구금자	· 인구 10만명당 교도소수감 성인수
마약, 마약관련사망	· 인구 10만명당 마약관련 사망자수 · 15세 이상 인구 중 대마 및 각성제 사용자 비율

주 : ICVS는 국제범죄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s)임.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Edition 2002, Paris, 2003.

## 2. 외국의 안전부문 관련지표

### 가. 미국

미국의 사회지표체계<sup>59)</sup>는 이해가능한 통계적 정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사회상태의 중요한 양상들과 그 양상의 역사적 추세 및 발전을 서술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체계에서 안전관련지표는 <표 2-12-9>와 같이, 시민안전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안전을 위한 자원투입, 범죄발생과 그 피해,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안전상태의 국제비교 등 5가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안전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시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주관적인 지표로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법원의 형법범 취급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1마일 이내에서 야간에 혼자 보행하기에 두려운 지역이 정말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후자는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법원은 범죄자에 대하여 대단히 엄한가 또는 엄하지 않은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sup>60)</sup>을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59) U.S. 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Commerce & Bureau of the Census, Dec., 1980.

60)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5년, 1972년, 그리고 1977년에 각각 35%, 41%, 45%로서 높아졌다. 충분히 엄하지 않다는 비율이 1965년, 1972년, 그리고 1977년에 각각 57%, 74%, 90%로서 높아졌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op. cit.*, P.237.

〈표 2-12-9〉 미국의 '공공안전'사회지표(1980)

I. 대중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li> <li>- 법원의 형법범취급에 대한 국민의 태도</li> </ul>
II. 자원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안전비지출</li> <li>- 1인당 경찰비지출 : 주별</li> <li>- 주요도시별 1인당 경찰비지출: 정규직 경찰관수(인구 천명당)</li> </ul>
III. 범죄와 범죄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만명당 FBI에 보고된 강력범죄(살인, 강간, 약탈, 가중폭행)</li> <li>- 인구 10만명당 FBI에 보고된 재산범죄(주거침입절도, 일반도둑, 차량절도)</li> <li>- 성별, 인종별 살인피해자수 : 1940년의 연령분포를 적용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li> <li>- 인구 1,000명당 강력(강간, 약탈, 살인)및 절도 범죄:유형별</li> <li>- 인구 1,000명당 강력 및 절도범죄피해 : 성별, 인종별,</li> <li>- 인구 1,000명당 강력 및 절도범죄피해 : 피해자 연령계층별</li> <li>- 1,000가구당 가정범죄피해 : 인종별, 주거형태별, 범죄유형별(주거침입절도, 단순절도, 차량절도)</li> <li>- 1,000가구당 가정범죄피해: 인종, 가계소득계층, 범죄유형별</li> <li>- 경찰에 보고된 범죄피해 : 피해인종별, 범죄유형별,</li> </ul>
IV. 기타 공공 안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고유형별(교통사고, 항공사고, 철도사고, 레크레이션 수상 사고)</li> <li>- 화재사고 사망자수 및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성별, 인종별)</li> <li>- 인구 10만명당 화재사고 사망자수(성별, 인종별)</li> <li>- 화재로 인한 사상자비율 : 성별, 연령별</li> </ul>
V. 국제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만명당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사고유형별(교통사고, 폭포·화재·역사 등 자연적 요인, 산업재해, 우발적인 살인 및 상해, 소방기구·전쟁 등 기타)</li> <li>-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 살인,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국제비교</li> </ul>

자료: U.S.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Commerce & Bureau of the Census, December 1980. Chp.5.: Public Safety, pp.203~252.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화재·교통사고·허리케인·홍수·지진과 같은 불의의 사고, 소비자 안전, 경제적 재앙 등 개인 및 인구집단의 안전과 관련된 관심들은 대단히 많으나, 범죄로 인하여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안전을 위한 자원의 투입비, 범죄발생 및 범죄피해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투입과 범죄피해간에는 일반적으로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강간·강도·가중폭행·주거침입·절도·차량절도 등 7가지의 범죄를 '주요범죄'로 규정하여 관련지표를 선정하고 있다. 범죄이외의 기타 공공안전지표로서 교통사고와 화재와 관련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국제비교지표는 상술한 안전관련지표 및 불의의 사고관련 지표들을 미국 이외의 15개국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지표는 이상에서 살핀 지표체계이후 새로운 지표체계가 공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회지표가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지표계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레이건(Reagan, Ronald W.) 행정부 이후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민족이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미국의 미래를 상정하여 1997년 6월에 클린턴 행정부는 인종에 관한 대통령의 발의(The President's Initiative on Race)에 기초하여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가 "변화하는 미국(Changing America)"에 관한 보고서<sup>61)</sup>를 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7개 분야<sup>62)</sup>중 '범죄와 법집행'에 관한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사회가 지닌 문제를 의식하여 범죄와 관련된 지표들은 지난 50여년간의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인종별로 집계하고 있다. 이 지표들 주관적 지표인 '형법집행기관의 법집행과정에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가 다인종으로 구성된 사회는 아니지만 형법집행기관이 '법집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가혹하게 또는 느슨하게 대우하는가' 하는 국민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61)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hanging America: Indicators of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by Race and Hispanic Origin*, Sept., 1998.

62) 인구, 교육, 노동시장, 경제적 위상, 건강, 범죄와 법집행, 주택과 이웃 등 7개 분야에 걸쳐 관련지표들이 수록되고 있다.

<표 2-12-10> '변화하는 미국' 범죄관련 지표(1998)

- 
- 인구 10만명당 인종별 피살자수(성, 15~24세)
  - 1,000가구당 인종별 재산범죄피해가구수(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 개별절도)
  - 주립 및 연방교도소 수감자수
  - 보호관찰하의 성인비율(집행유예, 가석방, 교도소)
  - 강력범중 검거자, 유죄판결자, 교도소수감자의 비율
  - 지방경찰·보안관 중 소수민족의 구성비율
  - 형법집행기관의 법집행과정에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한 인식
- 
- 주: 소수민족(minority)은 총인구의 50%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 자료: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hanging America: Indicators of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by Race and Hispanic Origin*, Sept., 1998. Pp. 50-59.

나. 영국

영국의 사회추세(Social Trends)는 영국정부의 각 부처와 기타 기관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며, 13개의 사회정책적 영역에 걸쳐 표, 그림, 그리고 설명을 통하여 영국사회의 현실과 변화되는 모습을 광범하게 다루는 체계이다<sup>63)</sup>. 이들 영역 중 우리의 안전부문과 관련이 되는 것은 '범죄와 정의'부문으로서 이 부문에서 제시된 지표를 정리한 것이 <표 2-12-11 > 이다.

영국의 범죄통계는 영국범죄조사(BCS: British Crime Survey)에 의한 추계치와 경찰수집 행정통계에 의하며 두 통계수치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경찰행정통계는 보고되어 기록이 남겨진 모든 범죄에 대한 통계이나, BCS는 16세 이상의 민간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되, 사기범죄, 살인죄, 그리고 피해가 없는 범죄 등은 범죄조사항목에서 제외된다.

---

63) 영국의 '사회적 추세'는 인구, 가계와 가족,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 소득과 부, 건강, 사회적 보호, 범죄와 정의, 주거, 환경, 수송, 생활유형과 사회참여 등 13개의 사회정책적 영역을 포함한다.

〈표 2-12-11〉 영국의 '사회추세'중 범죄와 정의부문 지표(2004)

	지 표
범죄발생	*조사에 의한 범죄건수
	보고된 범죄 (범죄유형별, 지역별분포)
	*경찰에 보고된 범죄(BCS와 경찰기록)
경범죄	인구 1,000명당 절도범죄자(지역별)
	기소된 사기범죄자 중 유죄피의자수(사기유형별)
	마약범죄 체포자(마약류별)
범죄피해	*조사된 질서위배수준(very, fairly 비율)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염려하는 범죄별 비율(성별, 연령별)
	*1회이상의 강력범죄피해 경험율
범죄자	인구1만명당 기소범죄자(경고자)중 범죄유형별 유죄자비율
	범죄유형별 훈방자비율
	동일범죄 재범수감자비율(2년이내)
경찰·법원의 활동	경찰의 수색과 수사중지의 사유별 건수
	범죄유형별 검거율
	기소범죄자에 대한 선고비율(범죄유형별, 선고유형별)
	1심판결의 내용별 비율(유죄, 방면, 항소, 조기종결)
교도소와 보호관찰	연도별 교도소 수감자수(선고·미선고별)
	가석방자수(가석방유형별)
	인종별 수감자수(백인, 흑인, 아시아계, 중국 및 기타)
시민정의	영장·소환장발급 건수(지방법원, 고등법원)
자원	무연고 시민의 소송·변호를 위하여 발급한 자격증수
	경찰력구성(성별, 지위별, 소수민족비율)

주: \*표시는 영국범죄조사(BCS: British Crime Survey)결과에 의한 통계임.

자료: National Statistics, *Social Trends: 34(2004 edition)*, edited by Carol Summerfield & Penny Babb, London, 2004, pp.133~147.

영국의 사회추세에서 우리의 안전부문지표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소된 사기 범죄자 중 유죄피의자수(사기유형별), 마약범죄 체포자수(마약류별), 조사된 질서위배수준,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1회 이상의 강력범죄피해 경험을, 범죄유형별 혼방자비율, 경찰의 수색과 수사중지의 사유별 건수, 1심판결의 내용별 비율(유죄, 방면, 항소, 조기종결), 영장·소환장발급 건수(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찰력구성(성별, 지위별) 등이라고 하겠다.

다. 독일

독일의 사회지표체계(Germ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는 14개의 부문<sup>64)</sup>으로 구성된 체계로서, 이 체계는 1970년대의 SPDS(Socio- Political Decision and Indicators-System)를 기초로 하여 지속적인 수정을 거쳤다. 즉 초기의 체계에 없던 환경, 공공안전과 범죄, 여가와 미디어 소비, 전반적인 복지측정 등 삶을 규정짓는 부문이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문별 지표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수정·보완의 맥락은 주관적인 복리(subjective well-being) 및 인지된 삶의 질(perceived quality of life)에 관한 지표계열이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사회지표체계에서 제안된 공공안전과 범죄(public safety and crime) 부문의 지표체계는 <표 2-12-1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이 부문의 지표체계에서 목표차원(Goal dimension)은 범죄부하량, 공공안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범죄예방과 통제의 범위와 효과, 그리고 범죄자가 될 위험(청소년범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공공안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외의 목표차원에 속하는 지표들은 보고된 범죄통계에 의하여 측정하나, 이 목표차원의 지표들은 조사를 통하여 계수화가 이루어지며, 특히 공공안전에 대한 만족도<sup>65)</sup>와 범죄로 인한 위협감<sup>66)</sup>을 조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일의 ‘공

64) 독일의 사회지표는 인구, 경제사회상태와 계층의식, 노동시장과 근로여건, 소득과 소득분배, 소비와 공급, 수송, 건강, 교육, 참여, 환경, 공공안전과 범죄, 여가와 미디어소비 등 13개의 부문과 함께 ‘전반적인 복지측정’부문까지 1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65) 귀하는 공공안전과 범죄통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How satisfied are you-all in all-with public safety and crime control?)

66) 상해, 강도, 강간(여성), 주거침입범죄 등에 대하여 향후 12개월 이내에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을 조사한다. 예컨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예상’에 관한 질문을 다음과 같다. “Please tell me, for each of the situations listed, how probable you think it is that something like this could happen to you (in this area) within the next 12 months. Do you consider it very likely, likely, or unlikely that your apartment will be broken into?”.

공안전과 범죄'부문의 지표계열 중 우리가 참고하여야 할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즉, 공공 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공직자의 비율, GN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비율, 자동차 절도범죄율, 자동차털이 절도율,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 절도), 유죄판결율, 구금자비율, 청소년범죄 피의자 비율 등이다.

독일의 사회지표체계에 대하여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이 체계가 유럽연합(EU)의 사회지표체계로서 전범(典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12-12> 독일의 '공공안전과 범죄' 부문 지표(2004)

목표차원	측정차원	지 표
범죄부하량	범죄활동빈도	일반범죄율
		일반절도율
		폭력범죄율
		약물범죄율
		살인 및 과실치사율
		상해범죄율
		강도범죄율
		노상강도범죄율
		강간률
		아동 학대율
		주거침입 절도범죄율
		자동차(차량)털이 절도율
		자동차 절도범죄율
	범죄피해의 위험	범죄피해의 위험 [살인과 과실치사]
범죄피해의 위험 [강도]		
범죄피해의 위험 [상해]		
공공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	공공안전만족도	공공안전에 대한 만족도
	범죄로 인한 위협감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 [상해]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 [강도]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 [강간, 여성만]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 [주거침입범죄]		
범죄예방과 통제의 범위와 효과	인력배분과 재정지출	경찰밀도율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공직자의 비율
		GN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비율
	범죄자에 대한 조사와 기소의 효과	범죄해결률
		기소율
		유죄판결률
		구금자비율
		재범자비율
범죄자가 될 위험 (Selectivity)	청소년범죄	범죄 피의자 비율
		피의자의 성별 비율
		외국인 범죄피의자의 비율 [남자]
		유죄선고율
		남자와 여자의 유죄선고율
		외국인 남자와 독일인 남자의 유죄선고비율

자료: [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social\\_indicators/Data/System/](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social_indicators/Data/System/)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s)

## 라. 캐나다

캐나다의 개인안전지수(personal security index: PSI)는 1999년부터 매년 약 3,000천명을 표본으로 주관적인 개인안전을 조사하여 공표한다<sup>67)</sup>. PSI는 삶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3가지 것들에 초점을 둔다. 즉, i)생활영위를 위하여 충분한 돈과 필요시에 활용가능한 자원의 소유 여부, ii)건강을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iii)범죄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지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전(economic security), 건강안전(health security), 신체적 안전(physical safety) 등 3가지를 안전의 중요 구성요소(key elements)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안전지수로서 전반적인 지표와 위의 요소 중 신체적 안전을 파악하는 지표를 설문내용<sup>68)</sup>을 통하여 정리하면 <표2-12-1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안전을 보는 지표는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직장, 개인, 가정생활)'이다. 신체적 안전을 보는 지표는 '강력범죄'와 '주거침입재산범죄' 등 범죄로부터 시민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표시한다. 또한 '가족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안전정도'와 '가족이 재산범죄(주거침입)에 노출될 경우 안전정도'를 조사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다.

1998~2002년의 기간에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로부터 '대단히 안전하다'는 응답비율은 전자가 77%에서 72%로 다소 낮아졌고, 후자가 69%에서 65%로 낮아졌다. PSI에서 특징적인 것은 조사결과로 나타난 주관적인 지표와 보고된 범죄발생상태와 비교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1991~2001년의 기간에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발생건수는 경찰에 보고된 통계로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결과는 같은 기간에 미세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9)</sup>. 이는 보고된 범죄발생과 국민이 실제로 겪는 범죄발생과의 괴리가 적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67) 조사는 중위점수를 '4'로 하여 1~7까지의 Likert 척도에 의한다. 낮은 점수일수록 안전상태가 나쁨을 나타낸다.

68) 설문은 다음과 같다. (1)Thinking of your family's exposure to violent crime, how safe is your neighbourhood? (2)Thinking of your family's exposure to property crime such as break-ins, how safe is your neighbourhood?.

69) Spyridoula Tsoukalas and Andrew Mackenzie, *The Personal Security Index : A Reflection of how Canadians feel Five Years Later*, (2003 online ed.),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3. Pp. 36-37.

〈표 2-12-13〉 캐나다의 '개인안전지수' 중 안전관련지표(2003)

요소	설문내용으로 본 지표
전반적 안전	·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직장, 개인, 가정생활)
신체적 안전	· 가족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안전정도 · 가족이 재산범죄(주거침입)에 노출될 경우 안전정도

자료: Spyridoula Tsoukalas and Andrew Mackenzie, *The Personal Security Index : A Reflection of how Canadians feel Five Years Later*, (2003 online ed.),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3. pp. 34~40.

#### 마. 일본

일본의 사회지표체계<sup>70)</sup>중 사회생활통계지표(시계열로 본 懸의 모습)는 특정한 관심사를 영역화하여 구성하고 영역별로 지표를 선정한 것이 아닌, 즉 일정한 인구를 기준하여 그 값을 드러내는 사회·인구통계체계를 원용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행동주체인 인구·세대·가족을 기준하여, 사회적 실현수준으로서 '안전수준'을, 제도적 안전을 위한 행동의 장으로서 '사법·경찰·소방'을, 그리고 생활행동으로서 '각종피해'를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집계가능한 사회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지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술한 OECD의 지표를 원용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는 지역별로 일관성있게 정비되어 있는 사회통계의 체계적인 수집이 가능한 기반 위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지표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시된 지표중 화재, 교통사고(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법 위반 검거건수), 보험 등에 관한 지표는 안전부문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70) 일본의 사회지표는 사회·인구통계체계를 기초로 지역별 지표를 작성한다. 日本總務廳統計局, 『社會·人口統計體系:社會生活統計指標』(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 平成3年, 1991. 日本 總務廳統計局, 時丞列てみる縣のすかた, 1991.

〈표 2-12-14〉 일본의 '사회생활통계지표' 중 안전관련 지표

## [소방시설]

- 소방서수(인구 10만명당)
- 소방단·분단수(인구 10만명당)
- 소방자동차보유수(인구 10만명당)
- 소화전수(인구 10만명당)
- 소방관수(인구 10만명당)

## [소방활동,화재]

- 소방기관출동회수(인구 10만명당)
- 화재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 건물화재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 화재사상자수(인구 10만명당)
- 화재사상자수(건물화재 100건당)
- 건물화재손해액(건물화재 1건당)
-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기관 출동회수(인구 10만명당)

## [교통사고 범죄 등]

- 입체횡단시설수(1,000km당)
- 횡단보도수(1,000km당)
- 신호기 설치수(1,000km당)
- 교통사고 발생건수(10만명당)
- 교통사고 발생건수(1,000km당)
- 교통사고 사상자수(10만명당 )
- 교통사고 사망자수(10만명당)
- 도로교통법 위반 검거건수(10만명당)
- 경찰서, 파출소, 주재소수(10만명당)
- 경찰관수(1,000명당)
- 형법범 인지건수(1,000명당)
- 철도범 인지건수(1,000명당)
- 형법범 검거율(인지건수 1건당)
- 철도범 검거율(인지건수 1건당)
-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10만명당)

## [보험]

- 민간생명보험 보유계약건수(1,000명당)
- 민간생명보험 보험금액(보유계약 1건당)
- 화재보험 普通物件 新계약건수(1,000세대당)
- 화재보험 普通物件 受取보험금액(보유계약 1건당)

자료: 日本 總務廳統計局, 時系列てみる縣のすかた, 1991. 323-353.

### 3. 국내의 안전부문 관련지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체계를 원용하여 분야별로 지표체계를 작성하는 사례는 적지 않으나 이들 체계에서는 지표체계내에 해당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몇 개의 지표들이 제시되었을 뿐 국민전체의 안전을 파악하는 지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와 같이 안전부문을 독립적으로 체계화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안전부문의 지표체계내에는 분야별 지표체계에서 제시하는 안전관련지표계열이 검토되어 의미있는 지표들은 수록되어 왔다<sup>71)</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안전부문 지표체계의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공안부문지표체계에서 제시된 관심영역과 세부 관심영역을 <표 2-12-15>로 정리한다.

#### 가. 한국의 사회지표 : 공안부문 지표체계(1978, 1987)

1978년에 최초로 작성된 한국의 사회지표의 '공안'부문 지표체계<sup>72)</sup>는 동 체계작성과정에서 원래 '정치·행정·공안'부문의 지표로 작성되었으나 당시의 여건상 정치·행정을 제외<sup>73)</sup>한 채 공안부문의 지표체계만을 공표하였고 또한 이 부문의 지표선정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하는 '공안'에 관한 일반대중의 의식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공안관련통계를 공표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시기에는 성숙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지표의 계수화를 위한 관련 통계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뿐이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공안부문의 지표체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표선정에 있어서 이상적인 지표보다는 계수화가 가능한 지표를 선택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sup>74)</sup>.

71) 예를 들어 1995년의 체계에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서 설정된 지표이다.

한성덕,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체계 개선연구』, 1994.

72) 許範, "公安", 韓國의 社會指標(解說編), 經濟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1978, 제8장.

73) 정치·행정·공안의 속성인 사회적 강제력을 전제할 때, 정치는 강제력행사의 정당성과 한계를 마련하고, 행정은 사회지도를 실천에 옮기며, 공안은 사회질서와 안녕을 확보한다는 3자간의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행정은 부문에서 제외되었다.

許範, "社會指標:政治·行政·公安部門", 部門指標의 體系와 測定方法, 제1회 사회지표세미나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76, X-1~48.

74) 이러한 상황은 공안부문 뿐만 아니라 타부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든 부문이 사회적 관심사를

〈표 2-12-15〉 안전부문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의 변화

1978년 (공안부문) 1차지표 (2차지표)	1987년 (공안부문)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	1995년 (안전부문)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
범죄로부터의 안전 - 범죄발생 - 범죄피해 - 범죄신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주요범죄 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범죄 -범죄피해	안전에 대한 의식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
보안능력 - 범죄방지 - 교도능력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교통사고 -화재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주요범죄 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 범죄 및 비행 탈선 -조사된 범죄피해
법적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 법적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사회의 안녕도 -국가의 안전 -준법수준 -관공서에 대한 신뢰도	범죄방지 및 교도능력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 -범죄방지 교도능력
안녕감 - 안녕감	보안능력 -범죄방지 -교도능력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 안전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화재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기타 사고로부터의 안전
	법적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법적 공정성 -피의자 보호 및 변호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피의자 보호 및 변호
	안녕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안녕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1978.

주학중 외,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 연구』,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의 지표체계는 관심사를 체계화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얼마나 안녕한가?”를 알기 위한 3가지 관점(및 하위관심)으로서 ①시

구조화하지 못하고 [1차지표→2차지표→3차지표]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민안녕의 부정적인 측면인 범죄로부터의 안전(범죄발생, 범죄피해, 범죄신고) ②시민안녕을 지키고 키워가는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의 소극적 측면인 보안능력(범죄방지, 교도능력)과 적극적 측면인 법적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법적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③주관적 심리적 인 안녕감 등을 제시하고 관련지표를 선정하였다(<표 2-12-15>참조).

1987년에 개선연구된 공안부문의 지표체계는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개별지표]의 체계구조를 채택하여 개별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사회지표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체계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8년의 체계를 계승함은 물론 기존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표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시켜 관심영역 및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수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지표체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공안의 의미에 비추어 공안의 구성요소를, 시민으로서 개인과 가족의 안녕, 사회의 안녕, 공공질서의 준수정도, 공안을 높이는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 공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5가지로 구성<sup>75)</sup>하고, 이들 구성요소에 따라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한 후 영역별 관련지표를 선정하였다.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은 <표 2-12-15>과 같이 ①범죄로부터의 안전(보고된 주요범죄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 범죄, 범죄피해) ②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교통사고, 화재) ③사회의 안녕도(국가의 안전, 준법수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관장하는 관공서에 대한 신뢰도) ④보안능력(범죄방지, 교도능력) ⑤법적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법적 공정성, 피의자보호 및 변호) ⑥안녕감(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안녕감) 등으로 구성하였고, 영역별 개별지표는 기존의 33개에서 51개로 확대<sup>76)</sup>되었다.

이렇게 권고된 개별지표의 계수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지닌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부문의 가용통계는 양적·질적으로 적지 않게 보완된 성과가 있었다. 즉, 이들 지표 중에서 오랫동안 성역시 되어온 검찰 및 경찰 등 사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성격을 지닌 지표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주요범죄피해', '주요범죄의 신고율',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등을 사회통계조사를 통하여 공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체계를 작성할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안전과 개인이 구성원인 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사를 지표로서 제한없이 수록하기에는 한

75) 한성덕, "公安", 『社會指標의 體系改善』, 한국개발연구원, 1987.10. Pp.251- 264.

76) 주학중 외, 『社會指標의 體系改善』, 한국개발연구원, 1987.10, Pp.49-52.

계77)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공안부문의 지표가 이른바 ‘열린 사회’를 바탕으로 제약없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따라서 국민전체 및 개개인의 관심사인 ‘안전’을 제약없이 체계적으로 요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 나. 한국의 사회지표 : 안전부문 지표체계(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1995년에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연구가 수행되었고, 사회지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sup>78)</sup>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지표체계의 개발’이었다. 이에 따라 공안부문의 지표체계는 크게 개편되었고, 개편의 핵심은 <표 2-12-16>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열린사회’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부문의 명칭을 ‘공안’에서 ‘안전’으로 변경하였다. 변경의 이유는,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 차례의 헌정중단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공공안전, 공적안전의 준말인 ‘공안(公安)’이 지니는 본래의 의미가 일반인에게 왜곡되어 공안의 어감과 이미지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시되는 안전보다는 정치사회체제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었던 지난 날의 흔적을 불식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둘째, 주관적 지표의 대폭적인 채용이었다. <표 2-12-15>에서 보듯이 안전부문의 관심영역의 제1순위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표 2-12-16>과 같이 이 영역의 세부관심영역은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로 설정되어 이들 영역에 속하는 지표들은 모두 주관적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1995년의 공안부문지표체계는 5개의 관심영역, 14개의 세부관심영역에 55개의 개별지표를 담고있는데 이 중 13개 지표(23.6%)가 주관적 지표이다.

77) 예컨대,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의식’조사나 ‘각종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표로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을 위한 세부사업추진계획안”, 1995. 5, P.4.



〈표 2-12-16〉 안전부문 지표체계(1995)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안전에 대한 의식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사회의 안녕도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사회 안전(안정)에 대한 의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야간 보행시의 안전도*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
		보고된 주요범죄발생건수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주요범죄의 질적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
	보고된 범죄자	주요범죄별 범죄자 수(인구 10만명당)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주요범죄 초범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여성 범죄자의 비율
		컴퓨터 범죄자 수
	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청소년 범죄율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 협박의 피해 학생수(학생 1만명당)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범죄피해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율과 10만명당 피 해자수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 피해 액

\* : 주관적 지표

〈표 2-12-16〉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주요범죄(피해)신고율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미신고 이유*
		범죄발생부터 범죄자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범죄방지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
		경찰관 1인당 인구수
		GDP 대비 경찰비지출액
		지·파출소당 순찰차량수
	교도능력	주요범죄 재범율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안전 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야기 도주 검거율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입체도로 시설수
		화재 및 자연재해로 부터의 안전과 예방
	화재발생 건수당 피해액	
	소방관 1인당 인구수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사상자수 및 피해액)		
화재보험 가입건수(1,000가구당)		
기타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명당)
	피의자 보호 및 변호	유죄선고율
		형집행 유예비율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법률구조건수 지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 : 주관적 지표

#### 4. 신지표체계(2005) 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앞에서 살펴본 국제기관 및 외국의 지표체계와 우리나라의公安부문 지표체계에 대한 내용검토를 바탕으로 1995년에 권고된 안전부문 지표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가. 국제비교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

公安부문 지표체계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체계로서 모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12월)에 29번째의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sup>79)</sup>하였고, 가입 이후 우리의 여건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이른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안전부문의 지표체계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심영역으로 제시된 명칭을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안전부문지표체계에서 관심영역으로 설정된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죄부하량(Crime load)'<sup>80)</sup>으로 그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지표체계에 수록되어있는 지표들 중 국제비교<sup>80)</sup>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들로 있으나 앞으로는 주관적인 지표들 중 의미가 있는 지표들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마약류 범죄와 같은 범죄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지표계열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9) OECD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그 이념인 자유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 등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80) 예컨대, 주요범죄별 범죄자수(인구10만명당), 청소년 범죄율, 경찰관 1명당 인구수, GDP 대비 경찰비 지출액,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소방관 1인당 인구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와 같은 지표들은 1995년에 국제비교지표로서 권고되었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국제비교지표로서 공표하여왔다.

### 나. 미수록된 지표계열의 정비

과거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전부문의 지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표계열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공안(公安)과 관련된 지표들은 물론 법원, 검찰, 경찰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은 사회지표체계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국제기구(기구)와 선진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제시된 바 있는 안전관련지표계열이 우리의 체계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 다. 의미있는 주관적 지표의 선정

안전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의 확대가 요구된다. 안전부문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하겠다. 기존체계에서 범죄관련지표의 대부분은 행정적으로 보고된 통계자료(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실정은 보고통계와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범죄피해에 관한 지표에 대하여 사회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고된 범죄관련지표와 조사된 범죄관련지표를 비교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는 안전관련 조사통계의 수집과 정비가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 하에 안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주관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없을 것이므로 이 부문의 지표작성에 있어서 의미있는 주관적인 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안전부문의 관심영역 설정

#### 가. 안전의 개념적 구성요소

안전은 '평안하고 조금도 위험이 없음'을 뜻한다<sup>81)</sup>. 평안은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

8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2, 2334쪽.

는 상태를 말하고, 위험은 위태하고 험한 것을 의미한다. 안전과 같은 어의로 안녕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나 이 말은 안전의 높임말로 쓰이고 탈 없이 무사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안전의 개념은, 생명과 재산이 안전(안정)하고 사회의 질서가 바른 상태를 뜻하는 '공안'과 개념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공안이 법적·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안전은 심리적·주관적인 측면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안전은 어의적으로 볼 때 공공안전[공안]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을 규정짓는 범주는,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은 물론 공동생활의 존속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함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준수가 개인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건임과 동시에 사회관 및 윤리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범의 총체를 나타내는 사회질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안전의 개념과 및 범주를 통하여 그 개념상의 구성요소를 찾기 위한 질문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개인과 개인이 그 구성원인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가? 둘째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셋째,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의 방지와 통제는 효과적인가? 넷째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인도적인가? 등이다.

## 나. 안전부문의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 1) 관심영역의 설정

공안부문의 관심영역의 설정하기 이전에 1995년의 안전부문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을 기준으로 앞 절에서 살펴 본 외국의 지표체계에 나타난 관심영역과 비교한다. 이는 현행 안전부문의 관심영역이 외국의 그것들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한 것이 <표 2-12-17>이다.

기존의 공안부문체계의 관심영역인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그 세부 영역에서 앞의 1995년 체계인 <표 2-12-16>에서와 같이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범죄피해 등으로 분화되어있기 때문에, <표 2-12-17>에서 보듯이 현행 안전부문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은 비교국가의 관심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은 미국의 사회지표체계에서 '기타 공공안전지표'로서 관심영역이 있으나 영

국과 독일에는 이러한 관심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관심영역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안전부문의 관심영역의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그 체계 개편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심영역의 명칭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대상인 관심영역은 안전에 대한 의식,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이다.

〈표 2-12-17〉 안전관련부문의 '관심영역'의 비교

한국(1995)	미국(1980)	영국(2004)	독일(2004)
안전에 대한 의식	대중인식		공공안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와 범죄피해	범죄발생	범죄부하량
		경범죄	
		범죄피해	
		범죄자	범죄자가 될 위험 (청소년범죄)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자원투입	경찰,법원의 활동	범죄예방과 통제의 범위와 효과
		교도소와 보호관찰	
		자원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기타공공안전지표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시민정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안전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즉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범죄부하량(Crime load)'으로 명칭을 변경<sup>82)</sup>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화재 등에 관한 지표가 대부분인 '범죄이외의

82) 관심영역의 명칭을 '범죄로부터의 안전'으로 존속시키고 'Crime load' 로 영문표기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죄부하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의 관심영역은 표현자체가 구체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핀 안전부문의 관심영역을, 앞서 언급한 안전의 개념적 구성요소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개인이 그 구성원인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가? 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둘째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은 무엇인가?는 '범죄부하량과 '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으로, 셋째,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의 방지와 통제는 효과적인가? 는 '범죄방지 및 교도능력'으로, 넷째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인도적인가? 는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로서 관심영역을 정리한다. 관심영역의 배열은 기존체계와 같이 ①안전에 대한 인식과 평가, ②범죄부하량, ③범죄방지와 교도능력, ④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⑤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등으로 기존체계의 관심영역배열의 순서를 따른다.

## 2) 세부관심영역의 설정

위의 5개의 관심영역을 구체화한 세부관심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설명의 편의상 기존체계의 관심영역의 순서에 따라 세부관심영역을 제시한다.

① 안전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사회구성원이 의식·인식하는 i)개인 및 생활의 안전, 개인이 속해 있는 ii)사회의 안전도<sup>83)</sup> 등이 이 관심영역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개인↔사회↔국가"간의 상관관계적인 연쇄고리를 고려하면 '국가의 안전도'도 세부관심영역의 하나로 설정할 수도 있겠으나 개개인의 삶의 질 또는 개인의 복리를 중시하는 사회지표의 속성을 감안하여 국가의 안전도를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지표체계내에 정치부문이 없기 때문에, 세부관심영역인 사회의 안전도를 보는 주관적 지표의 하나인 '사회안전(안정)에 대한 인식'의 조사항목으로서 안보수준, 치안수준, 정부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국민평가, 외국의 도발가능성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여 집계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② 범죄부하량(犯罪負荷量) : 이 영역의 세부관심영역은 기존 지표체계에서 제안한 세

다.

83) 기존체계에는 '사회의 안녕도'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부문의 명칭이 안전부문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사회의 안전도'로 자구 수정을 하였다.

부관심영역들을 계승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이 관심영역에 속하는 지표계열은 가용통계가 활용된 영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 속한 지표에 대하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관심영역은 i)보고된 범죄발생, ii)보고된 범죄자, iii)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iv)조사된 범죄피해 등이다. 한가지 언급할 것은 “보고된” 또는 “조사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보고된 범죄만이 통계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 범죄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계수적인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 이 영역은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일하는 정부의 능력과 효율을 나타낸다. 또한 범죄방지를 위한 개인의 활동도 나타낸다. 세부관심영역은, i)범죄방지를 위한 인력배분과 재정지출, ii)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iii)범죄방지능력, iv)교도능력 등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들 세부관심영역 중 i)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분야에서 일하는 공직자 및 이를 위한 재정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체계에서 범죄방지와 범죄자의 교도능력을 보는 지표들이 세부관심영역별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제시된 세부관심영역으로서, ii)는 치안을 관장하는 관공서인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iii)은 범죄방지를 위한 역량을, iv)는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범죄자에 대한 교도능력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④ 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대인에게 교통사고에 의한 위험은 범죄 이외의 사고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발생건수)는 1966년에 12,653명(265,052건)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00년에 10,236명(290,481건), 2002년에 1,090명(230,959건)으로 서서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4)</sup>. 따라서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을 중요한 문제를 나타내는 세부관심영역이라고 하겠다. 세부관심영역은 기존체계에 따라 i)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ii)화재의 발생과 예방, iii)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등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인위적 재해 및 자연재해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대단히 크다. 즉, 난방과 취사를 가스에 의존하는 주거생활로 인한 주택화재와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차량화재 등은 화재발생

8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의 빈도가 많지는 않으나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화재로 부터의 안전과 예방'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한다.

대연각호텔화재,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도시가스폭발, 여객선침몰, 항공기추락, 대구지하철화재와 같은 사고는 이미 겪은 대형사고로서 국민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던 문제이다. 이러한 사고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사고를 당한 개인 및 그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 불안을 증폭시킨다.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 중에 건설되었던 석유화학을 비롯한 중화학공업관련 건축물과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사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아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⑤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 이 관심영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사법권이 부여된 기관, 그리고 변호사 등의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리고 그 능력과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즉,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들 기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범죄피의자에 대한 법집행이 지체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체계를 계승하여 i)법집행의 공정성, ii)피의자 보호 및 변호 등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채택한다.

이상에서 설정한 신체계의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의 구성을 기존체계의 그것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2-18〉 기존체계와 신체계의 관심영역 구성비교

기존체계(1995)	신체계(2005)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안전에 대한 의식 -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 사회의 안녕도	<b>안전에 대한 인식과 평가</b> -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 <b>사회의 안전도</b>
범죄로부터의 안전 - 보고된 범죄발생 - 보고된 범죄자 - 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 조사된 범죄피해	<b>범죄부하량</b> - 보고된 범죄발생 - 보고된 범죄자 - 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 조사된 범죄피해
범죄방지 및 교도능력 -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 범죄방지능력 - 교도능력	범죄방지 및 교도능력 - <b>범죄방지를 위한 인력배분과 재정지출</b> -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 범죄방지능력 - 교도능력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 화재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 기타 사고로부터의 안전	<b>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b> -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 <b>화재의 발생과 예방</b> - 기타 사고의 발생과 예방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 법집행의 공정성 - 피의자 보호 및 변호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 법집행의 공정성 - 피의자 보호 및 변호

주 : 고딕체는 수정 또는 추가된 관심영역 및 세부관심영역임.

## 2. 개별지표의 선정

관심영역별 개별지표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신체계(2005년)에서 제안한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의 내용과 합치되거나 포함될 수 있는 기존의 지표(1995년)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표의 명칭이 지표로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기존체계에서 계속적으로 관련내용을 공표하여 온 지표에 대하여는 조정된 지표명칭을 부여하여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입체도로 시설수'와 같은 지표는 '교통안전시설(도로연장 100Km당)'로 지표명칭을 부여하여 채택하였다.

둘째, 기존지표 중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추상적이거나 또는 지표를 계수화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표는 삭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관심영역인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에서 제시된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과 '일터의 안전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등이다. 그리고 관심영역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있는 '주요범죄의 질적 변화정도에 대한 인식', '컴퓨터 범죄자 수'는 삭제하였다.

셋째, 삭제한 지표일지라도 다른 지표와 통합이 가능한 지표는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과 '일터에 대한 안전의식' 같은 관심영역에서 제시된 '사회안전(안정)도'에 통합하였음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의 공안부문에서 공표하는 '사회안전도'의 조사결과<sup>85)</sup>에는 교통, 식품, 건축물 및 시설물, 치안, 안보, 경제, 환경 등의 항목이 수록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앞의 제2절에서 국제기관과 각국의 지표체계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검토된 지표들을 신체계의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에 따라 정리한 것이 <표 2-12-19>이다. 정리된 지표들 중 장기적으로 보아 국제비교가 요구되는 지표들은 기존체계(1995년)의 관심영역별 지표와 대조하여 내용상 중복되지 않을 경우 '선별'하여 신체계의 지표로 선정하였다. 선별하였다는 것은 이 표에 제시된 지표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표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안전부문의 지표로서 선정하는 이상적이겠으나 부문별 지표수의 배분상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지표의 계수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별하였다.

8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안전부문 참조.

〈표 2-12-19〉 검토한 지표의 관심영역별 배분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검토한 지표의 배분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안전</li> <li>·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직장, 개인, 가정생활)</li> <li>· 자택보안개량의 이유</li> <li>· 생활의 안전</li> </ul>
	사회의 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사회적기구·환경으로부터의 희생에 대한 위협</li> <li>· 조사된 질서위배수준</li> <li>· 범죄로 인한 위협감</li> <li>· 가족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안전정도</li> <li>· 가족이 재산범죄(주거침입)에 노출될 경우 안전정도</li> <li>· 공직자의 증·수뢰(贈·收賂)경험비율</li> <li>· 범죄로부터의 안전도</li> </ul>
범죄 부하량	보고된 범죄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차량)털이 절도율</li> <li>· 자동차 관련 범죄</li> <li>· 자동차 절도범죄율</li> <li>· 마약범죄와 관련된 지표</li> </ul>
	보고된 범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관련 사망자수</li> <li>· 기소된 사기범죄자 중 유죄피의자수(사기유형별)</li> <li>· 15세 이상 인구 중 대마 및 각성제 사용자 비율</li> <li>· 수감되지 않은 각종 법규위반자</li> <li>· 마약범죄 체포자수(마약류별)</li> <li>· 아동 학대율</li> </ul>
	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피의자 비율(청소년 범죄)</li> </ul>
	조사된 범죄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이상의 강력범죄피해 경험율</li> <li>· 범죄피해에 대한 예상 [상해,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li> </ul>
범죄방지 및 교도 능력	범죄방지를 위한 인력배분과 재정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중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분야에서 일하는 공 직자의 비율</li> <li>·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지출비율</li> <li>· 경찰력구성(성별, 지위별)</li> </ul>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집행상·민법집행상·실제적인 법집행상의 신뢰성 확장정도</li> <li>· 형법집행기관이 법집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분(신분)에 따라 가혹하게 또는 느슨하게 대우하는가?</li> <li>· 형법의 평등</li> <li>· 경찰의 수색과 수사증거의 사유별 건수</li> <li>· 사법처리과정에 소요된 평균시간</li> <li>· 기소에서 처분까지 걸린 평균시간</li> <li>· 법률적용절차의 신중성</li> </ul>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심판결의 내용별 비율(유죄, 방면, 항소, 조기종결)</li> <li>· 영장·소환장발급 건수(지방법원, 고등법원)</li> <li>· 형사처벌, 법률서비스의 근접가능성, 기소범죄의 평균형량</li> <li>· 법정신문, 기소로부터 선고까지의 시간</li> </ul>
	피의자보호 및 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죄판결률</li> <li>· 구금자비율</li> <li>· 범죄유형별 훈방자비율</li> </ul>

주: '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은 제외하였음.

다섯째, 관심영역(세부관심영역)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의미있는 주관적 지표는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표로서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이다.

가. 삭제된 지표

이상과 같은 개별지표의 선정의 기준에 따라 기존체계에서 삭제한 기존지표는 <표 2-12-20> 과 같다.

<표 2-12-20> 기존 안전부문체계(1995)에서 삭제된 개별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안전에 대한 의식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일터의 안전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범죄발생	주요범죄의 질적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
	보고된 범죄자	컴퓨터 범죄자 수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방지	지·파출소당 순찰차량수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입체도로 시설수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나. 신규지표

이 글에서 신규지표는, 신체계를 통하여 조정된 기존지표와 신체계에 새로 선정된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의미한다.

1) 신체계에서 조정된 기존지표

기존지표 중에서 다른 지표에 통합시키거나, 지표명칭을 조정하거나, 지표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신지표체계에 포함시킨 지표들은 <표 2-12- 21>과 같다.

〈표 2-12-21〉 신 체계(안전부문)에서 조정된 기존지표

기존 지표명 (1995)	신 지표명 (2005)	조정방법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개인, 가정, 직장생활)*	개념구체화
주거지역의 불안전 지대에 대한 의식*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지표통합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의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전화폭력의 경험률	개념구체화
지·파출소당 순찰차량수	지구대당 순찰차량수	명칭조정
입체도로 시설수	교통안전시설 (도로연장100Km당)	개념구체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사상자수 및 피해액)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상자수 및 피해액)	명칭조정

\* 주관적 지표

## 2) 신규지표

신지표체계에서 제안된 신규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된다. <표 2-12-22>에 새로 제안된 신규지표를 [관심영역→세부 <표 2-12-22> 신규지표 관심영역→개별지표]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 표를 중심으로 5개의 관심영역 별로 구분하여 신규지표가 지니는 의미 또는 제안이유를 설명한다.

〈표 2-12-22〉 안전부문 신규지표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안전에 대한 인식과 평가	개인과 생활의 안전의식	5년후의 생활안정에 대한 견해 (개인, 가정, 직장생활)*
	사회의 안전도	공직자의 증·수뢰(贈·收賂)경험비율* 성희롱 경험률
범죄부하량	보고된 범죄발생	자동차절도·자동차탈이 범죄율
		미성년여성에 대한 성적학대율 (여성인구10만명당)
		가정폭력발생율(1,000가구당)
		마약류범죄율
	보고된 범죄자	마약류범죄 체포자수 수감되지 않은 각종 법규위반자수
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청소년 범죄 피의자 비율	
범죄피해	범죄피해에 대한 향후 1년 동안의 예상 [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방지를위한 인력배분과 재정지출	공직자 중 공공안전·질서유지 분야종사 공직자의 비율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 지 출비율(사법기관별)
		경찰력구성(직급, 근무관서별)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검찰·경찰에 대한신뢰도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	
교통사고,화재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안전시설(도로연장 100Km당)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자연재해별)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구속영장발부율
		기소로부터 선고까지의 평균일수
	피의자 보호 및 변호	구금자비율

\*: 주관적 지표

### 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평가

‘5년 후의 생활안정에 대한 견해’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의 안정이 현시점에서 5년간 보장(security)되는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개인·가정·직장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안전(safety)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의 증·수퇴경험비율’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서 국제비교지표로 이용하는 지표이다. 각국이 자체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이 지표가 이용되나 이에 대한 지표가 우리에게 없었다. ‘성희롱 경험률’은 직장내(상사, 동료, 기타), 사이버공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의 이용 중에, 그리고 도로상 및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정도를 보기 위한 지표이다.

### 나) 범죄부하량

범죄부하량의 세부관심영역은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자,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범죄피해 등이다. 이들 세부관심영역에 제안된 신규지표들은 국제비교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보고된 범죄발생 ; 신규지표로서 ‘자동차절도·자동차털이 범죄율’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율’, ‘가정폭력발생율’, ‘약물(마약)범죄율’을 선정하였다. 생활필수품으로까지 여겨지는 자동차에 대한 절도범죄와 자동차안의 물품을 절도하는 이른바 자동차털이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범죄는 앞에서 살폈듯이 선진국의 경우 주요범죄로 다루고 있다. 마약, 향정, 대마 등과 같은 마약류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인류의 적으로까지 표현된다<sup>86)</sup>.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마약류범죄율이 낮으나 마약류범죄가 지니는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율(여성인구10만명당)’은 외국의 지표에서 설정된 14세 미만에 대한 ‘아동학대율’과 비교하기 위한 지표이다. ‘가정폭력발생율(1,000가구당)’은 가정 내에서 생기는 성적학대는 물론 존속·비속에 대한 각종 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을 보기 위한 지표이다.

보고된 범죄자 ; 신규지표로서 ‘마약류범죄 체포자수’, ‘수감되지 않은 각종 법규위반자수’를 선정하였다. ‘마약류범죄 체포자수’는 앞의 ‘약물(마약)범죄율’과 내용상 같으나 전자

8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발간사 참조.



가 범죄발생정도를 보기 위한 지표이나 후자는 범죄자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청소년 범죄 및 비행·탈선 ; 2002년 현재 형법범법죄자의 6.6%가 소년범죄자이다. 주요 범죄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절도범죄자의 38.0 %, 강도범죄자의 27.9%, 강간범죄자의 10.5%이다<sup>87)</sup>. 이러한 비율은 종결된 범죄통계일 뿐 주요범죄의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까지 포함된 수치가 아니다. 작지 않은 이 같은 비율을 감안하여 ‘청소년 범죄 피의자 비율’을 선정한다.

범죄피해 ; ‘범죄피해에 대한 향후 1년 동안의 예상’은 상해·강도·강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 국민이 예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의 안전부문에 이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주요범죄의)피해 건수와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를 선정한 것은 앞으로 이 지표가 유럽연합(EU)의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어려움은 있겠으나 사회통계조사시에 조사항목으로 추가한다면 집계 가능한 지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다)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방지를 위한 인력배분과 재정지출 ; 범죄의 통제와 방지는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으로는 ‘공직자 중 공공안전·질서유지 분야 종사 공직자의 비율’, ‘GDP대비 공공안전과 법집행을 위한 재정 지출비율(사법기관별)’, ‘경찰력구성(직급별, 근무관서별)’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자택보안개량의 이유’를 채택하였다.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범죄방지를 위하여 검찰과 경찰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는 지표로서 제안한다. 범죄방지를 위하여 진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검사와 경찰관에 대하여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이미지를 통하여 그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이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청·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해당기관의 이미지를 조사하였겠으나 공표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의 신분에 따른 검찰·경찰의 차별대우 정도’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게 남아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관행을 실증하기 위하여 제안할 수 있는 지표이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87)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3.

라) 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 교통사고의 예방을 보는 지표로서 '교통안전시설(도로연장 100Km당)'을 선정하였다. 이 지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지표인 '입체도로 시설수'를 대체하여 설정한 지표이다.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자연재해별)'도 기존지표를 명칭변경하여 채택하였다.

마)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 '구속영장발부율', '기소로부터 선고까지의 평균일수'를 신규로 채택하였다. 전자는 구속영장의 청구·신청건수에 대한 구속영장발부건수를 의미하며, 간접적으로 검사와 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어느 정도 기각되는지를 나타낸다. 후자는 지표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범죄자에 대한 기소로부터 재판을 받아 선고(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이다.

피의자 변호 및 변호 ; '구급자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재소자와 유치자수를 의미한다.

3. 신지표체계(2005)의 구성

지금까지 논의한 안전부문과 관련된 지표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개별지표]로 구조화시켜 정리한 신지표체계는 <표2-12-23>과 같다.

<표 2-12-23> 신지표체계(2005)의 구성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개인인 생활의 안전의식	5년후의 생활안정에 대한 견해 (개인, 가정, 직장생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사회의 안전도	사회 안전(안정)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공갈·협박·전화폭력의 경험률*
		성희롱 경험률*
공직자의 증·수뢰 경험비율*		

\* : 주관적 지표

〈표 2-12-23〉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범죄부하량	보고된 범죄발생	보고된 범죄발생 총건수
		보고된 주요범죄발생건수
		자동차절도·자동차털이 범죄율
		미성년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율
		가정폭력 발생율
		마약류범죄율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내국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보고된 범죄자	주요범죄별 범죄자 수
		주요범죄자 평균연령
		주요범죄 재범자 비율
		교도소 재소자수(10만명당)
		여성범죄자의 비율
		마약류범죄 체포자수
	청소년범죄 및 비행·탈선	청소년 범죄율
		청소년 범죄 피의자 비율
		학교주변 및 교내폭력, 협박의 피해 학생수(학생 1만명당)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범죄피해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율과 10만명당 피해자수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피해건수와 평균 피해액	
	범죄피해에 대한 향후 1년 동안의 예상 [상해,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방지를 위한 인력배분과 재정지출	공직자 중 공공안전·질서유지 분야종사 공직자의 비율
		GDP대비 공공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재정지출비율 (사법기관별)
		경찰력구성(직급별, 근무관서별)
		GDP 대비 경찰비지출액(기능별)
		경찰관 1인당 인구(지역별)
		지구대당 순찰차량수
		자택보안개량의 이유*

\* : 주관적 지표

〈표 2-12-23〉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검찰·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의한 현행범죄의 신고율 및 미신고 이유	
		범죄발생부터 범죄자체포까지의 기간별 분포	
		팽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교도능력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
			주요범죄 재법률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교통사고, 화재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의 발생과 예방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000대당)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률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교통안전시설(도로연장 100Km당)			
화재의 발생과 예방			화재발생 건수당 사상자수
			화재발생 건수당 피해액
			소방관 1인당 인구수
			소방자동차 1대당 인구수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화재보험 가입상황(주택형태별)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사고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상자수, 피해액)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법집행의 공정성	구속영장발부율	
		소송사건처리 건수(인구 10,000명당)	
		기소로부터 선고까지의 평균일수	
	피의자 보호 및 변호		유죄선고율
			형집행 유예비율
			구금자비율
			피고인의 재판전 평균 구류기간
			법률구조건수 지수
			개업변호사수(인구 1,000명당)

\*: 주관적 지표

## 제4절 결론

기존의 안전부문지표체계(1995)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 공안부문지표체계의 관심영역이 국제비교가 가능한 틀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검토결과 기존체계의 관심영역은 관심영역내의 지표들을 국제비교하는 틀(frame)로서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국제비교에 적합하지 않은 관심영역의 명칭이 찾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체계의 관심영역인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범죄부하량”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둘째, 기존체계의 관심영역의 명칭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변경하였다. 즉 기존체계의 관심영역이었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로,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범죄이외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교통사고·화재·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셋째, 기존체계의 지표 중 삭제되어야 할 지표를 찾고, 신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지표를 선정하였다. 기존지표 중에는 ‘일생동안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과 같이 지나치게 이상적·추상적이거나 또는 지표를 계수화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표는 삭제하였다. 신규지표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국제기관과 외국의 안전관련 지표체계 열 중 기존체계에서 누락되었던 지표를 찾은 후 이들 지표를 신체계의 관심영역에 맞추어 정리한 다음에 기존체계의 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의미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의 선정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비중을 두었다.

넷째, 1995년의 개편시에 주관적 지표의 선정이 많았던 데에 비하여 이번 개편시에는 주관적 지표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다. 신규로 제안된 주관적 지표는, 향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직장, 개인, 가정생활), 공직자의 증·수뢰 경험비율, 범죄피해에 대한 향후 1년동안의 예상(상해, 강도, 강간, 주거침입절도), 피의자의 신분에 따른 검찰·경찰의 차별대우 정도, 국민의 검찰·경찰에 대한 이미지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는 조사통계에 의하여 그 계수화가 가능하다. 즉 국민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안전은, 이상적인 객관적 지표를 선정한다해도 행정통계나 보고통계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서 살폈듯이 국제기관과 선진국의 안전관련지표는 주관적 지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권고된 주관적지표에 대하여 국민의 의식과 견해를 파악하는 사회통계조사가 외부의 제약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1978.
-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3.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1.
- 주학중 외,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주학중 편, 『2000년대의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연구』, 1995.
- ,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개편을 위한 세부사업추진계획안”, 1995. 5.
- 한성덕, “公安”,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1987.10.
- ,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체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허 범, “公安” 『한국의 사회지표(해설편)』,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 1978.
- 日本總務廳統計局, 『社會·人口統計體系:社會生活統計指標』(Social Indicators by Prefecture), 平成3年, 1991.
- 日本 總務廳統計局, 時系列てみる縣のすかた, 1991.
- Drewnowski, Jan.,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U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70.3, Geneva, 1970.
- , *On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Mouton, 1974.
-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s(GESIS) [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social\\_indicators/Data/System/index.htm#DISI](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social_indicators/Data/System/index.htm#DISI)

- National Statistics, *Social Trends: 34(2004 edition)*, edited by Carol Summerfield & Penny Babb, London, 2004.
- OECD, *Measuring Social Well-Being :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76.
- ,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Member Countries*, 1973.
- ,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Paris, 1982.
- ,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Edition 2002, Paris, 2003.
- Spyridoula Tsoukalas and Andrew Mackenzie, *The Personal Security Index : A Reflection of how Canadians feel Five Years Later*, (2003 online ed.),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3.
-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hanging America: Indicators of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by Race and Hispanic Origin*, Sept., 1998.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oward A System of Social and Statistics*, New York, 1975.
- ,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Series F No. 89, New York, 2003.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3*, UNDP, Oxford Univ. Press, 2003.
- U. S., Department of Commerce &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Commerce & Bureau of the Census. December 1980.

## 제13장 정부와 사회참여

### 제1절 서론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하나가 사회지표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지표가 대부분 수량화된 각종의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각개 각종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사회가 복잡다단해 질수록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도 다양화되는 만큼 활용 가능한 기존의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태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한국사회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국가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에서 각종 사회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생산한 주관적인 사회조사 결과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39개국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종합사회조사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이다. ISSP에서는 미국의 NORC, 영국의 NCSR (Social and Community Planning Research의 후신), 독일의 ZUMA (Zentrum fuer Umfragen, Methoden, und Analyzen)등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역할,” “사회 불평등,” “가족,” “노동,” “종교,” “환경,” “사회보장”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관련된 사회지표자료를 생산해 내는데 필요한 각종 module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어, 이들 자료를 각 국가들이 사회지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까지 사회지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정부 (E-government)활용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사회지표의 작성에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 1.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1995년에 작성된 사회지표는 사회참여부문, 정치참여부문, 그리고 정부부문을 동일한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행정과 재정의 두개 분야로 나누어지는 정부부문은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영역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성질의 것이다. 정치참여의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에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문화와 여가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치영역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단순한 통일에 대한 태도보다는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조명해 줄 수 있는 사회지표의 작성이 요구된다.

사회참여에서도 사회봉사활동이 모두 국내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어 국제무대에서 접고하는 한국인의 활동상황을 파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는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사회계층간의 빈부격차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부문의 행정영역 역시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나 불만사항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국외연구의 검토

국외에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모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순히 중앙 정부차원에서 발표하는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제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급 연구 단체나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작성된 사회지표까지도 중요한 국가수준의 사회지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NORC를 비롯하여 각국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출해 내고 있는 ISSP의 자료가 그러하고, 금년 4월부터 독일의 Gesellschaft Sozialwissenschaftlicher Infrastruktureinrichtungen (GESIS)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는 Digital Information System Social Indicators (DISI)가 또한 그 대표적인 예로 손꼽힌다.

우선 ISSP의 사회참여부문 항목의 하나로 미국에서 작성된 General Social Survey module을 보면, “미국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에서 시작하여 “미국 땅을 당장에라도 떠나고 싶은가?”라는 항목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작성하는 사회지표가 사설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처럼 지나치게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으나,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가차원의 사회지표와 개별 사설 기관에서 작성 발표하는 사회지표간의 차이를 허물어 가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국가차원에서는 아예 작성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지표가 작성 가능해 지고 있는가 하면, 역으로 국가 전반에 관련된 각종 사회지표가 사설 연구기관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사회지표 항목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우리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음을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다.

OECD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Society at a Glance: Social Indicators나 캐나다 정부의 Canadian Social Trends, 그리고 Social Trends & Indicators USA와 Social Indicators Research에 등재되어 있는 “삶의 질”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노숙자문제”에 연관된 사회지표 항목들은 각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몇 가지 고정된 사회지표 항목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회지표 생산 방법을 도입해야 함을 말해준다. “사회통계조사” 항목을 보다 확충하는 것은 물론, 보다 중요한 작업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user-friendly) 각종 사회지표를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생산해 내는 일이다. 극도로 분화되어 가는 정보사회에서 국가가 단독으로 사회 구성원 전부가 요구하는 사회지표 자료를 생산해 내려는 것은 과욕일 뿐이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정보사회에서 국가란 단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평범한 하나의 시민단체 성격을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한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회지표의 생산은 국가, 시민단체, 연구기관의 공동협조로만 가능해 지는 것이다.

### 3.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현재 미국, 영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는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로는 앞으로 급속도로 진전될 정보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첫째, 이번 사회지표체계 작성에서는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표체계를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초고속 인터넷 강국에 어울리는 사회지표

개발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우선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의 활용도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측정하는 항목을 별도로 삽입하였다.

둘째, 사회지표자료 활용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도 사회지표작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 지표체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변국 및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점검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계층간의 빈부격차,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문제를 사회지표에 포함시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당면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사회지표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표 2-13-3>과 <표 2-13-4>에서 예시되고 있듯이 국민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회지표 항목들을 대폭 강화하였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재조정

이번 2004년도의 신 지표체계에서 중요 변경사항은 1995년도 사회지표에서 사회참여, 정치참여, 정부의 3가지 관심영역을 단일 부문으로 통합하였던 것을,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관심영역을 “사회참여 부문”으로, 그리고 정부 관심영역을 “정부부문”으로 각각 별개의 부문으로 독립시킨 점이다 (표 2-13-1, 표 2-13-2 참조).

뿐만 아니라, 사회부문의 세부관심영역의 명칭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표 2-13-1 참조):

〈표 2-13-1〉 명칭변경 비교

1995년도 원래의 명칭	2004년도의 변경된 명칭
<u>&lt;정치참여&gt;</u>	
a)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	a) 여성의 정치참여
b) 정치영역에 대한 태도	b) 삭제 (일부 항목은 “정치참여”난에 통합됨)
c) 통일에 대한 태도	c) 통일 및 미래에 대한 태도
<u>&lt;사회참여&gt;</u>	
a) 사회참여	a) 사회참여 I (국내참여), 사회참여 II (국의 참여)로 세분됨

이처럼 정부부문을 사회참여부문에서부터 독립시킨 이유는 정부의 행정, 재정 세부관심 영역이 사회참여부문의 세부관심영역과는 판이한 별개의 성질일 뿐 아니라, 앞으로 행정, 재정업무의 진산화에 따른 새로운 개별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부문은 사회참여부문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2-13-2〉 사회참여부문 기존체계와 신 체계의 구성비교

기존체계 (1995)		신체계 (2004)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정치참여	정치참여	정치참여	정치참여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여성의 정치참여
	정치영역에 대한태도		통일 및 미래에 대한태도
	통일에 대한태도		
사회참여	사회적 이동	사회참여	사회참여 I (국내참여)
	사회참여		사회참여 II (국의참여)
	사회문제에 대한태도		사회적이동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정부	행정	(정부영역은 별도의 정부부문으로 독립함)	
	재정		

〈표 2-13-3〉 정부부문 신체계의 구성

신체계 (2004)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정부	행정
	재정

## 2. 개별 지표의 선정 및 재조정

### a) 사회참여부문

2004년도 신 사회지표체계에서는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를 저울질하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 되었다. 아울러, 동북아 주변국의 정세와 대미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점검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한번도 측정해본 적이 없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세계 제 3 위 교포 송출국의 면모를 대변해 주는 두 가지 (해외 봉사활동 참가자 수와 해외 교포단체 수) 사회지표 항목도 신설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로 치달고 있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노인의 사회활동참가를 지표로 측정을 시도하였고, 불안한 경제상황이 빚어낸 빈부격차에서 비롯되는 사회계층간 심화되는 위화감을 조사하는 항목이 삽입되었다. 사회계층간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로 확산 될 가능성이 짙은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회지표의 작성은 정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연구기관에서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들 연구기관들에서 작성한 자료의 종합분석은 정부의 향후 정책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탈북자 문제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경제 및 정치적인 문제를 예고하여 주는 내용이라 이를 사회 지표화하여 일반에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표 2-13-4〉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사회참여부문)에서 조정 또는 첨가된 개별지표들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정치참여	정치영역에 대한태도	언론공정성에 대한평가*	삭제 (문화와 여가부문 사회지표에 포함되어야함)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정치참여년에 통합됨
	통일 및 미래에 대한 태도	주변국(일본,중국,러시아) 및 미국에 대한 태도*	신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신규
사회참여	사회참여 (I) (국내참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신규
	사회참여 (II) (국외참여)	해외봉사활동 참가자수	신규
		해외 교포단체 수	신규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지역발전에 대한 견해*	삭제 (정부부문 행정난의 “신행정수도에 대한 견해”로 대체)
		국내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신규
탈북자에 대한 태도*		신규	

\* 주관적 지표

## b) 정부부문

각 중앙행정부서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중앙행정 부서에 대한 신뢰도 항목은 앞으로 이들 행정부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감시감독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핵심 사회지표로 신설되어야 한다.

전자정부 (E-gov.)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의 견해 항목 역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삭제 및 추가된 사회지표는 아래의 <표 2-13-4>와 <표 2-13-5>와 같다.

<표 2-13-5>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정부부문)에서 조정 또는 첨가된 개별지표들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비고
정부	행정	중앙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	신규
		전자정부 (E-gov) 서비스 만족도*	"민원 서비스 만족도" 명칭변경
		신행정수도에 대한 견해*	신규

\* 주관적 지표

### 3. 신 지표체계의 구성

<표 2-13-6>과 <표 2-13-7>은 최종 완성된 사회참여부문 및 정부부문 신 지표체계이다.

<표 2-13-6>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사회참여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정치참여	정치참여	투표율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여성의 정치참여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중
		지방의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중
	통일 및 미래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사회참여	사회참여 I (국내참여)	사회단체 참가율
		사회교육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비율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종교인구 분포
		종교집회 참여도
	사회참여 II (국외참여)	해외봉사활동 참가자수
		해외교포단체 수
	사회적이동	사회적이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	빈부격차에 대한 태도*
		국내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		

\* 주관적 지표

〈표 2-13-7〉 2004년도 신 지표체계 (정부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정부	행정	공무원수(인구1,000명당)
		공무원 부처별 분포
		여성고위공무원 비중
		중앙행정부서에 대한 신뢰도*
		전자정부 (E-government) 서비스 만족도*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재정	GDP대비 기능별예산
		정부예산의 구성: 기능별예산
		국민 1인당 기능별 예산비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조세형평에 대한태도*

\* 주관적 지표

#### 제4절 결론

사회참여부문의 사회적 이동에서 다루어진 “주관적 사회계층의식”과 같은 내용은 성질상 국가차원에서 수집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만으로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사회지표화하는 데는 단순히 지금처럼 피상적인 통계자료의 제시에서 그치지 말고, 일반 연구소나 대학 부설 연구기관들에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한 사회계층의식 조사내용을 첨가하여 제시하던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내용에 이들 각 연구소의 관련내용 website를 등재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들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독일) 경우는 주관적인 사회계층의식 조사내용을 소개하면서 앞서 언급한 GESIS나 Allensbach의 Institut fuer Demoskopie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사회계층의식조사 자료를 일반인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병행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제종합사회조사 (ISSP)의 일환으로 주관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가 매 2년마다 사회계층의식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자료를 통계청의 사회지표자료를 소개할 때 병행하여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앞으로 정부는 사회지표를 발표함에 있어 단순히 수집된 통계자료를 책자로 발간하는데서 탈피하여, “신뢰성 있는 개별 연구기관”에서 생산된 각종 사회지표 내용도 일반인들이 정부의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access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회지표의 유용성이 그만큼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 여 성

### 제1절 서론

1995년에 수행한 사회지표의 체계개편 연구에서 여성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함께 특정집단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설편에 별도의 부문으로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인구, 가족 등 주제별 분류와 여성, 노인 등 대상별 분류라는 이중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 약자 혹은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노인, 청소년 등의 특정집단과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문 지표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절반으로 노인, 청소년 등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동시에 단지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각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부의 수립과 함께 모든 정부정책의 실행에 있어 성 인지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이다. 소위 정책의 성 주류화로서 정책의 입안에서 수립, 시행,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별 입장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셋째 국가에서 국가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여성의 잠재력을 새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경제, 정치부문 등 공식적인 부문에서 참여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정책적 흐름을 고려할 때 사회지표에서 여성부문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기존지표의 내용분석 및 신 지표체계의 방향설정

여성부문 사회지표를 다룬 기존의 통계 및 지표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첫째 여성과 남성 혹은 성평등을 주제로 한 지표들과 둘째 전체 사회지표체계 내에서 여성 혹은 성평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첫번째의 방법으로 여성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 및 지표들을 분석하여 신지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뒤이어 전체 사회지표체계 내에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 1. 외국의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성 평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개별 수준의 모든 통계에 대해 성별, 연령별 세부 통계를 생산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북경 행동강령, 제64조, 77조, 80조, 92조, 93조)

*The World's Women:Trends and Statistics*은 UN에서 전 세계여성의 현황과 지위를 통계 및 지표로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 간행물이다. 5년 간격으로 발간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해당분야의 중요한 경향들과 특징들을 국가별, 지역별로 보여 주는 도표 및 분석 내용과 함께 주요한 통계와 지표를 수록한 통계표를 해당 장의 후반부에 실고 있다. 각 장별 주요 내용과 수록 도표와 통계표수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비교가 주요 목적인만큼 지표측정의 단위가 대부분 개인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거시수준의 지표는 비중이 적다. 둘째 보건부문에서 HIV감염과 AIDS를, 노동부문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셋째 인권과 정치참여를 한 부문으로 설정하여 여성의 인권과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표 2-14-1〉 The World's Women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장별 구성

장별 제목	주요 내용	수록 도표/통계표
1장 인구	·인구변화 ·여성과 남성 인구의 지역별 분포 ·도시, 농촌 지역의 주거 조건	18/1
2장 가족	·결혼 및 기타 가족 구성 ·가족 해체 ·자녀 ·가족 형태	24/1
3장 보건	·기대 여명 ·아동 및 청소년 보건 ·출산 ·HIV 감염과 AIDS ·기타 질병 및 사망 원인 ·노령 인구 보건	17/1
4장 교육과 정보통신	·성평등과 교육 ·교사 및 교육 시설 ·정보와 통신	16/1
5장 노동	·여성과 남성 노동력 ·비공식부문 노동 ·시간 사용 ·노동 조건과 기회	23/4
6장 인권과 정치참여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 ·정치적 의사 결정	13/1

자료: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의 목차 재구성

UN을 포함한 젠더 통계 및 지표 부문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의 간행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2-14-2>와 같다. 이 세 국가의 공동적인 특징으로는 경제활동부문과 관련하여 수입 및 소득 부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여성의 삶의 수준을 신장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무배우여성과 노인여성을 중심으로 한 빈곤여성의 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스웨덴의 여성과 남성: 현상과 통계”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육아와 노인개호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두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캐나다는 여성 중 소수집단 여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이민 여성, 소수민족여성, 원주민 여성, 여성노인 등 소수집단 여성이 성차별과 더불어 갖는 고유의 이중적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표 2-14-2〉 주요 젠더통계간행물의 특징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Women in Canada: a gender-based statistical report	Women and Men in Finland	여성통계연보
최초 발간년도	1991	1984(1985) <sup>1</sup>	1985	1994(1995) <sup>1</sup>	1994 <sup>2</sup>
발간주기	5년	3년	5년	4년	1년
발간부서	UN 통계국 사회 및 주택통계부	스웨덴 통계청 양성통계부	캐나다 통계청 주택, 가족 및 사회통계부	핀란드 통계청 인구통계부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배포형태	책자/인터넷 <sup>a</sup> /CD-ROM(WIS TAT) <sup>b</sup>	책자/인터넷 <sup>a</sup> <sup>c</sup>	책자	책자/인터넷 <sup>a</sup>	책자/인터넷 <sup>b</sup>
수록분야 <sup>4</sup>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가족	육아	가족	가족	가족
		노인개호			
	보건	보건	보건		보건
	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노동	취업	유급 및 무급노동	고용	경제활동
		임금 수입	수입 및 소득	수입	
	인권과 정치참여	영향력과 권력		사회참여	정치 및 사회참여
		폭력과 범죄	치안		안전
			주택 및 가구설비		문화 및 정보
			이민 여성		국제 비교
			주요 소수민족 여성		특집
		원주민 여성			
		여성 노인			

출처: 한국여성개발원(2001),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 p.33을 기초로 재구성함.

주 : 2000년도 판을 중심으로 구성

UNDP의 성평등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게 개발한 대표적인 지표이다.

성평등지수는 인간의 능력개발에 있어서의 성평등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각급학교 취학률, 추정소득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권한척도는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내용이다. 구성지표는 국회의원 여성비율, 입법 및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 추정소득비이다. 이 두지표가 갖는 의미는 첫째 성평등정도의 국가별 비교와 국가내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인간개발이라는 보편적인 사회유지 원리 안에 여성의 문제를 포함했다는 점, 셋째 구성변수가 대표적이면서 간단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 지표가 비중있게 거론되는 이유는 한국의 GDP순위에 비해 성평등지수는 비슷한 수준인 반면 여성권한척도의 순위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성평등지수는 20분위(144개국 중 29위)로 GDP의 21분위(177개국 중 37위)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여성권한척도는 87분위(78개국 중 68위)로 거의 최하위수준이다. 이는 교육과 건강, 소득에 있어 성별 차이가 적은 반면, 주요 결정권한을 가진 부문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주요 자료가 되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청은 Equal X라는 는 스웨덴의 도시(municipality)별 성 평등 지수(gender equality index)를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2001년 1월 최초의 Equal X 버전이 공개된 이후, 현재는 도시별 성 평등 지수와 표준 변수(standard variable)의 도시별 상황을 지도와 표를 통해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 중등 이상 학력 소지 인구 비율
- 취업(gainful employment) 인구 비율
- 전일제 취업 인구 비율
- 구직자 비율
- 취업에 의한 총수입
- 육아 휴가 급여(parental leave benefit) 일수
- 단기 육아 휴가 급여(temporary parental leave benefit) 일수
- 시립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비율
- 질병률(sickness rate)
- 시의원 비율Municipal council
- 시청 간부 비율Municipal executive board
- 9인 이상 고용 기업주
- 20~64세 인구의 평균 연령

출처: [http://www.h.scb.se/SCB/BOR/SCBBOJU/jam\\_htm\\_en/index.htm](http://www.h.scb.se/SCB/BOR/SCBBOJU/jam_htm_en/index.htm)

## 2. 국내연구의 검토

국내의 여성부문 사회지표는 한국여성개발원과 통계청에서 주로 발표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6년과 1994년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표하였고, 1994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여성통계연보」에 여성관련 지표체계를 다루고 있다. 통계청의 주요 발표자료로는 「한국의 사회지표」내에 여성관련 지표가 있으며 199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 있다.

이중 「여성통계연보」의 지표체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와 유사하다. 단 한국의 사회지표는 모든 부문의 지표에서 여성과 관련되는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통계연보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를 따르되 모든 부문에서 개별지표 중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은 기존의 지표체계들과 달리 생애과정별 접근을 하고 있다. 가정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로 나눈 후 각 부문의 생애과정별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가정적 지위에서는 출생, 성장, 결혼, 이혼, 사망 등을 사회적 지위에서는 교육, 취업, 정보화, 복지, 사회참여 등을 다루고 있다.



〈표 2-14-3〉 국내의 여성사회지표체계

	여성통계연보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최초 발간년도	1994 <sup>2</sup>		1997	
발간주기	1년	1년	1년	
발간부서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통계청 사회통계과	통계청 사회통계과	
수록분야 <sup>4</sup>	인구	인구	여성의 위치	
	가족	가족	여성의 가정적 지위	출생
	교육	교육		혼인과 이혼
	경제활동	소득과 소비		출산과 보건
		노동		가정내 의식
	보건	보건		문화와 여가생활
	복지	복지		생활시간 활용
	정치 및 사회참여	정부와 사회참여		폭력피해구제
	문화와 정보	정보와 통신		65세이상여성
		문화와 여가		사망
	안전	안전		여성의 사회적 지위
	국제 비교	문화와 여가 안전	취업	
	특집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활용	
			정보화	
		복지		
		범죄와 안전		
		사회참여		

### 3. 신지표체계의 방향설정

기존의 국내외 여성관련 지표들을 검토결과와 국내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여성관련 부문의 지표체계의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첫째 개별 수준의 지표에서 성별 분리 지표의 추가이다. 여성의 삶의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개

별지표에 성별 분리가 누락된 지표들은 성별분리를 추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 사회, 정치적 참여가 증가하고 또한 이들의 참여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의 다른 참여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인구, 보건, 교육 등 기본적인 부문에서의 평등을 보여 주는 지표와 더불어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정보, 문화 복지 등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가족현상이 출현함에 따라 이를 여성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지표들의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의 지위에 대한 국제비교의 필요성의 대두이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국제비교는 우리나라 여성의 취약점과 강점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여성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3절 신 지표체계

#### 1. 관심영역의 설정

여성부문 지표는 별도의 관심영역을 설정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사회지표 체계가 영역별 분류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집단 아래 다시 영역별 설정을 할 경우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사회지표의 영역별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 되는 중요한 쟁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인구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주요 정책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혼외 출생과 미혼여성의 인공임신 중절, 태아의 성감별과 여아낙태 등 비합법적인 출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 부문에서는 혼외출생아 비율, 미혼여성의 인공임신 중절 경험률, 여아 낙태 현황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 나. 가족

가족부문에서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담아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국가의 보육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형태 관련 지표로 동거부부의 비율과 무자녀 부부 비율을 추가하였으며, 자녀 관련 지표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여부, 자녀의 연령별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추가하였다.

## 다. 소득과 소비

가족내 여성의 소득기여도는 가계의 안정성과 여성의 가족 내 지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비율과 부부의 가구소득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 라. 노동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과 달리, 취업과 비취업의 경계가 모호하며, 취업한 경우에도 공식부문보다 비공식부문에 종사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여성 특유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체실업률 중의 하나인 잠재실업률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를 상태별로 분류함으로써 가사와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취업여성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주요 직종에서의 여성비율, 비정규직내의 여성비율, 36시간 미만 근로자에서의 여성비율과 여성취업자의 비정규직비율과 36시간 미만 근로의 비율을 신규지표로 삽입하였다.

## 마. 교육

교육에서의 성차는 학교교육의 참가율보다는 교육비의 투자와 그 결과인 취업률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성별차이와 졸업 후 취업률에서의 성별차이를 지표로 추가하였다.

## 바. 보건

보건부문에서는 모자건강과 관련해서 출산시의 지나친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서 제왕절개 실시율을 신규지표로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율과 치매노인 현황은 성별로 다른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어, 성별로 분리하여 지표를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 사. 복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 연금)은 노년과 불의의 사고시 기초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연금제도의 설계가 취업자를 위주로 하고 있어 비취업의 비율이 높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가입자, 수혜자, 평균 급여비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표에 대해 성별 분리지표를 추가지표로 제안하였다.

## 아. 안전

성문화의 범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가 주로 아동과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간범죄의 피해자 상황과,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 자. 정부와 사회참여

여성의 사회참가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주요 결정집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부문과 사회운동단체의 주요 직급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정부관련 지표로는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추가하였으며, 사회참여 관련 지표로는 시민단체 상근자 중 여성비율을 추가하였다.

## 차. 국제비교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효과적이다.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성평등지표들을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지표로서 성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를 추가하였다.

### 2. 개별지표의 선정

#### 가. 기존 지표의 삭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가족계획의 실천율과 이상적인 자녀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가족부문에서는 대잇기에 대한 태도는 지표자체가 성차별적이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가족형태가 선호보다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였다. 노동부문에서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지표는 여성의 취업을 특별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성편견이 있는 지표로 생각되어 삭제하였다.

정보와 통신분야에서 컴맹의 비율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연령별, 성별 사용실태와 사용능력에서의 차이를 보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컴맹비율지표를 삭제하였다.

## 나. 신 사회지표 체계

〈표 2-14-4〉 여성관련 사회지표 제안체계

부문명칭	개별지표	기존 또는 신규
인 구	총조사 인구	기존
	장래추계인구	기존
	연령별 인구(구성비)	기존
	지역별 출생시 성비	기존
	지역 및 연령별 성비	기존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기존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	기존
	연령별 출산율	기존
	합계 출산율	기존
	코호트별 누적출산율	기존
	유배우 출산율	기존
	순재생산율	기존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기존
	혼외출생아비율	신규
	혼인상태별 인공임신중절률	신규
	태아출생 서열별 여아 인공임신중절 추정확률과 건수	신규
	연령별 및 합계인공임신중절률	기존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기존
	성·연령별 사망률	기존
	기대여명	기존
가 족	가족의 형태별 분포	기존
	동거부부 비율	신규
	무자녀 부부 비율	신규
	18세미만 자녀의 거주형태(양부모, 한부모, 기타)	신규
	자녀의 연령별(0-5,6-11, 12-17) 여성의 취업률	신규
	평균초혼연령	기존
	조혼인율	기존
	조재혼율	기존
	첫자녀 출산연령	기존

〈표 2-14-4〉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노동	성별 이직률비	기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신규
교육	국민의 학력구성비	기존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기존
	진학률	신규-성별
	취학률	기존
	중퇴율	신규-성별
	여교원 비율	기존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기존
	자녀의 성별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존-성별
	과목별 학업성취도	신규
보건	연령별 기대여명	기존
	무병 기대여명	기존
	BMI(신체질량지수)	기존
	음주율 및 과음횟수	기존
	1인당 주류소비량	기존
	흡연율 및 흡연량	기존
	여성3대질병 유병률	신규
	제왕절개 실시율	신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기존-성별
	치매노인 현황	기존-성별
	65세 이상 사망 비율	기존
	모성사망률	기존
	주요사망원인 구성비	기존
유병률	기존	

〈표 2-14-4〉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가 족	조이혼율	기존
	이혼사유	기존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기존
	혼인에 대한 태도*	기존
	이혼에 대한 태도*	기존
	재혼에 대한 태도*	기존
	기대자녀수*	기존
	남아선호도	기존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존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기존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기존
소득과 소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존
	맞벌이부부 비율	신규
	부부간 소득격차	신규
노 동	경제활동참가율	기존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신규
	잠재실업자와 실업률	신규
	성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신규
	입법 및 행정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	기존수정
	성별 평균임금격차	기존
	남성집중직종과 여성집중직종의 임금격차	신규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존
	직업선택요인*	기존
	성별 근속연수 격차	기존
	성별 근로시간 격차	기존
	비정규직내의 여성비율,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신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여성비율	신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성별 산업별 분포	신규



<표 2-14-4>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가 족	조이혼율	기준
	이혼사유	기준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기준
	혼인에 대한 태도*	기준
	이혼에 대한 태도*	기준
	재혼에 대한 태도*	기준
	기대자녀수*	기준
	남아선호도	기준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준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기준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기준	
소득과 소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맞벌이부부 비율	신규
	부부간 소득격차	신규
노 동	경제활동참가율	기준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신규
	잠재실업자와 실업률	신규
	성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신규
	입법 및 행정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	기준수정
	성별 평균임금격차	기준
	남성집중직종과 여성집중직종의 임금격차	신규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준
	직업선택요인*	기준
	성별 근속연수 격차	기준
	성별 근로시간 격차	기준
	비정규직내의 여성비율,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신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여성비율	신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성별 산업별 분포	신규

〈표 2-14-4〉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가 족	조이혼율	기존
	이혼사유	기존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기존
	혼인에 대한 태도*	기존
	이혼에 대한 태도*	기존
	재혼에 대한 태도*	기존
	기대자녀수*	기존
	남아선호도	기존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기존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기존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기존
소득과 소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존
	맞벌이부부 비율	신규
	부부간 소득격차	신규
노 동	경제활동참가율	기존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상태	신규
	잠재실업자와 실업률	신규
	성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신규
	입법 및 행정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	기존수정
	성별 평균임금격차	기존
	남성집중직종과 여성집중직종의 임금격차	신규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존
	직업선택요인*	기존
	성별 근속연수 격차	기존
	성별 근로시간 격차	기존
	비정규직내의 여성비율,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신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여성비율	신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성별 산업별 분포	신규

〈표 2-14-4〉 계속

부문명칭	개별지표	
안 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기존
	공갈·협박·전화폭력 등의 경험률	기존
	강간범죄의 피해지수	신규-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기존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건수	신규
	인터넷 성희롱과 성폭력 건수	신규
	여성범죄자의 비율 <sup>6</sup>	기존
정부와 사회참여	투표율	기존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기존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	기존
	시민단체 상근자 중 여성비율	신규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신규
	사회이동에 대한 태도	기존
	주관적 계층의식*	기존
	자원봉사 참여율	기존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기존
국제비교	성평등지수(GDI)	신규
	여성권한척도(GEM)	신규

〈표 2-14-5〉 기존 지표 중 삭제제안 지표

부문명칭	개별지표
인 구	가족계획실천율
	이상자녀수
가 족	대잇기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가족형태*
	기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노 동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정보와 통신	컴맹비율

#### 제4절 결론

사회지표는 그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했음에도 여전히 여러 부문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있으며, 이의 반영과 수정을 위해 사회지표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여성관련 사회지표 중 일반 사회지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부문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사회지표체계에서 비교적 지표가 풍부한 인구, 가족, 교육, 노동 등은 새로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지표들을 위주로 제안하였으며, 복지, 안전,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기본적인 분야에서 누락된 부분을 위주로 지표들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사회지표체계 중 성별특성 혹은 차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표들은 성별로 분리하여 지표를 게재할 것을 제시하였다.

# 부 록

---

(시산표)

# 여 백

〈표 3-1-1〉 총 인 구  
Total Population

단위: 천명, %

In 1,000 persons, %

연 도 Year	총조사인구 Census population	연앙추계 인구 Estimated mid-year population	남 자 Males	여 자 Females	인구성장률 Annual growth rate

자료: 1)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2) (2001) 「장래인구추계」

〈표 3-1-2〉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Components of Population Growth

단위: 명

In person

연 도 Year	출 생 Births	조출생률 (인구천명당) Crude birth rate (per 1,000 pop.)	사 망 Deaths	조사망률 (인구천명당) Crude death rate (per 1,000 pop.)	자연증가율 (인구천명당) Natural increase rate (per 1,000 pop.)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3-1-3〉 국적별 외국인 인구  
Population of Foreigners by Nationality

연도 Year	총수 Total			미국 U.S.A	일본 Japan	중국 China	인도 India	베트남 Viet Nam	기타 Others
		남자 Males	여자 Females						

자료: 법무부(각연도) 「외국인 등록인구 통계」

〈표 3-1-4〉 장래추계인구  
Projected Population

연도 Year	총인구 (1,000명) Total pop. (in 1,000)	출생 (1,000명) Births (in 1,000)	조출생률 (인구천명당) Crude birth rate (per1,000pers ons)	사망 (1,000명) Deaths (in 1,000)	조사망률 (인구천명당) Crude death rate (per1,000pers ons)	자연 증가율 Natural increase rate (per1,000pers ons)	인구 성장률 Growth rate (%)

자료: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표 3-1-5〉 성·연령별 인구  
Population by Sex and Age Group

연도 및 연령 Year & Age	인구 (1,000명) Total pop. (In 1,000 persons)		구성비 (%)			성비 Sex ratio
	남자 Males	여자 Females	남자 Males	여자 Females	성비 Sex ratio	
< 1990 > 계 Total 0 - 4세 Years 5 - 9 : : 75-79 80+	* 연도는 5년간격으로하되 마지막 연도는 최근 연도로 함.		* 총인구(남여합)가 100.0이 되도록 구성비 계산할 것.			
< 1995 > :						
< 2000 > : :						
< 2003 >						

자료: 통계청(각연도) 「연앙추계인구」

〈표 3-1-6〉 중위연령  
Median Age of Population

단위: 세

In age

연 도 Year	계 Total	남 자 Male	여 자 Female
1960			
:			
:			
2000			
:			
:			
2050			

\* 1960년부터 2000년까지는 확정된 추계자료이고,  
2005년 이후는 장래추계인구를 이용할 것.

자료: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표 3-1-7〉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Aged Population by Sex and Age

단위: 1,000명

In 1,000 persons

연도 및 성 Year & Sex	노인인구 Aged Population 65 years & over	전기노인인구 65 - 74세 65 - 74 years	중기노인인구 75 - 84세 75 - 84 years	후기노인인구 85세 이상 85 years & over
〈 1960 〉 남·여(M&F) 남 자(M) 여 자(F) 성 비(Sex ratio)				
〈 1970 〉 : :				
〈 1980 〉 : :				
〈 1990 〉 : :				
〈 2000 〉 : :				
〈 2050 〉				

자료: 통계청(각연도) 「추계인구」 및 「장래추계인구」

〈표 3-1-8〉 성 및 연령별 생산연령인구  
Population Aged 15 to 64 Years by Sex and Age

단위: 1,000명

In 1,000 persons

연도 및 성 Year & Sex	생산연령인구 (15-64세) Population aged 15-64 years	15-19세 인구 Population aged 15-19 years	20-29세 인구 Population aged 20-29 years	30-49세 인구 Population aged 30-49 years	50-64세 인구 Population aged 50-64 years
< 1960 > 남·여(M&F) 남 자(M) 여 자(F)					
< 1970 > : : :					
< 1980 > : : :					
< 1990 > : : :					
< 2000 > : : :					
< 2050 >					

자료: 통계청(각연도) 「추계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표 3-1-9〉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Dependency Ratios & Index of Ageing

단위: % %

연도 Year	0-14세 인구구성비 Percent distribution of pop. Aged 14 years & under	15-64세 인구구성비 Percent distribution of pop. Aged 15 years to 64	65세이상 인구구성비 Percent distribution of pop. Aged 65 years & over	총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유년 부양비 Youthl dependency ratio	노년 부양비 Aged dependency ratio	노령화 지수 Index of ageing
1960							
1965							
1970							
:							
:							
:							
2000							
:							
:							
:							
2050							

자료: 통계청(연도별) 「추계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표 3-1-10〉 혼인상태별 인구  
Population by Marital Status

단위: 천명, %

In 1,000 persons, %

연도 Year	15세이상 인구 Population 15 years old & over	미혼 Never married	유배우 Married	사별 Widowed	이혼 Divorced
		계 Total			
1970					
1975					
:					
2000					
:					
:					
		남자 Male			
1970					
1975					
:					
2000					
:					
:					
		여자 Female			
1970					
1975					
:					
2000					
:					
: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3-1-11〉 기혼인구(30-49세)의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  
 Composition of Ever-Married Population Aged  
 30-49 Years by Age at First Marriage

단위: 천명, %

In 1,000 persons, %

연도 및 연령 Year & Sex	인구 Total Population	초혼연령별 인구구성비(Population composition by age at first marriage)					
		-19	20-23	24-26	27-29	30-33	34+
<b>남 자 Males</b>							
< 1980 > 기혼인구(30-49) Ever-married pop. 30-34 35-39 40-44 45-49							
< 1990 > : :							
< 2000 >							
<b>여 자 Females</b>							
< 1980 > 기혼인구(30-49) Ever-married pop. 30-34 35-39 40-44 45-49							
< 1990 > : :							
< 2000 >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표 3-1-12〉 지역별 인구 구성비  
Population Composition by Region

지 역 Regions	1980			1990	2000
	인 구 (1,000명당) Population (In 1,000 persons)	구 성 비 (%) Composition	인구밀도 (명/km <sup>2</sup> ) Density (persons/km <sup>2</sup> )	.....	.....
전 국 Whole country					
동 부 Dongs					
읍 부 Eups					
면 부 Myuns					
서 울 Seoul					
：					
：					
：					
제 주 Jeju					
수도권 Metropolitan Area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표 3-1-13〉 지역별 장래추계인구  
Regional Projected Population by Region, 7 Big Cities and 9 Provinces

Region	2000			2005	2010
	인구 (1,000명) (In 1,000 persons)	구성비(%) Composition	남자 Males	여자 Females	.....
전국 Whole country					
서울 Seoul					
:					
:					
제주 Jeju					
수도권 Metropolitan Area					

자료: 통계청(2002)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표 3-1-14〉 도시인구 및 성장요인  
 City Population and Growth Determinants

연도 및 도시규모 Year and Population Size of City	인구(1,000명) Population (In 1,000 persons)		성장요인 Determinants of Population Growth			
	전국인구대비 구성비(%) Composition to national total Population	증가인구 Growth population	출생 Birth	사망 Death	순이동 Net migrants	
〈2000〉 시부인구 Population of Size ~20만명 Less than 200thousands 20~50만명 50~100만명 ~100만명이상 Over 1000thousands  〈2001〉 : : : 〈2002〉 : : : 〈2003〉 : : :						

자료: 각시도(각연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

〈표 3-1-15〉 출생아수 및 출생시성비  
 Number of Births and Sex Ratio at birth

연도 및 지역 Year & Region	출생아수(명) Number of Births(person)						출생시성비 Sex Ratio at birth			
	합계 Total			첫째아 1st child	둘째아 2nd child	셋째아이 상 3rd child & higher	합계 Total	첫째아 1st child	둘째아 2nd child	셋째아이 상 3rd child & higher
	남·여 M&F	남아 Males	여아 Females							
〈2000〉 전국 Whole country 서울 Seoul : : 제주 Jeju										
〈2001〉 : : :										
〈2002〉 : : :										
〈2003〉 : : :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

〈표 3-1-16〉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및 순재생산율  
Age Specific Fertility Rate, Total Fertility Rate and Net Reproductive Rate

연도 Year	연령별 출산율 Age Specific Fertility Rate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순재생산율 Net Reproductiv e Rate
	15-19세 Years	20-24세 Years	25-29세 Years	30-34세 Years	35-39세 Years	40-44세 Years	45-49세 Years		
1980									
:									
:									
:									
:									
:									
2003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

〈표 3-1-17〉 코호트별 연령별출산율 및 누적출산율  
Age Specific and Cumulative Fertility Rate by Cohort

출생코호트 (연도) Birth cohort (Year)	연령별 출산율 Age Specific Fertility Rate							누적출산율 Cumulative fertility rate
	15-19세 Years	20-24세 Years	25-29세 Years	30-34세 Years	35-39세 Years	40-44세 Years	45-49세 Years	
1940-44								
1945-49								
1950-54								
1955-59								
1960-64								
1965-69								
1970-74								
1975-79								
1980-84								
1985-89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

〈표 3-1-18〉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Children ever Born per ever Married Women

연도 Year	연령 Age					교육정도 Educational attainment				평 균 출생아수 Children ever born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 under	중 졸 Middle school graduates	고 졸 High school graduates	대졸이상 College, Univ. graduates & over	
전 국 Whole country										
1988										
1991										
1994										
1997										
2000										
동 부 Total for dong										
:										
:										
:										
읍면부 Total for eups & myeons										
:										
:										
:										

〈표 3-1-19〉 연령별 인공임신중절을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율  
Induced Abortion Rate & Experience rate

	연령별 인공임신중절율(부인 1,000명당 전수) Induced abortion rate by age group (cases per 1,000 married women)					인공임신중절 경험율(%) Induced abortion experience rate	평균인공임신 중절횟수 Average cases of induced abortion
	20-24	25-29	30-34	35-39	40-44		
1971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부 Total for guns							
1976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부 Total for guns							
1979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부 Total for guns							
1985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부 Total for guns							
1988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부 Total for guns							
1991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부 Total for guns							
1994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부 Total for guns							
1997 전국 Whole country							
2000 전국 Whole country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표 3-1-20〉 이상자녀수 및 자녀수에 대한 선호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Preference on Number of Children

연도 및 연령 Year & Age	이상자녀수 Ideal number of children	자녀수에 대한 선호(%) Preference on number of children			
		0	1	2	3+
< 1990 >					
15-19					
20-24					
:					
:					
44-49					
< 1995 >					
:					
:					
:					
< 2000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연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표 3-1-21〉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이유  
Reasons for Non or One Child

단위: %

연도 및 연령 Year & Age	계 Total	결혼하지 않음 Never marry	직장관계 Because of job	양육등 경제적이유 Economic reasons	건강상의 이유 Because of health	기타 Others
< 1990 >						
15-19						
20-24						
:						
:						
44-49						
< 1995 >						
:						
:						
:						
< 2000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연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표 3-1-22〉 교육정도 및 거주지역별 출산율의 비  
 Fertility Ratio by Educational Level and Residential Area

연도 및 연령 Year & Age	계 Total	교육정도 Educational attainment				거주지역 Residential area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 under	중 졸 Middle school graduates	고 졸 High school graduates	대졸이상 College, Univ. graduates & over	대도시 7 Big cities	기타시 Other cities	시지역 외 Others
< 1990 >								
15-19								
20-24								
:								
:								
44-49								
< 1995 >								
:								
:								
:								
< 2000 >								
:								
:								

\* 「계」의 연령별 출산율을 "1.0" 일때  
 특성별 상대적 출산율의 비를 계산할 것.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표 3-1-23〉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및 사망률  
 Number of Deaths and Death Rate by Sex and Age

연령 Ag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b>남 자 Males</b>							
〈사망자수〉 Number of deaths							
계 Total							
0 - 4							
5 - 9							
:							
80+							
〈사망률 ASDR〉							
0 - 4							
5 - 9							
:							
80+							
조사망률 CDR							
표준화사망률 Standardized DR							
<b>여 자 Females</b>							
〈사망자수〉 Number of deaths							
계 Total							
0 - 4							
5 - 9							
:							
80+							
〈사망률 ASDR〉							
0 - 4							
5 - 9							
:							
80+							
조사망률 CDR							
표준화사망률 Standardized DR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

〈표 3-1-24〉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Age by Sex

연도 Year	연령 Age x							
	0	1	5	10	15	.....	.....	80
	<b>남 여 Both sexes</b>							
1971								
1973								
:								
:								
2001								
	<b>남 자 Males</b>							
1971								
1973								
:								
:								
2001								
	<b>여 자 Females</b>							
1971								
1973								
:								
:								
2001								

자료: 통계청 (각연도) 「생명표」

〈표 3-1-25〉 지역별 전출·전입인구 및 순인구이동률  
Internal Migration and Net Internal Migration Rate

지 역 Regions	1990 ⇒ 1995				1995 ⇒ 2000
	전입자수 In-migrants	전출자수 Out-migrants	순이동자수 Net-migrants	순이동율(%) Net-migration rate	.....
서 울 Seoul					
:					
:					
:					
:					
:					
:					
:					
:					
제 주 Jeju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표 3-1-26〉 지난 1년간 이주 원인별 구성비  
 Proportion by Internal Migration by Reason in Last 1 Year

연도 Year	이주원인(%) Reasons of internal migration						
	합계 Total	직장을 얻어서 New job	새 집을 장만해서 New house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Higher education	자녀 교육 목적으로 For children's education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Reunion of family	기타 Others
< 1990 >							
남자 Males							
15-19							
20-24							
:							
60-64							
65+							
여자 Females							
15-19							
20-24							
:							
60-64							
65+							
< 2000 >							
:							
:							
:							

자료: 통계청(각연도) 「사회통계조사」

〈표 3-1-27〉 지역별 국제인구이동  
International Migration by Region

단위: 명

In person

연도 및 내외국인별 Year and Korean / Foreign	지역별 입국자수 Imigrants by origin						지역별 출국자수 Emigrants by destination
	합계 Total	미국 USA & Canada	일본 Japan	중국 China	대양주 Australia & New Zeland	기타 Others	.....
<b>인 구 Population</b>							
〈1990〉							
한 국 인 Koreans							
외 국 인 Foreigners							
〈2000〉							
한 국 인 Koreans							
외 국 인 Foreigners							
<b>구성비 Proportion composition</b>							
〈1990〉							
한 국 인 Koreans							
외 국 인 Foreigners							
〈2000〉							
한 국 인 Koreans							
외 국 인 Foreigners							

자료: 법무부(각연도) 「출입국관리통계」

〈표 3-1-28〉 해외이주 및 귀국허가 현황  
Declarers for Emigration and Immigration

단위: 명

In persons

연도 Year	해외이주신고자 Emigration declarer		이주목적별 By purpose of emigration					영주귀국 및 이주포기자 Return migrants & emigration give ups
	인구 천명당 Per 1,000 persons	사업 Business	취업 Employment	연고 Family reunion	국제결혼 International marriage	기타 Others		

자료: 외교통상부(각연도) 「해외이주허가통계」



〈표 3-1-29〉 이민에 대한 태도 및 선호하는 이민지역  
Attitude on and Preference Region for Emigration

단위: %		이민에 대한 태도 Attitudes on emigration(%)					이민 이유 Reasons of emigration					%
연도 및 연령 Year & Age	계 Total	준비중 Ready	원함 Want	반대 Never	생각해 본적이 없음 No idea	계 Total	직장 Job	국내 불안 Security	노후 생활 Welfare	자녀 교육 Education	기타 Others	
< 1990 > 남자 Males 20-29 30-39 : 60+ 여자 Females 20-29 30-39 : 60+ < 2000 > : :												
연도 및 연령 Year & Age		이민을 원하는 지역 Preference region for emigration										
연도 및 연령 Year & Age	계 Total	미국 USA & Canada	일본 Japan	대양주 Australia & New Zeland	서유럽 West Europe	기타 Others						
: : :												

자료: 통계청(각연도) 「사회통계조사」

〈표 3-1-30〉 지역별 주간인구  
Daytime Population by Region

연도 및 지역 Year & Region	상주인구 Population	통근통학인구 Commuters for worker study			주간인구 Daytime	
		계 Total	이 입 In	이 출 Out	Populatio n	주간인구지수 Index
< 2000 >						
서울 Seoul						
종로구 Jongro						
:						
:						
인천 Incheon						
:						
경기 Gyeonggi						
:						
부산 Busan						
:						
:						
대전 Daejeon						
:						
:						

자료: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주: 1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100

〈표 3-2-1〉 가구의 종류 분포  
Distribution of Household Types

총계 Total	일반가구 Ordinary household			집단가구 Collective household	
	친족가구 Relative household	비친족가구 (5인 이하) Non-relative household	1인가구 One-person household	집단시설가구 Institutional household	비친족가구 (6인 이상) Non-relative household

〈표 3-2-2〉 인구의 거주 가구종류별 분포  
Distribution of Household Members by Household Type

총계 Total	핵가족 Nuclear family	확대가족 Extended family	기타 Others

〈표 3-2-3〉 일반가구주의 성구성 및 연령분포  
Age and Sex Composition of Ordinary Household Heads

	1990		1995		2000	
	일반가구주의 연령분포 Age distribution of ordinary household heads	남성가구주 비율 Proportion of male heads	일반가구주의 연령분포 Age distribution of ordinary household heads	남성가구주 비율 Proportion of male heads	일반가구주의 연령분포 Age distribution of ordinary household heads	남성가구주 비율 Proportion of male heads
계						
-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						

〈표 3-2-4〉 가족의 세대구성  
Generational Composition of the Family

연도 Year	계 Total	1세대가족	2세대가족	3세대가족	4세대이상가족
1980					
1985					
1990					
1995					
2000					

〈표 3-2-5〉 가족의 종류별 분포  
Distribution of Family Types

부부만의 가족 Couple only (families)	부부 + 자녀 Couple + children	부 + 자녀 Father + children	모 + 자녀 Mother + children	조부모 + 자녀 Grandparents + children	미성년 가족 Children only

〈표 3-2-6〉 새로운 가족의 추세  
Trend of Emerging Types of Family

미혼모 가족 Unwed mother with children	양자가족 Families with adopted children	분산가족 Dispersed families			비혼동거 Living together (or Unwed couple)
		합계 Total	국내 within the country	국내외 between Korea and overseas	

\* 친족가구에 속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님.

〈표 3-2-7〉 평균초혼, 이혼 및 재혼연령  
Age at First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연도 Year	평균초혼연령 Mean age at first marriage		평균이혼연령 Mean age at divorce		평균재혼연령 Mean age at remarriage	
	남자 Male	여자 Female	남자 Male	여자 Female	남자 Male	여자 Female



〈표 3-2-10〉 노인의 거주가구 형태 분포

Distribution of the Elderly by Household Type

총계	1인 Age residents of one-person households	친족가구 Relative household			비친족 및 집단가구 Non-relative household and Collective household		
		부부만	기혼자녀	기타	비친족	시설	기타

〈표 3-2-11〉 연령집단별 노인의 가구생활

Type of Household Arrangement of the Elderly by Broad Age Groups

총계 Total	65~75세			75~85세			85세 이상		
	1인	친족	기타	1인	친족	기타	1인	친족	기 타

\* 가구분류는 1인가구 / 부부가구 / 기혼자녀 동거 / 기타로 할 수도 있음







〈표 3-2-16〉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전망

Evaluation of the Elderly on the Their Future

	매우 여유로울 것이다 Will live very comfortably	여유로운 것이다 Will live comfortably	어려울 것이다 Will lead hard life	매우 어려울 것이다 Will lead very hard life

〈표 3-2-17〉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son Preference

	꼭 있어야 한다 Should have one	가능한 갖는 것이 좋다 Son matters greatly	없어도 별로 상관없다 Son matters not much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 Son matters little

〈표 3-2-18〉 어머니 성 쓰기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the Adoption of Mother's Family Name

	찬성한다 Strongly approve	경우에 따라 찬성한다 Depends on case	반대한다 Disapprove	적극 반대한다 Strongly Disapprove

〈표 3-2-19〉 현모양처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the Image of Desired Women as "Wise Mother-Good Wife"

	매우 바람직 하다 Highly desirable	바람직하다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 undesirable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Highly undesirable

〈표 3-2-20〉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the Responsibility of Child Rearing in Divorce or Remarriage

	부가 책임진다 Father	모가 책임진다 Mother	경우에 따라 다르다 Depends	제3자에 맡긴다 Third party

〈표 3-2-21〉 독신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Celibacy

	적극 찬성한다 Strongly approve	찬성한다 approve	반대한다 disapprove	적극 반대한다 Strongly disapprove

〈표 3-2-22〉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Marriage

	적극 찬성한다 Strongly approve	찬성한다 approve	반대한다 disapprove	적극 반대한다 Strongly disapprove

〈표 3-2-23〉 이혼에 대한 태도

## Attitudes toward Divorce

	적극 찬성한다 Strongly approve	찬성한다 approve	반대한다 disapprove	적극 반대한다 Strongly disapprove

〈표 3-2-24〉 재혼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Remarriage

	적극 찬성한다 Strongly approve	찬성한다 approve	반대한다 disapprove	적극 반대한다 Strongly disapprove

〈표 3-2-25〉 미혼모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문제가 매우 많다 Very unacceptable	문제가 있다 unacceptable	문제가 없다 acceptable	전혀 문제가 없다 Totally acceptable

## 〈표 3-2-26〉 입양에 대한 태도

## Attitudes toward Child Adoption

	적극 찬성한다 Strongly approve	찬성한다 approve	반대한다 disapprove	적극 반대한다 Strongly disapprove

## 〈표 3-2-27〉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 Attitudes toward Consensual Living Together

	적극 찬성한다 Strongly approve	찬성한다 approve	반대한다 disapprove	적극 반대한다 Strongly disapprove



〈표 3-3-1〉 GNI, GDP 및 1인당 GNI  
GNI, GDP & per Capita GNI

연도 Year	GNI 국민총소득		GDP 국내총생산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1995=100)	1인당 GNI Per capita GNI	
	명목 (십억원) Current prices (billion Won)	실질 (십억원) Constant prices (billion Won)	명목 (십억원) Current prices (billion Won)	실질 (십억원) Constant prices (billion Won)		만원 In 10 thousand Won	달러 US \$
2000	576 160.0	576 160.0	578 664.5	578 664.5	100.0	1 226	10 841
2001	621 027.9	592 408.5	622 122.6	600 865.9	103.5	1 312	10 162
2002	685 069.0	633 842.1	684 263.5	642 748.1	106.5	1 438	11 493
2003	722 355.8	645 497.0	721 345.9	662 474.4	108.9	1 507	12 646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년도

주 : 95년 이후 2000년 기준임

〈표 3-3-2〉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개인처분가능  
National & Personal Disposable Income

연 도 Year	국민처분가능소득 National disposable income		개인처분가능소득 Personal disposable income	
	명 목(십억원) Current prices (billion Won)	명 목(십억US \$) Current prices (billion US \$)	명 목(십억원) Current prices (billion Won)	명 목(십억US \$) Current prices (billion US \$)
2000	493 388.0	436.4	-	-
2001	532 419.1	412.5	-	-
2002	591 979.1	479.1	-	-
2003	619 942.8	520.1	-	-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년도

주 : 95년 이후 2000년 기준임

〈표 3-3-3〉 월소득 계층별 가구분포  
Household Distribution by Monthly Income Group

단위 : %

월소득(천원) Monthly income (Thousand won)	1988			1993			1996			2000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 부 Total for guns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 부 Total for guns	전국 Whole country	시부 Total for sis	군 부 Total for guns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	읍면부 Total for eups&m yeons
계 Total												
200미만 Less than												
200~400												
400~600												
600~800												
800~1,000												
1,000~1,200												
1,200~1,500												
1,500~2,000												
2,000~2,500												
2,500~3,000												
3,000~4,000												
4000이상 more												

자료 : 용어해설(소득과 소비)참고

- 주 : 1) 200만원이상
- 2) 300만원이상
- 3) 60만원미만

〈표 3-3-4〉 농가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Average Monthly Income & Consumption Expenditure per Farm Household

단위 : %

연도	월평균 소득 (원) Average monthly income(won)	소득			가계비 (원) 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s (Won)	소비지출		광열수도비 Fuels, eletri city & water
		농업소득 Farm income	농외소득 Non-farm income	이전수입 Transfer receipts		음식물비 Foods	회식비 Food away from home	
2000	1 922 231	47.2	32.2	20.6	1 500 286	20.2	4.9	4.4
2001	1 992 231	47.1	32.7	20.1	1 538 125	20.3	4.9	4.6
2002	2 039 552	46.1	33.3	20.7	1 488 187	20.9	5.3	4.6
2003	2 239 833	39.3	35.0	25.7	1 513 500	25.2	-	5.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주 : 1983년 이후 농외소득에서 이전수입이 분리됨

교육·교양 오락비 Education & entertainment	교육·교양 오락비		주거비 Housing	피복비 Clothing & footwear	가계잡비 Misc. Expenses	보건의료비 Medical care	교통통신비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Year
	교육비 Education	교양오락비 Entertainment						
11.0	10.2	0.8	6.8	2.8	54.7	7.3	7.4	2000
10.6	9.7	0.8	6.7	2.8	55.0	8.1	8.0	2001
10.0	9.1	0.9	6.9	2.6	54.9	7.9	8.8	2002
7.3	4.8	2.5	2.5	3.2	56.4	7.5	11.2	2003

〈표 3-3-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원천별 구성  
 Composition of Average Monthly Income of Salary & Wage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by Income Source

단위 : %

연도	월평균 소득(원) Average monthly income (Won)	원천별 구성								비경상 소득 Irregular income
		경상 소득 Regular income	근로 소득 Earnings	가구주 Household head	배우자 Spouse	기타 가구원 Other household members	사업 및 부업소득 Business & subsid- iary work	재산 소득 Income from assets	이전 소득 Transfer income	
2000	2 386 947	92.8	84.1	68.7	8.5	7.0	3.9	1.9	2.8	7.2
2001	2 625 118	93.0	84.2	68.0	8.9	7.3	4.0	1.9	2.9	7.0
2002	2 792 400	94.1	85.2	68.2	9.6	7.4	4.2	1.9	2.8	5.9
2003	2 940 026	95.2	88.2	70.3	10.4	7.6	3.1	1.4	2.5	4.8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 3-3-6〉 지역내 총생산 및 생산구조  
GRDP & Production Structure

	연 도  Year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생산구조 (%) Production structure			
		경상GRDP (십억원) GRDP at current prices (billion Won)	1인당 GRDP (천원) Per capita GRDP (1,000 Won)	불변GRDP (십억원) GRDP at constant prices (billion Won)	불변성장률 (%) Economic growth rate (1995 constant prices)	농림 어업 Agri forestry & fishing	광공업 Mining, quarry ing &manu- facturing	건설· 전기 가스 Elec, water & construct ion	서비스 업 및 기타 Services & others
서울 Seoul	2000								
	2001								
부산 Busan	2000								
	2001								
대구 Daegu	2000								
	2001								
인천 Incheon	2000								
	2001								
광주 Gwangju	2000								
	2001								
대전 Daejeon	2000								
	2001								
울산 Ulsan	2000								
	2001								
경기 Gyeonggi	2000								
	2001								
강원 Gangwon	2000								
	2001								
충북 Chungbuk	2000								
	2001								
충남 Chungnam	2000								
	2001								
전북 Jeonbuk	2000								
	2001								
전남 Jeonnam	2000								
	2001								
경북 Gyeongbuk	2000								
	2001								
경남 Gyeongnam	2000								
	2001								
제주 Jeju	2000								
	2001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주 : 1) 2000년 기준임
- 2) 경상가격 기준임

〈표 3-3-7〉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재화형태별 소비지출 (당해년 가격)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Consumption  
 Expenditure by Type of Goods (at current prices)

단위 : %

연도 Year	민간최종 소비지출 (십억원)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billion Won)	GDP 대비(%) As%of GDP	내구재 비율(%) Percent of durable goods	준재구재 비율(%) Percent of semi-durable goods	비내구재 비율(%) Percent of non-durable goods	서비스 비율(%) Percent of service	1인당민간 최종소비 지출액(천원)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1,000 Won)
2001	343 416.6	55.2	9.0	6.6	29.5	54.9	7 254
2002	381 063.0	55.7	8.8	6.9	28.5	55.8	7 999
2003	388 417.0	53.8	7.2	6.5	28.8	57.5	8 105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년도

주 : 1) 국내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2) 95년 이후 2000년 기준임

〈표 3-3-8〉 정부최종소비지출 및 재화형태별 소비지출 (당해년 가격)  
 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Consumption  
 Expenditure by Type of Goods (at current prices)

단위 : %

연도 Year	정부최종 소비지출 (십억원)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billion Won)	GDP 대비(%) As% of GDP	내구재 비율(%)	준내구재 비율(%)	비내구재 비율(%)	서비스 비율(%)	1인당정부 최종소비 지출액(천원)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per capita(1,000 Won)
			Percent of durable goods	Percent of semi-durable goods	Percent of non-durable goods	Percent of service	
2001							
2002							
2003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년도

주 : 1) 국내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2) 95년 이후 2000년 기준임



〈표 3-3-9〉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단위 : %

연 도	소비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	식료품 Food & beverages	외식비 meals outside of home	주거비 Housing	광열 수도비 Fuel, light & water charges	가구집기 가사용품 Furniture & utensils	피복 신발비 Clothing & footwear	보건의료 Medical care
2001	100.0	26.5	11.5	3.4	5.0	4.0	5.6	4.2
2002	100.0	26.3	11.6	3.4	4.9	4.1	5.6	4.3
2003	100.0	26.6	12.6	3.2	4.7	3.9	5.6	4.6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Composition of 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of Salary & Wage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단위: %

보건의료 서비스 Fee medical consultation	교육 Education	교양 오락비 Culture & recreation	교통통신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교통통신		기 타 소비지출 Others	잡 비 Miscellaneous	Year
				개인교통 Personal transportation	통신 Communication			
2.5	10.9	5.3	16.4	8.5	4.6	18.0	13.5	2000
2.5	10.8	4.9	17.1	8.4	5.5	18.6	14.2	2001
2.6	10.9	4.8	17.0	7.9	6.1	18.7	14.3	2002
2.8	11.4	5.0	17.5	8.1	6.5	17.4	13.3	2003

〈표 3-3-10〉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성향 및 흑자율  
Average Monthly Consumption Propensity & Surplus Ratio of  
Salary & Wage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연도 Year	처분가능소득 (원) Disposable income (Won)	소비지출 (원) Consumption expenditure (Won)	평균소비성향 (%) Average consumption propensity	흑자액 (원) Surplus (Won)	흑자율 (%) Surplus ratio
2000	3 113 548	1 614 761	76.4	498 787	23.6
3001	2 319 187	1 751 578	75.5	567 609	24.5
2002	2 483 370	1 826 887	73.6	656 483	26.4
2003	2 595 954	1 936 603	74.6	659 351	25.4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 3-3-11〉 총저축률 및 총투자율  
Gross Saving & Investment Ratio

단위 : %

연도 Year	총저축률 Gross saving ratio	총저축률			정부저축률 Government savings	총투자율 Gross investment ratio	총투자율	
		민간저축률 Private savings	개인 순저축률 Net personal saving ratio	국내 총투자율 Gross investment ratio			국외투자율 Foreign investment ratio	
2000	33.7	21.9	9.9	11.8	33.9	31.1	2.8	
2001	31.7	20.7	5.9	11.0	31.5	29.4	2.0	
2002	31.3	19.6	2.0	11.7	30.3	29.1	1.2	
2003	32.6	20.4	-	12.2	31.7	29.5	2.2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년도

주 : 95년 이후 2000년 기준임

〈표 3-3-12〉 저축, 부채 보유 실태(2000)

Savings & Liabilities

단위 : 만원, %

	전 가 구 All households					근로자 가 구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총저축 보유액 A Savings	보유 가구 비율 % of househ old	총부채 보유액 B Liabilities	보유 가구 비율 % of househ old	순저축 보유액 (A-B) Net savings	총저축 보유액 A Savings	보유 가구 비율 % of househ old	총부채 보유액 B Liabilities	보유 가구 비율 % of househo ld	순저축 보유액 (A-B) Net savings
전국 Total										
동부 Total for dongs										
읍면부 Total for eups & myeons										
서울 Seoul										
부산 Busan										
대구 Daegu										
인천 Incheon										
광주 Gwangju										
대전 Daejeon										
울산 Ulsan										
경기 Gyeonggi										
강원 Gangwon										
충북 Chungbuk										
충남 Chungnam										
전북 Jeonbuk										
전남 Jeonnam										
경북 Gyeongbuk										
경남 Gyeongnam										
제주 Jeju										

자료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표 3-3-13〉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노동소득 분배율, 조세부담률  
 Composition of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MI & Tax Burden Ratio

연도 Year	국민총처분 가능소득 (십억원)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billion Won)	피용자보수 <sup>1)</sup> (%) Compensation of empl yees	영업잉여 (%) Operating surplus	순간접세 (%) Indirect taxes (less)subsidies	고정자본소모 (%)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노동소득 분배율 (%) F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	조 세 부담률 (%) Tax burden ratio
2000	576 804.1	43.0	30.2	12.2	14.5	58.8	21.8
2001	620 531.7	43.6	29.7	12.6	14.2	59.5	22.2
2002	683 092.5	43.1	31.0	12.9	13.3	58.2	22.7
2003 <sup>p</sup>	719 010.7	44.2	29.9	12.7	13.8	59.7	22.8

자료 :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각년도, 기획예산처

주 : 국외순수취 경상이전이 포함되지 않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구성의 합이 100이 안됨

1)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2) 95년 이후 2000년 기준임

〈표 3-3-14〉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Income Distribution by Income Decile & Index of Concentration

단위 : %

	1998			1993			1996			2000		
	전국 Whole country	시 부 Total for sis	군 부 Total for guns	전국 Whole country	시 부 Total for sis	군 부 Total for guns	전국 Whole country	시 부 Total for sis	군 부 Total for guns	전국 Whole country	동 부 Total for dongs	읍면부 Total for eups& myeons
1분위 1st												
2분위 2nd												
3분위 3rd												
4분위 4th												
5분위 5th												
6분위 6th												
7분위 7th												
8분위 8th												
9분위 9th												
10분위 10th												
소득집중도 Index of concentration (Gini coefficient)												

자료 : 용어해설(소득과소비) 참고

〈표 3-3-15〉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Income Distribution by Income Decile & Index of  
 Concentration for Salary & Wage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분위 1st								
2분위 2nd								
3분위 3rd								
4분위 4th								
5분위 5th								
6분위 6th								
7분위 7th								
8분위 8th								
9분위 9th								
10분위 10th								
소득 집중도 Index of concentration (Gini coefficient)								
10분위 분배율 Decile distributions ratio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 3-3-16〉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 및 수출입물가지수  
 Consumer Prices, Living Necessaries, Import & Export Prices Index

단위 : %

연도 Year	소비자 물가지수 (2000=100) Consumer prices index	식료품 Foods	식료품 이외 Excluding foods	소비자 <sup>1)</sup> 물가상승률 (%) Consumer price increase rate	생활물가 <sup>1)</sup> 지수 (2000=100) Living necessaries index	수입 <sup>2)</sup> 물가지수 (원화기준, 2000=100) Import prices (Won basis)	수출 <sup>2)</sup> 물가지수 (원화기준, 2000=100) Export prices (Won basis)
2000	100.0	100.0	100.0	2.3	100.0	100.0	100.0
2001	104.1	103.5	104.3	4.1	105.1	103.5	96.2
2002	106.9	107.7	106.7	2.7	107.7	97.1	89.5
2003	110.7	112.4	110.1	3.6	112.1	98.9	87.5

자료 : 1) 통계청, 「물가연보」 각년도

2)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표 3-3-17〉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Settlement of Consumer Conflicts

단위 : %

연도	피해구제 건 수 (건) Settlement of consumer conflicts(cases)	처리결과별 구성비(%) Composition of cases by settlement type								
		수리 보수 Repair	교환 Exchange	환불 Refund	계약해제 이행 Canceling contract	부당행위 시정 Correcti on	배상 Reparat ion	취하 증지 With- drawal	조정 요청 Mediat ion	상담 기타 Consulti ng & others
2000	21 306	10.5	4.5	18.8	27.7	3.5	13.2	3.7	2.1	16.0
2001	20 644	9.4	4.2	7.0	35.1	4.0	14.3	3.4	2.7	19.9
2002	23 255	7.7	3.9	6.6	37.4	3.5	13.0	3.3	2.5	22.1
2003	22 693	6.3	4.1	9.2	30.5	3.5	13.2	2.9	3.5	26.8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각년도



〈표 3-4-1〉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Economic Activity Status & Participation Rate

단위: 천명, %

연도 Year	15세 이상인구 population 15 years old &over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N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취업자 Employed	실업자 Unemployed	
1980	24463	14431	13683	748	10032
1985	27553	15592	14970	622	11961
1990	30887	18539	18035	454	12348
1995	33659	20845	20414	430	12814
2000	36186	22069	21156	913	14118
2001	36579	22417	21572	845	14162
2002	36963	22877	22169	708	14086
2003					

연도 Year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농가 Farm	비농가 Non-farm	남자 Male	여자 Female	청년층	고령층
1980	59.0	65.4	55.9	76.4	42.8		
1985	56.6	62.5	54.9	72.3	41.9		
1990	60.0	68.0	58.4	74.0	47.0		
1995	61.9	71.9	60.7	76.4	48.4		
2000	61.0	73.4	59.7	74.2	48.6		
2001	61.3	73.4	60.1	74.2	49.2		
2002	61.9	74.3	60.7	74.8	49.7		
2003							



〈표 3-4-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Composition of Unemployed Persons by Duration of Unemployment

단위: 천명, %

연도 Year	전체 Total	3개월 미만 Less than 3 months	3-6개월 More than 3 months less than 6 months	6-12개월 More than 6 months less than 12 months	12개월 이상 More than 12 months
	계 Total				
1995	430	55.1	27.2	13.3	4.4
2000	913	59.5	26.3	11.9	2.3
2001	845	60.6	26.4	10.8	2.2
2002	708	58.2	28.0	11.4	2.5
	남성 Male				
1995	288	52.8	28.1	13.9	4.9
2000	613	56.0	27.4	13.7	3.1
2001	561	56.9	27.6	12.5	2.9
2002	467	54.6	29.3	13.1	3.2
2003					
	여성 Female				
1995	143	59.4	25.2	11.9	3.5
2000	300	66.7	24.0	8.3	0.7
2001	284	68.0	23.9	7.0	1.1
2002	241	65.1	25.3	8.3	1.2
2003					

〈표 3-4-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Composition of Employed Persons by Industry

단위: 천명, %

연도 Year	취업자 Total employed persons	농림어업 Agri, forestry & fisheries	광공업 mining & manufactu ring	제조업 manufacturing		사회간접자본 SOC & others
전체						
1980	13683	34.0	22.5	21.6		43.5
1985	14970	24.9	24.4	23.4		50.6
1990	18085	17.9	27.6	27.2		52.4
1995	20414	11.8	23.7	23.6		64.5
2000	21156	10.6	20.4	20.3		69.0
2001	21572	10.0	19.9	19.8		70.2
2002	22169	9.3	19.2	19.1		71.5
2003						
남성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여성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표 3-4-5〉 직업별 취업자구성비  
Composition of 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 - 전체

단위: 천명, %

		전체									
연도 Year	취업자 Total employed persons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ial workers	사무직 Clerical & related workers	판매직 Sale workers	서비스직 services workers	농림수산업 agri, forestry & fisheries related workers	생산, 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직 Prod, trans, equipment operators& laborers				
1980											
1985	14970	7.3	11.5	15.5	10.8	24.6	30.3				
1990	18085	8.7	13.0	14.5	11.2	17.8	34.8				
연도 Year	취업자 Total employed persons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legislator, senior official & managers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Technicia ns & associate professio nal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 serviceworkers & shop & salesworkers	농림 어업직 Skilled agricultural & forestry & fisheries		기계 장치기계조 작원 Craft,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단순노 무직 element ary occupati ons		
1995	20414	2.5	13.9	12.6	22.1	11.1		26.8	11.2		
연도 Year	취업자 Total employed persons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legislator, senior official & managers	전문 가 Prof ession als	기술공 및 준전문가 Technicia ns & associate professio nals	사무종 사자 Clerks	서비스종 사자 Service workers	판매 종사 자 Slae wor kers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 사자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기능원 및 관련기 능종사 자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기계 장치기계조 작원 Plants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단순 노무 종사자 element ary occupati ons
2000	21156	2.2	6.6	9.8	11.9	12.6	13.4	10.0	12.7	10.8	10.0
2001	21572	2.4	6.9	9.6	12.4	12.6	13.6	9.4	12.2	10.8	9.9
2002	22169	2.6	7.1	9.5	12.7	12.8	13.3	8.9	12.2	10.7	10.2

주: 1993년 이전은 1974년 직업분류,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1993년 직업분류, 2000년 이후는 2000년 직업분류에 의한 것임.





〈표 3-4-6〉 55세 이상 취업자비율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Aged 55 Years & Over

단위: 천명, %

연도 Year	55세 이상 취업자수 Total employed persons aged 55+	55세 이상 취업자비율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aged 55+	산업별 55세 이상 취업자비율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aged 55+ by industry				
			전 산업 All	농림어업 Agri, fisheries	광공업 Mining	제조업 Manufacturing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SOC & others
전체							
1980	1477	10.8	10.8	21.2	3.2	3.3	6.6
1985	1688	11.3	11.3	26.1	3.6	3.6	7.7
1990	2455	13.6	13.6	39.2	5.3	5.3	9.3
1995	2910	14.3	14.3	50.2	7.2	7.2	10.3
2000	3210	15.2	15.2	58.1	7.1	7.1	10.9
2001	3327	15.4	15.4	59.9	7.6	7.5	11.3
2002	3507	15.8	15.8	62.1	8.0	8.0	11.9
2003							
농가							
1980		19.3					
1985		24.3					
1990		35.9					
1995		44.1					
2000		50.4					
2001		50.9					
2002		52.5					
2003							
비농가							
1980		5.7					
1985		6.8					
1990		8.3					
1995		9.7					
2000		10.4					
2001		10.9					
2002		11.4					
2003							



55세 이상 취업자비율(계속)

연도 Year	55세 이상 취업자수 Total employed persons aged 55+	55세 이상 취업자비율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aged 55+	산업별 55세 이상 취업자비율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aged 55+ by industry				
			전 산업 All	농림어업 Agri, fisheries	광공업 Mining	제조업 Manufacturing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SOC & others
남성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여성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1980							

〈표 3-4-7〉 고용형태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연도 Year	전체	18시간미만 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 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1980	13683	81	6464			4651	2569
1985	14970	112	8104			4679	2187
1990	18085	197	10950			5068	2067
1995	20414	289	12899			5569	1946
2000	21156	582	13660			5864	1931
2001	21572	626	13659			6051	1863
2002	22169	647	14181			6190	1797
2003							
여성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55세 이상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표 3-4-10〉 산업별 주당근로시간  
Weekly Hours Worked

단위: 시간

연도 Year	전산업 All industries			광업 Mining			제조업 Manufacturing			전기, 가스,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 water			건설업 Construction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1980	51.6	50.9	52.6	42.0	41.7	47.3	53.1	52.8	53.5	48.6	49.0	44.1	50.4	50.6	48.9
1985	51.9	51.5	52.8	41.4	41.0	47.9	53.8	53.5	54.2	50.0	50.4	46.1	49.0	49.0	48.1
1990	48.2	48.2	48.4	36.2	35.9	44.1	49.8	49.9	49.6	47.8	48.1	44.4	45.8	45.9	44.7
1995	47.7	47.9	47.1	43.8	43.6	46.7	49.2	49.5	48.6	48.9	49.2	45.6	45.8	45.8	45.5
2000	47.5	47.8	46.7	44.6	44.4	46.5	49.3	49.2	49.8	48.3	48.6	45.2	44.4	44.4	44.2
2001	47.0	47.4	46.0	43.8	43.5	46.9	48.3	48.3	48.4	49.1	49.4	46.4	44.4	44.4	44.2
2002	46.2	46.6	45.3	44.5	44.7	47.2	47.7	47.6	47.9	47.1	47.9	45.5	43.9	44.0	43.4
2003															

연도 Year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Wholesale, retail restaurants & hotels			운수, 창고 및 통신업 Finance, insurance & real estate 7.9s48.4e43.8rvices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1980	50.5	50.3	51.0	50.4	49.9	53.1	45.4	45.6	45.2	47.2	47.4	46.6
1985	50.0	49.7	50.5	53.2	53.1	53.7	45.8	46.1	45.0	46.6	46.7	46.5
1990	47.5	47.4	47.8	48.9	49.1	46.0	43.6	44.0	42.6	44.5	44.4	44.6
1995	46.3	46.1	46.8	47.7	48.0	45.2	45.6	46.1	44.4	44.4	44.4	44.4
2000	45.0	45.0	45.0	49.5	50.2	43.9	45.4	46.4	43.4	44.9	45.0	44.6
2001	45.1	44.9	45.4	49.1	49.8	44.0	45.2	46.5	43.0	45.4	45.5	45.2
2002	44.5	44.3	44.8	49.1	49.8	44.0	45.2	46.5	43.0	45.4	45.5	45.2
2003												

주: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표 3-4-13〉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Monthly Wage Levels by Industry

단위: 원

연도 Year	전산업 All industries		광업 Mining	제조업 Manufacturing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 water	건설업 Construction
	임금지수 index of wage (1990=100)					
전체 Total						
1980	173150	28.1	210800	145019	260298	285955
1985	314213	50.9	337987	258332	514668	435910
1990	616765	100.0	620747	563246	900873	761572
1995	1195996	193.9	1211167	1122603	1504714	1367012
2000	1643265	266.4	1636652	1533295	2360003	1657555
2001	1748325	283.5	1813052	1634523	2578934	1773367
2002	1880389	304.9	1896291	1804224	3126491	1798080
2003						
남성 Mal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여성 Femal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주 : 1) 1993년부터는 1991 산업분류, 2002년부터는 2000년 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2) 1999년 이전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고 이후는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임.

연도 Year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Wholesales, retail restaurants & hotels	운수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Finance, insurance & real estate services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Community, social& personal services
전체 Total				
1980	201786	198549	247370	271817
1985	342273	344088	474464	480154
1990	628678	590810	767325	771308
1995	1103899	1138991	1330846	1427351
2000	1466653	1714124	1846403	1837207
2001	1579193	1837739	1948953	1934100
2002	1722006	1939470	2098214	1908787
2003				
남성 Mal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여성 Femal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표 3-4-14〉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Monthly Wage Levels by Occupation

단위: 원

연도 Year	평균 Average		전문기술직 Professional & technical workers		행정·관리직 Administrative & managerial workers		사무직 Clerical & related workers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1980								
1985	314213		552851		804328		362590	
1990	616765		881284		1303648		665876	
연도 Year	평균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legislator, senior officials & managers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Professionals,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사무직원 Clerks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1995	1195996		2262150		1525089		1174666	

연도 Year	판매직 Sales workers		서비스직 Service workers		농림수산업 Agri, forestry & fisheries related workers		생산운수장비·운전사· 단순노무직 Prod, trans, equipment operators & laborers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1980								
1985	322270		235025		337550		236365	
1990	499649		442995		525032		509292	
연도 Year	서비스판매 Service & shop sales workers		농림어업직 skilled agricultural & fishery workers		기능원·장치제조작원 Craft, machine operator & assemblers		단순노무직 Elementary occupations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1995	920324		1019577		1058823		784108	

주: 1) 1993년 이전은 1974 직업분류, 1999년 까지는 1993 직업분류, 2000년 이후는 2000년 직업분류에 의한 것임.

2) 1999년 이전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고 이후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임.



〈표 3-4-15〉 산업별 입직률  
Employment Accession Rate by Industry

단위: %

연도 Year	전산업 All industries	광업 Mining	제조업 Manufacturing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 water	건설업 Construction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 업 Wholesale s, retail restaurants & hotels	운수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Finance, insurance & real estate services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1980	4.4	3.8	4.9	1.7	4.9	3.2	3.5	2.6	2.3
1985	3.7	3.2	4.3	1.5	3.7	3.1	2.9	2.0	1.9
1990	2.99	2.57	3.32	1.41	3.05	3.20	2.30	2.44	2.06
1995	2.84	1.99	3.03	1.47	3.61	3.15	2.66	2.59	1.57
2000	2.84	1.61	2.82	0.93	3.22	3.25	2.65	3.00	2.46
2001	2.26	1.75	2.07	0.54	2.72	2.77	2.13	2.72	1.98
2002	2.46	1.37	2.49	0.88	2.64	2.76	2.24	2.82	1.82
2003									

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표 3-4-16〉 산업별 이직률  
Employment Separation Rate

단위: %

연도 Year	전산업 All industri es	광업 Mining	제조업 Manufactu ring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 wayer	건설업 Constructi on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Wholesales, retail restaurants & hotels	운수창고 및 통신업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 on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Finance, insurance & real estate services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1980	4.8	3.7	5.6	1.5	4.9	3.5	3.8	2.5	2.0
1985	3.9	3.1	4.5	1.3	4.7	3.1	3.0	2.2	1.7
1990	3.20	3.24	3.78	0.87	2.42	3.15	2.24	2.11	1.74
1995	2.86	2.81	.11	1.12	3.63	3.36	2.63	2.39	1.44
2000	2.63	1.97	2.55	0.96	3.27	3.21	2.14	2.85	2.37
2001	2.52	2.18	2.43	0.60	3.31	2.89	2.50	2.79	2.06
2002	2.44	1.81	2.48	0.85	2.75	2.80	2.23	2.76	1.78
2003									

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표 3-4-18〉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Technical Certificate Holders

단위: 명

연도 Year	취업자						
	Total technical certificate holders	기술사 Profession al engineer	기능장 master craftsman	기사 Engineer	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기능사 Craftsman	기능사보 Assistant craftsman
1980	134359	243	-	9017	26302	74808	23989
1985	161503	234	23	14905	18123	116086	12132
1990	225322	511	72	16617	20784	179952	7386
1995	390062	2584	376	3639	51379	280466	18862
2000	540973	1986	703	48730	55572	422022	11960
2001	551683	1640	741	49332	54092	432947	12931
2002	485500	1387	838	62543	58445	360977	1310
2003							



〈표 3-4-19〉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Number of Establishment & Workers Applied Employment Insurance

단위: 개소, 명

연도 Year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number of establishment applied employment insurance	사업체당 평균피보험자수 Average number of employment insurance per catab.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Number of workers applied employment insurance	남자 Male	여자 Femal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806962	8.6	6,908,888	4712388	2196550
30인미만	758105	3.8	2,908,387	1851812	1056575
39-49	20198	24.3	490,196	336387	153809
50-99	14616	42.1	615034	427242	187792
100-299	10298	96.7	995676	719555	276121
300-499	1803	194.7	351100	251361	99739
500-999	1161	365.6	424456	300211	124245
1000 이상	781	1439.2	1124039	825770	298269
<2002>	825531	8.7	7171277	4832458	2338819
30인미만	775398	4.0	3065153	1951164	1113989
39-49	20969	24.5	512975	350210	162765
50-99	15226	43.7	664640	460566	204074
100-299	10605	98.8	1047700	73223	308477
300-499	1706	202.6	345692	237576	108116
500-999	1041	433.8	451622	320089	131511
1000 이상	586	1849.0	1083495	773630	309865
2003					

주 : 12월 31일 기준

〈표 3-4-20〉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Number of Unemployment Insurance Received by Industry

단위: 명

	1990			2000			2001			2002		
	전체 Total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체 Total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체 Total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체 Total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산업 All industry							428156	269041	159115	416041	252605	163436
농림어업 Agri, forestry & fisheries							2707	2346	361	2720	2353	367
광업 Mining							1964	1785	179	2438	2252	186
제조업 Manufacturing							988	729	259	1025	793	23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 water							49192	39781	9411	37788	29114	8674
건설업 Construction							44359	26116	18243	49530	28541	8674
도소매업 Wholesales & retail							44359	26116	18243	49530	28541	20989
숙박음식업Hotels & restaurants							7921	3427	4494	8272	3479	4793
운수, 통신업 Transport & telecommunications							23944	18438	5506	22222	17216	500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Real estate							23751	49199	29952	82337	49651	32686
교육서비스업 Education							9155	2833	6322	10787	3261	7526
보건 및 사회보장사업 Health and social work							13057	2792	10265	16147	3453	12694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Other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activities							12140	7022	5118	12928	7430	5498
기타 <sup>1)</sup> Others							6063	3350	2713	5131	3139	1992

주: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기타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분류불능이 포함됨.

〈표 3-4-21〉 건강진단 수검률 및 직업별 근로자 비율  
Rates of Health Examination & Occupational Disease

단위: 천명, %

연도 Year	건강진단대상 근로자수 Number of applied workers	건강진단수검 근로자수 Number of examines		직업병 유소견자수(명) Case of occupational diseas(In persons)	직업병유소견 자율 Occupational disease rate
			수검률 Examination rate		
1980	2585	2442	94.5	4828	0.20
1985	2692	2538	94.3	6895	0.27
1990	4046	3530	87.2	7742	0.22
1995	3876	3501	90.3	3054	0.09
2000	2946	2634	89.4	2191	0.08
2001					
2002					
2003					

〈표 3-4-22〉 산업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및 재해사망률경  
Rates of Frequency, Severity & Death in Industrial Accidents

단위: 명, 건, %

연도 Year	피해자수 injured persons	사망자수 Number of deaths	재해건수 Accidents	재해도수율 Frequency rate	재해강도율 Severity rate	사망률(만명당) Death rate in industrial accidents (per 10,000 persons)
1980	113375	1273	112111	11.1	2.6	3.4
1985	141809	1718	140218	11.6	2.7	3.8
1990	132893	2236	126966	6.7	2.3	3.0
1995	78034	2662	76388	3.9	2.1	3.4
2000	68976	2528	67930	2.9	1.9	2.7
2001	81434	2748	80433	3.1	2.1	2.6
2002	81911	2605	80755	3.2	2.1	2.5
2003						

〈표 3-4-23〉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2000=100, 단위: %

연도 Year	총지수 Total		광업 Mining		제조업 Manufacturing		전기가스 Electricity, gas & water	
	지수 Index	전년대비 증감률 Change rate	지수 Index	전년대비 증감률 Change rate	지수 Index	전년대비 증감률 Change rate	지수 index	전년대비 증감률 Change rate
1980 <sup>1)</sup>	28.8	-2.4	52.0	-9.1	28.0	-4.4	38.7	-9.2
1985	38.8	2.1	56.8	8.4	38.5	1.9	43.1	-5.5
1990	60.0	12.6	6.6	8.5	60.1	12.5	66.4	16.3
1995	100.0	101	100.0	-1.0	100.0	10.4	100.0	-0.7
2000	100.0	9.1	100.0	6.3	100.0	9.1	100.0	10.4
2001	99.0	-1.0	105.8	5.8	98.6	-1.4	97.2	-2.8
2002	107.8	8.8	108.2	2.2	107.7	9.2	101.7	4.6
2003								

주) 물적노동생산성 지수임. 상용근로자 기준임

1) 1999년 이전은 1995=100

〈표 3-4-24〉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Union Membership Rate, Number of Labor Dispute & Working Days Lost

연도 Year	단위노동조합수 Unit unions (in eatab.)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Union members (In 1,000 persons)		노사분규건수(건) No. of labor dispute (Cases)	근로손실일수 (일) Working days lost (Days)
			노동조합조직률 (%) Union membership rate		
1980					
1985	2534	1004	16.8	-	-
1990	7698	1887	18.4	322	4487151
1995	6606	1615	13.8	88	392581
2000	5698	1527	12.0	250	1893563
2001	6150	1569	12.0	235	1083079
2002					
2003					

〈표 3-4-25〉 직업선택요인  
Reasons for Job Selection

단위: %

연도 Year	15세 이상인구 Population 15 years & over	명성· 명예 Prestige	안정성 Stability	수입 Income	적성· 흥미 fitness	보람· 자아성취 Meaning-f fulness	발전성· 장래성 Promotion opportunities	기타 Others	모르겠음 Don't know
<1995>	100.0	3.3	29.6	27.1	-	10.5	29.2	0.5	-
남성 Male	100.0	4.4	30.3	22.5	-	8.5	33.8	0.4	-
여성 Female	100.0	2.1	29.0	31.4	-	12.3	24.7	0.5	-
15-19세 Years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Years & over									
<1998>	100.0	2.1	41.5	18.2	-	16.2	20.7	0.1	1.3
남성 Male	100.0	2.6	40.6	17.2	-	16.1	22.7	0.1	0.8
여성 Female	100.0	1.6	42.3	19.1	-	16.3	18.9	0.1	1.8
15-19세 Years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Years & over									
<2002>	100.0	1.7	34.4	21.5	16.4	8.2	16.1	0.0	1.7
남성 Male	100.0	2.1	34.5	21.3	15.3	8.5	17.2	0.0	1.1
여성 Female	100.0	1.4	34.3	21.7	17.3	8.0	15.1	0.0	2.2
15-19세 Years	100.0	2.9	19.3	14.6	34.3	11.8	15.8	0.0	1.4
20-29세	100.0	1.4	25.6	18.5	24.1	11.2	18.7	0.1	0.4
30-39세	100.0	1.3	31.1	21.7	16.5	10.1	18.6	0.0	0.6
40-49세	100.0	1.5	38.0	22.6	13.3	7.5	16.3	0.0	0.7
50-59세	100.0	1.8	45.6	23.5	8.6	5.1	14.3	-	1.1
60세이상 Years & over	100.0	2.4	45.6	25.6	6.2	3.2	10.3	0.0	6.7





연도 Year	임금 Wage				장래성 Prospect				근무환경 Working environment			
	만족 Satisfied	보통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겠음 Don't know	만족 Satisfied	보통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겠음 Don't know	만족 Satisfied	보통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겠음 Don't know
(1991)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16.1	35.1	48.8	-	10.4	43.5	46.2	-	19.4	43.7	36.9	-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기능노무직 & elementary occupation												
(1995)												
남성 Male	17.2	40.6	42.2	-	17.9	51.2	30.9	-	21.7	48.8	29.5	-
여성 Female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기능노무직 & elementary occupation	15.4	40.4	43.5	0.7	16.5	42.1	34.6	6.8	21.5	46.8	29.8	2.0
(2002)												
남성 Male	15.6	39.9	44.0	0.6	17.4	42.0	35.2	5.4	20.9	44.9	32.7	1.5
여성 Female	15.2	41.1	42.8	0.8	15.2	42.3	33.7	8.9	22.3	49.5	25.7	2.6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24.2	42.1	33.3	0.4	27.4	46.0	24.3	2.3	34.1	46.5	18.7	0.7
사무직 Clerks	18.6	42.6	38.5	0.2	19.2	46.3	31.0	3.5	32.6	49.5	17.2	0.6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13.6	42.6	42.9	0.9	14.2	39.1	36.9	9.9	18.1	52.4	26.9	2.6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10.1	45.2	42.7	2.0	3.0	39.6	43.8	13.6	6.1	48.6	41.1	4.2
기능노무직 & elementary occupation	9.9	37.3	51.8	0.9	9.3	38.7	42.1	9.9	11.0	43.1	42.9	3.0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계속)

연도 Year	인간관계				상하관계				직장에서 성취를 방지노력			
	만족 Satisfied	보통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 졌음 Don't know	만족 Satisfied	보통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 졌음 Don't know	만족 Satisfied	보통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 졌음 Don't know
<1991>												
남성 Male	-	-	-	-	33.2	55.6	11.2	-	-	-	-	-
여성 Female	-	-	-	-	-	-	-	-	-	-	-	-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s & elementary occupation												
<1995>												
남성 Male	-	-	-	-	31.7	58.4	10.0	-	-	-	-	-
여성 Female	-	-	-	-	-	-	-	-	-	-	-	-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s & elementary occupation												
<2002>												
남성 Male	36.3	51.4	11.1	1.2	-	-	-	-	21.6	51.8	7.5	19.1
여성 Female	36.2	51.2	11.6	1.1	-	-	-	-	21.4	52.9	5.9	19.7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36.4	51.8	10.3	1.4	-	-	-	-	21.7	50.3	9.9	18.1
사무직 Clerks	45.8	44.9	9.0	0.3	-	-	-	-	31.5	52.1	5.1	11.3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41.3	47.7	10.7	0.3	-	-	-	-	28.0	54.4	7.3	10.3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35.1	53.5	9.9	1.5	-	-	-	-	15.9	50.2	10.2	23.7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s & elementary occupation	29.1	56.1	12.9	2.0	-	-	-	-	13.0	51.2	8.1	27.7

연도 Year		근로시간 Working hours			
		만족 Satisfied	보통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겠음 Don't know
<1991>		20.9	42.8	36.3	-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s & elementary occupation				
<1995>		43.6	54.1	2.4	-
남성	Male				
여성	Female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s & elementary occupation				
<2002>		20.8	44.4	34.0	0.8
남성	Male	19.5	43.6	36.2	0.7
여성	Female	22.6	45.6	30.9	0.8
전문관리직	Pro, tech, adm, managers	30.6	42.9	26.1	0.4
사무직	Clerks	28.0	44.2	27.6	0.1
서비스판매직	Service, sales	16.7	43.5	38.9	0.9
농어업직	Agri, forestry, fisheries	10.5	48.7	40.3	0.5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s & elementary occupation	14.0	45.8	39.1	1.2





〈표 3-4-28〉 여성취업장애요인  
Obstruction to Female Employment

단위 : %

연도 Year	15세 이상 인구 Population 15 years & over	사회적 편견과 관행 Social prejudice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Lack of responsibility	불평등한 근로여건 Working conditions	여성의 능력부족 Lack of ability	육아부담 <sup>1)</sup> burden of childcare	가사부 담 Burden of house work	기타 Others	모르겠음 Don't know
<1995>	100.0	24.7	8.7	9.5	4.3	52.5	-	0.3	-
남성 Male	100.0	24.5	10.8	9.1	5.0	50.3	-	0.3	-
여성 Female	100.0	24.8	6.8	9.9	3.7	54.6	-	0.2	-
15-19세 Years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전문직 Professional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 fisheries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 & elementary occupations									
<1998>	100.0	28.2	10.0	12.5	4.3	29.3	10.6	0.1	5.1
남성 Male	100.0	28.8	11.9	11.9	4.6	27.1	10.4	0.1	5.2
여성 Female	100.0	27.6	8.1	13.0	4.0	31.4	10.8	0.1	4.9
15-19세 Years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전문직 Professional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직 service & sales									
농어업직 Agri, forestry & fisheries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 & elementary occupations									

주: 1) 1995년 육아부담에는 가사부담이 포함된 수치임.

여성취업 장애요인(표 계속)

연도 Year	15세 이상 인구 Popula tion 15 years & over	사회적 편견과 관행 Social prejudic e	직업 의식, 책임감 부족 Lack of respons ibility	불평등한 근로여건 Working conditio ns	여성의 능력 부족 Lack of ability	육아 부담 <sup>1)</sup> burden of childca re	가사부담 Burden of housewor k	기타 Others	모르 겠음 Don't know
<2002>	100.0	22.8	6.3	12.4	2.3	38.8	8.9	2.1	6.4
남성 Male	100.0	24.0	8.1	11.5	2.6	36.3	8.6	1.7	7.1
여성 Female	100.0	21.7	4.5	13.2	2.0	41.1	9.2	2.5	5.8
15-19세 Years	100.0	34.4	5.3	14.4	1.9	24.0	7.4	1.4	11.2
20-29세	100.0	27.3	6.8	15.3	1.6	38.3	5.4	1.6	3.7
30-39세	100.0	19.8	6.7	10.0	1.8	50.2	6.6	2.2	2.8
40-49세	100.0	22.4	7.5	13.8	3.1	34.1	11.8	3.0	4.2
50-59세	100.0	21.7	6.1	13.0	3.5	36.7	10.9	2.1	5.9
60세 이상	100.0	100.0	3.9	8.6	2.3	39.0	12.4	1.8	15.9
전문관리직 Prof, Tech, Adm,managers	100.0	22.6	9.8	10.4	2.2	45.7	5.9	1.5	1.9
사무직 Clerks	100.0	24.5	8.4	14.5	1.4	41.0	6.2	2.2	1.8
서비스판매직 service & sales	100.0	22.4	6.5	12.5	2.4	38.8	10.6	2.6	4.2
농어업직 Agri, forestry & fisheries	100.0	17.6	4.3	10.3	2.7	35.1	13.9	2.2	13.8
기능노무직 Craft, assembler & elementary occupations	100.0	22.0	6.1	14.3	2.9	3.5	10.2	2.0	6.0

〈표 3-5-1〉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Average Yars of Educational Attainment by Sex & Age Group

단위 : 년

In years

		평균 Average	6~19세 Years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Years & over
〈1975〉		6.6	6.2	8.8	8.1	6.3	2.7
남자	Male	7.6	6.3	9.3	9.3	7.9	4.0
여자	Female	5.7	6.1	8.4	6.9	4.8	1.7
〈1980〉		7.6	6.5	9.9	9.2	7.5	4.2
남자	Male	8.7	6.6	10.3	10.2	9.0	5.0
여자	Female	6.6	6.1	9.4	8.1	6.0	2.3
〈1985〉		8.6	6.7	11.0	10.1	8.5	4.6
남자	Male	9.7	6.7	11.3	10.9	9.9	6.5
여자	Female	7.6	6.7	10.6	9.3	7.1	3.1
〈1990〉		9.5	7.7	12.0	11.1	9.5	5.5
남자	Male	10.6	7.7	12.3	11.8	10.6	7.6
여자	Female	8.6	7.8	11.8	10.4	8.4	3.9
〈1995〉		10.3	7.0	12.7	12.1	10.5	6.3
남자	Male	11.2	6.7	12.7	12.7	11.4	8.5
여자	Female	9.4	7.2	12.7	11.6	9.6	4.8
〈2000〉		10.6	5.7	13.1	12.8	11.2	7.2
남자	Male	11.5	5.3	13.0	13.2	12.0	9.2
여자	Female	9.8	6.0	13.2	12.5	10.5	5.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로 각년도 산출



〈표 3-5-2〉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25 Years & over)

단위 : % %

	계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 under	중 졸 Middle school graduates	고 졸 High school graduates	대졸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 1 9 7 5 〉	100.0	65.5	14.8	13.9	5.8
남자 Male	100.0	53.1	17.7	19.7	9.5
여자 Female	100.0	77.1	12.1	8.4	2.4
〈 1 9 8 0 〉	100.0	55.3	18.1	18.9	7.7
남자 Male	100.0	42.8	19.8	25.4	12.0
여자 Female	100.0	67.0	16.5	12.9	3.6
〈 1 9 8 5 〉	100.0	43.4	20.5	25.9	10.2
남자 Male	100.0	31.9	20.5	32.1	15.5
여자 Female	100.0	54.1	20.5	20.2	5.2
〈 1 9 9 0 〉	100.0	33.4	19.0	33.5	14.1
남자 Male	100.0	23.3	17.6	38.9	20.1
여자 Female	100.0	43.0	20.3	28.4	8.3
〈 1 9 9 5 〉	100.0	26.6	15.7	38.0	19.7
남자 Male	100.0	17.8	14.2	41.4	26.6
여자 Female	100.0	35.0	17.1	34.8	13.1
〈 2 0 0 0 〉	100.0	23.0	13.3	39.4	24.3
남자 Male	100.0	15.1	12.3	41.6	31.0
여자 Female	100.0	30.4	14.3	37.3	18.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로 각년도 산출

〈표 3-5-3〉 자녀교육의 목적  
Expected Purpose of Education by Parents

단위 : % %

		계 Total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Good job	소질 개발 Improve- ment of nature	주위의 기대 Expecta- tion by others	학력을 차별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Scholarship distinction culture in society	인격이나 교양을 쌓으려고 Character	기타 Others
〈1996〉								
전국	Whole country	100.0	37.9	37.3	3.9	11.5	9.0	0.4
시부	Total for sis	100.0	36.7	38.5	3.9	11.2	9.3	0.5
군부	Total for guns	100.0	44.9	30.8	4.2	12.8	7.1	0.1
남자	Male	100.0	41.9	35.5	4.7	10.0	7.5	0.3
여자	Female	100.0	33.5	39.3	3.0	13.0	10.6	0.5
중재	Middle school registered	100.0	37.0	36.7	6.0	9.4	10.4	0.4
고재	High school registered	100.0	40.2	36.5	4.3	11.4	7.5	0.2
대학이상 재학생	College&univer- sity registered	100.0	35.2	38.6	2.9	12.1	10.5	0.8
〈2000〉								
전국	Whole country	100.0	40.7	35.4	2.9	15.9	4.5	0.6
동부	Total for dong	100.0	40.0	36.2	2.7	15.9	4.4	0.7
읍면부		100.0	45.2	29.9	3.8	15.7	4.8	0.5
남자	Male	100.0	43.5	33.8	3.6	15.1	3.3	0.6
여자	Female	100.0	37.8	37.0	2.1	16.7	5.7	0.7
중재	Middle school registered	100.0	42.4	36.5	3.7	12.0	4.8	0.7
고재	High school registered	100.0	41.7	34.0	4.0	16.0	3.8	0.5
대학이상 재학생	College & university registered	100.0	39.3	36.9	1.5	16.2	5.2	0.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가구주 대상

〈표 3-5-4〉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Expected Level of Education by Student

단위 : % %

		계 Total	고등학교 이하 High school & under	대 학 College	대 학 교 University	대학원 이상 Graduate school & over
(1996)						
전국	Whole Country	100.0	2.8	14.8	56.9	25.4
시부	Total for sis	100.0	2.4	13.8	56.7	27.1
군부	Total for guns	100.0	5.5	20.3	57.9	16.3
남자	Male	100.0	2.7	14.0	57.2	26.1
여자	Female	100.0	3.1	15.7	56.5	24.7
중재	Middle school registered	100.0	3.6	14.2	65.6	16.7
고재	High school registered	100.0	4.7	18.3	58.7	18.3
대학이상 재학생	College&university registered	100.0	-	10.1	51.8	38.0
(2000)						
전국	Whole country	100.0	4.0	12.8	61.3	21.9
동부	Total for ongs	100.0	3.3	12.0	61.4	23.3
읍면부		100.0	8.3	17.8	60.8	13.1
남자	Male	100.0	3.8	11.6	63.3	21.3
여자	Female	100.0	4.1	14.1	59.2	22.6
중재	Middle school registered	100.0	8.0	8.6	64.8	18.6
고재	High school registered	100.0	6.8	13.7	64.7	14.8
대학이상 재학생	ollege&university registered	100.0	-	12.4	56.6	31.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중·고·대학생만 기입

〈표 3-5-5〉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Expected Purpose of Education by Student

단위 : % %

		계 Total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 Good job	소질 개발 Improve- ment of nature	주위의 기대 Expecta- tion by others	학력을 차별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Scholarship distinction culture in society	인격 이나 교양을 쌓으려고 Character	기타 Others
〈1996〉								
전국	Whole country	100.0	37.9	37.3	3.9	11.5	9.0	0.4
시부	Total for sis	100.0	36.7	38.5	3.9	11.2	9.3	0.5
군부	Total for guns	100.0	44.9	30.8	4.2	12.8	7.1	0.1
남자	Male	100.0	41.9	35.5	4.7	10.0	7.5	0.3
여자	Female	100.0	33.5	39.3	3.0	13.0	10.6	0.5
중재	Middle school registered	100.0	37.0	36.7	6.0	9.4	10.4	0.4
고재	High school registered	100.0	40.2	36.5	4.3	11.4	7.5	0.2
대학이상 재학생	College&univer sity registered	100.0	35.2	38.6	2.9	12.1	10.5	0.8
〈2000〉								
전국	Whole country	100.0	40.7	35.4	2.9	15.9	4.5	0.6
동부	Total for dongs	100.0	40.0	36.2	2.7	15.9	4.4	0.7
읍면부		100.0	45.2	29.9	3.8	15.7	4.8	0.5
남자	Male	100.0	43.5	33.8	3.6	15.1	3.3	0.6
여자	Female	100.0	37.8	37.0	2.1	16.7	5.7	0.7
중재	Middle school registered	100.0	42.4	36.5	3.7	12.0	4.8	0.7
고재	High school registered	100.0	41.7	34.0	4.0	16.0	3.8	0.5
대학이상 재학생	College&univer sity registered	100.0	39.3	36.9	1.5	16.2	5.2	0.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중·고·대학생만 기입

〈표 3-5-6〉 취학률  
Gross School Enrollment Ratio

단위 : % %

연도 Year	유치원 Kindergarten			초 등 학 교 Elementary school			중 학 교 Middle school			고 등 학 교 High school		
	계 Total	남자 Male	여자 Female	계 Total	남자 Male	여자 Female	계 Total	남자 Male	여자 Female	계 Total	남자 Male	여자 Female
1980				102.9	102.1	103.7	95.1	97.5	92.5	63.5	70.3	56.2
1981				103.4	102.9	103.8	96.9	98.3	95.3	70.2	77.0	63.0
1982				103.7	103.4	104.1	95.4	96.3	94.5	74.9	81.6	67.8
1983				102.7	102.4	103.1	96.0	96.8	95.1	77.9	83.5	71.9
1984				101.4	101.0	101.7	97.5	98.0	96.9	79.2	83.9	74.3
1985				99.9	99.6	100.1	100.1	100.5	99.6	79.5	83.2	75.5
1986				99.9	99.6	100.2	101.9	102.0	101.8	81.8	83.5	80.0
1987				99.0	98.8	99.3	101.3	101.2	101.3	80.4	84.7	75.9
1988				99.1	98.7	99.4	100.6	100.4	100.8	83.4	87.3	79.2
1989				100.2	99.9	100.6	99.0	99.0	99.1	85.9	89.2	82.4
1990				101.7	101.3	102.2	98.2	97.9	98.5	88.0	90.5	85.4
1991				102.1	101.6	102.6	96.5	96.3	96.7	89.1	90.9	87.2
1992				101.7	101.4	102.2	98.8	98.4	99.3	89.4	90.6	88.0
1993				101.7	101.3	102.0	98.9	98.6	99.2	89.5	90.4	88.6
1994				101.0	100.7	101.4	101.2	100.9	101.4	89.5	90.2	88.8
1995				100.1	99.9	100.3	101.6	101.4	101.8	91.8	92.4	91.3
1996				99.4	98.9	100.0	101.6	101.1	102.1	91.2	92.0	90.4
1997				99.0	98.4	99.7	100.0	99.5	100.6	93.5	94.1	92.8
1998				98.7	97.9	99.5	98.9	98.6	99.3	94.6	95.0	94.2
1999				98.9	98.1	99.7	98.5	98.3	98.7	96.6	96.9	96.3
2000				98.7	98.2	99.3	99.5	99.1	100.0	95.6	95.7	95.5
2001				98.4	98.0	98.8	99.0	98.2	99.8	94.7	94.7	94.7
2002				98.5	98.0	98.9	98.5	97.9	99.1	94.0	94.1	93.9
2003				99.5	99.2	99.9	96.4	95.8	97.1	95.2	95.1	95.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

〈표 3-5-7〉 진학률  
Advance Rate of Graduates to Higher School Level

단위 : %

연도 Year	초 등 학 교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중 학 교 Middle school→ High School			고 등 학 교 High school→College, University		
	계 Total	남 자 Male	여 자 Female	계 Total	남 자 Male	여 자 Female	계 Total	남 자 Male	여 자 Female
1980	102.9	102.1	103.7	95.1	97.5	92.5	63.5	70.3	56.2
1981	103.4	102.9	103.8	96.9	98.3	95.3	70.2	77.0	63.0
1982	103.7	103.4	104.1	95.4	96.3	94.5	74.9	81.6	67.8
1983	102.7	102.4	103.1	96.0	96.8	95.1	77.9	83.5	71.9
1984	101.4	101.0	101.7	97.5	98.0	96.9	79.2	83.9	74.3
1985	99.9	99.6	100.1	100.1	100.5	99.6	79.5	83.2	75.5
1986	99.9	99.6	100.2	101.9	102.0	101.8	81.8	83.5	80.0
1987	99.0	98.8	99.3	101.3	101.2	101.3	80.4	84.7	75.9
1988	99.1	98.7	99.4	100.6	100.4	100.8	83.4	87.3	79.2
1989	100.2	99.9	100.6	99.0	99.0	99.1	85.9	89.2	82.4
1990	101.7	101.3	102.2	98.2	97.9	98.5	88.0	90.5	85.4
1991	102.1	101.6	102.6	96.5	96.3	96.7	89.1	90.9	87.2
1992	101.7	101.4	102.2	98.8	98.4	99.3	89.4	90.6	88.0
1993	101.7	101.3	102.0	98.9	98.6	99.2	89.5	90.4	88.6
1994	101.0	100.7	101.4	101.2	100.9	101.4	89.5	90.2	88.8
1995	100.1	99.9	100.3	101.6	101.4	101.8	91.8	92.4	91.3
1996	99.4	98.9	100.0	101.6	101.1	102.1	91.2	92.0	90.4
1997	99.0	98.4	99.7	100.0	99.5	100.6	93.5	94.1	92.8
1998	98.7	97.9	99.5	98.9	98.6	99.3	94.6	95.0	94.2
1999	98.9	98.1	99.7	98.5	98.3	98.7	96.6	96.9	96.3
2000	98.7	98.2	99.3	99.5	99.1	100.0	95.6	95.7	95.5
2001	98.4	98.0	98.8	99.0	98.2	99.8	94.7	94.7	94.7
2002	98.5	98.0	98.9	98.5	97.9	99.1	94.0	94.1	93.9
2003	99.5	99.2	99.9	96.4	95.8	97.1	95.2	95.1	95.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

〈표 3-5-8〉 중도 탈락률  
Mid-dropout Rates of Students

단위 : % %

	중 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교	
	Middle school		High school		Junior college		University	
	남자 Male	여자 Female	남자 Male	여자 Female	남자 Male	여자 Female	남자 Male	여자 Female
1992	0.9		2.2		17.9		16.1	
1993	0.7		2.1		18.0		17.6	
1994	0.8		2.2		17.9		17.6	
1995	1.0		2.5		19.3		19.7	
1996	1.1		2.6		20.2		20.3	
1997	1.2		2.7		26.3		25.0	
1998	1.0		2.1		25.3		27.2	
1999	0.9		2.2		25.6		25.4	
2000	1.0		2.5		25.1		25.3	
2001	1.1		2.5		25.5		25.6	
2002	0.9		2.2		24.7		25.2	
서울 Seoul	1.5		2.4		19.7		22.8	
부산 Busan	0.7		1.9		24.9		26.8	
대구 Daegu	0.5		1.5		28.4		21.9	
인천 Incheon	0.8		1.9		27.0		20.3	
광주 Gwangju	0.7		2.0		22.0		21.5	
대전 Daejeon	1.0		2.4		22.3		26.6	
울산 Ulsan	0.6		1.9		27.5		28.3	
경기 Gyeonggi	0.9		2.1		24.2		24.8	
강원 Gangwon	0.7		2.5		21.3		25.5	
충북 Chungbuk	0.7		2.2		26.0		23.4	
충남 Chungnam	0.7		2.6		31.7		26.6	
전북 Jeonbuk	0.6		2.3		29.4		27.3	
전남 Jeonnam	0.6		2.2		27.8		27.5	
경북 Gyeongbuk	0.5		2.0		24.7		29.9	
경남 Gyeongnam	0.6		2.2		20.7		25.8	
제주 Jeju	0.4		2.6		26.7		28.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9〉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Number of College Students Per 10,000 Persons

	대학생수		인구(천명)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No. of college students		Population(1000person)		Number of college students per 10,000 persons	
	계(Total)	여(Female)	계(Total)	여(Female)	계(Total)	여(Female)
1970	201,436	48,863	32,241	15,932	62.5	30.7
1975	318,683	81,228	35,281	17,515	90.3	46.4
1980	647,505	148,076	38,124	18,888	169.8	78.4
1985	1,455,762	432,385	40,806	20,230	356.8	213.7
1990	1,691,429	534,053	42,869	21,301	394.6	250.7
1995	2,343,894	848,145	45,093	22,388	519.8	378.8
2000	3,363,549	1,286,762	47,008	23,341	715.5	551.3
2001	3,500,560	1,350,523	47,343	23,508	739.4	574.5
2002	3,577,447	1,391,551	47,640	23,656	750.9	588.2
2003	3,531,721	1,372,428	47,925	23,799	736.9	576.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10〉 인구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Doctoral Degrees Conferred Per 10,000 Persons

단위: 명 In Persons

	인문사회계 Human-social science		자연계 Natural science		의학계 Medical science	
	박사학위 취득자 수 Doctoral degrees conferred	인구 만명당 취득자 수 Doctoral degrees conferred per 10,000 persons	박사학위 취득자 수 Doctoral degrees conferred	인구 만명당 취득자 수 Doctoral degrees conferred per 10,000 persons	박사학위 취득자 수 Doctoral degrees conferred	인구 만명당 취득자 수 Doctoral degrees conferred per 10,000 persons
1970	160	0.05	259	0.08	2,227	0.69
1975	580	0.16	813	0.23	4,155	1.18
1980	1,053	0.28	1,379	0.36	5,076	1.33
1985	2,044	0.50	2,911	0.71	7,044	1.73
1990	4,979	1.16	7,057	1.65	10,239	2.39
1995	10,538	2.34	13,773	3.05	14,737	3.27
2000	17,258	3.67	24,914	5.30	21,257	4.52
2001	18,674	3.94	27,683	5.85	22,891	4.84
2002	20,264	4.25	30,733	6.45	24,550	5.15
2003	21,891	4.57	33,916	7.08	26,455	5.5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11〉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Annual Participation Rate of Lifetime Learning Program

단위 : %

		%										기 타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Participation rate	직장연수 Workplace training	학원수강 Institution training		교양강좌 Educational program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TV, 라디오 강좌청취 Massmedia lecture		기 타 Others				
		참여율 Rate	교육이수일수(일) Day	참여율 Rate	교육이수일수(일) Day	참여율 Rate	교육이수일수(일) Day	참여율 Rate	교육이수일수(일) Day	참여율 Rate	교육이수일수(일) Day			
〈1996〉														
전국	Whole country	17.4	9.1	12.3	3.5	78.2	3.1	17.1	2.2	8.9	3.8	28.2	0.4	27.3
시부	Total for sis	18.5	10.2	12.7	4.4	79.2	0.4	18.5	1.4	13.7	4.4	29.3	0.4	29.4
군부	Total for guns	13.1	4.8	9.4	1.1	65.0	2.1	8.5	5.5	4.5	1.7	17.8	0.2	12.6
남자	Male	21.6	13.2	12.6	3.4	73.4	2.5	9.3	3.7	7.4	3.8	26.3	0.4	28.7
여자	Female	13.5	5.3	11.7	3.6	82.3	3.7	21.9	0.9	14.8	3.8	29.9	0.4	25.7
초졸 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4.3	0.5	8.4	0.2	81.9	0.8	17.7	2.4	3.0	0.6	14.9	0.1	17.3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8.3	2.3	6.5	0.7	62.2	1.8	12.7	2.4	7.8	2.1	16.5	0.2	18.8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8.5	9.1	10.2	3.5	76.5	3.6	15.6	2.2	11.9	4.3	24.4	0.3	20.8
대졸 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41.8	27.5	14.4	10.7	80.2	6.6	20.1	2.0	12.7	8.9	36.1	1.2	32.8
〈2000〉														
전국	Whole country	17.2	7.8	11.9	3.6	74.3	3.3	24.3	2.1	20.9	3.7	25.9	0.4	21.5
동부	Total for dong	18.0	8.6	12.3	4.2	74.7	3.5	24.3	1.1	20.9	4.2	25.9	0.4	21.5
읍면부	Total for eups & myeons	14.3	4.8	9.8	1.3	68.7	2.4	24.3	5.7	20.9	2.0	25.9	0.4	21.5
남자	Male	19.4	10.7	11.8	3.1	75.4	1.9	17.5	3.4	16.4	3.6	29.5	0.5	18.0
여자	Female	15.2	5.1	12.1	4.0	73.5	4.5	27.0	0.9	36.5	3.8	22.7	0.4	25.3
초졸 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4.5	0.4	5.7	0.1	50.3	1.0	19.8	2.7	3.6	0.6	10.4	0.1	10.7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7.5	1.7	5.3	0.6	66.8	1.9	15.6	2.1	9.1	1.8	10.9	0.1	15.0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6.8	6.7	9.3	3.3	71.5	3.8	22.4	1.8	27.5	3.9	17.2	0.4	21.5
대졸 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39.6	22.6	13.9	10.1	76.6	5.8	29.7	2.1	44.6	8.3	37.1	1.1	23.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주 : 15세이상 가구원(재학생 및 재수생 제외)

〈표 3-5-12〉 교육기회 미충족 및 이유

Levels of Dis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Attainment & Reasons for Dissatisfaction  
단위 : %

		미충족자 비율 Percentage of dissatisfied ratio	경제적 형편 Economic difficulties	학교가 멀어서 Far from school	시험실패 Failed entrance examination	부모의 사고방식 Opposition of parents	집안 돌봄 Pursuance of family business	질병, 신체적 장애 Sickness	기타 Others
〈1996〉									
전국	Whole country	79.4	47.4	1.3	12.5	11.5	5.1	0.8	0.8
시부	Total for sis	77.6	46.3	1.0	13.3	10.3	5.0	0.7	0.8
군부	Total for guns	86.2	51.7	2.4	9.3	15.6	5.4	1.0	0.8
남자	Male	75.9	49.7	1.1	14.4	2.6	6.2	0.9	1.0
여자	Female	82.7	45.4	1.5	10.7	19.6	4.2	0.7	0.6
초졸 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96.1	55.5	2.8	1.5	27.9	6.5	1.1	0.8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94.9	68.3	1.2	7.1	10.8	5.7	0.9	0.9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9	47.2	0.8	21.7	5.6	4.2	0.8	0.6
대학 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37.9	17.7	0.5	11.7	1.8	4.8	0.3	1.2
〈2000〉									
전국	Whole country	75.5	47.9	0.9	9.4	10.4	4.4	0.8	1.6
동부	Total for donggs	73.6	46.3	0.9	10.4	9.2	4.4	0.7	1.7
읍면부		82.1	53.5	1.2	6.1	14.4	4.6	1.0	1.3
남자	Male	71.6	49.6	0.8	11.1	2.3	5.1	0.9	1.9
여자	Female	79.1	46.4	1.1	7.9	17.7	3.8	0.7	1.4
초졸 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94.6	57.1	1.6	0.9	26.8	5.7	1.4	1.2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93.0	68.5	1.0	5.3	10.0	5.5	0.8	1.9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77.2	49.7	0.7	16.0	5.0	3.6	0.7	1.5
대학 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37.5	19.3	0.7	9.6	1.7	3.7	0.3	2.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3-5-13〉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2000, 복수응답)  
 Programs of Wanting to Learn Among Life Learning Programs  
 (2000, Multiple response)

	받고 싶은 교육이 있음										받고 싶은 교육이 없음	%
	Want to learn	일반기술 직업훈련 Technique, profession nal training	컴퓨터 관련교육 Computer education	어학 관련교육 Linguistic education	전통기능 전통문화, 관련교육 Cultural heritage education	문화, 교육, 여가선용 관련교육 Culture, leisure education	사회봉사 관련교육 Social service education	정규 교육과정 Regular school education	기타 Others			
전국	71.0	10.5	62.9	30.5	8.6	25.6	11.5	5.8	0.7	29.0	Whole country	
동부	76.4	10.5	68.1	34.2	9.0	27.6	12.2	6.2	0.7	23.6	Total for dong	
읍면부	50.6	10.6	43.1	16.2	7.1	17.9	8.9	4.2	0.9	49.4	Total for eup & myeons	
남자	75.4	14.5	68.9	33.6	8.3	19.0	9.0	6.1	0.8	24.6	Male	
여자	66.8	6.7	57.3	27.6	8.9	31.9	13.9	5.4	0.6	33.2	Female	
15 ~ 19세	97.3	15.6	92.5	57.1	7.5	29.6	11.0	10.9	1.4	2.7	15 ~ 19 Years	
20 ~ 29	94.7	14.2	89.9	54.6	7.7	33.3	10.6	7.7	0.7	5.3	20 ~ 29	
30 ~ 39	89.1	13.8	82.9	37.4	10.5	33.4	14.8	6.3	0.8	10.9	30 ~ 39	
40 ~ 49	73.0	10.6	62.5	21.5	10.4	26.7	15.4	5.4	0.6	27.0	40 ~ 49	
50 ~ 59	47.8	6.7	34.2	10.7	9.6	18.6	11.0	3.9	0.5	52.2	50 ~ 59	
60세 이상	17.9	1.4	8.7	2.8	4.6	7.5	4.3	1.5	0.5	82.1	60 Years & over	
초졸 이하	23.3	4.1	13.2	3.4	4.6	8.8	4.6	3.5	0.5	76.7	Elementary school	
중졸	70.8	13.3	60.2	23.8	8.4	24.0	12.0	8.4	1.0	29.2	Middle school graduates	
고졸	86.1	13.8	79.8	34.9	9.6	30.9	13.9	6.4	0.6	13.9	High school graduates	
대졸 이상	94.3	8.1	87.1	59.5	11.1	35.2	13.9	1.1	1.0	5.7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전문관리직	94.4	6.8	87.1	58.5	2.1	32.7	13.2	5.7	1.0	5.6	Prof., tech., adm., managers	
사무직	94.8	9.6	88.8	56.3	9.2	35.1	13.1	6.8	0.8	5.2	Clerks	
서비스 판매직	70.7	10.1	62.4	23.8	8.7	25.4	12.6	5.7	0.5	29.3	Service, sales	
농어업직	29.8	7.3	20.4	3.8	6.4	10.3	5.4	2.2	0.9	70.2	Agri., forestry, fisheries	
기능노무직	69.4	16.7	61.6	19.2	8.1	19.6	10.4	6.3	0.6	30.6	Craft, assembler & elementary occupations	

자료 : 통계청, 「2000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표 3-5-14〉 학생현황  
Number of Students

단위 : 명, %		In persons, %						
	총학생수 <sup>1)</sup> Total students	전체 인구에 대한 학생비율 Percentage of female students to total students	여학생 비율 Percentage of students to total population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원) Colleg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1993	10,561,409	45.6	24.0	4,336,252	2,410,874	2,069,210	1,669,823	1993
1994	10,500,541	45.6	23.6	4,099,395	2,508,657	2,060,825	1,767,517	1994
1995	10,494,125	45.7	23.3	3,905,163	2,481,848	2,157,880	1,889,933	1995
1996	10,534,845	45.6	23.1	3,800,540	2,379,983	2,243,307	2,056,370	1996
1997	10,619,048	45.4	23.1	3,783,986	2,180,283	2,336,725	2,265,508	1997
1998	10,703,762	45.2	23.1	3,834,561	2,011,468	2,326,880	2,480,138	1998
1999	10,803,628	44.9	23.2	3,935,537	1,896,956	2,251,140	2,673,310	1999
2000	10,823,380	44.7	23.0	4,019,991	1,860,539	2,071,468	2,829,015	2000
2001	10,818,914	38.1	22.9	4,089,429	1,831,152	1,911,173	2,946,975	2001
2002	10,834,579	44.4	22.7	4,138,366	1,841,030	1,795,509	3,020,993	2002
2003	10,865,019	44.4	22.6	4,175,626	1,854,641	1,766,529	3,030,385	2003
서울	2,138,972	46.2	21.2	759,010	359,457	366,556	640,786	Seoul
부산	847,289	43.9	22.9	288,174	141,010	140,932	274,424	Busan
대구	569,857	43.0	22.3	223,849	106,094	100,375	138,068	Daegu
인천	543,054	45.9	20.7	247,046	109,493	99,033	86,007	Incheon
광주	383,812	44.6	26.8	138,644	61,201	57,508	125,242	Gwangju
대전	390,207	42.9	26.6	132,735	60,236	57,989	137,865	Daejeon
울산	237,480	43.9	22.2	111,909	48,238	42,836	34,028	Ulsan
경기	2,203,965	45.3	22.3	983,887	402,500	340,105	472,895	Gyeonggi
강원	364,883	43.1	23.9	124,305	56,816	56,692	126,186	Gangwon
충북	370,282	43.3	24.3	129,175	57,150	56,694	125,875	Chungbuk
충남	501,356	42.4	26.2	156,793	69,328	70,439	203,375	Chungnam
전북	457,105	43.8	23.8	162,998	72,900	72,920	145,750	Jeonbuk
전남	406,777	44.4	20.3	164,606	70,707	72,897	97,577	Jeonnam
경북	664,762	40.9	23.9	216,719	96,960	97,636	251,621	Gyeongbuk
경남	657,123	44.0	21.3	283,632	121,832	114,502	135,213	Gyeongnam
제주	128,095	44.6	23.9	52,144	20,719	19,415	35,473	Jeju

자료 : 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 1) 휴학생 포함

〈표 3-5-15〉 전공분야별 대학생수  
University Students by Field of Study

단위 : %

연도 Year	재적 학생수 Enrollments	인문계 Humanities	좌석수 Number of seats Social sciences	공학계 Engineeri ng	자연계 Natural sciences	의약계 Medical & pharmacy	예체능계 Arts & physical ed.	교육계 Education
1980	402,979	44,209	85,197	105,352	60,785	22,111	21,871	53,411
1981	535,876	68,459	123,942	134,376	76,446	25,679	27,759	68,300
1982	661,125	96,955	139,162	173,530	95,889	32,473	34,719	80,600
1983	772,907	120,772	177,403	183,388	118,511	33,246	40,972	96,679
1984	870,170	142,069	235,151	185,019	126,824	36,735	47,646	96,299
1985	931,884	149,777	257,738	199,603	136,284	39,408	53,169	94,796
1986	971,127	156,569	274,887	202,588	147,195	40,457	56,816	92,057
1987	989,503	158,585	282,819	210,684	151,703	41,148	59,617	84,876
1988	1,003,648	157,419	285,214	216,449	165,723	39,129	61,721	77,993
1989	1,020,771	157,373	285,803	227,554	173,673	39,937	64,605	71,826
1990	1,040,166	156,164	286,814	239,436	180,455	40,430	69,029	67,838
1991	1,052,140	154,280	285,990	249,925	183,922	40,729	72,698	64,596
1992	1,070,169	154,298	287,404	240,835	208,064	41,312	74,772	63,484
1993	1,092,464	155,624	286,990	255,620	211,671	41,969	77,962	62,628
1994	1,132,437	159,760	292,760	274,430	218,616	43,029	81,027	62,815
1995	1,187,735	166,480	306,487	299,665	223,337	44,707	84,660	62,399
1996	1,266,876	178,181	327,390	334,120	228,473	45,601	90,582	62,529
1997	1,368,461	190,724	352,047	385,678	229,118	48,822	99,000	63,072
1998	1,477,715	207,182	385,035	426,626	227,058	55,618	112,879	63,317
1999	1,587,667	218,815	418,507	469,183	229,437	58,889	127,272	65,564
2000	1,665,398	225,224	444,799	502,342	225,206	61,983	138,815	67,029
2001	1,729,638	232,263	465,999	527,372	222,674	62,992	149,878	68,460
2002	1,771,738	238,703	477,238	551,766	208,703	64,771	160,267	70,290
2003	1,808,539	250,650	483,154	528,288	236,917	64,439	171,229	73,86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 1979-1987년까지는 일부 대학의 계열별(공통학계)모집에 따른 인원수가 포함되어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3-5-16〉 교원현황  
Number of Teachers

단위 : 명, % In persons,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전문대학 <sup>1)</sup> Junior college		대학교(원) <sup>1)</sup> University & graduate school		기타학교 Others		
	교원수 Teachers	여교원 비율 Percentag e of female teacher	교원수 Teachers	여교원 비율 Percenta ge of female teacher	교원수 Teachers	여교원 비율 Percentag e of female teacher	교원수 Teachers	여교원 비율 Percenta ge of female teacher	교원수 Teachers	여교원 비율 Percentag e of female teacher	교원수 Teachers	여교원 비율 Percenta ge of female teacher	
1993	139,159	6,057	97,131	2,590	96,698	1,757	9,024	128	40,247	488	4,762	188	1993
1994	139,096	5,900	99,775	2,645	97,064	1,784	9,375	135	42,321	510	4,728	184	1994
1995	138,369	5,772	99,931	2,683	99,067	1,830	10,384	145	45,853	563	4,897	182	1995
1996	137,912	5,732	99,928	2,705	101,591	1,856	11,515	152	49,368	650	4,913	179	1996
1997	138,670	5,721	97,931	2,720	104,404	1,892	12,468	155	54,114	753	4,973	171	1997
1998	140,121	5,688	96,016	2,736	105,945	1,921	10,926	158	41,038	836	5,152	173	1998
1999	137,577	5,544	93,244	2,741	105,304	1,943	11,381	161	41,934	845	5,044	169	1999
2000	140,000	5,267	92,589	2,731	104,351	1,957	11,707	158	42,641	1,001	5,345	174	2000
2001	142,715	5,322	93,385	2,770	104,314	1,969	11,897	158	44,019	1,078	5,536	180	2001
2002	147,497	5,384	95,283	2,809	114,304	1,995	12,156	159	44,898	1,119	5,785	182	2002
2003	154,075	5,463	99,717	2,850	115,829	2,031	11,974	158	46,012	1,190	6,029	182	2003
서울	26,417	550	19,395	358	21,665	284	897	12	12,832	393	1,576	47	Seoul
부산	10,914	279	7,431	165	8,987	133	885	10	4,291	74	469	12	Busan
대구	7,538	193	5,172	111	6,215	82	788	7	1,651	37	337	10	Daegu
인천	8,317	190	4,951	103	6,310	90	515	5	1,168	27	297	10	Incheon
광주	4,644	121	2,897	71	3,642	60	555	7	1,917	47	247	7	Gwangju
대전	4,656	117	3,100	73	3,575	53	462	5	1,967	54	210	6	Daejeon
울산	3,710	94	2,210	46	2,658	37	151	2	762	7	110	2	Ulsan
경기	30,973	936	18,580	434	21,564	318	2,910	35	4,320	163	823	27	Gyeonggi
강원	5,765	366	3,598	159	4,486	112	511	10	2,634	41	241	5	Gangwon
충북	5,258	245	3,490	121	3,571	79	508	6	1,907	38	260	9	Chungbuk
충남	7,592	431	4,485	189	5,058	109	555	8	3,464	85	198	7	Chungnam
전북	7,260	416	4,863	196	5,672	130	551	10	2,534	53	296	15	Jeonbuk
전남	8,188	460	5,429	252	5,879	150	726	11	1,188	40	236	7	Jeonnam
경북	9,745	493	6,410	281	7,073	197	1,150	18	3,112	79	341	8	Gyeongbuk
경남	11,050	468	6,501	249	8,059	168	566	9	1,768	40	296	8	Gyeongnam
제주	2,048	104	1,205	42	1,415	29	244	3	497	12	92	2	Jeju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1998년부터 대학 및 대학교(원) 교원수에 조교는 제외

〈표 3-5-17〉 각급 학교 교원 세부현황  
Teachers by level of school

단위 : 명, 시간, 년, 세, In persons, times, years, age

	교원1인당학생수 No. of students per teacher				주당수업시간수 Teaching times per week				평균 경력년수 Averag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평균연령 Average age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1993	31.2	24.8	21.4	20.5	1.5	16.0	16.1	16.0	19.6	13.5	14.3	14.1	41.4	37.3	38.8	38.8	1993
1994	29.5	25.1	21.7	20.6	14.7	16.1	16.3	16.2	19.7	13.9	14.8	14.6	42.1	38.3	39.8	39.9	1994
1995	28.2	24.8	22.1	21.4	14.8	16.1	16.3	16.2	19.8	14.4	15.1	14.8	41.9	38.4	39.7	39.7	1995
1996	27.6	23.8	22.6	21.5	14.9	16.2	16.4	16.3	19.8	14.7	15.3	15.1	41.9	38.8	40.0	40.1	1996
1997	27.3	22.3	22.9	21.7	15.0	16.2	16.4	16.3	19.6	14.9	15.5	15.2	42.0	39.4	40.5	40.5	1997
1998	27.4	20.9	22.0	21.0	15.2	16.2	16.4	16.3	19.0	14.9	15.3	15.2	42.0	40.0	40.8	41.1	1998
1999	28.6	20.3	22.2	20.1	15.5	16.3	16.5	16.4	18.6	15.7	16.6	16.5	40.6	39.5	40.5	40.7	1999
2000	28.7	20.1	20.9	18.2	15.7	16.3	16.6	16.5	16.5	14.8	16.0	15.9	39.1	38.6	40.0	40.1	2000
2001	28.7	19.6	19.5	16.4	15.8	16.4	16.6	16.5	16.3	14.9	16.2	16.2	39.1	38.7	40.2	40.4	2001
2002	28.1	19.3	16.4	14.4	15.9	16.4	16.6	16.6	16.6	15.2	15.5	16.4	39.4	39.0	39.5	40.6	2002
2003	27.1	18.6	16.0	13.8	15.9	16.5	16.6	16.6	16.6	15.3	15.6	16.8	39.6	39.2	39.8	41.0	2003
서울	28.7	18.5	17.7	14.6	16.1	16.5	16.7	16.7	16.6	16.4	17.5	18.6	39.5	40.5	41.8	43.0	Seoul
부산	26.4	19.0	16.1	15.0	16.1	16.4	16.7	16.7	16.7	15.7	17.1	18.0	39.4	39.7	41.5	42.5	Busan
대구	29.7	20.5	16.1	16.2	16.0	16.4	16.7	16.5	14.1	13.5	16.0	18.4	37.0	37.6	39.9	42.3	Daegu
인천	29.7	22.1	15.7	15.6	16.0	16.4	16.6	16.6	13.8	12.6	12.9	14.5	36.5	36.8	37.4	39.1	Incheon
광주	29.9	21.1	15.8	15.7	15.9	16.4	16.5	16.5	16.8	16.4	17.9	18.1	39.4	40.3	42.0	42.0	Gwangju
대전	28.5	19.4	16.4	15.6	16.1	16.5	16.7	16.6	15.0	14.4	16.3	17.2	37.5	38.4	40.4	41.3	Daejeon
울산	30.2	21.8	16.3	15.7	15.7	16.4	16.5	16.6	14.8	12.2	13.6	15.5	38.0	36.4	37.9	39.6	Ulsan
경기	31.8	21.7	16.4	14.5	15.9	16.4	16.5	16.6	14.5	11.9	11.2	13.3	37.8	35.8	35.4	37.5	Gyeonggi
강원	21.6	15.8	13.2	12.1	15.8	16.4	16.7	16.5	17.3	17.3	17.1	16.6	40.0	40.7	40.8	40.2	Gangwon
충북	24.6	16.4	15.9	15.8	15.7	16.7	16.8	16.7	18.4	16.8	17.5	17.3	41.7	40.5	41.0	41.1	Chungbuk
충남	20.7	15.5	14.8	12.2	15.8	16.6	16.7	16.7	16.7	16.0	16.2	17.2	40.8	39.9	40.4	41.2	Chungnam
전북	22.5	15.0	13.7	11.9	16.0	16.6	16.6	16.7	18.6	18.6	17.6	18.4	41.1	42.5	42.1	42.9	Jeonbuk
전남	20.1	13.0	13.5	10.9	15.5	16.3	16.4	16.5	22.1	18.2	17.7	18.8	45.5	42.1	41.7	43.1	Jeonnam
경북	22.2	15.1	14.9	12.1	15.9	16.4	16.5	16.5	19.5	16.6	16.6	17.4	42.9	40.6	40.6	41.7	Gyeongbuk
경남	25.7	18.7	15.0	12.6	15.8	16.4	16.5	16.5	17.9	15.8	15.6	17.3	40.5	39.6	39.5	41.3	Gyeongnam
제주	25.5	17.2	15.0	11.9	16.1	16.6	16.9	16.6	16.9	18.6	18.8	18.6	38.9	42.7	42.7	42.7	Jeju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18〉 교원의 이·직률  
Resignation Rate of Teachers

단위 : % %

Year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 University
			일반계 General High school	실업계 Vocational High school	
1980	3.7	9.0	7.7	8.4	2.4
1981	2.9	7.6	7.7	7.2	7.2
1982	2.0	6.7	6.7	7.3	6.8
1983	1.9	5.2	5.8	6.2	7.3
1984	1.7	4.5	5.0	5.0	9.2
1985	1.4	3.7	4.2	4.5	8.2
1986	1.3	3.0	3.5	3.7	8.0
1987	1.2	2.7	3.2	3.1	8.3
1988	1.4	2.4	3.0	2.8	7.6
1989	1.5	2.2	2.8	2.4	10.7
1990	1.7	2.4	3.3	2.6	10.1
1991	1.8	1.7	2.2	2.2	10.7
1992	2.0	1.8	2.4	2.1	11.1
1993	2.1	1.8	2.2	2.1	12.6
1994	2.1	1.9	2.4	2.8	11.7
1995	2.5	2.0	2.3	2.2	10.8
1996	2.8	1.9	2.1	2.2	12.2
1997	2.0	1.8	1.9	2.0	12.4
1998	1.2	1.2	1.1	1.3	2.3
1999	6.4	3.9	2.7	3.9	3.0
2000	7.3	6.3	5.1	6.0	5.4
2001	1.9	2.4	2.3	2.7	4.0
2002	0.8	1.1	1.1	1.3	5.1
2003	0.8	1.2	1.3	1.4	4.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1998년부터 대학교 교원수에 조교는 제외

〈표 3-5-19〉 사무직원당 교원수  
Number of Teachers Per Clerical Staff

단위 : 명		In persons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대학교 University
1993		5.4	8.3	7.4	1.6
1994		5.2	8.3	7.3	1.8
1995		5.1	8.2	7.2	1.8
1996		4.9	8.1	7.3	2.1
1997		4.6	7.9	7.3	2.2
1998		4.6	7.7	7.3	1.7
1999		4.8	8.0	7.5	1.8
2000		5.1	8.3	7.7	1.9
2001		5.2	8.5	7.9	1.9
2002		5.4	8.6	8.6	1.7
2003		5.5	8.7	8.8	1.7
서울	Seoul	7.1	12.8	10.8	1.6
부산	Busan	7.8	10.3	8.4	1.7
대구	Daegu	7.0	11.0	9.6	2.0
인천	Incheon	7.4	10.9	9.0	2.2
광주	Gwangju	7.3	10.1	9.4	1.8
대전	Daejeon	7.3	10.3	8.8	2.0
울산	Ulsan	7.4	9.9	10.6	3.4
경기	Gyeonggi	7.3	10.7	12.9	1.5
강원	Gangwon	3.8	6.2	7.3	2.0
충북	Chungbuk	4.2	8.0	7.0	1.7
충남	Chungnam	3.7	6.2	6.7	2.6
전북	Jeonbuk	3.9	6.0	6.2	2.0
전남	Jeonnam	3.6	6.1	6.7	1.4
경북	Gyeongbuk	3.9	6.0	6.2	1.5
경남	Gyeongnam	4.3	6.4	7.6	1.5
제주	Jeju	4.9	6.3	6.3	1.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20〉 학급당 학생수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단위 : 명

In persons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일반계 General	실업계 Vocational
1993		38.8	48.6	48.1	47.1
1994		37.7	48.9	47.4	46.8
1995		36.4	48.2	48.0	47.9
1996		35.7	46.5	48.9	48.3
1997		35.1	43.6	49.6	48.8
1998		34.9	40.8	49.0	47.1
1999		35.4	38.9	47.2	44.6
2000		35.8	38.0	44.1	40.3
2001		35.6	37.3	41.6	36.4
2002		34.9	36.7	34.7	32.2
2003		33.9	34.8	34.1	31.0
서울	Seoul	35.6	33.4	35.6	31.8
부산	Busan	33.1	34.5	34.3	32.5
대구	Daegu	37.0	36.2	34.5	34.7
인천	Incheon	36.6	39.7	34.6	34.9
광주	Gwangju	36.7	37.0	34.1	34.3
대전	Daejeon	36.1	35.1	34.7	33.4
울산	Ulsan	36.6	37.0	34.4	34.4
경기	Gyeonggi	39.2	38.9	34.6	32.4
강원	Gangwon	27.7	32.6	31.5	30.0
충북	Chungbuk	30.7	31.9	34.0	33.8
충남	Chungnam	27.1	31.0	32.9	28.3
전북	Jeonbuk	28.6	31.2	30.2	27.1
전남	Jeonnam	25.6	29.0	31.3	25.9
경북	Gyeongbuk	28.4	30.7	32.1	27.8
경남	Gyeongnam	33.0	35.9	33.3	28.5
제주	Jeju	30.9	32.2	33.0	27.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21〉 학생 1인당 건물·교지·체육장 면적  
Area of School Building, Land & Playground Per Student

단위 : m<sup>2</sup> In m<sup>2</sup>

	건물면적 Building area					교지면적 Land area					체육장 면적 Playground area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일반계 General	실업계 Vocational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일반계 General	실업계 Vocational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일반계 General	실업계 Vocational	
1993	4.0	3.8	5.5	5.1	6.1	22.7	16.3	23.3	21.7	25.6	14.3	10.1	11.5	11.4	11.8	1993
1994	4.4	3.8	5.8	5.3	6.1	23.7	16.1	23.8	22.4	25.8	14.7	9.8	11.7	11.6	11.8	1994
1995	4.7	4.1	5.7	5.4	6.3	24.2	16.6	23.3	22.4	24.6	15.0	10.1	11.2	11.3	11.0	1995
1996	5.1	4.5	5.9	5.4	6.5	24.7	17.4	23.3	22.6	24.4	15.3	10.5	10.9	11.0	10.7	1996
1997	5.2	5.0	5.9	5.4	6.6	24.6	18.8	22.7	21.9	24.0	15.1	11.2	10.4	10.5	10.4	1997
1998	5.4	5.7	6.4	5.8	7.2	24.1	20.4	22.9	21.8	24.7	14.4	12.0	10.4	10.4	10.4	1998
1999	5.8	6.7	7.4	6.7	8.5	22.5	21.6	24.3	22.7	27.1	13.1	12.6	11.0	10.6	11.6	1999
2000	6.0	6.7	8.3	7.3	10.0	20.9	22.3	26.7	24.0	31.5	12.1	12.8	11.7	11.2	12.6	2000
2001	6.2	7.2	9.3	8.0	11.7	21.0	22.7	28.1	24.7	34.8	12.3	13.0	12.5	11.6	14.1	2001
2002	6.4	7.6	10.4	9.0	13.4	21.2	23.2	30.7	26.6	39.6	12.2	13.1	13.4	12.3	15.8	2002
2003	6.8	8.2	11.4	10.0	14.5	21.5	23.3	31.9	26.9	43.3	12.3	13.1	13.7	12.5	16.5	2003
서울	5.3	7.1	9.8	9.0	13.1	9.2	11.8	18.3	17.8	20.0	5.3	6.6	8.5	8.4	8.9	Seoul
부산	6.4	8.2	10.1	9.0	12.3	12.3	16.2	20.5	20.0	21.3	6.4	7.8	8.4	8.7	7.7	Busan
대구	6.0	7.4	10.0	9.4	11.4	12.0	13.7	25.4	21.9	34.6	7.4	7.6	13.7	12.4	17.2	Daegu
인천	5.1	6.1	10.0	9.1	11.8	10.4	11.9	18.5	18.3	19.0	5.4	6.5	8.2	8.2	8.3	Incheon
광주	6.4	7.6	12.0	11.6	13.1	13.1	15.9	35.2	35.7	33.8	6.2	7.5	14.1	15.9	9.3	Gwangju
대전	6.4	7.9	10.2	8.6	14.9	13.2	18.0	23.6	22.6	26.2	7.4	10.4	10.9	11.4	9.4	Daejeon
울산	6.0	6.9	10.0	8.7	13.1	11.3	17.6	20.1	17.2	27.4	6.1	11.0	7.5	7.0	8.8	Ulsan
경기	5.7	6.8	9.5	8.3	12.1	13.2	16.1	21.7	17.3	30.8	7.3	8.2	9.3	7.9	12.2	Gyeonggi
강원	10.1	10.0	16.3	14.7	18.0	50.8	33.3	70.7	79.9	61.3	32.0	20.0	24.8	28.6	20.9	Gangwon
충북	8.0	10.3	12.7	11.1	15.2	35.5	43.4	45.7	43.3	49.5	19.2	26.6	18.7	20.3	16.1	Chungbuk
충남	9.4	10.6	13.9	11.9	18.6	44.5	50.9	68.0	45.7	120.2	23.5	25.1	25.1	19.5	38.1	Chungnam
전북	9.6	10.6	15.3	13.6	17.4	61.9	51.0	57.4	46.1	72.0	32.6	26.7	21.7	20.0	23.8	Jeonbuk
전남	11.9	13.9	15.9	13.5	20.0	62.5	68.8	54.6	45.6	69.3	35.7	41.2	23.2	19.9	28.4	Jeonnam
경북	9.0	10.1	15.9	13.4	20.9	44.4	35.8	61.0	49.8	83.8	30.3	25.2	31.1	27.4	38.8	Gyeongbuk
경남	7.4	9.3	12.0	10.9	14.8	24.0	30.2	35.3	28.7	51.0	14.3	18.4	16.3	14.6	20.3	Gyeongnam
제주	7.7	10.9	15.2	13.1	18.8	32.0	43.6	65.3	46.4	98.4	14.3	23.0	22.3	18.8	28.5	Jeju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22〉 학생 1인당 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  
Number of Seats and Volumes in School Libraries

연도 Year	좌 석 수 Number of seats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좌석당 학생수 Students per seat	중 학교 Middle school	좌석당 학생수 Students per seat	고등학교 High school	좌석당 학생수 Students per seat	대 학교 University	좌석당 학생수 Students per seat
1993	163,580	26.5	143,808	16.8	256,992	8.1	215,515	5.1
1994	158,767	25.8	135,852	18.5	253,709	8.1	228,617	5.0
1995	168,160	23.2	143,016	17.4	264,942	8.1	243,859	4.9
1996	173,747	21.9	141,231	16.9	260,790	8.6	249,101	5.1
1997	169,135	22.4	150,273	14.5	258,666	9.0	267,077	5.1
1998	158,074	24.3	156,526	12.9	259,607	9.0	277,422	5.3
1999	164,926	23.9	163,041	11.6	248,071	9.1	294,901	5.4
2000	157,030	25.6	137,011	13.6	225,055	9.2	298,775	5.6
2001	192,800	21.2	149,099	12.3	255,295	7.5	305,296	5.7
2002	192,090	21.5	147,579	12.5	204,437	8.8	308,603	5.7
2003	211,672	19.7	136,400	13.6	191,484	9.2	314,816	5.7

연 도  Year	장 서 수(천권)      Number of volumes(In 1,000 volumes)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1인당 장서수(권) Per student (In volume)	중학교 Middle school	1인당 장서수(권) Per student (In volume)	고등 학교 High school	1인당 장서수(권) Per student (In volume)	대학교 University	1인당 장서수(권) Per student (In volume)
1993	13,110	3.0	6,601	2.7	7,729	3.7	30,585	28.0
1994	13,052	3.2	7,129	2.8	8,127	3.9	32,752	28.9
1995	14,193	3.6	7,956	3.2	9,011	4.2	35,975	30.3
1996	15,049	4.0	8,540	3.6	9,452	4.2	40,404	31.9
1997	14,872	3.9	8,782	4.0	9,592	4.1	45,399	33.2
1998	14,514	3.8	8,945	4.4	9,714	4.2	50,320	34.1
1999	14,846	3.8	10,419	5.5	11,261	5.0	54,984	34.6
2000	14,762	3.7	11,093	6.0	11,118	5.4	58,888	35.4
2001	18,336	4.5	9,943	5.4	11,416	6.0	60,920	35.2
2002	20,620	5.0	10,361	5.6	11,817	6.6	64,008	36.1
2003	24,829	5.9	11,415	6.2	12,492	7.1	71,886	39.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3-5-23〉 컴퓨터 1대당 학생수  
Number of Students Per Computer by Level of School

단위 : 대, 명

In number, persons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컴퓨터	중 학교 Middle school	컴퓨터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컴퓨터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컴퓨터
		1대당 학생수 No. of students per PC		1대당 학생수 No. of students per PC		1대당 학생수 No. of students per PC		1대당 학생수 No. of students per PC
〈 2 0 0 2 〉								
전국 Whole country	397,978	10.4	192,331	9.6	122,489	10.0	212,515	2.7
서울 Seoul	55,995	13.6	30,494	11.8	25,835	11.5	38,477	2.1
부산 Busan	25,457	11.4	12,801	11.2	7,621	12.2	21,636	2.5
대구 Daegu	21,910	10.1	10,790	9.8	9,045	7.9	9,746	3.0
인천 Incheon	19,414	12.9	8,247	13.1	5,568	11.9	11,015	3.0
광주 Gwangju	10,451	13.0	6,414	9.3	4,703	8.8	5,140	3.3
대전 Daejeon	12,830	10.2	5,345	11.2	3,756	11.4	5,384	3.0
울산 Ulsan	9,464	11.7	4,326	10.9	2,856	10.4	3,918	3.3
경기 Gyeonggi	70,454	13.6	28,606	13.4	16,588	13.2	34,614	3.2
강원 Gangwon	15,157	8.2	8,070	7.2	4,018	7.3	10,143	2.9
충북 Chungbuk	18,440	7.0	8,608	6.7	5,443	6.2	8,051	3.0
충남 Chungnam	21,191	7.3	9,229	7.6	5,655	8.9	7,367	3.0
전북 Jeonbuk	22,824	7.1	11,551	6.4	4,373	9.2	11,976	3.0
전남 Jeonnam	26,927	6.1	13,805	5.3	6,190	7.7	11,343	2.6
경북 Gyeongbuk	32,861	6.6	16,230	6.1	9,781	6.7	15,917	2.2
경남 Gyeongnam	30,000	9.3	15,212	8.0	9,411	8.5	14,844	2.5
제주 Jeju	4,603	11.0	2,603	7.8	1,646	7.8	2,944	2.5
〈 2 0 0 3 〉								
전국 Whole country	354,152	11.8	174,480	10.6	114,277	10.7	201,233	2.7
서울 Seoul	41,110	18.5	25,647	14.0	23,077	12.6	36,785	2.1
부산 Busan	19,835	14.5	10,017	14.1	7,327	12.4	19,459	2.6
대구 Daegu	22,213	10.1	10,406	10.2	8,357	8.7	9,374	3.0
인천 Incheon	17,196	14.4	7,552	14.5	5,781	11.7	10,787	2.9
광주 Gwangju	10,036	13.8	5,351	11.4	4,022	10.3	5,041	3.2
대전 Daejeon	10,692	12.4	5,257	11.5	3,495	12.3	4,773	3.1
울산 Ulsan	7,156	15.6	3,609	13.4	2,789	10.9	4,109	3.0
경기 Gyeonggi	58,162	16.9	25,492	15.8	15,466	14.9	31,577	3.5
강원 Gangwon	15,656	7.9	8,017	7.1	4,250	6.8	10,450	2.7
충북 Chungbuk	17,668	7.3	8,222	7.0	4,573	7.6	8,140	2.7
충남 Chungnam	19,533	8.0	8,921	7.8	5,658	8.7	7,574	2.8
전북 Jeonbuk	22,427	7.3	11,242	6.5	4,108	10.0	11,671	2.7
전남 Jeonnam	23,745	6.9	12,293	5.8	5,342	8.4	10,083	2.8
경북 Gyeongbuk	34,879	6.2	15,337	6.3	10,003	6.5	15,733	2.0
경남 Gyeongnam	29,100	9.7	14,490	8.4	8,373	9.6	12,664	2.7
제주 Jeju	4,744	11.0	2,627	7.9	1,656	7.5	3,013	2.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24〉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  
Number of Computers Per Teacher by Level of School

단위 : 대, 명

In number, persons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교원 1인당 컴퓨터 No. of computers per teacher	중 학교 Middle school	교원 1인당 컴퓨터 No. of computers per teacher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교원 1인당 컴퓨터 No. of computers per teacher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교원 1인당 컴퓨터 No. of computers per teacher
〈 2 0 0 2 〉									
전국	Whole country	397,978	10.4	192,331	9.6	122,489	10.0	212,515	2.7
서울	Seoul	55,995	13.6	30,494	11.8	25,835	11.5	38,477	2.1
부산	Busan	25,457	11.4	12,801	11.2	7,621	12.2	21,636	2.5
대구	Daegu	21,910	10.1	10,790	9.8	9,045	7.9	9,746	3.0
인천	Incheon	19,414	12.9	8,247	13.1	5,568	11.9	11,015	3.0
광주	Gwangju	10,451	13.0	6,414	9.3	4,703	8.8	5,140	3.3
대전	Daejeon	12,830	10.2	5,345	11.2	3,756	11.4	5,384	3.0
울산	Ulsan	9,464	11.7	4,326	10.9	2,856	10.4	3,918	3.3
경기	Gyeonggi	70,454	13.6	28,606	13.4	16,588	13.2	34,614	3.2
강원	Gangwon	15,157	8.2	8,070	7.2	4,018	7.3	10,143	2.9
충북	Chungbuk	18,440	7.0	8,608	6.7	5,443	6.2	8,051	3.0
충남	Chungnam	21,191	7.3	9,229	7.6	5,655	8.9	7,367	3.0
전북	Jeonbuk	22,824	7.1	11,551	6.4	4,373	9.2	11,976	3.0
전남	Jeonnam	26,927	6.1	13,805	5.3	6,190	7.7	11,343	2.6
경북	Gyeongbuk	32,861	6.6	16,230	6.1	9,781	6.7	15,917	2.2
경남	Gyeongnam	30,000	9.3	15,212	8.0	9,411	8.5	14,844	2.5
제주	Jeju	4,603	11.0	2,603	7.8	1,646	7.8	2,944	2.5
〈 2 0 0 3 〉									
전국	Whole country	354,152	11.8	174,480	10.6	114,277	10.7	201,233	2.7
서울	Seoul	41,110	18.5	25,647	14.0	23,077	12.6	36,785	2.1
부산	Busan	19,835	14.5	10,017	14.1	7,327	12.4	19,459	2.6
대구	Daegu	22,213	10.1	10,406	10.2	8,357	8.7	9,374	3.0
인천	Incheon	17,196	14.4	7,552	14.5	5,781	11.7	10,787	2.9
광주	Gwangju	10,036	13.8	5,351	11.4	4,022	10.3	5,041	3.2
대전	Daejeon	10,692	12.4	5,257	11.5	3,495	12.3	4,773	3.1
울산	Ulsan	7,156	15.6	3,609	13.4	2,789	10.9	4,109	3.0
경기	Gyeonggi	58,162	16.9	25,492	15.8	15,466	14.9	31,577	3.5
강원	Gangwon	15,656	7.9	8,017	7.1	4,250	6.8	10,450	2.7
충북	Chungbuk	17,668	7.3	8,222	7.0	4,573	7.6	8,140	2.7
충남	Chungnam	19,533	8.0	8,921	7.8	5,658	8.7	7,574	2.8
전북	Jeonbuk	22,427	7.3	11,242	6.5	4,108	10.0	11,671	2.7
전남	Jeonnam	23,745	6.9	12,293	5.8	5,342	8.4	10,083	2.8
경북	Gyeongbuk	34,879	6.2	15,337	6.3	10,003	6.5	15,733	2.0
경남	Gyeongnam	29,100	9.7	14,490	8.4	8,373	9.6	12,664	2.7
제주	Jeju	4,744	11.0	2,627	7.9	1,656	7.5	3,013	2.3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25〉 급식 실시 학교 및 학생 비율  
Rate of Meal-providing Schools & Rate of Students Receiving Meals

단위 : %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학교 Middle school		고등학교 High school	
		급식 실시 학교비율 Rate of schools	급식 학생 비율 Rate of students	급식 실시 학교비율 Rate of schools	급식 학생 비율 Rate of students	급식 실시 학교비율 Rate of schools	급식 학생 비율 Rate of students
1993		38.2	24.0	-	-	-	-
1994		37.1	22.3	-	-	-	-
1995		71.1	50.4	-	-	-	-
1996		88.4	67.9	-	-	-	-
1997		97.3	79.7	8.6	4.9	9.8	2.6
1998		99.2	86.4	30.3	11.6	35.0	9.1
1999		99.6	86.1	42.1	30.7	96.3	57.4
2000		99.9	88.1	56.6	40.4	94.7	57.4
2001		99.9	90.7	72.5	58.6	97.6	64.3
2002		99.9	89.9	88.7	82.0	97.8	71.9
서울	Seoul	100.0	94.0	82.9	75.3	94.3	69.4
부산	Busan	100.0	90.5	84.5	85.8	100.0	55.6
대구	Daegu	100.0	79.4	85.3	82.5	100.0	73.2
인천	Incheon	100.0	78.0	79.4	81.5	96.6	75.8
광주	Gwangju	100.0	78.2	91.4	91.7	100.0	80.4
대전	Daejeon	100.0	94.2	100.0	92.5	100.0	78.5
울산	Ulsan	100.0	97.5	93.0	87.8	100.0	72.7
경기	Gyeonggi	99.6	84.8	94.8	88.7	98.7	81.9
강원	Gangwon	100.0	99.4	83.6	79.5	98.2	60.3
충북	Chungbuk	100.0	95.1	100.0	95.6	100.0	80.9
충남	Chungnam	100.0	96.5	91.9	81.7	98.1	74.4
전북	Jeonbuk	100.0	83.3	94.4	72.6	99.2	63.3
전남	Jeonnam	100.0	91.9	100.0	97.9	98.7	78.5
경북	Gyeongbuk	100.0	99.8	94.9	78.1	99.0	72.8
경남	Gyeongnam	99.8	98.9	59.8	56.6	92.6	55.6
제주	Jeju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26〉 GDP 대비 공교육비  
Rate of Public Expenditure to GDP

단위: % %

구분	2000			1995		
	공공재원 Public funds	민간재원 Private funds	전체 Total	공공재원 Public funds	민간재원 Private funds	전체 Total
호주	4.6	1.4	6.0	4.6	1.0	5.6
오스트리아	5.4	0.3	5.7	5.9	0.3	6.3
벨기에	5.1	0.4	5.5	m	m	m
캐나다	5.2	1.2	6.4	6.2	0.8	7.0
체코	4.2	0.5	4.6	4.9	0.5	5.4
덴마크	6.4	0.3	6.7	6.1	0.2	6.3
핀란드	5.5	0.1	5.6	6.3	x	6.3
프랑스	5.7	0.4	6.1	5.9	0.4	6.3
독일	4.3	1.0	5.3	4.5	1.0	5.5
그리스	3.7	0.2	4.0	2.9	n	3.0
헝가리	4.4	0.6	5.0	4.9	0.6	5.5
아이슬랜드	5.7	0.6	6.3	4.5	0.6	5.1
아일랜드	4.1	0.4	4.6	4.7	0.5	5.3
이탈리아	4.5	0.4	4.9	4.8	m	m
일본	3.5	1.2	4.6	3.5	1.1	4.7
한국	4.3	2.8	7.1	m	m	m
룩셈부르크	m	m	m	m	m	m
멕시코	4.7	0.8	5.5	4.6	1.0	5.6
네덜란드	4.3	0.4	4.7	4.6	m	4.8
뉴질랜드	5.8	m	5.8	4.8	m	4.8
노르웨이	5.8	0.1	5.9	7.0	0.2	7.1
폴란드	5.2	m	5.2	5.5	m	5.5
포르투갈	5.6	0.1	5.7	5.3	n	5.3
슬로바키아	4.0	0.2	4.2	4.6	0.4	5.1
스페인	4.3	0.6	4.9	4.6	1.0	5.5
스웨덴	6.3	0.2	6.5	6.3	0.1	6.4
스위스	5.3	0.4	5.7	5.4	m	m
터키	3.4	n	3.4	2.3	n	2.3
영국	4.5	0.7	5.3	4.6	0.9	5.5
미국	4.8	2.2	7.0	m	m	m
국가평균	4.8	0.6	5.5	~	~	~
OECD 전체	4.6	1.3	5.9	~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각년도

〈표 3-5-27〉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Government Budget vs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단위 : 10억원 In billion won

연도 Year	정부예산 <sup>1)</sup> (A) Government budget	교육인적자원부예산 <sup>1)</sup> (B)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dget		공교육비총액 <sup>2)</sup> Total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s	GDP대비 <sup>3)</sup> Ratio to GDP
			B/A(%)		
1980	5,804	1,099	18.9	2,018	5.3
1981	7,851	1,465	18.7	2,732	5.7
1982	9,314	1,916	20.6	3,467	6.3
1983	10,417	2,175	20.9	3,989	6.2
1984	11,173	2,275	20.4	4,728	6.4
1985	12,275	2,492	20.3	4,600	5.6
1986	13,801	2,769	20.1	5,079	5.3
1987	15,560	3,124	20.1	5,461	4.9
1988	17,464	3,611	20.7	6,052	4.5
1989	19,228	4,059	21.1	7,020	4.7
1990	22,689	5,062	22.3	8,524	4.7
1991	28,973	6,598	22.8	10,065	4.7
1992	36,224	8,206	22.7	12,181	5.1
1993	41,936	9,831	23.4	14,197	5.3
1994	47,594	10,879	22.9	16,291	5.3
1995	54,845	12,496	22.8	19,215	5.5
1996	64,927	15,565	24.0	22,708	5.8
1997	76,639	18,288	23.9	27,100	6.0
1998	77,738	18,128	23.3	27,813	6.3
1999	88,302	17,456	19.8	28,075	5.8
2000	93,937	19,172	20.4	31,087	6.0
2001	102,529	20,034	19.5	35,321	6.4
2002	113,899	22,278	19.6	38,830	6.5 <sup>P</sup>
2003	120,478	24,404	20.3	-	-

자료 : 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

2)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분석과

3)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정부예산 = 일반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교육인적자원부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중복은 제외함)

〈표 3-5-28〉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비고등교육기관)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Person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연도 year	초등학교 공교육비 Elementary school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won)	중학교 공교육비 Middle school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won)	고등학교 공교육비 High school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won)
	1980	670,710	119	388,549	157	423,646
1985	1,546,717	319	834,221	300	856,060	398
1986	1,695,133	353	930,676	337	1,003,894	481
1987	1,834,352	384	953,817	359	1,082,350	484
1988	1,947,710	405	1,109,168	440	1,207,174	525
1989	2,288,671	467	1,310,640	553	1,478,871	636
1990	2,757,210	566	1,590,991	699	1,797,193	787
1991	3,119,796	656	1,908,790	855	2,166,178	980
1992	3,777,370	828	2,284,730	978	2,570,126	1,209
1993	4,390,491	1,013	2,697,157	1,119	2,834,989	1,370
1994	4,902,369	1,196	2,975,797	1,186	3,238,878	1,572
1995	5,514,754	1,412	3,425,997	1,380	3,852,559	1,785
1996	6,351,368	1,671	3,855,468	1,620	4,535,219	2,022
1997	7,696,192	2,034	4,518,599	2,073	5,432,325	2,500
1998	8,369,872	2,183	4,828,493	2,401	5,494,362	2,361
1999	6,889,838	1,756	4,352,395	2,303	4,820,098	2,161
2000	8,106,924	2,023	4,985,382	2,690	5,829,471	2,841
2001	9,633,978	2,362	5,977,308	3,277	6,392,560	3,376
2002	11,800,575	3,489	6,141,681	3,150	6,302,863	3,379
2003	13,536,856	3,250	7,531,009	4,075	8,906,372	5,086

자료 : 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주 : 1) 국립초등, 중, 고등학교 제외  
2) 공립전문대의 교비 제외  
3) 산업대의 기성회비 제외  
4) 각종 학교 등은 제외

〈표 3-5-28〉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고등교육기관)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Person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won

연도 year	전문대학 공교육비		교육대학 공교육비		대학교 공교육비	
	Junior college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University of education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University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1980	107,052	708	10,500	1,114	417,605	1,036
1985	207,169	855	28,389	1,562	1,127,394	1,210
1986	226,636	904	31,678	1,501	1,190,745	1,232
1987	217,293	836	34,567	1,677	1,338,460	1,353
1988	203,961	893	40,791	2,174	1,508,403	1,503
1989	262,246	935	36,619	2,645	1,642,908	1,678
1990	348,138	1,075	48,129	3,016	1,982,146	1,906
1991	453,445	1,263	52,850	3,299	2,364,395	2,247
1992	591,500	1,461	58,433	3,541	2,899,193	2,709
1993	746,900	1,637	62,042	3,616	3,465,083	3,172
1994	968,884	1,912	67,497	3,690	4,137,664	3,654
1995	1,317,762	2,538	83,031	4,226	5,020,952	4,227
1996	1,770,457	2,646	105,767	5,175	6,160,225	4,846
1997	2,116,870	2,921	120,888	5,771	7,215,002	5,273
1998	3,113,737	3,884	120,295	5,737	7,394,739	5,004
1999	-	-	127,782	5,993	7,996,139	5,099
2000	2,826,555	3,095	134,826	6,449	9,203,397	5,526
2001	2,852,363	2,994	146,055	6,819	10,319,153	5,966
2002	3,085,889	3,204	163,220	7,017	11,335,346	6,398
2003	-	-	-	-	12,666,583	7,004

자료 : 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주 : 1) 국립초등, 중, 고등학교 제외
- 2) 공립전문대의 교비 제외
- 3) 산업대의 기성회비 제외
- 4) 각종 학교 등은 제외

〈표 3-5-29〉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Percentage of Financial Aids Beneficiaries Among Students

단위 : 명 In persons

	중 학교 Middle school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장 학 금 수혜자수 Financial aids beneficiaries	수혜율 (%)	장 학 금 수혜자수 Financial aids beneficiaries	수혜율 (%)	장 학 금 수혜자수 Financial aids beneficiaries	수혜율 (%)
1993	415,144	17.2	79,490	6.4	149,629	18.0
1994	117,250	4.7	62,817	5.2	185,509	21.8
1995	98,941	4.0	72,739	5.8	139,955	15.4
1996	94,056	4.0	63,036	4.8	154,490	16.4
1997	101,653	4.7	76,245	5.5	151,125	15.7
1998	68,661	3.4	64,412	4.6	175,724	18.9
1999	84,295	4.4	90,589	6.5	201,020	23.6
2000	165,782	8.9	139,322	10.5	271,609	36.4
2001	273,788	15.0	235,738	18.7	343,715	52.8
2002	268,750	14.6	215,650	17.7	317,857	55.2
2003	248,380	13.4	208,823	17.1	293,333	54.1
서울 Seoul	38,309	10.7	31,858	11.0	37,982	49.5
부산 Busan	16,917	12.0	12,955	14.2	24,046	48.2
대구 Daegu	14,925	14.1	7,617	10.5	11,312	40.9
인천 Incheon	10,057	9.2	11,712	17.3	15,635	49.9
광주 Gwangju	11,233	18.4	8,243	19.8	9,022	56.8
대전 Daejeon	10,813	18.0	8,388	19.5	11,911	80.0
울산 Ulsan	3,827	7.9	5,128	16.8	6,907	56.0
경기 Gyeonggi	46,876	11.6	31,278	13.6	49,842	45.4
강원 Gangwon	9,374	16.5	6,887	23.9	13,982	50.1
충북 Chungbuk	9,565	16.7	7,574	21.8	13,783	62.8
충남 Chungnam	11,821	17.1	11,297	22.9	12,059	57.2
전북 Jeonbuk	11,412	15.7	9,821	23.9	12,597	39.6
전남 Jeonnam	12,997	18.4	12,633	28.0	18,458	66.5
경북 Gyeongbuk	16,191	16.7	18,589	28.4	21,968	68.2
경남 Gyeongnam	19,114	15.7	20,665	25.6	26,847	79.4
제주 Jeju	4,949	23.9	4,178	33.8	6,982	98.9

〈표 3-5-30〉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Percentage of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Household

단위 : 천원, % In thousand won, %

연도 Year	도시가구 <sup>1)</sup> Urban households			농가 <sup>2)</sup> Farm households		
	연간소비지출 Annual consumption expenditures	연간교육비 Annual education expenditures	교육비 비율 Percentage of educational expenditures	연간소비지출 Annual consumption expenditures	연간 교육비 Annual education expenditures	교육비 비율 Percentage of educational expenditures
1980	2,151	126	5.8	2,138	200	9.4
1981	2,583	155	6.0	2,676	253	9.5
1982	2,988	201	6.7	3,258	345	10.6
1983	3,252	214	6.6	4,054	445	11.0
1984	3,533	247	7.0	4,272	492	11.5
1985	3,804	280	7.4	4,691	555	11.8
1986	4,178	313	7.5	4,995	586	11.7
1987	4,800	375	7.8	5,201	586	11.3
1988	5,612	405	7.2	6,031	670	11.1
1989	7,131	546	7.7	7,065	762	10.8
1990	8,228	665	8.1	8,227	862	10.5
1991	9,820	808	8.2	9,417	975	10.4
1992	11,303	1,014	9.0	10,046	1,041	10.4
1993	12,251	1,111	9.1	12,203	1,244	10.2
1994	13,685	1,236	9.0	13,334	1,350	10.1
1995	15,191	1,484	9.8	14,782	1,553	10.5
1996	17,122	1,747	10.2	17,039	1,737	10.2
1997	17,874	1,903	10.6	17,045	1,754	10.3
1998	15,795	1,771	11.2	16,442	1,706	10.4
1999	17,747	1,922	10.8	17,123	1,653	9.7
2000	19,588	2,139	10.9	18,003	1,834	10.2
2001	21,145	2,347	11.1	18,458	1,794	9.7
2002	22,018	2,425	11.0	17,858	1,629	9.1

자료 : 통계청

- 1)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2)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표 3-5-31〉 사교육 참여비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Education &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Student

단위 : %

%

연도 year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비율 Elementary school participation rate	1인당 사교육비 (천원) Per person (In 1,000won)	중학교 사교육 참여비율 Middle school participation rate	1인당 사교육비 (천원) Per person (In 1,000won)	고등학교 사교육비 참여비율 High school participation rate	1인당 사교육비 (천원) Per person (In 1,000won)
1980		119		157		150
1985		319		300		398
1986		353		337		481
1987		384		359		484
1988		405		440		525
1989		467		553		636
1990		566		699		787
1991		656		855		980
1992		828		978		1,209
1993		1,013		1,119		1,370
1994		1,196		1,186		1,572
1995		1,412		1,380		1,785
1996		1,671		1,620		2,022
1997		2,034		2,073		2,500
1998		2,183		2,401		2,361
1999		1,756		2,303		2,161
2000		2,023		2,690		2,841
2001		2,362		3,277		3,376
2002		3,489		3,150		3,379
2003		3,250		4,075		5,086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가구주 대상



〈표 3-5-32〉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Perception of Burde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 Reasons for Burden

단위 : %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Burde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부담요인 Reasons for burden						
		부담안됨 Not burden	부담됨 Burden	학교납입금 School fee	각종과외비 Extra-class	교재비 Teaching material	유학비 Studying away	잡부금및기타 Misc. fees & others
〈1996〉								
전국	Whole country	9.1	66.7	30.4	62.9	2.2	3.4	1.0
시부	Total for sis	8.5	67.1	28.6	66.5	1.8	2.2	0.8
군부	Total for guns	11.5	65.1	38.6	46.7	4.1	8.6	2.0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6.7	72.5	54.4	34.6	3.9	5.5	1.5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7.3	72.2	37.5	55.2	2.7	3.6	1.0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9.2	65.6	24.0	70.5	1.7	2.6	1.1
대졸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11.8	60.7	18.7	76.2	1.5	3.0	0.6
〈2000〉								
전국	Whole country	8.2	72.5	37.9	56.0	1.7	2.5	1.9
동부	Total for dong	7.2	73.5	36.6	58.5	1.6	1.8	1.5
읍면부	Total for eup&myeons	12.8	68.0	43.6	44.4	2.4	5.8	3.8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10.9	74.6	61.4	26.8	2.9	4.8	4.2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7.6	77.6	52.8	40.3	1.6	2.4	2.8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7.0	73.0	32.1	63.1	1.4	2.1	1.3
대졸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5	65.3	22.1	72.8	1.8	2.2	1.1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가구주 대상

〈표 3-5-33〉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Ratio of Research & Development Expenditures to GDP

	연구기관수 <sup>1)</sup> (개소)			연구연수 (명) R & D personnel (In persons)	연구개발비 <sup>2)</sup> (10억원)		GDP대비 (%) Ratio to GDP
	No. of R & D organizations (In estab.)	연구기관 R & D institutes	대학 Colleges, university		기업체 Companies	Expenditures (In billion won)	
1980	647	124	202	321	18,434	283	0.74
1981	662	133	206	323	20,718	369	0.77
1982	860	120	186	554	28,448	533	0.97
1983	1,080	114	216	742	32,117	682	1.06
1984	1,143	123	218	782	37,103	907	1.23
1985	1,291	119	217	928	41,473	1,237	1.51
1986	1,682	120	214	1,321	47,042	1,607	1.68
1987	1,864	164	222	1,478	52,783	1,985	1.77
1988	2,018	163	222	1,633	56,545	2,454	1.84
1989	2,077	168	220	1,689	66,220	2,817	1.89
1990	2,105	167	220	1,718	70,503	3,350	1.87
1991	2,351	187	221	1,943	76,252	4,158	1.92
1992	3,106	212	237	2,657	88,764	4,989	2.03
1993	3,318	210	244	2,864	98,764	6,153	2.22
1994	2,640	217	244	2,179	117,446	7,895	2.44
1995	2,587	178	257	2,152	128,315	9,441	2.50
1996	2,856	163	258	2,435	132,023	10,878	2.60
1997	2,962	184	271	2,507	138,438	12,186	2.69
1998	2,869	183	267	2,419	129,767	11,337	2.55
1999	3,059	169	285	2,605	134,568	11,922	2.47
2000	4,635	173	268	4,194	159,973	13,849	2.65
2001	6,801	188	276	6,337	178,937	16,111	2.92
2002	7,210	163	304	6,743	189,888	17,325	2.91p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년도

주 : 1) 1983년 이후의 합계에는 연구개발활동 수행 의료기관의 수가 포함됨

2)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제외

〈표 3-5-34〉 학업성취수준  
Students' Achievement

단위 : 점수

In points

읽 기			수 학			과 학		
순 위	국 가	평균점수	순 위	국 가	평균점수	순 위	국 가	평균점수
1	핀란드	546	1	일본	557	1	한국	552
2	캐나다	534	2	한국	547	2	일본	550
3	뉴질랜드	529	3	뉴질랜드	537	3	핀란드	538
4	호주	528	4	핀란드	536	4	영국	532
5	아일랜드	527	5	호주	533	5	캐나다	529
6	한국	525	6	캐나다	533	6	뉴질랜드	528
7	영국	523	7	스위스	529	7	호주	528
8	일본	522	8	영국	529	8	오스트리아	519
9	스웨덴	516	9	벨기에	520	9	아일랜드	513
10	오스트리아	507	10	프랑스	517	10	스웨덴	512
11	벨기에	507	11	오스트리아	515	11	체코	511
12	아이슬랜드	507	12	덴마크	514	12	프랑스	500
13	노르웨이	505	13	아이슬랜드	514	13	노르웨이	500
14	프랑스	505	14	리히텐슈타인	514	14	미국	499
15	미국	504	15	스웨덴	510	15	헝가리	496
16	덴마크	497	16	아일랜드	503	16	아이슬랜드	496
17	스위스	494	17	노르웨이	499	17	벨기에	496
18	스페인	493	18	체코	498	18	스위스	496
19	체코	492	19	미국	493	19	스페인	491
20	이탈리아	487	20	독일	490	20	독일	487
21	독일	484	21	헝가리	488	21	폴란드	483
22	리히텐슈타인	483	22	러시아	478	22	덴마크	481
23	헝가리	480	23	스페인	476	23	이탈리아	478
24	폴란드	479	24	폴란드	470	24	리히텐슈타인	476
25	그리스	474	25	레투비아	463	25	그리스	461
26	포르투갈	470	26	이탈리아	457	26	러시아	460
27	러시아	462	27	포르투갈	454	27	레투비아	460
28	레투비아	458	28	그리스	447	28	포르투갈	459
29	룩셈부르크	441	29	룩셈부르크	446	29	룩셈부르크	443
30	멕시코	422	30	멕시코	387	30	멕시코	422
31	브라질	396	31	브라질	334	31	브라질	375
	OECD 평균	500		OECD 평균	500		OECD 평균	500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3.

〈표 3-5-35〉 학교 교육의 효과  
Effect of School Education

단위 : % %

		지식·기술습득		인격형성		생활·직업의 활용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Knowledge		Virtue		Utility for living & working		View of social life & spirit of nationalism	
		효과있음 Effective	효과없음 Ineffective	효과있음 Effective	효과없음 Ineffective	효과있음 Effective	효과없음 Ineffective	효과있음 Effective	효과없음 Ineffective
〈1996〉									
전국	Whole country	46.1	11.9	31.3	23.3	33.6	21.8	25.1	22.5
시부	Total for sis	44.9	12.8	29.9	24.8	31.9	23.6	24.1	24.0
군부	Total for guns	50.5	8.5	36.8	17.0	39.7	15.1	28.8	17.0
초졸 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43.0	7.0	31.6	14.5	34.4	12.0	25.4	13.7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46.7	11.6	32.0	22.3	33.9	20.2	24.4	22.0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45.6	14.0	30.5	26.1	32.1	25.6	24.3	25.6
대졸 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50.9	14.3	32.1	30.4	35.6	29.1	27.7	28.7
〈2000〉									
전국	Whole country	48.4	10.7	32.1	24.2	27.9	26.9	22.6	26.1
동부	Total for dong	46.6	11.6	30.2	26.0	26.0	28.4	21.2	27.6
읍면부	Total for eup&myeons	55.2	7.4	39.3	17.7	34.8	21.3	27.8	20.1
초졸 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51.1	5.9	36.6	14.6	33.0	16.3	25.8	15.4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49.6	10.5	33.9	22.8	28.5	25.1	22.9	25.9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46.7	11.9	30.2	26.3	25.6	29.6	21.1	28.7
대졸 이상	College & university graduates & over	47.6	13.9	29.1	32.6	26.2	35.2	21.8	34.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3-5-36〉 졸업생 취업률  
Employment Rate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단위 : % %

연. 도 Year	고 등 학 교 High school			전 문 대 학 Junior college			대 학 교 University		
	계 Total	남 자 Male	여 자 Female	계 Total	남 자 Male	여 자 Female	계 Total	남 자 Male	여 자 Female
1981	38.8	34.3	43.9	41.2	48.7	30.6	68.9	78.1	52.6
1982	38.2	33.1	43.9	42.4	44.9	39.8	72.3	83.6	51.2
1983	38.1	31.5	45.8	50.5	56.2	44.5	66.9	78.5	46.4
1984	42.0	36.8	48.1	55.1	60.1	50.9	63.5	76.8	40.6
1985	42.1	35.6	49.4	57.2	68.0	49.9	52.1	67.7	31.7
1986	44.3	37.8	50.6	59.7	72.1	52.3	45.7	58.7	28.1
1987	47.8	40.9	55.4	60.3	73.6	52.9	48.3	63.5	28.8
1988	51.0	43.2	59.4	65.3	75.0	60.3	50.6	63.4	31.3
1989	52.4	44.5	61.2	68.3	79.4	63.3	52.8	63.3	36.1
1990	51.0	42.6	60.2	71.8	78.6	68.2	55.0	65.1	39.7
1991	53.2	45.6	61.6	77.3	85.3	72.8	58.7	69.0	42.3
1992	55.5	49.0	62.4	75.3	82.1	71.1	58.0	67.8	42.7
1993	57.9	51.8	64.2	72.5	78.4	68.9	54.0	63.0	40.8
1994	62.6	56.6	68.3	68.8	74.1	65.6	56.4	65.2	44.5
1995	69.3	64.3	74.3	74.2	79.3	70.9	60.9	69.2	50.0
1996	72.4	68.4	76.3	78.2	82.2	75.3	63.3	71.6	52.4
1997	72.5	68.6	76.3	75.5	77.1	74.5	61.8	68.7	52.5
1998	67.2	63.3	70.9	66.3	67.8	65.4	50.5	54.1	45.8
1999	64.9	61.5	68.0	68.1	69.1	67.4	51.3	52.6	50.0
2000	66.1	62.1	69.7	79.4	81.0	78.2	56.0	58.6	53.4
2001	66.4	63.0	69.4	81.0	82.7	79.8	56.7	59.0	54.1
2002	66.3	62.6	69.7	80.7	82.9	79.2	60.7	62.3	59.1
2003	66.3	61.0	71.1	79.7	82.4	77.7	59.2	61.6	56.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37〉 계열별 학위 취득자  
Number of Persons Granted Masters & Doctors Degrees

단위 : 명 In persons

	석사 Masters			박사 Doctors			
		남자 Male	여자 Female		남자 Male	여자 Female	
〈 2 0 0 1 〉		53 109	35 075	18 034	6 221	4 741	1 480
〈 2 0 0 2 〉							
계 Total		56 991	35 960	21 031	6 758	5 189	1 569
인문계 Humanities		5 146	3 294	1 852	639	387	252
사회계 Social sciences		13 176	8 743	4 433	951	779	172
자연계 Natural sciences		19 011	15 009	4 002	3 050	2 564	486
의약계 Medical & pharmacy		4 260	2 599	1 661	1 659	1 200	459
예체계 Arts & physical Ed.		3 380	1 188	2 192	156	108	48
사범계 Teaching profession		12 018	5 127	6 891	303	151	152
〈 2 0 0 3 〉							
계 Total		64 259	38 667	25 592	7 240	5 525	1 715
인문계 Humanities		6 921	4 151	2 770	668	380	288
사회계 Social sciences		14 219	9 356	4 863	959	792	167
공학계 Engineering		13 796	12 084	1 712	1 758	1 665	93
자연계 Natural sciences		6 177	3 466	2 711	1 425	989	436
의약계 Medical & pharmacy		4 430	2 541	1 889	1 905	1 388	517
예체계 Arts & physical Ed.		3 695	1 270	2 425	220	156	64
교육계 Education		15 021	5 799	9 222	305	155	15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3-5-38〉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Level of Consistency with Occupation and Major Field of Study

단위 : %							%
		계 Total	매우 일치함 Very consistent	일치하는 편임 Moderately consistent	보통 Fair	관계없는 편임 Moderately inconsistent	전혀 관계 없음 Very inconsistent
〈 1 9 9 6 〉							
전 국	Whole country	100.0	11.4	24.3	21.3	23.8	19.3
시 부	Total for sis	100.0	11.7	24.6	21.4	23.6	18.7
군 부	Total for guns	100.0	9.0	22.0	19.9	25.0	24.1
남 자	Male	100.0	10.9	24.8	21.3	24.2	18.9
여 자	Female	100.0	12.1	23.6	21.2	23.2	19.8
실업고 졸업자	Vocation high graduates	100.0	4.1	22.0	23.1	27.1	23.7
대 학 졸업자	College graduates	100.0	16.3	23.4	18.4	23.6	18.4
대학교 이상 졸업자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20.6	28.2	19.7	18.8	12.8
〈 2 0 0 0 〉							
전 국	Whole country	100.0	10.3	19.0	23.8	26.5	20.4
동 부	Total for donggs	100.0	10.4	19.2	24.3	26.4	19.6
읍면부		100.0	9.8	17.4	20.1	26.7	26.0
남 자	Male	100.0	10.0	20.0	23.5	26.7	19.9
여 자	Female	100.0	10.9	17.6	24.3	26.1	21.1
실업고 졸업자	Vocation high graduates	100.0	3.1	14.3	25.9	30.8	25.8
대 학 졸업자	College graduates	100.0	14.0	21.8	21.5	23.8	18.9
대학교 이상 졸업자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20.2	25.1	21.6	20.7	12.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실업계고등학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중인 사람 대상

〈표 3-5-39〉 비행 학생 비율  
Number of Delinquent Students

단위 : 명, % In persons, %

연도 Year	총비행 학생수 Total delin- quent students	폭력사범		절도사범		강간사범		기타	
		Assault & battery	구성 비 (%)	Theft	구성 비 (%)	Felony	구성 비 (%)	Others	구성 비 (%)
1980	26 615	13 954	52.4	8 563	32.2	365	1.4	3 733	14.0
1981	32 383	15 201	46.9	11 134	34.4	372	1.1	5 676	17.6
1982	42 414	21 169	49.9	14 442	34.1	528	1.2	6 275	14.8
1983	43 338	19 959	46.1	15 213	35.1	487	1.1	7 679	17.7
1984	42 038	20 284	48.3	13 675	32.5	515	1.2	7 564	18.0
1985	41 732	20 478	49.1	12 582	30.1	584	1.4	8 088	19.4
1986	44 519	20 372	45.8	13 535	30.4	629	1.4	9 983	22.4
1987	39 939	17 459	43.7	12 245	30.7	506	1.3	9 729	24.3
1988	42 018	18 722	44.6	11 122	26.5	677	1.6	11 497	27.4
1989	52 409	23 879	45.5	12 096	23.1	937	1.8	15 497	29.6
1990	55 026	23 727	43.1	12 275	22.3	1 208	2.2	17 816	32.4
1991	56 496	21 333	37.8	13 410	23.7	756	1.3	20 997	37.2
1992	57 057	20 336	35.6	14 085	24.7	822	1.4	21 814	38.2
1993	66 074	23 286	35.2	14 968	22.7	1 167	1.8	26 653	40.3
1994	69 611	25 143	36.1	17 307	24.9	1 730	2.5	25 431	36.5
1995	82 442	31 491	38.2	18 552	22.5	2 140	2.6	30 259	36.7
1996	91 750	33 071	36.0	19 575	21.3	2 163	2.4	36 941	40.3
1997	103 292	39 732	38.5	21 178	20.5	2 605	2.5	39 777	38.5
1998	99 625	36 287	36.4	23 624	23.7	2 805	2.8	36 909	37.1
1999	91 942	36 811	40.0	18 743	20.4	2 296	2.5	34 092	37.1
2000	97 056	38 706	39.9	20 219	20.8	2 083	2.2	36 048	37.1
2001	85 040	34 003	40.0	14 631	17.2	1 742	2.0	34 664	40.8
2002	76 489	25 977	34.0	15 987	20.9	1 092	1.4	33 433	43.7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표 3-5-40〉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  
 Monthly Wage Levels by Educational Attainment

단위 : 원/월 In won/month

연도 Year	중졸이하 Middle school graduates & under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전문대학졸 Junior college graduates	대학교 졸업이상 University graduates & over
1992	686 481	786 157	894 532	1 326 795
1993	776 312	881 467	965 408	1 421 811
1994	848 914	976 699	1 049 439	1 521 039
1995	959 087	1 100 306	1 192 628	1 715 411
1996	1 053 122	1 234 569	1 326 790	1 925 812
1997	1 132 589	1 342 047	1 428 197	2 087 824
1998	1 119 426	1 333 672	1 430 947	2 109 318
1999	1 139 217	1 324 701	1 386 530	2 113 475
2000	1 261 618	1 461 083	1 508 493	2 321 652
2001	1 317 042	1 546 856	1 591 166	2 442 869
2002	1 377 227	1 659 162	1 672 809	2 551 334

고졸임금수준(High school graduates)=100

1992	87.3	100.0	113.8	168.8
1993	88.1	100.0	109.5	161.3
1994	86.9	100.0	107.4	155.7
1995	87.2	100.0	108.4	155.9
1996	85.3	100.0	107.5	156.0
1997	84.4	100.0	106.4	155.6
1998	83.9	100.0	107.3	158.2
1999	86.0	100.0	104.7	159.5
2000	86.3	100.0	103.2	158.9
2001	85.1	100.0	102.9	157.9
2002	83.0	100.0	100.8	153.8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월평균임금총액 = 월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12

〈표 3-5-41〉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by Student

단위 : % %

	전반적인 학교생활 General school life		교육내용 Course of study		학교시설 School facilities		교우관계 Friendship		교사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eacher		학교주변 환경 Circumstances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 1996 〉													
전 국	Whole country	34.4	15.3	29.6	23.8	21.3	43.6	63.4	5.0	32.8	17.6	17.9	39.2
시 부	Total for sis	33.9	16.0	28.6	24.9	21.0	44.2	62.9	5.1	31.7	18.2	17.8	39.5
군 부	Total for guns	37.7	11.9	35.3	18.2	22.4	40.0	65.9	4.2	38.2	14.4	18.8	37.7
남 자	Male	33.9	14.9	30.4	22.6	21.6	42.5	62.2	4.7	32.6	17.7	18.0	38.3
여 자	Female	35.1	15.7	28.7	25.3	21.0	44.8	64.6	5.3	33.0	17.6	18.0	40.2
중 재	Middle school registered	35.3	12.6	32.3	19.2	15.5	45.4	62.6	6.2	33.8	16.6	16.2	39.9
고 재	High school registered	33.4	16.1	27.9	24.1	21.9	44.6	64.6	4.3	34.0	18.2	18.2	38.4
대학(교) 재학생	College & university registered	35.7	15.0	31.2	25.0	22.0	41.5	61.7	5.7	30.7	17.1	18.0	40.2
〈 2000 〉													
전 국	Whole country	41.4	13.2	30.7	20.4	23.0	41.2	67.8	3.7	36.1	15.4	23.5	32.6
동 부	Total for dong	40.8	13.4	30.2	20.9	22.8	41.6	67.1	3.8	35.4	15.8	23.1	33.1
읍면부		44.6	11.5	34.1	17.2	23.8	38.4	71.9	2.2	40.9	13.2	25.0	29.8
남 자	Male	42.0	13.7	30.7	20.1	23.9	39.7	68.9	6.9	37.4	16.1	24.4	31.3
여 자	Female	40.7	12.5	30.6	20.9	22.0	42.6	66.6	3.5	34.9	14.7	22.4	33.9
중 재	Middle school registered	44.5	9.6	33.6	16.4	19.5	40.6	71.9	2.7	46.0	14.6	27.6	31.1
고 재	High school registered	40.3	15.4	26.7	22.8	21.5	44.4	69.4	3.0	36.2	16.2	24.0	32.1
대학(교) 재학생	College & university registered	42.2	10.9	35.2	18.0	25.2	37.3	65.1	4.5	34.7	14.7	22.2	33.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주 : 중·고·대학생만 기입

〈표 3-5-42〉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Education by Parents

단위 : %

%

	전반적인 학교생활 General school life		교육내용 Course of study		학교시설 School facilities		교우관계 Friendship		교사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eacher		학교주변 환경 Circumstances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 1 9 9 6 〉												
전 국 Whole country	34.4	15.3	29.6	23.8	21.3	43.6	63.4	5.0	32.8	17.6	17.9	39.2
시 부 Total for sis	33.9	16.0	28.6	24.9	21.0	44.2	62.9	5.1	31.7	18.2	17.8	39.5
군 부 Total for guns	37.7	11.9	35.3	18.2	22.4	40.0	65.9	4.2	38.2	14.4	18.8	37.7
남 자 Male	33.9	14.9	30.4	22.6	21.6	42.5	62.2	4.7	32.6	17.7	18.0	38.3
여 자 Female	35.1	15.7	28.7	25.3	21.0	44.8	64.6	5.3	33.0	17.6	18.0	40.2
중 재 Middle school registered	35.3	12.6	32.3	19.2	15.5	45.4	62.6	6.2	33.8	16.6	16.2	39.9
고 재 High school registered	33.4	16.1	27.9	24.1	21.9	44.6	64.6	4.3	34.0	18.2	18.2	38.4
대학(교) 재학생 College & university registered	35.7	15.0	31.2	25.0	22.0	41.5	61.7	5.7	30.7	17.1	18.0	40.2
〈 2 0 0 0 〉												
전 국 Whole country	41.4	13.2	30.7	20.4	23.0	41.2	67.8	3.7	36.1	15.4	23.5	32.6
동 부 Total for dong	40.8	13.4	30.2	20.9	22.8	41.6	67.1	3.8	35.4	15.8	23.1	33.1
읍면부	44.6	11.5	34.1	17.2	23.8	38.4	71.9	2.2	40.9	13.2	25.0	29.8
남 자 Male	42.0	13.7	30.7	20.1	23.9	39.7	68.9	6.9	37.4	16.1	24.4	31.3
여 자 Female	40.7	12.5	30.6	20.9	22.0	42.6	66.6	3.5	34.9	14.7	22.4	33.9
중 재 Middle school registered	44.5	9.6	33.6	16.4	19.5	40.6	71.9	2.7	46.0	14.6	27.6	31.1
고 재 High school registered	40.3	15.4	26.7	22.8	21.5	44.4	69.4	3.0	36.2	16.2	24.0	32.1
대학(교) 재학생 College & university registered	42.2	10.9	35.2	18.0	25.2	37.3	65.1	4.5	34.7	14.7	22.2	33.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주 : 가구주 대상

〈표 3-5-43〉 교사의 직업 만족도  
Level of Satisfaction with Job by Teachers

단위 : % %

		직무 Teaching work		근무여건 Working conditions		보수 Salaries		동료교사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eachers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만족 Satisfied	불만족 Dissatisfied
〈 1 9 9 6 〉											
전 국	Whole country	3.4	15.3	29.6	23.8	21.3	43.6	32.8	17.6	17.9	39.2
시 부	Total for sis	33.9	16.0	28.6	24.9	21.0	44.2	31.7	18.2	17.8	39.5
군 부	Total for guns	37.7	11.9	35.3	18.2	22.4	40.0	38.2	14.4	18.8	37.7
남 자	Male	33.9	14.9	30.4	22.6	21.6	42.5	32.6	17.7	18.0	38.3
여 자	Female	35.1	15.7	28.7	25.3	21.0	44.8	33.0	17.6	18.0	40.2
중 재	Middle school registered	35.3	12.6	32.3	19.2	15.5	45.4	33.8	16.6	16.2	39.9
고 재	High school registered	33.4	16.1	27.9	24.1	21.9	44.6	34.0	18.2	18.2	38.4
대학(교) 재학생	College & university registered	35.7	15.0	31.2	25.0	22.0	41.5	30.7	17.1	18.0	40.2
〈 2 0 0 0 〉											
전 국	Whole country	41.4	13.2	30.7	20.4	23.0	41.2	36.1	15.4	23.5	32.6
동 부	Total for dong	40.8	13.4	30.2	20.9	22.8	41.6	35.4	15.8	23.1	33.1
읍면부		44.6	11.5	34.1	17.2	23.8	38.4	40.9	13.2	25.0	29.8
남 자	Male	42.0	13.7	30.7	20.1	23.9	39.7	37.4	16.1	24.4	31.3
여 자	Female	40.7	12.5	30.6	20.9	22.0	42.6	34.9	14.7	22.4	33.9
중 재	Middle school registered	44.5	9.6	33.6	16.4	19.5	40.6	46.0	14.6	27.6	31.1
고 재	High school registered	40.3	15.4	26.7	22.8	21.5	44.4	36.2	16.2	24.0	32.1
대학(교) 재학생	College & university registered	42.2	10.9	35.2	18.0	25.2	37.3	34.7	14.7	22.2	33.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주 : 가구주(교사) 대상

〈표 3-6-1〉 기대여명 및 건강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nd Health Expectancy

연령 Age	연도 Year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건강기대여명 Health expectancy	
		남자 Male	여자 Female	남자 Male	여자 Female
		0세	1995	-	-
	2001	72.84	80.01	63.30*	65.44*
20세	1995				
	2001	53.71	60.80	44.89*	46.76*
65세	1995				
	2001	14.57	18.43	8.48*	8.42*

주 : \* 1998년 통계임.

자료: 통계청, 2003 한국의 사회지표, p.2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p.166

〈표 3-6-2〉 학생의 평균신장, 체중, 흉위 및 비만율  
Average Height, Weight, Breast Circle and Obesity Rate of Students

학년 Grade	연도 Year	신장(cm) Height		체중(kg) Weight		흉위(cm) Breast circle		비만율(%) Over 25, BMI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초등5년 5th grade	1990								
	1995								
	2000								
	2002	142.4	143.1	38.7	37.6	71.2	69.6		
중등2년 8th grade	1990								
	1995								
	2000								
	2002	162.4	157.5	54.7	51.1	80.4	79.7		
고등2년 11th grade	1990								
	1995								
	2000								
	2002	172.5	160.3	64.7	54.8	87.4	82.1		

자료: 2003 한국의 사회지표, p.284-287.

〈표 3-6-3〉 정신질환 유병률  
Prevalence Rate of Mental Disorder and Manic-depressive

연도 Year	전체 정신질환 유병률 No. of mental disorder (per 100,000)			조울증 유병률 No. of the manic-depressive (per 100,000)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03						

〈표 3-6-4〉 치매노인수 및 유병률  
No. of Elderly with Dementia

성 Gender	연도 Year	치매노인수(명) No. of elderly with dementia				치매유병률(%) Dementia prevalence rate
		계 Total	경증 Mild	중경증 Moderate	중증 Severe	
남자	1995					
	2000					
여자	1995					
	2000					
계	1995	218,096	129,113	59,332	29,661	8.3
	2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1, p.188 (추정수)

〈표 3-6-5〉 초등학교 5학년 보유 우식경험 영구치아수 및 무치아노인 비율

연도 Year	1인당 DMF수 (초등 5년) average # DMFT, age 12	노인의 무치아 인구비율(%)			
		65-69	70-79	80-	계
2000	3.3				
2003					

〈표 3-6-6〉 주관적 건강평가 및 스트레스 인식 정도  
Self-assessment of Health and Stress Status

	주관적 건강평가(%) Self-assessment of health				스트레스 인식정도(%) Stress status			
	매우건강 Excellent	건강한편 Good	건강못함 Poor	매우나쁨 Very poor	매우많음 Very serious	많이느낌 Serious	조금느낌 Small	거의없음 Very small
1995	6.1	36.8	15.5	2.5				
1998					6.32	28.43	47.63	17.62
2001					6.31	28.57	48.16	16.96
남자 male					6.33	28.32	47.20	18.15
여자 female								
20-29 years								9.74
30-39								9.85
40-49								15.40
50-59								21.78
60-69								30.11
70세 이상								42.97

자료: 2003 한국의 사회지표, p. 289;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조사

〈표 3-6-7〉 1인 1일 열량,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 섭취량  
Nutrient intake per capita per day

연도 Year	지역 Area	열량(kcal) Total calorie	단백질(g) Protein		지방(g) fat		탄수화물(g) Carbohydrate
			계 Total	동물성 Animal	계 Total	동물성 Animal	
1998							
2001	전국	1,975.8	71.6	34.3	41.6	20.1	315.0
	대도시	2,002.2	73.4	35.5	43.5	21.2	315.2
	중소도시	1,985.3	73.1	35.9	43.1	21.1	314.1
	읍면	1,883.1	65.3	27.8	33.7	15.0	315.9

자료: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I), p.175.

〈표 3-6-8〉 음주율 및 고도음주자 비율  
Percentage of Drinkers and Everyday Drinkers

연도 Year	연령 Age	음주율(%) Percentage of drinkers			거의 매일음주자 비율(%) Percentage of everyday drinkers		
		남자 Male	여자 Female	계 Total	남자 Male	여자 Female	계 Total
1998	계						
	20-29						
	30-39						
	40-49						
	50-59						
	60-						
2001	계	82.72	59.46				
	20-29	93.08	80.68				
	30-39	90.19	73.70				
	40-49	85.00	63.66				
	50-59	77.41	44.34				
	60-69	67.39	29.98				
	70-	51.97	27.62				
지역	시부	84.59	61.69				
	군부	74.54	49.8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표 3-6-9〉 성인비만을 및 규칙적 식사, 규칙적 운동, 정상수면을 하는 비율

연도 연령	성인비만을			규칙적식사이행율			규칙적운동실천율			정상수면자 비율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998 계												
2001 계							22.18	19.41	20.64	52.34	51.77	52.02
20-29									15.52			55.59
30-39									20.12			59.39
40-49									21.81			52.97
50-59									23.17			49.56
60-69									25.75			41.27
70-									18.07			37.29
시									22.02			50.19
균									14.61			52.46

〈표 3-6-10〉 영아사망률, 주산기사망률, 모성사망률 및 저체중아 출생률  
 Infant Mortality Rate, Perinatal Death Rate, Maternal Mortality Rate and  
 Birth Rate of Babies Weighting under 2,500g

연도 year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death rate (per 1,000 live birth)	사산율 still-birth rate (per 1,000 live & still birth)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	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	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	저체중아출생률 birth rate of babies under 2,500g (per 1,000 live birth)
1993			9.9	6.6	-	
1995			7.7	4.1	20	
-			-			
2003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1 p.162, 164

〈표 3-6-11〉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 Death Rate by Chronic Diseases per 100,000 Population

연도 Year	성 gender	고혈압성질환 Hypertensive diseases	뇌혈관질환 Cerebrovascular diseases	심장질환 Heart diseases	간질환 Liver diseases	당뇨병 Diabetes mellitus
1995						
2000	계	8.9	73.2	38.5	22.9	22.6
	남자	6.7	69.4	40.2	36.9	22.5
	여자	11.2	77.1	36.8	8.7	22.7
200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표 3-6-12〉 암 사망률

## Death Rate by Malignant Neoplasms per 100,000 Population

연도 Year	성 Gender	위암 Stomach	간암 Liver	폐암 및 기관지암 Lung & bronchus	유방암 Breast	자궁암 Cervix uteri	모든 암 All cancers
1995							
2000	계	24.3	21.3	24.4	2.5		
	남자	31.3	32.5	36.1	0.1		
	여자	17.2	10.0	12.6	4.9	5.6	
200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표 3-6-13〉 AIDS 환자수 및 유병률

Number of AIDS Patients & Prevalence Rate per 100,000 Population

연도 Year	감염자 Infected persons		환자수 AIDS patient		사망자 Death by AIDS		유병률 Prevalence rate
	총수	여자	총수	여자	총수	여자	
1995							
2000							
2003	535	32	62		96		

자료: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p.553.

〈표 3-6-14〉 주요 만성전염병 유병률

Prevalence Rate of Chronic Infectious Disease per 1,000 Persons

연도 year	결핵 tuberculosis		B형 간염 hepatitis B		한센병 leprosy	
	환자수	유병률	환자수	유병률	환자수	유병률
1995						
2000						
-						
2003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3-6-15〉 만성질환 유병률

Morbidity Rate of Chronic Diseases

성 연령	심장병 Heart disease		뇌졸중 Stoke		고혈압 Hypertensive disease		간질환 Liver disease		당뇨병 Diabetis mellitus		관절염 Arthritis	
	1998	2001	1998	2001	1998	2001	1998	2001	1998	2001	1998	2001
전체												
20-29												
30-39												
40-49												
50-59												
60-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 2003 한국의 사회지표, p.2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표 3-6-16〉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Death by Suicide, Occupational Accident and Traffic Accident

연도 Year	자살률 Death by suicide per 100,000			교통사고사망률 Death by traffic accident per 100,000			산업재해사망률 Death by occupational accident per 100,000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995									
2000	20.3	8.9	14.6	36.8	13.9	25.4			
2001									
2002									
2003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표 3-6-17〉 2주간 유병률, 연간 1인당 평균 활동제한일수 및 와병일수  
 Morbidity Rate, Restricted Activity Day and Bed-disability Day

연도 Year	연령 Age	유병률 Morbidity rate per 1,000 persons during 2 weeks			활동제한일수 Restricted-activity day per person per year			와병일수 Bed-disability day per person per year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998	계						8.72			5.01
	0-9									
	10-19									
	20-29									
	.									
2001	계									
	0-9									
시부 urban										
	군부 rural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표 3-6-18〉 건강검진을 및 암검진율

연도 Year	성 Gender	건강검진율 % physical examinatin	암 검진율 % Cancer examination					
			위암 Stomach	대장암 Colon	간암 Liver	폐암 Lung	자궁암 Cervix uteri	유방암 Breast
1998	계 남자 여자							
2001								

〈표 3-6-19〉 예방접종률

Percentage Vaccinated Against Communicable Diseases

연도 Year	디티피 DPT % children immunized	폴리오 Poliomyelitis % children immunized	홍역·유행성이하 선염 MMR % children immunized	인플루엔자 Influenza % of pop. 65+
1995				
2000				
2001				
2002				

〈표 3-6-20〉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 의료이용

Outpatient Ut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연도 Year	수진율 Frequency of utilization per beneficiaries			건당내원일수 Visit days per treatment case			내원일당진료일수 Treatment days per visit		
	일반 general	치과 dental	한방 oriental	일반	치과	한방	일반	치과	한방
2001									
2002									
2003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자

〈표 3-6-21〉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이용 및 병상이용률

## Inpatient Ut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and Bed Utilization Rate

연도 Year	수진율 Frequency of utilization per beneficiaries			건당내원일수 Visit days per treatment case			내원일당진료일수 Treatment days per visit		
	일반 general	치과 dental	한방 oriental	일반	치과	한방	일반	치과	한방
2001									
2002									
2003									

연도 Year	수진율 Frequency of utilization per beneficiaries			평균재원일수 Length of stays per inpatient case			병상이용률 Bed utilization rate		
	일반 general	치과 dental	한방 oriental	일반	치과	한방	일반	특수병원 specialty	한방
2001									
2002									
200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3-6-22〉 구급차 수 및 구급차 출장건수

## Number of Ambulances, and Frequencies of Dispatches of Ambulances

연도 Year	구급차수		구급차출장건수	
	수 Number	인구10만당 Per 100,000 pop.	건수 Frequency	인구 천당 Per 1,000 pop.
2000	4,467			
2001				
2002				
2003				







〈표 3-6-27〉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Ratio of Public Hospitals and Hospital Beds

연도 Year	병원수 No. of hospital			병원병상수 No. of hospital bed		
	병원수 Total hospital	공공병원 Public hospital	비율(%) Rate	총병원 Total hospital	공공병원 Public hospital	비율(%) Rate
2000						
2001						
2002						
2003						

〈표 3-6-28〉 국민의료비지출  
National Health Expenditure(NHE)

연도 Year	1인당 국민의료비 (천원) NHE per capita (1000 won)	GDP대비 국민의료비 NHE as share of GDP(%)	공공의료비지출 비율 Public expenditure in NHE(%)	가구지출중 의료비지출비율(%) Health expenses in houshold expenditure
1980				
1990				
1995				
2000				
2001				

〈표 3-6-29〉 정부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

## Annual Health Budgets as Share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연도 Year	정부일반회계예산중 보건 복지부예산(%) MOHSA budget as share of government general account	보건복지부예산중 보건 예산(%) Health sector budget as share of MOHSA budget	보건복지부예산중 의료 보장 예산(%) Health insurance and Medicaid budget as share of MOHSA budget
2000			
2001			
2002			
2003			

〈표 3-6-30〉 고가장비 보유대수

## Number of medical equipments

연도 Year	CT scanners		MRI units		Radiation thera. equip.		Lithotript.		Hemodialys. station		Mammographs	
	수 no.	인구 10만당 per 100,000	수 no.	인구 10만당 per 100,000	수 no.	인구 10만당 per 100,000	수 no.	인구 10만당 per 100,000	수 no.	인구 10만당 per 100,000	수 no.	인구 10만당 per 100,000
1995												
2000												
2001	1,293		322		225		225		5,783		641	
2002	1,474		375		213		284		6,659		925	

〈표 3-7-1〉 주택보급 및 주택투자율  
Housing Supply & Housing Investment Rate

단위 : 천가구, 천호

연도 Year	가구수 <sup>1)</sup> Household	주택수 <sup>2)</sup> Housing units	주택보급률 (%) Housing supply rate	인구천명당 주택수 Housing units per 1000 persons	연간주택 건설호수 Housing units constructed	공공 Public	민간 Private	주택 투자율 (%) Housing investment rate
2000	11 928	11 472	96.2		433	140	293	4.3
2001	12 099	11 892	98.3		530	128	402	4.7
2002	12 286	12 358	100.6		667	124	543	4.9
2003	12 515	12 669	101.2		585	121	464	4.9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주택업무편람」 ([www.moct.go.kr](http://www.moct.go.kr))

주 : 1) 일반가구중 1인가구, 비혈연가구 제외

2) 빈집포함

〈표 3-7-2〉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Households by Type of Housing Units

단위 : 천가구

연도 Year	계 <sup>1)</sup>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영업용건물내주택 <sup>2)</sup>	
	Total	구성비 (%)	Detached dwelling	구성비 (%)	Apartment	구성비 (%)	Row house,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구성비 (%)	Dwelling units in the building not intended for habitation	구성비 (%)
전국 Whole country										
2000	14 227	100.0	7 103	49.9	5 238	36.8	1 294	9.1	593	4.2
동부 Total for donggs										
2000	11 166	100.0	1 914	44.0	4 677	41.9	1 138	10.2	437	3.9
읍면부 Total for eups & myeons										
2000	3 062	100.0	2 189	71.5	561	18.3	156	5.1	156	5.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일반가구에서 주택이회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제외함

2) 1995년 이전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표 3-7-3〉 건축년도 및 주택형태별 주택분포  
Distribution of Housing by Type and Year of Construction

단위 : 천호, %

	총주택수 Total number of housing	건축년도 Year of construction						2000년
		1959년 이전 Before	1960 ~ 1969	1970 ~ 1979	1980 ~ 1989	1990 ~ 1994	1995 ~ 1999	
〈2000〉								
전국 Whole country								
단독주택 Detached dwelling								
아파트 Apartment								
연립주택 Row house								
다세대주택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Dwelling units in the building not intended for human habitation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3-7-4〉 연건평별 주택 분포  
Distribution of Housing by Floor Space

단위 : 천가구, %

연도 Year	계 Total	7평 미만 Less than 7 pyong	7-9평미만	9-14평 미만	14-19평 미만	19-29평 미만	29-39평 미만	39-49평 미만	49-69평 미만	69-99평 미만	99평 이상 99 pyong and over
전국 Whole country											
2000	10 959	0.4	1.9	11.0	29.2	36.2	10.2	5.0	3.7	1.6	0.8
동부 Total for dongs											
2000	8 123	0.3	2.2	11.5	29.3	33.9	9.4	5.9	4.5	2.0	1.0
읍면부 Total for eups & myeons											
2000	2 836	0.4	1.2	9.8	28.8	42.8	12.6	2.4	1.6	.03	0.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평 = m<sup>2</sup> × 3.3058

〈표 3-7-5〉 주택마련 방법<sup>1)</sup>  
Source of Fund for Purchasing Own House

단위 : %

	주택마련 가구	저축	증여 및 상속	부모친척 보조	용자	사채	재산매각	퇴직금 보상금	기타
	Owner- ship	Savings	Inheritance & transfer	Support from parents or relatives	Loan, from banks	Loan from individuals	Disposal of other property	Retirement Bonus, co- mpensation	Other
〈2001〉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gs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15 ~ 29세	Years								
30 ~ 39									
40 ~ 49									
50 ~ 59									
60세이상	Years & ove								
〈2004〉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gs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15 ~ 29세	Years								
30 ~ 39									
40 ~ 49									
50 ~ 59									
60세이상	Years & over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가구주 대상임

〈표 3-7-6〉 도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Housing Purchase Price Indices & Chonse Price Indices by Urban Area by Type

	매매가격지수 Housing purchase price indices				전세가격지수 Chonse price indices			
	계 Total	단독 Detached dwelling	연립 Row house	아파트 Apartme nt	계 Total	단독 Detached dwelling	연립 Row house	아파트 Apartme nt
2000	73.8	87.8	80.0	65.5	77.7	84.1	81.0	73.7
2001	81.1	90.7	65.4	75.0	90.5	93.2	92.9	88.4
2002	94.4	97.7	95.7	92.1	99.6	100.6	99.1	99.2
2003	99.8	98.5	97.8	100.9	98.2	97.5	96.8	98.9
서울 Seoul								
6개광역시 6 large cities								
부산 Busan								
대구 Daegu								
인천 Incheon								
광주 Gwangju								
대전 Daejeon								
울산 Ulsan								
수도권 Seoul metropolitan area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주 : 매년도 12월 15일 기준

〈표 3-7-7〉 주택에 대한 만족도  
Satisfaction Level of the Current House

단위 : %

	계 Total	매우만족 Very satisfied	약간만족 Moderately satisfied	보통 Fair	약간불만 Moderately dissatisfied	매우불만 Very dissatisfied
〈2001〉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자가	Owned					
전세	Rents deposit					
보증부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월세(사글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무상	Free rent					
〈2004〉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자가	Owned					
전세	Rents deposit					
보증부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월세(사글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무상	Free rent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가구주 대상임



〈표 3-7-8〉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  
The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House

단위 : %

	불만인 가구 Total	일조 통풍 안되어서 Insufficie nt sunshine &ventilat ion	주택이 낡아서 Deterior ation	주택 규모가 작음 Small scale of the house	화장실 불편 Inconve nient bathroo m	난방 시설 미흡 Insuffici ent heating	상하수도 시설미흡 Insufficient pipe water&sew age	주택 임차료 비싸서 High rent	경제적 가치 없음 Not economic value	기타 Others
〈2001〉										
전 국	Whole country									
동 부	Total for dong									
읍 면 부	Total for eups&myeons									
남 자	Male									
여 자	Female									
자 가	Owned									
전 세	Rents deposit									
보증부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월세(사글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무 상	Free rent									
〈2004〉										
전 국	Whole country									
동 부	Total for dong									
읍 면 부	Total for eups&myeons									
남 자	Male									
여 자	Female									
자 가	Owned									
전 세	Rents deposit									
보증부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월세(사글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무 상	Free rent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3-7-9〉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Households by Type of Housing Occupancy

단위 : %

연도 Year	계 Total	자 가 Owned	전 세 Tenement	월 세 <sup>1)</sup> Monthly rent	무상 및 기타 Free rent or others
전국 Whole country					
2000	100.0	54.2	28.2	14.8	2.8
동부 Total for dongs					
2000	100.0	49.1	32.6	16.2	2.1
읍면부 Total for eups & myeons					
2000	100.0	72.8	12.3	9.5	5.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

〈표 3-7-10〉 현주택 거주년수  
Years of Residence at the Current House

단위 : 년, %

	가 구 House holds	3년미만	3년이상 ~ 6년미만	6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16년미만	16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Years & over	평균거주 년 수 Average residence years
		Years						
〈2001〉								
전 국	Whole country							
동 부	Total for dong							
읍 면 부	Total for eups&myeons							
남 자	Male							
여 자	Female							
〈2004〉								
전 국	Whole country							
동 부	Total for dong							
읍 면 부	Total for eups&myeons							
남 자	Male							
여 자	Female							
15 ~ 29세	Years							
30 ~ 39								
40 ~ 49								
50 ~ 59								
60세이상	Years & over							
자 가	Owned							
전 세	Rents deposit							
보증부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월세(사글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무 상	Free rent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 : 가구주 대상임

〈표 3-7-11〉 주택 마련 시기

단위 : 년, %

	주택마련 가구	결혼 전	결혼 후	1년 이내	1~3년미만
	Owner ship	Before marriage	Afeter marriage	Years&under	
〈2001〉					
전국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2004〉					
전국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 : 가구주 대상임

〈표 3-7-11〉 Time of Purchasing Own House

3~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 이상 Years & over	결혼후 평균 주택 마련년수 Average years spent for purchase	
						〈2001〉 Whole country Total for dong Total for eups&myeons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over 〈2004〉 Whole country Total for dong Total for eups&myeons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over

〈표 3-7-12〉 결혼후 내집 마련시까지 이사횟수

단위 : 회, %

	결혼후 주택마련 가구 Purchasing own House after marriage	한번도 이사 않음 Never moved	이 사 합 Moved	이 사 횟 수	
				1 번 Time	2 번
〈2001〉					
전 국					
동 부					
읍 면 부					
남 자					
여 자					
초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2004〉					
전 국					
동 부					
읍 면 부					
남 자					
여 자					
초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가구주 대상임

<Table 7-12> Moving Frequency before Purchasing Own House after Marriage

3 번	4 번	5 번	6 ~10 번	11번 이상 Times & over	평 균 이사횟수 Average moving Frequency	
						<2001> Whole country Total for dong Total for eups&myeons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over <2004> Whole country Total for dong Total for eups&myeons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graduates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over

〈표 3-7-13〉 현거주지 선택이유<sup>1)</sup>

Reasons for Choosing the Current Resident Area

단위 : %

	자녀교육 본인학업 Education of child or myself	자녀약육 육아 Child care	사업상 직장 Commuting to work	교통근린 시설편리 Transportation	경제적 사정 Financial reason	자연환경이 좋아서 Natural environment	옛날부터 살아와서 Have lived here for long time	기타 <sup>2)</sup> Others
(2001)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자가	Owned							
전세	Rents deposit							
보증부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							
월세(사글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무상	Free ren							
(2004)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자가	Owned							
전세	Rents deposit							
보증부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월세(사글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무상	Free rent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가구주 대상임

2) 2004년 기타=기타+경제적가치



〈표 3-7-14〉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Satisfaction Level of the Resident Area

단위 : %

	계 Total	매우만족 Very satisfied	약간만족 Moderately satisfied	보통 Fair	약간불만 Moderately dissatisfied	매우불만 Very dissatisfied
〈2001〉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s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단독주택	Detached dwelling					
연립주택	Row house					
아파트	Apartment					
다세대주택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기타	Others					
〈2004〉						
전국	Whole country					
동부	Total for dongs					
읍면부	Total for eups&myeons					
남자	Male					
여자	Female					
단독주택	Detached dwelling					
아파트	Apartment					
기타	Others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가구주 대상임

〈표 3-7-15〉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이유<sup>1)</sup>  
 The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Resident Area

단위 : %

	교육 여건이 안 좋음 Educati onal problem	교통 사정이 안 좋음 Traffic problem	주변 환경이 안 좋음 Untidy surroun dings	공해 때문 Environ ment problem	편익 시설이 멀어 from facilities	범죄 발생 Crime	주차 시설 부족 Parking problem	물가가 비싸서 High costs of livings	기타 <sup>2)</sup> Others
〈2001〉									
전국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2004〉									
전국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가구주 대상임

2) 2004년 기타=기타+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표 3-7-16〉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Percentage of Housing Expenditure per Household

단위 : 천원, %

	도시가구 Urban household			농가 Farm household			
	연간소비지출 Annual consumption expenditure	연간주거비 Annual housing expenditure	주거비 비율 Percentage of housing expenditure	연간가계지출 Annual living Expenditure	비소비지출 Non-consumption expenditure	연간 주거비 Annual housing expenditure	주거비 비율 Percentage of housing expenditure
2000	19 588	1 399	7.1	18 003	-	1 231	6.8
2001	21 145	1 664	7.9	18 458	-	1 242	6.7
2002	22 018	1 606	7.3	17 858	-	1 234	6.9
2003	23 074	1 650	7.2	18 162	5 901	963	5.3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2003년 농가경제통계」

〈표 3-7-17〉 주거 공간  
Housing Space

연도 Year	전평(m <sup>2</sup> ) Floor space		방의 수(개) Rooms		주택당 거주가구수별 주택분포(%) Housing units by No. of living households			
	가구당 Per household	1인당 Per person	가구당 Per household	1방당인구 수(명) Persons per room	1가구 One household	2가구 Two households	3가구 Three households	4가구이상 Four and over
전국 Whole country								
2000	63.1	20.2	3.1	0.9	87.1	5.8	3.0	4.1
동부 Total for dongs								
2000	61.3	19.2	3.4	0.9	84.3	6.7	3.8	5.1
읍면부 Total for eups & myeons								
2000	69.8	23.1	3.4	0.9	95.2	3.3	0.9	0.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3-7-19〉 자동차 차고지 확보유무(2000)  
Automobiles Rate of Parking Spaces

단위 : %

	계 Total	자동차 미보유 가구 None	자동차 보유 가구 Auto- mobiles owned	단독주차시설 One parking owned						복합주 시설 Two or more parking places
				자가 주차장 Own parking lot	영업용 건물부 설 주차장 <sup>1)</sup>	노 상 주차장 <sup>2)</sup>	도로변 공목길 <sup>3)</sup>	공휴지 Vacant lot	기타 Others	
전 국 Whole country										
동 부 Total for dong										
읍 면 부 Total for eup & myeons										
15 - 19세 Years										
20 - 29										
30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Years & over										
단독주택 Detached dwelling										
아 파트 Apartment										
연 립 Row house										
다 세 대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영 업 용 Dwelling unit in the 건물내주택 building not intended for human habitation										
주 택이외의 Living quaters other 거 처 than housing unit										

자료 :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3-7-20〉 교통기반시설규모

##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연도 Year	도로연장 (km)		철도거리 (km)	지하철 영업거리 (km)	공항처리능력 Airport management capacity		항만처리능력 Port capacity	
	도로밀도 (km/km <sup>2</sup> )	Road length			연간운항회 수(천회/년)	동시계류 (대)	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만톤)
Year	Road length	Road density	Railroad length	Subway route distance	Flights (1,000 flights/year)	Parking capacity	Berthing capacity (vessels)	Cargo handling capacity (10,000 ton)
2002	96,319	0.97	3,129	512.5	2,265	265	649	48,651

〈표 3-7-21〉 교통수단보유규모

## Vehicle Possession by Mode

연도 Year	자동차등록대수 (천대)	철도차량보유대수 (대)	항공기보유대수 (대)	국적선선박수 (대)
Year	Number of motor vehicle (In 1,000)	Number of rolling stock (cars)	Aircraft Holdings	Number of Korean-flag ships
2002	13,949	18,661	295	6,792

〈표 3-7-22〉 건설교통예산  
Budget for Transportation & Construction

단위 : 억원

연도 Year	건설교통 예산합계		도로 Road	철도 Railway			공항 Airport	
	Total	전체예산 대비비율 As % of total budget		도시철도 Urban railroad	고속철도 Highspeed railroad	신공항 New airports		
2003	159,457	15.1	82,509	33,379	6,808	6,543	3,475	652

〈표 3-7-23〉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Annual Passenger Traffic by Mode

단위 : 천명, %

연도 Year	총수송 인원 Total	공로 Road		철도 Railway		지하철 Subway		항공 Aviation	해운 Shipping
		분담율 Share	분담율 Share	분담율 Share	분담율 Share				
2002	12,809,955	9,783,595	76.4	983,266	7.7	2,012,386	15.7	21,248	9,460

단위 : 백만명-km, %

연도 Year	총수송인- km Total	공로 Road		철도 Railway		지하철 Subway		항공 Aviation	해운 Shipping
		분담율 Share	분담율 Share	분담율 Share	분담율 Share				
2002	139,282	77,925	55.9	28,743	20.6	24,240	17.4	7,809	565

〈표 3-7-24〉 통행목적별 통행회수  
Number of Trips by Trip Purpose

	통근통학	학원	업무	개인용무	쇼핑	여가	기타
2002							

〈표 3-7-25〉 자동차등록현황  
Motor Vehicle Registration

단위 : 천대

연도 Year	자동차 등록대 수 Total Motor Vehicle		승용차 Car				화물차 Truck	버스 Bus	특수차 Special-car
	1대당 도로연 장(m) Road length per motor vehicle	자가용 Private	자가용						
			1인당 (대) No. of private cars per person	1가구당 (대) No. of private cars per household					
2002	13,949	6.91	9,737	9,414	0.2	0.57	2,894	1,275	42





〈표 3-7-28〉 버스·지하철 접근성  
Access Time to Bus Stop or Subway Station

단위 : 분, %

연도 Year	평균시간 Average time	5분미만 Under 5 min.	10분미만 Under 10 min.	15분미만 Under 15 min.	20분미만 Under 20 min.	30분미만 Under 30 min.	30분이상 30 min. or over

〈표 3-7-29〉 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Satisfaction Level of Traffic Facilities

단위 : %

연도 Year	매우만족 Strongly satisfied	만족 Satisfied	약간만족 Somewhat unsatisfied	보통 Neutral	약간불만 Somewhat unsatisfied	불만 Unsatisfied	매우불만 Strongly Unsatisfied
2001	5.1	25.0	19.8	52.3	18.1	22.8	4.7

〈표 3-7-30〉 교통문제  
Traffic Problems

연도 Year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회수 부족 Insufficient bus routes & service frequency	주차시설 부족 Insufficient parking spaces	교통체증 Traffic congestion	교통안전 시설미비 Insufficient traffic safety facilities	교통법규 준수미약 People breaking the traffic law	기타 Other
2001	33.5	30.5	20.1	8.2	7.5	0.8



〈표 3-7-34〉 통근·통학비용

## Travel cost of Home Based Work Trip &amp; School Trip

연도	평균비용	0	1000원 미만	2000원 미만	3000원 미만	5000원 미만	7500원 미만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Year	Averag	Zero	Under 1000	Under 2000	Under 3000	Under 5000	Under 7500	Under 10000	10000 or over

〈표 3-7-35〉 도로교통혼잡비용

## Road Traffic Congestion Cost

단위 : 십억원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속도 로	국도	지방도
Year	Total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Express way	National highway	Provinc ial road
2002	22,135	5,310	3,048	925	1,602	877	874	348	2,065	2,735	1,351

〈표 3-7-36〉 물류비용

## Logistics Cost

단위 : 십억원

연도	합계	수송비	물류비 합계 대비 비율	재고유지 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 정보비	일반관 리비
			As % of Total logistics cost					
Year	Total	Transportatio n cost		inventory maintenan ce cost	Packing cost	Loading cost	Logistics informatio n cost	Manage ment cost
2001	87,523	65,008	74.28	12,339	1,848	1,140	3,529	3,659

〈표 3-7-37〉 도로교통사고비용  
Social Cost of Road Traffic Accident

단위 : 천억원

연도 Year	합계 Total	손실생산 Production loss	의료비용 Medical treatment	차량수리비용 Vehicle repair cost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	교통비용 PGS cost
2001	144.6	27.3	39.9	18.6	4.8	54.0

〈표 3-7-38〉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  
Monthly Expenditure on Transportation per Household

단위 : 원

연도 Year	총소비 지출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교통비		공공교통 Public transportation	개인교통	교통부문총 계대비 비율 As % of transportation total	교통부문총 계대비 비율 As % of transportation total
		Expenditure on transportation	As %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2003	1,922,851	201,553	10.48	53,494	25.20	148,042	74.80

〈표 3-7-39〉 교통수단별사고  
Traffic Accidents by Traffic Mode

단위 : 명

연도	자동차		철도		지하철		선박		항공기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망자수	
Year	Motor Vehicle	Fatalities	Railway	Fatalities	Subway	Fatalities	Shipping	Fatalities	Aviation	Fatalities
2002	230,953	7,090	543	252	56	36	557	185	4	1

〈표 3-7-40〉 도로교통사고  
Road Traffic Accidents

단위 : 명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차량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차량 1만대당		
Year	Number of accidents	Fatalities	Per 100,000 persons	Per 10,000 vehicles	Injured	Per 100,000 persons	Per 10,000 vehicles
2003	240,832	7212	15	4	376,503	786	258

〈표 3-7-41〉 법규위반별 도로교통사고  
Road Traffic Accidents by Violation Type

단위 : 건

연도	전체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침 범	보행자보 호의무위반	안전운 전불이행
Year	Total	Drunken Driving	Traffic signal violation	Corssing violence	Safty distance violence	Median strip trespassing	No precautions for pedestrians	Unsafe driving
2001	260,579	24,994 (10%)	20,599 (8%)	18,102 (7%)	16,248 (6%)	16,147 (6%)	5,634 (2%)	166,104 (64%)

〈표 3-7-42〉 고속도로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 on the Expressway

단위 : 건, 명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체교통사 고대비 비율	1km당 발생건수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	전체 부상자 대비 비율	Number of accidents	As % of total traffic accidents	Per km	Fatalities	As % of total fatalities	Injured
2003	5,844	2.4	2.1	526	7.3	14,490	3.8			

〈표 3-8-1〉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 R&amp;D Expenditures on Information &amp; Telecommunication

단위 : 억원

In 100 million won

연 도 Year	총연구개발비 <sup>1)</sup> (A) R & D Expenditures	정보통신연구개발비 <sup>2)</sup> (B) R & D expenditures on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GDP 대비(%) As % of GDP	공 공 Public	민 간 Private
	1991	41 584	8 359	0.39	1 543
1992	49 890	10 095	0.41	702	9 393
1993	61 530	10 875	0.39	1 887	8 988
1994	78 947	16 343	0.51	3 046	13 297
1995	94 406	32 966	0.87	3 826	29 140
1996	108 780	39 929	0.95	4 464	35 465
1997	121 858	50 179	1.11	6 785	43 394
1998	113 366	48 163	1.08	8 368	39 795
1999	119 218	65 721	1.36	7 654	58 067
2000	138 485	68 105	1.30	7 000	61 105
2001	161 105	94 205	1.73	15 839	78 336
2002	173 251	89 556	1.50p	11 269	78 287

자료 : 1)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

2) 한국전자통신연구진흥원

주 : 1) 인문, 사회과학분야는 제외



〈표 3-8-2〉 정보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Payments & Receipts on Import & Export of Information  
 Technology

단위 : 백만불, % In million \$, %

연 도 Year	총기술 도입액			총기술 수출액		
	Total payments	전자·전기(%) Electron & electricity	통 신(%) Telecomm-unication	Total receipts	전자·전기(%) Electron & electricity	통 신(%) Telecomm-unication
1986	411.0	32.7	3.4	11.7	2.3	-
1987	523.7	36.3	1.3	9.1	3.5	-
1988	676.3	38.4	0.8	8.9	3.3	-
1989	888.6	42.9	0.8	10.5	1.8	-
1990	1 087.0	42.4	0.6	21.8	18.4	-
1991	1 183.8	39.8	0.1	35.2	16.7	-
1992	850.6	51.7	1.3	32.5	26.5	-
1993	946.4	52.0	2.3	45.4	32.0	2.0
1994	1 276.6	60.0	1.5	110.9	11.3	3.8
1995	1 947.0	53.3	1.5	112.4	37.7	4.9
1996	2 297.2	47.5	1.9	108.5	55.8	0.0
1997	2 414.6	51.8	0.8	162.9	37.5	3.6
1998	2 386.5	51.0	2.6	140.9	35.3	3.7
1999	2 685.8	55.5	0.4	193.3	63.2	0.8
2000	3 062.8	60.0	0.6	201.0	72.2	0.0
2001 <sup>1)</sup>	2 642.7	57.7	3.4	619.1	65.6	20.8
2002	2 721.5	56.9	4.7	638.1	65.6	14.9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년도

주 : 1) OECD 기준 적용에 따라 일부 도입항목이 제외

〈표 3-8-3〉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단위: 억원)

## Production of IT Industry(unit: 100 million won)

연도 year	합계 total production of IT industry	정보통신서비스 Telecommunication Services				
		기간통신 서비스 Facilities -Based Telecommuni- cation services	별정통신 서비스 Resale services	부가통신 서비스 Value addedBroadc- asting Communi- cation services	방송서비스 Communica- tion service	
1997	755,310	170,484	129,125	-	9,920	31,439
1998	881,224	178,702	139,339	548	10,920	27,895
1999	1,150,124	217,200	161,167	2,660	18,343	35,030
2000	1,453,050	286,884	205,473	8,267	24,414	48,730
2001	1,473,467	335,290	237,420	9,611	30,234	58,025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주 1) 통신서비스중 LM통화료 제외

2) 컴퓨터관련서비스중 H/W부문 제외

연도 year	정보통신기기 Information & 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기기 Communicating Equipment	정보기기 Information system	방송기기 Broadcast- ing equipment	부품 electronic component	
1997	549,792	137,535	97,807	5,842	308,608
1998	655,688	142,351	106,817	7,444	399,076
1999	867,938	199,979	156,665	8,660	502,634
2000	1,058,850	225,408	208,974	15,748	608,720
2001	990,909	251,607	186,914	20,118	532,270

연도 year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Software & Computer Related Service				
	패키지소프트 웨어서비스 Packaged Software	컴퓨터관련 서비스 Computer Service	디지털 컨텐츠개발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데이터베이스제작 TataBase Production Services, Database Searcher	
1997	35,034	12,606	21,462	358	608
1998	46,834	12,594	33,361	449	430
1999	64,986	13,204	50,168	1,239	375
2000	107,316	21,919	81,486	2,950	961
2001	147,268	34,892	103,952	7,298	1,126

〈표 3-8-4〉 정보통신산업 수출입액 (단위: 천불)  
Export & Import of IT Industry (unit: 1000 US dollar)

연도 year	수출 합계 total export of IT	정보통신기기 Information & 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기기 Communicating Equipment	정보기기 Information system	방송기기 Broadcasting equipment	부품 electronic component	
1996	29,585,262	29,563,762	2,411,065	4,706,747	160,452	22,285,498
1997	31,249,980	31,198,483	2,854,000	5,319,629	192,524	22,832,330
1998	30,524,760	30,471,948	3,405,157	4,669,476	178,499	22,218,816
1999	39,957,609	39,896,775	6,045,615	7,266,748	343,231	26,241,181
2000	51,199,190	51,033,649	8,259,465	9,531,446	734,240	32,508,498
2001	38,553,045	38,241,340	10,373,046	7,672,062	809,355	19,386,877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연도 year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Software & Computer Related Service				
	패키지소프트웨어 서비스 Packaged Software	컴퓨터관련 서비스 Computer Service	디지털컨텐츠 개발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데이터베이스 제작 DataBase Pro- duction Services, Database Searcher	
1996	21,529	9,529	11,971	-	-
1997	51,497	9,661	41,812	24	-
1998	52,812	8,488	41,360	2,964	-
1999	60,834	23,621	34,801	2,388	24
2000	165,541	39,978	88,871	36,128	564
2001	311,705	74,499	121,647	114,899	660

연도 year	수입 합계 total import of IT	정보통신기기 Information & 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기기 Communicating Equipment	정보기기 Information system	방송기기 Broadcasting equipment	부품 electronic component	
1996	19,593,656	19,243,747	2,358,209	2,519,533	102,762	14,263,243
1997	21,892,591	21,484,095	2,361,560	2,293,822	147,777	16,680,936
1998	18,238,525	18,023,167	1,430,815	1,470,015	147,713	14,974,624
1999	26,539,410	26,189,762	2,600,331	3,122,365	75,790	20,391,246
2000	35,471,615	34,920,650	4,516,798	5,110,296	120,832	25,172,724
2001	27,917,853	27,312,082	3,290,627	3,989,178	105,173	19,927,106

연도 year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Software & Computer Related Service				
	패키지소프트웨어 서비스 Packaged Software	컴퓨터관련 서비스 Computer Service	디지털컨텐츠 개발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데이터베이스 제작 DataBase Prod- uction Services, Database Searcher	
1996	349,909	341,496	6,764	-	1,649
1997	408,496	404,488	3,846	-	162
1998	215,358	199,852	15,232	263	11
1999	349,648	321,045	28,309	267	27
2000	550,965	504,211	45,757	917	80
2001	605,771	514,055	86,827	4,762	127

〈표 3-8-5〉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단위: 억원)  
 Production of IT Industry(unit: 100 million won)

연도 year	합계 total production of IT industry	정보통신서비스 Telecommunication Services				
		기간통신 서비스 -Based Telecommunicati on services	별정통신 서비스 Resale services	부가통신 서비스 Value addedBroadcasti ng Communi- cation services	방송서비스 Communicati on service	
1997	412,772	111,129	72,773	-	12,734	25,734
1998	399,767	105,370	66,604	460	13,404	24,902
1999	442,629	99,348	59,682	1,515	13,751	24,400
2000	540,222	104,574	58,806	3,257	16,208	26,303
2001	495,674	106,721	53,127	6,349	19,719	27,526

연도 year	정보통신기기 Information & 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기기 Communicating Equipment	정보기기 Information system	방송기기 Broadcasting equipment	부품 electronic component	
1997	255.305	46.453	35,556	6,281	164,015
1998	243.910	44.907	32,551	5,811	160,641
1999	280.601	55.769	40,140	7,446	177,246
2000	339.356	55.265	42,377	10,220	231,494
2001	270.458	43.180	34,800	8,496	183,982

연도 year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Software & Computer Related Service				
	패키지소프트웨어 서비스 Packaged Software	컴퓨터관련서비스 Computer Service	디지털컨텐츠개발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데이터베이스제작 TataBase Production Services, Database Searcher	
1997	46,338	11,217	33,928	N/S	1,193
1998	50,487	15,295	33,228	864	1,100
1999	62,680	15,357	44,216	1,817	1,290
2000	96,292	26,834	62,999	4,516	1,943
2001	118,495	38,600	66,529	10,844	2,522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주) 총종사자수는 연말기준자료이며, 해당사업체의 총종사자수가 아닌 정보통신부문 해당 총종사자수임

〈표 3-8-6〉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  
PC Supply per 1,000 Persons

단위 : 천대 In 1,000 units

연 도 Year	총 PC보급대수		기관별 보급대수 PC supply by organizational sector							
	Total PC supply	인 구 1,000명당 Per 1,000 persons (대)	개인· 가정 Personal, househ old	기업체 Private enterpris e	정부· 투자기관 Gov't, public investme nt organiza tion	금융 기관 Financial interme diaries	교육 기관 Educatio nal institutes	연구 기관 Research Institutes	의료 기관 Hospital	기 타 <sup>1)</sup> Others
1992	911	20.8	360	197	59	87	83	37	6	83
1993	1 294	29.3	314	371	176	99	167	43	16	108
1994	1 532	34.3	418	429	183	135	187	69	38	73
1995	1 654	36.7	556	454	199	139	163	79	28	36
1996	1 866	41.0	616	529	315	-	78	-	-	328
1997	1 921	41.8	676	502	350	-	163	-	-	230
1998	1 851	40.0	665	427	259	-	339	-	-	161
1999	2 881	61.8	974	812	289	-	371	-	-	435
2000	4 602	97.9	1 917	1 245	366	-	396	-	-	678
2001	3 834	81.0	1 846	798	324	-	334	-	-	532
2002	3 604	75.7	-	-	-	-	-	-	-	-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www.eiak.org)

주 : 1) 1996년 이후 금융, 연구, 의료기관 포함

〈표 3-8-7〉 전화 가입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Telephone Supply Rate, Mobile Telecommunication & Broadband Internet Service  
 Subscribers

연도 Year	전화가입자수 <sup>1)</sup>		이동전화 가입자수 <sup>2)</sup>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Telephone subscribers (In 1,000 persons)	인구백명당 per 100 persons	Mobile telephone subscribers	인구만명당 Per 10,000 persons	broadband internet service subscribers	인구만명당 Per 10,000 persons
1984	5 595	13.8	2 658	0.7	-	-
1985	6 517	16.0	4 685	1.1	-	-
1986	7 521	18.2	7 093	1.7	-	-
1987	8 625	20.7	10 265	2.5	-	-
1988	10 306	24.5	20 353	4.8	-	-
1989	11 792	27.8	39 718	9.4	-	-
1990	13 276	31.0	80 005	18.7	-	-
1991	14 573	33.7	166 198	38.4	-	-
1992	15 593	35.6	271 868	62.1	-	-
1993	16 633	37.6	471 784	106.8	-	-
1994	17 647	39.5	960 258	215.1	-	-
1995	18 600	41.2	1 641 293	364.0	-	-
1996	19 601	43.1	3 180 989	698.7	-	-
1997	20 422	44.4	6 828 169	1 485.9	-	-
1998	20 089	43.4	13 982 477	3 020.8	-	-
1999	21 250	45.6	23 442 724	5 028.8	-	-
2000	21 932	46.7	26 816 398	5 704.6	3 870 293	823.3
2001	22 725	48.0	29 045 596	6 135.2	7 805 515	1 648.7
2002	23 490	49.3	32 342 493	6 789.0	10 405 486	2 184.2
2003	22 877	47.7	33 591 758	7 009.2	11 178 499	2 332.5

자료 : 정보통신부(www.mic.go.kr)

주 : 1) 1999년 이후 일반전화, 집단, 전화, 자동착신방식, ISDN, 700을 합산한 추정치임  
 2) 1987년까지는 차량전화만을 집계

〈표 3-8-8〉 케이블 TV 가입 가구  
Cable TV Subscribers

단위 : 가구	In household		
	2 0 0 1	2 0 0 2	2 0 0 3 <sup>1)</sup>
전 국 Whole country	5 248 494	7 537 512	10 118 277
서 울 Seoul	1 460 124	1 893 666	2 170 134
부 산 Busan	553 709	689 858	865 147
대 구 Daegu	109 688	129 845	379 197
인 천 Incheon	465 248	529 714	593 061
광 주 Gwangju	258 111	288 847	417 752
대 전 Daejeon	244 888	313 419	430 982
울 산 Ulsan	84 411	103 781	173 378
경 기 Gyeonggi	853 574	1 232 806	2 004 217
강 원 Gangwon	106 340	270 709	304 578
충 북 Chungbuk	253 592	288 941	379 637
충 남 Chungnam	96 857	111 451	295 962
전 북 Jeonbuk	95 454	127 870	232 629
전 남 Jeonnam	134 217	359 339	391 676
경 북 Gyeongbuk	278 034	514 837	638 518
경 남 Gyeongnam	212 373	615 362	763 610
제 주 Jeju	41 874	67 067	77 799

자료 :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주 : 1) 2003년 6월 현재



〈표 3-8-9〉 위성방송 가입 가구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 Subscribers

단위 : 가구	In household	
	2 0 0 2	2 0 0 3 <sup>1)</sup>
전 국 Whole country		
서 울 Seoul		
부 산 Busan		
대 구 Daegu		
인 천 Incheon		
광 주 Gwangju		
대 전 Daejeon		
울 산 Ulsan		
경 기 Gyeonggi		
강 원 Gangwon		
충 북 Chungbuk		
충 남 Chungnam		
전 북 Jeonbuk		
전 남 Jeonnam		
경 북 Gyeongbuk		
경 남 Gyeongnam		
제 주 Jeju		

자료 : 방송위원회

주 : 1) 2003년 6월 현재

〈표 3-8-10〉 인터넷이용률  
Percentage of Internet Users

단위 : %							%
전	체	Total					
성	별	Sex					
남	자	Male					
여	자	Female					
연	령	Age					
6 ~ 19	세	6 ~ 19 Years					
20 ~ 29	대	20 ~ 29					
30 ~ 39	대	30 ~ 39					
40 ~ 49	대	40 ~ 49					
50 ~ 59	대	50 ~ 59					
60 대 이	상	60 Years & over					
가	구 소	득 Household income					
100 만 원 미	만	Less than 1,000 thou. won					
1 0 0 ~ 2 0 0	0 0						
2 0 0 ~ 3 0 0	0 0						
3 0 0 ~ 4 0 0	0 0						
400 만 원 이	상	4,000 thou. won or more					
학	력	Educational attainment					
초	졸 이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중	졸	Middle school graduates					
고	졸	High school graduates					
대	졸 이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주 : 1)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조사대상은 만 6세 이상)

〈표 3-8-11〉 인터넷 호스트수 및 도메인수  
Number of Internet Host & Domain

단위 : 개 In number

연도 Year	계 Total	전문대 이상 대학 및 대학원 Academic institutes (ac.kr)	기업 및 상용기관 Private enterprise (co.kr)	중앙정부 기관 Gov't public investment organization (go.kr)	NT운영 기관 NT operating institutes (ne.kr)	비영리 기관 Non-profit institutes (or.kr)	연구기관 Research institutes (re.kr)	지역, 교육기관 Regional domain Education	개인 Person (pe.kr)
		호스트수 Number of host					Number of domain		
1995	36 644	13 659	15 050	87	967	96	6 785	0	-
1996	73 191	28 174	32 552	186	1 571	1 325	9 072	311	-
1997	131 005	69 230	42 979	363	1 460	3 096	12 296	1 581	-
1998	202 510	81 682	76 405	547	19 216	5 307	14 322	5 031	-
1999	460 974	-	-	-	-	-	-	-	-
2000	548 088	-	-	-	-	-	-	-	-
2001	694 206	-	-	-	-	-	-	-	-
1995	579	109	361	22	4	24	59	-	-
1996	2 664	206	2 069	38	10	143	86	112	-
1997	8 045	310	6 779	95	15	480	125	241	-
1998	26 166	395	23 764	132	43	1 274	171	387	-
1999	207 023	593	161 085	242	3 416	6 566	547	1 569	33 005
2000	517 354	831	454 597	699	5 991	16 127	922	6 296	31 891
2001	457 450	964	392 183	990	2 194	18 978	937	11 254	29 950
2002	515 200	1 092	440 498	1 199	3 373	24 581	1 231	12 055	31 171
2003 <sup>1)</sup>	549 402	1 153	471 022	1 335	4 363	28 387	1 480	12 797	28 865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isis.nic.or.kr)

주 : 1) 2003년 7월 31일 현재

〈표 3-8-12〉 인터넷 접속방식(중복응답)  
Kinds of Internet Access

단위 : %

연도 year	합계 total	전화모뎀 dial-up	ISDN ISDN	xDSL xDSL	케이블TV Cable TV	기타 others	모름 don't know
2003	100	2.1	1	83.5	12.4	0.5	0.5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표 3-8-13〉 전자상거래 규모  
Electronic commerce market

단위 : 십억원 (Unit : billion won)

연도 year	합계 total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E-commerce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 B2G E-commerce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B2C E-commerce

자료: 통계청 (www.nso.go.kr)

〈표 3-8-14〉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횟수

Experience of Internet Shopping & Number of Purchase the Last Six Months

단위 : %,

%, times

			인터넷 <sup>1)</sup> 이용자	인터넷 쇼핑 경험				월 평균 구매회수	없다	
			Internet users	있다 Yes	월 1회 미만 Less than 1 time per month	월 1-2회 1-2times per month	월 3회 이상 More than 3 times per month	무응답 Not response	No	
전	체	Total	100.0	32.0	50.6	35.6	12.9	0.9	2.1	68.0
성	별	Sex								
남	자	Male	100.0	27.4	51.1	35.7	12.3	0.9	2.0	72.6
여	자	Female	100.0	37.6	50.1	35.5	13.5	0.9	2.2	62.4
연	령	Age								
6 ~ 19	세	6 ~ 19 Years	100.0	13.5	67.0	22.2	8.5	2.3	1.6	86.5
20 ~ 29	대	20 ~ 29	100.0	51.0	46.8	37.6	15.2	0.4	2.2	49.0
30 ~ 39	대	30 ~ 39	100.0	40.1	47.2	38.5	13.3	0.9	2.1	59.9
40 ~ 49	대	40 ~ 49	100.0	25.6	52.6	36.7	9.6	1.1	2.1	74.4
50 ~ 59	대	50 ~ 59	100.0	21.0	62.6	30.7	6.1	0.7	2.3	79.0
60	대 이상	60 Years & over	100.0	17.1	54.8	25.6	19.6	0.0	1.2	82.9
가	구	소득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 thou. won	100.0	29.7	59.8	30.0	9.9	0.3	1.8	70.3
		1,000 ~ 2,000	100.0	28.4	53.0	35.3	10.6	1.1	1.7	71.6
		2,000 ~ 3,000	100.0	31.8	50.3	34.2	14.5	1.1	2.5	68.2
		3,000 ~ 4,000	100.0	35.6	46.8	39.6	12.9	0.7	2.3	64.4
		4,000 thou. won or more	100.0	37.8	51.2	35.4	12.9	0.5	1.4	62.2
학	력	Educational attainment								
		Educational attainment								
		초졸 이하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100.0	5.4	74.8	17.9	4.4	2.8	0.8	94.6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100.0	29.7	65.4	24.5	8.0	2.2	1.3	70.3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00.0	35.0	53.0	34.9	11.7	0.5	2.1	65.0
		대졸 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47.8	44.3	39.3	15.5	0.9	2.3	52.2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주 : 1) 12세 이상

〈표 3-8-15〉 인터넷쇼핑 구매품목(복수응답)

Purchase Goods or Services by Internet Shopping (multiple response)

단위 : %

%

		인터넷 쇼핑 이용자	예 약 예 매	도 서	가 전/ 자 제 품	컴퓨터/ 프로그램	의 류/ 개 인 잡 화	아 동/ 유 아 용 품	음 반/ 비 디 오 /CD	생 활/ 자 동 차 용 품	기 타 <sup>1)</sup>	
		Internet shopping users	Reser- vations	Books	Elec- tronics	Computer H/W, S/W	Clothing cosmetics	Children & baby products	Music video CD	Goods for household use & autos	Others	
전	총 Total	100.0	22.0	34.0	20.8	15.8	51.6	14.1	12.8	24.7	15.3	
성	별 Sex											
	남 ♂ Male	100.0	24.0	32.1	24.2	26.1	40.8	9.3	15.7	25.2	15.3	
여 ♀ Female		100.0	20.1	35.7	17.7	6.6	61.4	18.4	10.2	24.3	15.3	
연	령 Age											
	6 ~ 19	서 6 ~ 19 Years	100.0	13.7	31.0	12.7	17.0	50.5	0.2	20.4	9.5	8.3
	20 ~ 29	디 20 ~ 29	100.0	24.7	33.1	20.3	17.9	60.3	14.5	14.2	25.8	13.2
	30 ~ 39	디 30 ~ 39	100.0	22.7	37.1	24.1	13.3	43.6	23.1	9.4	28.6	18.6
	40 ~ 49	디 40 ~ 49	100.0	19.7	34.1	23.0	14.2	44.5	7.8	8.1	26.6	20.5
	50 ~ 59	디 50 ~ 59	100.0	21.4	28.9	15.4	8.8	40.6	0.0	11.0	25.5	20.0
	60대 이상	싱 60 Years & over	100.0	16.0	20.3	40.9	21.6	35.4	0.0	17.7	40.9	23.8
가 구 소	득 Household income											
	100만원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0	17.4	32.2	17.4	16.1	55.1	4.5	10.8	19.5	11.0
	100~200		100.0	16.6	31.0	18.7	14.8	51.9	16.6	13.3	24.5	13.4
	200~300		100.0	22.2	32.9	21.6	15.1	50.6	16.1	12.5	17.2	14.3
	300~400		100.0	25.4	36.7	23.5	17.9	51.2	11.8	12.6	23.4	19.2
400만원이상	4,000 thou. won or more	100.0	30.5	40.7	18.3	15.8	55.3	11.1	13.0	24.0	16.4	
학	력 Educational attainment											
	초졸 이하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100.0	13.1	28.5	12.8	22.1	36.4	0.0	19.6	10.1	9.0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100.0	10.6	32.8	15.0	15.3	51.5	1.4	18.8	12.6	8.8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00.0	18.8	29.5	19.7	14.9	56.1	11.4	12.7	24.4	12.8
	대졸 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27.3	38.6	23.4	16.3	49.1	19.4	11.3	28.1	18.9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주 : 1) 식음료, 사무/문구 포함

〈표 3-8-16〉 인터넷상거래 지출액 (2002년)  
8- amount Paid for e-commerce Transaction

단위: %		unit: %							
		인터넷상거래 이용자 e-commerce transactions %	10만원 미만 less than 100 thou. Won %	10~ 20만원 %	20~ 30만원 %	30~ 50만원 %	50~ 100만원 %	100~ 200만원 %	200만원 이상 2,000 thou. Won or more %
계		100	27.9	24.8	13.7	13.4	10.6	6.6	3.1
남자	Male	100	23.6	24	13.7	14.6	11.6	8.2	4.3
여자	Female	100	32.1	25.5	13.8	12.2	9.5	5	1.9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 under	100	29.2	38	16.9	8.2	7	0.7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100	51.4	26.8	9.5	7.2	3	1.4	0.6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00	32	25.5	13.7	12.9	8.4	5	2.5
대졸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	20.9	23.7	14.3	14.8	13.6	8.8	3.9
15-19세	15 ~ 19 Years	100	53.8	26.5	8.6	7.3	2.4	1	0.3
20-29세	20 ~ 29	100	28.1	26.5	14.3	13.4	9.5	5.7	2.6
30-39세	30 ~ 39	100	21	22.2	13.8	16	14.5	8.4	4.2
40-49세	40 ~ 49	100	19.9	23.5	16.3	13.2	12.4	9.9	4.9
50-59세	50 ~ 59	100	21.1	25.3	16.2	10.4	12.3	11.1	3.5
60세 이상	60 Years & over	100	21.2	20.3	11.6	25.5	14.9	5.8	0.8
전문관리 행정	pro., tech., managers	100	20.3	21.1	14.8	15.2	14.4	9.8	4.4
사무직	clerks	100	22.1	27.3	15.8	13.6	10.8	6.8	3.6
서비스판매	service & sales workers	100	26.9	23.4	13.8	13.4	11.7	6.4	4.4
농림어업직	agri., fishery workers	100	18.6	28.2	24.4	10.4	7.3	5.8	5.2
기능노무직	craft, operators, assemblers	100	24.1	24.6	15.3	14.2	10.8	7.6	3.5
100만원 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	32.8	27.4	11.4	12.7	9.4	4.8	1.5
100~200만원 미만		100	31.2	25.4	14	12.7	8.7	5.4	2.6
200~300만원 미만		100	28.2	24.8	15.1	12.2	10.4	6.7	2.7
300~400만원 미만		100	27.4	24	12.9	14.9	11.2	7.2	2.5
400~500만원 미만		100	20.1	23.6	14.9	13.6	14.3	8.2	5.3
500만원이상	500 thou. won or more	100	16.6	22.7	15.3	13.4	14.7	9.8	7.5

자료 : 정보화실태조사, 통계청

주 : 6개월간 (2001.9.1-2002.2.28)의 인터넷상거래 금액이며 소득은 가국의 전체소득임

〈표 3-8-18〉 유료콘텐츠 이용경험, 이용종류

단위 : %

	인 터 넷 <sup>1)</sup> 이 용 자 Internet users	있 음	온라인 게 임	성인물	영 화/ 방 송	교육용 콘텐츠	뉴 스/ 신 문
		Yes	Online games	Adult- only	Monies & TV program	Educational contents	Newspapers &magazines
전 성	100.0	13.7	13.7	8.2	37.4	21.4	12.5
남 자	100.0	15.3	54.0	10.8	36.2	16.2	16.2
여 자	100.0	11.6	36.6	3.9	39.3	29.9	6.5
연 령							
6 ~ 19 세	100.0	12.6	67.4	2.9	32.4	22.5	3.7
2 0 대	100.0	18.5	50.6	5.8	45.2	18.2	8.1
3 0 대	100.0	13.8	34.9	13.4	34.3	25.7	19.7
4 0 대	100.0	8.0	37.5	12.9	25.8	25.7	21.0
5 0 대	100.0	6.9	42.1	7.2	15.4	4.3	33.5
60 대 이상	100.0	4.3	30.1	8.6	30.1	0.0	23.4
가 구 소 득							
100만원미만	100.0	13.6	54.4	8.4	49.3	13.6	7.8
100 ~ 200	100.0	13.3	54.3	11.0	37.3	18.9	13.0
200 ~ 300	100.0	12.8	42.8	7.0	37.2	23.4	10.1
300 ~ 400	100.0	14.8	44.9	6.9	35.4	22.6	15.3
400만원이상	100.0	16.0	44.0	5.9	37.7	22.7	16.3
학 령							
초 졸 이하	100.0	10.9	76.5	3.5	26.4	14.6	4.0
중 졸	100.0	12.4	62.3	3.5	30.7	29.6	4.9
고 졸	100.0	13.0	53.1	10.2	41.4	14.5	9.9
대 졸 이상	100.0	15.4	33.9	8.1	36.7	27.9	18.1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주 : 1) 12세이상



Experience of Paid Internet Contents the Last Six Months & The Kind of Paid Internet Contents(multiple response)

%

증권 정보 Stock-related information	메일용량추가/ 사이버저장공간 For e-mail or virtual file storages space	업무/연구 목적자료 Business or research related	커뮤니티/ 동호회 Virtual community	음악 Music	기타 Others	없음 No	
7.7	14.3	16.6	23.6	22.9	6.2	86.3	Total
							Sex
9.4	16.5	20.8	20.3	19.5	5.6	84.7	Male
4.9	10.8	9.8	28.9	28.5	7.3	88.4	Female
							Age
0.3	17.6	2.1	32.6	28.9	7.7	87.4	6 ~ 19 Years
3.0	15.1	14.2	27.3	25.1	5.4	81.5	20 ~ 29
13.1	11.8	26.2	15.6	16.6	5.1	86.2	30 ~ 39
21.8	13.2	21.9	16.0	20.9	8.9	92.0	40 ~ 49
18.1	14.5	17.3	20.3	26.2	14.6	93.1	50 ~ 59
37.9	0.0	69.9	23.4	0.0	0.0	95.7	60 Years & over
							Household income
2.8	7.6	16.7	30.3	22.8	6.6	86.4	Less than 1,000 thou. won
6.8	13.3	14.2	21.7	21.1	6.4	86.7	
7.1	15.3	14.3	24.5	23.6	6.4	87.2	
10.7	15.0	18.1	21.0	24.3	5.8	85.2	
9.2	15.6	23.8	28.0	23.8	6.8	84.0	4,000 thou. won or more
							Educational attainment
0.0	18.4	2.1	32.6	30.8	7.9	89.1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1.0	18.1	3.4	31.9	28.0	8.5	87.6	Middle school
							graduates
4.8	13.5	9.9	25.0	26.0	5.3	87.0	High school
							graduates
13.1	13.8	28.6	18.9	17.2	6.5	84.6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표 3-8-19〉 컴퓨터 이용시간(주평균)  
Hours Used on Computer(average hours per week)

단위 : %,

%, times

			컴퓨터 사용자 Computer users	1시간 미만 Less than 1 hour	1 ~ 2	2 ~ 4	4 ~ 10	10시간 이 상 10hours & over	모름/ 무응답 Don't know/ Not Response	평 균 이용시간 Average hours per week
전	체	Total	100.0	4.0	4.3	13.8	24.9	52.8	0.1	15.2
성	별	Sex								
남	자	Male	100.0	3.0	3.6	11.3	22.6	29.3	0.1	17.0
여	자	Female	100.0	5.3	5.2	16.9	27.8	44.7	0.1	13.0
연	령	Age								
6 ~ 19	세	6 ~ 19 Years	100.0	1.8	4.0	14.2	30.3	49.7	0.1	11.8
2 0	대	20 ~ 29	100.0	2.3	2.0	7.8	19.7	68.1	0.1	20.4
3 0	대	30 ~ 39	100.0	4.5	4.6	15.0	25.4	50.3	0.1	16.7
4 0	대	40 ~ 49	100.0	9.4	7.7	19.9	23.0	40.0	0.1	11.6
5 0	대	50 ~ 59	100.0	8.7	8.5	21.5	23.3	37.7	0.3	10.5
60 대 이	상	60 Years & over	100.0	7.7	6.2	14.7	25.9	45.4	0.0	13.3
가 구 소	득	Household income								
100 만원 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0	4.8	6.0	12.8	22.7	53.5	0.2	15.7
1 0 0 ~ 2 0 0			100.0	4.3	5.1	13.5	24.6	52.5	0.0	14.6
2 0 0 ~ 3 0 0			100.0	4.3	3.7	14.5	26.5	51.0	0.1	14.8
3 0 0 ~ 4 0 0			100.0	3.2	4.3	13.3	24.0	55.0	0.2	15.7
400 만원 이상		4,000 thou. won or more	100.0	3.1	3.8	13.8	23.0	56.1	0.2	16.9
학	력	Educational attainment								
초 졸 이	하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100.0	1.8	4.3	14.8	31.6	47.0	0.1	11.0
중	졸	Middle school graduates	100.0	4.4	5.9	16.1	27.4	46.2	0.0	11.3
고	졸	High school graduates	100.0	5.7	5.2	15.2	23.1	50.7	0.1	14.7
대 졸 이	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3.5	2.8	10.8	21.8	60.9	0.1	19.8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표 3-8-20〉 컴퓨터 이용목적(복수응답)  
Use of Computer by Purpose(multiple response)

단위 : %

%

			컴퓨터 사용자 Computer users	PC통신 인터넷 Internet	자판 연습 Typing practice	게임 오락 Game	업무 수행 Business	정보자료 관리 Data base	교육(학습) 관련 Education	그래픽, 프로그램 개발 Write software (graphic)	기타 Others
전체	Total		100.0	72.8	13.3	60.6	24.1	46.4	33.4	5.0	4.0
성별	Sex										
남자	Male		100.0	71.4	11.3	65.2	28.5	48.9	26.0	6.4	3.5
여자	Female		100.0	74.5	15.9	55.1	18.6	43.5	42.5	3.4	4.6
연령	Age										
6 ~ 19세	6 ~ 19 Years		100.0	63.8	20.2	83.8	5.4	25.8	52.8	2.6	3.0
20 ~ 29대	20 ~ 29		100.0	84.7	5.4	58.3	29.2	58.6	27.1	7.5	2.9
30 ~ 39대	30 ~ 39		100.0	74.5	10.7	48.4	34.4	53.6	28.7	6.1	4.6
40 ~ 49대	40 ~ 49		100.0	69.9	15.7	42.7	34.1	55.1	19.4	4.7	5.7
50 ~ 59대	50 ~ 59		100.0	63.8	17.5	41.9	33.1	48.9	12.2	3.4	8.3
60대 이상	60 Years & over		100.0	69.4	23.7	44.8	26.9	47.3	8.5	2.6	8.6
가구소득	Household income										
100만원 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0	75.5	13.6	64.5	14.9	44.1	32.3	6.4	5.2
100 ~ 200			100.0	70.3	14.4	65.2	20.9	43.5	31.9	4.1	3.4
200 ~ 300			100.0	72.2	13.2	60.7	24.2	45.7	34.2	4.9	3.7
300 ~ 400			100.0	72.8	12.6	58.0	28.3	49.3	36.0	5.2	4.9
400만원 이상	4,000 thou. won or more		100.0	80.8	10.8	48.9	31.8	53.9	31.4	7.2	4.4
학력	Educational attainment										
초졸 이하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100.0	57.3	26.0	87.5	3.4	18.8	53.7	1.8	2.8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100.0	78.4	8.7	68.4	10.7	42.6	42.9	4.6	3.9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00.0	74.9	12.5	60.7	22.5	50.4	25.9	4.6	4.8
대졸 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80.0	6.2	39.1	44.3	62.9	25.4	8.1	3.9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표 3-8-22〉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  
Use of Internet by Purpose(multiple response)

단위 : %

%

			인터넷 이용자 Internet users	자 료 정 보 검 색 Infor- mation	메 일 사 용 E-mail	쇼 핑 예 약 Internet shopping	채 팅 메 신 저 Chatting or mess- enger	게 임 Games	인 터 넷 뱅 킹 Internet banking	학 습 Edu- cation	오 락 Entert- ainment	신 문 스 잡 지 News	기 타 <sup>1)</sup> Others
전	체	Total	100.0	71.6	54.9	13.5	14.2	50.0	10.3	15.1	17.9	15.6	9.5
성	별	Sex											
	남	자 Male	100.0	73.5	52.7	7.7	13.0	57.2	10.4	11.9	17.4	18.9	9.5
	여	자 Female	100.0	69.3	57.7	20.6	15.7	41.1	10.2	19.0	18.5	11.5	9.5
연	령	Age											
	6 ~ 19	세 6 ~ 19 Years	100.0	56.1	51.2	3.3	24.1	74.6	0.7	24.7	22.5	1.9	7.0
	20	대 20 ~ 29	100.0	78.1	65.7	18.9	17.3	43.0	9.9	12.7	18.9	11.8	12.5
	30	대 30 ~ 39	100.0	78.8	54.4	19.5	6.2	38.7	16.6	11.0	16.0	24.9	9.3
	40	대 40 ~ 49	100.0	79.4	47.4	16.0	4.0	35.5	18.4	8.9	11.5	31.3	9.0
	50	대 50 ~ 59	100.0	74.3	42.6	8.5	4.9	33.3	17.2	6.4	10.7	32.7	10.6
	60대 이	상 60 Years & over	100.0	69.6	43.8	9.7	7.3	34.9	16.0	6.1	11.8	21.8	13.0
가	구	소득 Household income											
	100만원 미	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0	71.3	57.8	12.5	19.9	55.4	4.4	16.5	18.1	12.1	10.2
	100~200		100.0	69.2	52.2	12.7	13.2	54.6	7.9	14.6	19.7	15.4	8.4
	200~300		100.0	73.1	53.1	13.9	12.9	50.9	11.3	15.1	17.0	15.8	8.8
	300~400		100.0	71.3	59.5	14.5	14.3	45.5	12.7	16.7	16.5	16.1	9.7
	400만원이	상 4,000 thou. won or more	100.0	73.6	60.1	13.1	17.1	38.3	13.7	13.6	16.3	17.9	14.6
학	력	Educational attainment											
	초졸이	하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100.0	51.2	46.8	2.0	19.5	81.5	0.6	26.9	21.4	1.3	5.0
	중	졸 Middle school graduates	100.0	69.8	58.1	8.7	31.2	54.9	2.7	16.8	24.4	6.2	9.2
	고	졸 High school graduates	100.0	73.2	53.3	16.7	13.0	48.7	9.5	11.3	18.2	16.9	11.0
	대졸이	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84.8	61.8	19.0	7.7	27.9	20.0	10.8	13.1	26.6	10.9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주 : 1) 인터넷폰, 동호회 포함

〈표 3-8-23〉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수  
Internet Banking Service Registration

단위 : 천명, 천개사

(Unit : 1000 persons, 1000 firms)

연도 year	합계 total	개인 individuals	기업 firms

자료 : 한국은행 ([www.bok.or.kr](http://www.bok.or.kr))

주1 : 18개 국내은행과 씨티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 및 우체국

주2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은 포함

〈표 3-8-24〉 통신서비스 지출비용  
 Monthly Average Expense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단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회선 월평균 지출비용				
		인터넷전용회선 접속가구				
		2만원 미만	2-3만원	3-5만원	5만원 이상	
성별	sex					
남자	male	100	1.5	29.8	66.6	2.1
여자	female	100	1.4	30.7	65.7	2.1
학력	education attainment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 under	100	1.3	32.7	64.6	1.4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	100	1.2	33.3	64.2	1.2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00	1.5	29.9	67	1.7
대졸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	1.6	28	67.2	3.2
연령	age					
19세이하	6 ~ 19 Years	100	2.8	29.3	68	-
20-29세	20 ~ 29	100	1.7	28.6	67.4	2.3
30-39세	30 ~ 39	100	1.4	31.1	65.8	1.8
40-49세	40 ~ 49	100	1.5	29.7	66.4	2.4
50-59세	50 ~ 59	100	1.3	30.7	66.1	2
60세이상	60 Years & over	100	2	26.6	69.7	1.7
소득	Household income					
100만원미만		100	1.8	33	64.1	1.1
100~200만원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	1.7	31.6	65.4	1.4
200~300만원미만		100	1.4	29	67.8	1.7
300~400만원미만		100	1.3	29.6	65.8	3.3
400~500만원미만		100	0.6	26.9	68.3	4.3
500만원이상	5,000 thou. won or more	100	1.5	22.2	70.2	6.1

자료 :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주) 표측은 가구주에 대한 사항이며, 소득은 가구의 전체소득임

		전화 월평균 지출 비용					
		전화보유가구					
			2만원 미만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만원 이상
성별	sex						
남자	male	100	38.4	33.8	19.8	7.1	0.9
여자	female	100	58.7	24.9	11.4	4.5	0.5
학력	education attainment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 under	100	65.6	23	8.7	2.5	0.2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	100	42.2	33.9	17.6	5.8	0.5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100	36.8	35.2	19.8	7.3	0.9
대졸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	31.9	33.5	24	9.3	1.3
연령	age						
19세이하	6 ~ 19 Years	100	60.5	23.9	11.7	3.9	-
20-29세	20 ~ 29	100	51	29.8	14.8	3.9	0.5
30-39세	30 ~ 39	100	40.1	36.5	18.2	4.8	0.5
40-49세	40 ~ 49	100	29.8	35.9	23.2	9.7	1.4
50-59세	50 ~ 59	100	37.2	32.6	20.4	8.9	0.9
60세이상	60 Years & over	100	65.9	21.5	9.5	2.8	0.2
소득	Household income						
100만원미만		100	71.6	20.1	6.3	1.8	0.2
100~200만원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	41.4	36.3	17.1	4.8	0.5
200~300만원미만		100	30.3	36.9	23.9	8	0.8
300~400만원미만		100	24.4	33.7	27.3	13.2	1.4
400~500만원미만		100	23.3	29.6	28.4	15.6	3.1
500만원이상	5,000 thou. won or more	100	15	28	31.7	19.8	5.5



(unit:%)

이동전화 월평균 지출비용						
이동전화보유가구	2만원 미만	2 - 3만원	3 - 5만원	5 - 10만원	10 - 20만원	20만원 이상
100.0	5.5	15.2	26.1	34.2	16.2	2.8
100.0	8.8	20.4	27.3	28.8	12.6	2.0
100.0	12.5	24.3	25.0	24.2	12.0	1.9
100.0	7.8	18.8	24.9	30.3	15.5	2.6
100.0	4.6	14.9	26.6	35.1	16.0	2.8
100.0	4.6	13.0	27.4	35.8	16.5	2.7
100.0	3.3	29.1	39.5	15.5	12.3	0.3
100.0	1.7	11.7	31.1	38.8	14.1	2.6
100.0	4.6	18.3	30.9	34.1	10.8	1.4
100.0	4.8	13.8	24.0	34.8	19.1	3.5
100.0	6.1	13.6	21.1	33.2	22.0 4.0	4.0
100.0	17.9	25.6	26.0	22.0	7.6 0.9	0.9
100.0	15.7	29.7	29.5	19.9	4.7	0.5
100.0	6.0	18.1	30.6	32.9	11.0	1.5
100.0	3.1	11.3	23.0	39.1	20.5	2.9
100.0	2.4	8.0	20.4	38.0	26.0	5.1
100.0	2.0	6.0	18.1	37.5	28.6	7.7
100.0	2.2	4.1	16.0	31.0	36.0	10.7

〈표 3-8-25〉 필요 정보 입수경로(복수응답)  
Sources of Getting Needed Information (multiple response)

단위 : %

%

		12세이상 인 구 12 Years & over	방 송 Broad- cast media	신 문 News- papers	생 활 정보지 Free publ- ications on daily life	서 적 잡 지 Book magazines	PC통신 및 인터넷 Internet	공 공 기 관 Public agencies	가 족 동 료 친 구 Family friends colleagues	기 타 Others
전	체 Total	100.0	92.1	43.2	4.9	10.2	44.1	2.5	46.4	0.6
성	별 Sex									
남	자 Male	100.0	91.6	53.1	3.1	8.0	49.9	2.9	42.0	0.4
여	자 Female	100.0	92.7	33.3	6.7	12.4	38.2	2.1	50.8	0.8
연	령 Age									
6 ~ 19	세 6 ~ 19 Years	100.0	85.8	15.0	1.8	12.9	69.9	1.1	45.6	0.5
2 0	대 20 ~ 29	100.0	86.1	38.4	6.1	17.6	78.3	1.5	37.6	0.3
3 0	대 30 ~ 39	100.0	92.3	57.6	6.0	11.1	55.6	2.0	37.2	0.6
4 0	대 40 ~ 49	100.0	95.6	61.9	6.4	8.4	27.6	3.2	48.9	0.6
5 0	대 50 ~ 59	100.0	97.2	48.0	4.6	5.3	11.4	3.8	56.2	0.6
60 대 이	상 60 Years & over	100.0	97.4	23.5	2.6	2.1	2.6	4.1	62.6	1.2
가 구 소	득 Household income									
100만원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0	96.0	20.5	4.2	5.6	20.1	3.5	61.2	1.0
100 ~ 200		100.0	92.4	40.4	5.1	10.6	43.6	3.1	48.0	0.7
200 ~ 300		100.0	91.6	48.2	5.4	11.0	49.5	1.9	44.2	0.3
300 ~ 400		100.0	90.3	54.6	5.0	11.6	52.6	2.6	39.2	0.8
400만원이상	4,000 thou. won or more	100.0	89.7	58.1	3.3	13.0	57.0	0.9	34.8	0.4
학	력 Educational attainment									
초 중 이	하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100.0	94.1	12.2	2.4	4.6	20.9	3.1	57.8	1.2
중	졸 Middle school graduates	100.0	93.1	31.1	4.6	8.1	35.4	3.0	59.4	0.5
고	졸 High school graduates	100.0	92.7	50.2	6.3	11.9	44.8	2.4	46.5	0.5
대 중 이	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00.0	89.2	63.2	4.9	13.1	66.6	1.8	30.8	0.3

〈표 3-8-26〉 정보화의 영향

단위 : %

	인터넷) 이용자 Internet users	생활이 편리해졌다 Life has become more convenient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 There is greater invasion of privacy				
		그렇다 Agree	전과 비슷 하다 Same as before	그렇지 않 다 Disagree	모르겠다 무응답 Don't know /not response	그렇다 Agree	전과 비슷 하다 Same as before	그렇지 않 다 Disagree	모르겠다 무응답 Don't know /not response	
전 성	채 별	100.0	81.7	9.9	2.3	6.0	55.2	18.9	13.0	13.0
남	자	100.0	81.8	10.1	2.4	5.7	54.9	20.2	12.6	12.4
여	자	100.0	81.7	9.7	2.2	6.5	55.5	17.3	13.5	13.7
연	령									
6 ~ 19	세	100.0	72.4	7.2	2.0	18.3	43.1	17.6	13.0	26.3
2 0	대	100.0	87.0	9.0	2.2	1.9	60.2	18.4	13.2	8.2
3 0	대	100.0	83.7	11.4	2.3	2.6	59.1	19.3	12.3	9.3
4 0	대	100.0	80.9	11.5	2.7	4.8	55.5	20.7	12.6	11.3
5 0	대	100.0	79.3	13.5	3.2	4.0	55.4	19.1	14.1	11.4
60	대 이상	100.0	83.8	12.1	0.9	3.3	39.1	17.0	26.6	17.3
가	구 소 득									
100	만원미만	100.0	79.9	10.8	4.0	5.3	50.3	19.9	15.9	13.8
100	~ 200	100.0	80.2	11.2	2.7	5.8	51.5	19.4	15.3	13.8
200	~ 300	100.0	81.2	10.5	2.1	6.3	55.5	18.8	12.3	13.4
300	~ 400	100.0	82.9	8.6	1.8	6.7	58.3	18.8	11.1	11.8
400	만원이상	100.0	87.7	6.2	1.6	4.4	61.3	18.0	10.2	10.4
학	력									
초	졸 이하	100.0	62.9	6.0	1.9	29.2	33.4	15.0	12.3	39.2
중	졸	100.0	82.1	10.4	2.1	5.4	53.3	19.5	16.0	11.2
고	졸	100.0	82.5	11.4	2.8	3.4	54.7	20.6	14.4	10.4
대	졸 이상	100.0	86.9	9.4	1.9	1.8	63.2	18.0	10.9	7.9

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주 : 1) 12세이상

주변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There is more opportunities for work				소외화, 비인간화를 많이 느꼈다 I feel more alienated and isolated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has narrowed			
그렇다 Agree	전과 비슷하다 Same as before	그렇지 않다 Disagree	모르겠다 무응답 Don't know /not response	그렇다 Agree	전과 비슷하다 Same as before	그렇지 않다 Disagree	모르겠다 무응답 Don't know /not response	그렇다 Agree	전과 비슷하다 Same as before	그렇지 않다 Disagree	모르겠다 무응답 Don't know /not response
21.6	24.8	27.3	26.4	28.1	23.3	26.3	22.3	5.2	22.2	42.3	30.2
21.7	26.0	27.5	24.7	28.0	24.6	26.2	21.3	5.4	23.4	42.4	28.8
21.3	23.3	26.9	28.4	28.2	21.7	26.4	23.7	5.1	20.7	42.2	32.0
17.3	19.2	18.9	44.6	20.2	18.9	22.1	38.9	5.2	18.7	25.6	50.6
26.3	25.8	28.0	20.0	30.8	24.0	28.4	16.9	5.3	22.0	47.8	24.9
22.4	26.4	29.6	21.6	31.2	24.9	26.2	17.8	4.9	23.8	47.3	24.0
17.9	26.0	31.3	24.7	27.5	25.5	26.5	20.5	5.2	23.6	44.4	26.8
18.6	31.0	30.8	19.6	29.4	22.3	29.7	18.6	6.0	27.6	44.3	22.1
16.6	23.3	30.8	29.3	27.3	20.6	31.7	20.4	8.9	16.4	42.8	31.9
20.2	25.8	25.9	28.1	24.6	23.3	24.9	27.2	6.9	21.8	38.9	32.3
19.5	25.2	28.7	26.6	26.8	24.6	26.6	22.0	5.1	23.5	42.1	29.2
21.7	24.5	27.3	26.5	27.5	22.5	27.4	22.5	5.3	21.5	42.7	30.5
24.2	24.4	25.6	25.8	28.6	24.1	26.2	21.1	4.6	23.0	42.5	29.8
23.4	25.7	27.0	23.9	34.8	22.4	23.0	19.8	5.0	20.9	43.5	30.6
13.5	16.2	15.4	54.9	16.5	14.9	19.3	49.3	4.5	15.3	20.1	60.1
19.4	21.7	26.5	32.4	22.9	23.8	25.6	27.7	6.0	22.5	32.1	39.4
20.9	25.8	29.8	23.6	28.3	24.1	28.3	19.4	5.5	22.9	45.0	26.6
25.5	27.2	28.4	18.9	32.8	25.1	26.4	15.8	4.9	23.5	49.1	22.6

지역문화수준 격차가 줄어들었다 The cultural gap among regions has been narrowed				
그렇다 Agree	전 과 비슷하다 Same as before	그렇지 않 다 Disagree	모르겠다 무응답 Don't know /not response	
23.2	25.2	25.7	25.9	Total
				Sex
23.5	26.0	25.5	24.9	Male
22.7	24.2	25.8	27.2	Female
				Age
15.9	19.9	18.3	45.9	6 ~ 19 Years
25.7	26.4	26.8	21.0	20 ~ 29
24.8	26.5	29.3	19.4	30 ~ 39
23.6	27.1	27.0	22.2	40 ~ 49
26.0	27.8	25.1	21.1	50 ~ 59
30.4	20.5	24.7	24.3	60 Years & over
				Household income
22.8	29.3	20.9	27.1	Less than 1,000 thou. won
22.1	26.6	25.3	26.1	
22.9	24.2	26.9	26.0	
24.1	25.0	25.3	25.7	
26.3	23.5	25.9	24.3	4,000 thou. won or more
				Educational attainment
12.2	16.8	15.0	56.0	Educational attainment graduates & under
20.7	23.8	22.2	33.3	Middle school graduates
21.9	26.4	28.4	23.3	High school graduates
28.6	27.1	26.9	17.4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표 3-8-27〉 정보화 격차  
Digital Divide

단위 : %		%	
		컴퓨터 이용율	인터넷 이용율
		computer use	internet use
계			
남자	Male		
여자	Female		
초졸이하	Elementary school graduates & under		
중졸	Middle school graduates		
고졸	High school graduates		
대졸이상	College, university graduates & over		
15-19세	15 ~ 19 Years		
20-29세	20 ~ 29		
30-39세	30 ~ 39		
40-49세	40 ~ 49		
50-59세	50 ~ 59		
60세 이상	60 Years & over		
전문관리행정	pro., tech., managers		
사무직	clerks		
서비스판매	service & sales workers		
농림어업직	agri., fishery workers		
기능노무직	craft, operators, assemblers		
100만원 미만	Less than 1,000 thou. won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500 thou. won or more		
장애인	handicapped		

출처 :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격차실태조사」

〈표 3-8-28〉 해킹,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  
Hacking, Virus and Spam Mail

연도 (year)	해킹 피해건수 (number of hacking)	바이러스 피해건수 (number of virus)	스팸메일수신(1일평균) (average receipt of spam mail per day)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표 3-9-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Emission of Air Pollutant

	아황산 가스 (SO <sub>2</sub> ) (천톤/년)	일산화탄소(CO) (천톤/년)		탄화수소(HC) (천톤/년)		먼지(TSP) (천톤/년)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1991	1,598	1,760	59.6	878	50.8	431	18.4
1992	1,614	1,630	66.7	1067	53.1	392	25.7
1993	1,572	1,291	77.5	1187	54.3	390	24.1
1994	1,603	1,156	83.1	1192	56.5	429	23.3
1995	1,532	1,109	86.5	1153	52.6	406	24.2
1996	1,500	1,089	89.5	1258	49.0	424	22.5
1997	1,356	1,129	91.4	1278	48.7	439	23.3
1998	1,146	977	91.7	1084	47.1	420	19.5
1999	951	1,036	91.9	1136	49.1	440	19.7
2000	531	825	79.0	1004	42.0	89	29.1
2001	527	834	79.1	1045	43.6	93	31.0



〈표 3-9-2〉 폐수발생량  
Wastewater Emission Quantity

	산업폐수발생량(Industrial wastewater) (천m <sup>3</sup> /일)		축산폐수발생량 (Livestock wastewater) (m <sup>3</sup> /일)
		방류량 (Emission quantity) (천m <sup>3</sup> /일)	
1990	4,106	1,700	128,170
1991	5,656	1,846	139,070
1992	6,391	2,008	154,004
1993	6,412	2,093	169,614
1994	7,259	2,316	174,530
1995	8,741	2,375	168,228
1996	8,926	2,511	197,017
1997	4,874	2,618	206,386
1998	4,067	2,614	202,260
1999	-	-	128,461
2000	-	-	125,100
2001	7,907	2,555	130,912
2002	7,966	2,443	138,989

〈표 3-9-3〉 1인당 생활오수 발생량  
Sewage Emission Quantity per Capita

	오수발생량(Total sewage emission quantity)	1인당 오수발생량 (Sewage emission quantity per capita) (리터/일)
1990	12,323	283
1991	12,866	297
1992	13,416	307
1993	13,972	316
1994	15,976	358
1995	14,976	332
1996	15,310	336
1997	16,273	354
1998	15,467	334
1999	15,484	332
2000	15,441	328
2001	15,633	330
2002	15,023	335

〈표 3-9-4〉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Generation Quantity of Domestic Waste per Capita per day

	생활폐기물 (ton/day)	1인당 생활폐기물 (kg/day)
1992	75,096	1.72
1993	62,940	1.42
1994	58,118	1.30
1995	47,774	1.07
1996	49,925	1.11
1997	47,895	1.05
1998	44,583	0.96
1999	45,614	0.97
2000	46,438	0.98
2001	48,499	1.01
2002	49,902	1.04

〈표 3-9-5〉 지정폐기물 발생량  
 Generation Quantity of Specified Waste

	지정폐기물
1992	21,381
1993	22,474
1994	3,702
1995	4,445
1996	5,239
1997	6,075
1998	5,266
1999	7,489
2000	7,614
2001	8,105
2002	7,985

〈표 3-9-6〉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비료소비량  
 Chemical Fertilizer Consumption as Percent of Crops Production

	식량작물생산량 (1,000 톤)	비료소비량 (1,000 톤)	식물작물생산량 대비 비료소비량(%)
1990	6,635	1,104	16.6
1991	6,236	813	13.0
1992	6,206	936	15.1
1993	5,574	974	17.5
1994	5,744	970	16.9
1995	5,476	954	17.4
1996	6,145	908	14.8
1997	6,143	882	14.4
1998	5,759	860	14.9
1999	6,000	842	14.0
2000	5,911	801	13.6
2001	6,200	717	11.6
2002	5,596	689	12.3

〈표 3-9-7〉 식량작물생산량대비 농약출하량  
 Agricultural Chemicals Shipment as Percent of Crops Production

	식량작물생산량	농약출하량	식량작물생산량 대비 농약출하량
1990	6,635	25	0.4
1991	6,236	24	0.4
1992	6,206	27	0.4
1993	5,574	26	0.5
1994	5,744	26	0.5
1995	5,476	26	0.5
1996	6,145	25	0.4
1997	6,143	25	0.4
1998	5,759	22	0.4
1999	6,000	26	0.4
2000	5,911	26	0.4
2001	6,200	28	0.5
2002	5,596	26	0.5

〈표 3-9-8〉 상수도 보급률  
Water Supply Facilities

	급수인(1,000 명)	보급률 (%)
1992	35,611	79.9
1993	36,559	81.2
1994	37,327	82.0
1995	38,095	82.9
1996	38,823	83.6
1997	39,607	84.5
1998	40,190	85.2
1999	40,947	86.1
2000	41,774	87.1
2001	42,402	87.8
2002	43,021	88.7

〈표 3-9-9〉 1일 1인당 급수량  
Amount of Water Supply per Capita per day

	총 급수량 (1,000 톤/일)	1일 1인당 급수량 (리터)
1992	13,724	385
1993	14,392	394
1994	15,230	408
1995	15,176	398
1996	15,879	409
1997	16,194	409
1998	15,873	395
1999	15,886	388
2000	15,883	380
2001	15,290	361
2002	15,595	362

〈표 3-9-10〉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Final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최종에너지 소비량 (1,000 TOE)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
1990	75,107	1.75
1991	83,803	1.94
1992	94,623	2.17
1993	104,048	2.36
1994	112,206	2.51
1995	121,962	2.70
1996	132,033	2.90
1997	144,432	3.14
1998	132,128	2.85
1999	143,060	3.07
2000	149,852	3.19
2001	152,950	3.23
2002	160,451	3.39

〈표 3-9-11〉 1인당 전력 소비량  
Electric Power Consumption per Capita

	전력 소비량 (GWh)	1인당 전력 소비량 (kWh)
1990	94,384	2,202
1991	104,375	2,412
1992	115,244	2,639
1993	127,734	2,899
1994	146,540	3,297
1995	163,270	3,640
1996	182,470	4,006
1997	200,784	4,366
1998	193,470	4,167
1999	214,215	4,572
2000	239,535	5,067
2001	257,731	5,444
2002	278,451	5,845

〈표 3-9-12〉 대기 오염도  
Air Pollution

	서울 (SO <sub>2</sub> , ppm)	부산 (SO <sub>2</sub> , ppm)	대구 (SO <sub>2</sub> , ppm)	인천 (SO <sub>2</sub> , ppm)	광주 (SO <sub>2</sub> , ppm)	대전 (SO <sub>2</sub> , ppm)	울산 (SO <sub>2</sub> , ppm)
1997	0.011	0.018	0.016	0.013	0.009	0.011	0.019
1998	0.008	0.015	0.014	0.009	0.008	0.009	0.015
1999	0.007	0.014	0.011	0.008	0.007	0.009	0.017
2000	0.006	0.010	0.009	0.008	0.006	0.007	0.013
2001	0.005	0.008	0.008	0.007	0.004	0.006	0.012
2002	0.005	0.007	0.006	0.006	0.004	0.004	0.010

〈표 3-9-13〉 주요 도시의 오존 오염도  
Ozone Concentrations in Major Cities

	서울 (O <sub>3</sub> , ppm)	부산 (O <sub>3</sub> , ppm)	대구 (O <sub>3</sub> , ppm)	인천 (O <sub>3</sub> , ppm)	광주 (O <sub>3</sub> , ppm)	대전 (O <sub>3</sub> , ppm)	울산 (O <sub>3</sub> , ppm)
1992	0.014	0.015	0.013	0.016	0.017	0.010	0.013
1993	0.013	0.014	0.013	0.012	0.015	0.011	0.014
1994	0.014	0.014	0.015	0.014	0.015	0.014	0.014
1995	0.013	0.016	0.017	0.013	0.016	0.015	0.015
1996	0.015	0.020	0.015	0.011	0.017	0.017	0.015
1997	0.016	0.019	0.015	0.016	0.021	0.018	0.015
1998	0.017	0.022	0.017	0.016	0.022	0.018	0.017
1999	0.016	0.022	0.017	0.018	0.018	0.020	0.018
2000	0.017	0.022	0.019	0.019	0.017	0.020	0.021
2001	0.015	0.025	0.019	0.019	0.019	0.021	0.020
2002	0.014	0.024	0.018	0.019	0.016	0.019	0.021



〈표 3-9-14〉 수질오염도  
Water Pollution

	한강(BOD, mg/l)		낙동강(BOD, mg/l)		금강(BOD, mg/l)		영산강(BOD, mg/l)	
	팔당댐	노량진	고령	물금	대청댐	공주	담양	나주
1997	1.5	4.1	5.1	4.2	1.2	3.7	1.6	7.2
1998	1.5	3.6	3.1	3.0	1.0	2.5	1.6	5.9
1999	1.5	3.3	3.1	2.8	1.0	2.6	1.7	6.8
2000	1.4	2.7	4.3	2.7	1.0	2.6	1.4	6.5
2001	1.3	3.4	4.2	3.0	1.0	3.4	0.8	6.2
2002	1.4	3.3	3.6	2.6	1.0	3.2	0.8	5.6

〈표 3-9-15〉 해수오염도  
Marine Pollution

	해수오염도(COD, mg/l)							
	부산	인천	울산	마산	목포	군산	여수	제주
1997	1.88	1.56	2.27	3.35	1.44	1.64	1.42	0.85
1998	1.66	1.54	1.84	3.85	1.81	1.77	1.77	1.42
1999	1.38	1.58	1.63	4.22	1.37	1.40	2.22	1.05
2000	1.84	1.48	2.42	3.21	1.32	1.71	1.21	1.14
2001	1.99	1.38	1.71	2.72	1.37	1.67	1.85	1.12
2002	1.72	1.31	1.71	2.49	1.86	1.72	1.63	0.75

〈표 3-9-16〉 주요 도시의 빗물의 산도  
Acidity(pH) of Rain in Major Cities

	서울 (pH)	부산 (pH)	대구 (pH)	인천 (pH)	광주 (pH)	대전 (pH)	울산 (pH)
1992	5.3	5.2	5.6	6.2	5.7	5.7	5.6
1993	5.4	5.3	5.5	5.8	5.8	5.5	5.6
1994	5.4	5.2	5.6	6.0	5.8	5.7	5.4
1995	5.8	5.2	5.7	5.9	6.2	5.9	5.3
1996	5.7	5.1	5.6	5.9	5.9	5.8	5.7
1997	5.4	5.2	5.8	-	5.9	6.2	5.7
1998	4.9	4.7	5.4	4.4	4.8	4.7	4.9
1999	5.0	4.8	5.6	4.6	5.2	5.0	5.0
2000	4.8	4.9	5.8	5.0	5.2	4.7	5.0
2001	4.7	5.0	6.0	4.7	5.0	4.9	5.1
2002	5.0	6.2	5.6	4.8	5.1	5.1	-

〈표 3-9-17〉 먹는 물의 수질 현황  
Drinking Water Quality

		정수장	수도꼭지	간이상수도	약수터
1994	검사	1,106	2,523	591	3,000
	기준초과	18	32	123	270
	비율(%)	1.6	1.3	20.8	9.0
1995	검사	1,105	2,513	590	3,183
	기준초과	36	45	170	286
	비율(%)	3.3	1.9	28.8	9.0
1996	검사	1,137	2,545	590	6,275
	기준초과	26	37	113	855
	비율(%)	2.3	1.5	19.2	13.6
1997	검사	1,147	3,112	601	6,603
	기준초과	26	51	123	874
	비율(%)	2.2	1.6	20.4	13.2
1998	검사	1,142	3,271	601	6,691
	기준초과	26	43	92	74.6
	비율(%)	2.2	1.3	15.3	11.1
1999	검사	1,156	3,572	598	6,904
	기준초과	15	39	72	887
	비율(%)	1.3	1.1	12.0	12.8
2000	검사	1,141	3,611	590	7,064
	기준초과	7	13	27	918
	비율(%)	0.6	0.3	4.5	13.0
2001	검사	1,078	3,601	639	7,078
	기준초과	1	6	22	696
	비율(%)	0.1	0.2	3.4	9.8
2002	검사	1,088	3,639	607	6,945
	기준초과	7	16	30	1,024
	비율(%)	0.6	0.4	4.9	147.0

〈표 3-9-18〉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행태  
Water Supply Facility & Source of Drinking Water

	상수도 설치 가구수	식수사용 행태						
		수돗물 그대로 먹음	수돗물 정수해 먹음	수돗물 끓여먹음	약수를 떠서먹음	생수를 사서 먹음	지하수 이용	기타 식수 이용
전국	12,526,004	307,831	1,486,086	8,325,588	1,121,729	852,878	407,444	24,448

〈표 3-9-19〉 주요 도시의 소음공해도  
Noise Levels in Major Cities

	적용대상구역	환경기준 (Leg dB)		서울 (Leg dB)		부산 (Leg dB)		대구 (Leg dB)		광주 (Leg dB)		대전 (Leg dB)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1999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53	44	56	48	55	48	59	52
		'나'지역	55	45	54	45	58	49	55	50	57	51	54	46
		'다'지역	65	55	61	52	67	58	58	55	66	54	58	49
		'라'지역	70	65	-	-	64	53	64	57	65	53	66	55
	도로변 지역	'가'및'나'지역	65	55	71	65	71	63	69	67	72	66	67	60
		'다'지역	70	60	73	68	76	71	69	67	74	68	69	64
		'라'지역	75	70	-	-	73	69	70	67	74	68	70	65
20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53	45	57	51	53	47	55	50	54	48
		'나'지역	55	45	55	47	60	51	53	47	55	49	55	49
		'다'지역	65	55	62	55	65	55	57	51	63	53	59	51
		'라'지역	70	65	-	-	67	58	62	54	61	53	64	57
	도로변 지역	'가'및'나'지역	65	55	70	66	70	64	69	65	68	60	65	58
		'다'지역	70	60	73	69	73	70	71	66	69	59	67	57
		'라'지역	75	70	-	-	75	70	71	63	72	64	68	61
2001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52	44	57	49	52	47	53	48	53	48
		'나'지역	55	45	54	47	59	51	52	46	53	47	55	49
		'다'지역	65	55	59	53	65	56	54	49	60	49	58	52
		'라'지역	70	65	-	-	67	57	61	54	60	54	64	59
	도로변 지역	'가'및'나'지역	65	55	70	65	70	63	68	63	67	61	65	59
		'다'지역	70	60	72	68	72	68	72	67	70	65	67	59
		'라'지역	75	70	-	-	76	71	71	64	71	66	67	61

〈표 3-9-20〉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Change of Environmental Pollution

		1997	2000
대기오염	나빠졌다(%)	70.0	52.6
	변화없다(%)	28.3	45.0
	좋아졌다(%)	1.7	2.3
수질오염	나빠졌다(%)	64.0	45.4
	변화없다(%)	33.1	51.4
	좋아졌다(%)	2.9	3.1
쓰레기, 폐기물 오염	나빠졌다(%)	55.9	48.5
	변화없다(%)	33.5	44.4
	좋아졌다(%)	10.6	7.1
소음공해	나빠졌다(%)	60.5	57.3
	변화없다(%)	35.3	39.5
	좋아졌다(%)	4.2	3.2
주위환경손상	나빠졌다(%)	48.7	37.1
	변화없다(%)	43.7	56.4
	좋아졌다(%)	7.5	6.5

〈표 3-9-21〉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1997	2001
국내농산물	불안(%)	54.7	52.5
	보통(%)	33.1	35.8
	불안하지 않다(%)	12.2	11.7
외국농산물	불안(%)	88.8	82.9
	보통(%)	10.0	14.3
	불안하지 않다(%)	1.1	2.8

〈표 3-9-22〉 1인당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Expenditures on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per Capita

	환경오염방지지출 (10억원)	1인당 지출 (1,000원)
1994	53,516	120
1995	63,061	140
1996	72,394	159
1997	84,206	183
1998	72,461	157
1999	80,231	172
2000	83,114	177
2001	92,521	195

〈표 3-9-23〉 GDP 대비 환경오염방지 지출비율  
Expenditures on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as Ratio to GDP

	환경오염방지지출 (10억원)	GDP 대비 비율 (%)
1994	53,516	1.75
1995	63,061	1.79
1996	72,394	1.86
1997	84,206	1.86
1998	72,461	1.63
1999	80,231	1.66
2000	83,114	1.59
2001	92,521	1.70

〈표 3-9-24〉 환경오염방지 노력  
Ways of Effor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1997	2001
합성세제 사용줄임	노력한다	67.5	51.1
	보통이다	24.8	39.5
	노력하지 않는다	7.7	9.5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	노력한다	76.1	76.1
	보통이다	17.6	19.2
	노력하지 않는다	6.3	4.8
자연보호운동에 참여	노력한다	27.5	23.4
	보통이다	37.7	38.8
	노력하지 않는다	34.8	37.9
환경친화상품 구입	노력한다	53.2	39.6
	보통이다	32.2	41.3
	노력하지 않는다	14.6	19.1
1회용품 사용자제	노력한다	66.3	63.4
	보통이다	24.0	28.2
	노력하지 않는다	9.7	8.4
물을 아껴씀	노력한다	69.4	67.0
	보통이다	23.9	27.1
	노력하지 않는다	6.7	5.9

〈표 3-9-2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reserve the Environment

	법률제정 규제단속 강화	투자를 늘린다	대시민 홍보 강화	환경교육 강화	환경보호 단체지원 육성	정책 수립시 시민의견 수렴	환경영향 평가 내실화	기타	모르 겠음
1997(%)	47.1	24.2	10.7	6.6	5.5	4.7	1.4	-	-
2001(%)	38.6	21.1	14.3	8.4	3.1	7.1	1.8	0.1	5.5

〈표 3-9-26〉 재생산업 사업체 수  
Number of Recycling Products Manufacturing co.

	계 (업체수)	재생제품 제조업체		기타 재활용품 업체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1994	2,331	1,350	193	772	16
1995	2,434	1,620	233	557	24
1996	2,052	1,491	259	294	8
1997	1,970	1,109	113	690	58
1998	2,035	1,198	158	627	52
1999	1,990	1,158	173	602	57
2000	2,185	1,556	244	339	46
2001	2,941	2,018	298	559	66
2002	3,040	2,166	331	498	45

〈표 3-9-27〉 환경보호 부담의향  
Tax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매우 찬성한다 (%)	약간 찬성한다 (%)	보통이다 (%)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전국	7.4	19.9	33.3	27.8	11.6
동	7.3	20.0	34.0	27.1	11.5
읍, 면	7.7	19.5	30.5	30.6	11.7
남자	8.2	20.9	32.7	26.9	11.3
여자	6.6	19.0	33.9	28.6	11.8
15-19세	5.9	20.1	38.1	25.4	10.6
20-29세	5.6	18.7	35.9	28.5	11.4
30-39세	7.7	21.2	33.8	26.5	10.8
40-49세	8.5	21.1	32.3	27.5	10.6
50-59세	8.6	20.2	31.4	28.3	11.5
60세 이상	7.8	17.7	29.1	30.4	15.0



〈표 3-9-28〉 공해배출 부담금 및 징수액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ollution Charges

	총 부과금액 (A+B+C) (백만원)	대기오염 (A)	수질오염 (B)	축산폐수 <sup>2)</sup> (C)	징수금액비율 <sup>1)</sup> (A+B+C) (%)	대기오염 (A)	수질오염 (B)	축산폐수 (C)
1994	16,088	2,232	13,663	193	100.8	78.6	103.9	134.7
1995	15,734	2,743	12,911	81	94.6	71.8	99.3	109.3
1996	11,929	1,685	10,154	90	81.4	110.8	75.3	217.8
1997	35,020	23,761	11,087	171	81.8	94.6	54.3	98.2
1998	45,810	32,321	13,261	228	70.3	88.4	26.6	41.7
1999	28,852	19,705	8,989	158	87.9	94.3	73.1	132.9
2000	19,134	7,838	11,045	251	74.3	94.6	60.5	45.8
2001	53,214	14,381	38,264	570	30.7	53.6	21.7	54.4

주 1) 과거년도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금액이 누적되므로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2) 2000년도에 부과한 부과금액에 대한 당해년도 징수금액임.

〈표 3-9-29〉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Inconveniences of the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1997(%)	2001(%)
집안에 두어 지저분하다	32.7	36.9
부피가 큰 물건 치치 곤란	13.5	14.3
분리해 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수거 안됨	8.2	5.7
봉투가 잘 찢어지거나 봉투끈이 약하고 짧다	25.0	16.4
봉투값이 비싸다	20.2	18.6
기타	0.4	8.1

〈표 3-9-30〉 VOCs 배출량  
Emissions of VOCs

	총계	에너지 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유기 용제 사용	도로 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2000	664,852	3,905	2,647	2,345	124,135	26,551	351,558	104,157	17,301	32,253
2001	699,214	4,216	2,709	2,262	125,728	26,559	380,778	107,764	16,723	32,475

〈표 3-9-31〉 . 방사성폐기물발생량  
Generation of Radioactive Waste

	합계	수력 (kwh)	구성비 (%)	화력 (kwh)	구성비 (%)	원자력 (kwh)	구성비 (%)
1990	1,077	64	5.9	484	45.0	529	49.1
1991	1,186	51	4.2	573	48.3	563	47.5
1992	1,310	49	3.7	696	53.1	565	43.2
1993	1,444	60	4.2	803	55.6	581	40.2
1994	1,650	41	2.5	1,022	62.0	587	35.5
1995	1,847	55	3.0	1,122	60.7	670	36.3
1996	2,055	52	2.5	1,264	61.5	739	36.0
1997	2,244	54	2.4	1,420	63.2	771	34.3
1998	2,153	61	2.8	1,195	55.4	897	41.7
1999	2,393	61	2.5	1,302	54.4	1,031	43.1
2000	2,664	56	2.1	1,518	57.0	1,090	40.9
2001	2,852	42	1.5	1,689	59.2	1,121	39.3
2002	3,065	53	1.7	1,821	59.4	1,191	38.9

〈표 3-9-32〉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Chemicals in Circulation

구분		1998	
		제조	사용
총계		181,249	234,122
유역(지방) 환경청	소계	140,184	153,318
	경인	926	17,325
	낙동강	79,739	86,443
	금강	300	1,385
	영산강	57,243	31,240
	원주	24	61
	대구	910	9,401
	전주	1,042	7,463
시·도	소계	41,065	80,804
	서울	349	1,562
	부산	365	11,712
	대구	26	106
	인천	8,039	12,112
	광주	16	162
	대전	60	604
	울산	1,066	1,132
	경기	819	16,774
	강원	1,332	646
	충북	909	1,235
	충남	24,300	26,605
	전북	186	2,475
	전남	2,300	3,191
	경북	748	491
	경남	549	1,749
	제주	1	248

〈표 3-9-33〉 1인당 CO<sub>2</sub> 배출량  
CO<sub>2</sub> Emissions per Capita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metric ton per capita)
1990	5.63
1991	6.13
1992	6.65
1993	7.20
1994	7.71
1995	8.30
1996	8.96
1997	9.22
1998	9.83

〈표 3-9-34〉 CFCs 사용량  
Use of CFCs

	계	냉매	발포제	세정제	분사제
1993	11,202	3,459	5,038	2,150	147
1994	10,946	4,432	4,464	1,505	134
1995	10,807	3,936	4,782	1,493	151
1996	9,022	3,394	3,676	1,391	62
1997	9,813	4,470	4,041	793	79
1998	5,852	3,152	2,128	240	43
1999	7,800	4,304	2,757	381	60
2000	7,868	3,684	3,304	467	52
2001	7,214	3,350	3,193	298	40
2002	7,057	3,182	3,168	314	63

〈표 3-9-35〉 해양오염사고현황  
Marine Pollution Accidents

년도	해양오염사고 건수 및 총 유출량	
		발생건수
1993	총유출량(kl)	15,463.3
	발생건수	365
1994	총유출량(kl)	456.1
	발생건수	299
1995	총유출량(kl)	15,775.9
	발생건수	337
1996	총유출량(kl)	1720.1
	발생건수	379
1997	총유출량(kl)	3,441.0
	발생건수	470
1998	총유출량(kl)	1,050.2
	발생건수	463
1999	총유출량(kl)	386.9
	발생건수	483
2000	총유출량(kl)	583.0
	발생건수	455
2001	총유출량(kl)	668.1
	발생건수	385
2002	총유출량(kl)	409.9
	발생건수	

〈표 3-9-36〉 지하수 이용현황  
Use of Groundwater

구분		수자원 이용현황(1000톤/년)
총계		3,209,862,157
용도별	생활용	1,599,707,043
	공업용	184,866,523
	농업용	1,362,218,213
	기타	63,070,378
허가 형태별	허가시설	336,017,906
	신고시설	1,307,506,874

〈표 3-9-37〉 농지면적 변화추이  
Area of Cultivated Land

	농지면적(천 ha)	감소면적(천 ha)	감소율(%)
1993	2,055	15	0.7
1994	2,033	22	1.1
1995	1,985	48	2.3
1996	1,945	40	2.0
1997	1,924	21	1.1
1998	1,910	14	0.7
1999	1,899	11	0.6
2000	1,889	10	0.5
2001	1,876	13	0.7
2002	1,863	13	0.7

〈표 3-9-38〉 도시화율  
Urbanization

	도시화율(%)
1994	85.1
1995	85.5
1996	85.4
1997	95.9
1998	86.4
1999	87.1
2000	87.7
2001	88.1

〈표 3-9-39〉 산림지역  
Forest area

	산림면적(ha)	임목축적(1000m <sup>3</sup> )
1990	6,476,030	248,426
1991	6,467,665	257,298
1992	6,463,764	272,387
1993	6,459,834	283,829
1994	6,455,550	295,806
1995	6,451,885	308,826
1996	6,447,936	323,780
1997	6,441,304	340,824
1998	6,436,304	363,561
1999	6,430,001	387,758
2000	6,422,128	407,576
2001	6,415,920	428,347
2002	6,411,893	448,456

〈표 3-9-40〉 임목벌채  
Logging

	총면적(ha)	총재적(m <sup>3</sup> )
1993	50,057	903,357
1994	41,249	895,606
1995	55,800	886,807
1996	53,556	986,004
1997	52,299	1,037,123
1998	44,858	1,032,019
1999	54,089	1,203,270
2000	51,090	1,180,771
2001	50,451	1,267,366
2002	48,918	1,230,578

〈표 3-9-41〉 연간 총 어획량  
Fishery Production

	연간 총 어획량(M/T)
1990	3,274,506
1991	2,983,222
1992	3,289,041
1993	3,335,531
1994	3,476,587
1995	3,348,184
1996	3,244,288
1997	3,243,725
1998	2,835,015
1999	2,910,569
2000	2,514,225
2001	2,665,123



〈표 3-9-42〉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현황  
Endangered; Vulnerable Wildlife

구분	종류	종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포유류	10
	조류	13
	양서·파충류	1
	어류	5
	곤충류	5
	무척추동물	3
	식물	6
	소계	43
보호 야생동·식물	포유류	7
	조류	46
	양서·파충류	4
	어류	7
	곤충류	14
	무척추 동물	21
	식물	52
	소계	151
총계		194

〈표 3-9-43〉 하수도 보급률  
Sewerage System Supply Rate

	전국 하수도 보급률(%)
1994	42.0
1995	45.2
1996	52.6
1997	60.9
1998	65.9
1999	68.4
2000	70.5
2001	73.2
2002	75.7

〈표 3-9-44〉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소비비중  
Share of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연 도	계	수 력	수력사용 비중
1993	144,437	6,006	4.2
1994	164,993	4,098	2.5
1995	184,661	5,478	3.0
1996	205,494	5,201	2.5
1997	224,445	5,404	2.4
1998	215,300	6,099	2.8
1999	239,325	6,066	2.5
2000	266,400	5,610	2.1
2001	285,224	4,151	1.5
2002	306,474	5,311	1.7

〈표 3-9-45〉 폐기물 재활용  
Waste Recycling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폐지 (천톤)	발생 폐기물	5,836	6,549	6,887	7,216	7,972	6,645	7,943	8,366	8,521	9,339
	재활용	2,701	3,305	3,662	3,944	4,530	3,869	4,687	5,003	5,251	5,999
	재활용율 (%)	46.3	50.5	53.2	54.7	56.8	58.2	59.0	59.8	61.6	64.2
고철 (천톤)	발생 폐기물	25,246	30,510	37,306	39,387	39,900	26,018	39,513	41,468	43,852	43,720
	재활용	9,764	11,345	12,879	13,827	15,543	10,035	8,120	8,739	15,726	16,550
	재활용율 (%)	33.4	37.2	34.5	35.1	38.9	38.6	20.5	21.1	35.9	37.9
금속 캔 (천톤)	발생 폐기물	23.7	294	319	398	370	293	333	334	359	366
	재활용	28.0	38.6	54.7	115.0	181	200	213	211	180	168
	재활용율 (%)	11.8	13.1	17.1	28.8	48.9	68.3	63.5	63.1	50.2	45.9
페타이 어 (천개)	발생 폐기물	12,167	12,770	13,960	15,388	17,584	20,729	22,722	19,596	16,919	24,023
	재활용	6,123	8,207	11,003	10,782	10,522	13,710	10,816	13,271	14,315	17,167
	재활용율 (%)	50.3	64.3	78.8	70.1	59.8	66.1	47.6	67.7	84.6	71.5
유리 (천톤)	발생 폐기물	701	921	788	813	805	613	692	731	738	794
	재활용	304	422	446	490	546	402	456	492	504	587
	재활용율 (%)	43.8	45.8	56.6	60.2	67.8	65.6	65.9	67.4	68.3	73.9

〈표 3-10-1〉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예산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단위: 10억원, %

연도	정부예산액 Government budget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비스 Welfare service	기타 Others	정부예산대비(%) As% of Gov't budget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비스 Welfare service
1982	9 314	262	-	-	-	2.8	-	-
:								
2003	115 132	11 572	3 523	4236	3 813	10.1	3.1	3.7

〈표 3-10-2〉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as % of GDP

연도	정부예산액 Government budget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비스 Welfare service	기타 Others	GDP 대비(%)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비스 Welfare service
1982	9 314	262	-	-	-	0.5	-	-
:								
2003	115 132	11 572	3 523	4236	3 813	1.8	0.6	0.7

〈표 3-10-3〉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the Change of Living Conditions

	전반적인 생활여건 On the whole living conditions			보건의료서비스 Medical services			.....	주거환경 Housing environment		
	좋아짐 Get better	변화 없음 No-chang	나빠짐 Get worse	좋아짐 Get better	변화 없음 No-chang	나빠짐 Get worse		.....	좋아짐 Get better	변화 없음 No-chang
1998 전국	27.6	26.2	45.4	25.6	49.8	12.4	.....	29.7	43.4	24.0
2002 전국	40.0	34.0	24.2	30.4	47.2	16.8		-	-	-

〈표 3-10-4〉 기업복지재단수와 재단출연금  
Number of Corporate Welfare Foundations and Contribution

	기업복지재단수 No. of welfare foundation	재단출연금 Contribution
1999		
	.....	.....
2003		

〈표 3-10-5〉 민간부문 모금액  
The Amount of Private Sector Fund Raising

	모금액 (the amount)	종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재단	복권기금	기타
1999					
	.....	.....	.....	.....	.....
2003					

〈표 3-10-6〉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Perception About the Burden of Social Insurance

단위: %

	지불한다 Pay	부담많음 Much burden	약간부담 A little burden	보통이다 Fair	거의없음 Not much burden	전혀없음 Not at all burden	지불안함 Not pay
1998	85.2	20.2	44.5	27.7	6.8	0.9	14.8
2002	80.6	26.0	45.7	23.5	4.2	0.5	19.4

〈표 3-10-7〉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per Covered Person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도 year	건강보험 적용인구 Average covered population	건강보험 총부담액 Total amount paid by insurers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건강보험 총급여비 Total benefits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1981	10 553	247 858	23	189 101	18
:					
2002	46 503	10 927 688	235	13 424 536	289

〈표 3-10-8〉 1인당 건강보험 급여액  
Health Insurance Benefit per Covered Person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도 year	건강보험 적용인구 Average covered population	건강보험 총부담액 Total amount paid by insurers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건강보험 총급여비 Total benefits	1인당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1981	10 553	247 858	23	189 101	18
:					
2002	46 503	10 927 688	235	13 424 536	289

〈표 3-10-9〉 공적연금 가입자  
Public Pension Insurants

단위 : 천명

연도 year	18세 이상 취업자(A) Employed persons aged 18& over	공적연금 가입자(B) Public pension insurants	공적연금			B/A(%)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공무원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사립/교직원 연금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1981	13 612	782	-	683	99	5.7
:						
2002	22 144	17 651	16 499	931	221	79.7

〈표 3-10-10〉 공적연금 수급자  
Public Pension Beneficiaries

단위 : 명

연도 year	국민연금 수급자 National pension beneficiaries	가입자 대비(%) As% of insurants	공무원연금 수급자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beneficiaries	가입자 대비(%) As% of insurants	사립/교직원 연금수혜자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beneficiaries	가입자 대비(%) As% of insurants
	1981	-	-	2 059	0.3	-
:						
2002	1 059 365	6.4	169 915	18.3	16 059	7.3

〈표 3-10-11〉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Benefit Amount per Public Pension Beneficiary

단위 : 천원

연도 year	국민 연금액 National pension amount	1인당 Per beneficiary	공무원 연금액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mount	1인당 per beneficiary	사립/교직원 연금액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amount	1인당 per beneficiary
1981	-	-	6 039 956	2 933	-	-
:						
2002	1 915 254 978	1 808	2 534 933 000	14 919	279 391 353	17 398

〈표 3-10-1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Perception Abo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단위: %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계 total
신규개발						
2004						



〈표 3-10-13〉 정부예산 대비 공공부조예산

Expenditure on Public Assistance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단위: 10억원, %

연도	정부예산 액 Government budget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비스 Welfare service	기타 Others	정부예산대비(%) As% of Gov't budget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비스 Welfare service
						1982	9 314	262
:								
2003	115 132	11 572	3 523	4236	3 813	10.1	3.1	3.7

〈표 3-10-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No. of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by city/province

단위: 명

Unit: person

시·도별 City/Province	정 원 The approved umber of workers	현 원 The number of workers	1급 1st grade	2급 2nd grade	3급 3rd grade
1997	3,000	2,929	2,204	456	269
:					
2002	7,144	6,738	5,823	776	139

〈표 3-10-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

##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s of Total Population

단위: 명,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총인구 대비(%) As% of total population	일반수급자 General recipients	시설수급자 Institutional recipients	의료급여 대상자 Total medical aid beneficiaries	총인구 대비(%) As% of total population
2001	1 419 995	3.00	1 345 526	74 469	1 502 986	3.17
2002	1 351 185	2.84	1 275 625	75 560	1 420 539	2.98

〈표 3-10-16〉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

## Medical aid Beneficiaries as of Total Population

단위: 명,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총인구 대비(%) As% of total population	일반수급자 General recipients	시설수급자 Institutional recipients	의료급여 대상자 Total medical aid beneficiaries	총인구 대비(%) As% of total population
2001	1 419 995	3.00	1 345 526	74 469	1 502 986	3.17
2002	1 351 185	2.84	1 275 625	75 560	1 420 539	2.98

〈표 3-10-17〉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by Age Group

단위 : 명

In persons

	총수급자 Total recipients	18세 미만 Less than 18years	18-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 이상 & over
전국 Whole country	1 275 625	310 187	134 822	124 281	191 616	119 837	65 631	329 251

〈표 3-10-18〉 일반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General Recipient & Institutional Recipient Beneficiaries

단위 : 백만원

	일반수급자 급여총액 General recipient benefits	1인당 급여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시설수급자 급여총액 Institutional recipient benefits	1인당급여 (천원) Per person (In 1,000 won)
2000	1 023 464	725	60 755	795
:				
2002	1 862 718	1 460	88 928	1 177

〈표 3-10-19〉 최저생계비  
Minimum Standard Cost of Living

	1인가구 1person household	2인가구 2person household	3인가구 3person household	4인가구 4person household	5인가구 5person household	6인가구 6person household
2001 년 years	333 731	552 712	760 218	956 250	1 087 256	1 226 868
:						
2003 년 years	355 774	589 219	810 431	1 019 411	1 159 070	1 307 904

〈표 3-10-20〉 노숙인 현황 및 보호시설수  
Number of Homeless and the Institutions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전북 등	
2003	계 Total	4,540	2,864	544	420	117	115	218	262
	쉼 터 이용자 Sheltered homeless	3,612	2,355	501	210	82	84	201	179
	거 리 노숙인 Street homeless	928	509	43	210	35	31	17	83

〈표 3-10-21〉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Expenditure on Welfare Service as % of Government Expenditure

단위: 10억원, %

연도	정부예산 액 Governme nt budget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비스 Welfare service	기타 Others	정부예산대비(%) As% of Gov't budget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 서 비 스 Welfare service
1982	9 314	262	-	-	-	2.8	-	-
:								
2003	115 132	11 572	3 523	4236	3 813	10.1	3.1	3.7

〈표 3-10-22〉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Number of Welfare Institutes

연도 year	아동복지 Welfare institutes for children			노인복지 Welfare institutes for the aged			장애인복지 Welfare institutes for the disbled		
	시설수 No. of institution	평균 수용인원 Ave. No of inmates	평균 종사자 Ave. No. of workers	시설수 No. of institution	평균 수용인원 Ave. No of inmates	평균 종사자 Ave. No. of workers	시설수 No. of institution	평균 수용인원 Ave. No of inmates	평균 종사자 Ave. No. of workers
1993	278	73	11	135	56	7	152	89	22
:									
2002	274	68	15	299	60	19	213	84	39
연도 year	여성복지 Welfare institutes for women			정신질환요양 Institutes care for mental disorder			부랑인 Institutes for vagrants		
	시설수 No. of institution	평균 수용인원 Ave. No of inmates	평균 종사자 Ave. No. of workers	시설수 No. of institution	평균 수용인원 Ave. No of inmates	평균 종사자 Ave. No. of workers	시설수 No. of institution	평균 수용인원 Ave. No of inmates	평균 종사자 Ave. No. of workers
1993	68	64	6	74	240	15	39	350	18
:									
2002	62	50	5	55	227	23	37	277	21

〈표 3-10-23〉 종별 지역사회복지관 수

Social Welfare Service Centers by Type of Corporation

단위: 개소

Unit : establishment

구 분 Classification	계 Total	사회복지관 community welfare center	장애인복지관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노인복지관 welfare center for the aged	아동복지관 welfare center for children	계
1985						-
:						
2002						

〈표 3-10-24〉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수

Unreporte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y Institution type

단위: 개소

Unit : establishment

구 분 Classification	총 계 Total	아 동 복 지 Children	노 인 복 지 The aged	장 애 인 복 지 The disabled	모 자 복 지 Maternal and Child	정 신 질 환 자 요 양 Psychiatric patients	부 랑 인 Homeless people
2001	1,008	128	424	387	13	21	35
2002	1,044	129	452	392	12	23	36

〈표 3-10-25〉 노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

Elderly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단위: 명

	총노인인구(65+) (A) Elderly population	노인생활보호 대상자(B) Elderly livelihood protection	B/A(%)	노인복지시설 수용자(C) Elderly inmates in welfare institute	C/A(%)
1981	1 498 179	-	-	3 388	0.2
:					
1999	3 223 576	241 303	7.5	12 751	0.4
	총노인인구(65+) (A) Elderly population	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B) Elderly livelihood protection	B/A(%)	노인복지시설 수용자(C) Elderly inmates in welfare institute	C/A(%)
2000	3 394 896	...	...	13 907	0.4
:					
2002	3 772 454	329 251	8.7	18 000	0.5

〈표 3-10-26〉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및 입소자수

## Number of Welfare Institutes for the Aged &amp; Inmates by Type

단위 : 개소, 명

	노인복지시설 Welfare institution for the aged		무료양로시설 Home for the aged		무료노인시설 Nursing home for the aged		실비/유료시설 Cheap	
	시설수 No of insitution	입소자 Admission	시설수 No of insitution	입소자 Admission	시설수 No of insitution	입소자 Admission	시설수 No of insitution	입소자 Admission
1993	135	2 329	79	1 229	34	805	22	
:								
2002	299	6 959	91	1 224	143	4 031	65	

〈표 3-10-27〉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

## Physical Activities of the Elderly Aged 60 Years &amp; Over

단위 : 명, %

In persons, %

	계 Total	집안활동 Activities inside the home		바깥활동 Activities outside the home	
		혼자 할수 있음 Activities	혼자 할수 없음 No activities	혼자 할수 있음 Activities	혼자 할수 없음 No activities
		계 Total	5 157 506	96.2	3.8

〈표 3-10-28〉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Means of Living of the Elderly Aged 65 Years &amp; Over

단위 : 명, %

	계 Total	본인/배우자 부담 Pay by himself/herself, or by spouse	일부 지원받아 생활 Receive partial suport from children or from others	전부 지원받아 생활 Receive full suport from children or from others
계 Total	3 371 333	32.5	45.4	22.1



〈표 3-10-29〉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  
Children's Residence of the Elderly Aged 65 Years & Over

단위 : 명, %

	계 Total	같은집 At the same house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같은 시도	다른 시도	해외 Abroad	자녀없음 No children
계 Total	3 371 333	49.0	10.4	12.3	7.4	18.1	0.4	2.4

〈표 3-10-30〉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의 지위  
Employed Persons by Industry & Employment Status Aged 65 Years & Over

	계 Total		임금근로자 Employ		고용원없는 자영자 Self employed with no employees		고용원있는 사업주 Self employed with employees		무급가족종사자 Without pay in family business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농업, 수산업 및 :	135	2 329	79	1 229	34	805	22		22	
국제 및 외국기관	299	6 959	91	1 224	143	4 031	65		65	

〈표 3-10-31〉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Major Supporter of the Elderly Aged 65 Years & Over

단위 : 명

	계 Total	장남/며느리 The eldest son or the daughter-in-law	그 외 아들/ 며느리	딸/사위 Daughter or sons-in-law	기타 친인척 Other relatives	정부 사회단체 The government other society
계 Total	2 273 036	1 265 997	520 349	224 428	27 517	234 745

〈표 3-10-32〉 노인문제  
Problems of Old Man

단위 : %

	경제적 어려움 Finance	직업이 없음 No job	소일거 리 없음 Killing time	건강 문제 Health	외로움, 소외감 Loneliness sense of alienation	가족의 푸대접 Cold treat- ment from family	경로의식 약화 Weaked consciousnes respect for aged	노인 복지 시설 Lack of old age welfare facilities	기타 Others
1998 전국	29.3	4.5	10.7	23.5	20.8	4.8	1.9	3.3	1.2
2002 전국	36.8	4.3	6.1	27.4	16.9	3.5	1.0	2.9	0.9

〈표 3-10-33〉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Method of Receiving Living Costs Aged 60years & Over

단위 : %

	본인 및 배우자 Them- selves or spouse	근로소득 사업소득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재산소득 Property income	연금 Pension	자녀 친척 Sons and daughters relatives	함께살고 있음 Live together	함께살고 있지않음 Don't live together	정부 및 사회단체 Assistance from gov- ernment or society	기타 Others
전국 Whole country	55.9	38.6	10.7	6.5	40.1	20.9	19.2	3.8	0.2

〈표 3-10-34〉 65세 이상 받고 싶은 서비스  
Welfare Service Aged 60 years & Over

단위 : %

	받고 싶다 Want to receive	간병 서비스 Nursing	가사 서비스 House work	이야기 상대 Someone to talk a companion	건강 체크 Medical check	목욕 서비스 Bath	식사 배달 Meal delivery	기타 others	받고싶지 않다 Don't want to receive
전국 Whole country	74.1	20.7	6.0	3.2	41.5	1.2	1.2	0.4	25.9

〈표 3-10-35〉 65세 이상 여가시간 활용의향  
Opinions About Use of Spare Time Aged 60 years & Over

	TV시청, 라디오 Watching TV, listening to radio	여행 Travel	바둑, 화투 Padug korea playing cards	운동 Exercise	독서, 영화 Reading, seeing a film	사회봉사 활동 social service	사교 단체 Social inter- course	가족과 하는일 Doing things with family	기타 Others
주된응답(Main response)									
전국 Whole country	60.6	9.4	2.8	4.5	1.9	1.4	13.5	4.6	1.2
복수응답(Multiple response)									
전국 Whole country	75.0	19.0	8.5	9.2	4.6	3.5	39.6	16.1	3.4

〈표 3-10-36〉 65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Whether Live With Sons and Daughters in the Future or not Aged 60 Years &amp; Over

	같이 살고 싶다 Want to live with sons and daughters	같이 살고 싶지 않다 Don't Want to live with sons and daughters	자주 만나 식사, 이야기 Often want to meet and dine with or talk to them	가끔 만나 이야기 Sometimes want to meet and dine with or talk to them	왕래 없이 살고 싶다 Don't want to meet them	기타 Others
전국 Whole country	53.0	45.8	24.9	20.1	0.8	1.2

〈표 3-10-37〉 65세 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

Place to Live in the Future Aged 60 years &amp; Over

	자기집 Own house	자녀집 sons and daughters house	무료양로원 및 요양원 Free old people's home or sanatorium	유료양로원 및 요양원 Fee-charging old people's house or sanatorium	기타 Others
전국 Whole country	77.2	18.2	2.8	1.6	0.2

〈표 3-10-38〉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Number of Maternal and Child Welfare Institutions

구 분 Classification	시설수 No. of Institutions	부양자녀 Dependant Children		노령부양자 Dependant elderly		입소자 Admissions		퇴소자 Discharges	
		남 Male	여 Female	남 Male	여 Female	남 Male	여 Female	남 Male	여 Female
1980	33	1,135	1,146	3	52	1226	52	3	1,562
..									
2002	39								

〈표 3-10-39〉 미혼모 보호시설 및 인원  
 Number of Unmarried Mother Institutions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시설수 No. of Institutions	9	8	8	8	8	8	8	8	10
입소자 Admissions	990	1,028	1,161	1,526	1,435	1,273	1,588	1,673	1,940

〈표 3-10-40〉 자녀양육실태

## Conditions for Bringing up Children

	계 Total	자녀의 부모 Parents	가족, 친인척 Other family member	파출부, 가정부 Home helper	보육시설 Institu- tion	유치원 예체능 학원 Kinder- garten	유아원 선교원 Facility in churc	놀이방 (가정 탁아) Private nurseries	어린이집 (시설 탁아) Public nurseries	집에 그대로 others
1995 Total for sis	100.0	55.9	10.2	0.8	32.7	22.4	6.5	1.7	2.1	0.4
1998 Total for dong	100.0	52.6	9.7	0.9	36.2	17.0	4.7	12.6	1.9	0.6

〈표 3-10-41〉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 Number of Child Headed Households

단위: 가구, 명

	가구수 Housdhol ds	가구원 Househol d Members	재학상태별 By school attendance				기타 Others
			미취학 Pre- school	초등 Elementary school	중등 Middle school	고등 High school	
1993	7 322	14 913	119	3 331	4 710	3 622	2 511
:							
2002	4 531	6 947	115	1 478	2 232	2 936	186

〈표 3-10-42〉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Daycare Centers & Accommodated Children

	계 Total		국/공립 Public		민간 Private		직장		가정 Home	
	시설수 Day care centers	아동수 Children	시설수 Day care centers	아동수 Children	시설수 Day care centers	아동수 Children	시설수 Day care centers	아동수 Children	시설수 Day care centers	아동수 Children
1993	5 490	153 270	837	55 133	2 419	80 400	29	725	2205	17 012
:										
2002	22 147	800 991	1 330	103 351	12 679	597 971	199	8 730	7939	90 939

〈표 3-10-43〉 아동입양 기관수 및 입양아 수  
Adoption Agencies & Adopted Children

단위 : 개소, 명

	입양기관 Adoption agencies			입양아동 Adopted children		
	계 Total	국내 Domestic	국내/국외 Domestic & overseas	계 Total	국내 Domestic	국내/국외 Domestic & overseas
1993	30	26	4	3 444	1 154	2 290
:						
2002	22	18	4	4 059	1 694	2 365

〈표 3-10-44〉 요보호아동 발생수

## Status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and Treatment

구분 Abandoned children	계 Total	기 아 Abandoned children	미 혼 모 아 동 Illegitimate children	미 아 Lost children	비행가출 부랑아, Runaway children, others	빈곤, 실직, 학대 등 기타 Others
1990	5,721					
2002	10,057					

〈표 3-10-45〉 위탁아동 보호현황

## Number of Consigned Children to the Group Home

위탁아동 consigned children	계 Total	일반가정 위탁 at home	그룹홈 위탁 at group home	위탁아동 지원센터 center
1998				
2002				



〈표 3-10-46〉 장애인 등록률  
Percentage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단위 : 명, 개

	등록 장애인 수 Registered disabled persons	등록율(%) Percentage of registrants	의무고용 대상사업체(A) Establishments with 300workers & over	의무고용 준수업체(B) Establishments abiding quota	B/A(%)
1993	317 939	-	2 158	201	
:					
2002	1 360 409	-	2 032	426	

〈표 3-10-47〉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Disabled Persons by Type & Number of Disabled Persons per 100persons

단위 : %, 명

	1990		1995		2002	
	출현율 Detected prevalence rate	추정수 Estimate	출현율 Detected prevalence rate	추정수 Estimate	출현율 Detected prevalence rate	추정수 Estimate
전 체	2.23	937 224	2.37	1 028 837	3.09	1 449 496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표 3-10-48〉 장애인 취업자 비율  
Employment Rate of Disabled Persons

단위 : %

	취업자 비율 Employment rate	취업희망자비율 percentage of disabled persons wishing to work
1995 계 Total	31.8	17.8
:		
2000 계 Total	34.3	46.6

〈표 3-10-49〉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단위 : %

차별인식	취학 (in school admission)	학교생활 (in school)	결혼 (in marage)	취업 (in employment)	직장생활 (in the job)	지역사회 (in community)
2000						
(많다)						

〈표 3-10-50〉 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비율  
 Disabled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총장애인구 (A) Disabled population	장애인생활보호 대상자(B) Disabled livelihood protection	B/A(%)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Disabled inmates in welfare institute	C/A(%)
1981					
:					
1999					
	총장애인구 (A) Disabled population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B) Disabled livelihood protection	B/A(%)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Disabled inmates in welfare institute	C/A(%)
2000					
:					
2002					

〈표 3-10-51〉 희망하는 복지혜택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단위 : %

	생계보장 (income)	의료혜택 (medical service)	주거보장 (housing service)	취업 (employment)	특수교육 (education)	.....
1995						.....
2000						.....

〈표 3-11-1〉 국가지정 문화재 수

## Number of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계 Total	유형문화재 Tangible Cultural Property		중요 무형문화재 Maj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기념물 Monument				중요민속 자료 Major Folklore Material
		국보 National Treasure	보물 Treasure		사적 Historic Site	사적·명승 Historic Site Scenic Site	명승 Scenic Site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연도(10년) 시·도별									

〈표 3-11-2〉 시·도지정 문화재 수

## Number of Civic &amp; Provinci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계 Total	유형문화재 Tangible Cultural Property	무형문화재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기념물 Monument	민속자료 Folklore Material
연도(10년) 시·도별					



〈표 3-11-4〉 도서관 현황

## Number of Libraries, Volumes &amp; Seats

	도서관 수 NO. of Libraries	장서 Volume		정기간행물 종수 Number of Magazine	비도서 자료 수 Number of Non-Printed Material	좌석 Seats	
		장서 수 Number of Volumes	인구 만명당 Volumes per 10,000 Persons			좌석 수 Number of Seats	인구 만명당 Seats per 10,000 Persons
연도(10년)							

〈표 3-11-5〉 영화관 현황

## Number of Movie Theaters, Screens &amp; Seats

구분	영화관 Movie Theater		스크린 Screen		좌석 Seat	
	영화관 수 NO. of Movie Theaters	인구만명당 Per 10,000 persons	스크린 수 NO. of Screens	인구만명당 Per 10,000 persons	좌석 수 NO. of Seats	인구만명당 Per 10,000 persons
연도(10년) 시·도별						

〈표 3-11-6〉 문화시설 이용률

Percentage of People Visiting at Cultural Facilities

	전체 Total	문예회관 Culture&Arts Center	박물관 Museums	미술관 Arts Museum	도서관 Library	문화의집 Cultural House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 『사회통계조사』에 의한 통계표의 독립변인은 동일하다.

〈표 3-11-7〉 예술행사 수

Number of Artistic Events

	음악 Western Music	연극 Play	무용 Dance	국악 Traditional Music	대중가요 콘서트 Pop Concert	미술전시회 Fine Arts Exhibition
연도(10년) 시도별						





〈표 3-11-10〉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Percentage of People Taking Private Arts Courses

	전체 Total	문학 Literature	미술 Fine Arts	음악 Western Music	전통예술 Traditional Music	무용 Dance	연극·영화 Dram/Film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11〉 신간 도서발행 현황

New Book Publications

	계 Total	도서 Book						
		소계 Subtotal	총류 General	철학 Philosophy	종교 Religion	사회과학 Social Science	순수과학 Pure Science	기술과학 Techonology
연도(10년) 종수 Kinds 부수 Volumes								

도서 Book						만화 Cartoon
예술 Arts	어학 Language	문학 Literature	역사 History	학습참고서 Reference Book	아동 children	



〈표 3-11-13〉 신문구독  
Reading Newspapers

	신문 구독비율 Percentage of People Reading Newspapers	하루평균 신문구독 시간 Hours Spent Reading Newspaper Per Day	신문관심부문 Favorite Section in Newspapers											
			정치 Political	경제 Economic	사회 Social	국제 Internati onal	지역 Regional	연예 Entertain ment	스포츠 Sports	문화 Culture	과학 Science	사설 칼럼 Opinion	기타 Others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14〉 신문구독 만족도

Level of Satisfaction with Newspaper Reports

	계 Total	만족 Satisfied		그저 그렇다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겠다 Don't Know
		매우 만족 Very Satisfied	약간 만족 Moderately Satisfied		약간 불만 Moderately Dissatisfied	매우 불만 Very Disstified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15〉 텔레비전 시청률  
Percentage of People Watching TV

	TV시청 인구비율 Percentage of People Watching TV				주당 TV 시청시간 Weekly Average Hours Spent Watching TV			
	전체 Total	평일 Week Day	토요일 Sunday	일요일 Monday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16〉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Level of Satisfaction with TV

	계 Total	만족 Satisfied		그저 그렇다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겠다 Don't Know
		매우 만족 Very Satisfied	약간 만족 Moderately Satisfied		약간 불만 Moderately Dissatisfied	매우 불만 Very Disstified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24〉 여가활동 방법

Types of Leisure Activities

	예술 관람 Attendance at Artistic Events	스포츠 관람 Attendance at Sports Game	TV 시청 Watching TV	취미 활동 Hobby	스포츠 활동 Sports	여행 Travelling	사교 관련 Social Intercourse	휴식 수면 Rest&nap	인터넷 Using Internet	기타 Others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25〉 여가활동 만족도

Level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계 Total	만족 Satisfied		그저 그렇다 Fair	불만 Dissatisfied		모르겠다 Don't Know
		매우 만족 Very Satisfied	약간 만족 Moderately Satisfied		약간 불만 Moderately Dissatisfied	매우 불만 Very Disstisified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26〉 여가활동의 어려운 점  
Inhibiting Factor to Leisure Activities

	계 Total	경제적 부담 Expense	시간 부족 Time	시설 부족 Facilities	프로그램 부족 Information	정보 부족 Information	건강,체력 부족 Health & physical strength	기타 Others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27〉 평균 여가시간  
Average Time Spent on Leisure Activities

	요일 평균 Average a Day	평일 Weekday	토요일 Saturday	일요일 Sunday
전체 Total				
교제활동 Socializing				
대중매체이용 Using of Mass Media				
종교활동 Religious Activity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Hobbies, Games and Others				
아무것도 하지 않음 Resting, Doing Nothing				
기타 Others				

〈표 3-11-28〉 가구 여가활동 비용  
Expenditure on Leisure per Household

	도시가구 Urban Household			농가 Farm Household		
	가구 총소비지출(A)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교양오락비(B) Leisure Expenditure	교양오락비 비중 $B \div A \times 100$	가구 총소비지출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 비중
연도(10년)						

〈표 3-11-29〉 국내 관광여행 비율  
Percentage of People Touring the Domestic

	전체 Total		숙박여행 Logging Trips		비숙박여행 Day Trips	
	여행비율 Perc enta ge of Peop le Tou ring the Dom estic	연평균여행 횟수 Number per Person	여행비율	연평균여행 횟수	여행비율	연평균여행 횟수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30〉 국내 관광여행 지역  
Domestic Tourists' Destinations

	관광여행 지역 Domestic Tourists' Destination by City & Provinc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별 서울 ↓ 제주																

〈표 3-11-31〉 휴양시설 이용률  
Percentage of People Visiting at Resorts

	전체 Total	해수욕장 Seasid Resort	온천장 Hot Spring Resort	골프장 Golf Links	스키장 Ski Resort	산림욕장 Forest Resort	놀이공원 Theme Park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34〉 생활체육 참여율

## Percentage of People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ies

	생활체육 참여율 Percent age of People Particip ating in Physica l Activiti es	운동빈도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매일 Everyday	주 4-5회 4-5 Times a Week	주2-3회 2-3 Times a Week	주 1회 Once a Week	주1회 미만 Less Than Once a Week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1-35〉 스포츠경기 관람률

## Percentage of Admission in Spectator Sports

	관람률 Percentage of Admission in Spectator Sports	종목별 관람률 By Evnets					
		축구 Soccer	야구 Baseball	농구 Baseball	배구 volleyball	테니스 Tennis	기타 others
전체 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표 3-12-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Fear of Crime

단위: %

	느끼지 못함 Not feel	보통 Fair	느낌 Feel				
			강도 Robbery	절도,주거 침입,절도 Theft & Bruglary	폭행, 상해 Bodily harm	강제추행 Sexually motivated violence	기타 Others
〈2007〉							
전 국 Whole Country							
남 자 Male							
여 자 Female							
시 부 Total for Sis(Cities)							
군 부 Total for Guns (Rural areas)							
15~19세 years							
20~29							
-----							
50~59							
60세 이상 years and over							
(교육수준)							

〈표 3-12-6〉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Persons Afraid to Walk Alone at Night

단위: %

	두렵지 않음 No fear	두려움 Fear	혼자걸기 두려운 이유 Reasons for fear of walking alone at night				
〈2005〉							
전 국 Whole Country							
남 자 Male							
여 자 Female							
시 부 Total for Sis(Cities)							
군 부 Total for Guns (Rural Areas)							
15~19세 Years							
20~29							
---							
50~59							
60세 이상 Years and over							
(교육수준)--삭제							





〈표 3-12-11〉 절도범죄중 자동차범죄 발생건수  
 Motor-Vehicle Theft Rate, Rate of Theft from Motor Vehicles

단위: 건수, (10만대당 건수)

	계 Total		자동차 절도 Motor-vehicle		자동차 털이 Theft from motor vehicles	
		10만대당 Per 100,000 vehicles		10만대당 Per 100,000vehicles		10만대당 Per 100,000vehicles
1990	----	----	----	----	----	----
1991						
2003						
2004	----	----	----	----	----	----

〈표 3-12-12〉 외국인 범죄자 비율  
 Percentage of foreign offenders

	외국인 범죄자수 Number of offenders			총범죄자 100명당 외국인 범죄자 Foreigners per 100 offenders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총범죄						
형법범						
재산범죄						
절도						
사기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위조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특별법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외국환거래법						
윤락방지등 방지법						
출입국관리법						
폭력행위 등						

〈표 3-12-13〉 주요 범죄자수 및 소년범죄자 비율

Number of Major Criminal Offenders & Percentage of Juvenile Offenders

단위: 명, %

연도 Year	형법범 범죄자수 Penal code offenders	주요범죄 Major offenders				
		절도 Theft	살인 Homicide	강도 Robbery	강간 Rape	폭행 상해 Assault & bodily injury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년범죄자 비율 Percentage of juvenile offenders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표 3-12-14〉 주요 범죄자 평균연령

Average Age of Major Criminal Offenders

단위: 명, %

연도 Year	절도 Theft	살인 Homicide	강도 Robbery	강간 Rape	폭행 상해 Assault & bodily injury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표 3-12-15〉 유형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  
 Number of Criminal Offenders by Type Percentage of Female Offenders

연도 Year	총범죄자수 Total	형법범 Penal code offenders	재산범죄 Property offenders	강력범죄 Violent offenders	위조범죄 Forgery & counterfeiting offenders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여성범죄자 비율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Year	공무원 범죄 Government officials' offenders	풍속범죄 Moral offenders	과실범죄 Negligence offenders	기타 Others	특별법법 Special law offenders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Percentage of female offenders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표 3-12-16〉 교도소 수용인원, 교도관수 및 교도예산  
Number of Policemen & Patrol Cars

연 도 Year	1일평균 수용인원 <sup>1)</sup> (명) No. of prison inmates per day (persons)	총인구대비 (%) As % of total pop.	교도관 정원 <sup>1)</sup> (명) No. of guards (persons)	교도관대비 평균수용인원 No. of prison inmates per guard	교도행정예산 <sup>2)</sup> (백만원) Prison budget (million won)	재소자 수용예산 budget on prison inmates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 3-12-17〉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Number of Captures by selected Drugs )

단위: 명

	계 Total		마약	향정	대마
		10만명당 Per 100,000			
1996	---	---	---	---	
1997					
2008					
2003	7,546		1,211	4,727	1,608

〈표 3-12-18〉 수감되지 않은 법규위반자  
( Unconfined Law-violators per 100,000 persons )

단위: 명(10만명당)

	1990 (10만명당)	1995 (10만명당)	2000 (10만명당)	2002 (10만명당)	2003 (10만명당)	2004 (10만명당)
형법범 재산범죄 절도 사기 강력범죄 폭행 상해 --- 위조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					
특별법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					



〈표 3-12-21〉 경찰력 구성  
(Composition of Police Forces)

단위: 명 (%)

	계 Total	근무관서별						직급별 By rank	
		경찰청 본부 Head office	1)대도시 경찰청 Metropol itan Police Agencies	지방경찰청 Provincial Police Agencies	경찰서 Police Stations	파출소 Police Boxes	2)기타 Others	3) 간부 Senior Staff	4) 비간부 Staff
1995 생략	---- (100.0)	-- ( )		-- ( )	-- ( )	-- ( )	-- ( )	---- ( )	---- ( )

- 1)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 Seoul, Busan, Daegu, Inchon, Ulsan city
- 2) 기타: 경찰대학(National Police University), 경찰종합학교(Police Comprehensive Academy), 중앙경찰학교(Central Police Training School), 경찰병원(National Police Hospital), 운전면허 시험관리단(Driver's License Agency)
- 3) 간부 :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이상
- 4) 비간부 : 순경, 경장, 경사

〈표 3-12-22〉 경찰관수 및 순찰차량수

Number of Policemen & Patrol Cars

단위 : 명, 개소, 대

In persons, facilities, cars

	경찰관수	경찰관 1인당 인구수	경찰서수	파출소수	순찰차량수 <sup>1)</sup>	파출소당 순찰차량수
	Number of Policemen	Persons per policeman	Number of policemen	Number of police boxes	Number of patrol cars	Per police box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서울 Seoul						
부산 Busan						
대구 Daegu						
인천 Incheon						
광주 Gwangju						
대전 Daejeon						
울산 Ulsan						
경기 Gyeonggi						
강원 gangwon						
충북 Chungbuk						
충남 Chungnam						
전북 Jeonbuk						
전남 Jeonnam						
경북 Gyeongbuk						
경남 gyeongnam						
제주 Jeju						
본청 및 직속기관 Headquarter & Subsidiary body						







〈표 3-12-25〉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Percentage of Arrests for Fleeing Traffic Accidents

단위 : 건, % 명

In cases, %, persons

	뺑소니 사고건수 No. of fleeing traffic accidents	총교통사고 사고대비 As % of total traffic accidents	검거건수 Arrest	검거율 Percentage of arrests	사망자수 Deaths	부상자수 Injured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서울 Seoul						
부산 Busan						
대구 Daegu						
인천 Incheon						
광주 Gwangju						
대전 Daejeon						
울산 Ulsan						
경기 Gyeonggi						
강원 gangwon						
충북 Chungbuk						
충남 Chungnam						
전북 Jeonbuk						
전남 Jeonnam						
경북 Gyeongbuk						
경남 gyeongnam						
제주 Jeju						
고속 Highway						



〈표 3-12-27〉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및 부상률  
(Death & Injury Rate Due to Highway Traffic Accidents)

단위: 건, %, 명

	발생건수 (A)			사망자수 (B)			부상자수 (C)		
	Number of Accidents	총교통사 고대비 As % of total traffic accidents	1 km당 Per km	Deaths	총교통사 고대비 As % of total traffic accidents	사망률 Death rate B/A	Injuries	총교통사 고대비 As % of total traffic accidents	부상률 Injury rate C/A
연도별	---	---	---	---	---	---	---	---	---
1996	8,222	3.1	4.4	1,082	8.6	0.132	16,687	4.7	2.030
2001	6,685	2.6	2.5	597	7.4	0.089	15,432	4.0	2.308

〈표 3-12-28〉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단위 : %

	계 Total	보행자 입장에서 응답한 경우 Walker's standpoint					
		운전자 부주의 Driver's carelessness	보행자 부주의 Walk's carelessness	교통혼잡 Traffic jam	도로구조의 잘 못 Street system	신호체계의 불 비 Signal system	기 타 Others
〈1997〉							
전 국							
시 부							
군 부							
남 자							
여 자							
15 ~19 세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세이상							
〈2001〉							
전 국							
동 부							
읍 면 부							
남 자							
여 자							
15 ~19 세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세이상							

%

계	운전자 입장에서 응답한 경우 Driver's standpoint						
	운전자 부주의 Driver's carelessness	보행자 부주의 Walk's carelessness	교통혼잡 Traffic jam	도로구조의 잘 못 Street system	신호체계의 불 비 Signal system	기 타 Others	
Total							<1997> Whole country Total for sis Total for guns  Male Femal  15 ~19 Years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Yeras & over  <2001> Whole country Total for sis Total for guns  Male Femal  15 ~19 Years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Years & over



〈표 3-12-31〉 재 해

Calamities

단위 : 천건

In 1,000 cases

연 도 Year	자 연 재 해 Damages from storm & floods		화 재 Fire incident		
	피해액(백만원) Amount of damage (In million won)	사망자수(명) Deaths (In persons)	발생건수(건) Number of cases (In cases)	건당 피해액(천원) Amount of damage per cases(In 1,000 won)	천건당 사망자수(명) Deaths per 1,000 cases (In persons)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 3-12-32〉 소방관수 및 소방자동차수

Number of Fire Fighters & Fire Engines

단위 : 건, % 명

In cases, %, persons

	소 방 관 수 (명) Fire fighters (In persons)	소방관 1인당 인구수 Persons per fire fighter	소방 자동차수 (대) Fire Engines (In engines)	소방 자동차 1인당 인구수 (명) Persons per fire Engine(In persons)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 3-12-33〉 주택형태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가입금액 및 보험료  
 (Number of Fire-Insurance and Amount of Insurance Payment by Type of Housing)

				2001	
보험가입건수(A)	건				
단 독				47,706	
연 립				43,050	
아파트				87,929	
기 타				422	
보험가입금액(B)	백만원				
단 독				7,313,592	
연 립				8,508,470	
아파트				199,696,216	
기 타				281,041	
보험료(C)	백만원				
단 독				1,883	
연 립				1,853	
아파트				25,645	
기 타				67	
1000주택당 가입률1)				????	
단 독				????	
연 립				????	
아파트				???	
기 타				????	
주택당 보험가입금액(B/A) 백만원					
단 독				153	
연 립				198	
아파트				2,271	숫자가이상함
기 타				666	
주택당 보험료(C/A) 천원	천				
단 독				39	
연 립				43	
아파트				292	
기 타				159	

1) 1000주택당 화재보험가입률 = (주택형태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주택형태별 주택수)×1,000



〈표 3-12-34〉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  
 Unexpected Deaths & Injuries Due to Industrial, Social and Other Accidents

단위: 명, 백만원

	사고명 Name of Accident	사망자 Deaths	부상자 Injuries	피해액 (경상가격) Amount (Current price)	사고원인 Causes of Accidents
19??	대연각 화재	---	---	---	---
19??	삼풍백화점 붕괴				
19??	성수대교 붕괴				
--	----				

〈표 3-12-35〉 구속영장 발부율  
 (Percentage of Warrants Issued)

단위: 건. %

	청구 및 신청(A)	기각(B) Rejection		발부(E) Issued	미집행 Discharged	발부율 및 기각율 Percentage of Issued and Rejection		
		검사(C) By the prosecution	판사(D) By judge			E / A	C/A	D/A
2001 계	144,643	24,028	15,320	105,294	1,100	72.8	16.6	10.6
검사	10989	---	908	10,083	---	91.8	---	8.3
사경	133,654	24,028	14,412	95,211	1,100	71.2	18.0	10.8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02, p.312.

〈표 3-12-36〉 소 송 사 건 (처 리)  
 Judicial Processing of the Cases (Disposed)

단위 : 천건

In 1,000 cases

연 도 Year	계 Total	인구만명당(건) Per 10,000 persons(In cases)	민 사 Civil cases	가 사 Family cases	행 정 <sup>1)</sup> Administra tive cases	형 사 Criminal cases	소 년 <sup>2)</sup> Juvenile cases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 3-12-37〉 기소에서 선고까지의 평균일수  
 Averaged Days taken between marking a Charged and Disposing of It

단위: 일

	총평균일수 Averaged days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소년
연도별		---	---	---	---	---

〈표 3-13-1〉 공무원 수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Per 1,000 Population)

	공무원 수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A)	총인구 Total number of population (B)	비율 (A)/(B) × 1,000

〈표 3-13-2〉 공무원 부처별 분포  
 Distribution of Public Officials by Government Sector

	각 부처별 공무원 수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by sector (A)	전체 공무원 수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B)	비율 (A)/(B) × 100

〈표 3-13-3〉 여성 고위 공무원 비중  
Percentage of Senior Female Government Officials

	여성 고위공무원 수 Number of senior female government officials (A)	총 고위 공무원 수 Number of senior government officials (B)	비율 (A)/(B) × 100

〈표 3-13-4〉 전자정부(E-gov.) 서비스 만족도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s

	대만족이다 Absolutely satisfied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More or less satisfied	그저 그렇다 Middling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만족스럽지 못하다 Not satisfied, since E-gov. is still in its infant stage	전자정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E-gov. is not functioning as it should

〈표 3-13-5〉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Reasons for Dissatisfaction with Government Services

담당공무원의 무성의와 불친절 Rudenes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불필요한 각종 법규 Unnecessary red-tape	필수 불가결한 법규의 미비 Absence of very basic regulations governing efficient functioning of government offices	blfdy한 각종 시설의 미비 Lack of facilities available at government offices	각 행정부서간 중복되는 업무관장에서 비롯되는 행정업무의 혼선 Inefficiencies resulting from overlapping of administrative works between government offices

〈표 3-13-6〉 GDP대비 기능별 예산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to GDP

	기능별 예산액 Government expenditure (A)	GDP (B)	비율 (A)/(B) × 100

〈표 3-13-7〉 정부예산의 구성 : 기능별 예산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기능별 예산액 Govern- ment expendit- ure (A)	일반재정 General services	국방 Defense	교육 Education	사회개발 Social develop- ment	경제사업 Economic services	지방재정 등 Finances to local governm- ents, etc	총예산액 Total budget (B)	비율 (A)/(B) × 100

〈표 3-13-8〉 국민 1인당 기능별 예산액  
Per Capita Government Expenditure

기능별 예산액 Government expenditure (A)	총인구 Total population (B)	비율 (A)/(B)

〈표 3-13-9〉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세입총액 Total revenue (A)	지방세 수입 Local tax revenue (B)	세의 수입 (Non-tax revenue (C)	재정자립도 = ((B)+(C))/(A)

〈표 3-13-10〉 조세형평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Taxation Policy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음 Tax burden is unbearably heavy	비교적 많이 내는 편임 Tax burden is heavy	적당한 편임 Tax burden is neither heavy nor light	적게 내는 편임 Tax burden is not so heavy	매우 적게 내는 편임 Tax burden is negligible

〈표 3-13-11〉 투표율(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Rate of Voter Turn-out (General Election and Local Assembly Election)

	선거인 비율 Percentage of eligible population	투표율 Voter turn-out rate

〈표 3-13-12〉 정치에 대한 관심  
Interest in Politics

	매우많다 Extremely interested in	많다 Always interested in	있는 편이다 More or less interested in	적다 Not much interested in	전혀 없다 Not interested in at all



〈표 3-13-13〉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  
Criteria for Voting for a Candidate in Election

	후보자 개인 인품 Candidate's personality	후보자 소속정당의 정책 Policies of candidate's political party	특정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 Candidate's rational decision-making on particular issue

〈표 3-13-14〉 정치인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Evaluation of Politician's Credibility(Parliament, Local Assembly aMembers)

	전적으로 신뢰한다 Absolutely credible	신뢰하는 편이다 More or less credible	무관심하다 Indifferent	신뢰하지 않는다 Not credible

〈표 3-13-15〉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중  
 Percentage of Women Parliamentarians in National Assembly

	총 국회의원 수 Number of parliamentarians (A)	여성 국회의원 수 Number of women parliamentarians (B)	비중 Percentage = (B)/(A) × 100

〈표 3-13-16〉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중  
 Percentage of Female Members in Local Assembly

	총 지방의회의원 수 Number of local assembly members (A)	여성 지방의회의원 수 Number of female members in local Assembly (B)	비중 Percentage = (B)/(A) × 100

〈표 3-13-17〉 통일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National Unification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속히 이루어 져야한다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by all means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야한다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realized step by step, even if it takes time	현재의 분단 상태가 좀 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Current state of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had better be left as it is, for the time being

〈표 3-13-18〉 통일방식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Mode of Unification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 Absorption of North by South	남북한 연방제 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기타방법 Other mode of unification

〈표 3-13-19〉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미국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Japan, China, Russia) and the U.S.

	가장 친근미를 느낀다 Feel extremely close to	다소 친근미를 느낀다 Feel more or less close to	친근미도 거부감도 느끼지 않는다 Feel neither close to nor alien to	다소 거부감을 느낀다 Feel somewhat alien to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Feel extremely alien to

〈표 3-13-20〉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Future of the Country

	낙관적이다 Optimistic	회의적이다 Skeptical	비관적이다 Pessimistic

〈표 3-13-21〉 사회단체 참가율  
Participation Rate In Social Organization

	사교단체 Social community	종교단체 Religious organization	스포츠, 레저단체 Sports, leisure organization	사회봉사단체 Civic volunteer organization	학술단체 Academic group	정치 및 각종 이익단체 Political and interest groups

〈표 3-13-22〉 사회교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in Social Education

	일반교양교육 General education	기술 및 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	평생교육 Continuing education

〈표 3-13-23〉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Participation Rate in Volunteer Work

	지역환경 보호운동 Local environmental movement	국가 및 지역행사 자원봉사 Volunteer work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자녀교육관련 봉사활동 Volunteer work for education of children	복지시설 봉사활동 Volunteer work for welfare facilities	재해복구 봉사활동 Volunteer work for disaster relief

〈표 3-13-24〉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 비율  
Ratio of Various Fund Contributors

	후원금, 기부금 제공자 수 Number of Fund Contributors (A)	15세 이상인구 Number of population aged over 15 years (B)	제공자 비중 (A)/(B) × 100

〈표 3-13-25〉 노인의 사회활동 참가율  
Ratio of Old-age Population Participating in Social Organization

	친목단체 Fraternities and sororities	스포츠 및 레저단체 Sports & leisure club	사회활동 참가노인수 Number of old-age population participating in social organization (A)	65세 이상 전체인구 Number of population aged over 65 years (B)	사회활동 참가율 (B)/(A) × 100

〈표 3-13-26〉 종교인구분포  
Percentage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Religion

	불교 Buddhist	기독교 Protestant	천주교 Catholic	유교 Confucianist	원불교 Won Buddhist	천도교 Cheondogyo

〈표 3-13-27〉 종교집회 참여도  
Frequency of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religiosity)

	일주일에 한번이상 More than once a week	한달에 한번이상 More than once a month	일년에 한번이상 More than once a year

〈표 3-13-28〉 해외봉사활동 참가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Abroad

	교육, 문화부문 Education and culture	공업, 기술자문 부문 Industrial and technical assistance	의료, 보협부문 Medicine and Public health



〈표 3-13-29〉 해외교포단체 수  
 Number of Overseas Korean Community Organization

	재외교포 교육재단 수 Number of overseas Korean educational foundations	재외 한인 상공인 협회 수 Number of overseas Korean business networks

〈표 3-13-30〉 사회적이동애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Social Mobility

	가능성이 높다 Highly mobile	보통이다 Middling	가능성이 낮다 Rarely mobile

〈표 3-13-31〉 주관적 사회계층의식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상류 Upper	중류 Middle	하류 Low

〈표 3-13-32〉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Foreign Workers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국내유입은 적극 권장할 만하다 Steady and continuing inflow of foreign workers is highly desirable	현재 국내 경제사정에 비추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은 당분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view of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flow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llowed for, for the time being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Steady and long-lasting inflow of foreign workers is not desirable at all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한다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implement concrete measures to prevent further inflow of foreign workers

〈표 3-13-33〉 탈북자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Refugees from North Korea

	긍정적이다 Positive	무관심하다 Indifferent	부정적이다 Negative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참여진〉

###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고 철(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권태환(서울대학교 교수)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손연기(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남훈(건강증진사업평가단 단장)
------	--

### 연구진

책임연구원	장영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부문별 집필책임자

1) 인구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가구와 가족	권태환(서울대학교 교수)
3) 소득과 소비	남상호(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장)
4) 노동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5) 교육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6) 보건	박재용(경북대학교 교수)

7) 주거와 교통	주택 손경환(한국국토개발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교통 김영호(영산대학교 교수) 정경옥(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8) 정보와 통신	홍동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산업연구실장)
9) 환경	정영근(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0) 복지	권선진(평택대학교 교수)
11) 문화와 여가	정갑영(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조현성(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
12) 안전	한성덕(대구대학교 교수)
13) 사회참여	이홍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성인지표 개발을 위한 참고부문

1) 여성	문유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

---

정 부

---

선주대(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권오술(통계청 전 사회통계과장)  
전신애(통계청 사회통계과장)  
우사임(통계청 전 사회통계과 사무관)  
나윤정(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김응하(통계청 사회통계과)  
서경숙(통계청 사회통계과)